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眞言의 한글 표기법 연구

-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안 영 희

국 문 초 록

본고는 『五大眞言』(1485)를 대상으로 한글의 眞言 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의 특성상 한글 표기와 범자·한자가 함께 병기되어 있으며 진언 범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음절단위로 梵-韓-中 대응을 찾아 통계하였으며 한자의 음가는 중국에서 불경이 번역되던 7-8세기의 前期 中古漢語 시기 재구 음가를 참고하였다.

우선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기본 음절에서 범자 자음 ‘ś’, ‘y’의 구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 ‘이’가 대응하거나, 범자의 ‘e’ 모음에 한글 ‘예’가 대응하고 범자의 ‘ai’ 모음에는 ‘애, 익, 에’가 대응하며, 범자의 ‘u’와 ‘o’ 모음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는다.

복자음 음절에서는 복자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한글 표기법이 적용되는데, 우선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으’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범자 ‘kra’는 한글 표기 ‘ㄱ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2자음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표기를 사용한다. 즉 범자 ‘kya’는 한글 ‘가’로 표기된다. 다음으로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을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범자 ‘ma-rga’는 한글 ‘말아’로 표기한다. 즉 한글 ‘-ㄹ’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r’과 대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류인 경우는 ‘ㅅ’계 합용병서의 표기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의 한글 표기는 ‘싸’이다.

다음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반영된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보겠다. 초성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자음 ‘ㄱ, ㄷ, ㅂ’는 진언 표기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비음의 ‘ㅇ, ㄴ, ㅁ’는 중국어 번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범어의 유성음과 대응하고 있지만, 당시 한국어 비음에 유성성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성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은 비록 대부분

‘아’로 대응하지만 기타 모음 ‘으, 어, 으’ 등도 대응한다. 그리고 한글 모음의 분류와 한자 운모의 등운과의 규칙성 대응의 경향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음성모음인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 양상이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에서 한국어의 종성자음이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성 자음의 ‘-ㄱ’는 한자 자모 來母 및 유사한 음가의 한자 성모와 대응한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범자 표기에 ‘ㅅ’계 합용병서 표기와 ‘-ㅅ’의 종성자음의 표기가 혼용한다.

주제어: 진언, 다라니, 실담자, 한글 표기법, 범한대응, 중고한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선행연구	2
1.3. 연구의 자료와 방법	4
제 2 장 진언 자료의 기초적 이해	7
2.1. 悉曇 梵字와 산스크리트	7
2.1.1. 悉曇章의 摩多와 모음체계	7
2.1.2. 悉曇章의 體文와 자음체계	11
2.1.3. 복자음의 유형과 음운현상	15
2.2. 범자 대응 단위의 고찰	20
2.2.1. 한글 텍스트의 절 경계	20
2.2.2. 범자 음절 단위의 분리	26
2.3.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	30
제 3 장 梵字 기본 음절의 한글 표기	41
3.1. 기본 開音節의 표기	41
3.1.1. ‘C+a’ 음절	41
3.1.1.1. 아음류	41
3.1.1.2. 설음류	45
3.1.1.3. 권설음류	48
3.1.1.4. 순음류	50
3.1.1.5. 치음류	52
3.1.1.6. 후음류 및 기타	56
3.1.2. ‘C+i’ 음절	58
3.1.3. ‘C+e’, ‘C+ai’ 음절	63

3.1.4. ‘C+u’, ‘C+o’, ‘C+au’ 음절	70
3.2. 기본 閉音節의 표기	78
3.2.1. ‘-m’류	78
3.2.1.1. [m]	78
3.2.1.2. [n]	80
3.2.1.3. [ŋ]	82
3.2.2. ‘-h’류	84
3.3. 기타 음절의 표기	86
3.3.1. 모음음절	86
3.3.2. 자음음절	87

제 4 장 梵字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 88

4.1. ‘C+제2자음’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88
4.1.1. 제2자음 ‘y’류	88
4.1.1.1. ‘a’ 모음	88
4.1.1.2. 기타 모음	91
4.1.2. 제2자음 ‘r’류, ‘l’류	93
4.1.2.1. ‘a’ 모음	93
4.1.2.2. 기타 모음	95
4.1.3. 제2자음 ‘v’류	98
4.1.3.1. ‘a’ 모음	98
4.1.3.2. 기타 모음	100
4.1.4. 제2자음 ‘m’류	101
4.1.5. 제2자음 ‘n’류	103
4.1.6. 제2자음 ‘-r’류	104
4.2. ‘제1자음+C’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106
4.2.1. 제1자음 ‘r’류	106
4.2.1.1. 표기 유형(1)	106
4.2.1.2. 표기 유형(2)	108

4.2.1.3. 표기 유형(3)	112
4.2.1.4. 표기 유형(4)	114
4.2.2. 제1자음 ‘N’류	116
4.2.2.1. 제1자음 ‘n’류(1)	116
4.2.2.2. 제1자음 ‘n’류(2)	120
4.2.2.3. 제1자음 ‘ŋ’류	124
4.2.2.4. 제1자음 ‘ɲ’류	126
4.2.2.5. 제1자음 ‘ɳ’류	128
4.2.3. 제1자음 ‘T’류	129
4.2.3.1. 표기 유형(1)	129
4.2.3.2. 표기 유형(2)	132
4.2.4 제1자음 ‘S’류	134
4.2.4.1. 제1자음 ‘s’류(1)	134
4.2.4.2. 제1자음 ‘s’류(2)	136
4.2.4.3. 제1자음 ‘ʃ’류(1)	139
4.2.4.4. 제1자음 ‘ʃ’류(2)	142
4.2.4.5. 제1자음 ‘ʒ’류	143
4.2.5. 제1자음 ‘k’류	145
4.2.5.1. 표기 유형(1)	144
4.2.5.2. 표기 유형(2)	146
4.2.6. 제1자음 ‘m’류	149
4.3. 복자음 閉音節의 표기	151
4.3.1. ‘-m’류	151
4.3.1.1. 표기 유형(1)	151
4.3.1.2. 표기 유형(2)	155
4.3.1.3. 표기 유형(3)	157
4.3.2. ‘-h’류	159
4.3.2.1. 표기 유형(1)	159
4.3.2.2. 표기 유형(2)	161

제 5 장 한글 진언 표기의 음운 특징	163
5.1. 한글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	163
5.1.1. 실담장의 한글 표기	163
5.1.2. 자음의 대응 비교	170
5.1.2.1. 초성 자음의 대응 비교	170
5.1.2.2. 종성 자음의 대응 비교	175
5.1.3. 모음의 대응 비교	178
5.2. 한글 음소 표기의 특징	181
5.2.1. 초성 표기	181
5.2.1.1. ‘ㄱ, ㄷ, ㅂ’	181
5.2.1.2. ‘ㅇ, ㄴ, ㄹ’	184
5.2.1.3. ‘병’	187
5.2.2. 중성 표기	190
5.2.2.1. ‘으, 으’	190
5.2.2.2. ‘아, 어’	191
5.2.2.3. ‘오, 우’	192
5.2.3. 종성 및 합용병서	196
5.2.3.1. ‘-ㄱ’와 ‘-ㄷ’	198
5.2.3.2. ‘-ㅅ’계 합용병서와 ‘-ㅈ’	203
제 6 장 결론	208
참고문헌	210
부록1.	214
부록2.	243
부록3.	248
부록4.	252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고는 1485년의 『五大眞言』(이하 ‘오대진언(1485)’이라 약칭)을 중심으로 眞言의 한글 표기 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眞言은 陀羅尼라고도 불리는데, 불경에서 呪文의 성격을 지닌다. 불경 번역은 일반적으로 意譯이 아니라 音譯으로 진행된다. 오대진언(1485)에는 범자, 한자, 한글 세 문자가 병기(併記)되어 있으며 한자는 梵-中 번역음을 표기하고, 한글은 梵-韓 번역음을 표기한다. 梵-韓 번역에는 梵-中 번역의 간섭과 영향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과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梵-韓-中의 대응 규칙을 찾아야 한다.

이에 앞서 진언의 범자와 한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부터 시작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진언 범자의 자형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실담 범자의 자형과 차이가 있다. 이에 한국의 진언 범자와 일본의 범자와의 정밀한 비교를 통하여 로마자로 전환된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오대진언(1485)에 쓰인 범자의 중국어 번역은, 7-8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자에 반영된 중국어의 음가는 前期 中古音이다. 그리고 비록 진언의 한글 표기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梵-韓 번역은 이미 이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므로, 진언의 한글 표기에 반영된 한국어의 음운 현상은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의 특징도 반영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진언 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음운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음에도, 진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진언 자료에 대한 기초적 정리 작업과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을 우선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몇몇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본고에서는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일부 대표적인 선행연구만 살펴볼 것이다.¹⁾ 기존 연구를 보면 진언 연구의 주요 논의는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법과 실담장의 표기 원칙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범어에서 한 음절에 여러 자음이 연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重字, 子音聯續, 자음군’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본고는 산스크리트 언어 연구 저서인 전순환(2012)를 따라서 ‘복자음’이라 부르겠다.

먼저 안주호(2003)을 보면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한글의 진언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重字’의 한글 표기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의 표기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즉 약모음 ‘·, ㅣ’를 넣어 음절로 표기하는 방법, 합용병서를 쓰는 방법, 앞 자의 성모와 뒷글자의 운모를 합하여 만드는 방법, 어두자음군 중 첫 자를 앞글자의 종성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다. 이는 본고에서 고찰한 한글 진언 표기의 방법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극히 일부의 예만 제시하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본고는 오대진언(1485)에서 나타나는 모든 복자음 음절의 유형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글 진언의 표기 방법을 일일이 고찰하였다. 한편, 안주호(2003)에서는 한글 표기의 통계에 있어서 단순히 한글의 초성, 중성만을 중심으로 출현 횟수의 통계를 진행하였는데 본고는 梵-韓-中 음소 단위의 대응규칙을 찾아서 통계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伊藤智ゆき(2007)은 실담장의 한글 표기의 판본별 비교와 오대진언(1485) 등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를 모두 망라하여 고찰하였으며 또 당시 중세한국어의 현실한자음과의 비교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같이 방대한 자료들을 망라하여 다룬 것에 비하여 세부적인 진언 표기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미약하다. 특히 범자의 ‘子音聯續’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 당시 한국의 편찬자들이 청각적으로 범자 자음의 공명도와 관련하여 음성학적인 인지를 통해 선택된 표기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즈노 순페이(2011:135)에서는 15세기로부터 19세기까지의 진언 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사이 일어난 음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 자음

1) 기타 관련 선행연구들은 미즈노 순페이(2011:133-134)를 참고할 수 있다.

군의 음사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음성학적인 관점의 접근 방식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즈노 슌페이(2011)은 오대진언(1485)의 일부 다라니를 선정하여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담장의 표기 원칙은 梵-韓-中의 대응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한글 표기의 고찰은 梵-韓 대응만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한편, 범자 ‘자음군’의 한글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자 표기 방법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대응 분석으로 진행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실제 한글 표기의 고찰에 있어, 한자가 반영하는 당시 고대 중국어의 음가와 함께 梵-韓-中 대응으로 규칙성을 찾아서 실담장의 표기 원칙과 비교하였으며,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 고찰에서는 한자 표기와 비교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히 한글 표기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연구의 자료와 방법

본고는 오대진언(1485)의 원간본을 참고자료로 하였다. 오대진언(1485) 원간본은 월정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793-5’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에서 발굴된 것으로 1984년에 국가 보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유산’에서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상원사본 오대진언(1485)라 부르기도 한다.

오대진언(1485)는 조선시대 學祖²⁾가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오대진언(1485)는 여러 개의 진언을 모아서 만든 일종의 眞言集 자료이다. 수록 된 다라니를 보면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陀羅尼”,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隨求即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등 6개의 다라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四十二手眞言”은 手印眞言으로 후행하는 “神妙章句大陀羅尼”와 하나의 다라니로 묶을 수 있다.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는 모두 大悲心陀羅尼의 종류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다라니이다(남경란 1999 참고).³⁾ 본고는 “四十二手眞言”과 “神妙章句大陀羅尼”를 하나로 묶고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를 서로 다른 다라니로 분리하여 총 다섯 다라니로 하여 이들을 ‘신묘장구대다라니’, ‘근본다라니’, ‘수구즉득다라니’, ‘대불정다라니’, ‘불정존승다라니’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순서별로 로마자 대문자 ‘S, G, Q, D, F’으로 표기하였다.

오대진언(1485)의 진언 기록 문자는 梵字, 漢字, 한글의 세 문자로 되어

-
- 2) 學祖(?-?)는 본관이 安東이고 속성은 김씨이며 호는 燈谷, 黃岳山人이다. 아버지는 金係權이다. 信眉, 學悅등과 함께 선종의 승려로서 세조시기 많은 불경을 번역, 간행하였다. 그는 1464년(세조 10) 속리산 福泉寺에서 신미, 학열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고, 1467년 왕명으로 금강산 楡岾寺를 중창하였으며, 1488년(성종 19) 仁粹大妃의 명으로 海印寺 중수 및 대정경판당을 중창하였고, 1500년(연산군 6) 왕비의 명으로 해인사의 대장경 3부를 刊印하고 그 발문을 지었으며, 1520년(중종 15) 왕명으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 1부를 간인하였다. 그리고 그에 의해 번역, 교정되어 완성된 불전으로 『地藏經諺解』, 『金剛經三家解諺解』, 『千手經』, 『證道歌南明繼頌』, 『六祖法寶壇經諺解』, 『眞言勸供·三壇施食文諺解』, 『五大眞言』 등 다수가 있다.
- 3) 오대진언(1485)의 뒷부분에는 진언의 영험을 담은 글인 ‘靈驗略抄’가 합철되어 있는데 판심제가 ‘五大’로 되어 있다. ‘영험약초’에는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를 하나의 ‘대비심다라니’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다.

있다. 그 중 漢字의 중국어 번역은 다라니 S, G, Q, D에서는 모두 ‘大廣智三藏沙門 不空譯’⁴⁾이라 제시되어 있고, F만이 ‘闍賓國三藏沙門 佛陀波利譯’⁵⁾이라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한자 번역은 오대진언(1485)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다. 그리고 범자는 일본의 실담 범자와 비교하여 로마자로 전환하였으며 한자 표기 번역과 한글 표기 번역과 함께 부록1에 정리되어 있다. 실제 문헌에는 한글 번역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부록에서 거성의 방점을 숫자 ‘1’, 상성의 방점은 숫자 ‘2’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한글 초성, 중성, 종성의 표기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방점 표기는 잠시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오대진언(1485)에 반영된 언어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부록2에서는 다라니 S를 예로 들어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의 텍스트를 로마자로 전환하여 범자 텍스트와 비교하여 보았다. 범자 텍스트는 오대진언(1485) 및 기타 진언 자료인 <진언집>의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 실린 같은 다라니의 범자 텍스트도 함께 제시하였다. 산스크리트 원문 텍스트는 전순환(2005)를 참고하였다. 오대진언(1485)의 범자 텍스트는 비록 원문과 비교하여 일부 차이가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하여 텍스트의 언어는 산스크리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대진언(1485),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은 비록 판본별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범자 텍스트에 나타나는 차이는 매우 적다. 즉 한국 내부에서의 범자 텍스트의 전승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제2장에서는 우선 범자 즉 문자를 단위로 음절구조적인 분석을 하여 ‘범자의 음절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의 대응 예들을 찾아 음절 단위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4) 不空(705년-774년)은 師子國(오늘의 스리랑카) 사람이다. 唐나라의 密宗祖師 중의 한 사람으로 중국에서 善無畏, 金剛智와 함께 ‘開元三大士’ 불린다. 그리고 鳩摩羅什, 玄奘, 眞諦와 함께 중국 불교계의 4대 譯經家로 불리기도 한다. 10세부터 중국에서 생활하였고 15세부터 금강지를 따랐으며 그 후 중국과 天竺 등의 지역을 왕복하면서 많은 梵本 불경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 그는 평생 거의 110여부 등 다수의 밀교경전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5) 佛陀波利(?-?)는 闍賓國(오늘의 카슈미르 지역) 출신의, 唐高宗 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승려이다. 676년에 중국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에 계빈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그가 번역한 불경으로는 주로 『佛頂尊勝陀羅尼經』, 『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있다.

음절 유형에 따라 제3장에서는 기본 음절의 표기를, 제4장에서는 복자음 음절의 표기를 고찰하였는데 기본 음절의 고찰은 음가 대응 규칙을 찾는 데 중심을 두었고 복자음 음절의 고찰은 한글의 표기 방법을 고찰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오대진언(1485) 실제 한글 표기와 실답자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일부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찾아보았다.

제 2 장 진언 자료의 기초적 이해

본 장에서는 진언 자료의 기초적인 이해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범자의 자형과 산스크리트의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다음 텍스트의 경계 단위와 범-한-중 대응 예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1. 悉曇 梵字와 산스크리트

2.1.1. 悉曇章의 摩多와 모음체계

悉曇字는 梵字의 일종이며 7세기에서 13세기까지 북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던 문자이다.⁶⁾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온 많은 불전들이 싘담자로 기록되어 있다(전순환 2012:43). ‘悉曇’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 siddham의 한자 음사어이며 이는 ‘완성된’ 또는 ‘완벽한’ 등의 의미를 지닌 siddha와 ‘문자’를 의미하는 mātṛkā의 합성어이다(김현덕 2016:158-159). 하지만 오늘의 중국에서는 싘담자의 문헌자료를 찾기 힘들다. 일본의 구법승 空海(774-835)가 唐나라로부터 밀교와 함께 싘담자료를 일본으로 가져왔으며 싘담 연구는 일본에서 점차 悉曇學을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다.

悉曇學의 발전에 悉曇章 연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悉曇章이란 渡邊英明(1983:89)에서는 “싘담범어의 字母와 字體를 배열하고, 字를 만들

6) 현재 인도의 북부와 남부에서 사용되는 100여개 이상의 문자들의 모체는 브라흐미(Brahmī) 문자이다. 브라흐미 문자는 형태 변화에 따라 인도의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게 되는데 북부에서 4세기 즈음 나타나기 시작한 굽타 문자는 산스크리트를 위해 사용되었고 굽타 문자에서 몇 개의 변이형이 발전되는데 그 가운데 悉曇 문자가 있다. 또 다른 변이형으로 나가리(Nāgarī) 문자가 있으며 나가리 문자는 8세기 무렵부터 사용되었고 원래는 산스크리트를 쓰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벵골어, 네팔어, 티베트어와 같은 많은 언어들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deva- ‘신; god’라는 단어가 붙여진 ‘데바나가리(Deva-Nāgarī)’가 ‘나가리’보다 더 대중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전순환 2012:39-45).

어 내는 결합 방법 등을 기록한 하나의 형식적·조직전인 音韻書”라고 하였고, 周廣榮(2004:6)에서는 “범어를 배우는 가장 초급의 교재를 말하는 것으로, 주요 범문자모와 아울러 이들이 병합하고 連聲하는 등의 기본적 語音과 어법을 알게 해주는 것을 실담장”라 한다고 하였다(강대현 2014: 14-15 재인용). 일본에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오거나 일본에서 자체로 만든 다양한 실담장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 唐나라 智廣(760?-830?)의 《悉曇字記》, 安然(841-?)의 《悉曇藏》(880) 등이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馬淵和夫(2006), 강대현(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범자로 기록된 제일 이른 시기의 진언은 葛項寺의 묵서 다라니인 准提眞言(758)이고, 한자로 기록된 것은 이보다 좀 더 이른 시기의 佛國寺 釋迦塔에서 나온 無垢淨光大陀羅尼(701-751)이다(남권희 2005).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범자 혹은 한자 기록의 진언이 늦어도 8세기 중엽에는 이미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悉曇章도 있는데 『고려대장경』의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에 不空의 실담장 50字門이 실려 있으며 범자와 한자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다(안주호 2002:177-178).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서명이 『眞言集』인 책에 ‘梵本五十字母悉曇章’이 실려 있으며 이 책 이후로는 범자, 한자, 한글이 모두 표기된다.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범자 자료의 자형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유통되는 범자 자형과 비교하여 보면 일부 차이들이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범자 역시 실담 범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 본고가 고찰할 오대진언(1485)에는 실담장이 실려 있지 않다.

현재 『眞言集』은 여러 판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이 있다.⁷⁾ 이 중 망월사본(1800)이 간행 배경과 보존 상태로 보아 한국의 범자 자형을 이해하는 데 제일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7) 18세기의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은 중간본이다. 망월사본(1800)의 범례와 실담장은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중간본의 실담장은 앞서 기존의 실담장 범자의 오류를 교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심사본(1569)에서 한자 ‘佉’와 대응하는 범자와 ‘識’ 대응 범자가 뒤바뀌었는데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서 정확하게 되돌려 놓았다.



안심사본(1569)















망월사본(1800)

진언집 실담장에서 큰 글씨로 제시된 범자가 있는데, 이를 아래 [표1]에서 ‘大字’라 하였다. 이외에 한자 표기의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시된 여러 개의 범자도 있다. 大字로 제시된 범자의 형태는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예적인 성격이 강하며 실제로 진언의 본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진언 범자로 나타나는 자형은 한자 표기 아래에 제시된 작은 글씨의 범자들인데 이들은 범자가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이체 형태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실담장 끝부분에 또 다시 보다 작은 글씨 범자의 제시가 있는데 이는 大字의 원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小字’라 할 것이다. 아래 범자의 이체 형태까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므로 본 장에서는 大字와 小字의 제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필요 시 이체 형태의 범자도 언급할 것이다.

아래의 [표1]에서는, 한국 범자 자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일본에서 유통하는 범자 자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일본의 실담자 자형의 이미지는 馬淵和夫(2006:2-11)을 참고하였다. 먼저 범자 摩多의 자형과 범어의 모음체계에 대해 보겠다.

[표1] 진언집 悉曇章 摩多의 자형 및 문자전환

제1면 左				제1면 右			
전환	일본	大字	小字 ⁸⁾	전환	일본	大字	小字
a			* 	u			* 
ā			* 	ū			* 
i				e			
ī				ai			
제2면 左				제2면 (助音) 右			
전환	일본	大字	小字	전환	일본	大字	小字
o			* 	r(ri)			
au			* 	ṛ(rī)			

am			* 	l(li)			
ah			* 	l̄(lī)			










위 도표에서 ‘전환’은 로마자로의 전환을 말한다. 범자 마다는 한글의 중성과 같은 것으로 제1면과 제2면의 좌와 우로 모두 4개의 면에 16개 범자摩多가 제시되어 있다. 小字에 ‘*’으로 제시된 것이 있는데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는 이체 형태의 범자를 제시한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의 小字는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는 범자 자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앞 3개의 면에 제시된 12개 범자 마다를 通摩多라 부르고 마지막 면의 범자 마다를 別摩多라 부른다.

먼저 별마다부터 보면 ‘r, ṛ, l, ḷ’을 전순환(2012:51-52)에서는 ‘소난트(Sonant)’라 부른다. 소난트란 r, l, m, n 등의 유음(Liquid) 또는 비음(Nasal)의 레소난트(Resonant) 자음들이 특정 환경에서 즉 자음 사이에 놓이게 될 때 모음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된 모음들을 말한다. 4개의 소난트 중 ‘ṛ’은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며 고전적 문자 전환에서는 ‘ri, rī, li’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의 도표에서 진언집의 실담 범자를 보면 고전적 문자 전환과 같이 ‘ri, rī, li, lī’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면의 ‘am, ah’ 두 범자가 있는데 이는 문자라기보다 문자적 기호에 가깝다. 즉 ‘am’는 범자 ‘a’의 꼭대기에 ‘ˆ’의 점을 찍고 있으며 ‘ah’는 범자 ‘a’의 오른쪽에 ‘˙’의 두 점을 찍고 있다. 전자를 ‘아누스와라’, 후자를 ‘위사르가’라 부른다(전순환 2012:56).

기타 남은 마다로는 ‘a, ā, i, ī, u, ū, e, ai, o, au’ 10개가 있다.⁹⁾ ‘a:ā’,

8) 실제로 小字 즉 大字의 원형 제시에서 ‘a ’, ‘ā ’, ‘u ’, ‘ū ’, ‘o ’, ‘au ’로 되어 있다. ‘ah’와 ‘am’ 또한 ‘a ’에 문자적 기호와 함께 각각 ,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小字들은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이고 小字의 기타 이형태 표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들을 찾을 수 있다. 도표에서 ‘*’ 기호가 표기된 범자는 이형태 범자로 교체된 것들이다.

9) 진언집 범자의 大字 자형을 보면 대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크다. 하지만 小字들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일본의 실담 범자와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au’

‘i:i’, ‘u:ū’, ‘e:ai’, ‘o:au’는 短音과 長音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중 ‘a:a’, ‘i:i’, ‘u:ū’는 單母音이고, ‘e:ai’, ‘o:au’는 二重母音이다. 하지만 ‘e, o’는 ‘ai, au’와의 장단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실제 음성적으로는 ‘e, o’는 장음에 속하며 이중모음으로 인지된다.

위의 로마자 전환은 단순 문자 전환이므로 실제 범어의 음가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문자적 기호의 아누스와라 ‘m’와 위사르가 ‘h’는 제외하였다.)

[표2] 산스크리트 모음체계 음가 (전순환 2012:52)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일모음	문자변환 음가	a [e], [ə]	ā [a:]	i [i]	ī [i:]	u [u]	ū [u:]
소난트	문자변환 음가	r [ɾ]	ṛ [ɾ:]	l [l]	ḷ [l:]		
이중모음	문자변환 음가	e [e:]	ai [a:i]	o [o:]	au [a:ɔ]		

위의 음가를 보면 ‘a’의 음가는 실제로 [e], [ə]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순환(2012:53)에서는 사실 ‘a’의 음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음성학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 두 음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위의 범자 장단음의 한글 진언 표기에 대한 고찰을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본고의 ‘a’ 모음은 ‘a, ā’ 모음을 포함하고, ‘i’ 모음은 ‘i, ī’ 모음을 포함하며, ‘u’ 모음은 ‘u, ū’ 모음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중모음의 ‘e’와 ‘ai’, ‘o’와 ‘au’는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은 각각의 모음으로 제시할 것이다.

2.1.2. 悉曇章의 體文과 자음체계

다음은 이어서 실답장 제3면부터 제6면까지의 범자 體文에 대해 보겠다.

에서 가 좀 특이한데 이는 진언집 범자의 大字 의 머리 부분의 형태를 따르고 있음이 보인다. 이외 기타 小字 범자들은 일본의 범자와 거의 일치한다.

[표3] 진언집 悉曇章 體文의 자형 및 문자 전환

제3면 牙音 (左)				제3면 齒音 (右)			
범어	일본	大字	小字	범어	일본	大字	小字
ka				ca			
kha				cha			
ga				ja			
gha				jha			
ṇa				ṇa			
제4면 舌音 (左)				제4면 喉音 (右)			
범어	일본	大字	小字	범어	일본	大字	小字
ṭa				ta			
ṭha				tha			
ḍa				da			
ḍha				dha			
ṇa				n			
제5면 唇音 (左)				제5면 超音亦云和會聲 (右)			
범어	일본	大字	小字	범어	일본	大字	小字
pa				ya			
pha				ra			
ba				la			
bha				va			
ma				śa			
제6면 超音亦云和會聲							
범어	일본	大字	小字				
ṣa							
sa							

ha				
kṣa				

범자 體文은 한글의 초성과 같은 것이다. 제3면부터 제5면까지 각각 좌와 우 두 개의 열로 범자가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제6면은 한 개 열의 범자가 있다. 제3면의 좌측 열부터 순서별 각각 ‘牙音’의 ‘ka, kha, ga, gha, ṇa’, ‘齒音’의 ‘ca, cha, ja, jha, ṇa’, ‘舌音’의 ‘ṭa, ṭha, ḍa, ḍha, ṇa’, ‘喉音’의 ‘ta, tha, da, dha, na’, ‘脣音’의 ‘pa, pha, ba, bha, ma’, ‘超音’의 ‘ya, ra, la, va, śa, ṣa, sa, ha, kṣa’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범자는 단순히 자음만을 위한 표기가 아닌 ‘a’ 모음의 음절 표기이다. 이들을 대체적으로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牙音’은 연구개음, ‘齒音’은 경구개음, ‘脣音’은 순음이다. 하지만 ‘舌音’은 사실 권설음이고, ‘喉音’이 치조음이며 이외 ‘超音’은 기타 유음, 마찰음, 반자음등을 모은 것들이다. ‘超音’에서 맨 마지막 범자 ‘kṣa’는 기타 범자의 單子音 음절 성격과 달리 2개의 자음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복자음 음절이라 할 것이다.

실제 범자 체문의 산스크리트 자음 음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4] 산스크리트 자음체계 음가 (전순환 2012:55)

		파열음				비음
		무성음		유성음		
		무기음	유기음	무기음	유기음	무기음
연구개음	문자변환 음가	ka [ka]	kha [kha]	ga [ga]	gha [gha]	ṇa [ṇa]
경구개음	문자변환 음가	ca [t̪ca]	cha [t̪cha]	ja [d̪za]	jha [d̪zha]	ṇa [ṇa]
반설음	문자변환 음가	ṭa [t̪a]	ṭha [t̪ha]	ḍa [d̪a]	ḍha [d̪ha]	ṇa [ṇa]
치조음	문자변환 음가	ta [ta]	tha [tha]	da [da]	dha [dha]	na [na]
순음	문자변환 음가	pa [pa]	pha [pha]	ba [ba]	bha [bha]	ma [ma]

		유성음			
		경구개음	치조음	치조음	순치음
접근음	문자변환 음가	ya [ja]	ra [ra]	la [la]	va [va], [va]
		무성음			유성음
		경구개음	권설음	치조음	성문음
마찰음	문자변환 음가	śa [ça]	ṣa [ʃa]	sa [sa]	ha [fa]

산스크리트 자음체계의 제일 큰 특징은 파열음은 조음방법에 따라 무성음과 유성음, 그리고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눌 수 있어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ya’의 음가는 [ja]이고, ‘va’는 실제로 [va], [va] 두 가지 음으로 발음이 가능하며 ‘ha’는 유성후두마찰음의 [fa]으로 발음이 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글의 진언 표기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의 전통적인 조음위치의 분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1) 아음: ka kha ga gha ṇa
- 2) 설음: ta tha da dha na
- 3) 권설음: ṭa ṭha ḍa ḍha ṇa
- 4) 순음: pa pha ba bha ma va
- 5) 치음: ca cha ja jha ṇa śa ṣa sa
- 6) 기타: ya ha ra la

위의 분류에서 ‘설음’은 치조음이고 ‘권설음’은 치조권설음으로 실담장의 명칭과 다르다. 다음 훈민정음의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에 따라 ‘치음’을 다섯 번째 순서로 옮겼다. 그리고 마찰음들을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즉 ‘va’는 순음으로, ‘śa, ṣa, sa’를 치음으로 하였다. 기타 남은 후음과 유음들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위와 같이 실담장에서 제시된 單子音의 體文과 12개의 通摩多가 결합되는 범자를 하나의 음절로 보고 이를 ‘기본 음절’이라 부를 것이다. 12개 통마다 중 ‘a(ā), i(i), u(ū), e, ai, o, au’ 모음과 결합한 것은 ‘기본 開音節’, 남은 ‘-m, -h’가 결합한 것은 ‘기본 閉音節’로 분류한다.

단순히 마다로만 음절을 형성하는 경우 이들을 ‘모음 음절’이라 부르고, 실담장 맨 마지막 體文에 제시되었던 ‘kṣa’와 소난타 ‘ṛ’ 결합의 음절들은 복자음 음절로 분류하여 볼 것이다.

이외 비록 실담장에서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진언 범자에서 아누스와라와 위사르가와 같이 문자적 기호의 범자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 ‘𑖦’, ‘𑖧’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ta’, ‘tha’의 범자에 ‘𑖦’ 혹은 유사한 문자적 기호를 가하여 고유의 ‘a’ 모음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라마’로 부른다고 한다(전순환 2012:56). 본고는 ‘ṭ, ṭh’ 등을 ‘자음 음절’이라 부를 것이다.

2.1.3 복자음의 유형과 음운현상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복자음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없다. 하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 매우 다양한 복자음 유형들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전해 온 실담장에서는 복자음 분류의 논의가 있는데 편찬자들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 본고는 흔히 알려진 비교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18章 체제¹⁰⁾의 실담장을 통해 복자음의 분류를 알아 볼 것이다.

18章 체제의 구성을 보면 제1장은 대체적으로 기본 음절의 범자가 소개되어 있고 제2장부터 복자음이 시작된다. 기본 음절의 單子音を ‘C’라 하고 모음을 ‘V’라고 하면 제1장 기본 음절의 구조는 ‘CV’이다. 제2장부터 제7장의 복자음 음절은 순차적으로 ‘CyV’, ‘CrV’, ‘CIV’, ‘CvV’, ‘CmV’, ‘CnV’의 구조를 갖는다. 이들의 차이는 ‘C’ 다음의 제2자음에 있다. 제8장부터 제14장까지는 앞서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모든 음절 앞에 음절 ‘r’를 추가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rCV’, ‘rCyV’, ‘rCrV’, ‘rCIV’, ‘rCvV’, ‘rCmV’, ‘rCnV’이다. ‘r’를 제1자음이라고 하면 제15장은 ‘r’ 대신 치조비음과 결합하고, 제16장은 소난타의 자음 결합의 음절로 ‘Cr’ 등이고, 제17장은 규칙을 찾기 힘

10) 일본에는 12章 체제, 13章 체제, 14章 체제 등 다양한 체제의 실담장이 남아 있다(강대현 2014 참고). 제1장 기본 음절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제2장부터의 복자음의 유형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편찬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후에 18章 체제의 실담장이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는 唐나라 智廣(760?-830?)이 만든 『悉曇字記』에서 비롯된 것이다.

들다는 의미로 ‘難覺章’이라 부르는데 제1자음이 ‘s’인 복자음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제18장은 孤合章이라 부르며 분류가 어려운 특이한 복자음들을 따로 모아놓았다.

위의 복자음에서 제1자음이 ‘r’인 음절에서 ‘r’은 기타 자음과 달리 사실은 두 음절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가리 범자에서 후행 음절에 문자적 기호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karma’에서 ‘kar#ma’의 음절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전순환 2012:65 참고). 실담 문자에서도 ‘r’은 ᳚(rma), ᳚(rya), ᳚(rśa)’ 등과 같이 일반 범자의 머리 위에 ‘᳚’와 같은 기호적인 표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는 범자 즉 문자적 단위의 음절 구조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후행음절의 제1자음인 복자음 음절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예를 들어 ‘karma’를 문자가 반영하는 그대로 ‘ka-rma’의 2음절로 볼 것이다.

사실 위의 18장 체제의 실담장의 복자음 분류는 실제 진언 범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제1자음이 ‘r’인 복자음이 제8장에서 제14장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 진언 텍스트의 범자 유형에서 제9장부터 제14장의 복자음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범자 음절 예를 들어 ‘ddha, nna’ 등은 難覺章, 孤合章에 들어가거나 혹은 없기도 한다. 즉 실담장의 분류는 비경제성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한글 표기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는 복자음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할 것이다.

유형1: <C+제2자음>

- (1) 제2자음 ‘y’류: kya, hye, dya, dhya, sya, śya, vya
- (2) 제2자음 ‘r’류: kra, ghra, tra, tri, trai, dre, pra, jra, jre
- (3) 제2자음 ‘l’류: hlā
- (3) 제2자음 ‘v’류: tva, tve, nva, jva, dve, sva, śva, hva
- (4) 제2자음 ‘m’류: tma, dma, nma, sma, hma, dmi, śmi
- (5) 제2자음 ‘n’류: gna, ghna, tna, gni
- (6) 제2자음 ‘-r’류: kṛ, gr, ṭṛ, ḍṛ, dhṛ, pṛ, mṛ, jṛ, hr

유형2: <제1자음+C>

- (1) 제1자음 ‘r’류: rya, rtha, ryaḥ, rta, rbhe, rga, rma, rte, rśa
- (2) 제1자음 ‘N’류: (n-) nta, nti, ndi, nni (ṇ-) ṇṭa, ṇṭha, ṇḍi (ñ-) ñca, ñja
- (3) 제1자음 ‘T’류: (t-) tta (d-) ddhya, ddha, ddhe
- (4) 제1자음 ‘S’류: (s-) sta, ska, spha (ś-) śṇa, śṇi, śṭa, śṭhi (ś-) śpai
- (5) 제1자음 ‘k’류: kṣa, kku, kga, kta, kdha
- (6) 제1자음 ‘m’류: mbha

유형3: 복자음 폐음절 및 기타

- (1) ‘-m’류: tyaṁ, ghraṁ, dhvaṁ, rmaṁ, ṇdaṁ, śṭaṁ
- 2)) ‘-ḥ’류: bhyaḥ, svaḥ, ryaḥ, paḥ, naḥ. koḥ

위의 분류는 본고에서 범자의 문자 단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산스크리트의 음운변화는 문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문자와 음운의 차이가 보일 때도 있다. 본고 고찰 자료에서 반영되는 일부 음운현상에 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전순환 2012:149-150, 212-218의 내용을 참고).

먼저 아누스와라 ṁ의 산디현상을 보겠다. 산디는 산스크리트의 음운변화 현상을 말한다. 어말의 -m은 자음 앞에서 아누스와라로 변하는데 이의 발음은 따라오는 자음의 조음과 동일하다. 하지만 문장 휴지나 끝에 올 경우 바뀌지 않고 m 그대로 쓰인다. 후행 자음에 의한 발음의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변화전	환경		변화후	발음	환경
m +	k/kh/g/gh/ṇ	→	ṁ	[ŋ]	k/kh/g/gh
m +	c/ch/j/jh/ñ	→	ṁ	[ɲ]	c/ch/j/jh
m +	t/ṭh/d/ḍh/ṇ	→	ṁ	[ɳ]	t/ṭh/d/ḍh
m +	t/ṭh/d/ḍh/n	→	ṁ	[n]	t/ṭh/d/ḍh
m +	p/ph/b/bh/m	→	ṁ/n	[m]	p/ph/b/bh
m +	y/l/r/v, ś/ś/s, h	→	ṁ	[ŋ]	y/l/r/v, ś/ś/s, h

어말의 -m이 모든 자음 앞에서 아누스와라로 변하는 이 현상은 산디에서 매우 높은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범자는 발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모두 아누스와라 ṁ의 문자 기호 표기로 반영된다.

다음으로 어근의 형태변화에 대해 보겠다. 산스크리트 어근의 모습은 고

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교체(Ablaut)에 따라 음량(Sound Quantity)이 줄어드는 감소단계(Reduction Grade), 고유의 음량이 유지되는 표준단계(Normal Grade), 음량이 늘어나는 증가단계(Lengthened Grade) 등 이론적으로 세 단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감소단의 형태를 약형태(Weak Form), 표준단계와 증가단계를 강형태(Strong Form)라 한다. 이들의 모교체 현상은 단일모음의 교체, 이중모음의 교체, 유음(모음)의 교체, 비음의 교체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범위에 제한하여 이중모음의 교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겠다.

모음 앞/자음 앞	모음 앞/자음 앞	모음 앞/자음 앞
y/i (<i)	ay/e (<ay)	āy/ai (<aay)
v/u (<u)	av/o (<av)	āv/au (<aav)
감소단계	표준단계	증가단계

즉 이론적으로 ‘ay’의 음량이 줄어들면 ‘i’의 감소단계가 되고, ‘a’가 추가되면 증가단계의 ‘aay’가 되는데 모음 앞에서의 형태는 ‘y<ay<āy’이고, 자음 앞에서 형태는 ‘i<e<ai’가 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원순모음을 보면 이론적으로 ‘u<av<aav’이지만 형태는 모음 앞에서 ‘v<av<āv’이고, 자음 앞에서 ‘u<o<au’이다. (이 부분은 필자의 이해에 따른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어근의 형태를 예로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주로 자음 앞의 예를 중심으로 보겠다.

[표5] 모음교체에 의한 어근의 형태변화의 예

	어근의 형태변화			MONIER 표제어
	감소단계	표준단계	증가단계	
1)	cit	cet	cait	cit
2)	diś	deś	daiś	diś
3)	bhikṣ	bhekṣ	bhaikṣ	bhikṣ
4)	mith	meth	maith	mith
5)	vid	ved	vaid	vid
6)	budh	bodh	baudh	budh
7)	mud	mod	maud	mud
8)	rudh	rodh	raudh	rudh
9)	luk	lok	lauka	lok
10)	śru	śro	śrau	śru

위 도표에서 1)-5)번은 자음 앞에서 ‘i<e<ai’의 형태변화의 예이고, 6)번-10번은 자음 앞에서 ‘u<o<au’의 형태변화의 예이다. 음영을 한 부분은 세 단계의 형태에서 표제어로 사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어근의 표제어는 기본적으로 감소단계로 되어 있는데, 감소단계가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면 표준단계, 이 단계도 존재하지 않으면 증가단계로 설정된다.

2.2. 범자 대응 단위의 고찰

2.2.1. 한글 텍스트의 절 경계

먼저 오대진언(1485)의 원본 이미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예로 보겠다.

[그림1]

오대(1485) 24b										오대(1485) 25a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1	摩	賀	迦	嚩	野	嚩	嚩	嚩	嚩	1	麼	訶	嚩	野	嚩	嚩	嚩	嚩	嚩
2	賀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2	訶	嚩	嚩	野	嚩	嚩	嚩	嚩	嚩
3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3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4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4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5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5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6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6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7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7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8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8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9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9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0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0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1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1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2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2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3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3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4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4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위의 [그림1]을 보면 오대진언(1485)는 1면에 6행, 매 행에 14자 혹은 15자로 되어 있으며 문자는 ‘梵字→한글→漢字’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먼저 한자 텍스트를 보면 일부 작은 글씨로 ‘一, 二, 三, ...’의 숫자 표기를 볼 수 있다. 하나의 숫자는 하나의 句가 끊기는 단위를 말한다. 매 10개가 끝나는 곳에 ‘十, 二十, 三十, ...’의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11구, 제12구, 제13구 등은 ‘十一, 十二, 十三, ...’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一, 二, 三, ...’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제20구에는 ‘二十’이라 하고 제21구부터 다시 ‘一, 二, 三, ...’으로 표기한다. 백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제100구, 제200구, 제300구에 ‘一百, 二百, 三百, ...’이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一, 二, 三,

...’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의 숫자 표기는 생략한다. 예를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총 79句로 되어 있는데 제78句까지 숫자 표기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의 제79句에는 숫자 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최대한 간략한 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부록1에서 범자 텍스트에 ‘(1), (2), (3)...(11), (12), (13), ..., (101), (102), (103), ...’의 표기가 있는데 이는 한자 텍스트가 끊기는 부분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글 텍스트를 보면 속이 비어있는 圈點 ‘ㅇ’가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자의 句 단위가 끊어지는 부분과 대응하는 곳에 권점이 찍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자의 구 단위보다 좀 더 작은 단위로 또 다른 권점들이 찍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자의 구 단위와 대응하는 권점은 한글의 아래 중앙에 찍혀 있고, 작은 단위의 끊기에는 한글 아래에서 오른쪽 편에 찍혀져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1에서 제1구가 끊어지는 부분에 한글의 권점이 ‘양’과 같이 아래 중앙에 찍혀 있고 그 아래 작은 단위의 권점은 ‘막, 양’과 같이 한글 아래 오른쪽에 찍혀 있다.

기타 진언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가 있는데 망월사본(1800)에서는 한자의 구 단위와 대응하는 부분에는 권점 ‘ㅇ’으로 표기하고 작은 단위의 끊기는 ‘△’의 표기가 있다. 같은 문구의 다라니를 예로 아래와 같이 오대진언(1485)와 망월사본(1800)으로 비교하여 보겠다.

[그림2]

오대진언(1485)	망월사본(1800)

위의 그림에서 오대진언(1485)는 ‘나모라.드나.드라야야’와 ‘마하가로니

가야.’로 표기하고 있지만 망월사본(1800)은 ‘나모라△드나△드라야야.’와 ‘마하△가로니가야.’로 표기되어 있다. 오대진언(1485) 권점 표기가 18세기 망월사본에 이르기까지 비록 표기 방법은 다르지만 경계 단위는 매우 엄격히 전승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한자의 구가 끊어 지는 부분의 경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작은 단위의 경계의 실체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다.

작은 단위의 경계 표기를 안주호(2003) 등에서는 ‘절 경계’라고 불렀다. 안주호(2003:76)에서는 절 경계에 대해, 이미 한역에서부터 절 경계가 잘못 규정된 경우도 있으며, 한자로 음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음사하는 과정에서 진언이 길 경우 독자적으로 해독하여 우리말에 가까운 독법으로 경계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우리 고유 음을 3,4 내지 7,5를 즐기는 탓’이라 하였다. 하지만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한글의 권점 표기는 한자 句 단위의 경계는 우선 매우 철저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절 경계는 한자의 구 단위보다 더 작은 하위분류의 단위일 것이다. 본고는 산스크리트 형태 분석 단위를 통하여 절 경계 단위를 알아 볼 것이다.

아래 다라니 S(‘신묘장구대다라니’)의 한자 구 단위의 제1구, 제2구, 제3구를 예로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겠다. 이에 대응하는 부분의 범어 원문에 각각 (1), (2), (3)으로 표기하였다.

[표6] 산스크리트 형태분석 단위의 경계

제1구	ㄱ)namo ratnatrayāya(1) ㄴ)nam-as ratna=traya-aya ㄷ)namo ratna trayāya
제2구	ㄱ)nama āryāvalokiteśvarāya(2) ㄴ)namas ārya=avalokita=īśvara-aya ㄷ)nama āryā valokite śvarāya
제3구	ㄱ)bodhisattvāya mahāsattvāya(3) ㄴ)bodhi=sattva-aya mahā=sattva-aya ㄷ)bodhi sattvāya mahā sattvāya

위 도표의 원문에서 제1구의 ㄱ)를 보면 ‘namo’와 ‘ratnatrayāya’의 두 개의 단위로 끊어지는데 이를 ‘단어뭉치’라 부른다.¹¹⁾ 한자의 구 단위를 보

면 흔히 2개 정도의 단어뭉치 크기로 끊어짐을 볼 수 있다. ㄴ)은 원문의 형태소 분석과 음운변화 환경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들을 풀어서보면 설명하고 번역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¹²⁾

[제1구]

1. nam-as ⇒ namo

[어근] nam-: “(목, 허리 등)구부리다, 인사하다”

[산디] -as: 접사. 유성자음 즉 후행자음 ‘r’에 의하여 -o로 변한다.

[의미] 敬拜(를) 하다, 歸依(를) 하다

2. ratna=traya-aya ⇒ ratna trayāya

[어근] ratna-: “선물, 물건, 부(富), 보물”, tray-: “셋”

[합성어] “ratna”=“tray” : 三寶

[접사] ‘-a-’와 ‘-aya’는 접사. -a-aya → -āya : 동종의 모음이 연이어 출현할 때 장모음으로 나타난다.

[의미] 三寶께

[제2구]

1. namas ⇒ nama

[산디] -as→-aḥ→a: 자음 ḥ-어간은 후행모음이 장모음 ā인 경우 ḥ가 탈락한다.

[의미] 敬拜(를)하다, 歸依(를)하다

2. āri~ya=ava-lok-a~ita=iś-vara-aya ⇒ āryā valokite śvarāya

[형태] ‘āri+ya’ 어형성, i탈락의 약형태 ‘āryā’

[형태] ava(접사)-lok(어근)-a(접사)-ita(접사): 어형성

[산디] ita-iś→iteś: a/ā가 다른 종류의 모음인 i/i와 결합할 때 e/ai로 나타난다.

[형태] iś-vara(접사)-aya(접사): 어형성

[의미]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께

3. 원문) nama āryā ⇒ 문헌) namaḥ aryah

원문에서 ‘nama āryā’가 문헌에서 ‘namaḥ aryah’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대개 장음 ā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위사르가 ḥ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구]

1. bodh-i=s-at-tva-aya ⇒ bodhi sttvāya

[어근] budh-: 알아채다, 인지/주의하다, 깨(어나)다

11) 전순환(2012:137)에서 ‘단어뭉치’란 실사와 동사와 같은 變化詞(Inflectional Words)와 不變化詞(No-Inflectional Words)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12) 전순환(2005)의 형태분석을 참고하였다.

[어휘] budh+i(접사): 어형성
 [어근] as-at-: ‘있다, 존재하다’+‘...하는’
 [어휘] ‘as+at+tva(접사)-aya(접사)’ 어형성
 [합성어] ‘budh+i’=‘as+ant+tva’
 [의미] 깨달음의 존재자/菩薩께

2. mahā=s-at-tva-aya ⇒ mahā sattvāya
 [어근] mah-: ‘일으키다, 해내다’
 [합성어] ‘mahāḥ’=‘as+ant+tva’
 [의미]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께

3. 원문) sattvāya ⇒ 문헌) satvāya
 원문에서 tty-의 三重 자음군이 문헌 실답자에서는 ty-의 二重 자음군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형태와 음운 분석을 근거로 형태단위 경계를 찾아 끊으면 ㄷ)가 된다. 예를 들어 제1구의 ㄱ)는 ‘namo ratnatrayāya’로 2개의 단어묵치로 끊어지지만, ㄷ)는 형태 단위의 끊기로 ‘namo ratna trayāya’와 같이 3개의 경계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한글의 작은 단위의 끊기 즉 절 경계가 ㄷ)의 형태 단위와 상당히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아래는 원문 ㄷ) 문장과 대응 한글 및 한자 텍스트를 비교하여 본 것이다.

[표7] 한글 절 경계의 단위의 대비

제1구	ㄷ) namo ratna trayāya(1) 韓) 나모(라)도나도라야야o 漢) 曩謨囉怛曩[二合]怛囉[二合]夜野一
제2구	ㄷ) namaḥ aryāḥ valokite śvāraya(2) 韓) 나막알약바로그데시바라야o 漢) 曩莫啊哩也[二合]嚩路枳諦濕嚩[二合]囉野二
제3구	ㄷ) bodhi satvāya mahā satvāya(3) 韓) 모디사드바야마하사드바야o 漢) 冒地薩怛嚩[二合]野摩賀[二合]薩怛嚩[二合]野三

위의 도표에서 예를 들어 제2구를 보면 ㄷ)는 ‘namaḥ aryāḥ valokite śvāraya(2)’으로 네 개의 형태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에 한글 텍스트는 ‘나막알약바로그데시바라야o’으로 역시 4개의 단위로 끊어지면서 이들의

경계 위치도 일치한다. 이들을 대응하여 보면 ‘namaḥ/나막ᵒ, aṛyaḥ알약ᵒ/, valokite/바로기테ᵒ, śvāraya/시바라야ᵒ’가 된다. 기타 구도 마찬가지로이다. 본고의 부록3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전체 문장을 모두 비교한 것이다. 비록 절 경계의 끊기 대응이 불일치하는 예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즉 한글의 절 경계는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의 경계를 기준으로 끊어지는 것이다.

불일치의 예에서 일부 한국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 위의 [표7]의 제1구에서 ㄷ)의 경계 단위는 ‘namo ratna trayāya’으로 두 번째 단위는 ‘ratna’이고 첫 번째 음절은 ‘ra’이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 음절은 ‘라’인데 실제 한글 표기에서 두 번째 단위가 아닌 첫 번째 단위의 끝 음절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namo/나모(라)ᵒ’, ‘ratna/드나ᵒ’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아마 한국어 고유어에서의 어두에 ‘ㄹ’ 자음이 오지 않는다는 어두법칙의 제약의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같은 환경의 기타 예에서의 한글 표기의 상황을 좀 더 살펴해보겠다.

부록3을 보면 ‘신묘장구대다라니’ 전체 문장의 모든 형태 단위에서 제1구와 같은 음운 환경의 예가 아래와 같이 몇 개 더 있음을 볼 수 있다.

예1

- 1) ㄷ) namo ratna trayāya(1)
韓) 나모(라)ᵒ.드나ᵒ.드라야야ᵒ
- 2) ㄷ) mahā lakuṭa(68)
韓) 마하(라)ᵒ.구타ᵒ
- 3) ㄷ) namo ratna trayāya(77)
韓) 나모(라)ᵒ.드나드라ᵒ.야야ᵒ
- 4) ㄷ) mati lokā tīkrānta e(20)
韓) 마디로가ᵒ.디ᵒ.ᵑ란테ᵒ
- 5) ㄷ) loke śvara rāga(33)
韓) 로게ᵒ.시ᵑ바라ᵒ.라아ᵒ

위의 예1를 보면 2)번의 제68구, 3)번의 제77구가 1)번의 제1구와 같이

후행 단위의 첫 음절 ‘라’가 선행 단위의 끝 음절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번에서는 산스크리트 경계가 ‘mati lokā’으로 나타나므로 한글 표기 역시 마땅히 ‘마디.로가.’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마디로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라’가 어두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처리라 볼 수 있겠다. 다만 예 5)번의 제3구에서는 ‘śvara rāga’가 한글 표기의 절 경계에서 ‘시.바라.라아’로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ㄹ’ 어두 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 5개 중에서 1개의 예만이 외국어 표기에 충실히 하고 기타 4개는 한국어 음운 법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외국어 표기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진언이 독송되고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글 진언 텍스트의 절 경계 단위가 처음의 단순한 외국어의 형태단위로부터 점차 한국어 고유의 형태단위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2.2.2. 범자 음절 단위의 분리

위의 분석을 근거로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와 한글의 절 경계 단위를 대응시키면 아래와 같이 梵-韓-中의 형태단위의 대응이 가능하다.

[표8] 범어 형태단위의 분리

제1구	1) namo/나모./曩謨 2) ratna/(라)드나./囉怛曩 _[二合] 3) trayāya/드라야야o/怛囉 _[二合] 夜野
제2구	1) namaḥ/나막./曩莫 2) aryah/알약./啊哩也 _[二合] 3) valokite/바로기테./嚩路枳諦 4) śvāraya/시.바라야o/濕嚩 _[二合] 囉野
제3구	1) bodhi/모디./冒地 2) satvāya/사드바야./薩怛嚩野 3) mahā/마하o/摩賀

위의 도표는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와 한글의 절 경계 단위를 대응 시

킨 것이며 이에 한자 표기 역시 같은 단위로 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제1구는 세 개의 형태단위가 있으며 범어와 한글의 대응은 각각 ‘namo/나모, ratna/(라)드나, trayāya/드라야야o’로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를 끊어서 ‘namo/나모/曩謨, ratna/(라)드나/囉怛曩_[二合], trayāya/드라야야o/怛囉_[二合]夜野’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기타 제2구와 제3구 역시 같은 방법으로 형태단위를 기준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이러한 형태 단위의 대응을 범자를 단위로 즉 문자 음절의 더 작은 단위로 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1구에서 ‘namo’는 ‘na’와 ‘mo’ 두 개의 기본 음절로 분리할 수 있고, ‘ratna’는 ‘ra’와 ‘tna’의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로 분리할 수 있으며, ‘trayāya’는 ‘tra’, ‘yā’, ‘ya’의 복자음 음절과 기본 음절로 분리할 수 있다. 이들과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를 보면 아래와 같이 대응시킬 수 있다.

[표9] 범자(음절)단위의 분리

제1구	1) na/나/曩, mo/모/謨 2) ra/라/囉, tna/드나/怛曩 _[二合] 3) tra/드라/怛囉 _[二合] , yā/야/夜, ya/야/野
제2구	1) na/나/曩, mah/막/莫 2) a-ryah/알약/啊哩也 _[二合] 3) va/바/嚩, lo/로/路, ki/기/枳, te/테/諦 4) śvā/시바/濕嚩 _[二合] , ra/라/囉, ya/야/野
제3구	1) bo/모/冒, dhi/디/地 2) sa/사/薩, tvā/드바/怛嚩 _[二合] , ya/야/野 3) ma/마/摩, hā/하/賀

위의 도표는 모두 1음절의 범자를 단위로 끊은 것이다. 이에 기본 음절이 있을 수 있고 복자음 음절이 있을 수 있다. 범자 기본 음절의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보면 대부분 똑같이 1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na/나/曩, mo/모/謨, ra/라/囉, yā/야/夜, ya/야/野, na/나/曩, va/바/嚩, lo/로/路, ki/기/枳, te/테/諦, bo/모/冒, dhi/디/地, sa/사/薩, ma/마/摩, hā/하/賀, mah/막/莫’ 등이다. 하지만 복자음 1음절의 경우 한글과 한자가 각각 2개의 음절로 표기된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tna/드나/怛曩_[二合], śvā/시바/濕嚩_[二合], tvā/





ㄷ바/怛𠵽[二合]’이다. 이는 당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대응하는 복자음 음절과 유사한 자음군이 없어서 多音節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복자음 음절의 다음절 표기에서 한글은 첫 음절이 ‘으’ 모음 음절이고, 한자는 ‘二合’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글의 표기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의 4.1의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의 표기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한자의 ‘二合’에 대해 보겠다.

실제로 오대진언(1485)의 한자 표기를 보면 ‘二合’이란 표기가 없다. ‘二合’이란 표기는 『진언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그림2]를 보면 망월사본(1800)의 다음절 한자 표기에서 ‘怛囊’, ‘怛囉’에 ‘二合’이란 작은 글자 표기가 있지만¹³⁾, 해당 한자들이 오대진언(1485)에서는 ‘二合’의 표기가 없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한자들이 좀 작게 좁은 간격으로 들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3]과 같다. 그러니 오대진언(1485)는 비록 망월사본(1800)처럼 ‘二合’이란 두 글자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二合’ 단위의 묶음은 존재하였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다음절 표기의 묶음을 모두 찾아서 부록1에 ‘二合’으로 제시해놓았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는 망월사본(1800)처럼 글자의 제시가 없으므로 괄호를 넣어 ‘[二合]’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二合’뿐만 아니라 ‘三合’도 있는데 즉 1음절의 범자 대응 한자의 음절이 세 개인 것도 있다.

[그림3]

			
ㄷ나	ㄷ라	ㅅ라	ㄷ롬
怛囊	怛囉	薩囉	納囉
tna/ㄷ나/怛囊[二合]	tra/ㄷ라/怛囉[二合]	strā/ㅅ라/薩怛囉[三合]	trum/ㄷ롬/納囉唵[三合]

위의 [그림3]을 보면 범자는 복자음 음절 ‘tna, tra, strā, trum’의 1음절

13) 이외의 ‘引’ 표기는 범어의 장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지만 한자는 2음절 혹은 3음절로 ‘二合’ 혹은 ‘三合’의 ‘怛曩_[二合], 怛囉_[二合], 薩怛囉_[三合], 訥嚕唵_[三合]’으로 대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글은 ‘드나, 드라, 쑈라, 드롬’으로 모두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복자음 범자음절 대응에 합용병서의 한글 표기가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자는 3음절의 ‘三合’으로 한글은 한자 표기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들을 더욱 작은 단위의 음소대응으로 쪼개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은 제4장의 복자음 음절 표기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외에 1음절의 범자 음절이 아닌 2개 음절의 범자 음절의 대응 예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표9]에서 제2구의 두 번째 절 경계의 단위 대응을 보면 ‘a-ryah/알약/啊哩也_[二合]’으로 되어 있다. 범자 ‘a-ryah’은 두 개의 범자 즉 2개의 음절을 말하며 본고에서는 ‘-’로 음절 경계를 표기하였다. 구체적인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그림4]

ᄃᆞ (a)	ᄃᆞᆫ (ryah)
알	약
啊	哩
a-ryah/알약/啊哩也 _[二合]	

위의 [그림4]을 보면 범자의 첫 음절 ‘a’는 한자 ‘啊’와 대응되고 한글은 중성 자음이 있는 ‘알’과 대응된다. 범자의 두 번째 음절 ‘ryah’의 복자음 음절은 한자 ‘哩也_[二合]’의 2음절과 대응되지만 한글은 ‘약’의 1음절과 대응됨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글의 ‘알’에서 중성자음 ‘-ㄹ’이 범자의 제2음절의 첫 자음 ‘-r’과 대응되기 때문이다. 즉 위의 대응은 실제로 ‘a-r/알/啊哩’, ‘yah/약/也’의 대응이 되는 것이다.

2.3.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

중국어의 음운사는 흔히 上古漢語, 中古漢語, 近代漢語, 現代漢語 4개의 시기로 나눈다. 상고한어 시기는 대체적으로 魏晉南北朝 시기 이전을 말하고, 중고한어 시기는 흔히 唐나라와 宋나라 시기를 말하며, 근대한어는 元·明·淸 시기를 말한다. 즉 대개 5-6세기 이전은 상고한어 시기, 6세기부터 12세기는 중고한어 시기, 12세기부터 20세기 이전까지가 근대한어 시기인 것이다. 그 중 중고한어는 다시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전기는 5세기부터 8세기 중엽까지, 후기는 中唐 시기를 기준으로 8세기 중엽부터 12세기로 나눌 수 있다.¹⁴⁾ 오대진언(1485)의 한자 텍스트는 不空과 佛陀波利가 번역한 것이며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7-8세기로 중국어의 음운사에서 前期 中古漢語 시기에 속한다.

고대 중국에서 韻書는 중국어 음운학 연구의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중국어 음운학 연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韻書 자료로는 『切韻』(601)이다. 『切韻』이 만들어진 시기인 전기 중고한어는 위로 상고한어, 아래로 근대한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切韻』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이와 같은 계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운서들을 ‘切韻系韻書’라 한다. 현재 절운계운서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서는 宋代의 『廣韻』(1008)이다.¹⁵⁾ 광운이 만들어진 시기는 宋代로 비록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속하지만 이 운서가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전기 중고

14) 麥耘(2002)의 연구에 의하면 中唐부터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많은 음운변화가 발생하는데 輕唇音의 분화, 3·4等韻 글자의 합류 등이 전형적이라고 하였다. 中唐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잘 반영되고 있으며 中唐시기의 음운변화가 중고한어 표준음운체계의 전이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는 시기는 여전히 10세기 이후의 五代, 北宋시기이다. Pulleyblank(1984)에서 中古漢語前期를 ‘EMC(Early Middle Chinese)’, 後期를 ‘LMC(Late Middle Chinese)’이라고 불렀다.

15) 절운계운서에서 시기적으로 절운과 제일 가까운 것으로 706년 王仁昉의 『刊謬補缺切韻』이 있는데 195운이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에 따라 ‘王一’, ‘王二’, ‘王三’이라 부르기도 한다. 송대 광운의 전칭은 『大宋重修廣韻』이고 총 26,194자 수록되어 있고 206운 체계로 되어 있다. 이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절운계 운서 중 제일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외 1037년 丁度的 『禮部韻略』, 1039년의 『集韻』, 1252년 劉淵의 『壬子新刊禮部韻略』이 있다. 劉淵의 예부운락은 107운으로 되어 있으며 흔히 平水韻이라고 부른다. 元明이후 106운으로 바뀐다.

한어의 것이다. 운서 연구는 주로 한자의 注音으로 사용되는 反切의 上字와 下字를 통하여 진행된다.¹⁶⁾

韻書 이외 또 중국어 음운학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韻圖가 있다. 韻圖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개 宋代이후로 흔히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는 연구 자료라고 한다.¹⁷⁾ 하지만 일부 早期 韻圖가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여전히 전기 중고한어 시기의 것이다. 예를 들어 唐末 시기 저자 미상의 『韻鏡』과 南宋 시기 鄭樵의 『七音略』이다.¹⁸⁾ 韻圖의 특징은 가로로 字母의 체계가, 세로로 等韻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등운은 운서의 각 韻들을 4개의 칸으로 나누어 1등칸에 배열된 운을 1등운, 2등칸에 배열된 운은 2등운의 순서로 3등운, 4등운이다. 字母는 당시의 중국어 자음체계를 36자모로 정리한 것이다.¹⁹⁾

- 16) ‘反切’은 한자의 注音法의 일종으로 두개의 한자 즉 反切上字와 反切下字가 또 다른 한자 즉 被切字를 주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東,德紅切’하면 ‘東’은 被切字이고, ‘德’은 反切上字이며 ‘紅’은 反切下字이다. 피절자의 자음을 반절상자의 자모를 통해 알고, 피절자의 운모와 성조는 반절상자의 운모와 성조를 통해 알 수 있다.
- 17) 중국어 음운사에서 시기별 대표적인 연구 자료가 있는데 상고한어의 대표 자료는 『詩經』(기원전 5세기 무렵)이고, 중고한어 대표 자료는 『切韻』(601)이며, 근대한어의 대표 자료는 『中原音韻』(1324)이다. 중고한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切韻』은 전기 중고한어의 대표 자료이고, 宋代의 韻圖가 후기 중고한어의 대표 자료이다. 이외 근고한어 시기도 있는데 이는 중고한어로부터 근대한어로의 과도기를 말하며 대표자료로는 『古今韻會舉要』(1297)이다. 『古今韻會舉要』는 표면적으로 중고한어 전통 운서의 체계를 따르는 듯하지만 ‘字母韻’으로 또 다른 체계 즉 당시 이미 변화된 음이 반영된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 『洪武正韻』(1375)는 시기적으로 『중원음운』보다 50년이 늦은 명나라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훨씬 보수적인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 대개 남방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上古漢語	前期中古漢語	後期中古漢語	近古漢語	近代漢語
5세기이전	5-8세기	8-12세기	13세기	14세기이후
《詩經》	《切韻》	韻圖	《古今韻會舉要》	《中原音韻》(北) 《洪武正韻》(南)

- 18) 韻圖는 早期 韻圖와 後期 韻圖 두 종류로 나누는데 早期 韻圖는 切韻系韻書의 체계를 반영하고 後期 韻圖에는 후기 중고한어 그리고 일부 근대음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자모의 배열에 있어서도 초기 운도는 순, 설, 아, 치, 후의 순서로 배열하지만 후기 운도는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로 배열하는 차이를 갖기도 한다. 후기 운도의 대표적인 자료로 宋代 혹은 遼代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四聲等子』이다.
- 19) 唐末의 守溫 스님이 ‘字母’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흔히 이 시기 이미 36개의 자모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왔었지만 20세기 초 중국 敦煌에서 守溫의 韻學殘卷이 발굴되면서 실제 守溫이 정리한 字母는 사실은 30개였음이 밝혀졌다. 수운의 30자로도 唇音의 ‘不, 芳, 并, 明’, 舌頭音의 ‘端, 透, 定, 泥’, 舌上音의 ‘知, 徹, 澄, 日’, 牙音의 ‘見, 溪, 群, 來, 疑’, 齒頭音의 ‘精, 清, 從’, 正齒音의 ‘審, 穿, 禪, 照’이 있다.

[표10] 36字母 체계 (후기 중고한어)

	全淸	次淸	全濁	次濁	淸	濁
重唇音	幫	滂	并	明		
輕唇音	非	敷	奉	微		
牙音	見	溪	群	疑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娘		
齒頭音	精	淸	從		心	邪
正齒音	照	穿	牀		審	禪
喉音	影			喻	曉	匣
半舌音				來		
半齒音				日		

중국어 음운학의 연구는 韻書, 韻圖 이외에도 실제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押韻 자료, 현대 중국어의 방언 자료, 외국어의 번역 자료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당시의 음가를 재구하기에 이른다. 특히 20세기 초에 이르러 스웨덴의 한학자 칼그렌의 『中國音韻學』(1915)은 처음으로 현대 음운론의 시각에서 고대 중국어의 음가를 재구한 연구 저서이다. 그 후로 중국 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고대 중국어의 음가 재구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는데 특히 2000년 이후 중고한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上古漢語 음가의 재구까지 이르렀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Baxter William의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1992), 鄭張尚芳의 『上古音系』(2003) 등이 있다.

潘悟雲의 『漢語歷史音韻學』(2000)는 기존의 상고한어 연구들을 정리하고 발전시켰으며 상고한어의 연구에 앞서 중고한어에 대한 설명도 있다. 반오운(2000)에서의 중고한어 음운체계는 상고한어의 연구와 체계적인 연결이 가능하므로 본고는 반오운(2000)의 중고한어 음운체계의 재구 음가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구 음가의 국제음성기호의 반영은 반오운(2000)의 한국어 번역본인 권혁준 역 (2014)을 따를 것이다.

반오운(2000)에서는 제 학자들의 전기 중고한어 재구음을 비교하여 도표를 만들었는데 번역본을 참고하면 자음체계의 비교도는 권혁준(2014:99-100)에 있고, 운모체계의 비교도는 권혁준(2014:135-140)에 있다.

이를 본고의 부록4에 그대로 다시 제시하여 놓았다.

아래는 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먼저 자음체계부터 볼 것이다. 아래는 권혁준 역(2014:99-100)의 제 학자 비교도에서 반오운의 재구음만 선택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11]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의 재구 음가

	全淸	次淸	全濁	次濁	淸	濁
脣音	幫母 *p ²⁰⁾	滂母 *ph	并母 *b	明母 *m		
牙音	見母 *k	溪母 *kh	群母 *g	疑母 *ŋ		
舌頭音	端母 *t	透母 *th	定母 *d	泥母 *n		
舌上音	知母 *t̪	徹母 *t̪h	澄母 *d̪	娘母 *n̪		
齒頭音	精母 *ts	淸母 *tsh	從母 *dz		心母 *s	邪母 *z
正齒音	莊母 *tʃ	初母 *tʃh	崇母 *dʒ		生母 *ʃ	
	章母 *tʃ̥	昌母 *tʃh̥	禪母 *dʒ̥		書母 *ç	船母 *ʒ
喉音	影母 *ʔ			以母 *j	曉母 *h	匣 _[云] 母 *ɦ
半舌音				來母 *l		
半齒音				日母 *n̪̥		

위의 [표11]이 반영하는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는 앞서 [표10]의 36자모와 다소 차이가 있다. 36자모는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전기 중고한어의 순음은 重脣音 하나의 계열을 갖지만 후기 중고한어에 이르러 3등운 글자에서 輕脣音이 분화되어 나온다. 절운계운서 『廣韻』의 反切 자료에서 脣音은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있다(唐作藩 2002:110 참조). 이에 대해 麥耘(2009:61)은 일부 중국 사람의 注音 혹은 梵漢 대응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이 분류가 보이는 경향이 보이지만 이는 해당 자모와 결합하는 모음 즉 경순음은 세음성 개음이 있는 글자에만 나타나므로 개음의 영향을 받아 마찰성분이 들어 pf와 같은 발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변이음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즉 /p/=[p, pf]의 관계로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은 아직 음소적인 대립을 가지지 않는다고

20)중국어 음운학 분야에서 흔히 ‘*’표기는 상고한어 재구음을 나타낼 때 표기한다. 중고한어 재구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고의 중국어 음운사 주요 고찰 범주가 중고한어이며 또 범자의 로마자 전환과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중고한어 재구음에 ‘*’ 표기를 하겠다.

하였다.

둘째, 전기 중고한어의 莊系와 章系는 후기 중고한어에서 하나의 照系가 된다. 莊系는 2등운과 3등운 글자와 결합하지만 운도에서 2등칸에만 출현하며²¹⁾, 章系는 오직 3등운과 결합하며 운도에서 3등칸에만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를 각각 照2系, 照3系라 부르기도 한다.

셋째, 후기 중고한어에서 喻母는 운도에서 3등칸에만 출현하는 것과 4등칸에만 출현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喻3母 혹은 ‘云母, 于母’라 하고 후자를 喻4母 혹은 ‘以母, 羊母’라 부른다. 匣母는 1등, 2등, 4등운에만 나타나는데 3등운에만 나타나는 喻3母와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전기 중고한어 이들은 하나의 자모였지만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匣母와 喻3母로 분화된 것이다. 전기 중고한어시기의 *h이 후행하는 3등운의 세음성 개음에 의해 약화된 음으로 변하면서 喻3母가 된 것이다.

위로부터 일부 자모는 운모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경순음은 3등운에만, 莊系는 2등운 혹은 3등운, 章系는 3등운에만, 喻母 역시 3등운에만 나타난다. 이외 기타 자모의 운모 결합의 제약을 본다면 精系는 1등운, 3등운, 4등운에만 출현하고(운도에서는 1등칸과 4등칸에서만 출현하여 3등운은 4등칸에서 나타난다), 설음에서 端系는 1등운, 4등운 글자와만 결합하고, 知系는 2등운, 3등운 글자와만 결합한다. 牙音에서 群母, 齒音의 禪母, 半齒音의 日母 모두 오직 3등운에서만 나타난다.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 대해 기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다. 하지만 일부 쟁점으로 다루었던 문제점이 있는데 娘母, 來母, 濁音 등이 그것이다.²²⁾

먼저 娘母에 대해 보겠다. 초기 연구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李榮(1956:126)에서는 중고한어의 ‘娘母’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모라고 하였다. 娘母와 泥母는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 대부분 분별하지 않고 있으며,

21) 韻圖에서 4등분을 한 매 칸을 각각 1등칸, 2등칸, 3등칸, 4등칸이라 부른다. 1등칸에 글자를 배열되는 운을 1등운, 2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2등운, 3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3등운, 4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4등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부 3등운의 글자이지만 2등칸에 들어가거나 4등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22) 학자들 간 禪母와 俟母를 분리하느냐 하나로 보느냐의 견해 차이도 존재한다. 반오운(2000)은 俟母를 분리하고 *ʒ으로 재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특이한 자모이며 梵漢 번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본고는 이에 관련 내용을 생략하겠다.

『守溫撰論字音之書』에서 舌頭音은 ‘端, 透, 定, 泥’로 되어 있고 舌上音은 ‘知, 徹, 澄, 日’로 되어 있는데 娘母의 자리에 日母가 들어 있는데 후에 日母가 독립되어 나가고 娘母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빈칸을 채워넣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많은 학자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특히 邵榮芬(1982:35-43)에서는 운서의 反切 자료 등 여러 문헌자료를 통하여 보면 娘母는 중고한어에서 泥母와 분리되어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불경 번역에서 娘母는 知系의 기타 자모와 함께 범어의 권설음 계열과 대응하고 있다. 중고한어 시기 娘母와 泥母는 비록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하여 자주 혼용하였을 것이지만 엄격히 보면 서로 독립된 음소를 가졌을 것이다.

다음 來母에 대해 보겠다. 중고한어의 來母는 *l으로 재구되지만 상고한어에서는 *r으로 재구된다. 즉 중국어 음운사에서 來母는 *r>*l의 음운변화 과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²³⁾ 來母가 *l으로 전환된 시기에 대하여 李榮(1956)은 東晉 시기의 불경 번역에서 ‘羅’와 ‘la’을 대응시킬 때 ‘輕音’이라 注를 달았지만, ‘ra’와 대응할 때는 注가 없었는데 注가 있는 것은 유표적이고 주가 없는 것은 무표적이라 본다면 당시 來母는 ‘r’이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北涼 天竺 曇無讖의 불경 번역에서 ‘ra’ 번역에 ‘囉’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 산스크리트와 대응하는 음가가 없을 경우 한자에 부수 ‘口’를 추가하여 造字하는데 ‘囉’는 이러한 造字에 속한다. ‘囉’가 ‘ra’와 대응하고 ‘羅’는 ‘la’와 대응하는 것은 여기서 來母는 이미 *l으로 전환하였을 말한다. 즉 대체적으로 東漢시기로 보고 있다. 후기의 불경 번역에서 來母의 음가 전환의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전통번역의 영향에 의한 혼란성일 것이다.

다음은 全濁音의 문제이다. 중고한어 전탁음은 일반적으로 유성음으로

23) 일찍이 20세기 초 曾運乾(1928)의 고문헌 고찰에서 喻4母와 定母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현상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학계에서 흔히 ‘喻四歸定’이라 불렀다. 이에 대해 李方桂(1971:10)은 喻4母 글자는 상고한어에서 流音과 관련될 것이라고 보았다. ‘喻四歸定’은 流音의 폐쇄음화 현상이다. 하지만 상고한어 喻4母를 *r로 재구하였는데 潘悟云(2000, 권혁준 역 2014:431-438)에서는 티베트-버마어군의 同源語에서 중국어의 來母와 대응하는 것은 주로 r-인 반면 以母와 대응하는 것은 주로 l-이며, 베트남 한자어에서 來母는 古 베트남 한자어에서는 r-와 대응하고 좀 늦은 층위의 베트남 한자어에서 l-과 대응하며, 특히 중국어 음운변화로 보면 來母는 상고한어 시기로부터 *r->l-의 변화를 겪었고 以母는 *l->j-의 음운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재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성유기음으로 재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劉廣和(1984)는 不空이 전탁음 글자로 범어의 유성유기음을 번역하고 있는데 당시 중국어의 전탁음은 범어와 같이 유성유기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群母 *gh, 定母 *dh, 并母 *bh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施向東(1983)에서는 玄奘의 번역이 唐代 中原音を 반영하는 것이며 全濁音으로 범어의 순수 유성음을 번역하고 있어서 당시 중국어의 전탁음은 群母 *g, 定母 *d, 并母 *b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중국어 음운학계에서는 施向東(1983)의 견해를 받아들여 中原音を 반영하는 玄奘의 번역을 따라 전탁음을 유성음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신 不空의 번역 특징은 당시 중국어의 長安方言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위의 고찰은 중국어의 자모로부터 자음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다음은 중국어의 운모에 대해 볼 것인데 운모는 모음의 체계 및 음절말 자음의 체계 등 여러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이에 먼저 중국어의 운모의 음절 구조를 보면 韻頭, 韻腹, 韻尾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韻頭는 介音を 말하고, 韻腹은 주요모음을 말하며, 韻尾는 음절말음이다.²⁴⁾

그러나 중고한어 음절말음의 韻尾는 자음운미와 모음운미 두 종류로 나눈다. 자음운미를 갖는 운모로는 -m, -n, -ŋ의 비음운미를 가지는 陽聲韻과, -p, -t, -k의 입성운미를 갖는 入聲韻이다. 이외 陰聲韻이 있는데 음절말음이 없거나 모음운미를 가지는 것으로 -∅, -i, -u이 있다.

다음 주요모음을 보면 潘悟雲(2000)에서는 6모음 체계 즉 /a/, /e/, /i/, /ə/, /o/, /u/으로 나누고 비슷한 모음의 운들을 변이음으로 처리하여 /a/ [a, a, æ], /e/ [e, ɛ, ɛ], /i/ [i, ɪ], /ə/ [ə, i], /o/ [ɔ, ʏ, o, ʊ], /u/ [u]으로 재구하였다. 아래는 권혁준 역 (2014:135-140)에서 제 학자들의 운모체계 재구음 중 반오운의 재구음만 분리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24) 중국어의 음절구조는 (C)(M)V(E)으로 되어 있으며 C-성모, M-개음, V-주요모음, E-운미이다. M은 C와 V(E)의 사이에 위치하므로 ‘介音’이라 부르는 것이다. 개음은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음성학 시각의 ‘활음’과는 다르다. 음성학에서의 ‘활음’은 음소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어의 개음과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은 음소의 자격을 갖는다. 이진호(2014:37)에서는 ‘활음’ 개념에 대해 재조명하고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을 ‘반모음’으로 수정하였다.

[표12] 전기 중고한어 운모체계의 재구 음가

모음: /a/ [a, a, æ]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歌1*a	泰1*ai	豪1*au	唐1*aŋ	談1*am	寒1*an	鐸1*ak	盍1*ap	曷1*at
ø	戈1*(w)a					桓1*(w)an			末1*(w)at
ʏ	麻2*ya	夬2*yai	肴2*yæu	庚2*yæŋ	銜2*yæm	刪2*yæn	阮2*yæk	狎2*yæp	鎋2*yæt
i	麻3*ia			庚3*iaŋ			阮3*iek		
i		廢3*iai		陽3*iaŋ	嚴(凡)3*iam		藥3*iak	業(乏)*iap	

모음: /e/ [e, e, ɛ]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ʏ	佳2*ye	皆2*yei		耕2*yæŋ	咸2*yæm	山2*yæn	麥2*yæk	洽2*yæp	黠2*yæt
i	支A*ie	祭A*iei	宵A*ieu	淸A*ieŋ	鹽A*iem	仙A*ien	昔A*iek	葉A*iep	薛A*iet
ui	支B*ui ɛ	祭B*uiiei	宵B*uiieu	淸B*uiieŋ	鹽B*uiiem	仙B*uiien	昔B*uiiek	葉B*uiiep	薛B*uiiet
ø		齊4*ei	蕭4*eu	靑4*ej	添4*em	先4*en	錫4*ek	帖4*ep	屑4*et

모음: /i/ [i, i]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i	脂A*ɪ		幽3*iu		侵A*(i)m	眞(臻)A*in		緝A*ip	質(櫛)A*it
ui	脂B*ui				侵B*ui(i)m	眞(臻)B*uin		緝B*uiip	質(櫛)B*uit

모음: /ə/ [ə, i]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咍1*əi		登1*əŋ	覃1*əɱ	痕1*ən	德1*ək	合1*əp	
i	之3*ɪ	微3*ii	尤3*iu	蒸3*ɪŋ		殷3*in	職3*ɪk		迄3*ɪt

모음: /o/ [ɔ, ɤ, o, ʊ]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模1*ɔo	灰1*ɔoi		冬1*ɔoŋ		魂1*ɔon ²⁵⁾	沃1*ɔok		沒1*ɔot
ʏ				江2*ɔoŋ			覺2*ɔok		
i	魚3*ɪɤ					元3*ɪɱ			月3*ɪt
i	虞3*ɪü			鍾3*ɪüŋ			燭3*ɪüok		

모음: /u/ [u]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侯1*əu			東1*əuŋ			屋1*uk		
i				東3*iuŋ		文3*iuɱ	屋3*iuok		物3*iut

25) 권혁준(2014:140)에서의 재구음이 ‘üon’으로 되어 있는데 ‘u’가 오타에 의한 오류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 중고한어의 운모체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사실 개음에 있다. 특히 3등운 글자의 개음에 있다. 위의 도표를 보면 반오운의 개음 체계는 2등운 -ɣ -, 3등운 B류 -ɯi-, 3등운 A류 -i-으로 되어 있다.

3등운 A류와 B류의 분류는 重紐의 분류이다. 重紐는 대개 전기 중고한 어시기의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等韻圖에서 3등운의 글자이지만 脣, 牙, 喉에서는 3등칸과 4등칸에 나누어서 배치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重紐 글자라 한다. 이런 현상은 모든 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운을 重紐韻이라한다. 중뉴운은 일반적으로 支韻, 脂韻, 祭韻, 眞(諄)韻, 仙韻, 宵韻, 侵韻, 鹽韻등 3등운들을 말한다. 그리고 4등칸에 배치되는 중뉴글자를 重紐4등 혹은 A류 글자라 하고, 3등칸에 배치되는 글자를 重紐3등 혹은 B류 글자라고 한다.

重紐의 A류와 B류가 반영하는 차이는 개음에 있다.²⁶⁾ 중뉴는 3등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3등운은 細音性 개음을 갖는 글자이며 여기서 다시 하위분류로 A류와 B류 두 가지 개음이 나누어진다. 그 중 B류 개음은 ‘약한·이완된·中舌적인 음’(최영애 2000:63)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음성기호에 대한 재구 음가의 표현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B류 개음의 특성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반오운(2000, 권혁준 역 2014)에서는 B류 개음을 ‘ɯi’으로 하고 이와 대응하는 A류 개음을 ‘i’으로 재구한 것이다. 이러한 재구는 당시의 구체적인 음가의 재현을 위한 것이라 보기보다 음소적인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뉴의 두 가지 개음이 확인되면서 비중뉴운의 3등운 글자들의 개음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陸志韋(1939:28), 麥耘(1992:122) 등은 성모의 종류에 따라 대체적으로 莊系, 云母, 知2系, 來母등의 反切下字는 被切字 B류와 보다 높은 접촉 빈도를 보여주고, 章系, 精系, 日母, 以母의 反切下字는 被切字 A류와 보다 높은 접촉 빈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²⁷⁾ 이에 권혁준(2000)은 중뉴 이외 모든 3등운 글자를 C류라 하고 A류

26) 중뉴의 차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성모의 차이, 모음의 차이, 운미의 차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현재 대개 개음의 차이로 견해를 모으고 있다.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영애(1999)를 참고할 수 있다.

와 가까운 것을 C1류, B류와 가까운 것을 C2류로 하고 C1류의 개음을 A류와, C2류의 개음을 B류와 같이 재구하였다.

개음의 문제에 있어 앞서 3등운의 개음 이외 4등운의 개음 문제와 2등운의 개음 문제도 많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다. 4등운 개음 문제의 쟁점은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있는데 현재 개음이 없었다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다.²⁸⁾ 4등운 글자는 후기 중고한어로부터 3등운 A류와 혼용되어 합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4등운 개음이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없었다가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점차 개음이 생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2등운의 개음 문제 역시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본고는 상고한어 시기 2등운 글자가 3등운 B류 글자와 해성하는 등의 현상으로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2등운에 개음이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²⁹⁾ 鄭張尙芳(1987[2012])은 중고한어 시기에 2등운에 r개음이 있으며 상고한어에서부터 중고한어로 r>y>w>i>i의 음운변화를 가졌다고 하였다. 즉 2등운 개음은 r의 변화과정에서 y단계를 반영하고, 3등운 B류는 w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등운 B류 개음에 있어서 반오운(2013)은 ‘wi’으로 재구하면서 실제 발음은 융합되어 ‘i’와 같을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음의 반모음 성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w’을 ‘u’으로 수정하였다.³⁰⁾ 본고 역시 최근의 견해를 받아들여 3등운 B류의 개음을 ‘wi’으로 반영할 것이다.

앞서 전기 중고한어 시기의 음운체계의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보았다. 하지만 본고의 중고한어 음가의 고찰 목적은 梵漢 번역을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일부 중국어 내부의 세부적인 분류에 대한 재구음의 반영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본고는 권혁준 역 (2014)에서 제시하는 전기 중고한어 음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을 할 것이다.

첫째, 3등운 개음의 분류에 있어서 본고는 중뉴글자의 A류와 B류 개음

27) 이러한 분류는 경향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으로 일부 자모 특히 知母와 來母는 B류와의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A류와의 경향도 적지 않게 보인다(黃笑山 1996 참고).

2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영애(2000:260-263)을 참고할 수 있다.

29) 반오운(2000, 권혁준 역 2014:473-487) 참고.

30) 이는 復旦大學東亞語言數據中心 <http://ccdc.fudan.edu.cn/bases/index.jsp>에서 제시된 반오운의 재구음을 참고할 수 있는데 3등운 B류 개음이 모두 ‘u’로 바뀌었다.

의 차이만 반영할 것이다. 기타 비중뉴의 글자들은 모두 단순한 하나의 3등운 개음 ‘i’개음으로 반영한다. 다만 莊系 3등 글자만은 B류 개음과 같이 하여 ‘wi’으로 반영하겠다.

둘째, 戈韻, 桓韻, 末韻은 중국어 음운학에서 合口韻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의 梵漢 번역에서는 비원순모음의 글자와 대응한다. 이에 대해 당시 중국어 자음에 아마 원순성 자질의 첨가로 ʷ가 첨가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 예를 들어 ‘pʷa’ 등으로 재구하였다. 본고는 ʷ의 첨가를 삭제하고 그냥 단순한 ‘pa’으로 재구할 것이다.

셋째, 권혁준(2014:144)에 의하면 ‘모음 o, ɔ 음소에는 모두 전이음 ü가 선행하며 이는 普通話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ü’는 음소적인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본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한 ‘o, ɔ’으로 재구할 것이다.

제 3 장 梵字 기본 음절의 한글 표기

본 장은 기본음절 범자의 한글 표기에 대해 볼 것이다. 범자 모음의 종류에 따라 ‘C+a’류, ‘C+i’류, ‘C+전설모음’류, ‘C+원순모음’류 음절로 분류하였다. 전설모음에는 ‘e, ai’가 포함되고, 원순모음에는 ‘u, o, au’가 포함된다. 산스크리트에서 ‘a’ 모음 음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³¹⁾ 이에 먼저 ‘a’ 모음 표기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기타 모음의 예를 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1 기본 開音節의 표기

3.1.1 ‘C+a’ 음절

3.1.1.1 아음류

‘C+a’류에서 C자음이 아음인 범자 음절로 ‘ka, kha, ga, gha’가 출현한다. 이와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로마자 대문자는 출현 다라니를 말하며 숫자는 출현 빈도를 가리킨다. 이외 한자의 중고 한어 재구 음가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고의 기타 예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

예1

1) ka/가/迦/116 [S;8, G;3, Q;13, D;89, F;3] [迦:見母 戈3韻 *kia]³²⁾

31) 정승석(2003)은 고대 인도 백과전서로 평가되는 가장 방대한 서사시에 대하여 자모 통계를 내었는데 모음의 사용빈도의 통계를 보면 역시 ‘a/ā’ 모음음절이 제일 많아 66.5%을 차지하고, 기타 ‘i/ī’ 모음음절이 12.1%, ‘u/ū’ 모음음절이 7.4%, ‘e’ 모음음절이 6.2%, ‘o’ 모음음절이 3.6%, ‘ai’ 모음음절이 1.6%, ‘au’ 모음음절이 0.7%의 순으로 되어 있다.

32) ‘迦’는 중고음에서 見母 戈3韻의 *kia와 見母 麻2韻의 *kya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이 두 음가의 자모는 모두 見母이지만 운모에서 하나는 戈3韻, 다른 하나는 麻2韻으로 차이를 보여준다. 기타 한자의 운모 대응을 보면 戈3韻은 나타나지만 麻2韻은 없다. 戈3韻이 더 일반성을 띠는 것이므로 麻2韻을 제외하고 戈3韻으로 대응시켰다.

- 2) ka/가/揭/1 [D;1] [揭:見母 薛B韻 *kuɿet]³³⁾
- 3) ka/가/羯/1 [D;1] [羯:見母 月3韻 *kiɿt]
- 4) ga/아/諷/117 [S;3, G;2, Q;54, D;45, F;13] [諷:疑母 歌1韻 *ŋa]
- 5) ga/아/藁/21 [Q;6, D;15] [藁:疑母 薛B韻 *ŋuɿet]
- 6) ga/아/揭/1 [S;1] [揭:群母 薛B韻 *guɿet]
- 7) ga/아/阿/1 [Q;1] [阿:影母 歌1韻 *ʔa]
- 8) kha/카/佉/6 [S;3, Q;2, D;1] [佉:溪母 戈3韻 *khia]
- 9) kha/카/伽/2 [Q;1, D;1] [伽:群母 戈3韻 *gia]
- 10) gha/가/伽/1 [D;1] [伽:群母 戈3韻 *gia]
- 11) gha/카/伽/2 [D;2] [伽:群母 戈3韻 *gia]

위의 예1를 범자와 한글의 대응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ka/가, ga/아, kha/카, gha/가, gha/카’ 등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한어 음과 결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ka/가’ 1)번~3)번

1)번에 ‘ka/가/迦’ 대응의 예가 있는데 다라니의 출현 분포와 빈도는 ‘S;8, G;3, Q;13, D;89, F;3’으로 되어 있다. 즉 다섯 다라니에 모두 출현하며 출현 횟수는 총 116회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 2)번 ‘ka/가/揭’과 3)번 ‘ka/가/羯’의 예도 있는데 다라니 D에서 각각 1회만 출현한다. 1)번 예는 여러 다라니에 출현하고 높은 출현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향의 대응이라는 의미로 ‘일반대응’이라 하겠다. 2)번과 3)번의 경우 극히 적은 출현 횟수로 소수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대응이라 하여 무조건 예외인 것은 아니다.

일반대응 예인 ‘ka/가/迦/116’에서 한자 ‘迦’의 중고음은 見母 戈3韻 *kia 이므로 梵-韓-中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戈3(*ia)’이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예들도 분리하여 대응시킬 수 있는데

33) ‘揭’는 중고음에서 見母 薛B韻 *kuɿet, 群母 薛B韻 *guɿet, 溪母 祭B韻 *khuɿiei의 세 가지 음이 있는데 1)번의 ‘ka’의 대응에서 見母 薛B韻 *kuɿet의 음가를 적용하였고, 3)번의 ‘ga’의 대응에서 群母 薛B韻 *guɿet의 음가를 적용하였다. 이외 集韻의 반절에 의한 見母 月3韻 *kiɿt, 群母 月3韻 *giɿt도 있지만 이는 후기 중고한어와 가까운 시기의 반절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시켰다.

소수 대응인 ‘ka/가/揭/1’와 ‘ka/가/羯/1’은 모두 자음의 대응이 ‘k/ㄱ/見(*k)’으로 일반대응의 예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음의 대응에서 2)번이 ‘a/아/薛B(*ɰiet)’이고, 3)번이 ‘a/아/月3(*ixt)’인데 한자가 *-t 자음운미의 入聲韻 글자로 되어 있어 일반대응과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마치 예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의 예들을 고찰하여 보면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 ‘ga/아’ 4)번~7)번

위의 예들에서 4)번의 ‘ga/아/諷/117’예가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5)번의 ‘ga/아/藥/21’도 20여회 적지 않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5)번 예의 출현 횟수가 비록 4)번만큼 많지는 않지만 예외로 보기에 높은 출현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일반대응으로 볼 것이다. 6)번과 7)번 예는 각각 1회로 소수대응이다.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일반대응인 4)번과 5)번이 ‘g/ㅇ/疑(*ŋ)’으로 같고 총 138회이다. 소수대응의 6)번은 ‘g/ㅇ/群(*g)’이고 7)번은 ‘g/ㅇ/影(*ʔ)’이다. 6)번과 7)번의 범자와 한글 대응은 ‘g/ㅇ’으로 일치하지만 한자에서 차이를 보여주므로 예외에 속한다.

다음으로 모음의 대응을 보면 4)번과 7)번이 ‘a/아/歌1(*a)’로 총 118회이고 5)번과 6)번이 ‘a/아/薛B(*ɰiet)’으로 총 22회이다. 5)번과 6)번의 한자 대응에서 *-t 자음운미를 글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20여회의 출현 횟수로 보아 예외는 아니다. 중국어 번역에서 개음절 범자와 자음운미의 한자가 대응하는 현상이 비록 음성운 글자보다 출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보아 앞서 ‘ka/가’ 대응의 2)번과 3)번의 소수대응에서의 모음의 대응은 예외가 아니게 된다.

☞ ‘kha/카’ 8)번~9)번

해당 예들의 출현 횟수를 보면 8)번 예가 6회, 9)번 예가 2회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8)번이 일반대응이 되고 9)번이 소수대응이 된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8)번이 ‘kh/ㅋ/溪(*kh)’이고 9)번이 ‘kh/ㅋ/群(*g)’으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9)번이 예외가 된다. 모음의 대응은 8)번과 9)번 모두 ‘a/아/戈3(*ia)’로 일치한다.

ㄱ ‘gh/가’ 10)번, ‘gh/카’ 11)번

10)번 예는 ‘gha/가/伽/1’이고, 11)번의 예는 ‘gha/카/伽/2’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출현 횟수로 보아 일반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각각 ‘gh/ㄱ/群(*g)’와 ‘gh/ㅋ/群(*g)’으로 한글 자음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같은 한자 ‘伽’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앞서 9)번의 예에서도 ‘kha/카/伽/2’로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 群母 *g의 한자 ‘伽’가 범자 ‘kh’ 혹은 ‘gh’와의 혼용 표기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한글 표기는 동일 한자의 영향을 받아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 진언 표기의 대응체계에 의하면(제5장의 5.1.2절 참고), 10)번 예가 일반적인 대응이다. 이들의 모음의 대응은 모두 ‘a/아/戈3(*ia)’으로 일치한다.

위의 예들에서 나타나는 일부 음소대응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보겠다.

우선 ‘ga/아’의 대응에서 유성음 범자 ‘g’가 대응하는 한글 초성은 ‘ㅇ’이다. 한자 자모가 疑母 *ŋ로 나타나는데 15세기의 훈민정음의 규칙에 의하면 疑母 대응에 한글의 초성자음은 마땅히 꼭지가 달린 ‘ㅇ’이어야 한다.³⁴⁾ 여기에서 반영되는 한글 초성이 비록 ‘ㅇ’지만 실제로는 꼭지가 달린 ‘ㅇ’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표기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유성음의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의 한자 대응이 비교적 특이한데, 중고한어시기 중국어 번역 체계에 따라 비음의 疑母가 사용되고 한글 표기가 한자를 따라 비음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유성음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이후에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관련된 상세한 음운적 논의는 제5장의 5.2.1절 초성 표기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g/ㅇ’의 한자 대응에 群母 *g와 影母 *ʔ가 예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群母 *g는 한자 *g와 범자 g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한 예외 대응으로 보인다. 한글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와의 일반대응을 따라 ‘ㅇ’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影母 *ʔ는 한글 표기에 의한 ‘ㅇ’와 꼭지 달린 ‘ㅇ’ 표기의 혼란성에 의한 것이 되겠다.

34) 참고로 만연사본(1777)에서의 진언 표기에서는 유성음 범자 ‘g’ 모두 한글 초성을 꼭지가 있는 ‘ㅇ’을 사용하고 있다.

모음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범자가 모두 ‘a’ 모음이고 한글 모음도 모두 ‘아’이며 한자 운모는 대부분 歌1韻 *a, 戈3韻 *ia의 주요모음 *a에 대응한다. 하지만 개음절 범자 ‘a’와의 대응에 자음운미의 入聲韻 한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薛B韻 *uɿet, 月3韻 *ixt 등이 사용되며 이들의 출현 횟수 또한 20여회로 단순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어 번역의 한자 표기에서 비록 개음절과 陰聲韻 글자의 대응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운미의 한자도 어느 정도 허용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모음도 *ɛ, *ʏ으로 *a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넓은 영역의 음가 대응이 허용됨을 볼 수 있다.

3.1.1.2 설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설음인 예로 ‘ta, tha, da, dha, na’가 출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

- 1) ta/다/多/64 [D;36, Q;18, F;10] [多:端母 歌1韻 *ta]
- 2) ta/다/𪛗/42 [S;2, D;22, Q;18] [𪛗:端母 歌1韻 *ta]³⁵⁾
- 3) ta/다/𪛖/24 [S;4, D;9, Q;5, F;6] [𪛖:端母 歌1韻 *ta]³⁶⁾
- 4) ta/다/𪛗/17 [S;1, Q;7, D;19] [𪛗:端母 曷1韻 *tat]
- 5) ta/다/單/4 [D;4] [單:端母 寒1韻 *tan]³⁷⁾
- 6) dha/다/𪛗/54 [S;10, G;1, Q;29, D;12, F;2] [𪛗:定母 歌1韻 *da]³⁸⁾
- 7) dha/다/陀/21 [Q;21] [陀:定母 歌1韻 *da]
- 8) dha/다/達/1 [S;1] [達:定母 曷1韻 *dat]³⁹⁾

35) ‘𪛗’는 중고음에서 端母 歌1韻 *ta와 端母 泰1韻 *tai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36) ‘𪛖’는 중고음에서 端母 歌1韻 *ta, 徹母 麻2韻 *thya, 知母 麻2韻 *tʃa, 昌母 麻3韻 *tʃhia, 昌母 支A韻 *tʃhiɛ, 昌母 之3韻 *tʃhi 등의 다양한 음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의 端母 歌1韻의 *ta음을 선택하였다.

37) ‘單’은 중고음에서 端母 寒1韻 *tan와 禪母 仙A韻 *dziɛn의 두 종류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端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38) ‘𪛗’는 중고음에서 定母 歌1韻 *da, 定母 泰1韻 *dai, 定母 齊4韻 *dei의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39) ‘達’은 중고음에서 定母 曷1韻 *dat와 透母 曷1韻 *that의 두 가지 음이 있는데 여기

- 9) tha/타/他/22 [S;1, D;21] [他:透母 歌1韻 *tha]
- 10) tha/타/佗/13 [S;1, Q;7, F;5] [佗:透母 歌1韻 *tha]⁴⁰⁾
- 11) da/나/娜/32 [S;6, Q;6, D;21] [娜:泥母 歌1韻 *na]
- 12) da/나/那/5 [S;2, G;1, D;2] [那:泥母 歌1韻 *na]
- 13) da/나/乃/4 [Q;2, D;2] [乃:泥母 > 哈1韻 *nəi]
- 14) da/나/拏/2 [F;2] [拏:>娘母 > 麻2韻 *nɣa]
- 15) da/나/捺/1 [D;1] [捺:泥母 曷1韻 *nat]
- 16) da/다/多/1 [Q;1] [多:>端母 歌1韻 *ta]
- 17) na/나/曩/122 [S;9, G;7, Q;26, D;79] [曩:泥母 唐1韻 *naŋ]
- 18) na/나/那/8 [S;2, G;3, F;3] [那:泥母 歌1韻 *na]
- 19) na/나/娜/4 [G;3, D;1] [娜:泥母 歌1韻 *na]
- 20) na/나/拏/1 [S;1] [拏:>娘母 > 麻2韻 *nɣa]
- 21) na/나/顗/1 [D;1] [顗:泥母 > 青4韻 *neŋ]

위의 예2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은 ‘ta/다, dha/다, tha/타, da/나, na/나’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ta/다’ 1)번~5)번

여기에서 1)번이 64회, 2)번이 42회, 3)번이 24회, 4)번이 17회, 5)번이 4회의 출현 횟수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대응 예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다양한 한자를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예들이 나타나지만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으로 모두가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가 130회가 있으며 이외 또 ‘a/아/曷1(*at)’가 17회, ‘a/아/寒1(*an)’가 4회등 *-t 혹은 *-n의 자음운미 글자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 번역에서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만 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글 표기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정연하게 개음절 범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 ‘dha/다’ 6)번~8)번

에서는 定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40) ‘佗’는 중고음에서 透母 歌1韻 *tha, 定母 歌1韻 *da 두 종류의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透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번이 54회, 7)번이 21회로 일반대응에 속하고 8)번이 소수대응이 된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dh/ㄷ/定(*d)’으로 모두 완전 일치한다. 여기에서 유성유기음 범자 ‘dh’에 한글 평음 ‘ㄷ’가 표기되고 한자는 全濁音의 定母 글자를 사용하여 일반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서 아음에서 고찰한 ‘gh/ㄱ/群(*g)’와 체계적으로 평행한다. 다음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가 75회, ‘a/아/曷1(*at)’가 1회이다.

☞ ‘tha/타’ 9)번~10)번

9)번이 22회, 10)번이 13회로 출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자음의 대응이 ‘th/ㅌ/透(*th)’, 모음의 대응이 ‘a/아/歌1(*a)’로 두 예가 완전히 일치한다.

☞ ‘da/나’ 11)번~16)번

여기에서는 다양한 예들이 나타나며 총 45회 출현하는데 그 중 11)번이 32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에서 대부분 ‘d/ㄴ/泥(*n)’로 나타나고 총 41회이다. 여기에서도 유성음 범자 자음과 비음의 한글, 한자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타 자음의 대응을 보면 14)번의 ‘d/ㄴ/娘(*n)’가 2회, 15)번의 ‘d/ㄷ/端(*t)’가 1회이다. 이 중 14)번은 한자 泥母 대신 娘母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 泥母와 娘母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한 것이다. 이들의 혼용은 한글의 ‘ㄴ’ 표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娘母의 대응을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15)번에서는 유성음의 범자 자음 ‘d’의 대응에 한글이 마땅히 비음의 ‘ㄴ’가 나타나야 하는데 ‘ㄷ’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자 ‘多’의 성모가 端母 *t인데 범자 자음 ‘d’와 대응하는 오류에 의한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a)’로 대부분 일치하지만 13)번에서만 ‘a/아/哈1(*ai)/4’의 대응이 나타난다. 주요모음 *ə의 반영을 앞선 고찰의 다른 모음의 출현 예와 비교하여 비교적 넓은 영역의 대응이라 볼 수 있겠지만 모음운미 ‘*-i’의 대응이 보임이 비교적 특이하다.

ㄱ ‘na/나’ 17)번~21)번

여기에서도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는데 총 136회에서 17)번만 122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거의 대부분 ‘n/ㄴ/泥(*n)’로 일치하고 20)번 예에서만 ‘n/ㄴ/娘(*n)’의 대응이 1회 나타나는데 예외로 처리된다. 모음의 대응은 17번이 ‘a/아/唐1(*aŋ)’이 122회로 제일 많고 18)번과 19)번이 ‘a/아/歌1(*a)’의 대응으로 총 12회이다. 이외 20)번의 ‘a/아/麻2(*ɣa)’가 1회, 21)번의 ‘a/아/靑4(*eŋ)’가 1회인데 예외이다. 그 중 20)번은 한자의 자모가 娘母이므로 2등운 혹은 3등운 글자에만 출현해야 하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3.1.1.3 권설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권설음인 예로 ‘ta, tha, da, dha, na’가 출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3

- 1) ta/타/吒/13 [S;7, Q;1, D;5] [吒:知母 麻2韻 *tɣa]
- 2) ta/타/姪/1 [F;1] [姪:徹母 麻2韻 *thɣa]
- 3) tha/타/吒/1 [D;1] [吒:徹母 麻2韻 *tɣa]
- 4) dha/다/茶/2 [Q;1, D;1] [茶:澄母 麻2韻 *dɣa]
- 5) da/나/拏/5 [D;5] [拏:娘母 麻2韻 *nɣa]
- 6) na/나/拏/21 [S;1 Q;11, D;8, F;1] [拏:娘母 麻2韻 *nɣa]
- 7) na/나/弩/4 [D;4] [弩:泥母 模1韻 *no]

위의 예3에서 범자와 한글의 대응으로 ‘ta/타, tha/타, dha/다, na/나’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ㄱ ‘ta/타’ 1)번~2)번

자음의 대응을 보면 1)번이 ‘t/ㅌ/知(*t)/13’이고 2)번이 ‘t/ㅌ/徹(*th)/1’으로 2)번이 예외가 된다. 권설음의 범자 자음 ‘t’가 무엇 때문에 한글에서 유기음의 ‘ㅌ’로 표기됨이 비교적 특이하다. 혹시 한자 ‘吒’의 한국한자음 ‘

타'41)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ㄱ 'tha/타' 3)번

이에 3)번의 예 'tha/타/吒' 하나만 있는데 출현 횟수도 1회이다. 이에 사용된 한자 '吒'는 앞서 'ta/타'의 1)번 일반대응에서 사용하는 한자 '吒'와 일치한다. 즉 3)번의 예는 예외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한글만 보아서는 유기음 범자 자음의 'th'을 유기음의 한글 자음 'ㅌ'로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적 자연스럽다. 권설음 범자 자음 't'와 'th'의 한글 표기의 특이한 현상은 3.2.3절의 자음 음절에서도 나타난다.

ㄴ 'dha/다' 4)번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dh/ㄷ/澄(*d)'으로 유성유기음의 범자 자음과 평음의 한글 표기 및 全濁音의 한자가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아음과 설음에서의 예와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ㄷ 'na/나' 6)번~7)번

6)번의 자음의 대응은 'n/ㄴ/娘(*n)/21'이고 7)번은 'n/ㄴ/泥(*n)/4'이다. 출현 빈도를 보아 권설음 비음의 대응에서 6)번의 娘母가 일반적이다. 앞서 설음의 범자 자음 'n' 대응에 한자 자모 泥母를 규칙 대응으로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娘母를 규칙대응으로, 泥母를 예외로 할 것이다.

위의 고찰은 자음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였다. 권설음 범자는 치조음 계열로 한글 표기에서는 앞선 설음의 표기와 같이 'ㄷ, ㅌ, ㄴ'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 표기에서는 설음에서 端系가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권설음에서는 知系가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知系 자모는 중고한어에서 출현 제약이 있어 2등운과 3등운에만 나타난다. 위의 권설음 한자 표기 예의 운모 또한 모두 2등운 글자로 'a/아/麻2(*ɣa)'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대응에 속하긴 하지만 본고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운모의 대응을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1) 중세 한국한자음을 찾을 수 없어 현대 한국한자음을 참고하였다.

3.1.1.4 순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순음인 예로 ‘pa, pha, bha, ma, va’가 출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4

- 1) pa/ㅍ/跛/54 [S;2, Q:14, D;31, F;7] [跛⁴²⁾:幫母 戈1韻 *pa]
- 2) pa/ㅍ/播/24 [S;2, G;1, Q:11, D;10] [播:幫母 戈1韻 *pa]
- 3) pa/ㅍ/鉢/18 [S;6, Q:1, D;11] [鉢:幫母 末1韻 *pat]
- 4) pa/ㅍ/泮/1 [S;1] [泮:滂母 桓1韻 *phan]
- 5) pa/ㅍ/發/1 [D;1] [發:幫母 月3韻 *piɤt]
- 6) pha/ㅍ/發/60 [S;2, D;58] [發:滂母 月3韻 *piɤt]
- 7) pha/ㅍ/泮/10 [S;10], [泮:滂母 桓1韻 *phan]
- 8) pha/ㅍ/頗/1 [D;1] [頗:滂母 戈1韻 *pha]
- 9) bha/ㅍ/婆/85 [S;7, G;6, Q:19, D;48, F;5] [婆:并母 戈1韻 *ba]
- 10) bha/ㅍ/跛/4 [Q:2, D;2] [跛:滂母 戈1韻 *pa]
- 11) bha/ㅍ/溥/1 [D;1] [溥⁴³⁾:滂母 鐸1韻 *pak]
- 12) va/ㅍ/嚕/172 [S;29, G;10, Q:49, D;71, F;13] [嚕:*?]
- 13) ma/ㅁ/麼/100 [S;2, Q:51, D;36, F;11] [麼:明母 戈1韻 *ma]
- 14) ma/ㅁ/摩/67 [S;14, G;9, Q:4, D;38, F;2] [摩:明母 戈1韻 *ma]
- 15) ma/ㅁ/磨/1 [Q:1] [磨:明母 戈1韻 *ma]

위의 예4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pa/ㅍ, pha/ㅍ, bha/ㅍ, va/ㅍ, ma/ㅁ’가 있다. 한자의 중고한어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pa/ㅍ’ 1)번~5)번

자음의 대응은 대부분 ‘p/ㅍ/幫(*p)’으로 일치하지만 4)번에서만 ‘p/ㅍ/滂(*ph)/1’의 예외가 나타난다. 모음의 대응은 ‘a/ㅏ/戈1(*a)’가 총 78회, ‘a/ㅏ

42) ‘跛’는 중고음에서 幫母 戈1韻 *pa와 幫母 支B韻 *puɿe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43) ‘溥’는 중고음에서 幫母 鐸1韻 *pak와 滂母 模1韻 *pho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末1(*at)'가 총 18회 및 'a/아/桓1(*an)', 'a/아/月3(*irt)'가 각각 1회 나타난다.

㉞ 'pha/바' 6)번~8)번

자음의 대응에서 6)번은 'ph/ㅂ/幫(*p)'으로 60회이고, 7)번과 8)번은 'ph/ㅅ/滂(*ph)'으로 총 11회이며 한자의 자모에서 차이를 보여준다(유기음 범자 'ph'에 한글이 평음의 'ㅂ'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제5장의 5.2.1절 초성 표기에서 다룰 것이다.).

6)번의 구체적인 대응 예는 'pha/바/發/60'으로 한자 '發'은 幫母이며 3등운 글자이다. 그리고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輕唇音으로 변화한다. 제2장의 중고한어 음가의 고찰에서 이러한 글자들은 전기 중고한어시기에 음성적으로 마찰성을 가지고 있어 [pf]의 음가에 가까웠을 것이라 하였다. 즉 '發'은 비록 중국어의 음소적인 차원에서 幫母에 속하지만 음성적인 [pf]의 특성에 의하여 유기음 범자 'ph'와 대응하였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6)번의 'ph/ㅂ/幫(*p)/60'은 예외의 대응으로 처리한다. 즉 여기에서는 7)번과 8)번의 대응이 일반대응이 된다.

모음의 대응은 6)번은 'a/아/月3(*irt)/60', 7)번은 'a/아/桓1(*an)/10', 8)번은 'a/아/戈1(*a)/1'이다.

㉟ 'bha/바' 9)번~11)번

자음의 대응에서 9)번이 'bha/바/并(*b)/85'로 일반대응이고, 10)번과 11)번은 'bha/바/幫(*p)'의 소수대응이며 일반대응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의 원인은 중국어 번역에서 범자 'bh' 자음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a/아/戈1(*a)'은 89회이고, 'a/아/鐸1(*ak)'은 1회이다.

㊱ 'va/바' 12)번

여기에서 한자 '𪛗'는 진언 표기를 위한 造字이므로 중고한어음을 찾을 수 없는데 172회의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음의 대응과 모음의 대응을 'v/ㅂ/𪛗(*?)/172', 'a/아/𪛗(*?)/172'로 할 것이다.

ㄹ‘ma/마’ 13)번~15)번

이 예들은 자음의 대응은 ‘m/口/明(*m)’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戈 1(*a)’로 매우 정연하다.

위의 대응 예에서 한글 ‘바’는 범자 ‘pa’, ‘pha’, ‘bha’, ‘va’ 네 가지 음가와 동시에 대응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음가 분석은 제 5장의 5.2.1의 초성 표기에서 다룰 것이다.

3.1.1.5 치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치음인 예로 ‘ca, cha, ja, śa, ṣa, sa’가 출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5

- 1) ca/자/左/45 [S;5, Q:18, D;16, F;3] [左:精母 歌1韻 *tsa]
- 2) ca/자/撈/5 [G:1, D;4] [撈:精母 曷1韻 *tsat]
- 3) ca/자/佐/3 [G:1, D;2] [佐:精母 歌1韻 *tsa]
- 4) ca/자/櫟/1 [D;1] [櫟:精母 曷1韻 *tsat]
- 5) ca/자/斫/1 [D;1] [斫:章母 藥3韻 *tɕiak]
- 6) cha/차/蹉/4 [G:1, D;3] [蹉:清母 歌1韻 *tsha]
- 7) ja/ㄸ/惹/47 [S;4, G:3, Q:17, D;18, F;5] [惹⁴⁴⁾:日母 麻3韻 *ɲia]
- 8) śa/샤/捨/14 [S;4, G:3, D;7] [捨:書母 麻3韻 *cia]
- 9) śa/샤/舍/13 [S;2, G:2, D;8, F;1] [舍:書母 麻3韻 *cia]
- 10) śa/샤/設/12 [S;1, G:5, D;6] [設:書母 麻3韻 *cia]
- 11) śa/샤/爍/1 [D;1] [爍:書母 藥3韻 *ciak]
- 12) śa/샤/寫/1 [D;1] [寫:ㄸ心母 麻3韻 *sia]
- 13) śa/ㄸ/設/1 [S;1] [設:書母 麻3韻 *cia]⁴⁵⁾
- 14) śa/ㄸ/捨/1 [G:1] [捨:書母 麻3韻 *cia]⁴⁶⁾
- 15) ṣa/사/灑/16 [S;4, G:1, G:1, D;10] [灑⁴⁷⁾:生母 麻2韻 *fɣa]

44) “惹”는 중고음에서 日母 麻3韻 *ɲia와 日母 藥3韻 *ɲiak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麻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45) 원본 21b

46) 원본 36b

- 16) ʃa/사/沙/2 [S:1, F:1] [沙:生母 麻2韻 *ʃʏa]
- 17) ʃa/사/殺/1 [D:1] [殺⁴⁸):生母 鎋2韻 *ʃʏæt]
- 18) sa/사/娑/74 [S:6, G:14, Q:15, D:29, F:11] [娑:心母 歌1韻 *sa]
- 19) sa/사/薩/18 [S:4, G:2, G:6, D:6] [薩:心母 曷1韻 *sat]

위의 예5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ca/자, cha/차, ja/차, śa/샤, ʃa/사, sa/사’ 등의 대응이 있다. 한자의 중고한어음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ㄱ ‘ca/자’ 1)번~5)번

이에 비교적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는데 총 55회의 출현 횟수에서 1)번 예가 45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거의 대부분 ‘c/𪛇/精(*ts)’으로 일치한다. 다만 5)번에서 한자의 자모 章母 *tɕ가 1회 나타난다. 이를 단순한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는 범어의 치음과 중국어의 치음이 1:多의 대응이 가능하였다. 즉 중고한어에서는 精系, 章系, 莊系 세 종류의 치음계열이 있고 그 중 권설음의 莊系를 제외한 精系와 章系가 모두 범자 치음과 대응될 수 있었다. 즉 이 중 범어 치음의 음가와 더 가까운 精系の 글자를 선호하겠지만 章系の 글자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다만 진언 표기에서 범자 ‘c’ 자음의 표기로 精母 글자의 사용 빈도가 章母보다 훨씬 월등하므로 통계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특히 이들의 차이는 한글 표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는 범자 ‘c’ 자음의 대응 통계에서 精母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a)/48’가 제일 많고, 이외 ‘a/아/曷1(*at)/6’와 ‘a/아/藥3(*iak)/1’가 있다.

ㄷ ‘cha/차’ 6)번

47) “灑”은 중고음에서 生母 麻2韻 *ʃʏa, 生母 支B韻 *ʃʏiɛ와 生母 皆2韻 *ʃʏei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48) “殺”은 중고음에서 生母 鎋2韻 *ʃʏæt, 生母 皆2韻 *ʃʏei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여기에서는 5)번의 한 가지의 예만 있고 출현 횟수도 4회로 많지 않다. 자음의 대응은 ‘ch/츠/清(*tsh)/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4’이다.

☞ ‘ja/ㅈ’ 7)번

여기에서도 한 가지의 예만 있는데 47회의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음의 대응은 ‘j/ㅈ/日(*n_ㅈ)’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麻3(*ia)’이다. 여기에서 모음의 한자 3등운을 사용하는 것은 日母자가 반드시 3등운에 출현해야 하는 제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대응은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앞서 자음의 대응에서 일반적으로 유성음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 한자가 대응함을 보았다. 범자 자음 ‘j’도 유성음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 日母 *n_ㅈ⁴⁹⁾ 역시 비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한글 표기로 써 반치음 ‘ㅈ’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당시의 한국어의 ‘ㅈ’이 비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이는 외국어 표기의 대응이기 때문에, ‘ㅈ’에 비음의 성격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하므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sa/ㅅ’, 8)번~12)번 ‘sa/ㅅ’ 13)번, ‘sa/ㅅ’ 14)번

여기에서는 우선 범자와 한글의 ‘sa/ㅅ’ 대응에 대해 볼 것이다. 범자 모음은 단모음의 ‘a’이지만 한글은 상향이중모음의 ‘ㅅ’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응 한자의 운모를 보면 麻3韻 *ia이어서 한자의 3등운 세음성 개음의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3등운은 한자가 적지 않게 출현하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자와 상관없이 한글의 활음 ‘j’은 범자 자음 ‘s’의 구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범자 음절을 ‘s+a’로 분리하고, 한글 표기는 ‘시+아’로 분리하면, 자음의 대응은 마땅히 ‘s/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음의 대응 분석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복자음 음절 ‘sua’의 한글 표기를 들 수 있다. 범자 자음의 연쇄 발음 사이에 한글 표기에서는 흔히 ‘으’ 모음을 첨가하여 나타나는데 범자 자음 ‘s’와 ‘v’의 연쇄표기에서 ‘시바’

49) 중국어 음운학 연구 분야에서 日母 음가의 제구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日母 글자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 비음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파찰음으로도 반영되기도 한다.

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에서 ‘시’는 범자 자음 ‘ś’와 대응하고, ‘으’ 모음은 첨가된 것이다(본고의 4.1.3절을 참고 할 수 있음).

다음 13)번의 ‘śa/셔/設/1’와 14)번의 ‘śa/사/捨/1’를 보면 모두 소수대응이다. 13)번 예와 10)번의 ‘śa/샤/設/12’와 비교하여 보면 한글에서만 ‘샤’와 ‘셔’의 차이가 보이는데 ‘샤’가 12회, ‘셔’가 1회로 13)번 표기는 한글의 예외 표기임을 알 수 있다. 14)번과 8)번 ‘śa/샤/捨/14’을 비교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한글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샤’가 14회, ‘사’가 1회로 14)번 예가 예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일반대응을 기준으로 자음의 대응이 ‘ś/시/書(*c)’이고 모음의 대응이 ‘a/아/麻3(*ia)’으로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가 3등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書母가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에 의한 것으로 음소 대응 고찰의 통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유독 12)번 자음의 대응에서만 ‘ś/시/心(*s)/1’의 예외가 나타난다. 대응 한자가 ‘寫’인데 이는 성모 心母 *s가 3등운의 세음성 개음 ‘i’와 결합하면서 ‘si’의 음가가 나타나면서 범자 자음 ‘ś’를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śa/샤’ 15)번~17)번, ‘sa/사’ 18)번~19)번

권설음의 범자 ‘śa’와 일반 마찰음의 ‘sa’의 한글 표기는 모두 ‘샤’로 동일하다. 하지만 범자 ‘śa’에서 자음의 대응 ‘ś/ㅅ/生(*f)’가 일반적이고, ‘sa’에서 ‘s/ㅅ/心(*s)’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즉 한글에서는 범자 자음 ‘ś’와 ‘s’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자 번역의 경우 하나는 莊系의 生母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精系의 心母를 사용하여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śa’에서는 ‘a/아/麻2(*ya)’로 2등운 한자를 사용하고, ‘sa’에서는 ‘a/아/歌1(*a)’ 혹은 ‘a/아/曷1(*at)’로 1등운 한자를 사용한다. 권설음 ‘śa’에서 2등운 한자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자모가 莊系 즉 生母이며 2등운 혹은 3등운에만 나타나야 한다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이 또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3.1.1.6 후음류 및 기타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후음 및 기타인 예로 ‘ya, ha, ra, la’가 출현한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6

- 1) ya/야/野/229 [S;45, G;12, Q;61, D;91, F;20] [野⁵⁰):以母 麻3韻 *jia]⁵¹⁾
- 2) ya/야/夜/38 [S;4, G;1 Q;1, D;32] [夜:以母 麻3韻 *jia]
- 3) ha/하/賀/344 [S;56, G;14, Q;129, D;137, F;8] [賀:匣母 歌1韻 *ha]
- 4) ha/하/訶/1 [S;1] [訶:曉母 歌1韻 *ha]
- 5) ra/라/囉/228 [S;39, G;13, Q;61, D;104, F;11] [囉:*?]
- 6) ra/라/略/1 [D;1] [略:*?]
- 7) la/라/囉/91 [S;12, Q;36, D;43] [囉:來母 模1韻 *lo]
- 8) la/라/羅/2 [S;1, Q;1] [羅:來母 歌1韻 *la]
- 9) la/라/邏/7 [Q;6, D;1] [邏:來母 歌1韻 *la]
- 10) la/라/囉/1 [D;1] [囉:*?]

위의 예6에서 먼저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ya/야, ha/하, ra/라, la/라’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한어 음가와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ya/야’ 1)번~2)번

위의 1)번과 2)번 예는 각각 229회와 38회로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글 표기가 예외 없이 ‘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sa/샤’와 같은 상황이다. 즉 범자 모음이 단모음의 ‘a’이지만 한글 모음은 ‘야’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응 관계는 ‘y/이’와 ‘a/아’가 된다. 한자와 결합하여 보면 자음의 대응이 ‘y/이/以(*j)’로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a/아/麻

50) “野”는 중고음에서 以母 麻3韻 *ia, 禪母 魚3韻 *dziy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를 음가를 택하였다.

51) 대응 한자가 비록 以母 麻3韻 *jia으로 재구하였지만 특히 以母는 오직 3등운에서만 출현하는 것으로 실제 음절은 단순한 *ia일 것이다. 以母의 실제 음가는 ∅이다. 하지만 자음 대응의 규칙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j라 하여 ‘y/이/以(*j)’로 대응시킬 것이다.

3(*ia)’으로 일치한다. 자모 以母 역시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3등운 운모 麻3韻의 대응 역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 ‘ha/하’ 3)번~4)번

먼저 출현 빈도를 보면 3)번이 344회이고, 4)번이 1회로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3)번의 자음의 대응은 ‘h/ㅎ/匣(*h)/344’이고 4)번은 ‘h/ㅎ/曉(*h)/1’이다. 이에 4)번을 소수대응으로서 예외로 볼 수 있겠지만,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 범자 *h와 대응이 가능한 후음은 匣母 *h와 曉母 *h 두 가지로 1:多의 대응이 된다. 여기에서는 曉母의 출현 횟수가 비록 1회 밖에 되지 않지만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의 모음의 대응은 모두 ‘a/아/歌1(*a)’로 완전히 일치한다.

☞ ‘ra/라’ 5)번~6)번, ‘la/라’ 7)번~10)번

위의 예에서 범자 ‘ra’와 ‘la’의 한글 표기가 모두 ‘라’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범자 ‘ra’ 대응에 ‘囉, 略’ 등 부수 ‘口’를 첨가한 造字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범자 ‘la’는 ‘攞, 羅, 邏’ 등 일반 중국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來母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중고한어의 재구 음가의 고찰에서 당시 來母의 음가가 *r이 아닌 *l와 가까웠을 것임을 보았다. 즉 한자 표기에서 범자 자음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고 있지만 한글에서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자음의 대응을 고찰함에 있어 범자 ‘r’에서 대표적인 한자를 택하여 ‘r/ㄹ/囉(*?)’로 하고, ‘l’은 ‘l/ㄹ/來(*l)’로 할 것이다. ‘r’과 ‘l’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하여 이와 같은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들을 모두 음소대응 고찰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7)번 예가 ‘a/아/模1(*o)/91’, 8)번과 9)번을 합한 예가 ‘a/아/歌1(*a)/9’이다. 하지만 7)번은 범자 자음 ‘l’과의 대응을 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운모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어 원순모음의 模1韻을 사용하였을 것이다.⁵²⁾ 즉 비록 91회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52)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한자 ‘攞’의 상고한어 운부는 魚部이며 주요 모음이 ‘a’이며, 중고한어로 가면서 a>o의 음운변화를 겪는다. 보다 이른 시기의 불경 번역에서 범자 ‘a’ 모음의 대응에 ‘攞’를 사용하였고 후기의 불경 번역에서는 일부 전

는 자음의 대응을 위한 고려에 의한 것으로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1.2 ‘C+i’ 음절

본 절은 ‘C+i’류 범자 음절의 예에 대해 볼 것인데 역시 C자음의 종류에 따라 볼 것이다.

예7 아음류

- 1) ki/기/枳/43 [S;9, G;7, Q;5, D;22] [枳⁵³):見母 支A韻 *kiɛ]
- 2) ki/기/祇/3 [S;3] [祇:群母 支A韻 *giɛ]
- 3) ki/기/岐/2 [Q;2] [岐:群母 支A韻 *giɛ]
- 4) gi/이/擬/10 [Q;2, D;8] [擬⁵⁴):疑母 之3韻 *ŋi]

위의 예7은 C자음이 아음인 표기 예들인데 범자 음절의 유형은 ‘ki, gi’ 두 가지만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1)번의 ‘k/ㄱ/見(*k)/43’, 4)번의 ‘g/ㅇ/疑(*ŋ)/10’가 앞서 ‘a’ 모음 음절에서 고찰한 아음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하지만 2)번, 3)번의 자음의 대응은 ‘k/ㄱ/群(*g)/5’로 한자가 마땅히 見母이어야 하는데 群母가 예외로 나타난다. 이들을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에 5회라는 출현 횟수를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 모음 ‘i’ 대응의 중뉴 A류 한자를 찾아야 하는 우선 조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모음의 대응을 위한 제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음소 대응의 고찰을 위한 통계에서는 이들을 제외시킬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모두 ‘i/이/支A(*iɛ)/48’, ‘i/이/之3(*i)/10’으로 정연하게 대

통적인 표기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다. 즉 당시의 중고한어에서 a>o의 음운변화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진언 독송에서는 여전히 옛 발음의 ‘a’ 모음으로 읽혔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에서 이같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한자의 예로 상고한어 魚部 *a의 ‘弩’, 月1部 *at의 ‘揭, 羯, 發’가 더 있다. 상고한어의 음가는 권혁준 역 (2014)를 참고하였다.

- 53) ‘枳’는 중고음에서 見母 支A韻 *kiɛ와, 章母 支3韻 *tɕiɛ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그 중 見母 음가를 선택하고 章母 음가를 제외시켰다.
- 54) ‘擬’ 역시 중고음에 疑母 之3韻의 *ŋi와 曉母 哈1韻의 *hɛi가 있는데 성모가 疑母인 음가를 선택하고 曉母는 제외시켰다.

응되어 있다. 특히 支3韻이 모음 ‘i’와의 대응에서 중뉴 A류 글자와 대응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支3韻과 之3韻은 모두 止攝에 속하며 止攝 글자들은 보다 이른 시기인 전기 중고한어 시기부터 혼용하기 시작하여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이르러 점차 합류한다.⁵⁵⁾

다음은 설음류 범자의 표기 예들을 보겠다.

예8 설음류

- 1) ti/디/底/48 [S;2, Q;20, D;22, F;4] [底:端母 齊4韻 *tei]
- 2) dhi/디/地/33 [S;4, G;1, Q;8, D;11, F;9] [地:定母 脂3韻 *di]
- 3) di/니/你/8 [S;5, Q;3] [你:娘母 之3韻 *ni]
- 4) di/니/儻/1 [S;1] [儻:娘母 耕2韻 *niŋ]
- 5) di/니/泥/1 [F;1] [泥:娘母 支3韻 *niē]
- 6) di/니/泥/1 [F;1] [泥:泥母 齊4韻 *nei]
- 7) ni/니/你/6 [S;2, D;4] [你:娘母 之3韻 *ni]
- 8) ni/니/儻/7 [S;7] [儻:娘母 耕2韻 *niŋ]
- 9) ni/니/顛/46 [Q;26, D;20] [顛:泥母 靑4韻 *neŋ]
- 10) ni/니/泥/1 [D;1] [泥:娘母 支3韻 *niē]

위의 예8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ti, dhi, di, ni’등이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48’, ‘dh/ㄸ/定(*d)/33’가 ‘a’ 모음 음절의 대응과 일치한다. 다음 유성음 범자 ‘d’의 대응에서 ‘d/ㄴ/娘(*n)/10’, ‘d/ㄴ/泥(*n)/1’가 있고, ‘n’의 대응에 ‘n/ㄴ/娘(*n)/14’와 ‘n/ㄴ/泥(*n)/46’이 있다. 단순히 범자와 한글을 보면 ‘d/ㄴ’, ‘n/ㄴ’의 대응은 앞선 ‘a’ 모음 음절의 고찰과 일치한다. 다만 한자에서 ‘a’ 모음 음절에서는 泥母를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娘母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의 대응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55) 北齊 顏之推 《顏氏家訓·音辭篇》에서 북방 사람들은 “以紫爲姊”라며 북방 사람들의 발음을 지적한 글이 있다. ‘紫’는 支韻의 상성 글자이고, ‘姊’는 脂韻의 상성 글자로 이는 북방 사람들은 支韻과 脂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남방 사람들은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唐시기 《五經文字》에 이르러 支韻, 脂韻, 之韻이 완전히 합류한다. 微韻은 비록 합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완전히 합류하지 않았다(邵榮芬 1964). 후기 중고한어의 문헌자료인 慧琳 《一切經音義》(807)에 이르러 止攝 글자들이 완전히 합류한다(黃淬伯 1930).

범자 모음 ‘i’ 대응에 일반적으로 止攝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止攝에는 오직 3등운 글자만 있다. 설음과의 일반적인 대응으로 端系 자모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3등운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자 자모와 운모의 출현 조건이 모순된다. 모음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면 자모의 선택에서 3등운에 출현 가능한 娘母등을 선택해야 하고, 자음의 대응을 우선하게 되면 모음의 대응에서 기타 4등운 글자로 대체하여야 하는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1)번, 6)번, 9)번의 한자가 4등운 齊4韻, 靑4韻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기타 3등운 글자를 중심으로 보면 ‘i/이/脂3(*i)/33’, ‘i/이/之3(*i)/14’, ‘i/이/支3(*)/2’가 일반대응이 된다. 이외 4)번과 8)번은 같은 한자 ‘儻’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등운 글자로 예외이다. 이는 자모 娘母가 3등운 및 2등운에도 출현할 수 있다는 출현 조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특이한 예로 2)번에서 한자 ‘地’는 定母의 제약에 의하여 4등운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3등운의 脂3韻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자 ‘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실제 후기 중고한어시기의 韻圖 자료에서도 3등칸에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중국어 음운학계에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는 듯하다.

다음은 권설음류의 예에 대해 보겠다.

예9 권설음류

- 1) ti/티/置/4 [Q;4] [置:知母 之3韻 *ti]
- 2) ti/티/致/5 [D;5] [致:知母 脂3韻 *ti]
- 3) ni/니/拏/49 [S;2, G;1, Q;32, D;9, F;5] [拏:娘母 支3韻 *niɛ]
- 4) ni/니/尼/3 [S;1, Q;2] [尼:娘母 脂3韻 *ni]
- 5) ni/니/顛/3 [Q;3] [顛:泥母 靑4韻 *neɯ]
- 6) ni/니/泥/1 [F;1] [泥:泥母 齊4韻 *nei]
- 7) ni/네/祢/1 [D;1] [祢:泥母 齊4韻 *nei]

위의 예9에서 범자 음절의 종류는 ‘ti, ni’ 두 가지가 있고 자음의 대응은

‘t/ㄷ/知(*t)/9’, ‘n/ㄴ/娘(*n)/52’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또한 ‘i/이/之3(*i)/4’, ‘i/이/支3(*iē)/49’, ‘i/이/脂3(*i)/8’ 등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5)번~7)번에서 일부 한자 泥母의 대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고한어 娘母와 泥母의 음가 유사성에 의한 혼용일 것이다. 泥母의 영향을 받아 한자 운모도 4등운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특히 7)번에서 한글이 일반대응에서 ‘니’로 나타나야 하는데 ‘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등운 한자는 일반대응에서 범자 ‘e’ 모음과 대응하고 한글은 ‘예’ 모음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0 순음류

- 1) pi/비/比/3 [S;2, Q;1] [比⁵⁶:幫母 脂A韻 *pi]
- 2) pi/비/枇/2 [D;2] [枇:幫母 脂A韻 *pi]
- 3) pi/비/枇/1 [D;1] [枇⁵⁷:幫母 脂A韻 *pi]
- 4) bhi/비/鼻/12 [Q;8, D;2, F;2] [鼻:并母 脂A韻 *bi]
- 5) mi/미/弭/60 [S;3, G;5, Q;4, D;47, F;1] [弭:明母 支A韻 *miē]
- 6) vi/미/尾/138 [S;16, G;4, Q;53, D;59, F;12] [尾:明母 微3韻 *mii]
- 7) vi/미/味/4 [S;4] [味:明母 微3韻 *mii]
- 8) vi/미/微/2 [S;2] [微:明母 微3韻 *mii]

위의 예10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pi, bhi, mi, vi’로 되어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ㅍ/幫(*p)/6’, ‘bh/ㅂ/并(*b)/12’, ‘m/ㅁ/明(*m)/60’이 있는데 이들은 ‘a’ 모음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v’ 자음의 대응에서 ‘v/ㅍ/明(*m)/144’로 나타나는데 ‘a’ 음절에서 한글 초성은 ‘ㅂ’이다. 한글 ‘ㅍ’ 대응에는 한자 자모가 明母 *m가 쓰이고 ‘ㅂ’ 대응에는 한자가 거의 대부분 ‘ㅍ’이 쓰인다. 부수 ‘ㅍ’를 제외한 ‘縛’이 并母 *b인 것으로 아마 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6) ‘比’는 중고음에서 幫母 脂A韻 *pi, 并母 脂A韻 *bi, 并母 質A韻 *bit의 세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57) ‘枇’는 중고음에서 幫母 脂A *pi와 并母 脂A韻 *bi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i/이/脂A(*i)/18’, ‘i/이/支A(*iɛ)/60’, ‘i/이/微3(*i)/144’이다. 여기에서도 중뉴 A류 글자를 사용하며, 止攝 내의 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치음류를 보겠다.

예11 치음류

- 1) ci/지/唧/12 [G;4, Q;7, D;1] [唧:*?]
- 2) ci/지/紫/1 [D;1] [紫:精母 支3韻 *tsiɛ]
- 3) ji/△/爾/9 [G;1, Q;1, D;7] [爾:日母 支3韻 *ɲiɛ]
- 4) ji/△/喏/3 [S;1, Q;2] [喏:*?]
- 5) ji/△/𠵼爾/1 [D;1] [𠵼爾:*?]
- 6) śi/시/試/4 [G;1, D;3] [試:書母 之3韻 *ɕi]
- 7) śi/시/始/4 [Q;3, D;1] [始:書母 之3韻 *ɕi]
- 8) śi/시/施/1 [D;1] [施:書母 支i韻 *ɕiɛ]
- 9) śi/시/悉/1 [D;1] [悉:心母 質3韻 *sit]
- 10) ʃi/시/史/3 [Q;2, D;1] [史:生母 之3韻 *ʃi]
- 11) ʃi/시/臬/1 [G;1] [臬:心母 之3韻 *si]
- 12) ʃi/시/悉/1 [D;1] [悉:心母 質3韻 *sit]
- 13) si/시/悉/10 [S;2, Q;5, D;3] [悉:心母 質3韻 *sit]
- 14) si/시/臬/10 [Q;3, D;7] [臬:心母 之3韻 *si]
- 15) si/시/始/1 [D;1] [始:書母 之3韻 *ɕi]

위의 예11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ci, ji, śi, ʃi, si’로 되어 있다. 먼저 일부 예들에서 즉 1)번, 4)번, 5)번에서 한자가 ‘唧, 喏, 𠵼爾’ 등의 造字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 ‘i’인 관련 자음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造字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음소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대응예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기타 대응들을 중심으로 자음의 대응을 보면 ‘c/ㅈ/精(*ts)/1’, ‘j/△/日(*ɲ)/9’, ‘ś/시/書(*ɕ)/9’, ‘ʃ/ㅅ/生(*ʃ)/3’, ‘s/ㅅ/心(*s)/20’이 일반대응이다. 이외 예외가 있으나 주로 한자 자모의 혼용에 있으며, 한글 표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i/이/支3(*iɛ)/11’, ‘i/이/之3(*i)/23’, ‘i/이/質3(*it)/12’

로 나타난다.

다음은 후음 및 기타류에 대해 보겠다.

예12 후음 및 기타류

- 1) yi/이/以/1 [S;1] [以:以母 之3韻 *ji]
- 2) ri/리/哩/108 [S;18, G;12, Q;47, D;25, F;6] [哩:*?]
- 3) ri/리/里/2 [D;1, F;1] [里:來母 之3韻 *li]
- 4) li/리/里/10 [Q;5, D;5] [里:來母 之3韻 *li]

위의 예12에서 범자 음절은 ‘yi, ri, li’가 있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은 ‘y/이/以(*)/1’, ‘r/ㄹ/哩(*)/108’, ‘l/ㄹ/來(*)/10’이고, 모음의 대응은 ‘i/이/之3(*)/13’이다. 2)번의 한자 ‘哩’는 造字로 범자 자음 ‘r’과 ‘l’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음의 대응 통계에서만 반영하고 모음의 대응에서는 의미가 없기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3)번과 4)번에서 동일 한자 ‘里’를 사용하고 있는데 4)번이 더 일반성을 띠고 있다. 3)번은 음가의 유사성에 의한 것이지만 통계에 넣지 않고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3.1.3 ‘C+e’, ‘C+ai’ 음절

본 절은 ‘C+전설모음’류 범자 음절의 표기 예에 대해 보겠다. 전설모음 ‘e’와 ‘ai’를 포함하여 함께 볼 것이다.

예13 아음류

- 1) ke/계/計/10 [S;2, Q;1, D;7] [計:見母 齊4韻 *kei]
- 2) khe/계/契/2 [Q;1, D;1] [契⁵⁸):溪母 齊4韻 *khei]
- 3) ge/예/藝/2 [S;2] [藝:疑母 祭A韻 *ŋiei]
- 4) ge/예/覓/2 [D;2] [覓⁵⁹):疑母 齊4韻 *ŋei]

58) ‘契’는 중고한어에서 溪母 齊4韻 *khei, 溪母 迄3韻 *khiæt, 溪母 屑4韻 *khet의 세 가지 음가가 있는데 이들의 성모는 모두 溪母로 차이가 없지만 운모는 齊韻을 제외한 나머지 음이 각각 迄韻, 屑韻의 入聲韻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진언 표기에 사용된 음가는 齊韻일 것으로 추정된다.

59) ‘覓’는 중고한어에서 疑母 齊4韻 *ŋei와 疑母 屑4韻 *ŋet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성모가 모두 疑母로 같지만 운모에 차이가 있는데 齊韻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 5) kai/계/髻/1 [G:1] [髻:見母 末1韻 *kat]
 6) kai/계/𪔐/1 [F:1] [𪔐:見母 祭B韻 *kɯiɛi]⁶⁰⁾
 7) kai/계/𪔐/1 [D:1] [𪔐:見母 祭B韻 *kɯiɛi]⁶¹⁾

위의 예13에서 출현하는 범자 음절의 유형은 ‘ke, khe, ge, kai’이다.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3’, ‘kh/ㅋ/溪(*kh)/2’, ‘g/ㅇ/疑(*ŋ)/4’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e’ 모음에서 ‘e/예/齊4(*ei)/14’가 제일 일반적이고 이외 ‘e/예/祭A(*iei)/2’가 있다. ‘ai’ 모음에서 5)번~7)번 예의 한자를 먼저 보면 末1韻 *at, 祭B韻 *ɯiɛi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e’ 모음 대응에서 祭韻은 A류 글자를 사용하지만 ‘ai’ 대응에서는 B류 개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중류의 A류와 B류의 차이로 범자의 ‘e’ 모음과 ‘ai’ 모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을 보면 5)번과 6)번은 모두 ‘e’ 모음과 같이 ‘예’로 표기되어 있다. 즉 한글 표기에서 범자 ‘e’와 ‘ai’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스리트의 모음체계에서 ‘e’는 이중모음에 속하며 ‘e’와 ‘ai’는 상대적인 장단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마 중국어 번역에서는 범어의 ‘e’와 ‘ai’의 차이를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어 번역 당시의 진언 독송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의 음운현상으로 하나의 어근이 i<e<ai의 세 단계 모음교체에 의한 서로 다른 형태가 허용되므로 오랜 세월의 전승과정으로 인해 e와 ai의 분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문자의 전승에서는 ‘ai’ 모음 글자가 그대로 전승되어 왔겠지만 구어에서의 전승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자 ‘ai’ 모음의 대응에서의 한글 ‘예’ 표기는 문자와 음가의 불일치에 의한 현상일 것이므로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7)번 예에서의 한글 표기는 ‘예’ 모음으로 되어 있다. 이에 6)번과 7)번의 한자가 모두 ‘𪔐’로 서로 같아 6)번이 ‘kai/계/𪔐’의 대응으로, 7)번이 ‘kai/계/𪔐’의 대응으로 나타난다. 물론 7)번의 ‘계’ 표기를 단순한 오각 등에 의한 오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일반대응 예로 분석이

60) 원본 93b
 61) 원본 57a

가능하다.

우선 한자 ‘闕’는 祭B韻 *ɥiei의 B류 글자로, 단순한 음가의 대응에서도 한글의 ‘에’보다 ‘예’와의 대응이 자연스럽다. 한자 B류의 사용은 범자 ‘e’모음 ‘ai’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게’ 표기가 범자 ‘ai’ 모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의 제5장 5.1.1절에서 제시한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한글 모음 표기의 원칙에서 범자 ‘ai’ 모음 대응에 ‘예’ 모음이 출현한다. 즉 ‘ai/예/祭B(ɥiei)’는 모음의 일반대응으로 보겠다.

다음은 설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4 설음류

- 1) te/테/帝/71 [S;7, G;3, Q;19, D;35, F;7] [帝:端母 齊4韻 *tei]
- 2) te/테/諦/4 [S;3, G;1] [諦:端母 齊4韻 *tei]
- 3) dhe/데/弟/1 [Q;1] [弟:定母 齊4韻 *dei]
- 4) de/네/儻/1 [S;1] [儻:娘母 耕2韻 *nɣɛŋ]
- 5) de/네/祢/16 [Q;8, D;8] [祢:泥母 齊4韻 *nei]
- 6) de/네/妳/8 [Q;6, D;2] [妳⁶²:泥母 齊4韻 *nei]
- 7) ne/네/甯/4 [Q;1, D;3] [甯:泥母 靑4韻 *neŋ]
- 8) ne/네/寧/3 [D;3] [寧:泥母 靑4韻 *neŋ]
- 9) tai/▶데/帝/2 [D;2] [帝:端母 ▶齊4韻 *tei]
- 10) tai/타/帶/1 [D;1] [帶:端母 泰1韻 *tai]

위의 예14에서 범자의 음절 유형은 ‘te, dhe, de, ne, tai’가 있다. 이에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78’, ‘dh/ㄸ/定(*d)/1’, ‘d/ㄴ/泥(*n)/24’, ‘n/ㄴ/泥(*n)/7’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 ‘e’ 모음 대응에 ‘e/예/齊(*ei)/100’, ‘e/예/靑4(*eŋ)/3’가 일반대응이고, ‘ai’ 모음에 ‘ai/외/泰1(*ai)/1’가 일반대응이다.

9)번의 범자가 ‘tai’이지만 한글이 ‘데’로 되어 있는데 이는 4등운 대응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자 ‘帝’를 보면 1)번 예에서도 동일 한자가 출현하는데 71회나 된다. 즉 중국어 번역에서 한자 ‘帝’는 범자 ‘e’ 모음과

62)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 *nei와 娘母 佳2韻 *nɣɛ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ai’ 모음 모두 사용한 것이며 이에 9)번 예에서 한글은 한자가 ‘e’ 모음 대응에 사용되었던 ‘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9)번 모음의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다음 권설음류를 보겠다.

예15 권설음류

- 1) d_he/테/提/1 [S;1] [提⁶³):>定母 齊4韻 *dei]
- 2) ɲe/네/妳/3 [Q;3] [妳⁶⁴):>泥母 齊4韻 *nei]

위의 예15를 보면 권설음에서 범자 음절은 ‘e’ 모음의 ‘d_he, ɲe’만 있고 ‘ai’ 모음 음절은 없다. 여기에서 권설음 범자 대응의 한자 자모가 일반대응으로 知系가 나타나야 하는데, 知系는 2등운 혹은 3등운에서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범자 ‘e’ 모음의 대응에는 4등운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모순된다. 위의 예들을 보면 모음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여 4등운 글자를 사용하여 ‘e/예/齊4(*ei)/4’로 되어 있다. 이에 자음의 대응에서 定母와 泥母는 통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6 순음류

- 1) pe/폐/閉/1 [D;1] [閉⁶⁵):幫母 齊4韻 *pei]
- 2) bhe/베/陞/7 [S;3, Q;2, D;2] [陞:并母 齊4韻 *bei]
- 3) ve/베/吠/10 [Q;7, D;3] [吠:并母 >廢3韻 *biai]
- 4) me/메/謎/1 [D;1] [謎:明母 齊4韻 *mei]
- 5) me/>마/麼/1 [Q;1] [麼:明母 >戈1韻 *ma]
- 6) pai/빔/背/1 [D;1] [背⁶⁶):幫母 灰1韻 *poi]
- 7) bhai/배/佩/1 [D;1] [佩:并母 灰1韻 *boi]

63) ‘提’는 중고음에서 定母 齊4韻 *dei와 禪母 支3韻 *dziɛ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4)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 *nei와 娘母 佳2韻 *ɲɤɛ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5) ‘閉’는 중고음에서 幫母 齊4韻 *pei와 幫母 屑4韻 *pe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66) ‘背’는 중고음에서 幫母 灰1韻 *poi와 并母 灰1韻 *bo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 8) mai/미/昧/2 [S;2] [昧⁶⁷:明母 灰1韻 *moi]
- 9) mai/미/每/1 [D;1] [每:明母 灰1韻 *moi]
- 10) vai/배/吠/1 [Q;1] [吠:并母 廢3韻 *biai]
- 11) vai/▶베/吠/5 [D;5] [吠:并母 廢3韻 *biai]
- 12) bhai/▶베/吠/1 [D;1] [吠:并母 廢3韻 *biai]
- 13) ▶phai/마/發/1 [D;1] [發:幫母 月3韻 *piɤt]⁶⁸⁾

위의 예16에서 범자 음절이 ‘pe, bhe, ve, me, pai, phai, bhai, vai, mai’로 있는데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ㅍ/幫(*p)/3’, ‘bh/ㅂ/并(*b)/9’, ‘v/ㅅ/并(*b)/16’, ‘m/ㅁ/明(*m)/5’의 일반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모음의 대응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e’ 모음을 보면 ‘e/예/齊4(*ei)/9’, ‘e/예/廢3(*iai)/10’가 일반적이다. ‘ai’ 모음에서는 ‘ai/이/灰1(*oi)/4’와 ‘ai/애/灰1(*oi)/2’가 일반대응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가지 예외들이 있다.

우선 ‘vai’ 번역의 11)번과 ‘bhai’ 번역의 12)번에서 ‘예’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들은 ‘ve’ 번역의 3)번과 모두 동일한 한자 ‘吠’를 사용하고 있어 한자 영향에 의한 혼용일 것이다.

이외 5)번 예가 ‘me/마/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대응에서 한자 ‘麼’는 범자 ‘a’ 모음과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e’ 모음과 대응하는 것으로 오류일 것이다. 물론 중국어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진언집 범자 텍스트에서 ‘ma’이어야 하는데 ‘me’로 잘못 전승되었거나 혹은 오각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13)번 예에서 ‘phai/마/發’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자 ‘發’은 일반적으로 범자 ‘a’ 모음과 대응한다. 여기에서 범자 ‘phai’는 오각이거나, 전승과정의 오류이거나, 혹은 ‘a’와 ‘ai’ 음가의 청각적인 인지의 오류이거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치음류에 대해 보겠다.

67) ‘昧’는 중고음에서 明母 灰1韻 *moi와 明母 泰1韻 *ma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68) 원본 82b

예17 치음류

- 1) ce/제/祭/1 [Q;1] [祭⁶⁹):精母 祭3韻 *tsiei]
- 2) ce/제/際/1 [D;1] [際:精母 祭3韻 *tsiei]
- 3) che/체/砌/1 [D;1] [砌:淸母 齊4韻 *tshei]
- 4) je/쎄/薺/2 [D;2] [薺⁷⁰):從母 齊4韻 *dzei]
- 5) sé/세/勢/2 [S;1, Q;1] [勢:書母 祭3韻 *ɕiei]
- 6) sé/셔/勢/1 [S;1] [勢:書母 祭3韻 *ɕiei]⁷¹⁾
- 7) se/세/細/2 [D;2] [細:心母 齊4韻 *sei]
- 8) cai/지/載/4 [D;4] [載⁷²):精母 哈1韻 *tsəi]
- 9) ʃai/새/曬/6 [Q;3, D;3] [曬⁷³):生母 佳2韻 *fʃɛ]
- 10) ʃai/새/灑/1 [F;1] [灑⁷⁴):生母 佳2韻 *fʃɛ]

위의 예17에서 범자 음절은 ‘ce, che, je, sé, se, cai, ʃai’가 있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은 ‘c/ㄷ/精(*ts)/6’, ‘ch/ㄷ/淸(*tsh)/1’, ‘ś/시/書(*ɕ)/2’, ‘ʃ/ㅅ/生(*f)/7’, ‘s/ㅅ/心(*s)/2’ 등이 일반대응으로 나타난다. 다만 4)번에서 ‘j/ㄷ/從(*dz)/2’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자는 마땅히 日母가 나타나야 한다. 日母는 오직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고, 범자 모음 ‘e’대응에서 4등운의 齊4韻이 일반적이 대응되므로 여기에서는 운모 대응을 우선으로 하여 자모 대응은 기타 근접한 자모인 從母로 대체한 것이다. 이 또한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할 것이다. 범자 ‘e’ 대응에 3등운의 祭3韻 글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모가 日母에 속하는 마땅한 한자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e/예/齊4(*ei)/5’ ‘e/예/祭3(*iei)/4’, ‘ai/이/哈1(*əi)/4’, ‘ai/애/佳2(*ɣɛ)/7’가 일반대응이다. 다만 6)번에서 ‘sé/셔/勢/1’의

69) “祭”은 중고음에서 精母 祭3韻 *tsjei와 莊母 皆2韻 *tɕɣe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0) “薺”는 중고음에서 從母 齊4韻 *dzei와 從母 脂3韻 *dz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1) 원본 14b

72) “載”는 중고음에서 精母 哈1韻 *tsəi와 從母 哈1韻 *dzə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3) “曬”는 중고음에서 生母 佳2韻 *fʃɛ, 生母 支B韻 *fʃɰiɛ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4) “灑”는 중고음에서 生母 佳2韻 *fʃɛ, 生母 支B韻 *fʃɰiɛ, 生母 麻2韻 *fʃɣa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대응으로 한글이 ‘셔’로 나타나고 있다. 5)번에서 ‘se/세/勢/2’로 이 두 예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범자 ‘e’ 모음에서 5)번의 ‘예’ 표기가 일반대응에 속하며 6)번의 ‘셔’는 예외 표기이다. 중세한국어의 한자음을 보면 ‘勢’는 ‘셔’ 혹은 ‘세’(권인한 2009)로 되어 있어 한자음의 영향에 의한 혼용일 수도 있겠지만, ‘셔’와 ‘세’의 전설성 음가의 유사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논의는 본고 제5장의 5.2.2절의 중성 표기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의 후음과 기타류를 보겠다.

예18 후음 및 기타류

- 1) ye/예/曳/26 [S;8, G;1, Q;11, D;6] [曳⁷⁵:以母 祭A韻 *jiei]
- 2) ye/예/裔/8 [D;8] [裔:以母 祭A韻 *jiei]
- 3) he/혜/醢/2 [S;2] [醢:曉母 齊4韻 *hei]
- 4) he/혜/系/5 [Q;3, D;2] [系:匣母 齊4韻 *fei]
- 5) he/혜/係/1 [Q;1] [係:匣母 齊4韻 *fei]⁷⁶⁾
- 6) re/례/嘸/20 [S;1, Q;3, D;16] [嘸:??]
- 7) le/례/黎/5 [S;1, D;4] [黎:來母 齊4韻 *lei]
- 8) le/례/嚟/1 [S;1] [嚟:??]
- 9) le/례/嘸/13 [Q;12, D;1] [嘸:??]
- 10) he/혜/𪛗/8 [S;1, G;3, Q;1, D;3] [𪛗:曉母 脂B韻 *hui]
- 11) hai/혜/𪛗/2 [Q;1, D;1] [𪛗:曉母 脂B韻 *hui]
- 12) hi/혜/𪛗/2 [D;2] [𪛗:曉母 脂B韻 *hui]

위의 예18에서 범자의 음절유형을 보면 ‘ye, he, re, le, hai’가 있다. 자음의 대응에서 ‘y/이/以(*j)/34’, ‘r/ㄹ/嘸(*?)/20’, ‘l/ㄹ/來(*l)/5’, ‘h/ㅎ/曉(*h)/14’, ‘h/ㅎ/匣(*h)/6’가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에서는 ‘e/예/祭A(*ie i)/34’, ‘e/예/齊4(*ei)/13’가 일반대응이다.

다만 10)번~12)번을 보면 모두 동일한 한자 ‘𪛗’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이 모두 ‘혜’로 되어 있지만 범자 모음은 각각 ‘e’, ‘ai’, ‘i’로 되어 있다. 한

75) “曳”는 중고음에서 以母 祭A韻 *jiei와 以母 薛A韻 *jet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76) “係”는 중고음에서 匣母 齊4韻 *fei, 見母 齊4韻 *kei, 見母 脂A韻 *ki 등의 음가가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글 ‘예’ 모음에 범자 모음의 일반적인 대응은 ‘e’이지만, 한자 ‘咽’의 중고음 脂B韻 *hwi와 대응이 가능한 범자 모음은 ‘ai’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범어에서 ‘e’는 음성적으로 장음이지만, ‘e’와 ‘ai’는 상대적인 단음과 장음의 관계로 중국어 번역에서 ‘e’와 ‘ai’를 청각적으로 혼용하여 동일한 한자 ‘咽’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범자 ‘i’ 모음의 대응에서는 산스크리트의 모음 교체 등의 영향에 의하여 문자는 ‘i’로 표기되지만 독송할 때에는 ‘e’로 발음되어 한자 ‘咽’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오각 및 오류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동일한 한자의 경우 한국어의 진언 독송과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동일 표기 ‘예’ 모음으로 정리하였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의 10)번~12)번 예들은 음소대응의 고찰에 적절한 예들이 아닌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1.4 ‘C+u’, ‘C+o’, ‘C+au’ 음절

아래 예19의 범자 음절은 ‘C+u’류에 속하며 자음이 아음인 예로 ‘ku, gu’가 출현한다. 이에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19 아음류

- 1) ku/구/矩/4 [Q;3, D;1] [矩:見母 虞3韻 *kiɔ]⁷⁷⁾
- 2) ko/구/矩/19 [S;3, G;4, D;12] [矩:見母 虞3韻 *kiɔ]
- 3) ko/구/句/2 [D;2] [句⁷⁸⁾:見母 虞3韻 *kiɔ]
- 4) ko/구/矯/1 [D;1] [矯:見母 宵B韻 *kwiɐu]
- 5) kau/구/矯/1 [D;1] [矯:見母 宵B韻 *kwiɐu]

77) 한자 자모의 아음 즉 見系에서 群母만이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다른 자모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아음의 대응 한자를 보면 群母는 물론이고 다른 자모 역시 모두 3등운 글자만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앞서 내용의 ‘a’ 모음에서도 戈3韻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자모의 제약이 없다면 범자 ‘a, u/o’등 대응 한자의 1 순위는 마땅히 1등운 글자이어야 하는데 3등운 글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78) ‘句’는 중고음에서 見母 虞3韻 *kiɔ와 見母 侯1韻 *kəu의 두 개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전자 虞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 6) gu/우/夔/2 [D;2] [夔⁷⁹):疑母 虞3韻 *ɲiɔ]
- 7) gu/우/虞/1 [G;1] [虞:疑母 虞3韻 *ɲiɔ]
- 8) gu/오/虞/4 [Q;4] [虞:疑母 虞3韻 *ɲiɔ]
- 9) ko/구/具/1 [F;1] [具:群母 虞3韻 *giɔ]
- 10) gho/구/具/2 [D;2] [具:群母 虞3韻 *giɔ]

위의 예19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을 보면 ‘ku, ko, kau, gu, gho’가 있다.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k/ㄱ/見(*k)/27’, ‘g/ㅇ/疑(*ɲ)/7’, ‘gh/ㄱ/群(*g)/2’이 일반대응이다. 예외로는 9)번에서 범자 ‘k’ 대응에 한자 자모 見母를 써야 하는데 群母를 쓰고 있다. 이는 9)번과 10)번이 동일한 한자 ‘具’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중국어 번역에서 혹은 범자 텍스트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 있겠다.

모음의 대응을 범자 모음 ‘u’와 ‘o’로 나누어 보겠다. 먼저 범자 ‘u’ 모음의 예를 보면 대부분 ‘u/우/虞3(*iɔ)/7’로 나타나지만, 8)번에서는 ‘u/오/虞3(*iɔ)/4’와 같이 한글 모음이 ‘오’로 나타나고 있다. 7)번과 8)번이 동일한 한자 ‘虞’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7)번은 ‘우’, 8)번은 ‘오’로 표기된 것이다.

‘o’ 모음의 예들은 대부분 ‘o/우/虞3(*iɔ)/23’이다. 이는 ‘u’ 모음의 대응 예에서 한자가 虞3韻인 것과 일치한다. 즉 한글의 ‘우’와 한자의 虞3韻이 범자의 ‘u’와 ‘o’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5)번 예에서 ‘au/우/宵B(*ɰiɐu)/1’의 대응도 있는데, 4)번과 5)번이 동일한 한자 ‘矯’를 사용하고 있어 범자 ‘o’ 모음과도 한자 宵B韻의 대응한다.

다음은 설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0 설음류

- 1) tu/도/覩/21 [S;2, Q;7, D;9, F;3] [覩:端母 模1韻 *to]
- 2) tau/도/覩/1 [D;1] [覩:端母 模1韻 *to]
- 3) tu/도/咄/2 [S;1, D;1] [咄⁸⁰):端母 沒1韻 *tot]
- 4) tu/도/度/2 [S;2] [度⁸¹):定母 模1韻 *do]

79) ‘夔’는 중고음에서 疑母 虞3韻 *ɲiɔ와 疑母 模1韻 *ɲo의 두 개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虞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0) ‘咄’는 중고음에서 端母 沒1韻 *tot와 端母 末1韻 *tat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沒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1) ‘度’는 중고음에서 定母 模1韻 *do와 定母 鐸1韻 *dak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 5) dhu/도/度/7 [S;3, Q;2, D;2] [度:定母 模1韻 *do]
- 6) du/노/耨/2 [S;1, D;1] [耨⁸²:泥母 沃1韻 *nok]
- 7) du/노/努/4 [G;1, Q;3] [努:泥母 模1韻 *no]
- 8) du/노/訥/10 [Q;5, D;5] [訥:泥母 沒1韻 *not]
- 9) du/노/弩/2 [D;2] [弩:泥母 模1韻 *no]
- 10) du/누/𢵇/1 [D;1] [𢵇:??]
- 11) nu/노/努/1 [Q;1] [努:泥母 模1韻 *no]
- 12) nu/노/弩/1 [D;1] [弩:泥母 模1韻 *no]

위의 예20에서 범자의 음절을 보면 ‘tu, tau, dhu, du, nu’로 원순모음 ‘o’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t/ㄷ/端(*t)/24’, ‘dh/ㄷ/定(*d)/7’, ‘d/ㄴ/泥(*n)/18’, ‘n/ㄴ/泥(*n)/2’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은 ‘u/오/模1(*o)/39’, ‘u/오/沒1(*o)/12’, ‘u/오/沃1(*ok)/2’를 일반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한자가 모두 1등운 글자이고 한글의 모음은 대부분 ‘오’임을 볼 수 있다. 다만 10)번에서 한글은 ‘누’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자는 ‘𢵇’로 되어 있다. ‘𢵇’는 造字이므로 부수를 제외한 ‘女’를 참고하면 虞3韻으로 3등운 글자이다. 즉 ‘오’ 모음은 1등운 한자와,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되는 경향이 보인다.

다음은 이어서 권설음류를 보겠다.

예21 권설음류

- 1) dū/노/弩/3 [D;3] [弩:泥母 模1韻 *no]
- 2) nu/노/努/4 [Q;2, D;2] [努:泥母 模1韻 *no]
- 3) no/노/努/1 [G;1] [努:泥母 模1韻 *no]

위의 예21에서 범자음절은 ‘dū, nu, no’로 되어 있다. 권설음 범자 대응에 한자 자모는 知系가 일반적이지만 2,3등운에 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원순모음의 대응은 1등운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모순된다. 위의 예들 모두 운모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고 자모는 근접한 端系 자모를 사용하

模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2) ‘耨’는 중고음에서 泥母 沃1韻의 *nok와 泥母 侯1韻 *nəu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侯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u/오/模1(*o)/7’와 ‘o/오/模1(*o)/1’가 있다. 여기에서도 한글과 한자가 범자의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2 순음류

- 1) pu/보/布/20 [S;1, Q;10, D;8, F;1] [布:幫母 模1韻 *po]
- 2) pu/보/補/9 [Q;5, D;4] [補:幫母 模1韻 *po]
- 3) bhu/보/步/5 [S;1, G;2, F;2] [步:并母 模1韻 *bo]
- 4) bhu/보/部/11 [Q;6, D;5] [部:并母 模1韻 *bo, 并母 侯1韻 *bəu]⁸³⁾
- 5) bhu/부/部/3 [D;3] [部:并母 模1韻 *bo]
- 6) bo/모/冒/9 [S;5, G;1, Q;2, D;1] [冒⁸⁴⁾:明母 豪1韻 *mau]
- 7) mu/모/沒/1 [Q;1] [沒:明母 沒1韻 *mot]
- 8) mu/모/穆/2 [D;2] [穆:明母 屋3韻 *miuk]
- 9) mu/모/暮/1 [D;1] [暮:*?]
- 10) mu/모/母/32 [Q;14, D;16, F;2] [母:明母 侯1韻 *məu]
- 11) mo/모/母/3 [F;3] [母:明母 侯1韻 *məu]
- 12) mo/모/謨/12 [S;9, Q;1, D;1, F;1] [謨:明母 模1韻 *mo]
- 13) mo/무/謨/25 [G;2, D;23] [謨:明母 模1韻 *mo]
- 14) mau/모/謨/5 [D;4, D;1] [謨:明母 模1韻 *mo]
- 15) mau/무/謨/2 [D;2] [謨:明母 模1韻 *mo]

위의 예22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을 보면 ‘pu, bhu, mu, bo, mo, mau’가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ㅍ/幫(*p)/9’, ‘bh/ㅂ/并(*b)/19’ ‘b/ㅍ/明(*m)/9’ ‘m/ㅍ/明(*m)/82’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을 한자 운모에 따라 보겠다. 우선 模1韻에서 ‘u/오/模

83) ‘部’는 중고음에서 多音字로 并母 模1韻 *bo, 并母 侯1韻 *bəu의 두 가지 음가가 있다. 실제로 어느 음가를 사용하여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중 模1韻이 더욱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84) ‘冒’는 중고음에서 明母 豪1韻 *mau와 明母 德1韻 *mæk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o)/34'와 'o/오/模1(*o)/12'를 비교하여 보면 한글과 한자 모두 범자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o/우/模1(*o)/25'를 보면 같은 범자 'o' 대응에서 한글 모음이 '오'와 '우'가 모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외 'au/오/模1(*o)/5', 'au/우/模1(*o)/2'도 있다.

다음 侯1韻도 마찬가지로 'u/우/侯1(*əu)/3'와 'o/우/侯1(*əu)/3'의 대응이 있어 범자 모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u/오/侯1(*əu)/43'도 있어서 같은 범자 대응에 한글 '오'와 '우' 모두 가능하다. 그 밖의 예로 'o/오/豪1(*au)/9', 'u/오/沒1(*ot)/1', 'u/오/屋3(*uk)/2'가 있다.

특히 3)번과 4)번은 동일한 한자 '部'를 사용하고, 10)번과 11)번은 모두 '母', 12)번~15)번은 모두 '謨'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범자 모음 'u'와 'o'의 대응이 모두 가능하고, 한글과의 대응에서도 '오'와 '우' 모두 가능하다.

앞선 고찰에서 대체적으로 한글 '오' 모음은 1등운 한자와 대응하고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함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예외가 많이 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동일한 한자 출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분석은 본고 제5장의 5.2.2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치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3 치음류

- 1) cu/조/祖/5 [Q;5] [祖:精母 模1韻 *tso]
- 2) co/조/祖/3 [D;2, F;1] [祖:精母 模1韻 *tso]
- 3) sú/쑤/戌/23 [Q;4, D;19] [戌:ㄱ心母 術3韻 *suit⁸⁵⁾]
- 4) só/쑤/戌/5 [Q;5] [戌:ㄱ心母 術3韻 *suit]
- 5) sú/쑤/輸/1 [S;1] [輸:書母 虞3韻 *ciö]
- 6) sú/쑤/稭/1 [D;1] [稭:船母 術3韻 *zuit]
- 7) só/쑤/稭/1 [Q;1] [稭:船母 術3韻 *zuit]
- 8) su/소/素/23 [S;8, Q;9, D;5, F;1] [素:心母 模1韻 *so]
- 9) su/소/蘇/5 [S;2] [蘇:心母 模1韻 *so]
- 10) sau/수/數/1 [S;1] [數⁸⁶⁾:ㄱ生母 虞3韻 *fuiö]

85) 眞韻 대응 습口韻으로 재구하였다.

86) “數”는 중고음에서 生母 虞3韻 *fuiö와 生母 覺2韻 *fɣok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 11) jo/쥬/孺/1 [Q:1] [孺:日母 虞3韻 *ŋiø]
- 12) ju/쥬/租/1 [D:1] [租:精母 模1韻 *tso]
- 13) ju/쥬/足/1 [D:1] [足:精母 燭3韻 *tsiøk]

위의 예23에서 범자의 음절 유형은 ‘cu, co, sú, só, su, sau, ju, jo’가 있다. 자음의 대응에서 ‘c/ㄷ/精(*ts)/8’, ‘ś/시/書(*ɕ)/1’, ‘s/ㅅ/心(*s)/28’이 일반대응이다.

3)번 ‘sú/쥬/戌/23’과 4)번 ‘só/쥬/戌/5’를 보면 범자 자음 ‘ś’ 대응의 한글은 ‘시’로 되어 있지만 한자는 書母가 아닌 心母로 되어 있다. 心母는 범자 자음 ‘s’와의 대응이 일반대응이므로 예외가 되는데 출현 횟수가 많은 편이다. ‘戌’은 術3韻 즉 3등운 글자로 세음성 개음이 있어 개음으로 범자 ‘ś’ 자음의 구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원순모음인 동시에 보다 자주 사용하는 한자이므로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음소대응의 통계에서는 제외시킬 것이다.

다음 6)번 ‘sú/쥬/稊/1’과 7)번 ‘só/쥬/稊/1’을 보면 이 역시 대응 한자가 마땅히 書母이어야 하지만 ‘稊’은 船母이다. 船母는 書母와 함께 모두 章系 글자로 범자 자음 ‘ś’와 1:多의 대응이 가능하다. 즉 ‘ś/시/書(*ɕ)’와 ‘ś/시/船(*ʒ)’이 가능한 것이므로 예외는 아니다. 원순모음에 마땅한 글자를 찾기 위해 船母도 동원하였을 것이다. 이것 역시 일반대응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번~13)번 예를 보면 범자 자음은 ‘j’이고 일반대응의 한글 표기는 ‘ㄷ’, 한자는 日母이다. 그러나 12)번~13)번에서 精母가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원순모음을 찾아야 하는 제한에 의하여 유사 음가의 精母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이것보다 특이한 점은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의 ‘쥬, 쥬’로 되어 있는데 범자 ‘ja’ 대응에서는 ‘ㅅ’ 즉 활음이 없는 단모음 표기라는 것이다. 3등운 한자의 세음성 개음의 영향이 아닐까 가정해 볼 수도 있는데 12)번의 한자는 3등운이 아닌 洪音의 1등운 模1韻이다. 즉 범자 모음과 한자 운모 모두에도 세음성이 없음에 불구하고 한글에서만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난다. 한글에서 활음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고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마 당시 진언 독송에서 ‘ju, jo’가 음성적으로 이중모음에 가깝게 들렸을 것이라 추측된다. 전통적인 진언 독송의 어떤 영향일 것이라 생각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음의 대응은 ‘c/ㄷ/日(*n)/1’, ‘c/ㄷ/精(*ts)/2’가 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u/오/模1(*o)/34’와 ‘o/오/模1(*o)/3’, ‘u/우/術3(*uit)/24’와 ‘o/우/術3(*uit)/6’가 있는데 한글과 한자 모두 범자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오’와 ‘우’의 차이는 범자 ‘u’와 ‘o’ 차이와 평행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음류 및 기타 음절 유형에 대해 보겠다.

예24

- 1) yu/유/庾/2 [F;2] [庾:以母 虞3韻 *iɔ]
- 2) yo/유/喻/4 [S;1, Q;1, D;2] [喻:以母 虞3韻 *iɔ]
- 3) hu/호/護/7 [Q;4, D;3] [護:匣母 模1韻 *ho]
- 4) hu/호/虎/9 [S;1, Q;8] [虎:曉母 模1韻 *ho]
- 5) ho/호/虎/2 [S;2] [虎:曉母 模1韻 *ho]
- 6) ru/로/嚕/67 [S;17, G;5, Q;32, D;13] [嚕:*?]
- 7) ro/로/嚕/2 [G;2] [嚕:*?]
- 8) rau/로/嚕/1 [D;1] [嚕:*?]
- 9) ru/로/嚙/1 [D;1] [嚙:*?]
- 10) ro/로/嚙/2 [D;2] [嚙; *?]
- 11) ru/로/嚙/9 [D;9] [嚙:*?]
- 12) rau/로/嚙/1 [D;1] [嚙:*?]
- 13) lau/로/嚙/1 [D;1] [嚙:*?]
- 14) ru/로/路/1 [S;1] [路:來母 模1韻 *lo]
- 15) lo/로/路/21 [S;7, G;4, Q;7, D;3] [路:來母 模1韻 *lo]
- 16) lo/루/路/2 [D;1, F;1] [路:來母 模1韻 *lo]⁸⁷⁾

위의 예24에서와 같이 범자의 음절 유형으로 ‘yu, hu, ru, yo, ho, ro, rau, lau’ 등이 있다.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y/이/以(*j)/6’, ‘h/ㅎ/匣(*h)/7’, ‘h/ㅎ/曉(*h)/11’, ‘l/ㄹ/來(*l)/23’ 등이 일반대응이다. 이외 범자 ‘r’ 대응의 한자는 造字로 ‘r/ㄹ/嚕(*?)/70, r/ㄹ/嚙(*?)/3, r/ㄹ/嚙(*?)/10’ 등이 있다.

87) 원본 61b, 93a

모음의 대응을 보면 ‘u’ 모음에 ‘u/오/模1(*o)/17’과 ‘u/우/虞3(*iɔ)/2’가 있고, ‘o’ 모음에 ‘o/오/模1(*o)/23’과 ‘o/우/虞3(*iɔ)/4’가 있다. 범자 ‘u’와 ‘o’ 모음이 한글 ‘우’와 ‘오’가 평행하지는 않지만 한자와 비교하여 ‘오’ 모음은 1등운 模1韻과, ‘우’는 3등운 虞3韻과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6)번에서는 이와 반대로 ‘o/우/模1(*o)/2’가 있다. 16)번과 15)번은 서로 범자도 같고 한자도 같은 ‘路’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와 ‘우’의 혼용이 생긴 것이다.

3.2 기본 閉音節의 표기

3.2.1 ‘-m’류

3.2.1.1 [-m]

아래는 ‘m’ 폐음절에서 실제로 [m]으로 발음되는 범자 음절 대응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들이다.

예25

- 1) kam/감/劍/3 [S;1, Q;2] [劍:見母 嚴3韻 *kiam]
- 2) gam/암/儼/3 [S;1, Q;2] [儼:疑母 嚴3韻 *ɣiam]
- 3) tam/담/擔/26 [S;2, D;24] [擔:端母 談1韻 *tam]
- 4) nam/남/喃/29 [S;4, Q;15, D;10] [喃:*?]
- 5) nam/남/南/18 [D;18] [南:泥母 覃1韻 *nəm]
- 6) tam/탐/𪛗/1 [S;1] [𪛗:知母 咸2韻 *tɣəm]
- 7) mam/맘/𪛗/18 [S;5, G;2, Q;6, D;4, F;1] [𪛗:*?]
- 8) vam/밤/鏝(鏝)/3 [Q;1, D;2] [鏝(鏝):>明母 凡3韻 *miam]⁸⁸⁾
- 9) jam/삼/咎/4 [Q;2, D;2] [咎:>精母 覃1韻 *tsəm]
- 10) šam/삼/釤/11 [Q;2, D;9] [釤:生母 銜2韻 *ʃɣəm]
- 11) sam/삼/糝/3 [S;3] [糝:心母 覃1韻 *səm]
- 12) sam/삼/三/32 [Q;16, D;16] [三:心母 談1韻 *sam]
- 13) ham/함/憾/1 [D;1] [憾:匣母 覃1韻 *həm]
- 14) ram/람/覽/2 [Q;1, D;1] [覽:>來母 談1韻 *lam]
- 15) ram/람/𪛗/2 [Q;1, D;1] [𪛗:*?]
- 16) ram/람/𪛗/8 [D;7, F;1] [𪛗:*?]
- 17) lam/람/覽/5 [Q;1, D;4] [覽:來母 談1韻 *lam]
- 18) lam/람/𪛗/14 [D;14] [𪛗:*?]
- 19) kam/검/劔(劔)⁸⁹⁾/1 [S;1] [劔(劔):見母 嚴3韻 *kiam]
- 20) kam/검/檢/6 [D;6] [檢⁹⁰⁾:見母 鹽B韻 *kɥiəm]

88) ‘鏝’와 ‘鏝’는 이체자이다.

89) ‘劔’과 ‘劔’은 이체자이다.

- 21) śam/섬/苦/2 [Q;2] [苦:書母 鹽3韻 *ɕiɐm]
 22) yam/염/琰/3 [S;1, Q;2] [琰:以母 鹽3韻 *jiɐm]
 23) yam/염/燄/2 [S;2] [燄:以母 鹽3韻 *jiɐm]
 24) tim/팀/砵/1 [D;1] [砵:知母 侵3韻 *tim]
 25) hum/흙/咍/40 [S;15, D;25] [咍:*?]
 26) om/옴/庵/63 [S;42, G;1, Q;8, D;4, F;1] [庵:*?]

위의 예25에서 1)번~18)번은 범자 모음 ‘a’인 폐음절 대응에 한글 모음이 ‘아’인 예이고, 19)번~23)번은 범자 모음 ‘a’인 폐음절 대응에 한글이 모음이 ‘어’인 예이며, 24)번~26)번은 기타 모음 ‘i, u, o’의 폐음절 예이다.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見(*k)/10, g/ㅇ/疑(*ŋ)/3, t/ㄷ/端(*t)/26, n/ㄴ/泥(*n)/18, t/ㅌ/知(*t)/2, v/ㅍ/明(*m)/3, ś/ㅅ/書(*ɕ)/2, ʃ/ㅈ/生母(*ʃ)/11, s/ㅆ/心(*s)/35, y/ㅇ/以(*j)/5, h/ㅎ/匣(*h)/1, r/ㄹ/日母(*r)/2, r/ㄹ/日母(*r)/8, l/ㄹ/來(*l)/5’로 대부분 앞서 開音節에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예외로 ‘v/ㅍ/明(*m)/3’의 대응이 있다. 앞서 開音節 자음의 대응에서 범자 자음 ‘v’는 한자 자모에 따라 明母일 경우 한글 자음이 ‘ㅍ’이고, 并母일 경우 ‘ㅍ’임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한자 자모가 明母인데 한글 자음이 ‘ㅍ’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 예는 8)번의 ‘vam/밤/鎗(鎗)/3’으로 여기에서 한글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 자음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자 자음 ‘v’ 대응에도 한글 표기 ‘ㅍ’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범자 ‘a’ 모음의 ‘va, vam’은 ‘바, 밤’으로 표기하고, ‘i’ 모음의 ‘vi’인 경우는 ‘미’로 표기하였다.

이외 9)번 예에서 자음의 대응이 ‘j/ㄱ/精(*ts)’로 나타난다. 일반대응에서 한자 자모는 日母 (혹은 從母)이어야 하는데 精母로 나타난다. 精母는 마땅히 범자 ‘c’ 자음과 대응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 예를 보면 ‘jam/삼/咍/4’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운모 및 *-m 운모까지 고려하여 맞는 음가의 한자를 찾으면서 부득이 자모의 대응을 유사한 음가의 기타 자모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예들은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90) “撿”은 중고음에서 見母 鹽B韻 *kɕiɐm과 來母 鹽3韻 *lɕiɐm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이외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 자모의 제약을 받는 것과, 무의미한 造字의 예들을 제외하고 보면 1)번~18)번은 ‘a/아/談1(*a)/65, a/아/覃1(*a)/26, a/아/嚴3(*ia)/6’이고, 19)번~23)번은 ‘a/어/嚴3(*ia)/1, a/어/鹽B(*ɥiɛ)/6, a/어/鹽3(*iɛ)/7’이며 24)번~26)번은 ‘i/이/侵3(*i)/1’이다.

한글 모음 ‘아’와 ‘어’ 모두 범자 ‘a’ 모음과 대응하고 있다. ‘어’ 모음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21)번~23)번은 범자 자음 ‘ś, y’의 구개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글 표기가 ‘섬, 염’으로 되어 있고, 19)번~20)번은 범자 자음 ‘k’와의 대응 한글이 단모음의 ‘검’으로 되어 있다. 1)번~2)번도 범자 자음이 ‘k’이지만 한글 모음이 ‘감’으로 되어 있어 대립을 이룬다. 특히 1)번의 ‘kam/감/劒/3’과 19)번의 ‘kam/검/劔(劒)/1’이 한글에서만 차이가 반영되는 ‘아’와 ‘어’가 혼용한다. 즉 한글 ‘어’ 모음은 3등운 한자와 대응하고, ‘아’ 모음은 대부분 1등운 한자와 대응하지만 일부 3등운과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아음의 범자 ‘k’의 대응에서 한글 ‘아’와 ‘어’는 혼용된다.

다음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m/-口/談1(*-m)/65, -m/-口/覃1(*-m)/26, -m/-口/銜2(*-m)/11, -m/-口/咸2(*-m)/1, -m/-口/鹽3(*-m)/13, -m/-口/嚴3(*-m)/7, -m/-口/凡3(*-m)/1, -m/-口/侵3(*-m)/1 등이 대응한다.

이외 한자 ‘喃(*?), 𪛗(*?), 𪛘(*?), 𪛙(*?)’의 대응 예들은 한자가 造字인데 이들은 음절말 자음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제한에 의한 것이다. 해당 음소 대응은 통계에 의미가 없는 예들이므로 제외시킨다. 예를 들어 이들은 범자 음절초 자음 ‘n, m, h, 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에 의미가 없다.

3.2.1.2 [-n]

다음은 같은 범자 ‘m’이지만 출현 환경에 따라 [n]의 음가를 가지는 경우이다. 해당 예들의 한자와 한글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26

- 1) nam/난/難/3 [Q;1, D;1, F;1] [難:泥母 寒1韻 *nan]
- 2) nam/난/𪛗/1 [D;1] [𪛗⁹¹:娘母 刪2韻 *nɣæn]

- 3) paŋ/반/噉/1 [D;1] [噉:??]
- 4) paŋ/반/畔/1 [D;1] [畔:并母 桓1韻 *ban]
- 5) bām/만/曼/1 [D;1] [曼⁹²):明母 桓1韻 *man]
- 6) bham/반/伴/1 [S;1] [伴:并母 桓1韻 *ban]
- 7) marŋ/만/滿/2 [S;2] [滿:明母 桓1韻 *man]
- 8) marŋ/만/曼/1 [D;1] [曼:明母 桓1韻 *man]
- 9) sam/산/散/1 [F;1] [散:心母 寒1韻 *san]
- 10) vaŋ/문/刎/2 [G;2] [刎:明母 文3韻 *miun]⁹³⁾
- 11) yaŋ/연/演/1 [F;1] [演:以母 仙3韻 *jiēn]
- 12) ʃim/ㄹ선/洗/2 [Q;1, D;1] [洗:生母 臻3韻 *ʃuŋin]⁹⁴⁾
- 13) ʃim/신/洗/1 [F;1] [洗:生母 臻3韻 *ʃuŋin]⁹⁵⁾

위의 예26에서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n/ㄴ/泥(*n)/3, ŋ/ㄴ/娘(*ŋ)/1, p/ㅍ/并(*b)/1, b/ㅍ/明(*m)/1, bh/ㅍ/并(*b)/1, m/ㅍ/明(*m)/3, v/ㅍ/明(*m)/2, y/ㅇ/以(*j)/1, ʃ/ㄴ/生(*ʃ)/1, s/ㄴ/心(*s)/1’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대부분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보면 우선 1)번~9)번이 ‘a/아/桓1(*a)/6, a/아/寒1(*a)/4’로 범자 모음이 ‘a’이고 한글 모음도 ‘아’이며, 10)번~11)번은 ‘a/으/文3(*iu)/2, a/어/仙3(*ie)/1’로 범자 모음은 여전히 ‘a’이지만 한글 모음은 ‘으’ 혹은 ‘어’이다. 이들은 한자는 모두 3등운이란 공통특징을 가지는데 한글 표기에서 ‘으’, ‘어’ 등 음성모음이 3등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2)번~13)번 모음은 ‘i’인 범자인데 범자 ‘ʃim’와 한자 ‘洗’가 모두 같지만 한글에서는 하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다. 13)번의 ‘신’은 범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을 것이고 12)번 ‘선’은 한국 한자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12)번의 기준을 ‘i/이/臻3(*uŋi)/1’ 모음의 대응으로 할

91) “𪔐”은 중고음에서 娘母 刪2韻 *ŋɣæn과 娘母 仙3韻 *ŋiē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2) “曼”은 중고음에서 明母 桓1韻 *man과 明母 元3韻 *miɣ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3) 원본 30a, 31b

94) 원본 42b, 57a

95) 원본 93b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m/-ㄴ/桓1(*-n)/6, -m/-ㄴ/寒1(*-n)/4, -m/-ㄴ/刪2(*-n)/1, -m/-ㄴ/文3(*-n)/2, -m/-ㄴ/仙3(*-n)/1, -m/-ㄴ/臻3(*-n)/3’이다.

3.2.1.3 [-ŋ]

이번에는 ‘m’이 [-ŋ]의 음가를 가지는 예들을 볼 것이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7

- 1) maŋ/망/莽/1 [D;1] [莽⁹⁶):明母 唐1韻 *maŋ]
- 2) jaŋ/양/壤/1 [D;1] [壤:日母 ▶陽3韻 *ŋiaŋ]
- 3) saŋ/상/商/2 [S;2] [商:書母 ▶陽3韻 *ciaŋ]
- 4) saŋ/상/餉/3 [D;3] [餉:書母 ▶陽3韻 *ciaŋ]
- 5) daŋ/능/能/2 [Q;2] [能⁹⁷):泥母 登1韻 *nəŋ]
- 6) maŋ/몽/懵/1 [Q;1] [懵:明母 ▶東1韻 *muŋ]
- 7) piŋ/빙/冰/2 [Q;2] [冰:幫母 蒸3韻 *piŋ]
- 8) siŋ/싱/僧/5 [S;1, Q;1, D;2, F;1] [僧:心母 登1韻 *səŋ]
- 9) liŋ/링/陵/2 [S;1, D;1] [陵:來母 蒸3韻 *liŋ]
- 10) liŋ/링/楞/1 [D;1] [楞:來母 登1韻 *ləŋ]
- 11) meŋ/명/銘/4 [G;3, D;1] [銘:明母 青4韻 *meŋ]
- 12) meŋ/명/茗/4 [Q;4] [茗:明母 青4韻 *meŋ]

위의 예27에서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m/口/明(*m)/10, j/ㄷ/日(*ŋ)/1, s/ㅅ/書(*ɕ)/5, d/ㄴ/泥(*n)/2, p/ㅍ/幫(*p)/2, s/ㅅ/心(*s)/5, l/ㄹ/來(*l)/3’ 등 대부분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범자 ‘j’와 한글 ‘ㄷ’가 대응하고 있는데 개음절에서는 원순모음에서만 ‘ㄷ’과 대응한다. 즉 범자 ‘ja’ 대응에서는 ‘ㅌ’이고, 원순모음에서는 ‘쇼, 슈’이다. 여기에서 관련

96) “莽”은 중고음에서 明母 唐1韻 *maŋ와 明母 模1韻 *mo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7) “能”은 중고음에서 泥母 登1韻 *nəŋ와 泥母 咍1韻 *nəi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2)번 예를 보면 ‘jam/양/壤/1’ 즉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의 ‘양’으로 되어 있다. 당시 아마 중세 한국한자음 ‘壤(양)’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진언 독송의 범자 음가의 반영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확신하기 어렵다.

한자 자모의 제약을 받는 예를 제외하고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唐1(*a)/1, a/ㄹ/登1(*ə)/2, i/이/蒸3(*i)/4’가 있다. 1)번~4)번 예에서 범자 ‘a’ 모음 대응 한글 모음은 ‘아’이고 5)번과 6)번은 ‘으’이다. ‘으’ 모음의 출현에 대해 한자의 중세 한국한자음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能(능~릉), 懜(몽)’으로 보아 한국한자음의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이는 아마 범자의 음가에서 음절말 자음 [-ŋ]의 영향을 받아 모음 ‘a’가 상대적으로 후설고모음화 되어 발음되면서 ‘으’로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5)번의 대응 한자는 登1韻 *əŋ이고 6)번은 東1韻 *muŋ인데 외국어 표기의 시각에서 보면 6)번 원순모음의 대응도 허용되겠지만 음소대응의 통계에서는 이를 제외시킬 것이다.

이외 8)번 ‘sim/싱/僧/5’와 10)번 ‘lim/링/楞/1’에서 한자는 모두 登1韻 *ləŋ이지만 한글은 ‘싱, 링’으로 표기되었다. 5)번 登1韻의 ‘能’ 대응 한글이 ‘능’으로 된 것과 다르다. 이들의 한글 표기는 한자가 아닌 범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고의 음소대응은 梵-韓-中의 대응규칙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 또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과 12)번 모음의 대응을 보면 ‘e/여/靑4(*eŋ)/8’로 되어 있다. 개음절의 일반대응에서 범자 모음 ‘e’ 대응의 한글은 마땅히 ‘예’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로 되어 있다. 만약 폐음절에서 개음절 일반대응을 따라 표기하려면 ‘명’이 되는데 아무리 외국어 표기라고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절구조이었을 것이며, 이에 이와 음가가 유사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음절만 자음의 대응을 보면 ‘-m/-ㅇ/唐1(*-ŋ)/1, -m/-ㅇ/陽3(*-ŋ)/6, -m/-ㅇ/登1(*-ŋ)/8, -m/-ㅇ/東1(*-ŋ)/1, -m/-ㅇ/蒸3(*-ŋ)/4, -m/-ㅇ/靑4(*-ŋ)/8’ 등이 있다.

3.2.2 ‘-h’류

다음은 ‘-h’의 폐음절의 예를 볼 것인데 먼저 ‘a’ 모음 음절을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8

- 1) gaḥ/악/虐/1 [Q;1] [虐:疑母 藥3韻 *ŋiak]
- 2) daḥ/낙/娜/2 [Q;2] [娜:泥母 歌1韻 *na]
- 3) naḥ/낙/諾/2 [S;1, D;1] [諾:泥母 鐸1韻 *nak]
- 4) maḥ/막/莫/18 [S;3, G;1, Q;5, D;9] [莫:明母 鐸1韻 *mak]
- 5) maḥ/막/麼/2 [S;1, D;1] [麼:明母 戈1韻 *ma]
- 6) vaḥ/박/嘯/2 [Q;2] [嘯:*?]
- 7) va/박/嘯⁹⁸/1 [D;1] [嘯:*?]
- 8) haḥ/ᄒ/𪛗/1 [S;1] [𪛗:*?]
- 9) duḥ/눅/耨/1 [Q;1] [耨⁹⁹:泥母 沃1韻 *nok]
- 10) buḥ/복/僕/1 [Q;1] [僕¹⁰⁰:并母 沃1韻 *bok]
- 11) yuḥ/욕/欲/1 [Q;1] [欲:以母 燭3韻 *jiøk]

위의 예28에서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g/ㅇ/疑(*ŋ)/1, d/ㄴ/泥(*n)/3, n/ㄴ/泥(*n)/2, bh/ㅃ/并(*b)/1, m/ㅁ/明(*m)/20, v/ㅅ/嘯(*?)/2, y/이/以(*j)/1’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1)번~7)번은 ‘a/아/藥3(*ia)/1, a/아/鐸1(*a)/20’이고 8)번은 ‘a/ᄒ/𪛗(*?)/1’이므로 같은 범자 모음 ‘a’에 한글 모음 ‘아’와 ‘ᄒ’가 대응하고 있다. 9)번~10)번에서 범자는 원순모음의 음절이며 ‘u/오/沃1(*o)/2, u/오/燭3(*iø)/1’의 대응을 가지고 있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ḥ/-ㄱ/藥3(*-k)/1, -ḥ/-ㄱ/鐸1(*-k)/20, -ḥ/-ㄱ/沃1(*-k)/2, -ḥ/-ㄱ/燭3(*-k)/1’가 된다. 그러나 2)번 ‘daḥ/낙/娜/2’, 5)번 ‘maḥ/막/麼/2’, 6)번 ‘vaḥ/박/嘯/2’을 보면 대응 한자는 자음 운미가 없는 음

98) 원본에 ‘入聲’이란 두 글자의 주석이 있다.

99) “耨”은 중고음에서 泥母 沃1韻 *nok과 泥母 侯1韻 *nəu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00) “僕”은 중고음에서 并母 沃1韻 *bok과 并母 屋1韻 *buk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성운 글자이다. 이는 중국어 번역에서 해당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개음절 대응에 사용하던 음성운 글자들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이외 7)번에서 범자는 ‘va’이고 한자는 ‘𪛗’이므로 한글이 마땅히 ‘바’로 나타나야 하는데 ‘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글의 오류일 수도 있고 혹은 범자 ‘va’가 ‘vah’의 오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을 중성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3.3 기타 기본 음절의 표기

3.3.1 모음 음절

본 절의 범자는 단순 모음으로 형성된 모음 음절로 ‘a, i, e, u, o’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9

- 1) a/아/阿/71 [S;6, G;2, Q;18, D;40, F;5] [阿:影母 歌1韻 *?a]
- 2) a/아/啊/1 [D;1] [啊:*?]
- 3) i/이/伊/3 [S;1, D;2] [伊:影母 脂A韻 *?i]
- 4) e/예/噎/4 [S;1, G;1, Q;1, D;1] [噎:影母 齊4韻 *?ei]
- 5) u/오/鳴/1 [S;1] [鳴:影母 模1韻 *?o]
- 6) u/오/塢/2 [D;2] [塢:影母 模1韻 *?o]
- 7) u/오/鄔/1 [F;1] [鄔¹⁰¹):影母 模1韻 *?o]
- 8) o/오塢/12 [G;2, D;10] [塢:影母 模1韻 *?o]
- 9) o/오/鄔/1 [D;1] [鄔:影母 模1韻 *?o]
- 10) o/오/𨮒/6 [D;6] [𨮒¹⁰²):影母 沒1韻 *?ot]

위의 예29에서 범자는 자음이 없으므로 ‘ø’으로 한다. 자음의 대응은 ‘ø/○/影(*?)’으로 모든 예들이 일치한다.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는 순수하게 ‘ø’를 나타내는 자모가 없으므로 이와 제일 가까운 것으로 影母 *?(혹은 以母 *j)를 사용하는데 위의 예들은 모두 影母를 사용하고 있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71’, ‘i/이/脂A(*i)/3’, ‘e/예/齊4(*ei)/4’, ‘u/오/模1(*o)/4’, ‘o/오/模1(*o)/13’, ‘o/오/沒1(*ot)/6’으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101) “鄔”은 중고음에서 影母 模1韻 *?o와 影母 魚3韻 *?iɣ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102) “𨮒”은 중고음에서 影母 沒1韻 *?ot와 影母 鎋2韻 *?ɣæ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3.3.2 자음 음절

다음은 범자의 단순히 자음으로만 음절을 형성하는 자음 음절의 예이다.
대응 한글과 한자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30

- 1) t/탁/吒/20 [S;12, D;8] [吒:知母 麻2韻 *tɣa]
- 2) ʈa/탁/吒/1 [D;1] [吒:知母 麻2韻 *tɣa]¹⁰³⁾
- 3) t/탁/吒/48 [D;48] [吒:知母 麻2韻 *tɣa]
- 4) ʈh/탁/吒/3 [D;3] [吒:知母 麻2韻 *tɣa]
- 5) ʈh/타/吒/2 [D;2] [吒:知母 麻2韻 *tɣa]

위의 예30를 보면 범자 음절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며 권설음의 ‘t’와 ‘ʈh’뿐이다(이는 산스크리트의 언어현상으로 ‘위라마’로 부르며 본고 제2장 2.1.2절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표기하고 있는 한자는 자음운미가 없는 麻2韻 *ɣa 즉 개음절에서 사용하던 글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t’와 ‘ʈh’ 모두 같은 한자 ‘吒’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은 ‘탁, 탁’의 ‘-ㄱ’종성자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2)번 예 ‘ʈa/탁/吒/1’에서 범자가 자음 음절이 아닌 옹근 음절의 ‘ʈa’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동일 한자에 의한 한글의 오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知(*t)/20’가 앞서 고찰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하지만 범자 ‘t’ 자음의 대응에는 ‘t/ㄷ/知(*t)/48’ 즉 한글 ‘ㄷ’의 대응 예도 있다. 그리고 개음절에서 범자 ‘ʈh’ 자음의 예가 거의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ʈh/ㄷ/知(*t)/3, ʈh/ㄷ/知(*t)/2’로 5회 나타난다.

103) 원본 82b

제 4 장 梵字 복자음의 한글 표기

본 장에서는 한글의 복자음 음절 표기에 대해 볼 것이다. 이에 먼저 한글의 범자 표기 방법을 분석하고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분리한 다음 음소의 대응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범자의 음절유형에 따라 開音節의 ‘C+제2자음’류, 開音節의 ‘제1자음+C’류, 閉音節류의 순서로 살펴 볼 것이다.

4.1 ‘C+제2자음’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4.1.1 제2자음 ‘y’류

4.1.1.1. ‘a’ 모음

아래의 범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제2자음은 ‘y’이고, 모음은 ‘a’인 예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1

- 1) kya/가/枳也_[二合]/2 [Q;1, F;1] [枳(聲母):見母*k][也:以母 麻3韻*jia]
- 2) kya/가/枳野_[二合]/1 [D;1] [枳(聲母):見母*k][野:以母 麻3韻*jia]
- 3) tyā/다/底也_[二合]/2 [Q;2] [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 4) tyā/다/底野_[二合]/1 [D;1] [底(聲母):端母*t][野:以母 麻3韻*jia]
- 5) dya/냐/你也_[二合]/18 [S;2, Q;3, D;12, F;1] [你(聲母):娘母*n][也:以母 麻3韻*jia]
- 6) dya/냐/你野_[二合]/1 [S;1] [你(聲母):娘母*n][野:以母 麻3韻*jia]
- 7) dhya/다/地野_[二合]/2 [S;2] [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 8) nya/냐/拏野_[二合]/6 [D;6] [拏(聲母):娘母*n][野:以母 麻3韻*jia]
- 9) pya/ㅃ/跛野_[二合]/1 [S;1] [跛(聲母):幫母*p][野:以母 麻3韻*jia]
- 10) bhya/ㅃ/毗夜_[二合]/1 [D;1] [毗(聲母):并母*b][夜:以母 麻3韻*jia]
- 11) mya/ㅃ/弭也_[二合]/3 [Q;2, D;1] [弭(聲母):明母*m][也:以母 麻3韻*jia]
- 12) vya/ㅃ/尾野_[二合]/2 [S;1, D;1] [尾(聲母):明母*m][野:以母 麻3韻*jia]
- 13) cya/자/紫野_[二合]/1 [D;1] [紫(聲母):精母*ts][野:以母 麻3韻*jia]

- 14) jya/자/紫野_[二合]/1 [D;1] [紫(聲母):>精母*ts][野:以母 麻3韻*jia]
- 15) sya/샤/瑟也_[二合]/1 [S;1] [瑟(聲母):生母*f][也:以母 麻3韻*jia]
- 16) hya/하/哂野_[二合]/1 [D;1] [哂(聲母):曉母*h][野:以母 麻3韻*jia]
- 17) rya/랴/哩也_[二合]/3 [Q;1, D;2] [哩(聲母):哩*?][也:以母 麻3韻*jia]
- 28) rya/랴/哩野_[二合]/1 [D;1] [哩(聲母):哩*?][野:以母 麻3韻*jia]
- 19) lya/랴/里也_[二合]/1 [Q;1] [里(聲母):來母*l][也:以母 麻3韻*jia]

위의 예1에서 범자 음절은 ‘C+y+a’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C’의 종류에 따라 아음의 ‘kya’, 설음의 ‘tya, dya, dhya’, 권설음의 ‘ṇya’, 순음의 ‘pya, bhya, mya, vya’, 치음의 ‘cya, jya, sya’, 후음 등의 ‘hya, rya’가 있다.

이를 표기하는 한글은 ‘가, 다, 나, 바, 마, 자, 샤, 하, 랴’로 되어 있는데 한글의 초성자음은 범자 C자음과 대응하고, 상향이중모음의 활음은 범자의 두 번째 자음 ‘y’와 대응한다. 예를 들어 범자 ‘kya’의 한글 표기는 ‘가’이며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k/ㄱ’, ‘ya/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분리 후의 ‘k’와 ‘ya’는 두 개의 單子音 음절로 볼 수 있는데, ‘k’는 ‘자음 음절’의 형태와 같고 ‘ya’는 기본 개음절의 형태와 같다.

한자를 보면 범자와 한글 모두 1음절인데 비해 모두 [二合]¹⁰⁴⁾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자 ‘kya’의 한자 표기는 ‘枳也_[二合]’이고 범자의 첫 자음 ‘k’와 첫 번째 한자 ‘枳’의 聲母가 대응하고, 범자의 남은 부분 ‘ya’는 두 번째 한자 ‘也’의 ㄹ 음절과 대응한다.¹⁰⁵⁾ 즉 ‘k/枳(聲母)’,

104) 진언집의 실담장의 체문에서 ‘kṣa’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한자가 ‘乞灑_[二合]’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한자의 ‘二合’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五音 중 만약 위 12성의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은 즉 한자의 反切과 같다. 만약 아래 초음과 서로 합하여져 마치 乞灑처럼 위 글자의 半訓과 아래 글자의 全訓이 합하여진다(取五音之字. 若與上十二聲. 反之, 則如漢字反, 若與下超音相合, 則如乞灑之類, 上字半訓, 下字全訓)’고 하였다(미즈노 순페이 2011:149의 번역문 참조).

105) ‘二合’을 흔히 중국어 음운자료의 ‘反切’과 같다고 보는데 사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우선 ‘二合’은 외국어 대응의 표기법이고 ‘反切’은 한자의 음가를 나타내는 일종의 注音法이다. 反切은 예를 들어 흔히 ‘東, 德紅切’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東’은 被切字, ‘德’은 反切上字, ‘紅’은 反切下字라고 한다. 반절상자 ‘德’의 성모는 피절자 ‘東’의 성모를 나타내고 반절하자 ‘紅’의 韻(韻은 운모와 다른 개념이다. 개음을 포함하지 않지만 성조를 포함하는 押韻을 위한 단위이다.)은 피절자 ‘東’의 韻을 나타낸다. 즉, 반절하자는 성모를 주음에 동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二合’은 두 번째 한자의 성모와 운모를 모두 동원하며 첫 번째 한자의 성모와 함께 범어의 복자음 음절을 나타낸다.

‘ya/也’로 대응한다. 만약 梵-韓-中 세 가지 문자의 음절대응으로 정리하면 ‘k/ㄱ/枳(聲母)’, ‘ya/야/也’가 된다. 여기에서 한글 ‘가’는 ‘ㄱ+야’로 세분화하여 분리시켰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범자 음절이지만 다른 표기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예2

- 1) nya/냐/孃/12 [D;12] [孃(聲母):娘母*ɲ][孃(韻母):陽3韻*iaŋ]
- 2) sya/샤/寫/6 [S;2, Q;3, D;1] [寫:心母 麻3韻*sia]

앞서 예1에서 고찰한 일반적인 표기에서 범-한-중 음절 대응은 1:1:2으로 나타나지만 위의 예2는 1:1::1 대응으로 한자가 1음절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한글은 일반표기와 같지만 한자만 차이가 있으며 성모는 범자 C자음과 대응하고 운모가 남은 범자 ‘ya’와 대응한다. 이에 범-한-중의 대응은 ‘ɲ/ㄴ/孃(聲母), ya/야/孃(韻母)’와 ‘s/ㅅ/寫(聲母), ya/야/寫(韻母)’로 된다. 즉 한자 ‘孃’는 陽3韻 *iaŋ, ‘寫’는 麻3韻 *sia로 3등운의 세음성 개음이 범자 ‘y’와 대응하여 ‘y/이/陽3(*-i-), ‘y/이/麻3(*-i-)’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일반표기에서 한자가 ‘二음’이라는 2음절 표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해당 1음절 범자를 1개의 漢字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2음절의 표기가 1음절 표기보다 비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1음절 표기가 가능하다면 1음절 표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예2의 ‘孃, 寫’의 1음절 표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1음절 표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고의 음소대응의 고찰에서는 3등운 개음이 범자 자음과 대응되는 것을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자는 표의문자이므로 외국어 표기에 많은 제한을 가진다. 이에 상황에 따라 1음절 혹은 2음절이 사용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보다 정연하게 경제적인 표기를 선택하여 1음절 표기가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물론 한자도 규칙 없이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체계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자 ‘ya’ 대응에 있어 주로 ‘也, 野’ 이 두 글자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위의 대응 분석을 따라 예1~예2를 單子音 단위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k/ㄱ/枳(聲母)/3, t/ㄷ/底(聲母)/3, d/ㄴ/你(聲母)/19, dh/ㄷ/地(聲母)/2, n/ㄴ/拊(聲母)/6, n/ㄴ/孃(聲母)/12, p/ㅍ/跛(聲母)/1, bh/ㅍ/毗(聲母)/1, m/ㅁ/弭(聲母)/3, v/ㅁ/尾(聲母)/2, c/ㅈ/紫(聲母)/1, j/ㅈ/紫(聲母)/1, s/ㅅ/瑟(聲母)/1, s/ㅅ/寫(聲母)/6, h/ㅎ/咽(聲母)/1, r/ㄹ/哩(聲母)/4, l/ㄹ/里(聲母)/1

【개음절】 ya/야/也/28, ya/야/野/20, ya/야/夜/1, ya/야/孃(韻母)/12, ya/야/寫(韻母)/6

위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을 기초로 더 세부적인 음소단위의 대응을 볼 수 있다. 한글 초성의 단위로 대응 관계를 보면 ‘k/ㄱ/見(*k)/3, t/ㄷ/端(*t)/3, dh/ㄷ/定(*d)/2, n/ㄴ/娘(*n)/18, p/ㅍ/幫(*p)/1, bh/ㅍ/并(*b)/1, m/ㅁ/明(*m)/3, v/ㅁ/明(*m)/2, c/ㅈ/精(*ts)/1, s/ㅅ/心(*s)/6, h/ㅎ/曉(*h)/1, y/이/以(*i)/49, r/ㄹ/哩(*?)/4, l/ㄹ/來(*l)/1’ 등이 있는데 거의 모두 제3장에서 고찰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는바, 15)번의 ‘jya/자/紫野_[二合]/1’에서 범자 자음 ‘j’ 대응에 한자 자모는 마땅히 日母이어야 하는데 精母 *ts의 ‘紫’가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14)번 ‘cya/자/紫野_[二合]/1’의 대응은 일반대응에 속하는데 15)번의 범자 ‘j’는 아마 오류일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개음절’에만 있는데, 개음절의 ‘ya’와 대응하는 한자 자모는 모두 以母이고, 以母는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운모의 대응이 麻3韻 *ia으로 나타난다. 즉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1.1.2. 기타 모음

다음은 ‘C+y’류 복자음이지만 기타 모음의 ‘C+ye’, ‘C+yu’, ‘C+yo’ 예들이 다. 대응 한글과 한자의 표기 및 한자의 중고음은 아래와 같다.

예3

1) tye/떼/底曳_[二合]/1 [D;1] [底(聲母):端母*t][曳:以母 祭A韻*jiei]

- 2) hye/혜/醢曳_[二合]/1 [S;1] [醢(聲母):曉母*h][曳:以母 祭A韻*jie]
- 3) tyu/뉘/底庾_[二合]/1 [D;1] [底(聲母):端母*t][庾:以母 虞3韻*jiø]
- 4) dyu/뉴/你庾_[二合]/1 [D;1] [你(聲母):娘母*ŋ][庾:以母 虞3韻*jiø]
- 5) dyu/뉘/底庾_[二合]/1 [D;1] [底(聲母):端母*t¹⁰⁶][庾:以母 虞3韻*jiø]
- 6) myu/뮤/弭庾_[二合]/1 [Q;1] [弭(聲母):明母*m][庾:以母 虞3韻*jiø]
- 7) tyo/뉘/底庾_[二合]/2 [G;1, D;1] [底(聲母):端母*t][庾:以母 虞3韻*jiø]

위의 예3은 앞서 예1과 복자음 유형이 같고 모음에서만 차이가 있다. 한글 상향이중모음의 표기와, 한자의 ‘二合’ 2음절 표기의 방법이 같다. 하지만 일부 기타 표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예4

- 1) tyo/뉘/跬/4 [G;4] [跬:澄母¹⁰⁷ 虞3韻*djø]
- 2) hye/혜/醢/1 [G;1] [醢:曉母 齊4韻*hei]¹⁰⁸

여기에서도 범-한-중 음절의 일반대응은 1:1:2이지만 1:1:1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번에서 한자 ‘跬’의 운모는 虞3韻 *jø으로 3등운의 세 음성 개음 ‘-i-’는 범자 자음 ‘y’와 대응할 수 있어 1음절 표기로 대체하였을 것이다. 2)번에서 한자 ‘醢’의 운모는 齊4韻 *ei에 속하며 범자 ‘ye’와 대응시켰다. 물론 중국어 번역의 오류에 의한 예외인 것이지만 그냥 유사한 음가의 글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한글은 ‘혜’로 표기되어 있는데 각자병서 ‘ㄷ’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외 표기로 나타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예3~예4를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분리하고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6) 유성음 범자의 대응은 비음의 한자와 한글 대응이 일반적이므로 마땅히 ‘뉴’로 나타나야 한다. 대응 한자에서 端母로 나타나는 것은 한자에서 생긴 예외이며 한글은 한자를 따라 ‘뉘’로 나타났을 것이다. 혹은 범자 ‘d’ 자음이 ‘t’ 자음의 오류일 수도 있다.
 107) 범자 ‘t’ 대응은 일반적으로 端母이다. 한자 자모 澄母가 대응하는 범자는 권설음의 ‘dh’가 마땅하다. 이는 아마 범자 전승의 오류일 것이다. 그러나 범자 자음이 ‘t’이든 ‘dh’ 한글 자음은 모두 ‘ㄷ’로 대응하며 한글 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8) 원본 31a

【자음음절】 <초성자음> t/ㄷ/底(聲母)/4, t/ㄷ/跬(聲母)/4, h/ㅎ/醢(聲母)/1, h/ㅎ/醢(聲母)/1, d/ㄴ/你(聲母)/1, d/ㄷ/底(聲母)/1, m/ㅁ/弭(聲母)/1

【개음절】 ye/예/曳/2, ye/예/醢(韻母)/1, yu/유/庾/4, yo/유/庾/2, yo/유/跬(韻母)/4

위의 음절대응을 한글의 음소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초성의 대응이 ‘t/ㄷ/端(*t)/4, m/ㅁ/明(*m)/1, h/ㅎ/曉(*h)/1, y/이/以(*j)/8’등으로 거의 대부분 제3장에서 고찰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응도 ‘e/예/祭A(*iei)/2, e/예/齊4(*ei)/1, u/우/虞3(*iü)/4, o/우/虞3(*iü)/6’으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1.2 제2자음 ‘r’류, ‘l’류

4.1.2.1. ‘a’ 모음

다음은 제2자음이 ‘r’인 복자음과 제2자음이 ‘l’인 복자음인 ‘C+ra’, ‘C+la’의 범자 음절을 보겠다.

예5

- 1) kra/ㄱ라/羯囉_[ㄱ라]/1 [S;1] [羯(聲母):見母*k][囉:~?]
- 2) kra/ㄱ라/訖囉_[ㄱ라]/5 [G;4, D;1] [訖(聲母):見母*k][囉:~?]
- 3) gra/ㄱ라/疙囉_[ㄱ라]/7 [G;3, Q;4] [疙(聲母):疑母*ŋ][囉:~?]
- 4) gra/ㄱ라/仡囉_[ㄱ라]/38 [D;38] [仡(聲母):疑母*ŋ][囉:~?]
- 5) gra/ㄱ라/藁囉_[ㄱ라]/7 [D;7] [藁(聲母):疑母*ŋ][囉:~?]
- 6) ghra/ㄱ라/伽囉_[ㄱ라]/2 [S;1, D;1] [伽(聲母):群母*g][囉:~?]
- 7) tra/ㄷ라/怛囉_[ㄷ라]/21 [S;4, G;1, Q;9, D;7] [怛(聲母):端母*t][囉:~?]
- 8) dra/ㄴ라/捺囉_[ㄴ라]/21 [S;1, Q;6, D;13, D;1] [捺(聲母):泥母*n][囉:~?]
- 9) pra/ㅂ라/鉢囉_[ㅂ라]/45 [S;5, G;3, Q;14, D;21, F;2] [鉢(聲母):幫母*p][囉:~?]
- 10) bra/ㅁ라/沒囉_[ㅁ라]/6 [Q;2, D;4] [沒(聲母):明母*m][囉:~?]
- 11) bhra/ㅂ라/悖囉_[ㅂ라]/1 [D;1] [悖¹⁰⁹⁾(聲母):并母*b][囉:~?]
- 12) jra/ㅅ라/日囉_[ㅅ라]/42 [S;16, Q;7, D;17, D;2] [日(聲母):日母*ɳ][囉:~?]

109) “悖”는 중고음에서 并母 灰1韻 *boi와, 并母 沒1韻*bot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 13) śra/시라/室囉_[二合]/4 [Q;1, D;3] [室(聲母):書母*ɕ][囉:*?]
 14) sra/스라/娑囉_[二合]/12 [G;6, D;5, D;1] [娑(聲母):心母*s][囉:*?]
 15) hla/헨라/賀囉_[二合]/1 [S;1] [賀(聲母):匣母*ɦ][囉:*?]

위의 예5에서 범자 음절은 ‘kra, gra, ghra, tra, dra, pra, bra, bhra, jra, śra, sra, hla’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ㄱ라, ㄴ라, ㄷ라, ㄹ라, ㅂ라, ㅃ라, ㅅ라, ㅆ라, ㅈ라, ㅊ라’의 2음절 표기 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음절이 모두 ‘ㄹ’ 모음의 음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범자와 한글을 대응시켜 보면 예를 들어 범자 ‘kra’를 한글 ‘ㄱ라’로 표기하고 있는데 ‘k/ㄱ, ra/라’로 대응한다. 여기에서는 한글의 ‘ㄹ’ 모음 음절은 단순히 범자 자음 ‘k’와 대응하고 있어 ‘ㄹ’ 모음은 사실 범자 모음과의 대응 없이 단순히 첨가된 것이다.

여기에서 한자 표기는 앞서 살펴본 제2자음이 ‘y’인 복자음 표기와 같이 ‘二슴’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자 음절 ‘kra’의 한자 표기는 ‘羯囉_[二合]’이고 범자와의 대응은 ‘k/羯(聲母), ra/囉’이다. 한글과 결합하여 범-한-중의 대응으로 보면 ‘k/ㄱ/羯(聲母)’, ‘ra/라/囉’가 된다.

여기에서도 일부 특이한 표기 예들이 있는바 아래와 같다.

예6

- 1) gra/알/藥囉_[二合]/1 [D;1] [藥(聲母):疑母*ŋ][囉:*?]¹¹⁰⁾
 2) mra/말/沫/1 [D;1] [沫:明母 末1韻*mat]¹¹¹⁾

만약 앞서 예5에서 한글의 일반 표기에 의하면 범자 ‘gra, mra’은 ‘ㄹ’ 모음을 첨가하여 ‘ㄹ라, ㅃ라’로 나타나야 하지만 예6에서는 각각 ‘알, 말’로 나타났다. 2)번 예에서 한자가 1음절의 ‘沫’로 예외 표기가 나타났는데,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말’로 나타나며 예외 표기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1)번 예를 보면 한자가 ‘藥囉_[二合]’ 즉 일반적인 二슴 2음절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한글 ‘알’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10) 원본 62b

111) 원본 83b

여기의 ‘알, 말’의 ‘-ㄹ’ 중성은 모두 범자 자음 ‘r’과 대응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한글의 음절구조에 따르면 범자는 ‘gar, mar’가 된다. 실제 범자 ‘gra, mra’와 비교하여 보면 ‘r’과 ‘a’가 도치되어 있다. 즉 한글의 ‘알, 말’이 범자 자음 ‘r’과 모음 ‘a’를 도치하여 반영한 예외 표기이다. 이런 도치 현상은 진언이 외국어로 장기간 독송되어 오면서 점차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절구조로 ‘동화’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외 표기는 구체적인 음절대응과 음소대응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위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위의 예들을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ㄹ’음절> k/ㄱ/羯(聲母)/1, k/ㄱ/訖(聲母)/5, g/ㄱ/疙(聲母)/7, g/ㄱ/乞(聲母)/38, g/ㄱ/藪(聲母)/8, gh/ㄱ/伽(聲母)/2, t/ㄷ/怛(聲母)/21, d/ㄴ/捺(聲母)/21, p/ㅍ/鉢(聲母)/45, b/ㅍ/沒(聲母)/6, bh/ㅍ/悖(聲母)/1, j/ㄷ/日(聲母)/1, ś/ㅅ/室(聲母)/42, s/ㅅ/娑(聲母)/16, h/ㅎ/賀(聲母)/1

【기본음절】 ra/라/囉/212, la/라/囉/1

위의 대응에서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k/ㄱ/見(*k)/6, g/ㄱ/疑(*ŋ)/53, gh/ㄱ/群(*g)/2, t/ㄷ/端(*t)/21, d/ㄴ/泥(*n)/21, p/ㅍ/幫(*p)/45, b/ㅍ/明(*m)/6, bh/ㅍ/并(*b)/1, j/ㄷ/日(*r)/1, ś/ㅅ/書(*c)/42, s/ㅅ/心(*s)/16, h/ㅎ/匣(*h)/1, r/ㄹ/囉(*?)/21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응은 범자 ‘a’ 모음만 있고 한자가 造字인 ‘囉’만 있는 것으로 통계에 무의미하여 제외시킨다.

4.1.2.2. 기타 모음

기타 모음의 ‘C+ri, C+re, C+rai, C+ru, C+ro, C+rau’의 범자 음절 및 한글과 한자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7

1) gri/ㄱ 레/揭(聲母):群母*g][嗽:*?]

- 2) gri/ㄱ 리/乞哩_[二合]/1 [D;1] [乞(聲母):溪母*kh¹¹²][哩:*?]
- 3) tri/ㄷ 리/怛哩_[二合]/1 [S;1] [怛(聲母):端母*t][哩:*?]
- 4) tri/ㄷ 리/底哩_[二合]/3 [Q;3] [底(聲母):端母*t][哩:*?]
- 5) dri/ㄴ 리/捺哩_[二合]/2 [D;2] [捺(聲母):泥母*n][哩:*?]
- 6) śri/ㅅ 리/室哩_[二合]/9 [S;3, G;1, Q;4, D;1] [室(聲母):書母*ɕ][哩:*?]
- 7) gre/ㄱ 레/揭噉_[二合]/1 [S;1] [揭(聲母):群母*g][噉:*?]
- 8) tre/ㄷ 레/怛噉_[二合]/1 [Q;1] [怛(聲母):端母*t][噉:*?]
- 9) dre/ㄴ 레/汔噉_[二合]/1 [D;1] [汔(聲母):*?][噉:*?]
- 10) dre/ㄴ 레/捺噉_[二合]/1 [F;1] [捺(聲母):泥母*n][噉:*?]
- 11) nre/ㄴ 레/捺嚙_[二合]/1 [S;1] [捺(聲母):泥母*n][嚙:*?]
- 12) pre/ㅂ 레/必噉_[二合]/1 [D;1] [必(聲母):幫母*p][噉:*?]
- 13) pre/ㅂ 레/畢噉_[二合]/1 [D;1] [畢(聲母):幫母*p][噉:*?]
- 14) jre/ㄴ 레/日噉_[二合]/2 [D;1, F;1] [日(聲母):日母*ɳ][噉:*?]
- 15) sre/ㅅ 레/始噉_[二合]/1 [D;1] [始(聲母):書母*ɕ][噉:*?]
- 16) trai/ㄷ 래/怛賴_[二合]/1 [Q;1] [怛(聲母):端母*t][賴:來母 泰1韻*lai]
- 17) trai/ㄷ 래/怛噉_[二合]/5 [D;4, F;1] [怛(聲母):端母*t][噉:*?]
- 18) tru/ㄷ 로/咄嚙_[二合]/5 [Q;4, D;1] [咄(聲母):端母*t][嚙:*?]
- 19) kro/ㅁ 로/喙嚙_[二合]/1 [S;1] [喙(聲母):*?][嚙:*?]
- 20) jro/ㄴ 로/日嚙_[二合]/3 [D;3] [日(聲母):日母*ɳ][嚙:*?]
- 21) śro/ㅅ 로/戌嚙_[二合]/1 [D;1] [戌(聲母):心母*s][嚙:*?]
- 22) drau/ㄴ 로/訥嚙_[二合]/1 [D;1] [訥(聲母):泥母*n][嚙:*?]
- 23) srau/ㅅ 로/素嚙_[二合]/1 [D;1] [素(聲母):心母*s][嚙:*?]

위의 예7에서 범자 음절 대응의 한글 표기가 ‘ㅇ’ 첨가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 역시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을 單子音 음절의 대응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ㅇ’음절> k/ㅁ/喙(聲母)/1, g/ㄱ/乞(聲母)/1, g/ㄱ/揭(聲母)/3, t/ㄷ/怛(聲母)/8, t/ㄷ/咄(聲母)/5, t/ㄷ/底(聲母)/3, d/ㄴ/捺(聲母)/3, d/ㄴ/汔(聲母)/1, d/ㄴ/訥(聲母)/1, n/ㄴ/捺(聲母)/1, p/ㅂ/必(聲母)/1, p/ㅂ/畢(聲母)/1, j/ㄴ/日(聲母)/5, ś/ㅅ/室(聲母)/9, ś/ㅅ/

112) 범자 자음 ‘g’는 마땅히 비음 한자가 대응하여야 하므로 溪母의 ‘乞’은 예외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ㅇ’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범자 자음 ‘g’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자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戌(聲母)/1, s/스/素(聲母)/1, s/스/始(聲母)/1

【기본음절】 ri/리/哩/16, re/레/噤/9, re/레/嚙/1, rai/래/賴/1, rai/래/噤/5, ru/로/嚙/5, ro/로/嚙/2, ro/로/嚙/3, rau/로/嚙/2

여기에서 보다 특이한 한글 표기가 보이는데 바로 ‘시’이다. 6)번의 ‘sri/시리/室哩_[二合]/9’, 21)번의 ‘sro/시로/戌嚙_[二合]/1’에서 나타난다. 이들의 범자 자음이 모두 ‘ś’이란 공통성을 가지는데 개음절 범자에서 ‘ś’ 자음은 한글 ‘시’와 대응한다. 복자음에서 자음 ‘ś’ 대응의 한글은 ‘시’에 ‘으’ 모음을 첨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으’가 되어 ‘시’ 음절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해례에서 ‘기, 깐’등은 비록 당시 國語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兒童之言’ 혹은 ‘邊野之語’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¹¹³⁾ 진언은 범어라는 외국어의 표기이므로 ‘邊野之語’의 표기로 볼 수 있겠다.

음소 표기의 대응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의 대응이 ‘g/ㅇ/群(*g)/3, t/ㄷ/端(*t)/16, d/ㄴ/泥(*n)/4, n/ㄴ/泥(*n)/1, p/ㅍ/幫(*p)/2, j/ㅈ/日(*n₂)/5, ś/시/書(*ś)/9, s/ㅅ/心(*s)/1, r/ㄹ/哩(*r)/16, r/ㄹ/噤(*r)/9, r/ㄹ/嚙(*r)/9, r/ㄹ/嚙(*r)/5’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i/애/泰1(*ai)/1’ 외 기타 대응의 한자는 모두 造字이며 ‘i/이/哩(*i)/16, ai/애/噤(*i)/5, u/오/嚙(*i)/5, o/오/嚙(*i)/2, au/오/嚙(*i)/2, o/오/嚙(*i)/3’ 등이 있다.

이외 일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번 ‘gri/으레/揭噤_[二合]/2’에서 범자가 ‘gri’이므로 한글 표기는 ‘으리’가 예상되는데 ‘으레’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음절의 한자 ‘噤’을 보면 일반적으로 범자 모음 ‘e’와 대응한다. 범자 ‘e’의 한글 일반 표기는 ‘예’로, 한글이 ‘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 한자 ‘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¹¹⁴⁾

113) ・一起ㄴ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當合二字而用。如：기, 깐之類。

114) 그럼 한자는 무엇 때문에 범자 ‘i’ 대응에 ‘噤’를 사용하였는가? 진언집의 범자 ‘i’ 모음의 단순한 ‘e’ 모음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산스크리트의 음운현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 모음교체 형태 변화 ‘i<e<ai’의 세 단계 형태가 있는데 문자는 ‘i’ 모음의 감소단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어 번역 당시 발음은 ‘e’ 모음의 표준단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4.1.3 제2자음 ‘v’류

4.1.3.1. ‘a’ 모음

다음은 제2자음이 ‘v’이고 모음이 ‘a’인 범자 음절 ‘C+v+a’의 한글과 한자 표기이다.

예8

- 1) tva/ㄷ바/怛_[二合]/7 [S:4, G:2, D:1, F:1] [怛(聲母):端母*t][噤:??]
- 2) tva/ㄷ바/怛_[二合]/9 [Q:5, D:4] [怛(聲母):端母*t][噤:??]
- 3) nva/ㄴ바/娜_[二合]/1 [D:1] [娜(聲母):泥母*n][噤:??]
- 4) jva/ㅈ바/入_[二合]/25 [Q:15, D:10] [入(聲母):日母*n₁][噤:??]
- 5) śva/시바/濕_[二合]/14 [S:7, G:4, Q:1, D:2] [濕¹¹⁵⁾(聲母):書母*ɕ][噤:??]
- 6) sva/스바/娑_[二合]/132 [S:14, Q:104, D:13, F:1] [娑(聲母):心母*s][噤:??]
- 7) sva/스바/薩_[二合]/22 [S:22] [薩(聲母):心母*s][噤:??]
- 8) sva/스바/濕_[二合]/1 [F:1] [濕(聲母):書母*ɕ][噤:??]
- 9) hva/ㅎ바/賀_[二合]/1 [D:1] [賀(聲母):匣母*h][噤:??]

위의 예8을 보면 여기에서도 한글 표기는 모두 ‘ㄲ’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 표기가 일반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특이한 것은 범자 ‘v’ 대응의 한글 초성이 ‘ㄷ’ 혹은 ‘ㄴ’가 혼용되어 표기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범자와 한자 대응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1)번과 2)번 모두 범자는 ‘tva’이고, 한자는 ‘怛_[二合]’이지만 1)번 한글은 ‘ㄷ바’이고, 2)번 한글은 ‘ㄷ바’이다. 출현 횟수도 각각 7회와 9회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ㄴ’는 개음절 범자 대응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나는데 ‘ㄷ바, 스바, 시바, 스바, ㅎ바’ 등의 출현 환경을 보면 ‘ㄴ’는 두 모음 사이에 끼어 있어 유성음 환경에 위치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중세한국어 ‘ㄴ’의 유성음 환경에서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본고의 제5장 5.2.1.3의 내

115) “濕”는 중고음에서 書母 緝3韻*ɕip와 透母 合1韻*thəm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위의 일반 표기 이외의 일부 기타 표기를 보겠다.

예9

- 1) sva/ㅍ/娑囉[二合]/3 [D;2, F;1] [娑(聲母):心母*s][囉:*?]
- 2) sva/ㅍ/沙囉[二合]/1 [S;1] [沙(聲母):>生母*f][囉:*?]
- 3) sva/ㅍ/濕囉[二合]/1 [F;1] [濕(聲母):>書母*c][囉:*?]
- 4) sva/스와/娑囉[二合]/1 [G;1] [沙(聲母):生母*f][囉:*?]¹¹⁶⁾
- 5) hva/ㅎ배/賀囉[二合]/1 [G;1] [賀(聲母):匣母*h][囉:*?]¹¹⁷⁾

위의 예9에서 먼저 1)번~3)번을 보면 범자 ‘sva’의 한글이 ‘ㅍ’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반 표기에 따르면 마땅히 ‘스바’ 혹은 ‘스바’가 되어야 한다. ‘ㅍ’계 합용병서는 한글의 일반 표기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응 범자의 복자음 유형은 ‘제1자음+C’류에서 제1자음이 ‘S’에 속한 경우이다(구체적인 것은 4.2.4의 내용을 참고). ‘ㅍ’계 합용병서의 출현 횟수도 3회 혹은 1회 등으로 많지 않는 것으로 보아 표기법의 혼란에 의한 예외 표기인 것이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을 구하기 위하여 합용병서의 두 자음을 분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s/ㅍ/娑(聲母)’, ‘va/바/囉’와 같다.

4)번 예를 보면 범자가 여전히 ‘sva’이지만 일반 표기의 ‘스바, 스바’도 아니고, 합용병서의 예외 표기 ‘ㅍ’도 아닌 ‘스와’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순경음 ‘ㄴ’에 있어서 진언 표기의 유성음 환경에서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스와’ 역시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즉 ‘스바’의 ‘바’가 한국어의 음운현상에 따라 원순모음으로 변화하여 ‘바>와’로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음절과 음소 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범자 ‘hva’ 대응의 한글이 ‘ㅎ배’로 되어 있다. 범자가 ‘va’ 대응 한자가 ‘囉’로 여기에서의 한글은 마땅히 ‘바’이어야 한다. 진언 텍스트를 보면 ‘ㅎ배’의 후행 음절은 ‘야’이다. 즉 후행 음절 ‘야’의 상향이중모음의 영향을 받아 선행음절인 ‘바’에 활음이 첨가되어 하향이중모음

116) 원본 32a

117) 원본 30a

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본래의 진언은 ‘헉바-야’이지만 진언 독송 과정에서 ‘바’가 후행음절의 영향을 받아서 ‘바>배’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이 역시 예외 표기로 음절과 음소 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킨다.

위의 예외 표기를 제외한 일반 표기를 중심으로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으’음절> t/ㄷ/怛(聲母)/17, n/ㄴ/娜(聲母)/1, j/ㄱ/入(聲母)/25, ś/ㅅ/濕(聲母)/16, s/ㅅ/娑(聲母)/133, s/ㅅ/薩(聲母)/22, s/ㅅ/濕(聲母)/2, h/ㅎ/賀(聲母)/2 <초성자음> s/ㅅ/娑(聲母)/3, s/ㅅ/沙(聲母)/1

【개음절】 va/ㅂ/嘩/203, va/ㅂ/嘩/15

위의 음절 대응을 한글 음소단위로 본다면 즉 초성의 대응은 ‘t/ㄷ/端(*t)/17, n/ㄴ/泥(*n)/1, v/ㅂ/嘩(*?)/15, j/ㄱ/日(*ㄱ)/25, ś/ㅅ/書(*ㄷ)/14, s/ㅅ/心(*s)/159, h/ㅎ/匣(*h)/2’로 이 역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v/ㅂ/嘩(*?)/203’으로 기본음절에 없는 ‘ㅂ’이 사용된다. 중성의 대응은 ‘개음절’에서의 ‘a/아/嘩(*?)/218’가 있지만 이는 중성 대응의 통계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외시킨다.

4.1.3.2. 기타 모음

다음은 기타 모음의 예로 ‘e’ 모음만 있어 ‘C+ve’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예10

- 1) tve/ㄷ 베/怛吠_[二合]/1 [D;1] [怛(聲母):端母*t][吠:并母 廢3韻*bial]
- 2) dve/ㄴ 베/禰吠_[二合]/1 [S;1] [禰(聲母):泥母*n][吠:并母 廢3韻*bial]
- 3) nve/ㄴ 베/你吠_[二合]/1 [D;1] [你(聲母):ㄹ娘母*n][吠:并母 廢3韻*bial]
- 4) śve/ㅅ 베/濕吠_[二合]/1 [D;2] [濕(聲母):書母*ㄷ][吠:并母 廢3韻*bial]
- 5) śve/ㅅ 베/濕吠_[二合]/1 [D;1] [濕(聲母):書母*ㄷ][吠:并母 廢3韻*bial]

위의 예10에서 범자 음절 대응 한글은 ‘으’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며, 한자 또한 二合의 2음절 표기이다. 예8에서의 ‘a’ 모음의 일반 표기와 표기

방법이 같다. 범자 ‘ve’ 대응에 한글이 모두 ‘베’, 한자는 모두 ‘吠’로 표기하고 있다. 이 예들을 단자음의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으’음절> t/ㄷ/怛(聲母)/1, d/ㄴ/禰(聲母)/1, n/ㄴ/你(聲母)/1, ś/시/濕(聲母)/2, ś/스/濕(聲母)/1

【기본음절】 ve/베/吠/5

이에 자음의 대응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t/ㄷ/端(*t)/1, d/ㄴ/泥(*n)/1, v/ㅅ/并(*b)/4, ś/시/書(*c)/16’ 등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5)번에서 범자 자음이 ‘ś’이고 한자도 書母 *c로 일반 표기에서 한글은 ‘시’로 나타나야 하는데 ‘스’로 1회 나타나므로 예외 표기이다. 중성의 대응은 기본음절에서만 반영되며 ‘e/예/廢3(*iai)/5’이다.

4.1.4 제2자음 ‘m’류

다음은 제2자음이 ‘m’인 복자음 유형으로, 모음이 ‘a, i’인 범자 음절의 예만 있는데 예가 많지 않아 아울러 보겠다. 이에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1

- 1) tma/ㄷ마/怛麼_[二合]/3 [D;3] [怛(聲母):端母*t][麼:明母 戈1韻*ma]
- 2) dma/ㄴ마/娜麼_[二合]/5 [S;2, Q;1, D;2] [娜(聲母):泥母*n][麼:明母 戈1韻*ma]
- 3) śma/스마/濕麼_[二合]/2 [D;2] [濕(聲母):書母*c][麼:明母 戈1韻*ma]
- 4) şma/스마/澁麼_[二合]/1 [D;1] [澁(聲母):生母*ʃ][麼:明母 戈1韻*ma]
- 5) sma/스마/娑麼_[二合]/4 [S;2, D;1, D;1] [娑(聲母):心母*s][麼:明母 戈1韻*ma]
- 6) hma/ㅎ마/賀麼_[二合]/1 [Q;1] [賀(聲母):匣母*ɦ][麼:明母 戈1韻*ma]
- 7) hma/ㅎ마/憾麼_[二合]/3 [D;3] [憾(聲母):匣母*ɦ][麼:明母 戈1韻*ma]
- 8) dmi/ㄴ미/娜弭_[二合]/1 [S;1] [娜(聲母):泥母*n][弭:明母 支A韻*miɛ]
- 9) şmi/스미/瑟弭_[二合]/1 [D;1] [瑟(聲母):生母*ʃ][弭:明母 支A韻*miɛ]

위의 예11의 진언 표기 역시 한글이 ‘으’ 모음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반 표기이다. 하지만 일부 예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예12

- 1) sma/ㅅ마/娑麼_[二合]/2 [D;2] [娑(聲母):心母*s][麼:明母 戈1韻*ma]
- 2) pa-sma/ㅃ마/跛娑麼_[二合]/1 [Q;1] [跛:幫母 戈1韻*pa][娑(聲母):心母*s][麼:明母 戈1韻*ma]

위의 예12에서 1)번은 범자 ‘sma’의 한글 표기가 ‘ㅅ마’ 즉 합용병서로 되어 있는데 예11의 일반표기에 의하면 마땅히 ‘스마’이어야 한다. 합용병서 ‘ㅅ마’가 ‘스마’와 혼용된 것이다. 중세한국어에서 ‘ㅅ’의 합용병서 표기는 흔하지 않다. 물론 진언의 외국어 표기이므로 고유어에 없는 음절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ㅅ’의 합용병서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은 ‘s/ㅅ/娑(聲母), ma/마/麼’이다.

다음 2)번을 보면 범자가 ‘pa-sma’ 즉 두 번째 음절이 역시 ‘sma’이다. 여기에서 ‘-’는 음절경계를 나타낸다. 첫 음절은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다. 일반 표기에 따르면 첫 음절의 한글 표기는 ‘바’, 두 번째 음절이 ‘스마’이다. 만약 두 번째 음절을 합용병서로 표기 하면 ‘ㅃ마’가 된다. 하지만 2)번 예에서 ‘ㅃ마’로 표기되어 있는데 즉 두 번째 음절의 ‘s’ 자음은 선행 음절과 결합하여 한글 표기에서 ‘-ㅅ’ 종성자음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pa/바/跛(聲母), -s/-ㅅ/娑(聲母), ma/마/麼’가 된다. 사실 이런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첫 번째 자음과 대응하고 동시에 한자의 성모와 대응하는 현상은 본고의 제4장 4.2절의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일반 표기 방법으로 나타난다. 즉 여기서는 한글 표기 방법의 혼용인 것이다.

위의 예11~예12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ㄱ’음절> t/ㄷ/怛(聲母)/3, d/ㄴ/娜(聲母)/6, ś/ㄷ/濕(聲母)/2, ṣ/ㄷ/澁(聲母)/1, ṣ/ㄷ/瑟(聲母)/1, s/ㅅ/娑(聲母)/6, h/ㅎ/賀(聲母)/1, h/ㅎ/憾(聲母)/3 <종성자음> -s/-ㅅ/娑(聲母)/1

【개음절】 pa/바/跛/1, ma/마/麼/22, mi/미/弭/2

위의 ‘자음음절’의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t/ㄷ/端(*t)/3, d/ㄴ/泥(*n)/6, ś/ㄴ/書(*c)/2, ʃ/ㄴ/生(*f)/2, s/ㅅ/心(*s)/6, h/ㅎ/匣(*h)/4, m/ㅁ/明(*m)/23’으로 대부분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일부 예외로 ‘ś/ㅅ/濕(聲母)/2’가 있는데 범자 ‘ś’와 한자 書母 *c 대응으로 일반대응과 일치하지만 한글이 일반대응에 따르면 ‘시’이어야 하는데 ‘스’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외 한글 중성자음의 대응이 있는데 ‘-s/-ㅅ/心(*s)/1’이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p/ㅍ/幫(*p)/1, m/ㅁ/明(*m)/24’이고, 중성의 대응은 ‘a/ㅏ/戈1(*a)/23, i/ㅣ/支A(*iē)/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1.5 제2자음 ‘n’류

다음은 제2자음이 ‘n’인 복자음이고 모음의 종류에 따라 ‘C+na’, ‘C+ni’, ‘C+no’인 범자 음절의 예이다.

예13

- 1) gna/ㄱ나/ㄱ囊_[二合]/1 [Q;1] [ㄱ(聲母):疑母*ŋ][囊:泥母 唐1韻*naŋ]
- 2) gna/ㄱ나/ㄱ囊_[二合]/1 [D;1] [ㄱ(聲母):疑母*ŋ][囊:泥母 唐1韻*naŋ]
- 3) ghna/ㄱ나/覲囊_[二合]/1 [Q;1] [覲(聲母):群母*g][囊:泥母 唐1韻*naŋ]
- 4) tna/ㄷ나/怛囊_[二合]/7 [S;3, G;1, Q;1, D;2] [怛(聲母):端母*t][囊:泥母 唐1韻*naŋ]
- 5) gni/ㄱ니/祇儼_[二合]/1 [S;1] [祇(聲母):群母*g¹¹⁸][儼:娘母 耕2韻*ŋɣeŋ]
- 6) gni/ㄱ니/ㄱ顚_[二合]/1 [Q;1] [ㄱ(聲母):疑母*ŋ][顚:泥母 青4韻*neŋ]
- 7) gni/ㄱ니/儼顚_[二合]/2 [D;2] [儼(聲母):疑母*ŋ][顚:泥母 青4韻*neŋ]
- 8) gni/ㄱ니/儼你_[二合]/1 [D;1] [儼(聲母):疑母*ŋ][你:娘母 之3韻*ŋi]
- 9) gni/ㄱ니/ㄱ顚_[二合]/1 [D;1] [ㄱ(聲母):疑母*ŋ][顚:泥母 青4韻*neŋ]
- 10) gno/ㄱ뉴/儼攷_[二合]/ [D;1] [儼(聲母):疑母*ŋ][攷*?]

위의 예13에서 한글은 모두 ‘ㅇ’ 모음 첨가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

118) 유성음 범자 대응 한자와 한글 비음이 일반적이므로 群母의 한자 대응은 예외이다. 이에 한글은 일반대응을 따라 비음의 ‘ㅇ’으로 대응되어 있다.

습'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을 단자음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ㄹ’음절> g/ㄹ/疙(聲母)/2, g/ㄹ/乞(聲母)/2, g/ㄹ/祇(聲母)/1, g/ㄹ/疑(聲母)/4, gh/ㄱ/覲(聲母)/1, t/ㄷ/怛(聲母)/7

【기본음절】 na/나/曩/10, ni/니/寔/1, ni/니/顚/4, ni/니/你/1, no/뉴/叟/1

위의 음절 대응에서 ‘gh/ㄱ/覲(聲母)/1’이 있는데 이는 3)번 예의 대응으로 한글이 각자병서로 표기되어 예외에 속한다.¹¹⁹⁾ 이를 제외하고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g/ㄹ/疑(*ŋ)/8, t/ㄷ/端(*t)/7, n/ㄴ/泥(*n)/14’가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모음의 대응은 ‘a/아/唐1(*aŋ)/10, i/이/之3(*i)/1, o/우/叟(*?)’이다. 이 중 ‘叟’은 비록 造字이지만 부수를 제외한 ‘女’를 참고하면 魚3韻 *iʏ으로 3등운 글자이다.

4.1.6 제2자음 ‘r’류

본 절의 범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과 비슷하지만 제2자음이 일반자음이 아닌 마다 ‘r’인 음절이다. 즉 ‘Cr’의 음절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 한글과 한자 및 한자와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4

- 1) kr/ㄹ리/訖哩_[二合]/16 [D;16] [訖(聲母):見母*k][哩*?]
- 2) gr/ㄹ리/揭哩_[二合]/1 [S;1] [揭(聲母):ㄱ群母*g][哩*?]
- 3) tr/ㄷ리/底哩_[二合]/8 [Q;1] [底(聲母):端母*t][哩*?]
- 4) dr/ㄴ리/你哩_[二合]/1 [D;1] [你(聲母):ㄴ娘母*n][哩*?]
- 5) dhr/ㄷ리/地哩_[二合]/1 [Q;1] [地(聲母):定母*d][哩*?]
- 6) pr/ㅍ리/必哩_[二合]/1 [Q;1] [必(聲母):幫母*p][哩*?]

119) 본고에서 고찰한 오대진언(1485)에서 각자병서의 표기는 ‘ㄱ’와 본장 예2의 ‘𪎭’ 표기까지 포함하여 모두 2개 나타난다. 이들을 단순한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ㄱ’ 대응 범자 자음이 유성유기음 ‘gh’이고, ‘𪎭’ 대응 범자 자음이 ‘h’인 것으로 만연사본(1777)의 실답장에서 제시된 한글 표기의 원칙과 일치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고찰과 연구를 향후에 진행할 것이다.

- 7) pr/ㅍ리/跛哩_[二合]/1 [D;1] [跛(聲母):幫母*p][哩*?]
- 8) br/ㅂ리/沒哩_[二合]/4 [D;4] [沒(聲母):明母*m][哩*?]
- 9) mr/ㅁ리/密哩_[二合]/2 [Q;2] [密(聲母):明母*m][哩*?]
- 10) mr/ㅁ리/蜜哩_[二合]/4 [D;3, F;1] [蜜(聲母):明母*m][哩*?]
- 11) mr/ㅁ리/蜜喫_[二合]/2 [S;1, D;1] [蜜(聲母):明母*m][喫*?]
- 12) jr/ㅈ리/日哩_[二合]/1 [S;1] [日(聲母):日母*n_ㅈ][哩*?]
- 13) hr/ㅎ리/紇哩_[二合]/11 [S;1, Q;4, D;4, F;2] [紇(聲母):匣母*f_ㅎ][哩*?]

위의 예14를 보면 범자 음절이 비록 ‘Cr’으로 앞서 ‘C+제2자음’류 복자음과 차이가 있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는 각각 ‘ㄹ’ 모음 첨가의 2음절과 ‘二合’의 2음절 표기로 일치한다. 다만 마다 ‘r’ 대응에 모두 한글은 ‘리’ 하나의 음절로 나타내고 한자는 대부분 ‘哩’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산스크리트 음가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r’은 음성적으로 ‘ri’와 가까운 것으로 이를 하나의 음절과 같이 인지하여 표기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ㄹ’음절> k/ㄱ/訖(聲母)/16, g/ㄱ/揭(聲母)/1, t/ㄷ/底(聲母)/8, d/ㄴ/你(聲母)/1, dh/ㄷ/地(聲母)/1, p/ㅍ/必(聲母)/1, p/ㅍ/跛(聲母)/1, b/ㅂ/沒(聲母)/4, m/ㅁ/密(聲母)/2, m/ㅁ/蜜(聲母)/6, j/ㅈ/日(聲母)/1, h/ㅎ/紇(聲母)/11 <‘리’음절> r/리/哩/50, r/리/喫/2, r/리/喝/1

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見(*k)/16, t/ㄷ/端(*t)/8, dh/ㄷ/定(*d)/1, p/ㅍ/幫(*p)/2, b/ㅂ/明(*m)/12, j/ㅈ/日(*n_ㅈ)/1, h/ㅎ/匣(*h)/11, r/리/哩(*?)/50’으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범자 음절에서 자음 ‘r’가 모음의 역할을 하므로 실제 모음의 대응은 없게 된다.

4.2 ‘제1자음+C’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본 절은 ‘제1자음+C’류의 복자음 유형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제1자음의 유형에 따라 ‘r, N, T, S, k, m’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문자는 같은 부류 자음의 묶음으로 ‘N’은 ‘n, ɳ, ñ, ñ’을 포함하고, ‘T’는 ‘t, d’를 포함하며, ‘S’는 ‘s, ʃ, ś’을 포함한다.

4.2.1 제1자음 ‘r’류

4.2.1.1 표기 유형(1)

아래 예15의 범자를 보면 ‘ga-rga’로 되어 있는데 이는 2개의 범자 음절을 말하며 두 번째 즉 ‘rga’가 제1자음이 ‘r’인 복자음 음절이다. 구체적으로 ‘r+Ca’, ‘r+Ci’, ‘r+Ce’, ‘r+Co’의 범자 음절의 예들이 있으며 이에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5

- 1) ga-rga/알아/藥識/2 [Q;2] [藥:疑母 薛B韻*ɲuɿet][識:疑母 歌1韻*ɲa]
- 2) du-rga/놀아/訥識/1 [F;1] [訥:泥母 沒1韻*not][識:疑母 歌1韻*ɲa]
- 3) ma-rta/말다/鞞哆/1 [F;1] [鞞:明母 月3韻*miɿt][哆:端母 歌1韻*ta]
- 4) ma-rtha/말타/沫他/1 [D;1] [沫:明母 末1韻*mat][他:透母 歌1韻*tha]
- 5) va-rtha/말타/沫佗/1 [Q;1] [沫:明母 末1韻*mat][佗:透母 歌1韻*tha]
- 6) va-rtha/말타/末佗/2 [Q;2] [末:明母 末1韻*mat][佗:透母 歌1韻*tha]
- 7) ma-rdha/말다/沫駄/2 [Q;2] [沫:明母 末1韻*mat][駄:定母 歌1韻*da]
- 8) ga-rbha/알바/藥婆/6 [Q;5, D;1] [藥:疑母 薛B韻*ɲuɿet][婆:并母 戈1韻*ba]
- 9) tu-rbha/돌바/咄婆/1 [D;1] [咄:端母 沒1韻*tot][婆:并母 戈1韻*ba]
- 10) tu-rma/돌마/咄麼/1 [Q;1] [咄:端母 沒1韻*tot][麼:明母 戈1韻*ma]
- 11) dha-rma/달마/達磨/1 [Q;1] [達:定母 曷1韻*dat][磨:明母 戈1韻*ma]
- 12) sa-rva/살바/薩囉/54 [Q;42, D;11, G;1] [薩:心母 曷1韻*sat][囉:*?]
- 13) ga-rja/알샤/藥惹/1 [D;1] [藥:疑母 薛B韻*ɲuɿet][惹:日母 麻3韻*ɲia]
- 14) ka-rṣa/갈사/羯灑/1 [D;1] [羯:見母 月3韻*kivt][惹:日母 麻3韻*ɲia]

- 15) ba-rṣa/말사/鞞灑/1 [Q;1] [鞞:明母 月3韻*miɿt][灑:生母 麻2韻*fɿa]
- 16) va-rṣa/말사/鞞灑/2 [Q;2] [鞞:明母 月3韻*miɿt][灑:生母 麻2韻*fɿa]
- 17) kha-rgi/칼이/揭僂/2 [Q;2] [揭:溪母 薛B韻*khɯiɛt][僂:疑母 之3韻*ŋi]
- 18) du-rdi/놀니/訥顚/1 [Q;1] [訥:泥母 沒1韻*not][顚:泥母 青4韻*neŋ]
- 19) du-rbhi/놀비/訥躡/1 [D;1] [訥:泥母 沒1韻*not][躡:并母 昔3韻*biek]
- 20) sa-rge/살예/薩藝/1 [Q;1] [薩:心母 曷1韻*sat][藝:疑母 祭A韻*ŋiei]
- 21) ga-rbhe/알베/藥陛/4 [Q;3, F;1] [藥:疑母 薛B*ŋɯiɛt][陛:并母 齊4韻*bei]
- 22) sa-rve/살베/薩吠/1 [Q;1] [薩:心母 曷1韻*sat][吠:并母 廢3韻*biai]
- 23) sa-rbo/살모/薩冒/2 [Q;2] [薩:心母 曷1韻*sat][冒:明母 豪1韻*mau]

위의 예15을 보면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고 첫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들이다. 1)번~16)번은 ‘a’ 모음 음절이고, 17)번~19)번은 ‘i’ 모음 음절이며, 20)번~22)번은 ‘e’ 모음 음절, 23)번은 ‘o’ 모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를 보면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의 종성자음이 범자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과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tha/말타’의 대응을 단자음 음절 단위로 분리하면 ‘ma-r/말’, ‘tha/타’의 대응으로 된다. 즉 범자에서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r’이 한글 첫 음절의 종성자음 ‘-ㄹ’과 대응하고, 제1자음 ‘r’를 제외한 남은 부분 ‘ga’은 개음절로 한글과 대응한다.

한자 표기를 보면 역시 2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二음은 아니다. 이 2개의 음절이 하나의 범자 음절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자는 한글과 같이 첫 번째 음절이 *-t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이며, 자음운미 *-t가 범자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r’과 대응한다. 예를 들어 ‘ma-rtha/沱他’로 대응하는데 단자음 음절의 단위로 분리하면 ‘ma-r/沱(*mat)’, ‘tha/他(*tha)’가 된다.

이들을 梵-韓-中의 단자음 음절의 대응으로 보면 각각 ‘ma-r/말/沱’, ‘tha/타/他’로 된다. 단순히 음절 형태로 보아 ‘ma-r’는 폐음절이라 하고 ‘tha’을 개음절이라 하여 분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예들을 모두 단자음의 음절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ka-r/갈/羯/1, kha-r/칼/揭/2, ga-r/알/藥/13, tu-r/돌/咄/2, du-r/놀/訥/3,

dha-r/달/達/1, ba-r/말/轡/1, ma-r/말/轡/1, ma-r/말/沫/1, va-r/말/沫/1, va-r/말/末/2, va-r/말/轡/2, sa-r/살/薩/58

【개음절】 ga/아/諷/3, gi/이/疑/2, ge/예/藝/1, ta/다/哆/1, tha/타/他/1, tha/타/佗/3, di/니/顛/1, dha/다/駄/2, bo/모/冒/2, bha/바/婆/7, bhi/비/躋/1, bhe/베/陞/4, ma/마/麼/1, ma/마/磨/1, ma/마/沫/2, va/바/嘩/54, ve/베/吠/1, ja/△/惹/1, şa/사/灑/4

위의 대응을 ‘폐음절’과 ‘개음절’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음소 대응 또한 분류별로 고찰하여 보겠다. 먼저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kh/ㅋ/溪(*kh)/2, g/ㅇ/疑(*ŋ)/13, t/ㄷ/端(*t)/2, d/ㄴ/泥(*n)/3, dh/ㄷ/定(*d)/1, b/ㅍ/明(*m)/1, m/ㅍ/明母(*m)/2, v/ㅍ/明(*m)/5, s/ㅅ/心(*s)/58’이 있으며, 모음의 대응은 ‘a/아/曷1(*at)/59, a/아/薛B(*ɯiɛt)/15, a/아/月3(*iɣt)/5, a/아/末1(*at)/4, u/오/沒1(*ot)/5’로 기본 개음절에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서 특히 ‘b/ㅍ/明(*m)/1’의 예가 보이는데 이 또한 ‘개음절’에서의 범자 유성음과 한글 및 한자의 비음과의 대응 규칙과 어울리는 예이다.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도 있는데 ‘-r/-ㄹ/曷1(*-t)/59, -r/-ㄹ/薛B(*-t)/15, -r/-ㄹ/月3(*-t)/5, -r/-ㄹ/末1(*-t)/4, -r/-ㄹ/沒1(*-t)/5’이다.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 ‘r’과 첫 음절 한글의 ‘-ㄹ’ 종성자음, 첫 음절 한자의 *-t 자음운미가 규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위의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이 ‘g/ㅇ/疑(*ŋ)/6, t/ㄷ/端(*t)/1, th/ㅌ/透(*th)/4, d/ㄴ/泥(*n)/1, dh/ㄷ/定(*d)/2, b/ㅍ/明(*m)/2, bh/ㅍ/并(*b)/12, m/ㅍ/明(*m)/4, v/ㅍ/嘩(?) /54, v/ㅍ/并(*b)/1, j/△/日(*ɳ)/1, ş/ㅅ/生(*ʃ)/4’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예들을 제외하여 ‘a/아/歌1(*a)/10, a/아/戈1(*a)/9, a/아/末1(*at)/2, i/이/昔3(*iek)/1, i/이/之3(*i)/2, e/예/祭A(*iei)/1, e/예/齊4(*ei)/4, e/예/廢3(*iai)/1, o/오/豪1(*au)/2’이므로 역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2.1.2 표기 유형(2)

아래 예16의 범자 음절은 앞서 예15의 범자 음절 유형과 똑같다. 하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의 대응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예16

- 1) va-rta/발다/𑖦𑖳𑖫𑖞[二合]/1 [S;1] [𑖦:母][𑖳:母][𑖫:端母 歌1韻 *ta]
- 2) a-rtha/알다/阿囉𑖳[二合]/1 [D;1] [阿:影母 歌1韻*ʔa][𑖳:母][𑖳:定母¹²⁰⁾ 歌1韻 *da]
- 3) na-rṭa/날타/娜唎𑖳[二合]/1 [S;1] [娜:泥母 歌1韻*na][𑖳:母][𑖳:知母 麻2韻 *tʃa]
- 4) pu-rṇa/불나/布囉拏[二合]/1 [Q;1] [布:幫母 模1韻*po][囉:母][拏:娘母 麻2韻 *ṇʃa]
- 5) pu-rṇa/불나/布羅娜[二合]/1 [Q;1] [布:幫母 模1韻*po][羅:來母*l][娜:泥母 歌1韻 *na]
- 6) ra-rṣi/랄시/囉哩史[二合]/1 [D;1] [囉:母][哩:母][史:生母 之3韻 *ʃi]
- 7) va-rṣi/발시/囉哩史[二合]/1 [D;1] [𑖦:母][哩:母][史:生母 之3韻 *ʃi]
- 8) pa-rya/발야/播哩野[二合]/1 [S;1] [播:幫母 戈1韻*pa][哩:母][野:以母 麻3韻 *jia]
- 9) su-rya/술야/素哩曳[二合]/1 [Q;1] [素:心母 模1韻*so][哩:母][曳:以母 祭A韻 *jiɛ]
- 10) a-rya/알야/啊哩也[二合]/2 [S;1] [啊:母][哩:母][也:以母 麻3韻 *jia]
- 11) a-rya/알야/啊哩野[二合]/3 [G;3] [啊:母][哩:母][野:以母 麻3韻 *jia]
- 22) a-rha/알하/阿囉曷[二合]/10 [D;10] [阿:影母 歌1韻*ʔa][囉:母][曷:匣母 曷1韻 *ʃat]
- 23) na-rti/날디/那唎智[二合]/2 [S;2] [那:泥母 歌1韻*na][唎:母][智:知母¹²¹⁾ 支3韻*tʃiɛ]
- 24) rū-rti/룰디/囉唎底[二合]/1 [D;1] [囉:母][唎:母][底:端母 齊4韻*tei]
- 25) ti-rdhi/틸>테/底唎體[二合]/1 [D;1] [底:端母 齊4韻*tei][唎:母][體:透母 齊4韻*thei]
- 26) śī-rṣi/실>새/試哩麤[二合]/1 [D;1] [試:書母 之3韻*ci][哩:母][麤:生母 佳2韻*ʃɛ]
- 27) na-rte/날테/那唎帝[二合]/1 [S;1] [那:泥母 歌1韻*na][唎:母][帝:端母 齊4韻*tei]
- 28) bu-rte/몰테/慕唎帝[二合]/1 [Q;1] [慕:明母 模1韻*mo][唎:母][帝:端母 齊4韻*tei]
- 29) mu-rte/몰테/母唎諦[二合]/1 [S;1] [母:明母 侯1韻*məu][唎:母][諦:端母 齊4韻*tei]
- 30) su-rye/술예/素哩曳[二合]/2 [Q;2] [素:心母 模1韻*so][哩:母][曳:以母 祭A韻*jiɛ]
- 31) ca-rye/잘예/左哩曳[二合]/2 [D;2] [左:精母 歌1韻*tsa][哩:母][曳:以母 祭A韻*jiɛ]
- 32) bhu-rbhu/불보/部囉部[二合]/1 [Q;1] [部:并母 模1韻*bo][囉:母][部:并母 模1韻*bo]

위의 예16에서 한글 표기는 앞서 예15과 같지만 한자만 3개의 음절로

120) 한자 ‘𑖳’는 定母로 일반적으로 유성유기음의 범자 ‘dha’와 일반대응을 이룬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무성유기음의 ‘tha’와 대응하고 있어 예외이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한자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다. 이에 한글 표기는 ‘다’로 되어 있는데 한글 ‘다’는 범자 ‘ta’ 혹은 ‘dha’와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범자 ‘tha’를 따르면 ‘타’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한글 ‘다’는 범자 ‘dha’ 대응의 한자 ‘𑖳’를 따른 것이다.

121) 한자 ‘智’의 자모가 知母이며 知母는 일반적으로 권설음 범자 자음의 ‘t’와 대응하며 한글 초성은 ‘ㄷ’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대응 범자 자음이 ‘t’이므로 예외이다. 한글 ‘ㄷ’는 범자 ‘t’자음을 따랐을 것이다.

되어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자의 3개 음절에서 마지막 두 음절은 [二合]으로 되어 있어 범자 두 번째의 복자음 음절과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 한자의 표기를 보면 ‘va/囉, a/阿, ti/底, na/娜, pu/布, pa/播, a/啊, a/阿, na/那, rū/嚕, ra/囉, śi/試, bu/慕, mu/母, su/素, ca/左, bhu/部’로 모두 陰聲韻 글자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예10에서의 한자는 모두 ‘*-t’ 자음운미를 가지는 入聲韻 글자이다. 두 번째의 복자음 음절은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rta/唎𪛗_[二合], rtha/囉𪛗_[二合], rdhi/唎體_[二合], rṭa/唎吒_[二合], ṛṇa/囉拏_[二合], ṛṇa/囉娜_[二合], rya/哩野_[二合], rya/哩曳_[二合], rya/哩也_[二合], rya/哩野_[二合], rha/囉曷_[二合], rti/唎智_[二合], rti/唎底_[二合], rṣi/哩史_[二合], rṣi/哩曬_[二合], rte/唎帝_[二合], rte/唎諦_[二合], rye/哩曳_[二合], rbhu/囉部_[二合]’와 같다. 이 또한 한자의 ‘二合’이 하나의 옹근 범자와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글 표기와 비교하여 보면, 예를 들어 ‘va-rta/발다/囉唎𪛗_[二合]/1’에서 범자와 한글은 ‘va-r/발, ta/다’로 대응하고, 범자와 한자는 ‘va/囉, rta/唎𪛗_[二合]’로 대응하면서 불일치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梵-韓-中 대응을 위하여 더욱 세분화시켜서 ‘va/바/囉, -r/-ㄹ/唎(聲母), ta/다/𪛗’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 단위의 대응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a/아/阿/11, a/아/啊/5, ta/다/𪛗/1, tha/다/駄/1, na/나/那/3, na/나/娜/1, ṭa/타/吒/1, ṇa/나/拏/1, ṇa/나/娜/1, pa/파/播/1, va/바/囉/2, ca/차/左/2, ya/야/野/4, ya/야/曳/1, ya/야/也/2, ra/라/囉/1, ha/하/曷/10, ti/디/智/2, ti/디/底/2, dhi/ㄷᄒᆞᆫ테/體/1, ṣi/시/史/2, ṣi/시/試/1, ṛṣi/새/曬/1, te/테/帝/2, te/테/諦/1, ye/예/曳/4, pu/보/布/2, bu/모/慕/1, bhu/보/部/2, mu/모/母/1, rū/로/嚕/1, su/소/素/3

【자음음절】 <종성자음> -r/-ㄹ/囉(聲母)/13, -r/-ㄹ/哩(聲母)/14, -r/-ㄹ/唎(聲母)/9, -r/-ㄹ/囉(聲母)/1

먼저 개음절의 예에서 자음의 대응은 ‘ø/ㅇ/影(*?)’/11, ø/ㅇ/啊(*?)’/5, t/ㄷ/端(*t)/6, dh/ㄸ/透(*th)/1, n/ㄴ/泥(*n)/4, t/ㄷ/知(*t)/1, ṇ/ㄴ/娘(*ṇ)/1, p/ㅍ/幫(*p)/3, b/ㅍ/明(*m)/1, bh/ㅍ/并(*b)/2, m/ㅁ/明(*m)/1, v/ㅍ/囉(*?)’/2, c/ㅈ/精(*ts)/2, ṣ/ㅅ/生(*f)/3, s/ㅅ/心(*s)/3, y/ㅇ/以(*j)/11, h/ㅎ/匣(*h)/10,

r/ㄹ/囉(*?)/1, r/ㄹ/嚕(*?)/1'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또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고 보면 'a/아/歌1(*a)/20, a/아/曷1(*at)/10, a/아/戈1(*a)/1, i/이/支3(*iE)/2, i/이/之3(*i)/3, e/예/祭A(*iEi)/4, u/오/模1(*o)/8, u/오/侯1(*əu)/1' 등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의 대응에서는 범자 자음 '-r'이 한글 종성자음 '-ㄹ'가 대응하며 한자는 聲母가 대응하여 '-r/-ㄹ/囉(聲母*?)/13, -r/-ㄹ/哩(聲母*?)/14, -r/-ㄹ/嚙(聲母*?)/9'가 된다. 기본 개음절 표기에서 범자 'r' 대응의 한자가 대부분 造字를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囉, 哩, 嚙'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예외 현상에 대해 보겠다. 25)번의 예가 'ti-rdhi/틸테/底嚙體[二合]/1'로 되어 있는데 복자음 범자 모음은 'i'이지만 한글은 '테', 한자는 齊4韻의 '體'를 사용하고 있다. 한글 모음 '예'와 한자 齊4韻은 일반대응에서 마땅히 범자 'e' 모음과 대응하는데 여기에서는 'i' 모음과 대응하고 있어서 예외가 된 것이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산스크리트 모음교체 'i<e<ai'에 의한 것이다. 즉 진언의 범자 텍스트는 'i' 모음이지만 실제 진언 독송에서 'e'로 발음되며 중국어 번역에서 청각적으로 들리는 데로 'e' 모음으로 번역하여 '體'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한글 '테'는 한자를 따라 표기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음의 대응에서도 'dh/ㄷ/透(*th)'로 나타나고 있다. 범자 'dh'의 일반대응에서 한자는 마땅히 定母 *d이어야 하는데 透母 *th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 'dh'에 대한 한자의 오류이며 한글이 한자를 따라 'ㄷ'로 나타난 것이다. 한자 透母의 오류는 단순히 모두 유기음이라는 데에 따른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모음의 대응을 고려한 기타 자모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26)번 예는 'śi-rṣi/실>새/試哩曬[二合]/1'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범자 음절의 대응에서 한글은 '새', 한자는 佳2韻 *fʏɛ '曬'이다. 일반대응에 한글 '애' 모음과 한자 '曬'는 일반적으로 범자 'ai' 모음과 대응하지만 여기에서는 'i' 모음과 대응하고 있어 예외 표기이다. 이는 범자 등의 단순한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산스크리트의 모음교체 'i<e<ai'에 의한 형태적 차이에 의한 문자와 독음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한글의 '애' 표

기는 한자를 따왔을 것이다.

4.2.1.3 표기 유형 (3)

다음의 예17은 앞서 예16의 범자 음절과 한글 표기가 같다. 하지만 한자 표기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예17

- 1) ma-rga/말아/沫唼_[二合]/1 [S;1] [沫:明母 末1韻*mat][唼:*?][識:疑母 歌1韻*ga]
- 2) la-rtha/랄타/賴囉他_[二合]/1 [D;1] [賴:來母 寒1韻*lan][囉:*?][他:透母 歌1韻*tha]
- 3) ma-rtha/말타/沫囉他_[二合]/1 [D;1] [沫:明母 末1韻*mat][囉:*?][他:透母 歌1韻*tha]
- 4) tu-rtha/둘타/咄囉他_[二合]/1 [D;1] [咄:端母 沒1韻*tot][囉:*?][他:透母 歌1韻*tha]
- 5) ka-rṇa/갈나/羯囉拏_[二合]/1 [D;1] [羯:見母 月3韻*kiɾt][囉:*?][拏:娘母 麻2韻*ṇya]
- 6) sa-rpa/살바/薩囉跛_[二合]/2 [D;2] [薩:心母 曷1韻*sat][囉:*?][跛¹²²⁾:幫母 戈1韻*pa]
- 7) ga-rbha/알바/藥囉婆_[二合]/2 [D;2] [藥:疑母 薛B韻*ɲuɪet][囉:*?][婆:并母 戈1韻*ba]
- 8) ka-rma/갈마/羯唼麼_[二合]/1 [S;1] [羯:見母 月3韻*kiɾt][唼:*?][麼:明母 戈1韻*ma]
- 9) ma-rma/말마/沫囉麼_[二合]/1 [D;1] [沫:明母 末1韻*mat][囉:*?][麼:明母 戈1韻*ma]
- 10) ca-rma/잘마/抄唼麼_[二合]/1 [S;1] [抄:精母 曷1韻*tsat][唼:*?][麼:明母 戈1韻*ma]
- 11) sa-rva/살바/薩囉嚩_[二合]/48 [S;1, D;38, F;9] [薩:心母 曷1韻*sat][囉:*?][嚩:*?]
- 12) sa-rva/살바/薩唼嚩_[二合]/2 [S;2] [嚩:*?][唼:*?][嚩:*?]
- 13) da-rśa/ᄇ¹²³⁾샤/捺哩捨_[二合]/1 [S;1] [捺:泥母 曷1韻*nat][哩:*?][捨:書母 麻3韻*cia]
- 14) ka-rṣa/갈사/羯囉灑_[二合]/2 [Q;2] [羯:見母 月3韻*kiɾt][囉:*?][灑:生母 麻2韻*ɕɹa]
- 15) ba-rya/말야/沫里也_[二合]/1 [D;1] [沫:明母 末1韻*mat][里:來母*l][也:以母 麻3韻*jia]
- 16) mu-rti/몰디/沒唼底_[二合]/1 [D;1] [沒:明母 沒1韻*moɾt][唼:*?][底:端母 齊4韻*te i]¹²⁴⁾
- 17) sa-rve/살베/薩囉吠_[二合]/3 [D;3] [薩:心母 曷1韻*sat][囉:*?][吠:并母 廢3韻*bai]

122) ‘跛’는 중고음에서 幫母 戈1韻*pa와 幫母 支B韻*puɪe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123) 범자 ‘a’ 모음 대응의 한글 모음은 일반적으로 ‘아’ 모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ᄇ’ 모음으로 되어 있다. 폐음절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범자 ‘a’ 모음 대응에 이같이 종종 기타 모음이 올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5장 5.1.2.1에서 다룰 것이다.

124) 여기에서 4등운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端母가 1,4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즉 한자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만약 기계적으로 한자를 따르면 ‘예’ 모음으로 표기되는데, ‘디’ 즉 ‘이’ 모음으로 표기된 것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를 따왔기 때문이다.

위의 예17에서 한자는 예16과 같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이 ‘二合’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예16에서 첫 음절의 한자는 자음운미가 없는 陰聲韻 글자이지만, 여기에서의 첫 음절은 자음운미 *-t를 가지는 入聲韻 글자들이다. 즉 ‘沫, 嬾, 咄, 羯, 薩, 蘖, 撈, 捺, 沒’ 등으로 모두 ‘*-t’ 운미를 가진다. 앞서 예15에서 한자의 첫음절 역시 入聲韻 글자이지만 2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3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ma-rga/沫唼識_[二合]’을 세분화하여 ‘ma-r/沫’, ‘rga/唼識_[二合]’의 대응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범자 ‘r’은 한자 ‘沫’의 자음운미 *-t와도 대응하고 한자 ‘唼(聲母)’와도 대응하여 중복 표기된 것이다.

본고의 제3장에서 기본 개음절 범자의 표기 고찰에서 비록 대부분 陰聲韻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운미가 있는 入聲韻 혹은 陽聲韻 글자들도 많이 대응하고 있음을 보았다. 전형적인 예로 양성운의 ‘曩’은 범자 ‘na’와 대응하고, 입성운의 ‘蘖’은 범자 ‘ga’와 대응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입성운 글자를 개음절 범자와 대응하여 ‘ma/沫, la/嬾, tu/咄, ka/羯, sa/薩, ga/蘖, ca/撈, da/捺, ba/沒, mu/沒’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예17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ka/가/羯/4, ga/아/識/1, ga/아/蘖/2, tha/타/他/3, da/ㄴ/捺/1, na/나/拏/1, pa/바/跛/3, ba/마/沫/1, bha/바/婆/2, ma/마/沫/3, ma/마/麼/3, va/바/嚩/50, ca/자/撈/1, śa/샤/捨/2, ṣa/사/灑/2, sa/사/薩/56, ya/야/也/1, la/라/嬾/1, ti/디/底/1, ve/베/吠/3, tu/도/咄/1, mu/모/沒/1

【자음음절】 <중성자음> -r/-ㄹ/囉(聲母)/63, -r/-ㄹ/唼(聲母)/6, -r/-ㄹ/哩(聲母)/1, -r/-ㄹ/里(聲母)/1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을 대응을 보면 ‘k/ㄱ/見(*k)/4, g/ㅇ/疑(*ŋ)/3, t/ㄷ/端(*t)/2, th/ㅌ/透(*th)/3, n/ㄴ/娘(*n)/1, p/ㅍ/幫(*p)/3, b/ㅍ/明(*m)/1, bh/ㅍ/并(*b)/2, m/ㅁ/明(*m)/7, v/ㅍ/并(*b)/1, v/ㅍ/嚩(*?)/50, c/ㅈ/精(*ts)/1, ś/ㅅ/書(*c)/2, ṣ/ㅅ/生(*f)/2, s/ㅅ/心(*s)/56, y/ㅇ/以(*j)/1, l/

ㄹ/來(*l)/1'이 있는데 거의 모두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예를 제외하고 보면 'a/아/月3(*irt)/4, a/아/歌1(*a)/4, a/아/薛B(*ɯiɛt)/2, a/아/曷1(*at)/55, a/ㄱ/曷1(*at)/1, a/아/戈1(*a)/8, a/아/末1(*at)/4, a/아/寒1(*an)/1, e/예/廢3(*iai)/1, u/오/沒1(*ot)/2'로 여전히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자음 음절 즉 '-r'의 표기 대응으로는 '-r/-ㄹ/囉(聲母*?)/63, -r/-ㄹ/哩(聲母*?)/1, -r/-ㄹ/唸(聲母*?)/6'가 있는데 예10의 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예16~예17의 한글과 한자 표기를 비교하여 보면 한글은 모두 2음절로 표기되고 '-ㄹ' 중성자음이 범자 '-r'과 대응하고 있지만 한자는 2음절 혹은 3음절로 표기하거나 심지어 중복 표기를 사용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글 표기는 한자의 표기법 혼란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글의 특성에 따라 2음절 표기로 시종일관 정연하게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1.4 표기 유형(4)

본 절의 예는 복자음 음절이 연이어 나타나거나 혹은 한글, 한자가 범자와의 대응이 불일치한 특이한 예들이다.

예18

- 1) sa-rva-rtha/살발타/薩囉𑖀[二合]囉佗[二合]/1 [S;1] [薩:心母 曷1韻*sat][唸:*?][囉:*?][佗:透母 歌1韻*tha]
- 2) sa-rva-rtha/살발타/薩囉𑖀[二合]囉他[二合]/2 [D;2] [薩:心母 曷1韻*sat][囉:*?][囉:*?][他:透母 歌1韻*tha]
- 3) tya-rthi-ka/딜턱가/窒剔迦/1 [Q;1] [窒¹²⁵:端母 屑4韻*tet][剔:透母 錫4韻*thek][迦:見母 戈3韻*kia]
- 4) ma-dhu/말도/沫度/1 [D;1] [沫:明母 末1韻*mat][度¹²⁶:定母 模1韻*do]

125) “窒”는 중고음에서 端母 屑4韻*tet와 知母 質B韻*tɕit의 두 음가를 가지는데 자모를 보면 端母가 적절하지만 운모를 보면 質B韻이 더 가까운 것으로 모순이 된다. 하지만 자모를 우선 순위로 고려하여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할 것이다.

126) ‘度’는 중고음에서 定母 模1韻*do와 定母 鐸1韻*dak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模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5) ma-ja/말샤/沫惹/2 [D;1] [沫:明母 末1韻*mat][惹:日母 麻3韻*nja]

위 예18에서 먼저 1)번~2)번 예를 보면 범자는 모두 ‘sa-rva-rtha’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절은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는 모두 ‘살발타’ 3개의 음절로 되어 있어 범자와 대응시키면 ‘살/sa-r, va-r/발, 타/tha’이다. 하지만 한자는 ‘薩唎囉_[二合]囉佉_[二合]’ 혹은 ‘薩囉囉_[二合]囉他_[二合]’ 5개의 글자로 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글의 3음절 표기가 한자의 5字 표기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a/사/薩, -r/-ㄹ/唎(聲母) 혹은 囉(聲母), va/바/囉, -r/-ㄹ/囉(聲母), tha/타/佉’가 된다.

3)번 예의 범자 음절은 ‘tya-rthi-ka’와 같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절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의 복자음이며, 세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다. 한글은 ‘딜턱가’로 표기하여 범자와 대응하면 ‘딜/tya-r, 턱/thi(-k), 가/ka’가 된다. 한글의 두 번째 음절 ‘턱’에서의 ‘-ㄱ’ 종성자음은 후행 범자 ‘k’ 자음의 중복표기가 된다. 이는 범자 ‘thi’가 후행 음절 ‘ka’의 자음 ‘k’의 영향을 받아 음성적으로 ‘thi-k’로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자는 ‘窒剔迦’로 범자와의 대응이 ‘tya-r/窒, thi(-k)/剔, ka/迦’가 된다. 두 번째 한자 ‘剔’은 *-k의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로 자음운미 *-k는 ‘k’의 중복 표기가 된다. 즉 한글의 ‘-ㄱ’ 종성자음은 한자 *-k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글 표기의 첫 번째 글자 ‘딜’의 모음은 ‘이’이지만 대응하는 범자는 ‘tya-r’ 즉 모음과 대응하는 부분이 ‘ya’이다. 이 또한 한자 ‘窒’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한글의 대응은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번~5)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각각 ‘ma-dhu’, ‘ma-ja’로 모두 2개의 기본 개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한글 표기를 보면 ‘말도’, ‘말샤’로 되어 있는데 대응 한자가 ‘沫度, 沫惹’로 첫 번째 한자가 *-t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들이다. 한자 표기에서 입성운 글자는 개음절 범자와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예외 표기가 아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개음절 범자와 종성자음의 한글과의 대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외이다. 이 같은 한글 표기의 예외는 입성운 한자의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한 범-한-중 음소대응의 통계는 ‘ma/마/沫, -ø/-르/沫(*-t), dhu/도/度’, ‘ma/마/沫, -ø/-르/沫(*-t), ja/야/惹’로 할 것이다.

위의 예들을 분석하여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ka/가/迦/1, tha/타/佗/1, tha타/他/2, ma/마/沫/3, va/바/嘩/3, ja/야/惹/2, sa/사/薩/3, dhu/도/度/1

【폐음절】 tya-r/▶딜/窒/1, thi-(k)/▶턱/剔/1

【자음음절】 <종성자음> -ø/-르/沫(*-t)/3, -r/-르/唼(聲母)/1, -r/-르/囉(聲母)/5

위의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th/ㅌ/透(*th)/3, m/ㅁ/明(*m)/3, v/ㅂ/嘩(?) /3, j/ㅈ/日(*n_l)/2, s/ㅅ/心(*s)/3, dh/ㅊ/定(*d)/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일부 통계에 무의미한 예들을 제외하면 ‘a/아/戈3(*ia)/1, a/아/歌1(*a)/3, a/아/末1(*at)/3, a/아/曷1(*at)/3, u/오/模1(*o)/1’ 등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th/ㅌ/透(*th)/1’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r/-르/屑4(*-t)/1’이 있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표기 대응의 예는 ‘-r/-르/囉(聲母*)/5, -r/-르/唼(聲母*)/1’이 있다. ‘-ø/-르/沫(*-t)/3’은 범자 자음의 빈칸으로 음소대응의 고찰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2.2 제1자음 ‘N’류

제1자음 ‘N’류의 복자음은 제1자음 ‘n, ɲ, ñ, n’인 복자음 음절을 말한다. 아래는 제1자음의 유형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4.2.2.1 제1자음 ‘n’류 (1)

아래 예의 두 번째 범자 음절은 제1자음이 ‘n’인 복자음이고 ‘n+Ca,

n+Ci, n+Ce, n+Cu'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9

- 1) ka-nta/건다/建跬/1 [D;1] [建:見母 元3韻*kiɿn][跬:端母 歌1韻*ta]
- 2) tha-nta/탄다/歎哆/1 [F;1] [歎:透母 寒1韻*than][哆:端母 歌1韻*ta]
- 3) da-nta/난다/難多/1 [D;1] [難:泥母 寒1韻*nən][多:端母 歌1韻*ta]
- 4) ma-nta/만다/滿跬/4 [Q;4] [滿:明母 桓1韻*man][跬:端母 歌1韻*ta]
- 5) ma-nta/만다/滿哆/2 [Q;2] [滿:明母 桓1韻*man][哆:端母 歌1韻*ta]
- 6) ma-nta/만다/滿多/1 [Q;1] [滿:明母 桓1韻*man][多:端母 歌1韻*ta]
- 7) ba-nta/만다/挽跬/1 [Q;1] [挽:明母 元3韻*miɿn][跬:端母 歌1韻*ta]
- 8) ma-nta/만다/万哆/1 [F;1] [万¹²⁷:明母 元3韻*miɿn][哆:端母 歌1韻*ta]
- 9) bhya-nta/변다/便跬/1 [D;1] [便:并母 仙A韻*biɛn][跬:端母 歌1韻*ta]
- 10) ca-nta/산다/散跬/1 [Q;1] [散:心母 刪2韻*syæn][跬:端母 歌1韻*ta]
- 11) śa-nta/선다/扇跬/1 [D;1] [扇:書母 仙3韻*ciɛn][跬:端母 歌1韻*ta]
- 12) ci-nta/진다/震哆/1 [Q;1] [震:章母 眞3韻*ciɛn][哆:端母 歌1韻*ta]
- 13) ga-nda/언나/彦拏/1 [D;1] [彦:疑母 仙B韻*ŋuiɛn][拏:娘母 麻2韻*ŋɿa]
- 14) bhi-nda/빈나/頻娜/1 [D;1] [頻:并母 眞A韻*bin][娜:泥母 歌1韻*na]
- 15) bhi-nda/빈나/枇娜/2 [Q;2] [枇:幫母 脂A韻*pi][娜:泥母 歌1韻*na]
- 16) chi-nda/친나/嚵娜/2 [Q;2] [嚵:初母 臻3韻*tshuɿn][娜:泥母 歌1韻*na]
- 17) chi-nda/친나/窺娜/15 [D;15] [窺:淸母 眞3韻*tshin][娜:泥母 歌1韻*na]
- 18) chi-nda/친나/嗔娜/2 [D;2] [嗔:昌母 眞3韻*chin][娜:泥母 歌1韻*na]
- 19) ga-ndha/언다/彦駄/1 [D;1] [彦:疑母 仙B韻*ŋuiɛn][駄:定母 歌1韻*da]
- 20) la-ndha/란다/嬾駄/1 [D;1] [嬾:來母 寒1韻*lan][駄:定母 歌1韻*da]
- 21) ma-ndha/만다/滿駄/8 [Q;3, D;5] [滿:明母 桓1韻*man][駄:定母 歌1韻*da]
- 22) ba-ndha/만다/畔駄/1 [S;1] [畔:并母 桓1韻*ban][駄:定母 歌1韻*da]
- 23) pa-nna/만나/半曩/2 [D;2] [半:幫母 桓1韻*pan][曩:泥母 唐1韻*naŋ]
- 24) ki-nna/긴나/緊曩/1 [Q;1] [緊:見母 眞A韻*kin][曩:泥母 唐1韻*naŋ]
- 25) ki-nna/긴나/緊娜/1 [D;1] [緊:見母 眞A韻*kin][娜:泥母 歌1韻*na]
- 26) śa-nti/선디/扇底/2 [Q;2] [扇:書母 仙3韻*ciɛn][底:端母 齊4韻*tei]
- 27) ya-nti/연디/演底/2 [D;2] [演:以母 仙3韻*jiɛn][底:端母 齊4韻*tei]

127) “万”은 중고음에서 明母 元3韻*miɿn과 明母 德1韻*m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 28) ha-nti/한디/罕底/1 [D;1] [罕:曉母 寒1韻*han][底:端母 齊4韻*tei]
 29) na-ndi/난니/難你/1 [D;1] [難:泥母 寒1韻*nan][你:娘母 之3韻*ŋi]
 30) na-ndi/난니/難膩/1 [D;1] [難:泥母 寒1韻*nan][膩:娘母 脂B韻*ŋui]
 31) ma-nni/만니/滿你/1 [Q;1] [滿:明母 桓1韻*man][你:娘母 之3韻*ŋi]
 32) sa-nni/산니/散顛/1 [D;1] [散:心母 寒1韻*san][顛:泥母 青4韻*neŋ]
 33) ma-nte/만테/滿帝/2 [Q;2] [滿:明母 桓1韻*man][帝:端母 齊4韻*tei]
 34) ya-nte/연테/演諦/2 [S;2] [演:以母 仙3韻*jien][諦:端母 齊4韻*tei]
 35) na-nde/난네/難祢/1 [D;1] [難:泥母 寒1韻*nan][祢:泥母 齊4韻*nei]
 36) ma-ndhe/만데/滿弟/2 [Q;2] [滿:明母 桓1韻*man][弟:定母 齊4韻*dei]
 37) dya-ntu/던도/鈿覩/1 [D;1] [鈿:定母 先4韻*djen][覩:端母 模1韻*to]

위의 예19에서 범자는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고 한글과 한자도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글의 첫 음절은 모두 ‘-ㄴ’ 종성자음을 가지고 있으며 범자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 ‘-n’과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 표기도 첫 음절 한자가 *-n 자음운미를 가지는 陽聲韻 글자들로 범자 ‘-n’과 대응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앞서 제1자음이 ‘r’인 예15의 표기와 일치한다. 같은 방법으로 단자음을 단위로 음절 대응을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tha-n/탄/歎/1, da-n/난/難/1, na-n/난/難/3, pa-n/반/半/2, ba-n/반/畔/1, ba-n/만/挽/1, ma-n/만/滿/20, ma-n/만/万/1, ca-n/산/骺/1, sa-n/산/散/1, ha-n/한/罕/1, la-n/란/爛/1, ki-n/긴/緊/2, bhi-n/빈/頻/1, bhi-n/빈/枇/2, ci-n/진/震/1, chi-n/친/嚙/2, chi-n/친/窺/15, chi-n/친/噀/2, ka-n/건/建/1, ga-n/연/彦/2, śa-n/선/扇/3, ya-n/연/演/4, dya-n/던/鈿/1, bhya-n/변/便/1

【개음절】 ta/다/跢/9, ta/다/多/2, ta/다/哆/5, ti/디/底/5, te/테/帝/2, te/테/諦/2, tu/도/覩/1, da/나/拏/1, da/나/娜/22, di/니/你/1, di/니/膩/1, de/네/祢/1, dha/다/駄/11, dhe/데/弟/2, na/나/曩/3, na/나/娜/1, ni/니/你/1, ni/니/顛/1

위의 예에서 ‘폐음절’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k/ㄱ/見(*k)/3, g/ㅇ/疑(*ŋ)/2, th/ㅌ/透(*th)/1, d/ㄴ/:泥(*n)/1, n/ㄴ/泥(*n)/3, p/ㅍ/幫(*p)/2, b/ㅍ/明(*m)/1, bh/ㅍ/并(*b)/2, m/ㅍ/明(*m)/21, c/ㅈ/章(*tʃ)/1, ch/ㅈ/初(*tʃh)/2, ch/ㅈ/淸(*tʃh)/15, ch/ㅈ/昌(*tʃh)/2, ś/ㅅ/書

(*ɛ)/3, s/入/心(*s/1, h/𪛗/曉(*h/1, y/이/以(*j/4, l/ㄹ/來(*l/1'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예외로는 22)번의 ‘畔’과 37)번의 ‘鉤’의 성모가 각각 전탁음의 并母*b와 定母*d인데 일반대응에 의하면 마땅히 유성유기음의 범자 ‘bh, dh’와 대응하여야 하지만 유성음 범자 ‘b, d’와 대응하고 있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중국어 번역에서의 오류일 수도 있다.

하지만 9)번의 ‘bhya-nta/변다/便趺/1’와 37)번의 ‘dya-ntu/던도/鈎觀/1’에서 범자 자음 ‘y’의 대응은 각각 ‘y/이/先4(*-j-)/1, y/이/仙A(*-i-)/1’로 나타난다. 범자 ‘bhya, bya’는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제2자음이 ‘y’인 경우 한글은 상향이중모음으로 표기하지만 한자는 二습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한자는 각각 3등운 글자의 세음성 개음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자 표기의 경제성을 위한 것이므로 예외 표기는 아니지만 음소대응의 고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의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 ‘아’가 대응하는 것과 ‘어’가 대응하는 두 종류가 나타난다. ‘아’의 대응으로 ‘a/아/寒1(*an)/8, a/아/桓1(*an)/23, a/아/元3(*iɤn)/2, a/아/刪2(*ɣæn)/1’가 있고, ‘어’의 대응으로 ‘a/어/元3(*iɤn)/1, a/어/仙B(*ɰiɛn)/2, a/어/仙A(*iɛn)/1, a/어/仙3(*iɛn)/7, a/어/先4(*jen)/1’가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 설명은 제5장의 5.2.2.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기타 ‘i’ 모음의 대응은 ‘i/이/眞A(*in)/3, i/이/眞3(*in)/18’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러나 16)번에서의 ‘𪛗’은 造字로 중고음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부수를 제외한 ‘親’을 기준으로 하면 初母 臻3韻 *tɕhuɿn이다. 初母는 범자의 유기음 ‘ch’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初母는 莊組의 자모로 ‘ɰi’의 3등운 개음이 있는데 범자 ‘i’ 모음의 대응에 후설성 개음의 한자가 대응할 수 없다. 즉 후설성 3등운 개음의 대응은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며 아마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𪛗’이란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성 자음의 대응은 ‘-n/-ㄴ/寒1(*-n)/8, -n/-ㄴ/桓1(*an)/23, -n/-ㄴ/刪2(*ɣæn)/1, -n/-ㄴ/元3(*iɤn)/3, -n/-ㄴ/仙3(*iɛn)/10, -n/-ㄴ/先4(*jen)/1, -n/-ㄴ/眞3(*in)/21’이 있다. 그러나 15)번에서 한자 ‘枇’는 脂A韻*i의 음성

운 글자이지만 대응하는 범자가 ‘bhi-n’으로 예외이다. 중국어 번역에서 간혹 폐음절 범자와 개음절의 한자가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음운미까지 고려하여 폐음절 범자에 어울리는 마땅한 1음절 한자를 찾을 수 없어서 음성운 한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ㄴ’ 종성자음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이 ‘t/ㄷ/端(*t)/26, d/ㄴ/泥(*n)/23, dh/ㄷ/定(*d)/13, n/ㄴ/泥(*n)/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도 ‘a/아/歌1(*a)/50, a/아/麻2(*ya)/1, a/아/唐1(*aŋ)/3, i/이/之3(*i)/2, i/이/脂B(*wi)/1, e/예/齊4(*ei)/7, u/도/模1(*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2.2 제1자음 ‘n’류 (2)

다음은 여전히 제1자음 ‘n’류 복자음의 예들이지만 앞서 예14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범자 음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예20

- 1) sa-ntya/산다/骹地野_[二合]/1 [Q;1] [骹:心母 刪2韻*syæn][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 2) ba-ntra/만트라/滿怛囉_[二合]/1 [D;1] [滿:明母 桓1韻*man][怛(聲母):端母*t][囉:*?]
- 3) kra-nte/ㄱ란테/羯囉_[二合]諦/1 [S;1] [羯(聲母):見母*k][囉:*?][諦:端母 齊4韻*tei]

위의 예20에서 1)번~2)번의 범자 음절은 각각 ‘sa-ntya’와 ‘ba-ntra’이다. 이들의 두 번째 음절을 보면 ‘nty-’와 ‘ntr-’로 삼중 복자음으로 되어 있으며 복자음 구조는 ‘n+C+y’와 ‘n+C+r’로 되어 있다. 첫 두 자음은 ‘제1자음+C’류이고, 그 다음의 두 자음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에 속한다.

범자와 한글을 대응시키면 각각 ‘sa-n/산, tya/다’와 ‘ba-n/만, tra/트라’인데 첫 음절 ‘산, 만’은 ‘-ㄴ’ 종성자음이 복자음의 제1자음 ‘-n’과 대응한다. 이에 한자도 각각 ‘骹 *syæn, 滿 *man’으로 모두 *-n 자음운미의 글자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음절에서 ‘tya’는 제2자음이 ‘y’일 때 일반적인 상하이중모음 표기를 따라 ‘다’로 표기한 것이고, ‘tra’는 제2자음이 ‘r’일 때 일반적인 ‘ㄹ’ 모음 첨가의 표기를 따라서 ‘트라’로 된 것이다. 한자 또한 제2

자음이 ‘y’, ‘r’인 일반 표기를 따라 ‘地野_[二合]’, ‘怛囉_[二合]’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각각 ‘sa-n/산/散, t/ㄷ/地(聲母), ya/야/野’와 ‘ba-n/만/滿, t/ㄷ/怛(聲母), ra/라/囉’이다.

3)번의 ‘kra-nte’는 첫 음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음절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ㄱ란테’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의 ‘ㄱ’은 ‘으’ 모음이 첨가된 것이고, ‘란’에서 ‘-ㄴ’ 종성자음은 제1자음 ‘-n’와 대응하는 것이다. 즉 첫 두 음절 ‘ㄱ란’은 두 가지 유형의 복자음 표기 방법이 함께 적용된 것이다. 한자는 ‘羯囉_[二合]諦’로 되어 있는데 첫 두 음절은 ‘二合’으로 2음절 표기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음절 ‘囉’는 비록 造字이지만 부수를 제외한 ‘蘭 *lan’을 참고하면 *-n 자음운미가 있으며 범자 ‘-n’과 대응한다. 즉 한자 표기도 각각 복자음 유형의 표기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k/ㄱ/羯(聲母)’, ‘ra-n/란/囉’, ‘te/테/諦’이 된다.

예21

- 1) ku-rma-ntu/굴만도/窟口律挽_[二合]觀/1 [D;1] [窟:*?][口律:?[挽:明母 元3韻*mim]
- [觀:端母 模1韻*to]
- 2) a-rha-nta/알한다/阿囉罕_[二合]多/1 [D;1] [阿:影母 歌1韻*a][囉:*?][罕:曉母 寒1韻*han]
- [多:端母 歌1韻*ta]
- 3) bhu-rva-ndha/불반다/部囉畔_[二合]馱/1 [S;1] [部:并母 模1韻*bo][囉:*?][畔:并母 桓1韻*ban]
- [馱:定母 歌1韻*da]
- 4) ga-ndha-rve/안달베/巖達囉吠_[二合]/1 [D;1] [巖¹²⁸:疑母 元3韻*ɣim][達:定母 曷1韻*dat]
- [囉:*?][吠:并母 廢3韻*bial]
- 5) ga-ndha-rva/안달바/火巖達囉/1 [Q;1] [火巖:*?][達:定母 曷1韻*dat][囉:*?]

위의 예21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은 모두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모두 ‘제1자음+C’류 복자음을 가진다.

한글 표기의 첫 음절 ‘굴, 알, 불, 안’ 등의 ‘-ㄱ, -ㄴ’ 종성자음은 두 번

128) “巖”은 중고음에서 疑母 元3韻*ɣim와, 疑母 仙B韻*ɣwien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째 범자 음절의 제1자음 ‘r, n’과 대응하고, 두 번째 음절의 ‘만, 한, 반, 달’ 등은 세 번째 범자 음절의 제1자음 ‘n, r’과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범자와 한글은 각각 1)번 ‘ku-r/굴, ma-n/만, tu/도’, 2)번 ‘a-r/알, ha-n/한, ta/다’, 3)번 ‘bhu-r/불, va-n/반, dha/다’, 4)번 ‘ga-n/안, dha-r/달, ve/베’, 5)번 ‘ga-n/안, dha-r/달, va/바’로 대응하여 매우 정연하다.

하지만 한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 표기에 있어서 자음운미의 표기방법 혹은 二습의 2음절 표기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위에 예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와 한자의 대응을 보면 1)번 ‘ku/菰, rma-n/口律挽_{二合}, tu/도/覩’, 2)번 ‘a/阿, rha-n/囉_{二合}, ta/多’, 3)번 ‘bhu/部, rva-n/囉_{二合}, dha/馱’, 4)번 ‘ga-n/獻, dha/達, rve/囉_{二合}, 5)번 ‘ga-n/火獻, dha-r/達, va/囉’이다. 특히 4)번을 보면 ‘達’의 자음운미 *-t와 후행하는 한자 ‘囉(聲母)’가 범자 ‘r’을 중복표기하고 있지만, 5)번에서 ‘達’의 *-t 자음운미가 범자 ‘-r’과 대응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22

- 1) ca-dre/잔느레/讚捺囉_{二合}/3 [Q;3] [讚:從母 寒1韻*dzan][捺(聲母):泥母*n][囉:~?]
- 2) i-dri/인느리/印捺哩_{二合}/1 [D;1] [印:眞A韻*in][捺(聲母):泥母*n][哩:~?]
- 3) śa-nra/전느라/戰捺囉_{二合}/1 [S;1] [戰:章母 仙3韻*ɕiɛn][捺(聲母):泥母*n][囉:~?]
- 4) i-nra/인느라/印捺囉_{二合}/4 [Q;3, D;1] [印:眞A韻*in][捺(聲母):泥母*n][囉:~?]
- 5) i-nri/인느리/印涅哩_{二合}/1 [D;1] [印:眞A韻*in][涅(聲母):泥母*n][哩:~?]
- 6) ta-na/단나/單曩/2 [D;2] [單:端母 寒1韻*tan][曩:泥母 唐1韻*naŋ]

위의 예22에서 1)번~5)번의 범자 음절은 ‘ca-dre, i-dri, śa-nra, i-nra, i-nri’로 첫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며 복자음의 유형은 ‘C+제2자음’류에 속한다. 그리고 1)번~2)번의 C는 유성음의 ‘d’이고, 3)번~5)번은 비음의 ‘n’이다. 앞서 일반적인 음소대응의 표기에서 유성음 범자 ‘d’는 한글과 한자 모두 비음과 대응하므로 여기에서도 ‘d’와 ‘n’ 모두 비음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한글 표기를 보면 ‘잔느레, 인느리, 전느라, 인느라, 인느리’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ㄴ’ 모음의 첨가로 각각 두 번째 음절의 복자음 ‘dre, dri, nra, nra, nri’를 나타낸다. 하지만 첫 음절 ‘잔,

인, 전’ 등은 모두 ‘-ㄴ’ 종성자음을 가져 후행 음절의 첫 자음 ‘-d, -n’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한글에서도 중복 표기가 반영된 것이다. 범자와 한글을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면 1)번 ‘ca(-n)/잔, dre/ㄴ레’, 2)번 ‘i(-n)/인, dri/ㄴ리’, 3)번 ‘sa(-n)/전, nra/ㄴ라’, ‘i(-n)/인, nra/ㄴ라’, ‘i(-n)/인, nri/ㄴ리’가 된다.

한자 표기를 보면 ‘讚捺嘯_[二合], 印捺哩_[二合], 戰捺囉_[二合], 印捺囉_[二合], 印涅槃_[二合]’로 되어 있는데 ‘二合’은 두 번째 범자 음절의 복자음을 표기위한 것이다. ‘二合’의 첫 글자 ‘捺(聲母)’ 혹은 ‘涅槃(聲母)’은 범자 ‘d, n’와 대응한다. 하지만 이에 첫 번째 음절 ‘讚, 印, 戰’ 등을 보면 모두 *-n 자음운미를 가지고 있어 이들 또한 후행 음절의 첫 자음 ‘-d, -n’을 반영하고 있다. 즉 한자에서도 중복 표기된다.

앞선 고찰에서 한글은 일반적으로 한자의 중복 표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외로 한자의 중복 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기계적으로 한자의 영향을 받은 오류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진언 독송에서 음성적으로 ‘n’이 추가되어 발음되었을 지도 모른다.

6)번을 보면 범자가 ‘ta-na’로 2개의 기본 개음절로 되어있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단나’로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이 후행 음절의 ‘n’ 자음을 중복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자표기가 ‘單囊’로 되어 있어 첫 음절 ‘單’의 *-n 자음운미가 후행 범자 자음의 ‘n’을 중복표기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중복 표기가 되어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위의 예20~예22의 대응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ga-n/안/獻/1, ga-n/안/火獻/1, ta-(n)/단/單/2, ba-n/만/滿/1, ma-n/만/挽/1, va-n/반/畔/1, ca(n)/잔/讚/3, sa(n)/전/戰/1, sa-n/산/散/1, ha-n/한/罕/1, ra-n/란/嘯/2, dha-r/달/達/1, i(n)/인/印/6

【개음절】 a/아/阿/1, ta/다/多/1, dha/다/駄/1, dha/다/達/1, na/나/囊/2, va/바/嘩/1, ya/야/野/1, ra/라/囉/6, ri/리/哩/2, te/테/諦/2, ve/베/吠/1, re/레/嘸/3, ku/구/窟/1, tu/도/覩/1, bhu/보/部/1

【자음음절】 <‘으’음절> k/ㄱ/羯(聲母)/2, t/ㄷ/怛(聲母)/1, d/ㄴ/捺(聲母)/4, n/ㄴ/捺(聲

母)/5, n/ㄴ/ㄴ(聲母)/1 <초성자음> t/ㄷ/地(聲母)/1 <종성자음> r/-ㄹ/口律(聲母)/1, -r/-ㄹ/囉(聲母)/3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g/ㄱ/疑(*ŋ)/1, t/ㄷ/端(*t)/1, dh/ㄷ/定(*d)/1, b/ㅍ/明(*m)/1, m/ㅍ/明(*m)/1, v/ㅍ/并(*b)/1, c/ㅈ/從(*dz)/1, s/ㅅ/心(*s)/1, h/ㅎ/曉(*h)/1’로 대부분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도 한자 자모의 제약 등을 제외하여 ‘a/아/元3(*iɾn)/2, a/아/寒1(*an)/4, a/아/桓1(*an)/2, a/아/曷1(*at)/1, a/어/仙3(*iɛn)/1, i/이/眞A(*in)/6’ 등이 있으며 대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n/-ㄴ/桓1(*-n)/2, -n/-ㄴ/寒1(*-n)/1, -n/-ㄴ/刪2(*-n)/1, -n/-ㄴ/元3(*-n)/2, -r/-ㄹ/曷1(*-t)/1’ 등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ø/ㅇ/影(*ʔ)/1, t/ㄷ/端(*t)/4, dh/ㄷ/定(*d)/2, n/ㄴ/泥(*n)/2, bh/ㅍ/并(*b)/1, v/ㅍ/嘸(*ʔ)/1, v/ㅍ/并(*b)/1, y/이/以(*j)/1, r/ㄹ/囉(*ʔ)/1, r/ㄹ/哩(*ʔ)/2, r/ㄹ/嚙(*ʔ)/3’ 등이 있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대부분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가운데 한자 자모의 제약 등을 제외하여 보면 ‘a/아/歌1(*a)/3, a/아/曷1(*at)/1, a/아/唐1(*aŋ)/2, i/이/哩(*ʔ)/2, e/예/齊4(*ei)/2, e/예/廢3(*iai)/1, e/예/嚙(*ʔ)/3, u/우/菑(*ʔ)/1, u/오/模1(*o)/2’ 등이 있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2, t/ㄷ/端(*t)/1, t/ㄷ/定(*d)/1, d/ㄴ/泥(*n)/4, n/ㄴ/泥(*n)/6’으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종성 자음의 대응도 있는데 ‘-r/-ㄹ/口律(聲母)/1, -r/-ㄹ/囉(聲母)/1’이다.

4.2.2.3 제1자음 ‘n’류

다음은 제1자음이 권설음 비음 ‘n’인 복자음을 가지는 범자 음절에 대해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23

- 1) ka-ŋta/건타/建蛇/2 [D;2] [建:見母 元3韻*kiɾn][蛇:徹母 麻2韻 *thya]
- 2) ka-ŋtha/간타/建蛇/3 [S;3] [建:見母 元3韻*kiɾn][蛇:徹母 麻2韻 *thya]

- 3) ka-ṇda/건나/建拏/1 [D;1] [建:見母 元3韻*kiɿn][拏:娘母 麻2韻 *ŋɿa]
- 4) na-ṇda/난나/難拏/1 [D;1] [難:泥母 寒1韻*nan][拏:娘母 麻2韻 *ŋɿa]
- 5) la-ṇda/란나/嬾娜/1 [G;1] [嬾:來母 寒1韻*lan][娜:泥母 歌1韻 *na]
- 6) ma-ṇda/만나/滿拏/5 [Q;1] [滿:明母 桓1韻*man][拏:娘母 麻2韻 *ŋɿa]
- 7) ma-ṇda/만나/曼拏/1 [D;1] [曼:明母 桓1韻*man][拏:娘母 麻2韻 *ŋɿa]
- 8) pa-ṇda/반나/半拏/1 [D;1] [半:幫母 桓1韻*pan][拏:娘母 麻2韻 *ŋɿa]
- 9) ca-ṇda/전나/戰娜/1 [S;1] [戰:章母 仙3韻*teien][娜:泥母 歌1韻 *na]
- 10) ya-ṇda/연나/演拏/2 [D;2] [演:以母 仙3韻*jien][拏:娘母 麻2韻 *ŋɿa]
- 11) ma-ṇdha/만다/曼茶/1 [S;1] [曼:明母 桓1韻*man][茶:澄母 麻2韻 *dɿa]
- 19) gha-ṇṭi/건티/建致/1 [D;1] [建:見母 元3韻*kiɿn][致:知母 脂3韻*i]
- 20) mu-ṇḍi/문니/捫膩/1 [D;1] [捫:明母 魂1韻*mon][膩:娘母 脂3韻*ni]
- 21) ca-ṇḍi/잔니/讚拏/3 [Q;3] [讚:從母 寒1韻*dzan][拏:娘母 支3韻*niɛ]
- 22) rye-ṇda/런나/哩演_[二合]娜/1 [G;1] [哩(聲母):*?][演:以母 仙3韻*jien][娜:泥母 歌1韻 *na]

위의 예23을 보면 제1자음 ‘ṇ’의 복자음의 표기는 앞선 제1자음 ‘n’의 표기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한글 표기에서 두 번째 복자음의 ‘-ṇ’ 자음은 한글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과 대응하고, 한자 역시 첫 글자의 *-n 자음운미와 대응한다.

1)번~21)번의 범자 음절에서의 첫 음절은 모두 기본 개음절이지만 마지막 22)번은 ‘rye-ṇda’로 첫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음절이다. 사실 첫 음절 ‘rye’을 ‘제1자음+C’에서 제1자음이 ‘r’인 복자음 음절로 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일반 표기는 ‘-ㄴ’ 종성자음 ‘r’ 자음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글 표기는 ‘런’ 즉 상향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C+제2자음’류 복자음의 일반 표기에 속한다. 22)번의 한글 표기는 ‘런나’이고 한자는 ‘哩演_[二合]娜’이다. 이에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rye-ṇ/런, da/나’이고, 범자와 한자의 대응은 ‘r/哩, ye-ṇ/演, da/娜’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좀더 세분화하여 범-한-중 대응을 구할 수 있는데 ‘r/ㄹ/哩(聲母), ye-ṇ/연/演, da/나/娜’가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시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ka-ṇ/간/建/3, ka-ṇ/건/建/3, gha-ṇ/건/建/1, na-ṇ/난/難/1, pa-ṇ/반/半/1,

ma-ŋ/만/滿/5, ma-ŋ/만/曼/2, ca-ŋ/전/戰/1, ca-ŋ/잔/讚/3, ya-ŋ/연/演/2, la-ŋ/란/爛/1, ye-ŋ/연/演/1, mu-ŋ/문/捫/1

【개음절】 ʈa/타/姪/2, ʈha/타/姪/3, da/나/拏/11, da/나/娜/3, dha/다/茶/1, di/니/膩/1, di/니/拏/3, ti/티/致/1

【자음음절】 <초성자음> r/ㄹ/哩(聲母)/1

위의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6, n/ㄴ/泥(*n)/1, p/ㅍ/幫(*p)/1, m/ㅁ/明(*m)/8, c/ㅈ/章(*tɕ)/1, y/ㅇ/以(*j)/3, l/ㄹ/來(*l)/1’로 대부분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a/아/元3(*iɤn)/3, a/아/寒1(*an)/5, a/아/桓1(*an)/8, a/어/元3(*iɤn)/4, a/어/仙3(*iɛn)/3, u/우/魂1(*on)/1’ 역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ŋ/-ㄴ/元3(*-n)/7, -ŋ/-ㄴ/寒1(*-n)/5, -ŋ/-ㄴ/桓1(*-n)/8, -ŋ/-ㄴ/仙3(*-n)/3, -ŋ/-ㄴ/魂1(*-n)/1’이 된다.

‘개음절’의 예에서 자음의 대응은 ‘d/ㄴ/泥(*n)/3, t/ㅌ/知(*t)/1, th/ㅌ/徹(*th)/3’이며 모음의 대응은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a/아/歌1(*a)/3, i/이/支3(*iɛ)/3, i/이/脂3(*i)/2’가 있는데, 모두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 ‘r/ㄹ/哩(*?)/1’이 있다.

4.2.2.4 제1자음 ‘n’류

다음은 제1자음이 구개성 비음의 ‘n’인 복자음 음절에 대해 보겠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24

- 1) ka-ŋca/견자/謫左/1 [D;1] [謫:見母 仙B韻*kuɤiɛn][左:精母 歌1韻*tsa]
- 2) pa-ŋca/반자/半左/3 [D;3] [半:幫母 桓1韻*pan][左:精母 歌1韻*tsa]
- 3) na-ŋca/난자/難左/4 [Q;2, D;2] [難:泥母 寒1韻*nɤn][左:精母 歌1韻*tsa]
- 4) na-ŋca/난자/難者/1 [D;1] [難:泥母 寒1韻*nɤn][者:章母 麻3韻*tɕia]
- 5) na-ŋja/난자/難惹/1 [Q;1] [難:泥母 寒1韻*nɤn][惹:日母 麻3韻*nɕia]
- 6) bha-ŋja/반자/畔惹/2 [Q;1] [畔:并母 桓1韻*ban][惹:日母 麻3韻*nɕia]
- 7) hma-ŋca/ᄒ만자/賀滿_(二合)左/1 [D;1] [賀(聲母):匣母*ɦ][滿明母 桓1韻*man][左:精母 歌1韻*tsa]

8) dma-ñja/ㄴ만자/訥曼_{二合}惹/1 [S:1] [訥(聲母)泥母*n][曼(明母 桓1韻*man)[惹(日母 麻3韻*nia]

위의 예24를 보면 구개성 비음의 ‘-ñ’의 한글과 한자 표기가 앞선 ‘-n, -ŋ’와 같음을 볼 수 있다. 한글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과 한자의 *-n 자음운미가 범자 자음 ‘-ñ’와 대응한다.

1)번~6)번은 범자 첫 음절이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다. 7)번~8)번은 ‘hma-ñca, dma-ñja’로 첫 번째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이고 두 번째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이에 한글은 ‘ㅇ’모음 첨가의 표기와 ‘-ㄴ’ 종성자음의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ㅎ만자, ㄴ만자’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 또한 二合의 2음절과 *-n 자음운미의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賀滿_{二合}左, 訥曼_{二合}惹’로 표기하였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h/ㅎ/賀, ma-ñ/만/滿, ca/자/左’, ‘d/ㄴ/訥, ma-ñ/만/曼, ja/ㅈ/惹’이다.

위의 예들을 각각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ka-ñ/건/蹇/1, na-ñ/난/難/6, pa-ñ/반/半/3, bha-ñ/반/畔/2, ma-ñ/만/滿/1, ma-ñ/만/曼/1

【개음절】 ca/자/左/9, ca/자/者/1, ja/ㅈ/惹/4

【자음음절】 <‘ㅇ’음절> d/ㄴ/訥(聲母)/1, h/ㅎ/賀(聲母)/1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n/ㄴ/泥*n/6, p/ㅍ/幫*p/3, bh/ㅂ/并*b/2, m/ㅁ/明*m/2’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a/아/寒1(*an)/6, a/아/桓1(*an)/7’ 역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a/어/仙B(*uɿen)/1’의 대응이 있는데 1)번 ‘ka-ñca/건자/蹇左’의 예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같은 범자 모음 ‘a’에 한글 모음의 대응이 ‘아’도 있고 ‘어’도 있는 것이다. 종성 자음의 대응으로는 ‘-ñ/-ㄴ/寒1(*-n)/6, -ñ/-ㄴ/桓1(*-n)/7, -ñ/-ㄴ/仙B(*-n)/1’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c/ㅈ/精(*ts)/9, c/ㅈ/章(*tɕ)/1, j/ㅈ/日(*ɲ)/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9, ca/자/麻3(*ia)/5’이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 ‘d/ㄴ/泥(*n)/1, h/ㅎ/匣(*h)/1’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2.4 제1자음 ‘n’류

다음은 제1자음이 연구개 비음인 ‘n’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와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25

1) tya-ŋga/딩아/底孕_[二合]識/1 [D;1] [底(聲母):端母*t][孕:以母 蒸3韻*jiŋ][識:疑母 歌1韻*ŋa]

2) su-ŋa/송아/素識/1 [D;1] [素:心母 模1韻*so][識:疑母 歌1韻*ŋa]

위의 예25에서 사실 진정한 ‘n+C’류 복자음은 1)번 예뿐이다. 1)번의 범자 음절은 ‘tya-ŋga’로 첫 번째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는 ‘딩아’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은 ‘tya-n/딩, ga/아’이다. 범자 자음 ‘-n’과 한글 중성자음 ‘-o’가 대응한다. 한자는 ‘底孕_[二合]識’로 되어 있고 범자와의 대응은 ‘tya-n/底孕_[二合], ga/識’이다. 범-한-중의 대응을 보면 ‘t/ㄷ/底(聲母), ya-n/잉/孕, ga/아/識’가 된다. 여기에서 ‘ya-n/잉/孕’을 보면 한글의 ‘이’ 모음이 범자의 ‘ya’와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한자 ‘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어 번역에서 범자 ‘ya’ 대응에 한자 ‘孕 *jiŋ’ 즉 모음이 다른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 완전 일치한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비슷한 음가의 한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의 ‘이’ 모음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2)번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은 ‘su-ŋa’로 사실상 2개의 기본 개음절이다. 한글이 ‘송아’로 표기되어 있어 범자와의 대응을 복자음 표기법에 따라 ‘su-n/송, a/아’로 대응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자를 보면 범자와 ‘su/素 *so, ŋa/識 *ŋa’로 대응한다. 즉 두 번째 음절의 한글 ‘아’는 자음이 ∅가 아닌, 범자 n과 한자 *ŋ가 대응하는 꼭지가 달린 ‘o’의 ‘아’일 것이다. 다시 정리하여 범-한-중의 대응은 마땅히 ‘su/소/素, ŋa/아/識’이어야 한다. 실제 진언 표기에서 ‘소’에 ‘-o’ 중성자음이 추가되어 ‘송’으로 반영된 것은 후행 음절 ‘아’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마치 중세한국어에서 ‘鯉魚’가 마땅히 ‘이어’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음은 ‘잉어’로 반영된 것과 같은 것이다.

즉 한국어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위의 예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아래와 같다.

【개음절】 ga/아/諷/1, na/아/諷/1, su/ㄱ/肅/1

【폐음절】 ya-n/ㄴ/寧/1

【자음음절】 <초성자음> t/ㄷ/底(聲母)/1

위의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g/ㅇ/疑(*ŋ)/1, n/ㅇ/疑(*ŋ)/1, s/ㅅ/心(*s)/1’이다. 이 중 ‘n/ㅇ/疑(*ŋ)/1’의 예는 기본 음절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이고 기타 대응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2, u/오/模1(*o)/1’로 여전히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y/이/以(*j)/1’이고 종성 자음의 대응은 ‘-n/-ㅇ/蒸3(*-ŋ)/1’이며 모음의 대응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t/ㄷ/端(*t)/1’이다.

4.2.3 제1자음 ‘T’류

4.2.3.1 표기 유형 (1)

다음은 제1자음이 ‘T’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의 예이며 ‘T’ 자음에는 ‘t’와 ‘d’가 있지만 실제로 제1자음이 ‘t’인 음절의 예는 1개만 보인다. 다른 예들은 모두 ‘d’자음의 예들이다.

예26

- 1) ci-tta/진다/啍跢/9 [Q;1, D;8] [啍¹²⁹:精母 質3韻*tsit][跢:端母 歌1韻*ta]
- 2) bu-ddha/몰다/沒駄/13 [Q;2, D;10] [沒:明母 沒1韻*mot][駄:定母 歌1韻*da]
- 3) si-ddha/신다/悉駄/5 [S;3, D;2] [悉:心母 質3韻*sit][駄:定母 歌1韻*da]
- 4) si-ddhi/싣디/悉地/1 [S;1]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
- 5) bu-ddhi/몰디/沒地/2 [D;2] [沒:明母 沒1韻*mot][地:定母 脂3韻*di]

129) “啍”은 중고음에서 精組 質3韻*tsit와 精組 職3韻*tsik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한다.

- 6) si-ddhe/신태/悉弟/5 [Q;5] [悉:心母 質3韻*sit][弟:定母 齊4韻*dei]
- 7) só-ddhe/솔테/稭第/12 [Q;12] [稭:船母 術3韻*zuit][第:定母 齊4韻*dei]
- 8) só-ddhe/솔테/稭弟/9 [F;8, D;1][稭:船母 術3韻*zuit][弟:定母 齊4韻*dei]
- 9) só-ddhe/솔테/戌弟/3 [F;3] [戌:心母 術3韻*suit][弟:定母 齊4韻*dei]
- 10) sú-ddhe/솔테/稭第/1 [D;1] [稭:船母 術3韻*zuit][第:定母 齊4韻*dei]

위의 예26에서 1)번의 ‘ci-tta’에서만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이 ‘t’이고 나머지 2)번~10)번 예들은 ‘bu-ddha, si-ddha, si-ddha, si-ddhi, bu-ddhi, si-ddhe, só-ddhe, só-ddhe, sú-ddhe’로 두 번째 음절의 복자음에서의 제1자음은 ‘d’이다. 그런데 제1자음 ‘t’의 후행 자음은 ‘t’이고, 제1자음 ‘d’의 후행 자음이 모두 ‘dh’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설음의 제1자음은 대개 같은 조음위치의 자음이 온다.

한글과 한자의 표기방법은 앞선 제1자음 ‘r’, ‘N’과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보태어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한글 표기에서 범자 ‘-d’ 자음 대응에 ‘-ㄷ’ 종성자음이 대응하고 있고, 한자는 *-t 자음운미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t 자음운미의 한자는 범자 ‘-r’ 자음과의 대응에서도 사용되어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 범자 ‘-d’와 ‘-r’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은 범자 ‘-d’ 대응에 ‘-ㄷ’ 종성자음을, ‘-r’ 대응에 ‘-ㄹ’ 종성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본고 제5장의 5.2.3.1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 또 다른 범자 음절의 유형의 예에 대해 보겠다.

예27

- 1) si-ddhya/신태/悉地野[二合]/4 [Q;4]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野:以母 麻3韻*jia]
- 2) bu-ddhya/몰타/沒地野[二合]/6 [S;2, Q;4] [沒:明母 沒1韻*mot][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 3) si-ddha-rthe/신태테/悉駄唎替[二合]/1 [S;1] [悉:心母 質3韻*sit][駄:定母 歌1韻*da][唎(聲母):*?][替:透母 齊4韻*thei]
- 4) si-ddhya-ntu/신태도/悉鈿覩/1 [Q;1] [悉:心母 質3韻*sit][鈿:定母 先4韻*den][覩:端母 模1韻*to]

위의 예27에서 먼저 1)번~2)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si-ddhya’, ‘bu-ddhya’로 두 번째 음절이 ‘d+C+y’의 삼중 복자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두 자음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이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음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 된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신다’, ‘몬다’로 범자와의 대응은 ‘si-d/신, dhya/다’, ‘bu-d/몬, dhya/다’이다. 범자 ‘dhya’의 대응에서 한글은 ‘다’로 나타나고 한자는 ‘地野_[二合]’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제2자음이 ‘y’인 경우의 일반 표기와 일치한다. 이들의 범-한-중 음절 대응을 ‘si-d/신/悉, dh/ㄷ/地, ya/야/野’, ‘bu-d/몬/沒, dh/ㄷ/地, ya/야/野’이다.

3)번~4)번에서 범자 음절은 각각 ‘si-ddha-rthe’, ‘si-ddhya-ntu’로 3개의 음절이다. 첫 번째 음절은 개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특히 4)번의 두 번째 음절은 ‘d+C+y’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을 표기하고 있는 한글은 ‘신달데, 신던도’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은 ‘si-d/신, dha-r/달, the/데’, ‘si-d/신, dhya-n/던, tu/도’이다. 한자 표기는 ‘悉駄喋替_[二合]’, ‘悉鈿覩’으로 되어 있으며 범자와 대응하면 ‘si-d/悉, dha/駄, r/喋(聲母), the/替’, ‘si-d/悉, dhya-n/鈿, tu/覩’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의 차이에 의하여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i-d/신/悉, dha/다/駄, -r/-ㄷ/喋(聲母), the/데/替’, ‘si-d/신/悉, dhya-n/던/鈿, tu/도/覩’이다.

위의 예26~예27의 대응들을 단자음을 단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ta/다/跬/9, dha/다/駄/19, ya/야/野/12, dhi/디/地/3, the/▶데/替/1, dhe/데/弟/35, tu/도/覩/1

【폐음절】 ci-t/진/啍/9, bu-d/몬/沒/23, si-d/신/悉/17, só-d/술/戌/3, só-d/술/秫/21, sú-d/술/秫/1, dhya-n/▶던/鈿/1

【자음음절】 <초성자음> dh/ㄷ/地(聲母)/12 <종성자음> -r/-ㄷ/喋(聲母)/1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t/ㄷ/端(*t)/20, dh/ㄷ/定(*d)/57, y/이/以(*j)/12’의 대부분 예들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로 3)번에서 ‘the/데/替’가 있는데 범자 ‘th’와 한자 ‘替(透母 *th)’ 대응의 한글은 마땅히 유기음의 ‘ㅌ’가 예상되지만 ‘ㄷ’ 자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ㄷ’와 ‘ㅌ’가 혼용 현상에 대하여 본고 제5장의 5.2.1.1절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모음의 대응은 대부분 ‘a/아/歌1韻*da]/28, i/이/脂3韻*di]/3, e/예/齊4韻*dei]/36, u/오/模1韻*t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c/ㅈ/精(*ts)/9, b/ㅂ/明(*m)/23, s/ㅅ/心(*s)/17, ś/ㅅ/船(*z)/22, dh/ㄷ/定(*d)/1’ 등 대부분의 예들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로 4)번에서 ‘dhya-n/던/鈿’가 있는데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이 ‘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 ‘ya-n’ 대응에 한자 ‘鈿 (先4韻 *den)’을 사용하면서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역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이외 모음의 대응은 ‘i/이/質3(*it)/26, u/오/沒1(*ot)/23, o/우/術3(*uit)/24, u/오/術3(*uit)/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t/-ㄷ/質3(*it)/26, -d/-ㄷ/沒1(*ot)/23, -d/-ㄷ/術3(*uit)/27, -n/-ㄴ/先4(*jen)/1’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dh/ㄷ/定(*d)/12’가 있고, 종성자음의 대응에서는 ‘-r/-ㄹ/ㄹ(聲母 *?)/1’이 있다.

4.2.3.2 표기 유형 (2)

다음은 ‘T+C’류 복자음 음절 관련하여 보다 특이한 대응 현상을 보여주는 예들에 대해 볼 것이다.

예28

- 1) mu-ddha/모다/冒駄/1 [F;1] [冒:明母 豪1韻*mau][駄:定母 歌1韻*da]
- 2) sa-ddha/살다/娑駄/1 [S;1] [娑:心母 歌1韻*sa][駄:定母 歌1韻*da]
- 3) mu-ddha/몰다/母駄/1 [F;1] [母:明母 侯1韻*məu][駄:定母 歌1韻*da]
- 4) mu-tha/몰다/沒駄/1 [Q;1] [沒:明母 沒1韻*mot][駄:定母 歌1韻*da]
- 5) bu-ddhya/모다/沒地野_{〔二合〕}/2 [G;1] [沒:明母 沒1韻*mot][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 6) mu-ddhya/몰다/母地也_{〔二合〕}/2 [F;2] [母:明母 侯1韻*məu][地(聲母):定母*d][也:以母 麻3韻*jia]

먼저 1)번~3)번의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이 ‘mu-ddha, sa-ddha, mu-ddha’

로, 첫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를 보면 ‘모다, 산다, 못다’로 되어 있는데 특히 1)번의 ‘모다’에서 ‘모’는 종성자음 없이 ‘모/mu-d’로 대응한다. 이들의 하자 표기를 보면 ‘冒馱, 娑馱, 母馱’로 첫 글자가 모두 陰聲韻 글자로 범자와 ‘mu-d/冒, sa-d/娑, mu-d/母’의 대응이 된다. 이는 중국어 번역에서 원순모음과 *-t 자음운미가 동시에 구비된 한자를 찾기 어려웠거나 혹은 범자의 ‘-d’를 생략하여 표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번에서의 한글 표기 ‘모’는 한자 ‘冒’의 영향을 받아 종성자음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고, 2)번과 3)번의 ‘산’과 ‘못’은 각각 한자 ‘娑’, ‘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범자음 ‘sa-d, mu-d’을 따랐을 것이다.

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mu-tha’로 2개의 기본 개음절이다. 그러나 한글은 ‘못다’로 표기되어 ‘-ㄷ’ 종성자음이 중복 표기로 나타난다. 한자 표기를 보면 ‘沒馱’, 즉 첫 글자 ‘沒’는 비록 *-t 자음운미의 입성운 글자이지만 개음절 범자 ‘mu’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일반대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한글 ‘못’의 ‘-ㄷ’ 종성자음은 진언의 독송음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한자 ‘沒’의 *-t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외 두 번째 범자 음절 ‘tha’는 한글의 일반 표기에서 ‘타’이고 한자는 透母이어야 하는데, 한글은 ‘다’이고 한자는 ‘馱’ 즉 定母 *d 글자으로 예외 표기이다. 일반대응에서 한글 ‘ㄷ’와 한자 定母 *d는 범자 ‘dha’와 대응한다. 범자 ‘tha’는 아마 범자 ‘dha’ 혹은 ‘ddha’의 잘못된 전승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6)번의 범자는 ‘bu-ddhya’, ‘mu-ddhya’로 두 번째 음절이 ‘d+C+y’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보면 ‘bu-d/모/沒, dhya/다/地野_[ㄷㅅ]’, ‘mu-d/못/母, dhya/다/地也_[ㄷㅅ]’이다. 여기서 첫 음절의 대응을 보면 5)번에서 범자 ‘bu-d’ 대응에 한자 ‘沒 *mot’이 사용되었지만 한글은 ‘모’ 즉 종성자음이 반영되지 않는다. 6)번에서는 범자 ‘mu-d’ 대응에 한자가 ‘母 *məu’ 즉 자음운미가 없는 글자로 반영되어 있고 한글이 ‘못’ 즉 ‘-ㄷ’ 종성자음이 반영되어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tha/다/駄/1, dha/다/駄/3, mu/모/冒/1, ya/야/野/1, ya/야/也/1

【폐음절】 sa-d/산/娑/1, mu-d/몬/母/2, bu-d/모/沒/1, mu(-d)/몬/沒/1

【자음음절】 <초성자음> dh/ㄷ/地(聲母)/2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dh/ㄷ/定(*d)]/3, m/ㅁ/明(*m)/1, y/ㅇ/以(*j)/2’이고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a/아/歌1(*a)/4, u/오/豪1(*au)/1’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은 ‘s/ㅅ/心(*a)/1, m/ㅁ/明(*m)/3, b/ㅂ/明(*m)/1’과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1, u/오/侯1(*əu)/2, u/오/沒1(*ot)/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의 불규칙 대응이므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dh/ㄷ/定(*d)/2’이다.

4.2.4 제1자음 ‘S’류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은 제1자음이 ‘s, ʃ, ʃ’인 복자음을 모두 포함한다. 제1자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4.2.4.1 제1자음 ‘s’류 (1)

아래는 제1자음 ‘s’류 복자음 음절의 한글 및 한자 표기의 예이다.

예29

- 1) sta/ㅅㅏ/娑怛_[二合]/3 [D;3] [娑(聲母):心母*s][怛:端母 曷1韻*tat]
- 2) sta/ㅅㅏ/娑跢_[二合]/3 [D;3] [娑(聲母):心母*s][跢:端母 歌1韻*ta]
- 3) sta/ㅅㅏ/娑多_[二合]/2 [D;2] [娑(聲母):心母*s][多:端母 歌1韻*ta]
- 4) sti/ㅅㅏ/娑底_[二合]/1 [D;1] [娑(聲母):心母*s][底:端母 齊4韻*tei]
- 5) stu/ㅅㅏ/窣堵_[二合]/1 [G;1] [窣(聲母):心母*s][堵¹³⁰:端母 模1韻*to]
- 6) stu/ㅅㅏ/窣覩_[二合]/1 [D;1] [窣(聲母):心母*s][覩:端母 模1韻*to]

130) “堵”는 중고음에서 端母 模1韻*to와 章母 麻3韻*ɬia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한다.

- 7) spha/𪛗/瑟破_[二合]/1 [F;1] [瑟(聲母):生母*ʃ][破:滂母 戈1韻*pha]
- 8) spho/𪛗/塞普_[二合]/1 [Q;1] [塞(聲母)¹³¹:心母*s][普:滂母 模1韻*pho]
- 9) spho/𪛗/瑟普_[二合]/1 [F;1] [瑟(聲母):生母*ʃ][普:滂母 模1韻*pho]
- 10) spho/𪛗/薩普_[二合]/1 [S;1] [薩(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 11) spho/𪛗/娑普_[二合]/1 [D;1] [娑(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위의 예29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st-, sph-’ 복자음의 1음절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한글 음절은 합용병서 ‘ㄷ, ㅌ’로 된 1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sta/𪛗, sti/𪛗, stu/𪛗, spha/𪛗, spho/𪛗’로 되어 있고, 범자와 한자의 대응은 ‘sta/娑怛_[二合], sta/娑跢_[二合], stu/窣覩_[二合], spha/瑟破_[二合], spho/塞普_[二合], spho/薩普_[二合]’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범-한-중으로 대응시키려면 더 세분화하여 분리하여야 한다. 즉 ‘s/ㄷ/娑(聲母), ta/다/怛’, ‘s/ㄷ/娑(聲母), ta/다/跢’, ‘s/ㄷ/窣(聲母), tu/도/覩’, ‘s/ㄷ/瑟(聲母), pha/바/破’, ‘s/ㄷ/塞(聲母), pho/보/普’, ‘s/ㄷ/薩(聲母), pho/보/普’ 등이 된다.

이와 같이 단자음을 단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s/ㄷ/娑(聲母)/10, s/ㄷ/窣(聲母)/2, s/ㄷ/塞(聲母)/1, s/ㄷ/薩(聲母)/1, s/ㄷ/瑟(聲母)/2

【개음절】 ta/다/怛/3, ta/다/跢/3, ta/다/多/2, tu/도/堵/1, tu/도/覩/1, ti/디/底/1, pha/바/破/1, pho/보/普/4

먼저 ‘자음음절’에서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자음의 대응에서 ‘s/ㄷ/心(*s)/16’이 대부분 차지하며 이 또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일부 한자에서 生母 *ʃ의 ‘瑟’이 사용되는데, 예외에 속한다.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에서 ‘t/ㄷ/端(*t)/11, ph/ㅍ/滂(*ph)/5’가 있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특히 한글 초성 ‘ㅍ’를 보면 유기음의 범자 ‘ph’와 한자 자모 滂母 *ph와 대응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본음절의 대응과 같다(본고 제3장 3.1.1.4의 내용을 참고). 관련된 한국어 음운

131) “塞”는 중고음에서 心母 哈1韻*səi와 心母 德1韻*s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모만 취하므로 어느 음가든 상관없다.

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본고 제5장의 5.2.1.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a)/5, a/아/曷1(*at)/3, a/아/戈1(*a)/1, u/오/模1(*o)/2, o/오/模1(*o)/4’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4.2 제1자음 ‘s’류 (2)

아래는 여전히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이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예30

- 1) styā/ㅅ야/娑底也_[三合]/1 [Q;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 2) strā/ㅅ라/薩怛囉_[三合]/2 [D;2] [薩(聲母):心母*s][怛(聲母):端母*t][囉:*?]
- 3) sti-rbha/쉴바/娑底_[二合]囉婆_[二合]/1 [D;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囉:*?]
[婆:并母 戈1韻*ba]
- 4) sti-rbha/쉴바/悉底_[二合]囉婆_[二合]/1 [D;1] [悉(聲母):心母*s][底(聲母):端母*t][囉:*?]
[婆:并母 戈1韻*ba]
- 5) skr/ㄱ리/塞訖哩_[三合]/8 [Q;3, D;5] [塞(聲母):心母*s][訖(聲母):見母*k][哩:*?]
- 6) sva-pna/쌔나/娑嚩_[三合]跋曷_[二合]/1 [Q;1] [娑(聲母):心母*s][嚩:*?][跋(聲母):幫母*p][曷泥母 唐1韻*nan]

위의 예30에서 먼저 1)번~2)번의 범자 음절을 보면 ‘styā, strā’ 즉 ‘s+C+y’, ‘s+C+r’의 삼중 복자음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s’를 제외하면 1)번 범자는 ‘tyā’가 되며 한글의 일반표기에 따르면 ‘다’가 된다. ‘s+tyā’의 결합으로 ‘ㅅ+다’가 되어 ‘ㅅ다’로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2)번 범자는 ‘s’를 제외하면 ‘trā’가 되고 일반표기에 따르면 ‘드라’가 되고 ‘ㅅ’와 결합하여 ‘ㅅ드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반드시 ‘ㅅ’ 합용병서가 자음군으로 발음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들의 한자 표기를 보면 ‘娑底也_[三合], 薩怛囉_[三合]’ 즉 삼합의 3음절 표기로 되어 있다. 이는 三重 복자음의 범자는 1음절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는 3개의 글자이므로 ‘삼합’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두 음절은 모두 聲母만 대응하여 ‘s/娑(聲母), t/底(聲母), ya/也’와 ‘s/薩(聲母), t/怛(聲母), ra/囉’가 된다. 이들을 범-한-중의 대응으로 보려면 한글을 더욱 세분화하

여야 하며 ‘s/ㅅ/娑(聲母), t/ㄷ/底(聲母), ya/야/也’와 ‘s/ㅅ/薩(聲母), t/ㄷ/怛(聲母), ra/라/囉’가 된다.

3)번~4)번 예의 범자 음절은 모두 ‘sti-rbha’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 범자는 ‘s+C’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범자는 ‘r+C’류 복자음이다. 이에 한글은 모두 ‘셀바’로 표기되어 있어 첫 번째 복자음을 합용병서 ‘ㄷ’로 표기하였고, 두 번째 복자음의 ‘r’ 자음을 ‘-ㄹ’ 종성자음과 대응시켰다. 이에 한자는 각각 ‘娑底_[二合]囉婆_[二合]’, ‘悉底_[二合]囉婆_[二合]’로 두 개의 二합 표기를 사용한다. 이 두 표기는 비록 첫 번째 한자 ‘娑’와 ‘悉’의 차이가 있지만 聲母만 대응에 참여하고 모두 心母 *s에 속하므로 사실은 같은 표기에 속한다. 한글은 합용병서를 사용하여 2개의 음절로도 표기가 가능하지만, 한자는 4개의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한글 표기가 한자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범-한-중 대응은 ‘s/ㅅ/娑(聲母), ti/디/底, -r/-ㄹ/囉(聲母), bha/바/婆’이다.

5)번의 범자 음절은 ‘skr’ 즉 ‘s+C’류 복자음과 마다 ‘r’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은 ‘ㄷ리’로 표기되어 있다. 마다 ‘r’는 음절 결합에서 모음의 역할을 하며 범자 ‘skr’는 1음절로 한자는 ‘塞訖哩_[三合]’ 즉 三合 3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ㅅ/塞(聲母), k/ㄱ/訖(聲母), r/리/哩’가 된다.

마지막으로 6)번의 범자를 보면 ‘sva-pna’로 두 개의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되어 있다. ‘C+제2자음’류 복자음의 일반적인 표기에 의하면 ‘sva’는 ‘스바/스바’로 표기하여야 하고, ‘pna’는 ‘브나’로 표기하여야 한다. 한자 역시 일반 표기에 따라 두 개의 ‘二합’인 ‘娑嚩_[二合]跋囊_[二合]’으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글 표기는 ‘쌌나’ 즉 ‘제1자음+C’류 복자음의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ㄷ’ 종성자음은 두 번째 범자 음절의 자음 ‘p’와 대응한다. 물론 이러한 표기는 ‘ㄹ’ 모음 추가법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들의 범-한-중 음절은 ‘s/ㅅ/娑(聲母), va/바/嚩, -p/-ㄷ/跋(聲母), na/나/囊’가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같은 유형의 범자 음절이지만 서로 다른 한글 표기법이 사용된 예도 있다.

예31

1) ska-nda/스간나/塞_{二合}娜/1 [D:1] [塞(聲母)¹³²:心母*s][審見母 仙B韻*kuɿen][娜泥母 歌1韻*na]

2) ska-nda/스건나/塞_{二合}娜/1 [D:1] [塞(聲母):心母*s]審見母 仙B韻*kuɿen][娜泥母 歌1韻*na]

위의 예31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ska-nda’로 첫 음절은 ‘s+C’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n+C’류 복자음이다. 첫 번째 음절의 ‘s+C’류 복자음은 앞선 고찰의 일반적인 표기에 따르면 한글은 마땅히 ‘ㅅ’계 합용병서가 나타나야 하지만 5)번 ‘스간나’, 6)번 ‘스건나’로 ‘ㅇ’ 첨가의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표기는 일반적인 표기를 따라 ‘-ㄴ’ 종성자음이 대응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범자 ‘ka-n’에 대응하는 한글이 하나는 ‘간’, 다른 하나는 ‘건’이라는 점이다. 한자는 모두 ‘塞_{二合}娜’로 되어 있어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5)번 ‘s/ㅅ/塞(聲母), ka-n/간/審, da/나/娜’, 6)번 ‘s/ㅅ/塞(聲母), ka-n/건/審, da/나/娜’가 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단자음 음절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s/ㅅ/娑(聲母)/3, s/ㅅ/薩(聲母)/2, s/ㅅ/悉(聲母)/1, t/ㄷ/底(聲母)/1 <‘ㅇ’음절> s/ㅅ/塞(聲母)/10, k/ㄱ/訖(聲母)/8, t/ㄷ/怛(聲母)/2 <종성자음> -r/-ㄹ/囉(聲母)/2, -p/-ㅂ/跛(聲母)/1

【개음절】 da/나/娜/2, na/나/囊/1, bha/마/婆/2, va/마/嘩/1, ya/야/也/1, ra/라/囉/2, ti/디/底/2, ri/리/哩/8

【폐음절】 ka-n/간/審/1, ka-n/건/審/1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와 <‘ㅇ’음절> 표기에서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k/ㄱ/見(*k)/8, s/ㅅ/心(*s)/16, t/ㄷ/端(*t)/3’가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에 ‘-r/-ㄹ/囉(*?)/2’가 있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d/ㄴ/泥(*n)/2, n/ㄴ/泥(*n)/1, bh/ㅂ/并(*b)/2, v/ㅂ/嚙(*?)/1, y/ㅇ/以(*j)/1, r/ㄹ/囉(*?)/2, t/ㄷ/端(*t)/2, ri/리/哩(*?)/8’, 중성의 대응은 ‘a/아/歌1(*a)/2, a/아/戈1(*a)/4, a/아/唐1(*aŋ)/1’로

132) “塞”는 중고음에서 心母 哈1韻*səi와 心母 德1韻*s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모만 취하므로 어느 음가든 상관없다.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 역시 초성의 대응인 ‘k/ㄱ/見(*k)/2’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중성의 대응에서 ‘a/아/仙B(*ɰiɛn)/1’와 ‘a/어/仙B(*ɰiɛn)/1’가 있는데 범자 ‘a’ 모음에 대응하는 한글 중성이 ‘아’ 혹은 ‘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 설명은 본고 제5장의 5.2.2.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 중성의 대응으로 ‘-n/-ㄴ/仙B(*ɰiɛn)/2, -p/-ㅂ/幫(*p)/1’가 있다.

4.2.4.3 제1자음 ‘ʃ’류 (1)

다음은 제1자음이 ‘ʃ’인 복자음을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32

- 1) ʃta/ㅈ타/瑟吒_[二合]/22 [G;1, Q;9; D;11, F;2]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ɬya]
- 2) ʃta/ㅈ타/瑟姹_[二合]/1 [D;1] [瑟(聲母):生母*ʃ][姹:徹母 麻2韻*ɬya]
- 3) ʃti/ㅈ티/瑟恥_[二合]/3 [Q;3] [瑟(聲母):生母*ʃ][恥:徹母 之3韻*ɬi]
- 4) ʃti/ㅈ티/瑟耻_[二合]/3 [D;3] [瑟(聲母):生母*ʃ][耻:徹母 之3韻*ɬi]
- 5) ʃtai/ㅈ타이/瑟𪚩_[二合]/1 [D;1] [瑟(聲母):生母*ʃ][𪚩:*?]
- 6) ʃtha/ㅈ타/瑟吒_[二合]/2 [S;1, G;1]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ɬya]
- 7) ʃthi/ㅈ타/瑟底_[二合]/5 [F;5] [瑟(聲母):生母*ʃ][底:端母 齊4韻*tei]
- 8) ʃni/ㅈ니/瑟拏_[二合]/9 [D;8, F;1] [瑟(聲母):生母*ʃ][拏:娘母 支3韻*ɳiɛ]
- 9) ʃpa/ㅈ파/漚跛_[二合]/1 [D;1] [漚(聲母):生母*ʃ][跛¹³³:幫母 戈1韻*pa]
- 10) ʃtra/ㅈ트라/瑟吒囉_[三合]/1 [Q;1]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ɬya][囉:*?]
- 11) ʃpre/ㅈ레/漚必𪚩_[三合]/1 [D;1] [漚(聲母):生母*ʃ][必(聲母):幫母*p][𪚩:*?]

위의 예32에서 1)번~5)번의 범자는 ‘ʃta, ʃti, ʃtai’이고, 6)번~7)번의 범자는 ‘ʃtha, ʃthi’인데 이들 복자음의 차이는 유기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ʃ’의 후행자음이 ‘t’이고 다른 하나는 ‘th’이다. 한글 표기는 1)번~2)번에서는 ‘ㅈ타’, 3)번~4)번에서는 ‘ㅈ티’, 5)번에서는 ‘ㅈ타이’로 하였다. 모두 같은

133) ‘跛’는 중고음에서 幫母 戈1韻*pa와 幫母 支B韻*ɰiɛ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st-’의 복자음이지만 ‘st’ 혹은 ‘st’ 두 가지 합용병서 표기가 보인다. 그런데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는 ‘st’의 합용병서 표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비교적 특이한 표기이다. ‘st’와 함께 같은 범자 ‘st-’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성적으로 이 두 음이 서로 매우 유사하였을 것이다. 6)번~7)번을 보면 범자 ‘sth-’에 대해 한글이 ‘씨, 씨’로 대응하는데, 합용병서 ‘st’이 사용되었다. 즉 ‘t’가 ‘th’와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분석은 제5장의 5.2.1.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한자 표기를 보면 1)번~5)번에서 ‘st-’의 ‘t’ 대응에 1)번은 知母 *t, 2)번~4)번은 徹母 *th를 사용하고 있다. 1)번 예의 출현 횟수가 22회로 제일 많아 일반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徹母는 유기음 자모로 음가의 차이가 있어 예외이긴 하지만 7회가 되고 ‘姦, 恥(耻)’ 등 여러 글자로 나타나므로 단순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6)번~7)번을 보면 복자음 ‘sth-’에서 ‘th’의 대응에 한자가 知母 *t 혹은 端母 *t를 사용하고 있다. 端母는 한자 운모의 대응과의 결합에 의한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예외로 처리해야 한다. 知母 *t는 범자 ‘th’의 표기에도 사용된다. 전반적으로 ‘t’ 대응에 知母 *t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대응이라 할 수 있겠지만, ‘t’와 ‘th’의 유기성 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8)번의 범자는 ‘sni’이고 한글은 ‘씨’로 되어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st’의 합용병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기가 아니다. ‘싸히’의 용례 1개가 보일 뿐이다. 하지만 진언 표기는 외국어 표기이기 때문에 ‘st’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9)번의 범자는 ‘spa’이고 한글은 ‘싸’로 되어있다. 앞서 4.1.3절에서의 ‘C+v’류 복자음의 한글 표기에서, ‘sva’가 대부분 ‘스바, 스바’로 표기되지만 일부 ‘싸’의 표기도 있음을 보았다. 범자 ‘spa’와 ‘sva’는 형태도 음가도 비슷하지만 복자음 유형이 다르다. 전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이고, 후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이다. 전자의 복자음류의 일반표기는 합용병서 표기이고, 후자 복자음류의 일반표기는 ‘으’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다. 하지만 텍스트 전반에서 범자 ‘spa’의 출현률은 매우 낮고, 반대로 ‘sva’의 출현률은 매우 높다. 음가의 유사성과 합용병서 표기의 경제성 등 때문에 ‘sva’의 한글 표기에 ‘싸’의 예외 표기가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0)번~11)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ʃtra, ʃpre’로 되어 있고 모두 ‘s+C+r’의 삼중 복자음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첫 두 자음을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 사이에 ‘ㄹ’ 모음을 첨가하면서 ‘샤라, 섹레’로 표기하여 2음절로 나타난다. 한자는 ‘瑟吒囉_[三合], 澀必嚧_[三合]’의 三습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중 복자음의 범자 음절이 1음절이며 1음절 범자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가 3개이므로 三습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세분화하여 보면 ‘ㄷ/ʃt, 라/ra’와 ‘샤/ʃp, 레/re’이다. 이들의 범자와의 대응은 ‘ʃ/ㄷ/瑟(聲母), t/ㄷ/吒(聲母), ra/라/囉’와 ‘ʃ/ㄷ/澀(聲母), p/ㄷ/必(聲母), re/레/嚧’이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ʃ/ㄷ/瑟/44, ʃ/ㄷ/澀/2 <‘ㄹ’음절> t/ㄷ/吒/1, p/ㅍ/必/1

【개음절】 ʃa/다/吒/22, ʃa/다/蛇/1, ʃai/디/嚧/1, ʃha/다/吒/2, ʃhi/디/底/5, ɳi/니/捫/9, pa/바/跛/1, ra/라/囉/1, re/레/嚧/1

위의 ‘자음음절’에서의 한글 초성의 대응은 ‘ʃ/ㄷ/生(*f)/46, t/ㄷ/知(*t)/1, p/ㅍ/幫(*p)/1’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t/ㄷ/知(*t)/22, ɳ/ㄴ/娘(*ɳ)/9, p/ㅍ/幫(*p)/1, r/ㄹ/囉(*r)/1, r/ㄹ/嚧(*r)/1’ 등으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t, th’에 있어 보다 혼란스러운 예들이 있는데 즉 ‘t/ㄷ/徹(*th)/1’은 범자와 한글은 무기음이지만 한자는 유기음이고, ‘th/ㄷ/知(*t)/2’는 한글과 한자는 무기음이지만 범자는 유기음이다. 이외 ‘th/ㄷ/端(*t)/5’가 있는데 권설음 범자 대응의 한자는 마땅히 知系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端系 글자가 쓰이는 것이다. 이는 한자 운모와 결합에서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범자와 한글만 보아도 범자는 유기음이지만 한글은 무기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글의 ‘ㄷ’는 범자와 한자의 유기성과 무기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개음절’의 모음의 대응 가운데 한자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과 통계에 무의미한 예를 제외하면 ‘a/아/戈1(*a)/1, i/이/支3(*iE)/9’이다. 이 또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4.4 제1자음 ‘ʃ’류 (2)

다음은 여전히 제1자음이 ‘ʃ’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이지만 기타 표기의 예이다.

예33

- 1) ʃda/스나/瑟拏_[二合]/1 [D;1] [瑟(聲母):生母*ʃ][拏:娘母 麻2韻*ŋɤa]
- 2) ʃni/스니/瑟拏_[二合]/1 [D;1] [瑟(聲母):生母*ʃ][拏:娘母 支3韻*ŋiɛ]
- 3) kɾ-ʃna/ㄴ릿나/訖哩_[二合]瑟拏_[二合]/1 [S;1] [訖(聲母):見母*k][哩:*ʔ][瑟(聲母):生母*ʃ]
[拏:娘母 麻2韻*ŋɤa]
- 4) vi-ʃno/밋노/尾瑟努_[二合]/1 [Q;1] [尾:明母 微3韻*miɪ][瑟(聲母):生母*ʃ][努:泥母 模1韻*no]
- 5) pu-ʃti/붓티/補瑟置_[二合]/1 [Q;1] [補:幫母 模1韻*po][瑟(聲母):生母*ʃ][置:知母 之3韻*ti]

위의 예33에서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범자의 복자음 음절을 보면 ‘ʃda, ʃni, ʃna, ʃno, ʃti’가 있는데 이에 한글 표기는 ‘스나, 스니, (ㄴ)릿나, 밋노, 붓티’로 되어 있다. 즉 1)번~2)번은 ‘ㅇ’ 모음 첨가의 표기방법을 사용하였고, 3)번~5)번은 ‘-ㄴ’ 종성자음으로 범자 자음 ‘ʃ’를 표기하였다. 한자 표기는 앞서 예32의 일반 표기와 일치한다. 예32에서 한글의 일반 표기는 즉 제1자음이 ‘ʃ’일 경우 ‘ㄴ’계 합용병서로 표기한다. 즉 여기서 한글의 표기는 기타 표기법과 혼용한 예가 된다.

위의 예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 단위의 대응으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ti/티/置/1, na/나/拏/1, ni/니/拏/1, no/노/努/1, da/나/拏/1, pu/보/補/1, vi/미/尾/1

【자음음절】 <‘ㅇ’음절> k/ㄴ/訖/1, ʃ/스/瑟/2 <‘리’음절> r/리/哩/1 <종성자음> -ʃ/-ㄴ/瑟(聲母)/3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知(*t)/1, n/ㄴ/娘(*n)/1, p/ㅍ/幫(*p)/1, v/ㅍ/明(*m)/1’, 중성모음의 대응은 ‘i/이/支3(*iɛ)/1, i/이/之3(*i)/1, o/오/模1(*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ʃ/ㅅ/生(*f)/2, r/리/哩(*?)’이고 종성자음의 대응은 ‘-ʃ/-ㅅ/生(*f)/3’이다.

4.2.4.5 제1자음 ‘s’류

다음은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의 예이다.

예34

- 1) ʃpai/스베/澀閉[二合]/1 [D;1] [澀(聲母):生母*ʃ][閉¹³⁴]:幫母 齊4韻*pei]
- 2) sci/시지/室旨[二合]/1 [D;1] [室(聲母):書母*ɕ][旨:章母 脂3韻*tei]

위의 예34에서 1)번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은 ‘ʃpai’인데 제1자음이 ‘s’ 자음이다. 일반대응에 의하면 범자 자음 ‘s’ 대응에 마땅히 한글은 ‘시’, 한자 자모는 書母가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글은 ‘ㅅ’, 한자는 生母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대응에서 범자 ‘s’와 대응한다. 즉 범자의 제1자음 ‘s’는 ‘ʃ’의 잘못된 전승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중국어 번역에서 ‘s’를 청각적으로 ‘ʃ’로 판단하여 잘못 번역하여 한글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번의 범자는 ‘sci’로 제1자음이 ‘s’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글 자음은 ‘시’, 한자는 書母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에 따르면 일반대응에서의 범자 자음은 마땅히 ‘s’이어야 한다. 즉 제1자음이 비록 ‘s’이지만 실제로는 ‘ʃ’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범자 제1자음의 대응은 모두 예외가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ㄱ’음절> ➤ʃ/스/澀(聲母)/1, ➤s/시/室(聲母)/1

【개음절】 pai/베/閉/1, ci/지/旨/1

위의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모두 예외대응이다. ‘개음절’을 보

134) ‘閉’는 중고음에서 幫母 齊4韻*pei와 幫母 屑4韻*pe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면 초성자음의 대응에서의 ‘p/ㅍ/幫(*p)/1, c/ㅈ/章(*tɕ)/1’이, 중성모음의 대응에서의 ‘i/이/脂3(*i)/1’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일부 ‘ai/예/齊4(*ei)/1’의 기본 개음절에서도 이와 같은 대응이 있긴 하지만 ‘ai’ 대응의 한글 ‘예’ 모음 표기는 대부분 한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대응에서 한자 齊4韻이 대응하는 범자 모음은 ‘e’이므로 ‘ai’는 예외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의 ‘예’는 齊4韻의 영향을 받아서 범자 ‘e’ 모음 표기에 사용하는 ‘예’가 표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기의 비율이 낮지 않은데 이는 범자 모음 ‘e’가 長音이고 ‘ai’가 ‘e’와 상대적으로 장단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음성적인 차이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2.5 제1자음 ‘k’류

4.2.5.1 표기 유형 (1)

제1자음이 ‘k’류인 복자음 가운데 먼저 ‘kɕ-’류 자음에 대해 보겠다. ‘kɕ-’는 형태적으로 보아 ‘제1자음+C’류의 복자음으로 분류가 된다. ‘kɕ-’는 기타 복자음에 비하여 출현률이 비교적 높다.

예35

- 1) kɕa/ㄱ사/乞灑_[二合]/12 [D;12] [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2) ra-kɕa/락사/囉乞灑_[二合]/6 [D;6] [囉:*?][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3) ra-kɕa/락사/囉乞察_[二合]/3 [D;3] [囉:*?][乞(聲母):>溪母*kh][察:>初母 鎋2韻*tɕhyæt]
- 4) ra-kɕa/락사/囉葛叉_[二合]/1 [S;1] [囉:*?][葛(聲母):見母*k][叉¹³⁵):>初母 麻2韻*tɕhyɑ]
- 5) ri-kɕa/릭사/哩乞灑_[二合]/1 [D;1] [哩:*?][乞(聲母):>溪母*kh][灑:生母 佳2韻*fɿɛ]
- 6) na-kɕa/낙사/諾乞察_[二合]/2 [D;2] [諾泥母 鐸1韻*nak][乞(聲母):>溪母*kh][察:>初母 鎋2韻*tɕhyæt]
- 7) bha-kɕa/박사/薄乞灑_[二合]/1 [D;1] [薄:并母 鐸1韻*b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8) pa-kɕa/박사/薄乞灑_[二合]/1 [Q;1] [薄:>并母 鐸1韻*b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9) ya-kɕa/약사/藥乞灑_[二合]/3 [D;3] [以母 藥3韻*ji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10) sra-kɕa/스락사/娑囉乞灑_[二合]/1 [G;1] [娑(聲母):心母*s][囉:*?][乞(聲母):>溪母*kh]

135) “叉”은 중고음에서 初母 麻2韻*tɕhyɑ과 初母 佳2韻*tɕhyɛ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灑:生母 麻2韻*fya]

위의 예35에서 1)번 예는 ‘kṣa’ 1개의 범자 음절인 반면, 2)번~10)번은 ‘ra-kṣa, ri-kṣa, na-kṣa, bha-kṣa, pa-kṣa, ya-kṣa, sra-kṣa’ 등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한글 표기를 보면 1)번에서는 ‘ㄱ사’ 등 ‘으’ 모음이 첨가 되는 표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2)번에서는 ‘-ㄱ’ 종성자음으로 제1자음 ‘k’를 대응시키고 있다. 한자는 차이 없이 모두 ‘二合’으로 표기된다. 다만 범자 ‘k’가 중복 표기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번~5)번 첫 번째 한자는 ‘囉, 哩’ 등 음성운 글자이고, 6)번~9)번의 첫 번째 한자는 ‘諾, 薄’ 등 입성운 글자이다. 입성운 글자의 자음운미 *-k는 후행하는 한자 ‘乞’의 성모와 함께 범자 ‘k’를 중복 표기한다. 10)번에서 범자는 ‘sra-kṣa’로 첫 음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이 ‘제1자음+C’류 복자음이다. 이에 한글은 ‘스락사’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들의 범-한-중의 대응은 ‘s/스/娑(聲母), ra/라/囉, -k/-ㄱ/乞(聲母), ṣa/사/灑’로 된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na/나/諾/2, pa/바/薄/1, bha/바/薄/1, ṣa/사/灑/24, ṣa/사/察/5, ṣa/사/叉/1, ṣa/사/灑/1, ya/야/藥/3, ra/라/囉/11, ri/리/哩/1

【자음음절】 <초성자음> k/ㄱ/乞(聲母)/12, s/스/娑(聲母)/1 <종성자음> -k/-ㄱ/乞(聲母)/18, -k/-ㄱ/葛(聲母)/1

먼저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을 보면 ‘n/ㄴ/泥(*n)/2, bh/ㅃ/并(*b)/1, ṣ/ㅅ/生(*ṣ)/25, y/이/以(*j)/3, r/ㄹ/囉(*r)/11, r/리/哩(*r)/1’이 있는데 일반 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종성 모음의 대응의 경우,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서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면 ‘a/아/鐸1(*ak)/4’만 유효하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을 보면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s/ㅅ/心(*s)/1’이 있으며 종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이 있다.

4.2.5.2 표기 유형 (2)

다음은 제1자음이 ‘k’류 복자음이지만 ‘kʃ-’가 아닌 기타 범자 음절에 대해 보겠다.

예36

- 1) yu-kdha/욕다/欲馱/1 [S;1] [欲:以母 燭3韻*jiɔk][馱:定母 歌1韻*da]
- 2) mu-hta/목다/目哆/1 [S;1] [目:明母 屋3韻*miuk][哆:端母 歌1韻*ta]
- 3) ka-kku/궁구/兢矩/1 [G;1] [兢:見母 蒸3韻*kiŋ][矩:見母 虞3韻*kiɔ]
- 4) ʃi-kte/식테/色訖帝_[二合]/3 [Q;3] [色:生母 職3韻*ʃɥiɔk][訖(聲母):見母*k]
[帝:端母 齊4韻*tei]
- 5) mya-kga/막아/藐藁/1 [D;1] [藐:明母 覺2韻*myɔk][藁:疑母 薛B韻*ŋɥiet]
- 6) mya-kpra/막뻬라/藐鉢囉_[二合]/1 [D;1] [藐:明母 覺2韻*myɔk][鉢(聲母):幫母*p][囉:*ʔ]

위의 예36에서 1)번~2)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yu-kdha, mu-hta’로 되어 있고 한글은 ‘욕다, 목다’로 ‘-ㄱ’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 ‘k’와 대응하고 있다. 한자 표기는 ‘欲馱, 目哆’이고 첫 글자는 ‘欲, 目’으로 모두 *-k 자음운미가 있고 범자의 복자음 제1자음 ‘k’를 표기한다.

3)번의 범자는 ‘ka-kku’이고 한글은 ‘궁구’로 되어 있다. 한글의 ‘-ㅇ’ 종성자음이 범자 자음 ‘k’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k’의 대응의 경우는 마땅히 ‘극’이 되어야 하는데 ‘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兢 見母 蒸3韻 *kiŋ’으로 되어 있다. 즉 한글의 ‘-ㅇ’ 종성자음은 한자의 자음운미 *-ŋ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자는 무엇 때문에 ‘-k’ 자음을 *-ŋ으로 번역하였을까. 이는 중국어번역에서 청각적으로 범자 ‘kku’의 첫 자음 ‘k’가 후행 자음 ‘k’의 영향에 의하여 이화되어 ‘ŋ’으로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4)번의 범자는 ‘ʃi-kte’이며 한글은 ‘식테’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범자 ‘i’ 모음에 대하여 한글 중성이 ‘이’로 대응되어 있다. 한자는 ‘色訖帝_[二合]’로 되어 있으며 ‘色’의 자음운미 *-k와 ‘訖(聲母)’가 범자 자음 ‘k’가 중복 표기되어 있다. ‘色’의 중세한국어 한자음이 ‘식’이므로 한글의 ‘이’ 모음은 한국 한자음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중성모음 ‘이’와 범자 ‘i’의 대응은 예외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5)번~6)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mya-kga, mya-kpra’로 되어 있다. 이들의 첫 번째 음절은 모두 ‘C+제2자음’류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5)번이 ‘제1자음+C’류 복자음이며, 6)번은 ‘k+C+r’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보면 5)번은 ‘mya-k/막/藐, ga/아/藁’이고, 6)번은 ‘mya-k/막/藐, p/ㅍ/鉢, ra/라囉’이다.

다음은 기타 일부 특이한 대응의 표기 예이다.

예37

- 1) mu-hta/목다/穆訖_[二合]得多_[二合]/2 [D;2] [穆:明母 屋3韻*miuk][訖(聲母):見母*k][得(聲母):端母*t][多(韻母):歌1韻*a]
- 2) mu-kha/목카/目佉/2 [S;2] [目:明母 屋3韻*miuk][佉:溪母 戈3韻*khia]
- 3) du-ke/눅케/耨契/1 [Q;1] [耨:泥母 沃1韻*nok][契:溪母 齊4韻*khei]
- 4) mu-ke/목케/穆企/1 [Q;1] [穆:明母 屋3韻*miuk][企:溪母 支B韻*khuiē]

위의 예37에서 1)번을 보면 범자는 ‘mu-hta’로 되어 있고 한글은 ‘목다’로, 앞선 예36의 2)번 예와 같다. 즉 한글의 ‘-ㄱ’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 ‘k’와 대응된다. 하지만 한자 표기의 경우, 예36의 2)번에서 한자는 ‘目哆’이지만 여기에서는 2개의 ‘二合’ 즉 ‘穆訖_[二合]得多_[二合]’로 되어 있다. ‘二合’은 하나의 범자 음절을 표기하는 것으로 마땅히 ‘mu/穆訖_[二合], hta/得多_[二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음가대응으로 보면 ‘訖’은 범자 ‘k’와 대응해야 하고, ‘得’은 ‘t’와, ‘多’는 ‘a’와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범-한-중으로 대응을 시키면 ‘mu/모/穆, -k/-ㄱ/訖(聲母), t/ㄷ/得(聲母), a/아/多(韻母)’가 된다. 이와 같이 한자가 극히 비경제인 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산스크리트 원어의 범자 텍스트가 원래는 이 보다 복잡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2)번~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차례대로 ‘mu-kha, du-ke, mu-ke’로 되어 있다. 모두 2개의 기본 개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복자음이 없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목카, 눅케, 목케’로, 첫 음절에 모두 ‘-ㄱ’ 종성자음이 있어 복자음의 대응으로 반영된다. 이들의 한자를 보면 ‘目佉, 耨契, 穆企’이므로 이것들은 첫 글자가 모두 *-k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들인데, 한자

에서도 한글과 같이 중복 표기가 되어 있다.

한글 ‘-ㄱ’ 종성자음의 후행 자음은 모두 ‘ㄱ’자음으로 되어 있다. 한자의 두 번째 글자는 모두 溪母 *kh이다. 이들이 표기하는 범자 자음은 마땅히 ‘kkh-’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범자 음절은 복자음이 없고 2)번의 두 번째 음절의 자음은 ‘kh’이고, 3)번~4)번은 ‘k’이다. 이는 범자 텍스트의 전송과정에서의 오류이거나 혹은 중국어 번역을 진행할 당시 음성적으로 ‘k’ 혹은 ‘h’ 자음이 첨가되어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h’자음은 폐음절에 나타나며 ‘-ㄱ’ 종성자음과 *-k 자음운미와 대응하기도 하고 두 음절 사이에 첨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첨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4.3.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별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음절】 a/아/多(韻母)/2, kha/카/佉/2, ga/아/藪/1, ta/다/哆/1, dha/다/駄/1, ra/라/囉/1, ㄱke/케/契/2, ㄱke/케/企/1, te/테/帝/3, ku/구/矩/1, mu/모/穆/2

【폐음절】 ka-k/ㄱ궁/兢/1, ʃi-k/ㄱ식/色/3, mu-k/목/目/1, yu-k/욕/欲/1, mya-k/ㄱ막/藐¹³⁶⁾/2, mu-(k)/목/目/2, mu-(k)/목/穆/1, du-(k)/눅/耨/2

【자음음절】 <종성자음> -k/-ㄱ/訖(聲母)/5 <초성자음> t/ㄷ/得(聲母)/2 <‘ㄹ’음절> p/ㄹ/鉢(聲母)/1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 kh/ㄱ/溪(*k)/2, g/ㅇ/疑(*ŋ)/1, t/ㄷ/端(*t)/4, dh/ㄷ/定(*d)/1, m/ㅁ/明(*m)/2’가 있는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 모음의 대응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면 ‘a/아/歌1(*a)/3, e/예/齊4(*ei)/5, e/예/支B(*wiɛ)/1, u/우/虞3(*iʊ)/1, u/오/屋3(*iuk)/2’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폐음절’에서도 초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 d/ㄴ/泥(*n)/2, m/ㅁ/明(*m)/6, ʃ/ㅅ/生(*f)/3, y/이/以(*j)/1’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응으로는 ‘a/으/蒸3(*iŋ)/1, u/오/屋3(*iuk)/4, u/오/燭3(*iʊk)/1, u/오/沃1(*ok)/2’가 있는데 특히 범자 ‘a’ 모음에 한글 모음의 ‘으’가 대응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예외라 보기 어렵다. 상세한 설명은 제5장의 5.1.2.1

136) “藐”은 중고음에서 明母 覺2韻 *mɣɔk와 明母 宵A韻 *miɛu와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에는 ‘-k/-ㄱ/職3(*-k)/3, -k/-ㄱ/屋3(*-k)/1, -k/-ㄱ/燭3(*-k)/1, -k/-ㄱ/覺2(*-k)/2’가 있다.

이외에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t/ㄷ/端(*t)/2, p/ㅍ/幫(*p)/1’이 있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k/-ㄱ/見(*k)/5’가 있다.

4.2.6 제1자음 ‘m’류

다음은 제1자음이 ‘m’인 복자음의 예를 보겠다.

예38

- 1) ku-mbha-nda/굽반나/噤畔拏/2 [D:2] [噤*?][畔:并母 桓1韻*ban][拏>娘母 麻2韻*ŋa]
- 2) ku-mbha-nda/굽반나/矩畔拏/1 [D:1] [矩群母 虞3韻*giö][畔:并母 桓1韻*ban][拏>娘母 麻2韻*ŋa]
- 3) ku-mbha-nde/굽반네/噤畔妳/1 [D:1][噤*?][畔:并母 桓1韻*ban][妳¹³⁷:泥母 齊4韻*nei]
- 4) ku-mbha-nde/구반네/矩畔妳/1 [Q:1] [矩群母 虞3韻*giö][畔:并母 桓1韻*ban][妳¹³⁸:泥母 齊4韻*nei]
- 5) sta-mbha/쌈바/娑擔_{二合}婆/2 [D:2] [娑(聲母):心母*s][擔端母 談1韻*tam][婆:并母 戈1韻*ba]
- 6) sta-mbha/쌈바/娑擔_{二合}婆/2 [D:2] [娑(聲母):心母*s][擔端母 談1韻*tam][婆:并母 戈1韻*ba]

위의 예38에서 1)번~2)번의 범자 음절은 ‘ku-mbha-nda’이고, 3)번~4)번의 범자 음절은 ‘ku-mbha-nde’로 모두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이중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이 ‘m’인 복자음을 가진다. 이들의 한글 표기는 1)번~2)번은 ‘굽반나’이고 3)번은 ‘굽반네’, 4)번은 ‘구반네’이다. 1)번~3)번의 첫 음절 ‘-ㄱ’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m’와 대응한다. 하지만 4)번의 범자에도 ‘-m’ 자음이 있지만 한글 표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한자 표기를 보면 1)번 ‘噤畔拏’, 2)번 ‘矩畔拏’, 3)번 ‘噤畔妳’, 4)번 ‘矩畔妳’이다. 1)번과 3)번의 첫 글자 ‘噤’는 범자 ‘ku-m’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造字이다. 부수 ‘口’를 제외한, ‘禁 見母 侵B韻 *kuɿm’을 보면

137)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nei와 娘母 佳2韻*ŋɤ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138)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nei와 娘母 佳2韻*ŋɤ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ku-m’와 음가가 비슷하지만 開口이므로 이를 造字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본을 보면 ‘噤’아래에 ‘句字合口’란 작은 글씨의 주석이 달려있기도 한다. 2)번과 4)번의 첫 번째 한자 ‘矩’는 자음운미가 없는 陰聲韻 글자인데 범자 ‘ku-m’에 대응하는 한자를 찾을 수 없어 임시로 ‘ku’의 글자로 대체 하고 ‘-m’의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번의 한글은 ‘굼’으로 음성운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범자를 따라 ‘-m’을 반영한 것이고, 4)번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m’를 반영하지 못하고 ‘구’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 5)번~6)번은 모두 ‘sta-mbha’의 2개 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 모두 ‘제1자음+C’류 복자음에 속한다. 다만 첫 번째 음절의 제1자음은 ‘s’이고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은 ‘m’이다. 이에 대하여 한글은 제1자음 ‘s’의 일반 표기 즉 합용병서 표기를 적용하는 동시에 제1자음 ‘m’ 표기에서 사용되는 ‘-ㅁ’ 중성자음 표기와 결합하여 ‘쌈바’로 되어 있다. 이들의 한자는 ‘娑膽[二合]婆, 娑擔[二合]婆’로 두 번째 글자에 ‘膽’와 ‘擔’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da/나/拏/3, bha/바/婆/4, de/네/妳/2, ku/구/矩/1

【폐음절】 ta-m/담/膽/2, ta-m/담/擔/2, bha-ᅵ/반/畔/5, ku-m/굼/噤/3, ku-m/굼/矩/1

【자음음절】 <초성자음> s/ㅅ/娑(聲母)/4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bh/ㅂ/并(*b)/4, d/ㄴ/泥(*n)/2, k/ㄱ/見(*k)/1’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중성모음의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면 ‘a/아/戈1(*a)/4, e/예/齊4(*ei)/2, u/우/虞3(*iö)/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도 ‘k/ㄱ/見(*k)/1, k/ㄱ/噤(*?)/3, t/ㄷ/端(*t)/4, bh/ㅂ/并(*b)/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모음의 대응은 ‘a/아/談1(*am)/4, a/아/桓1(*an)/5, u/우/噤(*?)/3, u/우/虞3(*iö)/1’이고 중성자음의 대응은 ‘-m/-ㅁ/談1(*-m)/4, -m/-ㅁ/噤(*?)/3, -ᅵ/-ㄴ/桓1(*-n)/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s/ㅅ/心(*s)/4’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3 복자음 閉音節의 표기

4.3.1 ‘-m’류

4.3.1.1 표기 유형 (1)

본 절은 ‘-m’류 복자음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한글 표기법에 따라 ‘ㅇ’ 모음 첨가법, 1음절 표기법, 종성자음 표기법등이 규칙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예들을 먼저 보겠다.

예39

- 1) ghram/ㄱ람/伽覽_[二合]/1 [G;1] [伽(聲母):群母*g][覽:??]
- 2) tram/ㄷ람/怛檻_[二合]/4 [D;4] [怛(聲母):端母*t][檻:??]
- 3) tram/ㄷ람/怛檻_[二合]/2 [D;2] [怛(聲母):端母*t][檻:??]
- 4) trum/ㄷ롬/獬魯庵_[三合]/13 [D;13] [獬(聲母):??][魯(聲母):??][庵:??]
- 5) jram/ㄱ람/日檻_[二合]/1 [S;2] [日(聲母):日母*n_r][檻:??]
- 6) dhvam/ㄷ망/馱網_[二合]/4 [D;4] [馱(聲母):定母*d][網:明母 陽3韻*mian]
- 7) dnam/ㄴ맘/娜谿_[二合]/2 [S;2] [娜(聲母):泥母*n][谿:??]
- 8) śmam/스명/濕茗_[二合]/1 [F;1] [濕(聲母):書母*c][茗:明母 青4韻*meŋ]
- 9) hmem/ㅎ명/賀銘_[二合]/1 [Q;1][賀(聲母):匣母*ɦ][銘:明母 青4韻*meŋ]
- 10) jrm/스림/入隴_[二合]/1 [D;1] [入(聲母):日母*n_r][隴:??]
- 11) bhṛm/브렁/敦瞢_[二合]/2 [D;2] [敦(聲母):并母*b][瞢:??]
- 12) kṣam/ㄱ삼/乞鈗_[二合]/1 [D;1] [乞(聲母):>溪母*kh][鈗:生母 銜2韻*ʃyæm]

위의 예39에서 범자음절은 모두 ‘-m’류 폐음절인 동시에 복자음이 있다. 1)번~9)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10)번~11)번은 마다가 ‘-r’인 음절이며 12)번은 ‘kṣ-’의 범자 음절이다. 앞서 개음절에 대한 고찰에서 이들 범자 유형은 모두 ‘ㅇ’ 모음 첨가의 표기법을 사용함을 보았다. 이 중 ‘kṣ-’류 복자음은 ‘ㅇ’ 모음 첨가의 표기법과 종성자음의 표기법 두 가지가 모두 허용되기도 한다. 다만 개음절 복자음과의 차이는, 한글은 ‘-ㅁ’ 혹은 ‘-ㅇ’ 종성자음이 있는 것들이며 한자에는 *-m 혹은 *-ŋ의 자음운미가 있는 글

자들이다. 이들 두 가지 자음의 차이는 산스크리트에서의 ‘m’의 음운변화에 의한 것이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o’음절> k/ㄱ/乞(聲母)/1, gh/ㄱ/伽(聲母)/1, t/ㄷ/怛(聲母)/6, t/ㄷ/納(聲母)/13, d/ㄴ/娜(聲母)/2, dh/ㄷ/駄(聲母)/4, bh/ㅃ/敦(聲母)/2, j/ㄴ/日(聲母)/1, j/ㄴ/入(聲母)/1, ś/ㅅ/濕(聲母)/1, h/ㅎ/賀(聲母)/1, r/ㄹ/嚕(聲母)/13

【폐음절】 mam/ㅁ/𑖦/2, sam/ㅅ/𑖦/1, ram/ㄹ/𑖦/1, ram/ㄹ/𑖦/5, ram/ㄹ/𑖦/2, um/ㅇ/ㄱ/13, rm/ㄹ/𑖦/1, vam/ㅁ/網/4, mam/ㅁ/茗/1, mem/ㅁ/銘/1, rm/ㄹ/𑖦/2

다음은 ‘-m’류 폐음절에서 복자음을 가지는 것이지만 한글은 1음절로 표기된 것들이다.

예40

- 1) tyam/딩/底孕_[二合]/7 [D;7] [底(聲母):端母*t][孕:以母 蒸3韻*jiŋ]
- 2) dyam/님/你琰_[二合]/17 [Q;1 D;16] [你(聲母):娘母*n][琰:以母 鹽3韻*jiem]
- 3) myem/명/銘/2 [S;1, Q;1] [銘(聲母):明母*m][銘(韻母):青4韻*meŋ]
- 4) ştam/쌈/瑟𑖦_[二合]/2 [G;1, Q;1] [瑟(聲母):生母*ʃ][𑖦:*?]
- 5) ştam/쌈/史擔_[二合]/1 [Q;1] [史(聲母):生母*ʃ][擔:端母 談1韻*tam]

위의 예40에서 1)번~3)번의 범자의 복자음은 ‘C+제2자음’류에 속하고 제2자음이 ‘y’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딩, 님, 명’으로 범자 ‘y’ 대응에 상향이 중모음의 활음을 사용하고 있다. 상향이중모음의 활음을 ‘이’로 하여 대응에 표기한 것이다. 다음 4)번~5)번의 범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이며 제1자음이 ‘ş’인 예이다. 이에 대해 한글은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어 있어 ‘쌈’ 1음절로 되어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t/ㄷ/底(聲母)/7, d/ㄴ/你(聲母)/17, m/ㅁ/銘(聲母)/2, ş/ㅅ/瑟(聲母)/2, ş/ㅅ/史(聲母)/1

【폐음절】 yam/ㅇ/孕/7, yam/ㅇ/琰/17, yem/ㅇ/銘(韻母)/2, tam/담/𑖦/2, tam/담/擔/1

다음은 ‘m’류 폐음절이지만 한글이 종성자음으로 범자의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제1자음과 대응하는 예이다.

예41

- 1) sa-rmarin/살망/薩罔/1 [D;1] [薩:心母 曷1韻*sat][罔:明母 陽3韻*miaŋ]
- 2) ba-ndharin/만등/滿鄧/8 [D;8] [滿:明母 桓1韻*man][鄧:定母 登1韻*dəŋ]
- 3) ca-ndarin/잔남/贊喃/1 [D;1] [贊:精母 寒1韻*tsan][喃:ʔ]
- 4) tu-ndim/돈년/頓旼_{二合}/1 [D;1] [頓:端母 魂1韻*ton][旼(聲母):娘母*ŋ][寅¹³⁹):以母 仙3韻*jiɛ n]
- 5) si-ddhim/신딤/悉朕/1 [G;1] [悉:ʔ心母 質3韻*sit][朕:澄母 侵3韻*dɨm]
- 6) di-ptam/넙담/捻鉢擔_{二合}/1 [D;1] [捻:泥母 帖4韻*nep][鉢(聲母):幫母*p][擔:端母 談1韻*tam]
- 7) ya-kšam/약삼/藥葛_{二合}/1 [S;1] [藥:以母 藥3韻*jiak][葛(聲母):見母*k][鉉生母 銜2韻*fyæm]
- 8) ra-kšam/락산/略乞_{二合}/1 [D;1] [略:ʔ][乞(聲母):溪母*kh][鎗¹⁴⁰):初母 刪2韻*tshyæn]
- 9) mya-kšam/막삼/藐三_{二合}/10 [D;10] [藐:明母 覺2韻*myɔk][三:心母 談1韻*sam]

위의 예41에서 두 번째 범자 음절이 ‘제1자음+C’류의 복자음을 갖는다. 이들의 제1자음은 한글 표기에서 모두 종성자음으로 표기된다. 즉 제1자음 ‘-r, -n, -ŋ, -d, -p, -k’ 등은 종성자음 ‘-ㄹ, -ㄴ, -ㄷ, -ㅂ, -ㄱ’ 등으로 표기하였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tam/담/擔/1, dham/등/鄧/8, dam/남/喃/1, dhim/딤/朕/1, mam/망/罔/1, šam/삼/鉉/1, šam/삼/三/10, im/인/寅/1, šam/산/鎗/1, sa-r/살/薩/1, ba-n/만/滿/8, ca-ŋ/잔/贊/1, tu-ŋ/돈/頓/1, si-d/신/悉/1, mya-k/막/藐/10

【개음절】 ni/di/捻/1, ya/야/藥/1, ra/라/略/1

【자음음절】 <초성자음> d/ㄴ/旼(聲母)/1 <종성자음> -k/-ㄱ/葛(聲母)/1, -k/-ㄱ/乞(聲母)/1, -p/-ㅂ/鉢(聲母)/1

위의 예39~예41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한 후 음소대응을 보면 아래와 같다.

139) “寅”은 중고음에서 以母 眞3韻*jin와 以母 脂3韻*ji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40) “鎗”은 중고음에서 初母 刪2韻*tshyæn와 初母 山2韻*tshyæn와,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폐음절’의 모든 예에서 초성자음은 ‘m/口/明(*m)/2, v/口/明(*m)/4, ʃ/入/生(*f)/1, y/이/以(*j)/24, t/ㄷ/端(*t)/2, dh/ㄷ/定(*d)/8, b/口/明(*m)/8, m/口/明(*m)/11, c/ㄷ/精(*ts)/1, ʃ/入/生(*f)/1, ʃ/入/初(*tʃh)/1, s/入/心(*s)/2’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r/ㄹ/覽(*?)/1, r/ㄹ/藍(*?)/5, r/ㄹ/藍(*?)/2, r/리/藍(*?)/1, r/리/陵(*?)/2’ 등의 대응에서 한자가 造字인데 이들은 범자 자음이 ‘r, 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음운미 표기를 위한 것도 있다. 즉 부수 ‘口’를 제외한 남은 부분의 한자 ‘藍, 監, 臨, 陵’ 등은 모두 *-m, *-ŋ의 자음운미를 가지는 글자들이다. 이들은 자음의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의미가 없는 예들을 제외하여 보면 ‘a/아/談1(*am)/12, a/아/陽3(*iaŋ)/5, a/아/曷1(*at)/1, a/아/桓1(*an)/8, a/아/寒1(*an)/1, i/이/侵3(*im)/1, i/이/質3(*it)/1, u/오/魂1(*on)/1’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a/어/鹽3(*iem)/17, a/으/登1(*əŋ)/8’의 예도 있다. 범자 ‘a’ 모음대에 한글 모음 ‘으’가 대응하는데 실담장의 한글 표기 규칙에 어울리는 것으로 예외로 처리할 수 없다(제5장의 5.1.3절의 내용 참고).

그리고 ‘e/여/靑4(*eŋ)/2’예가 있는데 범자 ‘e’ 모음의 대응에 한글 모음이 ‘여’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예39의 9)번 ‘hmem/헝명/賀銘_[二合]/1’이 있다. 범자 ‘e’ 모음의 한글 중성은 일반 표기에서는 마땅히 ‘예’가 되는데 ‘-o’ 종성자음과 결합하면 ‘멩’이 된다. 하지만 ‘멩’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음절구조이며, 한자 ‘銘’의 한국한자음의 영향 등을 받아서 ‘멩’으로 되었을 수도 있다.

이외 ‘e/어/靑4(*eŋ)/2’의 대응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예40의 3)번 ‘myem/명/銘/2’이다. 여기에서는 한글 ‘명’의 상향이중모음 활음이 범자 ‘y’와 대응하므로 범자 ‘e’는 ‘어’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범자 ‘ye’와 ‘e’의 음성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 모두 ‘여’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자 ‘e’ 대응의 한글 모음 ‘어’는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폐음절’의 종성자음을 보면 통계에 무의미한 造字등을 제외하면 ‘-口’ 종성자음의 ‘-m/-口/銜2(*-m)/2, -m/-口/鹽3(*-m)/17, -m/-口/談1(*-m)/12, -m/-口/侵3(*-m)/1’의 예와, ‘-o’ 종성자음의 ‘-m/-o/陽

3(*-ŋ)/5, -m/-o/靑4(*-ŋ)/4, -m/-o/蒸3(*-ŋ)/7, -m/-o/登1(*-ŋ)/8'의 예와, '-ㄴ' 종성자음의 '-m/-ㄴ/仙3(*-n)/1, -m/-ㄴ/刪2(*-n)/1, -n/-ㄴ/桓1(*-n)/8, -n/-ㄴ/寒1(*-n)/1, -n/-ㄴ/魂1(*-n)/1'의 예와, '-ㄹ' 종성자음의 '-r/-ㄹ/曷1(*-t)/1'의 예와, '-ㄷ' 종성자음의 '-d/-ㄷ/質3(*-t)/1'의 예와, '-ㄱ' 종성자음의 '-k/-ㄱ/覺2(*-k)/10'의 예가 있다.

‘개음절’을 보면 초성의 대응으로 ‘d/ㄴ/泥(*n)/1, y/이/以(*j)/1’이 있고 모음의 대응으로 ‘a/아/藥3(*iak)/1’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溪(*kh)/1, gh/ㄱ/群(*g)/1, t/ㄷ/端(*t)/13, d/ㄴ/泥(*n)/2, dh/ㄷ/定(*d)/4, bh/ㅅ/并(*b)/2, m/ㅁ/明(*m)/2, s/ㅅ/生(*f)/3, j/ㅈ/日(*n₂)/2, h/ㅇ/匣(*h)/1, r/ㄹ/嚕(聲母?)/13’ 등으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k/-ㄱ/見(*k)/1, -p/-ㅍ/幫(*p)/1’이 있다.

4.3.1.2 표기 유형 (2)

본 절은 ‘-m’ 폐음절의 복자음이지만 한글 및 한자의 불규칙 표기인 예에 대해 보겠다.

예42

- 1) rya-ntam/련담/哩演_{二合}擔/1 [Q:1] [哩(聲母):*?][演:以母 仙3韻*jien][擔:端母 談1韻*tam]
- 2) na-nim/난닌/難旋_{二合}演/1 [D:1] [難:泥母 寒1韻*nan][旋(聲母):娘母*n₂][演:以母 仙3韻*jien]
- 3) jam-mbha/삼바/答婆/1 [D:1] [答:精母 覃1韻*tsəm][婆:并母 戈1韻*ba]
- 4) ma-ta/맘다/麼多/1 [Q:1] [麼:明母 戈1韻*ma][多:端母 歌1韻*ta]

위의 예42에서 1)번의 범자음절 ‘rya-ntam’을 보면 첫 번째 음절의 복자음은 ‘C+y’로 ‘C+제2자음’류 복자음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r+C’로 ‘제1자음+C’류 복자음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한글 표기가 ‘련’ 즉 상향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어 이는 ‘C+y’의 복자음으로 판단하였음을 볼 수 있다. 만약 ‘r+C’의 복자음이라면 제1자음 r이 선행음절의 종성 자음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한-중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은 ‘r/ㄹ/哩(聲母), ya-n/연/演, tam/담/擔’이 된다.

2)번의 범자는 ‘na-ŋim’이고 한글은 ‘난닌’이다. 범자와 한글의 대응을 보면 ‘na(-ŋ)/난, ŋim/닌’ 즉 한글 ‘-ㄴ’ 종성자음이 범자 자음 ‘-ŋ’을 중복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難旆演_[二合]’으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na(-ŋ)/難, ŋim/旆演_[二合]’이다. 첫 번째 글자 ‘難(泥母 寒1韻*nan)’의 자음운미 *-n이 여전히 범자 자음 ‘-ŋ’을 중복 표기하고 있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ㄴ’ 종성자음의 중복 표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은 ‘na(-ŋ)/난/難, ŋ/ㄴ 旆(聲母), im/인/演’이다. 따라서 ‘[-ŋ]/-ㄴ/寒1(*-n)’의 음소대응은 통계 자료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번의 범자는 ‘jam-mbha’로 첫 번째 음절은 ‘-m’류 폐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의 복자음은 ‘m+C’로 ‘제1자음+C’류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한글은 ‘삼바’로 표기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ja(m)-m/삼, bha/바’가 된다. 한글의 첫 번째 음절 ‘삼’의 종성자음 ‘-ㅁ’은 범자의 첫 번째 음절 ‘m’와도 대응하고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m’과도 대응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는 ‘m-m’ 두 자음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하나의 자음으로 인지하여 축소 번역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咎婆’로 범자와의 대응이 ‘ja(m)-m/咎, bha/婆’인데 한글의 경우와 같다. 즉 한글의 축소 번역은 한자 번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4)번의 범자는 ‘ma-ta’로 2개의 기본 개음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맘다’로 되어 있어 범자와 ‘ma/맘, ta/다’의 대응을 보여주는데 첫 음절 ‘맘’의 종성자음 ‘-ㅁ’이 추가되어 반영되었다. 이들의 한자 표기는 ‘麼多’ 즉 범자와의 대응이 ‘ma/麼, ta/多’로 두 개의 개음절로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자와 한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어 자체의 어떤 원인으로 ‘-ㅁ’ 종성자음이 추가되었을 것인데 어떠한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ㅁ’ 종성자음의 음소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폐음절】 tam/담/擔/1, im/인/演/1, jam-m/삼/咎/1, ma/맘/麼/1, na(-ŋ)/난/難/1, ya-n/연/演/1

【개음음절】 ta/다/多/1, bha/바/婆/1

【자음음절】 <초성자음> ᅇ/ㄴ/旆(聲母)/1, r/ㄹ/哩(聲母)/1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n/ㄴ/泥(*n)/1, m/ㄹ/明(*m)/1, y/이/以(*j)/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談1(*am)/1, a/아/覃1(*əm)/1, a/아/寒1(*an)/1, a/어/仙3(*ien)/1’이 있는데 범자 ‘a’ 모음 대응에 대부분 한글 ‘아’가 대응하지만 일부 ‘어’의 대응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m/-ㄹ/談1(*-m)/1, -m/-ㄹ/覃1(*-m)/1, -m/-ㄴ/仙3(*-n)/1, -n/-ㄴ/仙3(*-n)/1’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bh/ㅃ/并(*b)/1’, 모음의 대응 ‘a/아/歌1(*a)/1, a/아/戈1(*a)/1’가 있는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ᅇ/ㄴ/娘(*ᅇ)/1, r/ㄹ/哩(聲母)(*?)’도 있다.

4.3.1.3 표기 유형 (3)

다음은 기타 표기의 예들로 특히 한자의 ‘二合’ 2음절 표기가 특이한 경우이다.

예43

- 1) ᅇim/님/昵淫_[二合]/5 [D;5] [昵:娘母 支3韻 *ᅇiɛ] [淫:以母 侵3韻 *jim]
- 2) sum/숨/素唵_[二合]/1 [D;1] [素:心母 模1韻 *so] [唵:影母 覃1韻 *ʔəm]
- 3) nim/닌/顛寅_[二合]/2 [D;2] [顛:泥母 青4韻 *neŋ] [寅¹⁴¹:以母 眞A韻 *jin]
- 4) rim/린/哩寅_[二合]/4 [D;4] [哩:*?], [寅:以母 眞A韻 *jin]
- 5) vim/밍/尾孕_[二合]/2 [D;2] [尾:明母 微3韻 *mii] [孕:以母 蒸3韻 *jiŋ]

위의 예43에서 범자는 ‘ᅇim, sum, nim, rim, vim’으로 1음절 폐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님, 숨, 닌, 린, 밍’의 1음절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ㄹ, -ㄴ, -ㅇ’의 종성자음의 ‘m’의 [m, n, ᅇ]의 음가 차이를 반영한

141) “寅”은 중고음에서 以母 眞3韻 *in과 以母 之3韻 *i, 以母 脂3韻 *i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것이다. 범자와 한글은 1:1의 음절대응 관계를 가지며 이들은 單子音 음절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자를 보면 ‘二슴’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앞서 내용의 고찰에서 한자의 ‘二슴’은 복자음 음절 표기에서만 사용되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單子音 음절에도 사용되고 있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자와 한자를 대응시켜 보면 ‘ ηim /掇_[二슴]’인데 이를 세분화하면 ‘ η /掇(聲母), im /淫’이다. 한자 ‘掇’는 娘母 支3韻 $*\eta i\epsilon$ 으로 특히 운모 支3韻은 흔히 범자 ‘i’ 모음과 대응한다. 즉 ‘掇’는 ‘ $\eta i-$ ’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즉 범자 모음 ‘i’가 중복 표기되어 ‘ $\eta(i)$ /掇, im /淫’의 대응이 된다. 이는 우연한 일치가 아니며 기타 표기 역시 범자 모음이 모두 중복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2)번에서의 ‘ su /素, um /唵’, 3)번에서의 ‘ ni /顛, im /寅’, 4)번에서의 ‘ ri /哩, im /寅’, 5)번에서의 ‘ vi /尾, im /孕’이다.

이들 두 번째 한자에 공통특징이 있는데, ‘淫(以母 *j), 唵(影母 *ʔ), 寅(以母 *j), 孕(以母 *j)’으로 이들의 자모는 以母 혹은 影母이다. 이 자모들은 일반대응에서는 흔히 자음이 없는 모음음절에만 사용된다. 두 번째 음절의 선택은 운모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자음이 약하거나 자음이 없는 글자를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두 번째 음절의 선택은 임의로 수의적인 아니라 상당히 규칙성 있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한자는 범자 자음과 모음의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두 번째 한자 ‘淫, 唵, 寅, 孕’은 주로 범자의 종성 자음 ‘-m’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모음의 중복 표기는 첫 글자가 아닌 두 번째 글자에 있는 것이며 범자와 한자 韻尾가 대응되는 것이다. 즉 ‘-m/-ㅁ/淫(韻尾)’의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음절대응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음절】 ηi /니/掇/5, su /소/素/1, ni /니/顛/2, ri /리/哩/4, vi /미/尾/2

【자음음절】 <종성자음> -m/-ㅁ/淫(韻尾)/5, -m/-ㅁ/唵(韻尾)/1, -m/-ㄴ/寅(韻尾)/2, im /인/寅/4, im /잉/孕/2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 η /ㄴ/娘($*\eta$)/5, s /ㅅ/心($*s$)/1, n /ㄴ/泥($*n$)/2, r /ㄹ/哩($*?$)/4, v /ㅁ/明($*m$)/2’가 되고 모음의 대응은 ‘i/이/侵

3(*i)/5, i/이/眞A(*i)/6, i/이/蒸3(*i)/2, u/오/覃1(*ə)/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자음음절’의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m/-ㄹ/侵3(*-m)/5, -m/-ㄹ/覃1(*-m)/1, -m/-ㄴ/眞A(*-n)/6, -m/-ㅇ/蒸3(*-ŋ)/2’가 있다.

4.3.2 ‘-h’류

4.3.2.1 표기 유형 (1)

본 절은 복자음 ‘-h’류 복자음 음절의 표기 예이다. 구체적인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44

- 1) bhyah/박/毗藥_[二合]/57 [Q;26, D;31] [毗(聲母):并母*b][藥:以母 藥3韻*jiak]
- 2) svah/씩/娑嘑_[二合]/3 [Q;3] [娑(聲母):心母*s][嘑:*?]
- 3) a-ryah/알약/啊哩也_[二合]/1 [S;1] [啊:*?][哩(聲母):*?][也:以母 麻3韻*jia]
- 4) svah-pna/뺨나/娑鉢難_[二合]鉢難_[二合]/1 [D;1] [娑(聲母):心母*s][嘑:*?][鉢(聲母):幫母*p]
[難:泥母 寒1韻*nan]

위의 예44에서 1)번의 범자는 ‘bhyah’으로 복자음이 ‘C+y’ 즉 ‘C+제2자음’류에 속하며 이에 ‘h’의 음절말 자음을 가지는 폐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박’으로 되어 있어 범자와의 대응은 ‘bh/ㅂ, yah/약’가 된다. 한자는 ‘二合’의 2음절 즉 ‘毗藥_[二合]’으로 되어 있으며, 범자와의 대응은 ‘bh/毗(聲母), yah/藥’이다. 즉 범자 ‘h’ 대응에 한글이 ‘-ㄱ’ 종성자음이 사용되고, 한자는 ‘*-k’ 운미의 ‘藥’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번의 범자는 ‘svah’으로 복자음이 ‘C+v’ 즉 ‘C+제2자음’류에 속하므로 ‘ㅎ’ 모음 첨가 표기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씩’으로 되어 있다. ‘C’자음이 ‘s’인 경우 종종 합용병서 표기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한자 표기를 보면 ‘娑嘑_[二合]’으로, 범자와의 대응이 ‘s/娑, vah/嘑’가 되는데 한자 ‘嘑’는 일반적으로 개음절 ‘va’와 대응된다. 여기에서는 ‘vah’의 폐음절과 대응하고 있다. 이는 아마 마땅한 자음운미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개음절 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은 ‘-h/-ㄱ/-ø’가 되는데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번 예의 범자 음절은 ‘a-ryah’이고 한글 표기는 ‘알약’이며 한자는 ‘啊哩也_[二合]’이다. 이들의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은 ‘a/아/啊, -r/-ㄹ/哩(聲母), ya/야/也, -h/-ㄱ/-ø’가 된다. 여기에서도 범자 ‘-h’ 음절말 자음의 대응에 한글이 ‘-ㄱ’ 종성자음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한자는 ‘也’를 사용하여 범자 자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svah-pna’인데 첫 번째 음절은 앞서 2)번의 한글 표기를 따라 ‘씩’으로도 표기될 수 있다. ‘pna’는 ‘C+n’ 구조의 복자음으로 ‘C+제2자음’류에 속하므로 마땅히 ‘브나’로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글 표기는 ‘쌩나’로 되어 있다. 범자와 대응하여 보면 ‘sva(h)-p/쌩, na/나’가 되는데 첫 음절 범자의 음절말 자음 ‘-h’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 ‘pna’의 복자음은 ‘p+C’의 ‘제1자음+C’류의 일반 표기법인 종성자음의 표기법을 사용하여 범자 자음 ‘-p’와 ‘-ㅂ’ 종성자음이 사용되었다. 이에 한자는 두 개의 ‘二合’ 즉 ‘娑嚩_[二合]鉢難_[二合]’으로 되어 있다. 한글과 함께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을 보면 ‘s/ㅅ/娑(聲母), vah/바/嚩, -p/-ㅂ/鉢(聲母), na/나/難’가 된다.

위의 분석들을 근거로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폐음절】 yah/약/藥/56, yah/약/也/1, vah/박/嚩/3, vah/바/嚩/1

【개음절】 na/나/難/1, a/아/啊/1

【자음음절】 <초성자음> bh/ㅂ/毗(聲母)/57, s/ㅅ/娑(聲母)/4 <종성자음> -r/-ㄹ/哩(聲母)/1, -p/-ㅂ/鉢(聲母)/1

위의 ‘폐음절’에서 초성의 대응은 ‘y/이/以(*j)/57, v/ㅂ/嚩(*?)/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藥3(*iak)/56’이며 종성의 대응은 ‘-h/-ㄱ/藥3(*-k)/56’이다. ‘개음절’에서 초성의 대응은 ‘n/ㄴ/泥(*n)/1, ø/ㅇ/啊(*?)/1’이며 종성의 대응은 ‘a/아/寒1(*an)/1’이다.

그리고 ‘자음음절’의 초성 대응은 ‘bh/ㅂ/并(*b)/57, s/ㅅ/心(*s)/4’이고 종성대응은 ‘-r/-ㄹ/哩(聲母*?)/1, -p/-ㅂ/幫(*p)/1’이 된다.

4.3.2.2 표기 유형 (2)

다음은 여전히 음절말 자음이 ‘h’인 폐음절이지만 좀 특이한 표기 양상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예45

- 1) paḥ-kṣa/박사/博乞灑_[二合]/1 [Q;1] [博:幫母 鐸1韻*p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ya]
- 2) naḥ-kṣa/낙사/諾乞察_[二合]/2 [Q;2] [諾:泥母 鐸1韻*nok][乞(聲母):溪母*kh][察>初母 鎋2韻*tshyæt]
- 3) yaḥ-kṣa/약사/藥乞灑_[二合]/1 [D;2] [藥:以母 藥3韻*ji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ya]
- 4) yaḥ-kṣi/약시/藥乞史_[二合]/1 [Q;1] [藥:以母 藥3韻*jiak][乞(聲母):溪母*kh][史:生母 之3韻*fī]
- 5) koḥ-kṣi/국시/錫乞史_[二合]/1 [Q;1] [錫:見母 燭3韻*kiok][乞(聲母):溪母*kh][史:生母 之3韻*fī]
- 6) paḥ-kṣa/박사/播乞灑_[二合]/1 [Q;1] [播:幫母 戈1韻*pa][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ya]
- 7) raḥ-kṣa/락사/囉乞灑_[二合]/1 [D;1] [囉:*?][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ya]

위의 예45에서 범자 음절을 보면 첫 번째 음절은 모두 음절말 자음이 ‘h’인 폐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모두 ‘kṣ-’류 복자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paḥ-kṣa, naḥ-kṣa, yaḥ-kṣa, yaḥ-kṣi, koḥ-kṣi, paḥ-kṣa, raḥ-kṣa’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박사, 낙사, 약사, 약시, 국시, 락사’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첫 음절에서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pa(h)-k/박, na(h)-k/낙, ya(h)-k/약, ko(h)-k/국, pa(h)-k/박, ra(h)-k/락’이다. 한글의 ‘-ㄱ’ 종성자음은 후행음절의 ‘-k’ 자음과 대응하는 동시에 범자 자음 ‘h’과도 대응하고 있다. 범자의 ‘-h’ 자음이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博乞灑_[二合], 諾乞察_[二合], 藥乞灑_[二合], 藥乞史_[二合], 錫乞史_[二合], 播乞灑_[二合], 囉乞灑_[二合]’로 되어 있다. 범자와 대응하여 보면 첫 번째 한자가 ‘paḥ/博, naḥ/諾, yaḥ/藥, koḥ/錫, paḥ/播, raḥ/囉’로 대응되고 ‘二合’은 범자 ‘kṣ-’류 복자음과 대응되어 ‘kṣa/乞灑_[二合], kṣa/乞察_[二合], kṣi/乞史_[二合]’가 된다. 특히 첫 번째 한자의 대응에서 ‘博, 諾, 藥, 錫’은 자음운미 ‘*-k’를 가지고 있어 범자의 ‘h’ 자음을 표기하고 있지만, ‘播, 囉’ 등은 개음절이므로 범자의 ‘h’ 자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범자 ‘h’ 자음의 표기에 한글은 모두 생략되어 있고 한자는

반영되는 예도 있고 반영하지 못하는 예도 있는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한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폐음절】 nah/낙/諾/2, pah/박/博/1, yah/약/藥/2, koh/국/銅/1, pah/박/播(음성운)/1, rah/락/囉(음성운)/1

【개음절】 sa/사/灑/4, sa/사/察/2, si/시/史/2

【자음음절】 <중성자음> -k/-ㄱ/ㄱ(聲母)/8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n/ㄴ/泥(*n)/1, p/ㅍ/幫(*p)/2, y/이/以(*j)/2, r/ㄹ/囉(*?)/1, k/ㄱ/見(*k)/1’이고 중성의 대응은 ‘a/아/鐸1(*ak)/2, a/아/戈1(*a)/1, a/아/藥3(*iak)/2, a/아/囉(*?)/1, o/우/燭3(*iök)/1’이며 중성의 대응은 ‘-h/-ㄱ/鐸1(*-k)/2, -h/-ㄱ/藥3(*-k)/2, -h/-ㄱ/燭3(*-k)/1’이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s/ㅅ/生(*f)/6’가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중성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면 ‘i/이/之3(*i)/2’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중성자음의 대응은 ‘-k/-ㄱ/溪(*kh)/8’이 있다.

제 5 장 한글 진언 표기의 음운 특징

본 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3장과 제4장에서 고찰한 한글 진언 표기를 음소단위의 대응규칙을 찾아서 실담장의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하여 볼 것이며, 다음 진언의 한글 표기를 분석하여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5.1. 한글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

5.1.1 실담장의 한글 표기

<진언집> 실담장에서는 梵-漢-韓의 대응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진언집> 여러 판본의 실담장에서 漢字 번역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¹⁴²⁾, 한글 번역에 있어서는 일부 판본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반영된다. 그 중 대표적

142) 사실 <진언집>에서 제시된 한자 번역이 과연 중국에서 중국어 번역을 위한 번역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에 박병채(1979:83)은 진언집 한자 번역의 출처를 고찰하였는데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과는 28字, ‘悉曇字記’와는 17字가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兩本이 공통되는 것이 13字, 기타 字母品에서 4字, 또 중국 中國諸經의 字母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14字가 있다고 하였다. 즉 중국어의 번역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으며 한국 내에서 한자 번역에 일부 조정이 있었을 것이다. 안주호(2002:177-178)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려대장경》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의 不空 50자문을 제시하였는데 필자는 이것과 진언집 한자를 일일이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마다의 한자 번역을 보면 ‘塢→烏, 瞿→曳, 闇→暗, 哩→里, 𑖀→梨, 阿→啊, 伊→咿, 奧→ㄹᄇᆞ, 哩→ㄹᄇᆞ’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첫 번째 글자가 자모품의 것이고 두 번째 글자가 진언집의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어려운 한자를 보다 쉬운 한자로 변경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음 표기에서 자모품은 ‘ㄹᄇᆞ’이란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진언집에서는 부수 ‘口’를 추가한 造字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체문을 보면 ‘磋(清)→差(初), 鄼(從)→社(初), 穰(日)→攘(日), 咤(知)→佗(徹), 孃(娘)→囊(泥), 他(透)→佗(透), 娜(泥)→那(泥), 囊(泥)→娜(泥), 跋(幫)→波(幫), 麼(明)→摩(明), 囉(來)→邏(來), 捨(書)→舍(書), 灑(生)→沙(生), 娑(心)→薩(心)’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역시 쉬운 글자 혹은 진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자로 변경되어 있다. 변경 후의 한자 자모는 사실 변경 전과 한자와 대부분 일치한다. 일부 치음과 娘母와 泥母등에서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국어 자음체계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에 전반적인 번역의 체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즉 <진언집>의 한자는 비록 한자 사용의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번역 체계에는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번역은 不空 번역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¹⁴³⁾와 만연사본(1777)의 한글 번역 체계의 차이를 들 수 있다.¹⁴⁴⁾

아래 먼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의 체문의 한글 표기를 비교하여 보겠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의 중고한어 음가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¹⁴⁵⁾

[표1] 실담장 체문의 한글 표기의 판본 비교

순서	범자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한자	
1	ka	가 ㄱ 거 ㄱ	가 ㄱ 거 ㄱ	迦	見母 戈3韻 *kia
2	kha	카 ㅋ 커 ㅋ	카 ㅋ 커 ㅋ	佉	溪母 戈3韻 *khia
3	ga	아 ㄹ 어 ㄹ	하 ㅎ 어 ㅎ	誡	疑母 歌1韻 *ŋa
4	gha	가 ㄱ 거 ㄱ	까 ㄱ 껌 ㄱ	伽	群母 戈3韻 *gia
5	ña	항 ㅎ 엉 ㅎ	항 ㅎ 엉 ㅎ	仰	疑母 陽3韻 *ŋian
6	ca	자 ㅈ 저 ㅈ	자 ㅈ 저 ㅈ	左	精母 歌1韻 *tsa
7	cha	차 ㅈ 처 ㅈ	차 ㅈ 처 ㅈ	差	初母 麻2韻 *tshya
8	ja	샤 ㅅ 셔 ㅅ	샤 ㅅ 셔 ㅅ	惹	日母 麻3韻 *ɲia
9	jha	자 ㅈ 저 ㅈ	짜 ㅈ 껌 ㅈ	社	禪母 麻3韻 *dzia
10	ña	상 ㅎ 성 ㅎ	상 ㅎ 성 ㅎ	攘	日母 陽3韻 *ɲian
11	ta	다 ㄷ 더 ㄷ	다 ㄷ 더 ㄷ	吒	知母 麻2韻 *tɕa
12	tha	타 ㅌ 터 ㅌ	타 ㅌ 터 ㅌ	佗	徹母 麻2韻 *tɕhya
13	da	나 ㄴ 너 ㄴ	나 ㄴ 너 ㄴ	拏	娘母 麻2韻 *ɲya
14	dha	다 ㄷ 더 ㄷ	따 ㅌ 떠 ㅌ	茶	澄母 麻2韻 *dɕa
15	na	낭 ㄴ 녕 ㄴ	낭 ㄴ 녕 ㄴ	囊	泥母 唐1韻 *nan

143)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의 안심사본에는 실담장이 없고 1658년 신흥사본에만 실려 있다. 그러나 진언 본문을 보면 신흥사본과 안심사본이 서로 같은 판본으로 인쇄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最古의 실담장을 흔히 1569년의 안심사본이라 하고 있어 본고 역시 이를 따르겠다.

144) 본고의 제2장에서는 진언집 실담 범자의 고찰을 보존 상태가 양호한 망월사본(1800)을 참고로 하였는데 실담장은 망월사본(1800)이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고 있어서 실담장 체계는 만연사본(1777)이 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의 실담장은 거의 일치하지만 일부 차이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마다의 한글 표기에서 만연사본(1777)은 ‘아, ㄹ, 어, ㄹ’ 등 ‘ㅇ’ 초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망월사본(1800)은 ‘하, ㅎ, 허, ㅎ’ 등으로 ‘ㅎ’ 초성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망월사본(1800)의 실제 한글 진언 표기는 실담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망월사본(1800)의 진언 본문 실제 한글 표기에서는 ‘ㄱ, ㄷ, ㅁ, ㅂ, ㅅ’ 등의 각자병서가 없다. 그리고 반치음의 ‘△’는 모두 ‘ㅇ’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순경음 ‘ㅂ’도 대부분 ‘ㅂ’로 나타난다. 즉 망월사본(1800)의 실담장은 범자의 한글 표기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독송의 편의를 위한 수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45) 실담장에는 한자의 平, 上, 去, 入 및 淸, 濁의 제시가 있고 한글에 방점도 표기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루지 않고 향후 연구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6	ta	다 ㄸ 더 드	다 ㄸ 더 드	多	端母 歌1韻 *ta
17	tha	타 ㅌ 터 트	타 ㅌ 터 트	佗	透母 歌1韻 *tha
18	da	나 ㄴ 너 느	나 ㄴ 너 느	那	泥母 歌1韻 *na
19	dha	다 ㄸ 더 드	따 ㅌ 떠 트	駄	定母 歌1韻 *da
20	na	낭 ㄴᆞᆫ 녕 능	낭 ㄴᆞᆫ 녕 능	娜	泥母 歌1韻 *na
21	pa	바 ㅍ 버 브	바 ㅍ 버 브	波	幫母 戈1韻 *pa
22	pha	파 ㅍ 퍼 프	파 ㅍ 퍼 프	頗	滂母 戈1韻 *pha
23	ba	마 ㅁ 머 므	마 ㅁ 머 므	摩	明母 戈1韻 *ma
24	bha	바 ㅍ 버 브	빠 ㅍ 빼 브	婆	并母 戈1韻 *ba
25	ma	망 ㅁᆞᆫ 멍 뭉	망 ㅁᆞᆫ 멍 뭉	莽	明母 唐1韻 *maŋ
26	ya	야 이 여 의	야 이 요 유	野	以母 麻3韻 *jia
27	ra	라 ㄹ 러 르	라 ㄹ 러 르	囉	*?
28	la	라 ㄹ 러 르	라 ㄹ 러 르	囉	來母 模1韻 *lo
29	va	바 ㅍ 버 브	바 ㅍ 버 브	囉	*?
30	śa	샤 시 서 신	샤 시 서 신	舍	書母 麻3韻 *cia
31	ṣa	사 스 서 스	사 스 서 스	沙	生母 麻2韻 *fɣa
32	sa	사 스 서 스	사 스 서 스	薩	心母 曷1韻 *sat
33	ha	하 ㅎ 허 호	하 ㅎ 허 호	賀	匣母 歌1韻 *fia
34	kṣa	가사 ㄱ사 거서 그서	가사 ㄱ사 거서 그서	乞灑 _{二合}	溪母 *kh 生母 佳2韻 *fɣe

먼저 안심사본(1569)을 중심으로 실담장 한글 표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이해한 다음 다음 만연사본(1777)과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실담장 체문에 제시된 범자는 모두 ‘a’ 모음의 음절문자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한글 모음은 모두 ‘아, 으, 어, 으’ 등의 4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범자 ‘a’ 모음 대응의 한글의 첫 번째 모음은 모두 ‘아’이지만 26번의 ‘ya’와 30번의 ‘śa’는 상향이중모음의 ‘야’로 되어 있다. 이는 본고에서 고찰한 자료와 일치한다. 다만 실담장에서는 4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어 안심사본(1569)을 중심으로 보면 ‘ya’는 ‘야(이+아), 이(이+으), 여(이+어), 의(이+으)’, ‘śa’는 ‘샤(시+아), 시(시+으), 서(시+어), 신(시+으)’으로 되어 있다. 즉 범자자음 ‘y’을 ‘이’, ‘ś’을 ‘시’로 보고 이에 규칙적으로 ‘아, 으, 어, 으’를 적용시킨 것이다.

셋째, 범자의 무성무기음의 ‘ka, ca, ta, ta, pa’와 유성유기음의 ‘gha, jha, dha, dha, bha’은 한글에서 모두 평음의 ‘가, 자, 다(권설음), 다, 바’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유성음 범자 ‘ga, ja, ḍa, da, ba’은 비음의 ‘아, ᄃ¹⁴⁶’, 나

(권설음), 나, 마'로 되어 있다.

넷째, 범자 체문 즉 'ña, ña, ña, na, ma' 등의 한글 표기에는 '앙, 상, 낭, 망' 등 모두 '-ㅇ' 종성자음이 있다. 이에 대응되는 한자는 '仰, 攘, 囊, 娜, 莽'으로 비록 '-ㄴ' 운미의 한자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娜' 글자도 있다. 종성자음의 반영은 아마 유성음 범자의 한글 비음 글자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보겠다.

첫째, 유성유기음의 범자 'gha, jha, dha, dha, bha'에 있어서 만연사본(1777)에서는 각자병서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까, 짜, 따(권설음), 따, 빠'로 되어 있다. 후음의 'ha'도 '햐'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안심사본(1569)은 무성무기음과 같이 '가, 자, 다(권설음), 다, 바, 하'로 되어 있다.

둘째, 안심사본(1569)에서는 범자 'ga' 대응 한글 자음이 'ㅇ'이지만 만연사본(1777)에서는 꼭지 달린 'ㅇ' 표기로 되어 있다. 유성음 범자의 비음 한글의 표기 체계에 따르면 꼭지가 달린 'ㅇ'가 정확하다.

셋째, 만연사본(1777)에서는 'ya'의 표기가 '야, 여, 요, 유'로 되어 있고, 'sa'는 '샤, 식, 셔, 식'으로 되어 있다. 안심사본(1569)과 비교하면 'ya'에서 '이→요, 인→유'으로 바뀌었고, 'sa'에서는 '시→식, 신→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만연사본(1777)의 편찬 시기인 18세기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음절구조의 한글을 비슷한 음가의 혹은 진언 표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기로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교체는 오히려 실담장 한글 표기의 체계적인 특성을 약하게 만든다. 특히 원순모음의 교체는 체계적으로 극히 불규칙적인 모습이다.

다음은 이어서 실담장의 범자 마다에 대한 한글 표기에 대해 보겠다.

[표2] 실담장 마다의 한글 표기의 판본 비교

146) 실담장의 체계로 보아서 치음 계열의 비음으로 봐야 할 것이지만 당시 한국어의 받침에 비음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번호	범자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한자	중고음
1	a	아 ㄹ 어 으	아 ㄹ 어 으	阿	影母 歌1韻 *ʔa
3	i	애 이 예 이	애 ㄹ 예 이	伊	影母 脂A韻 *ʔi
7	e	애 이 예 이	애 에 예 이	曳	以母 祭3韻 *jiei
8	ai	애 ㄹ 에 의	애 ㄹ 에 의	愛	影母 哈1韻 *ʔəi
5	u	와 오 위 우	와 오 위 우	烏	影母 模1韻 *ʔo
9	o	와 오 위 우	와 오 위 우	汙	影母 模1韻 *ʔo
10	au	와 오 위 우	와 오 위 우	𪛗	*ʔ
11	am	암 음 엄 음	암 음 엄 음	暗	影母 覃1韻 *ʔəm
12	aḥ	악 옥 억 옥	악 옥 억 옥	惡	影母 鐸1韻 *ʔak
13	r	래 리 레 리	래 ㄹ 레 리	里	來母 之3韻 *li
15	l	래 리 레 리	래 ㄹ 레 리	梨	來母 脂A韻 *li

먼저 안심사본(1569)의 한글 표기부터 보겠다.

첫째, 범자 ‘a’는 대응 한글 모음이 ‘아, ㄹ, 어, 으’의 4개의 한글 모음과 대응된다. 이는 앞서 체문에서 고찰한 4개 모음의 대응과 일치한다.

둘째, 전설모음에서 범자 ‘i’와 ‘e’의 한글 표기가 같으며 모두 ‘애, 이|¹⁴⁷⁾예, 이’이다. 이들은 범자 ‘a’ 모음 한글 표기 ‘아, ㄹ, 어, 으’에 각각 상향과 하향의 활음 ‘이’를 추가한 것으로 즉 ‘애’는 ‘이+아+이’, ‘이|’는 ‘이+ㄹ+이’, ‘예’는 ‘이+어+이’, ‘이’는 ‘이+이+이’로 결합된 것이다.

셋째, 범자 ‘ai’는 하향의 활음 ‘이’ 하나만 추가한 것으로 ‘애, ㄹ, 에, 의’인데 구체적으로 ‘애’는 ‘아+이’, ‘ㄹ’는 ‘ㄹ+이’, ‘에’는 ‘어+이’, ‘의’는 ‘으+이’로 결합한 것이다.

넷째, 원순모음의 ‘u, o, au’ 모두 ‘와, 오, 위, 으’로 되어 있다. 이 또한 범자 ‘a’와 원순모음의 결합으로 ‘와’는 ‘오+아’, ‘위’는 ‘우+어’이고 ‘오’와 ‘우’는 각각 ‘ㄹ’과 ‘으’ 짝을 이루는 원순모음인 것이다.

다섯째, 범자 ‘am’과 ‘aḥ’는 ‘a’ 모음의 ‘아, ㄹ, 어, 으’에 각각 ‘-ㅁ’ 종성 자음과 ‘-ㄱ’ 종성자음을 더한 것이다.

여섯째, 범자 ‘r, l’는 각각 ‘r+i’으로 ‘ㄹ’ 초성에 범자 ‘i’의 한글 표기가 결합한 것으로 ‘래, 리|¹⁴⁸⁾레, 리’이다. 구체적으로 ‘래’는 ‘ㄹ+애’의 결합,

147) 실제 이미지에서 글자가 좀 흐려져 있어 ‘예’와 비슷하기도 하다. 이토지유키(2007)에서는 비록 이미지 사진에서 ‘ʌjj’처럼 보이지만 마땅히 ‘jʌj’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필자 역시 모음의 전환 규칙에 따라 ‘이 |’일 것으로 추정한다.

148) 이 역시 실제 이미지에서 혹 ‘레’, ‘ㄹ레’로 보이는 등 일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이|’와 같이 모음 전환의 규칙에 따라 ‘리|’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리’는 ‘ㄹ+이’의 결합, ‘레’는 ‘ㄹ+에’의 결합, ‘리’는 ‘ㄹ+이’의 결합이다.¹⁴⁹⁾

이와 같이 한글 모음의 표기는 범자 ‘a’ 모음을 중심으로 매우 규칙적으로 전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의 차이에 대해 볼 것이다.

첫째, 안심사본(1569)의 ‘i’, ‘e’의 ‘이’ 표기가 만연사본(1777)에서는 ‘i’ 모음에서 ‘이→익’으로, ‘e’ 모음에서는 ‘이→에’로 변한다. 이에 따라 ‘r, l’에서도 각각 ‘리→릭’으로 변경되었다. 이 또한 18세기에 익숙하지 않는 음절구조를 갖고 있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절구조의 글자로 변경한 것이다.

둘째, 안심사본(1569)의 범자 ‘ai’ 모음에서 ‘에’가 만연사본(1777)에서 ‘에→예’로 변경된다. 이는 범자 ‘i, e’의 ‘예’와 같은 계열러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변경은 실담장 범자의 전환 규칙에는 어긋난다.

비록 안심사본(1569)의 판본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글 표기의 전환 규칙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만연사본(1777)은 ‘시→식’, ‘이→익’과 같이 18세기 당시 이해하기 어려운 음절구조의 글자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글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요’, ‘에→예’와 같이 과도교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실담장의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점. 즉 한글 표기의 체계성은 안심사본(1569)이 만연사본(1777)에 비하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안심사본(1569)과 만연사본(1777)의 제일 현저한 차이점은 안심사본(1569)에는 각자병서 표기가 없지만 만연사본(1777)에서는 각자병서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가 고찰한 오대진언(1569)에는 각자병서 표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ㄱ, 𑖇’가 나타나지만 예외로 각각 1회 나타날 뿐 체계적인 각자병서의 표기는 아니다.

단순히 각자병서 표기만 보아도 오대진언(1485)의 한글 진언 표기는 만연사본(1777) 실담장의 번역체계와 완전 다름을 알 수 있다. 오대진언(1485)의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에 있어서 실담장 표기는 안심사본

149) 이토 지유키(2007)는 한글에서 ‘j’가 사용되는 것은 ‘ra, la’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실제 범어의 실제 발음에서 ‘r’의 음가가 ‘ri’와 유사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1569)의 체계를 택할 것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한글 표기를 아래와 같이 자음의 대응과 모음의 대응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의 고찰에서 ‘ɿ’가 출현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시켰으며 ‘ɾ’은 비록 범자 마다이지만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리’와의 대응으로 처리하였다.

[표3] 안심사본(1569) 체문의 대응

【아음】			【설음】			【권설음】		
1	k	ㄱ/見母 *k	6	t	ㄷ/端母 *t	11	t̚	ㄷ/知母 *t̚
2	kh	ㅋ/溪母 *kh	7	th	ㅌ/透母 *th	12	th̚	ㅌ/徹母 *th̚
3	g	ㅇ/疑母 *ŋ	8	d	ㄴ/泥母 *n	13	d̚	ㄴ/娘母 *n̚
4	gh	ㆁ/群母 *g	9	dh	ㄷ/定母 *d	14	d̚h	ㄷ/澄母 *d̚
5	ŋ	ㅇ/疑母 *ŋ	10	n	ㄴ/泥母 *n	15	n̚	ㄴ/泥母 *n̚

【순음】			【치음】			【후음 및 기타】		
16	p	ㅍ/幫母 *p	22	c	ㅈ/精母 *ts	30	h	ㅎ/匣母 *ɦ
17	ph	ㅑ/滂母 *ph	23	cha	ㅊ/初母 *tʃh	31	y	이/以母 *j
18	b	ㅂ/明母 *m	24	j	ㄷ/日母 *n̚	32	r	ㄷ/囉母 *ʔ
19	bh	ㅅ/并母 *b	25	jh	ㅈ/禪母 *dʒ	33	l	ㄷ/來母 *l
20	m	ㅁ/明母 *m	26	ñ	ㄷ/日母 *n̚	34	ɾ	리/來母 *l
21	v	ㅍ/嘸母 *ʔ	27	ś	시/書母 *ɕ			
			28	ʃ	ㅅ/生母 *ʃ			
			29	s	ㅅ/心母 *s			

[표4] 안심사본(1569) 마다의 대응

1	a	아, ㅏ, 어, 으/歌1韻 *a
2	i	애, 이, 예, 이/脂A韻 *i
3	e	애, 이, 예, 이/祭3韻 *iei
4	ai	애, 이, 예, 의/哈1韻 *əi
5	u	와, 오, 위, 우/模1韻 *o
6	o	와, 오, 위, 우/模1韻 *o
7	au	와, 오, 위, 우/ㄱ *ʔ
8	am	암, 음, 엄, 음/覃1韻 *əm
9	aɰ	악, 옥, 억, 옥/鐸1韻 *ak

5.1.2 자음의 대응 비교

5.1.2.1 초성 자음의 대응

본 절에서는 실험장과 진언 표기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비교하여 볼 것인데 먼저 실험장과 기본 개음절의 대응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5] 실험장과 기본 개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실험장	【C+a】	【C+i】	【C+e, C+ai】	【C+u, C+o, C+au】
k	ㄱ/見*k	ㄱ/見*k/118	ㄱ/見*k/43	ㄱ/見*k/12	ㄱ/見*k/27
kh	ㅋ/溪*kh	ㅋ/溪*kh/6		ㅋ/溪*kh/2	
g	ㅇ/疑*ŋ	ㅇ/疑*ŋ/138	ㅇ/疑*ŋ/10	ㅇ/疑*ŋ/4	ㅇ/疑*ŋ/7
gh	ㄱ/群*g	ㄱ/群*g/1			ㄱ/群*g/2
t	ㄷ/端*t	ㄷ/端*t/151	ㄷ/端*t/48	ㄷ/端*t/78	ㄷ/端*t/24
th	ㅌ/透*th	ㅌ/透*th/35			
d	ㄴ/泥*n	ㄴ/泥*n/42	ㄴ/泥*n/1	ㄴ/泥*n/24	ㄴ/泥*n/18
dh	ㄷ/定*d	ㄷ/定*d/56	ㄷ/定*d/33	ㄷ/定*d/1	ㄷ/定*d/5
n	ㄴ/泥*n	ㄴ/泥*n/135	ㄴ/泥*n/46	ㄴ/泥*n/7	ㄴ/泥*n/2
t̚	ㄷ/知*t	ㅌ/知*t/13	ㅌ/知*t/9		
d̚	ㄴ/娘*ŋ	ㄴ/娘*ŋ/5			
dh̚	ㄷ/澄*d̚	ㄷ/澄*d̚/2			
ŋ	ㄴ/泥*n	ㄴ/娘*ŋ/21	ㄴ/娘*ŋ/52		
p	ㅍ/幫*p	ㅍ/幫*p/97	ㅍ/幫*p/6	ㅍ/幫*p/2	ㅍ/幫*p/29
ph	ㅍ/滂*ph	ㅍ/滂*ph/11			
b	ㅍ/明*m				ㅍ/明*m/9
bh	ㅍ/并*b	ㅍ/并*b/85	ㅍ/并*b/12	ㅍ/并*b/9	ㅍ/并*b/19
m	ㅍ/明*m	ㅍ/明*m/168	ㅍ/明*m/60	ㅍ/明*m/4	ㅍ/明*m/72
v	ㅍ/嚙*?	ㅍ/嚙*?/172	ㅍ/明*m/144	ㅍ/并*b/16	
c	ㄷ/精*ts	ㄷ/精*ts/54	ㄷ/精*ts/1	ㄷ/精*ts/6	ㄷ/精*ts/8
ch	ㄷ/初*t̚sh	ㄷ/清*t̚sh/4		ㄷ/清*t̚sh/1	
j	ㄷ/日*n̥	ㄷ/日*n̥/47	ㄷ/日*n̥/12	ㄷ/從*dz/1	ㄷ/精*ts/2 ㄷ/日*n̥/1
ś	ㅍ/書*ɕ	ㅍ/書*ɕ/40	ㅍ/書*ɕ/9	ㅍ/書*ɕ/2	ㅍ/書*ɕ/1 ㅍ/船*z/2
ʃ	ㅍ/生*f	ㅍ/生*f/19	ㅍ/生*f/3	ㅍ/生*f/7	ㅍ/生*f/1
s	ㅍ/心*s	ㅍ/心*s/92	ㅍ/心*s/20	ㅍ/心*s/2	ㅍ/心*s/28
h	ㅎ/匣*f̥	ㅎ/匣*f̥/344 ㅎ/曉*h/1	ㅎ/曉*h/2	ㅎ/匣*f̥/6 ㅎ/曉*h/10	ㅎ/匣*f̥/4 ㅎ/曉*h/11
y	이/以*j	이/以*j/267	이/以*j/1	이/以*j/34	이/以*j/6
r	ㄹ/囉*?	ㄹ/囉*?/228	ㄹ/哩*?/108	ㄹ/囉*?/20	ㄹ/魯*?/70
l	ㄹ/來*l	ㄹ/來*l/101	ㄹ/來*l/10	ㄹ/來*l/5	ㄹ/來*l/23

위의 [표5]를 보면 안심사본(1569) 실담장 자음의 대응 원칙과 오대진언(1485)의 일반 대응이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일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첫째, 권설음 ‘ㄸ’의 한글 표기는 실담장에서 ‘ㄷ’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 ‘ㅌ’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는 모두 知母 *t로 차이가 없다.

둘째, 순음의 ‘ph’의 한글 표기가 실담장에서 ‘ㄲ’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는 ‘ㅂ’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는 모두 滂母 *ph로 차이가 없다.

셋째, 한글 표기에서 같은 범자 대응에 ‘ㅂ’와 ‘ㅍ’가 혼용된다. 순음의 ‘v’의 한글 표기가 실담장에서 ‘ㅂ’이지만 모음 ‘i’에서 ‘ㅍ’이고 기타 모음에서는 ‘ㅂ’이다. 모음 ‘i’일 때 한자는 明母 *m이고 기타 모음에서는 ‘ㄹ’*? 혹은 并母 *b이다. 즉 한자가 明母일 때 한글 초성은 ‘ㅍ’이고 ‘ㄹ’*? 혹은 并母 *b일 때 한글 초성은 ‘ㅂ’이다.

넷째, 한글 표기에서 같은 범자에 대하여 ‘ㄷ’와 ‘ㄸ’의 차이가 있다. 치음 ‘j’ 대응에서 실담장 한글 표기는 ‘ㄷ’이지만 원순 모음에서는 ‘ㄸ’으로 나타난다. 기타 모음에서는 ‘ㄷ’이다. 한자는 대부분 日母 *n이지만 일부 자모의 출현 제약에 의하여 從母 *dz 혹은 精母 *ts로 대체된다.

다섯째, 범자 ‘ㄴ’ 자음에 한글 표기 ‘ㄴ’이 대응된다. 하지만 한자 자모에 있어서 실담장은 書母 *ɕ이고 실제 진언표기에서도 대부분 書母이지만 일부 船母 *z 글자도 있다.

여섯째, 범자 ‘h’ 대응의 한글 표기는 모두 ‘ㅎ’로 되어있다. 하지만 대응 한자를 보면 실담장에서는 匣母 *ɦ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는 匣母 이외에 曉母 *h도 일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한자 자모가 여러 개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어 번역 당시 범자 자음 대응 한자 자모가 1:多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시 일부 여러 자모가 하나의 범자와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본 폐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실제 진언 표기의 기본 개음절의 통계의 합과 비교하여 보겠다.

[표6]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150) 기본음절에서 일반 대응으로 판단되는 예가 없으므로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하였다.

	기본 개음절	CVm[m]	CVm[n]	CVm[ŋ]	CVm(기타)	CVh	자음음절
k	ㄱ/見*k/200	ㄱ/見*k/10					
g	ㅇ/疑*ŋ/149	ㅇ/疑*ŋ/3				ㅇ/疑*ŋ/1	
t	ㄷ/端*t/301	ㄷ/端*t/26					
d	ㄴ/泥*n/85			ㄴ/泥*n/2		ㄴ/泥*n/3	
n	ㄴ/泥*n/190	ㄴ/泥*n/18	ㄴ/泥*n/3		ㄴ/泥*n/2	ㄴ/泥*n/2	
tʰ	ㅌ/知*tʰ/22	ㅌ/知*tʰ/2					ㅌ/知*tʰ/20 ㄷ/知*tʰ/48
th	ㅊ/徹*tʰ ¹⁵⁰⁾						*ㅌ/知*tʰ/2 *ㄷ/知*tʰ/3
ŋ	ㄴ/娘*n/73		ㄴ/娘*n/1		ㄴ/娘*n/5		
p	ㅍ/幫*p/134			ㅍ/幫*p/2			
b	ㅍ/明*m/9		ㅍ/明*m/1				
bh	ㅍ/并*b/125		ㅍ/并*b/1			ㅍ/并*b/1	
m	ㅁ/明*m/304		ㅁ/明*m/3	ㅁ/明*m/10		ㅁ/明*m/20	
v	ㅁ/嗎*?/172 ㅁ/明*m/144		ㅁ/明*m/2		ㅁ/明*m/2	ㅁ/嗎*?/2	
j	ㄹ/日*r/1			ㄹ/日*r/1			
ś	시/書*ś/52	시/書*ś/2		시/書*ś/5			
ʃ	ㅅ/生*f/30	ㅅ/生*f/11	ㅅ/生*f/1				
s	ㅅ/心*s/142	ㅅ/心*s/35	ㅅ/心*s/1	ㅅ/心*s/5	ㅅ/心*s/1		
h	ㅎ/匣*ɦ/354	ㅎ/匣*ɦ/1					
y	이/以*j/308	이/以*j/5	이/以*j/1			이/以*j/1	
r	ㄹ/哩*?/108	ㄹ/哩*?/8			ㄹ/哩*?/4		
l	ㄹ/來*l/139	ㄹ/來*l/5		ㄹ/來*l/3			

위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 진언 표기의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의 자음의 대응은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음 음절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 개음절의 ‘ㄷ’는 한글 ‘ㅌ’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음 음절의 ‘ㄷ’는 ‘ㅌ’가 20회, ‘ㄷ’가 48회이다. 기본 개음과 자음 음절의 한자 모두 知*로 일치한다. 다음 자음 음절 ‘th’에서 한글 ‘ㅌ’가 2회, ‘ㄷ’가 3회이다. 즉 자음 음절에서 ‘ㄷ’와 ‘ㅌ’가 혼용되어 있다.

자음 음절의 현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의 자음의 대응은 거의 일치한다. 이들을 통합하여 기본 음절의 자음의 대응으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된 기본 음절의 자음 대응을 복자음 음절에서 분리되어 나온 單子音의 개음절과 폐음절과 대응하여 볼 것이다.

[표7]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기본 음절	복자음 개음절	복자음 폐음절	복자음 자음음절	
				초성자음	‘ㅇ’ 음절
k	ㄱ/見*k/210	ㄱ/見*k/7	ㄱ/見*k/17	ㄱ/見*k/4	ㄱ/見*k/32
kh	ㅋ/溪*kh/8	ㅋ/溪*k/2	ㅋ/溪*kh/4		
g	ㅇ/疑*ŋ/153	ㅇ/疑*ŋ/11	ㅇ/疑*ŋ/29	ㅇ/疑*ŋ/61	
gh	ㄱ/群*g/3				ㄱ/群*g/3
ŋ	ㅇ/疑*ŋ ¹⁵¹⁾	ㅇ/疑*ŋ/1			
t	ㄷ/端*t/327	ㄷ/端*t/77	ㄷ/端*t/13	ㄷ/端*t/19	ㄷ/端*t/81
th	ㅌ/透*th/35	ㅌ/透*th/10	ㅌ/透*th/2		
d	ㄴ/泥*n/90	ㄴ/泥*n/32	ㄴ/泥*n/9	ㄴ/娘*n/18	ㄴ/泥*n/39
dh	ㄷ/定*d/95	ㄷ/定*d/79	ㄷ/定*d/12	ㄷ/定*d/16	ㄷ/定*d/5
n	ㄴ/泥*n/215	ㄴ/泥*n/29	ㄴ/泥*n/12		ㄴ/泥*n/8
ʈ	ㅌ/知*t/44 ㄷ/知*t/48	ㅌ/知*t/3			ㄷ/知*t/1
ʈh	ㅌ/徹*th ¹⁵²⁾	ㅌ/徹*th/3			
ŋ	ㄴ/娘*n/79	ㄴ/娘*n/13		ㄴ/娘*n/19	
p	ㅍ/幫*p/136	ㅍ/幫*p/10	ㅍ/幫*p/8	ㅍ/幫*p/1	ㅍ/幫*p/51
ph	ㅍ/滂*ph/11	ㅍ/滂*ph/5			
b	ㅍ/明*m/10	ㅍ/明*m/4	ㅍ/明*m/36		ㅍ/明*m/18
bh	ㅍ/并*b/127	ㅍ/并*b/25	ㅍ/并*b/9	ㅍ/并*b/58	ㅍ/并*b/3
m	ㅍ/明*m/337	ㅍ/明*m/42	ㅍ/明*m/59	ㅍ/明*m/6	
v	ㅍ/明*m/148 ㅍ/ㄹ*?/174 ㅍ/并*b/16	ㅍ/明*m/1 ㅍ/ㄹ*?/126 ㄹ/ㄹ*?/203 ㅍ/并*b/7	ㅍ/明*m/14 ㅍ/ㄹ*?/4 ㅍ/并*b/1	ㅍ/明*m/2	
c	ㅈ/精*ts/69	ㅈ/精*ts/12 ㅈ/章*tc/2	ㅈ/精*ts/10 ㅈ/章*tc/2	ㅈ/精*ts/1	
ch	ㅈ/清*tsh/5		ㅈ/昌*tc/2 ㅈ/清*tsh/15 ㅈ/初*tsh/2		
j	ㄷ/日*n _r /59	ㄷ/日*n _r /7			ㄷ/日*n _r /34
ś	ㅈ/書*ɕ/59 ㅈ/船*z/2	ㅈ/書*ɕ/2	ㅈ/書*ɕ/3 ㅈ/船*z/22		ㅈ/書*ɕ/81
ʃ	ㅈ/生*f/42	ㅈ/生*f/40	ㅈ/生*f/5	ㅈ/生*f/54	ㅈ/生*f/2
s	ㅈ/心*s/184	ㅈ/心*s/63	ㅈ/心*s/138	ㅈ/心*s/41	ㅈ/心*s/189
h	ㅎ/匣*ɦ/355 ㅎ/曉*h/24	ㅎ/匣*ɦ/10	ㅎ/曉*h/2	ㅎ/曉*h/2	ㅎ/匣*ɦ/20
y	ㅇ/以*j/315	ㅇ/以*i/89	y/ㅇ/以*j/93		
r	ㄹ/囉*?/228 ㄹ/哩*?/112 ㄹ/嚕*?/70	ㄹ/囉*?/228 ㄹ/哩*?/18	r/ㄹ/囉*?/1 r/ㄹ/嚕*?/2 r/ㄹ/嚕*?/5	ㄹ/哩*?/6	ㄹ/嚕*?/13
ɾ	ㄹ/哩*?	ㄹ/哩*?/10	ɾ/ㄹ/嚕*?/2 ɾ/ㄹ/嚕*?/1		ㄹ/哩*?/50
l	ㄹ/來*l/147	ㄹ/來*l/1	ㄹ/來*l/2	ㄹ/來*l/1	

151)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위의 대응을 비교하여 보면 기본 음절의 자음 대응은 복자음 單子音 개 음절과 폐음절 및 자음 음절 등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일부 기본 음절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복자음 음절의 고찰에서 반영된 자음의 대응은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즉 범자 ‘n’의 대응을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는데 ‘n/ㅇ/疑*ŋ’으로 일치한다.

이외 범자 ‘c’ 자음 대응에서 복자음 음절에서는 精母 이외에 章母도 보이고, 범자 ‘ch’에서는 淸母 이외에 昌母, 初母도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당시의 범어와 중국어 치음의 1:多 대응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자 ‘v’의 대응이다. 기본 음절에서 ‘v/ㅁ/明*m, v/ㅅ/淸*ʃ, v/ㅂ/并*b’의 대응이 보이는데 복자음 음절에서 이 세 종류가 모두 있으며, 또한 순경음 비읍 ‘v/ㅅ/淸*ʃ’의 대응이 203회 더 있다.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한글 자음의 대응의 차이는 주로 순경음 비읍의 출현에 있다.

전반적으로 오대진언(1485)의 실제 진언에서의 음소 대응은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대진언(1485)의 실제 진언 표기는 대체적으로 안심사본(1569)의 실담장의 표기의 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표기에서 순경음 비읍의 차이가 반영되거나 자음 음절에서 ‘ㄷ’와 ‘ㅌ’가 혼용되는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 한글 표기의 원칙에서도 일부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실담장 ‘교’ 표기에 실제 표기는 ‘ㄴ’로 반영하는 현상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5.2절의 한국어 음운 특징의 논의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다음의 [표8]은 오대진언(1485)에서 고찰한 실제 진언 표기에서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자음의 대응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8] 오대진언(1485) 한글 진언 표기의 초성 자음의 대응

152)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아음】			【설음】			【권설음】		
1	k	ㄱ/見*k/270	6	t	ㄷ/端*t/517	11	t̚	ㄷ/知*t/49, ㅌ/知*t/47
2	kh	ㅋ/溪*kh/14	7	th	ㅌ/透*th/47	12	th	ㅌ/徹*th/3
3	g	ㅇ/疑*ŋ/254	8	d	ㄴ/泥*n/188	13	d̚	ㄴ/娘*n/5
4	gh	ㄱ/群*g/6	9	dh	ㄷ/定*d/207	14	d̚h	ㄷ/澄*d/2
5	ñ	ㅇ/疑*ŋ/1	10	n	ㄴ/泥*n/264	15	ŋ	ㄴ/娘*n/111

【순음】			【치음】			【후음 및 기타】		
16	p	ㅍ/幫*p/206	22	c	ㅈ/精*ts/92	30	h	ㅎ/匣*ɦ/385, ㅎ/曉*h/28
17	ph	ㅍ/滂*ph/16			ㅈ/章*ɕ/4	31	y	이/以*j/497
18	b	ㅍ/明*m/68	23	ch	ㅈ/淸*tsh/20	32	r	ㄹ/囉*ʀ/457, ㄹ/哩*ʀ/136
19	bh	ㅍ/并*b/222			ㅈ/昌*ɕh/2	33	l	ㄹ/魯*ʀ/83, ㄹ/嚙*ʀ/20
20	m	ㅍ/明*m/444			ㅈ/初*tʃh/2			ㄹ/來*l/151
21	v	ㅍ/嚙*ʀ/304	24	j	ㄷ/日*ɲ/100	34	ø	ㅇ/影*ʔ/12
		ㅍ/嚙*ʀ/203	25	jh	×	35	ɾ	리/哩*ʀ/60
		ㅍ/明*m/165	27	ś	ㅈ/書*ɕ/145			
		ㅍ/并*b/24			ㅈ/船*z/24			
					ㅈ/生*f/143			
			28	s	ㅈ/心*s/615			
			29	s				

5.1.2.2 종성 자음의 대응

다음은 종성 자음의 대응에 대해 보겠다. 실담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종성 자음에 대한 표기 원칙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 고찰 진언 표기를 유형별로 서로 비교하여 볼 것이다.

우선 범자 ‘-m’류, ‘-h’류 폐음절을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로 각각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9]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의 종성 자음 대응의 비교

	기본 폐음절	복자음 폐음절
-m[m]	-ㅍ/覃1*-m/26, -ㅍ/談1*-m/65 -ㅍ/凡3*-m/1, -ㅍ/嚴3*-m/7 -ㅍ/鹽3*-m/13, -ㅍ/侵3*-m/1 -ㅍ/咸2*-m/1, -ㅍ/銜2*-m/11	-ㅍ/談1*-m/25, -ㅍ/鹽3*-m/17 -ㅍ/侵3*-m/1, -ㅍ/銜2*-m/2
-m[ŋ]	-ㅇ/唐1*-ŋ/1, -ㅇ/東1*-ŋ/1 -ㅇ/登1*-ŋ/8, -ㅇ/陽3*-ŋ/6 -ㅇ/蒸3*-ŋ/4, -ㅇ/靑4*-ŋ/8	-ㅇ/登1*-ŋ/8, -ㅇ/陽3*-ŋ/5 -ㅇ/蒸3*-ŋ/7, -ㅇ/靑4*-ŋ/4
-m[n]	-ㄴ/文3*-n/2, -ㄴ/刪2*-n/1	-ㄴ/刪2*-n/1, -ㄴ/仙3*-n/2

	-ㄴ/仙3*-n/1, -ㄴ/臻3*-n/3 -ㄴ/寒1*-n/4, -ㄴ/桓1*-n/6	
-h	-ㄱ/鐸1*-k/20, -ㄱ/沃1*-k/2 -ㄱ/燭3*-k/1, -ㄱ/藥3*-k/1	-ㄱ/藥3*-k/58, -ㄱ/燭3*-k/1 -ㄱ/鐸1*-k/2
-ø	-ㄱ/ø/71	

위의 도표를 보면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폐음절의 한글 표기 모두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m’류 음절은 각각 [m], [n], [ŋ]를 가지고 있는데 범자에서는 음가가 반영되지 않고 한자에서만 각각 *-m, *-n, *-ŋ 자음운미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한글 표기는 한자의 자음운미에 따라 각각 ‘-ㅁ, -ㄴ, -ㅇ’의 종성자음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h’는 한자에서 *-k 자음운미로 나타나고 대응 한글 역시 ‘-ㄱ’ 종성자음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본 폐음절에서 ‘-ø’는 자음음절 ‘t, th’를 말하는데 한자는 모두 ‘吒’ 즉 麻2韻의 음성운 글자인데 한글은 이와 상관없이 ‘-ㄱ’ 종성자음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자음 음절에는 위의 ‘-m’류, ‘-h’류 폐음절 이외 기타 單子音의 폐음절 표기의 예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두 종류가 있어 각각 (1)과 (2)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10]의 예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제1자음이 선행음절 한글 표기의 종성자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표10] 기타 복자음 폐음절의 한글 표기 (1)

범자	복자음 폐음절 표기
-n	-ㄴ/刪2*-n/2, -ㄴ/仙3*-n/11, -ㄴ/眞3*-n/21, -ㄴ/先4*-n/2, -ㄴ/仙B*-n/2, -ㄴ/元3*-n/5, -ㄴ/寒1*-n/9, -ㄴ/桓1*-n/33
-ŋ	-ㄴ/仙3*-n/3, -ㄴ/元3*-n/7, -ㄴ/寒1*-n/6, -ㄴ/魂1*-n/2, -ㄴ/桓1*-n/13
-ñ	-ㄴ/仙B*-n/1, -ㄴ/寒1*-n/6, -ㄴ/桓1*-n/7
-m	-ㅁ/談1*-m/4, -ㅁ/噤*?/3, -ㅁ/覃1*-m/1
-ñ	-ㅇ/蒸3*-ŋ/1
-k	-ㄱ/覺2*-k/12, -ㄱ/屋3*-k/1, -ㄱ/職3*-k/3, -ㄱ/燭3*-k/1
-t	-ㄷ/質3*-t/26
-d	-ㄷ/沒1*-t/23, -ㄷ/術3*-t/27, -ㄷ/質3*-t/1
-r	-ㄹ/曷1*-t/61, -ㄹ/末1*-t/4, -ㄹ/沒1*-t/5, -ㄹ/屑4*-t/1, -ㄹ/薛B*-t/15, -ㄹ/月3*-t/5

위의 도표에서 먼저 비음성 자음을 보면 제1자음 ‘-n, -ŋ, -ñ’과 대응되는 한자는 모두 *-n 자음운미를 가지는 글자이며 이에 대응되는 한글의 종성자음 또한 모두 ‘-ㄴ’으로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외 ‘-m’와 ‘-n’의 대응 한자는 각각 자음운미 *-m과 *-ŋ 글자이고 이에 대응되는 한글의 종성 자음은 ‘-ㅁ, -ㅇ’이다. 그리고 범자 -k에 대응되는 한자는 *-k 자음운미 글자이고 한글은 ‘-ㄱ’ 종성자음의 글자이다.

그리고 제1자음 ‘-t, -d, -r’을 보면 이에 대응되는 한자 모두가 *-t 자음운미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t, -d’ 대응에서 종성자음이 ‘-ㄷ’이고, ‘-r’ 대응에서 종성자음이 ‘-ㄹ’로 되어 있다.

다음의 [표11]은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위의 [표10]과 일치하지만 한자의 대응에서 자음운미가 아닌 한자의 聲母로 대체하여 나타나고 있는 예들이다.

[표11] 기타 복자음 폐음절의 한글 표기 (2)

범자	복자음 자음음절의 종성 표기
-k	-ㄱ/見母 *k/7, -ㄱ/溪母 *kh/8
-p	-ㅍ/幫母 *p/3
-ʃ	-ㅅ/生母 *f/3
-s	-ㅅ/心母 *s/1
-r	-ㄹ/囉(聲母)*?/84, -ㄹ/ㄹ(聲母)*?/17, -ㄹ/哩(聲母)*?/16

위의 도표를 보면 범자 -k, -p의 자음 대응에서 앞서 [표10]의 예와 같이 *-k, *-p 자음운미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은 각각 見母 *k, 幫母 *p 등 성모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아마 범자의 음절초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절말 자음까지 고려하여 완전 일치하는 한자를 찾기 어려워 부득이 음절말 자음 대응에 두 번째 음절의 한자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표의문자인 한자가 받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글 표기의 규칙에 따라 그대로 종성자음 ‘-ㄱ, -ㅍ’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범자 자음 ‘-ʃ -s’을 보면 중고한어의 운미 체계에서 대응하는 자음운미가 없으므로 각각 한자의 성모를 이용하여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 한국어 역시 중국어와 같이 대응이 가능한 종성자음이 없다

면 한자와 같이 제2의 음절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직접 ‘-ㅅ’ 중성자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자 ‘-r’을 보면 앞서 ‘-r’의 표기에 한자가 *-t 자음운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성모 표기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아마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범어의 ‘-r’을 표기에 음성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음운미 표기 혹은 성모 표기로 혼용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한자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규칙적으로 ‘-ㄹ’ 중성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5.1.3. 모음의 대응 비교

다음은 모음의 대응을 보겠다. 먼저 기본 음절에서의 개음절과 복자음 음절에서 단자음 분리 후의 개음절 그리고 실험장의 표기 원치과 비교하여 보겠다.

[표12] 기본 개음절과 복자음 개음절 모음의 대응 비교

	실험장	기본 개음절	복자음 개음절
a	아, ㄹ, 어, 으/歌1*a	아 歌1*a/940, 戈1*a/336, 戈3*ia/127, 唐1*aj/122, 曷1*at/43, 末1*at/18, 桓1*an/11, 寒1*an/4, 鐸1*ak/1	아 歌1*a/147, 戈1*a/50, 曷1*at/72, 末1*at/9, 鐸1*ak/4, 寒1*an/2, 唐1*aj/16, ㄹ 曷1*at/1
i	애, ㄹ, 예, 이/脂A*i	이 支A*iē/108, 支3*iē/62 脂A*i/21, 脂3*i/41 之3*i/74, 微3*ii/144 質3*it/12	이 支3*iē/15, 支A*iē/2, 脂3*i/6, 之3*i/15, 微3*ii/1, 昔3*iek/1,
e	애, ㄹ, 예, 이/祭3*iēi	예 齊4*ei/149, 青4*eq/7 祭A*iēi/36, 祭3*iēi/4 廢3*iai/10, 脂B*ui/8	예 齊4*ei/57, 祭A*iēi/7, 支B*uiēi/1, 廢3*iai/7
ai	애, ㄹ, 예, 의/哈1*ai	애 佳2*ȳe/7, 灰1*oi/1	애 泰1*ai/1, 賴*?/5
		ㄹ 泰1*ai/1, 哈1*ai/4, 灰1*oi/4	ㄹ 齏*?/1
		예 祭B*uiēi/1	
u	와, 오, 위, 우/模1*o	오 模1*o/161, 沒1*ot/13 屋3*iuk/2, 虞3*io/4 燭3*io̯k/1, 侯1*ou/34	오 模1*o/17, 沒1*ot/2, 屋3*iuk/2, 豪1*au/1, 侯1*ou/1, 嚕*?/5,

			嚕*?/67		
		우	模1*o/4, 術3*uit/24 虞3*iu/10, 叟*?/1	우	虞3*iu/6
o	와,오,워,우/模1*o	오	模1*o/39, 沒1*ot/6 豪1*au/10, 侯1*əu/3 嚕*?/2	오	模1*o/5, 豪1*au/2, 嚕*?/2
		우	模1*o/27, 宵B*uiəu/1 術3*uit/6, 虞3*iu/29	우	虞3*iu/6, 叟*?/1
au	와,오,워,우/啊*?	오	模1*o/6, 嚕*?/1	오	嚕*?/2
		우	模1*o/2, 宵B*uiəu/1 虞3*iu/1		

실담장에서 하나의 범자 모음에 4개의 한글 모음이 대응되고 있다. 실제 진언 표기를 보면 비록 실담장과 같이 규칙적으로 4개의 모음 대응은 아니지만 여러 모음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자 ‘a’ 모음의 대응에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거의 대부분 ‘아’가 대응되지만 복자음 음절에서 ‘으’의 대응 예가 더 있다. 그리고 범자 ‘ai’ 모음의 대응에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한글 모음에서 ‘애, 이, 에’ 등이 대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원순모음 ‘u, o, au’에서 각각 ‘오, 우’가 대응한다.

다음의 [표13]은 기본 음절의 폐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單子音 분리 후의 폐음절의 모음의 대응을 실담장의 모음의 대응과 비교한 것이다.

[표13]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 모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기본 폐음절		복자음 폐음절	
a	아,으,어,으/歌1*a	아	談1*am/65, 覃1*əm/26, 鐸1*ak/20, 桓1*an/6, 寒1*an/4, 唐1*aŋ/1	아	曷1*at/61, 桓1*an/53, 寒1*an/25, 談1*am/17, 末1*at/4, 覃1*əm/1, 鐸1*ak/2
		어	鹽3*iem/7, 仙3*ien/1, 鹽B*uiem/6, 嚴3*iam/1	어	仙3*ien/12, 仙A*ien/1, 仙B*uien/4, 靑4*eq/1 鹽3*iem/17, 元3*ien/5, 先4*jen/1
		으	東1*uj/1, 登1*əŋ/2	×	×
		으	文3*iun/2	으	登1*əŋ/8, 蒸3*in/1
i	애,이,예,이/脂A*i	이	侵3*im/6, 眞A*in/6 蒸3*in/6, 登1*əŋ/6	이	眞3*in/18, 眞A*in/9, 質3*it/27, 侵3*im/1
u	와,오,워,우/模1*o	오	沃1*ok/2, 燭3*ioŋ/1	오	沒1*ot/30, 沃1*ok/2,

					魂1*on/1, 術3*uit/1, 屋3*iuk/4, 燭3*iøk/1,
		우	咍*/40	우	魂1*on/1
o	와,오,워,우/模1*o	오	庵*/63	×	×
		×	×	우	術3*uit/24, 燭3*iøk/1

위의 폐음절의 대응에서 1개의 범자 모음과 여러 개의 한글 모음이 대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기본 폐음절에서는 실담장의 ‘아, 어, 으, 으’ 4개의 모음이 모두 반영되고, 복자음의 폐음절에서도 그 중의 3개인 ‘아, 어, 으’가 반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제 진언 표기는 비록 실담장에서 제시된 한글의 4모음 체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범주 내에서 일치하게 대응되고 있다. 실담장에서 한글 표기의 4모음 대응은 아마 당시 실제 진언 표기를 근거로 더욱 체계화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5.2. 한글 음소 표기의 특징

본 절은 앞서 내용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의 음소 대응을 통하여 당시 한글 표기의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5.2.1. 초성 표기

5.2.1.1. ‘ㄱ, ㄷ, ㅂ’

앞서 [표8]에서는 오대진언(1485)의 모든 음절의 자음의 대응을 통합하여 보았다. 그 중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초성 ‘ㄱ, ㄷ, ㅂ’을 보면 범자 자음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이 동시에 대응되고 있었다. 즉 아래와 같다.

[표14] ‘ㄱ, ㄷ, ㅂ’ 진언 표기의 대응 체계

무성음 범자	유성유기음 범자
① ㄱ/k/見*k/270	② ㄱ/gh/群*g/6
① ㄷ/t/端*t/517	② ㄷ/dh/定*d/207
① ㅂ/p/幫*p/206	② ㅂ/bh/并*b/222

위의 [표14]에서의 진언 표기의 대응은 실담장의 표기와도 일치한다. 기타 대응이 모두 높은 출현 횟수를 보이는 반면 ‘ㄱ/gh/群*g/6’의 대응 횟수는 6회만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진언 텍스트에서 범자 ‘gh’ 자음의 음절 출현 횟수가 낮기 때문인 것이다.

한글 초성에서 평음 ‘ㄱ, ㄷ, ㅂ’가 무성음의 범자 ‘k, t, p’와 유성유기음의 ‘gh, dh, bh’가 체계적으로 대응되고 있다는 것은 한글의 초성이 범자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이 범자가 아닌 한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한글이 단순히 한자를 따랐다면 ‘ㄱ, ㄷ, ㅂ’는 한자의 무성음 계열 ‘見*k, 端*t, 幫*p’와 유성음 계열의 ‘群*g, 定*d, 并*b’와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글이 범자를 따르든, 한자를 따르든 변별적 자질의 차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글이 무성음과 유성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유성유기음 범자의 유기성의 인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의 예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은 유기음 범자의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15] 무성유기음 범자의 진언 표기

진언 표기	실담장
① ㄱ/kh/溪*kh/8	① ㄱ/kh/溪*kh
① ㅌ/th/透*th/35	① ㅌ/th/透*th
① ㅍ/ph/滂*ph/11	① ㅍ/ph/滂*ph

위의 도표를 보면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표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실담장에서 범자가 ‘kh, th’ 대응의 한자 자모가 ‘溪母 *kh, 透母 *th’이고 한글 초성이 ‘ㄱ, ㅌ’인데 실제 진언 표기에서도 실담장과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실담장에서 범자 ‘ph’ 대응에 한자 자모가 ‘滂母 *ph’이고 한글은 ‘ㅍ’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 한글은 ‘ㅍ’로 되어 있다. 오대 진언(1485)에서 예외의 현상까지 포함하여 한글 초성에 ‘ㅍ’의 예가 단 한 예도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중세한국어의 초성체계에서 ‘ㅍ’는 아마 ‘ㄱ, ㄷ’와 비하여 어떤 음성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중국어의 한자 ‘發’이 중고한어에서 비록 성모체계에서 幫母 *p에 속하지만 3등운 글자로 음성적으로 [pf]의 마찰성이 있어 범자 ph와 대응되는 현상과 흡사할 것이다. 즉 당시 중세한국어의 ‘ㅍ’는 ‘ㄱ, ㄷ’에 비하여 음성적으로 유기성의 특징이 강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외 ‘ㅌ’ 역시 ‘ㅌ’와 혼용되는 유기성의 특징이 반영되는 현상도 보인다.

[표16] ‘ㄷ, ㅌ’의 진언 표기

분류	진언 표기	실담장
설음	① ㄷ/t/端*t/517	① ㄷ/t/端*t
	① ㅌ/th/透*th/47	① ㅌ/th/透*th
	① ㄷ/dh/定*d/207	① ㄷ/dh/定*d
권설음	② ㄷ/t/知*t/49, ㅌ/t/知*t/47	② ㄷ/t/知*t
	② ㅌ/th/徹*th/3	② ㅌ/th/徹*th
	② ㄷ/dh/澄*d/2	② ㄷ/dh/澄*d

물론 이는 단순히 진언의 한글 표기의 양상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로 더욱 상세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진행할 것이다.

5.2.1.2. ‘ㅇ, ㄴ, ㅁ’

다음 [표8]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비음이 범자 유성음 계열과 비음 계열이 동시에 대응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 또한 실담장의 표기 규칙과 일치한다. 관련 진언 표기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17] ‘ㅇ(ㅇ), ㄴ, ㅁ’의 진언 표기

유성음 범자	비음 범자
① ㅇ(ㅇ)/g/疑*ŋ/254	② ㅇ(ㅇ)/ŋ/疑*ŋ/1
① ㄴ/d/泥*n/188	② ㄴ/n/泥*n/264
① ㄴ/d/娘*n/5	② ㄴ/ŋ/娘*n/111
① ㅁ/b/明*m/68	② ㅁ/m/明*m/444

위의 [표17]에서 한글의 비음 ‘ㅇ, ㄴ, ㅁ’는 범자 자음에서 유성음의 ‘g, d, d, b’와 비음의 ‘ŋ, n, ŋ, m’와 모두 대응되고 있다. 한자 표기 역시 한글과 같이 모두 비음의 ‘疑母 *ŋ, 泥母 *n, 娘母 *ŋ, 明母 *m’을 사용하고 있다. 한글의 비음 표기는 한자의 비음 표기를 따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자는 또 무엇 때문에 이들을 비음으로 표기하였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오대진언(1485)의 다라니의 중국어 번역은 대부분 不空의 번역이었으며,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역시 不空의 번역 체계와 일치한다. 不空의 번역은 玄奘¹⁵⁴⁾의 번역과 다르다. 중고한어 시기의 불경 번역은 8세기의 不空의 번역과, 7세기의 현장의 번역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혀 다른 번역 체계를 갖고 있는데 특히 유성음 범자의 번역에서 나타난다. 不空은 비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 玄奘은 같은 유성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범자의 유성유기음의 번역도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번역 체계

154) 玄奘(602년-664년)은 중국 허난성(河南省) 옌스(偃師) 지역 출신이며 627년 8월 장안에서 출발하여 천축 행을 떠났고 645년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장(玄奘), 실크로드 사전, 창비]

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18] 7세기 현장의 번역

중고한어		범어
全濁 (유성음)	群母 *g	g, gh
	定母 *d	d, dh
	并母 *b	b, bh
次鐸 (비음)	疑母 *ŋ	ŋ
	泥母 *n	n
	明母 *m	m

[표19] 8세기 불공의 번역

중고한어		범어
全濁 (유성음)	群母 *g	gh
	定母 *d	dh
	并母 *b	bh
次濁 (비음)	疑母 *ŋ	g, ŋ
	泥母 *n	d, n
	明母 *m	b, m

위의 [표18]과 [표19]를 비교하여 보면 현장의 번역은 우선 중국어의 全濁音 성모의 글자가 범어의 유성음과 유성유기음의 두 계열과 대응되고 있지만, 불공의 번역은 전탁음 자모의 글자가 범어의 유성유기음 한 계열과만 대응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번역은 次濁의 비음 자모의 글자가 범자의 비음 계열과만 대응되지만 불공의 번역은 비음 글자가 범자의 유성음과 비음 두 계열에 대응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찍이 프랑스의 Henri Masper(1920)는 현장 번역은 7세기의 표준음을 대표하고 불공 번역은 8세기 長安 方言의 음운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보았으며 8세기 장안 방언의 중국어 비음은 순수한 비음이 아니라 폐쇄음 성격이 함께 동반한 음일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明母 글자는 순수 비음의 *m이 아닌 폐쇄성격을 동반한 *mb이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중국의 학자 施向東(1983), 劉廣和(1984)에서도 그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오대진언(1485)와 <진언집> 실담장의 중국어 번역은 불공의 번역의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 한국어의 비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여러 외국어 표기에서 한국어의 비음과 외국어의 유성음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허인영(2014:65-66)에 의하면 18세기 초 일본사람이 당시 한국어를 전사한 자료인 『全一道人』에는 한국어의 비음 ‘ㄴ’, ‘ㄹ’을 각각 일본어 유성음의 ‘ㄷ(do)’, ‘ㄸ(bi)’으로 전사한 예들이 있다. 그리고 각주 96에 의하면 반대로 현대 일본어 유성음의 ‘ㄷ(do)’가 한국어에서 ‘ㄴ’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어 비음의 비음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한국어 비음의 특성상 외국어 유성음 발음과 혼용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담장에서도 중국어 한자의 영향이 아니라 범자의 유성음을 비음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토 지유키(2007:6)에서도 河野六郎(1968)의 견해와 같이 하여 한국어 비음을 유성음의 성격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단순한 외국어의 청각적인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면 진언 표기에서 마땅히 유성음과 비음 표기가 혼용되어 나타나야 한다. 허인영(2014)에서 고찰한 『全一道人』의 예는 유성음과 비음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진언 표기에서는 극히 일부 혼용의 예만 있을 뿐¹⁵⁵⁾, 거의 대부분 정연하게 비음과 유성음이 대응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한자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한자의 영향에 이끌려 인위적인 수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연사본(1777)의 범례 제7조항에는 ‘漢書에서 字와 音이 다르지만, 梵文에서 音과 字가 모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佛, 沒, 菩, 冒’ 4자는 梵文에서 모두 ‘mo’의 ‘모’를 따르며 唇音으로 통용한다고 하였다.¹⁵⁶⁾’고 되어 있다. 즉 한자 ‘佛, 沒, 菩, 冒’는 진언에서는 ‘mo’ 대응의 ‘모’로 표기할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불경 번역에서 진언은 주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엄격한 체계적인 번역이 필요하므로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오대진언(1485)에서의 범어 유성음의 한글 비음 표기는 불공의 번역 체계를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의 유성음 특성이란 음운적 특징에 의하여 현장의 번역보다 불공의 번역 체계가 더 잘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경의 진언 번역의 특성상 체계성을 고려하여 인위적인 수용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155) 기본 개음절에서 ‘da/다/多/1 [Q;1] [多:▶端母 歌1韻 *ta]’ 혹은 복자음 음절에서 ‘d/ㄷ/底(字母)/1 [底(字母):▶端母 *t]’과 같이 간혹 1회의 유성음 대 유성음의 예외적인 번역이 나타나곤 한다.

156) 漢書中有字與音俱別, 而梵文中音與字皆同者. 如佛, 沒, 菩, 冒四字通作梵‘mo’‘모’字, 皆從唇音通用故也.

5.2.1.4. ‘뵙’

앞서 자음의 대응에서 순경음 비읍 ‘뵙’이 범자 ‘v’와 대응함을 보았다. 그리고 순경음 비읍은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남을 보았다. 범자 ‘v’를 중심으로 한글 표기의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예1

- 1) 미/vi/尾(明*m), 미/vi/味(明*m), 미/vi/微(明*m), 밍/vim/尾孕_[二合], vya/ㅁ/尾野_[二合]
- 2) 베/ve/吠(并*b)/10, 베(배)/vai/吠(并*b)
- 3) 바/va/𪛗(*?), ㄸ바/tvā/怛𪛗, ㄴ바/nva/娜𪛗
- 4) ㅁ/varṁ/𪛗(明*m)
- 5) ㄸ바/tvā/怛𪛗, 스바/svā/娑𪛗(薩𪛗), 스바/jva/入𪛗, 시바/śvā/濕𪛗, 히바/hva/賀𪛗
- 6) 스와/svā/娑𪛗/1

위의 예에서 1)번 예를 보면 범자 ‘v’에 대응되는 한글 초성은 ‘ㄹ’이다. 이들의 특징은 범자 모음이 ‘i’인 기본 음절이거나 제2자음이 ‘y’인 복자음 음절이다.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한자는 모두 明母 *m로 되어 있다. 다음의 2)번을 보면 한글 초성이 ‘ㅂ’로 되어 있는데 범자 모음이 ‘e’ 혹은 ‘ai’이고 한자 자모는 并母 *b들이다. 그리고 3)번을 보면 한글 초성이 ‘ㄸ’이고 범자 모음은 ‘a’이며 한자는 모두 ‘𪛗’이다. ‘𪛗’는 부수 ‘ㄹ’을 더하여 만든 造字이다. 부수를 제거한 한자 ‘縛’는 并母 *b로 2)번 한자의 예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4)번의 예를 보면 범자가 ‘varṁ’인데 모음이 ‘a’이다. 만약 앞서 범자 모음의 대응 고찰에 따르면 범자가 ‘a’ 모음일 때는 3)번의 예와 같이 한글 초성은 ‘ㄸ’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ㄹ’로 되어 있다. 이는 한자 자모가 明母 *m인 것으로 보아 범자를 따르지 않고 한자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위의 예들에서 한글 ‘ㄸ’ 표기는 한자의 并母 *b를 따르고, 한글 ‘ㄹ’ 표기는 한자의 明母 *m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예를 보면 한자가 3)번과 같이 ‘𪛗’이므로 3)번 예를 따르게 된다면 한글 표기의 초성이 ‘ㄸ’로 되어야 하는데 ‘뵙’로 나타나고 있다. 심

지어 같은 범자와 한자 표기에서도 대응되는 한글이 다르다. 예를 들어 ‘ㄷ바/tvā/怛嘯’와 ‘ㄷ바/tvā/怛嘯’에서 범자와 한자는 일치하지만 한글에서는 초성에서 ‘ㄷ’와 ‘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ㄴ’은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고의 제2장 2.2.1의 한국어 표기의 절 경계에서 진언 독송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일부 범어의 형태단위가 고유어의 형태단위로 인식하여 한국어의 음운변화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았다. 즉 한글의 2음절 진언 표기가 오랜 시간 독송되어 음에 따라 한국어의 고유의 어휘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ㄷ바, 스바, 시바, 스바, 흐바’가 고유어 어휘의 비어두의 제2음절 위치라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성규(1996:12)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 ‘ㄴ’이 모음 사이, ‘ㅣ’로 끝나는 이중모음과 모음사이, ‘ㄱ’과 모음 사이, ‘ㅇ’과 모음 사이 등의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진언 표기에서 출현하는 환경은 첫 번째 모음 사이의 경우는 ‘사비(蝦), 서불(京), 이불-(枯)’ 등이 있다고 하였다. 진언 표기에서의 ‘ㄴ’은 중세한국어에서의 ‘ㄴ’이 출현하는 환경과 비슷하게 되면서 한국어의 음운현상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같은 음운환경에서 모두 ‘ㄴ’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ㄷ바, 스바’와 같이 ‘ㄷ’도 있는데 이는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6)번의 예는 마땅히 ‘스바/svā/娑嘯’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스와/svā/娑嘯’로 나타난 것이다. ‘스바’의 대응 예의 출현 횟수가 132회이고, ‘스와’의 출현 횟수가 1회이므로 ‘스와’가 예외현상이다. 이러한 예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ㄴ’ 표기가 한국어 음운의 반영이며, 이 또한 ‘스바>스와’ 한국어의 순경음 비읍의 원순모음화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또한 순경음 비읍의 원순모음화는 15세기에 이미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실제 국어사 자료에서도 동시기에 순경음 비읍의 음운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김성규(1996:13)에서는 《용비어천가》의 ‘이본 남기(용비어천가 84)’처럼 ‘ㄴ’을 유지하던 어휘인 ‘이불-(枯)’ 등이 《월인석보》에서는 ‘이울며(월인석보 1:48)’처럼 ‘ㄴ’이 사라지는 예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월인석보에서 ‘ㄴ’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고 혼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

이고 있어,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 ‘β>w’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 ‘이불-’과 ‘이울-’이 공존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중세한국어시기의 순경음 ‘ங’의 음가에 대해서 우민섭(1997)에서는 ‘ங’가 범어의 ‘v’와 대응되는데 범어에서 [v]가 반모음으로 분류되고 [w]에 가까운 음가를 갖기에 ‘ங’이 [v]의 음가를 가졌을 것이라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용). 하지만 앞서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범자 ‘v’ 대응의 한글 초성은 ‘ㅂ, ㅅ, ㅍ’ 세 종류가 있으며 그 중 ‘ㅂ’과 ‘ㅅ’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ㅍ’는 ‘ㅂ’가 중세한국어의 유성성 음운환경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음운의 영향을 받은 이표기인 것이다. 즉 ‘ங’은 범자 ‘v’와 직접적인 음가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ங’을 마찰음이 아닌 파열음 즉 유성파열음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종희(1982)에서는 무성음의 /p/와 /b/가 대립을 이루다가 /p/의 변이음 [b]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되어 ‘ங’으로 표기되고 [b]가 [w]으로 변해가는 중간 과도음으로 ‘ங’이 [b~w]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라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용). 그러나 본고의 고찰에서 ‘ㄱ, ㄴ, ㄷ’ 표기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p/과 /b/의 대립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박종희(1982)의 견해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외 김무림(1999)에서는 ‘ங’이 전청음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시 장애음에서 유·무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φ/의 환경적 변이음으로 /β/가 가능하기에 ‘ங’의 음가는 무성마찰음일 것이라고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용).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본고의 진언 표기 고찰과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전청음이 무성음이라는 것은 중국어의 음가이고, 한국어에서 유·무성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국어음에 맞추어 반드시 무성음을 대표 변이음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기문(1961:103), 김완진(1967:129)에서는 유성음 환경을 근거로 중세한국어 ‘ங’의 음가를 유성마찰음의 /β/로 재구성하였다. 본고의 고찰 결과 역시 ‘ங’의 유성음 환경에 충실히 하여 /β/의 음가설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5.2.2. 중성 표기의 특징

5.2.2.1. ‘으’와 ‘으’

진언 표기에서 ‘으’ 모음이 출현하는 환경은 보통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경우가 복자음 음절에서 두 자음의 연쇄 사이에 ‘으’ 모음이 첨가된 것이다.

예2

ㄱ라/kra/羯囉, ㄴ바/nva/娜嘯, ㄷ마/tma/怛麼, ㄹ나/gna/疙囊, ㄹ리/kr/訖哩

예2의 경우 한글 ‘으’ 모음에 대응되는 범자 모음은 없다. 범어에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는 경우 이를 한국어음으로 표현할 때의 모음은 반드시 제일 무표적인 모음이어야 한다. 중세한국어 시기 ‘으’ 모음의 음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매우 많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이진호(2013)을 참고할 수 있다.

이진호(2013)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후설모음으로 보는 견해와 중설모음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후설모음으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河野六郎(1968), 허웅(1958), 이기문(1961), 강신항(1972), 권인한(1995) 등이 있고 중설로 보는 견해로는 최현배(1941, 1959), 김방한(1964), 강신항(1995), 이준환(2011) 등이 있다. 그리고 이외에 권재선(1992), 김주원(1992), 오정란(2000) 등 후설에 가까운 중설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으’를 원순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평순모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이진호(2013)에서는 ‘으’의 음가를 [ɿ], [ə]로 재구성하였는데 후설, 평순 및 중모음 혹은 중저모음으로 보았다.¹⁵⁷⁾

또 다른 ‘으’의 출현 환경은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나타난다.

157) 필자는 음성학적으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면서 생성되는 모음의 구간에 있어서 [ɯ], [ʏ]의 음가가 더욱 무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후설고모음 혹은 후설중고모음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예3

dām/당/能(登1*əŋ), mam/당/櫓(東1*uŋ), haŋ/항/口郝(*?), da-r/날/捺(曷1*at)

범자 모음이 ‘a’이므로 한글 표기 ‘아’ 모음이 예상되지만 ‘으’ 모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바 중세한국어 ‘으’ 음가에 후설성이 있는데, ‘농, 뭉’으로 나타나는 것은 ‘-o’ 종성자음의 영향을 받아 모음이 후설되어 ‘으’ 모음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항’의 예에서도 ‘-ŋ’ 종성자음의 영향일 것이다. 물론 범어의 ‘a’ 모음의 음가 영향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종성자음의 영향의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날’에서 ‘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해석이 어려운데 한자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捺’의 중세한국한자음은 ‘날’이지만 진언 표기의 ‘날’의 경우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 고대형의 한국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으’ 대응의 한자가 대개 登1韻 *əŋ, 東1韻 *uŋ, 曷1韻 *at 등의 1등운 글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범자 ‘a’ 모음 대응에 ‘으’ 와 음양대립을 갖는 ‘으’ 모음도 사용된다. 즉 아래와 같다.

예4

ka-k[ŋ]/궁/兢(蒸3*iŋ), dham/등/鄧(登1*əŋ), varn/문/文(文3*iun)

위의 예4에서 ‘궁, 등’의 표기 역시 ‘-o’의 후설성 종성자음의 영향에 의하여 ‘으’ 모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으’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으’를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예4의 ‘으’ 표기 예에서의 한자에 3등운 글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鄧’은 1등운 글자이다.

대체적으로 ‘으’는 1등운 한자와 대응되고, ‘으’는 3등운 글자와 대응되지만 1등운 글자와 혼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2.2.2. ‘아’와 ‘어’

다음은 ‘아’와 ‘어’에 대해 볼 것인데 먼저 ‘어’를 중심으로 보겠다. ‘어’ 모음의 진언 표기 예를 보면 아래와 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예5

- 1) śaŋ/섬/苦(鹽3*ieŋ), śa-n/선/扇(仙3*ieŋ)
- 2) yaŋ/염/琰(鹽3*ieŋ), yaŋ/염/燄(鹽3 *ieŋ), yaŋ/연/演(仙3*ieŋ)
- 3) ca-ŋ/전/戰(仙3*ieŋ), maŋ/명/茗/靑4(*eŋ)
- 4) kaŋ/검/劔(劔)¹⁵⁸⁾(嚴3*iam), kaŋ/검/檢(鹽B*ɥieŋ), kã-n/건/建(元3*ivŋ)
kã-ñ(n)/건/謦(仙B*ɥieŋ), ga-n/언/彦(仙B*ɥieŋ)

위의 예에서 1)번부터 3)번은 모음이 ‘어’이지만 상향이중모음의 ‘여’에서 온 것이다. 1)번과 2)번은 범자 자음 ‘ś’와 ‘y’을 나타내기 위해 활음이 추가된 것이다. 3)번에서는 범자만 보아서는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날 환경이 아닌데, 대응되는 한자 ‘戰, 茗’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4)번은 단모음의 ‘검, 건, 언’ 등의 예이다. 여기서도 범자에서 상향이중모음이 나타날 환경이 아니다. 하지만 한자가 세음성 개음을 갖는 3등운 글자이므로 3)번과 같이 상향이중모음의 ‘여’가 예상되겠지만 실제로 ‘어’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4)번의 3등운 한자는 중류 B류 글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뉴운의 嚴3韻과 元3韻도 3등운 개음의 분류에서 A류 보다 B류와 가깝다. 즉 이들은 모두 중고한어에서 이완적인, 中舌적인 등의 특징을 갖는 개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1)번부터 3)번의 한자를 보면 모두 A류 혹은 A류와 가까운 3등운 글자들이 많다.¹⁵⁹⁾ ‘여’는 보다 전설적인 A류 개음과 대응되고 ‘어’는 보다 비전설적인 B류 개음과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도 細音性 개음을 갖는 3등 글자와 대응되므로 그의 ‘비전설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어’의 비전설성은 중설모음 혹은 후설모음을 뜻하지 않는다. 아래의 범자 ‘a’ 모음에서 한글 ‘아’와 ‘어’ 표기의 혼용 예를 보겠다.

예6

- 1) A kaŋ/감/劔(嚴3*iam) B kaŋ/검/劔(劔)(嚴3*iam)
- 2) A ka-ŋ/간/建(元3*ivŋ) B ka-ŋ/건/建(元3*ivŋ)

158) ‘劔’과 ‘劔’은 이체자이다.

159) 중고한어 개음의 분류 및 음가에 대하여는 민지원(2009)를 참고할 수 있다.

3) A ka-n/간/謫(仙B*ɰien), B ka-n/건/謫(仙B*ɰien)

위의 예6에서 1)번부터 3)번 모두 A와 B의 두 예가 범자 ‘a’ 모음에 A는 한글 ‘아’ 모음에 대응되고 B는 한글 ‘어’ 모음이 대응한다. 한글 모음 ‘어’가 ‘아’와 혼용이 가능한 것은 ‘어’의 비전설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가 일반 대응인 반면 ‘어’는 일부 소수의 대응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는 ‘어’가 ‘아’만큼 중설 혹은 후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는 비전설성을 띠고는 있지만 전설모음과 상대적인 것이며 중성 혹은 후설모음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전설적일 것이다.

다음은 일부 ‘여’의 진언 표기의 특징에 대해 보겠다.

예7

1) A maŋ/명/茗(青4*ej) B meŋ/명/茗(青4*ej)

2) A meŋ/명/銘(青4*ej) B myeŋ/명/銘(青4*e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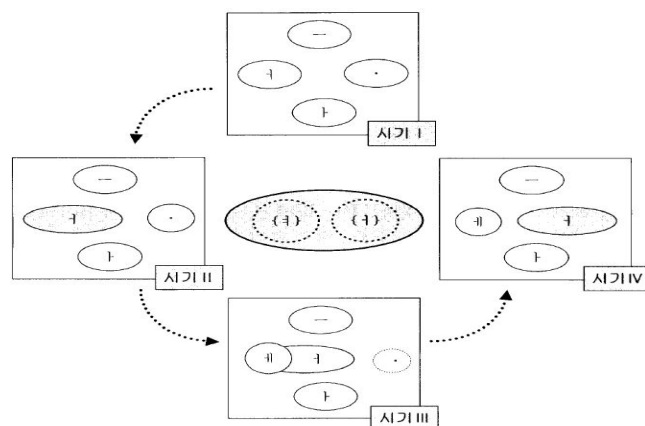
3) A še/세/勢(祭3*iei) B še/셔/勢(祭3*iei)

위의 예7에서 1)번의 A와 B를 보면 한글 ‘명’과 한자 ‘茗’이 같지만 범자에서 하나는 ‘maŋ’, 다른 하나는 ‘meŋ’으로 서로 다르다. 특히 B에서 범자 모음이 ‘e’이고 한글 모음 ‘여’가 대응한다. 2)번에서도 A와 B의 두 예를 보면 범자 ‘e’와 ‘ye’ 대응에 한글 모음 ‘여’가 대응한다. 다음 3)번을 보면 범자 ‘e’ 모음의 A에서는 ‘예’로 나타나고 B에서는 ‘여’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 개음절인 범자 모음 ‘e’ 대응에 있어서 한글 모음 ‘예’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B의 ‘여’는 예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가 비록 ‘예’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설모음의 대응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또한 ‘여’가 비록 ‘예’만큼 전설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전설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의 전설모음의 대응 표기 현상은 기타 외국어 표기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허인영(2016:28)에서는 한국에서의 일본어 표기 자료에서 오대진언(1485)과 제일 가까운 시기의 伊路波(1492)의 표기의 경우 일본어의 ‘e’ 모음에 한글 ‘예, 계, 데, 네, 빼, 메, 레’ 등의 대응이 일반적이지만 ‘셔, 떠’의 표기도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전설모음 ‘e’가 없었을 것이며 외국어의 ‘e’ 모음 표기에는 ‘예’를 일반적인 표기로 사용하고 이외 일부 ‘여’의 표기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요모음은 ‘어’가 되는데 이는 ‘어’가 모음 ‘아’에 비하여 전설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에 상향과 하향의 활음 ‘j’을 동시에 추가하여 ‘예’의 삼중모음으로 전설모음을 표현하고, 상향의 활음 ‘j’ 하나만 더하면 ‘여’의 이중모음으로는 여전히 전설모음에 가깝지만 삼중모음에 비하여서는 전설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요모음 ‘어’는 모음 ‘아’에 비하여 상대적인 전설성을 띠었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도 ‘어’의 전설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승재(1980:11-12)에서 구례지역어의 ‘어’는 중부지방의 ‘어’보다 앞쪽에서 발음된다고 하였다. 김현(2009)에서는 실제로 남부지방의 구례지역과 중부지방의 양주지역의 ‘어’에 대한 음성학적인 고찰 결과 구례의 ‘어’가 양주의 ‘어’에 비하여 보다 위쪽·앞쪽에서 발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는 ‘거, 너, 버’에 비하여 앞쪽에서 발음되지만 ‘j’가 후행할 때 가장 앞쪽에서 실현되며, ‘어→(으)→여→예’의 순서로 전설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는 예나 지금이나 꽤나 넓은 조음영역에서 발음되던 모음이었으며, 음운사적으로 ‘어’의 조음위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4개의 발전 단계가 설정된다고 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시기 I]은 ‘어’가 어느 정도 전설에 가까운 상태의 비전설 평순모음의 조음영역을 나타낸다. 당시의 ‘어’는 j에 후행하든 그렇지 않

든 前舌的인 모음이었기에 ‘어’나 ‘여’에 차이가 없든지, 있어도 미세한 정도였을 것이다. [시기Ⅱ]는 ‘으’가 소실되는 첫 번째 단계로 ‘으’가 점차 위축되면서 어두와 비어두의 ‘어’의 조음영역은 조금씩 후설 쪽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상태이다. [시기Ⅲ]은 단모음 ‘에’가 나타나는 시기이고 [시기Ⅳ]는 오늘의 현재의 상태이다.

위의 분석에서 [시기Ⅰ]에 ‘어’가 어느 정도 전설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비전설 평순모음이라는데 있어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가 보여주는 현상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김현(2009)에서는 [시기Ⅰ]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그리고 ‘어’의 후설성의 변화에 대한 요인을 ‘으’의 소실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는 중세한국어 이전시기부터 독송되어오던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배경을 고려하여 [시기Ⅰ]이 중세한국어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의 후설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단순히 ‘으’ 모음의 소실 때문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으’ 모음의 소실 원인이 무엇인지, 이른 시기의 ‘어’는 왜 전설적이지만 전설모음은 아닌지, 그리고 ‘어’의 전설성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가 주목한 것은 ‘어’가 음성모음이고 ‘아’가 양성모음이라는 데 있다. 김완진(1978)에서는 훈민정음의 ‘舌縮’을 사선적조화로 보고 3단계로 나누어 제일 높고 전설적인 단계로 ‘舌不縮’의 A단계로 중성모음 ‘이’가 있고, B단계는 ‘舌小縮’으로 음성모음 ‘어, 으’가 있으며 C단계는 ‘舌縮’의 양성모음 ‘아, 으’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주원(1993)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양성모음은 [+RTR]의 자질을 가졌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어’가 비록 전설모음은 아니지만 ‘아’보다 상대적인 전설성을 띠고 있는 것은 [-RTR]이기 때문이라 본다.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아’ 모음과 ‘어’ 모음이 혼용되는 현상은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아’와 ‘어’의 [±RTR] 자질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하나의 모음이었다가 점차 분화되었을 것인데, 중세한국어 시기로 가면서 이러한 분화가 점차 강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현(2009)에 따라 ‘어’의 조음영역이 점점 넓어 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으’와 대응하는 음성모음 ‘으’의 영역도 넓

어지면서 ‘으’가 ‘어’와 ‘으’ 모두에게 밀리어 점차 소실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5.2.2.3. ‘오’와 ‘우’

앞서 진언의 음소 표기 고찰에서 한글의 ‘오’와 ‘우’는 범자 모음 ‘u’에서도 혼용되고, ‘o’에서도 혼용됨을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관찰을 위하여 ‘오’와 ‘우’의 범자 모음과의 대응을 통계하여 보았다.

[표20] 한글 ‘오’, ‘우’와 범자 ‘u’, ‘o’ 모음과의 대응

한글	범자	총 횟수	비율
‘오’	u	363	72.6%
	o	137	27.4%
‘우’	u	79	45.4%
	o	95	54.9%

위의 [표20] 통계를 보면 한글 ‘오’ 모음이 범자 ‘u’ 모음과의 대응이 72.6%이고 ‘o’ 모음과 27.4%으로, ‘오’가 ‘u’ 모음과의 대응되는 비율이 더 높다. ‘우’ 모음이 범자 ‘u’ 모음과 대응되는 비율은 45.4%이고, ‘o’ 모음과 대응되는 비율은 54.9%이므로 거의 비슷하다. 만약 ‘오’가 ‘u’에 가깝다면 ‘우’가 ‘o’에 가까워야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다음은 한글 ‘오’, ‘우’와 한자의 등운과 통계를 내어 비교하여 보았다.

[표21] 한글 ‘오’, ‘우’와 한자 운모와의 비교¹⁶⁰⁾

한글	한자	총 횟수	비율
‘오’	1등	434	96.4%
	3등	16	3.6%
‘우’	1등	34	23.4%
	3등	111	76.5%

위의 [표21]에서는 ‘오’는 1등운 글자와는 96.4%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

160) 한자의 중고음을 찾을 수 없는 造字의 예 즉 ‘嚕(*?), 嘮(*?), 叻(*?)’ 등은 부수 ‘口’를 제외한 ‘魯, 勞, 女’으로 통계를 내었다. 즉 ‘魯, 勞’는 1등운 ‘女’는 3등운이 된다.

면 3등운과는 3.6%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오’와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 ‘u’와의 대응이 72.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 1등운 한자의 96.2%의 대응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한자와의 대응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를 보면 1등운과의 대응이 23.4%이고 3등운과의 대응이 76.5%으로 3등운과의 대응이 우세이다. ‘우’가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보인다. 즉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을 선호하고 있다.

위의 고찰을 통하여 ‘오’와 ‘우’는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는 이들 차이의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한자의 등운과의 대응에서는 ‘오’는 1등운을 선호하고, ‘우’는 3등운을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글의 ‘오’와 ‘우’는 범자 모음의 ‘u’와 ‘o’의 차이보다 한자의 1등운과 3등운의 차이에 따른 분류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앞서 ‘으’와 ‘으’, ‘아’와 ‘어’의 고찰에서 음성모음의 ‘으’와 ‘어’가 3등운 글자와의 대응 경향을 보여주는 것과 상통한다. 즉 진언 표기로부터 중세한국어의 양성모음이 1등운 한자와, 음성모음은 3등운 한자와의 대응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 완전히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외들도 있는데 원순모음의 예외 현상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예8

- 1) A 우/gu/虞(虞3 *iʊ)/1 B 오/gu/虞(虞3*iʊ)/4
- 2) A 모/mo/謨(模1*o)/12 B 무/mo/謨(模1*o)/25
- 3) A 로/lo/路(模1*o)/21 B 루/lo/路(模1*o)/2
- 4) A 보/bhu/部(模1*o)/11 B 부/bhu/部(模1*o)/3

위의 예8에서 1)번부터 4)번까지 A 예들은 ‘우’와 3등운 대응, ‘오’와 1등운 대응의 규칙 대응에 부합하는 예들이고, B 예들은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이다. A와 B의 예들은 한자가 같다.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은 대부분 규칙에 부합되는 예들과 표기에 있어 혼용되는 예들인 것이다. 같은 범자나 같은 한자에 대해서 한글에서만 ‘오’와 ‘우’의 혼용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한국어 진언 독송의 더 이른 시기에는 ‘오’와 1등운, ‘우’와 3등운 대응의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대응은 후기로 가면서 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앞서 ‘어’ 표기의 분석에서 중세한국어 모음체계에서 [±RTR] 자질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원순모음의 현상은 [±RTR]의 자질이 ‘오’와 ‘우’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원순모음에서도 중세한국어 시기 이전에는 ‘오’와 ‘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하나의 음소였다가 점차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 또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이 [±RTR] 자질의 적용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5.2.3. 종성 및 ‘ㄴ’계 합용병서

5.2.3.1. ‘-ㄷ’와 ‘-ㄷ’

앞서 5.1절의 종성 자음의 대응 고찰에서 한글의 ‘-ㄷ’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t, -d’과 대응하고, ‘-ㄷ’ 종성자음은 범자 ‘-r’ 자음과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중세한국어 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한국어의 종성 자음 ‘-ㄷ’과 ‘-ㄷ’는 음소적인 대립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한국어가 이전부터 ‘-ㄷ’와 ‘-ㄷ’의 대립이 있었다면 중국어 *-t 자음운미의 한국한자음 즉 현실한자음에서 무엇 때문에 모두 ‘-ㄷ’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또한 그동안 한국한자음의 연구 분야 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난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정리는 주재진(2006)을 참고할 수 있다. 주재진(2006)에 의하면 기존 연구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중국음 수용의 결과로 보는 것인데 주요 연구로 有坂秀世(1936), 칼크렌(1954), 이기문(1972), 송기중(1995), 주성일(2000) 등이 있다. 주로 중국어에서 입성운미의 소실 과정에서 약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중국어 운미의 약화음이 한국 한자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한국 내부의 음운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주요 연구는 河野六郎(1968), 李炳銑

(1985), 김형주(1989), 이장희(2005) 등이 있다. 여기서는 중국어에서 받아들일 때는 -t이었지만 한국어 내부의 음운변화 -t>-r의 약화 현상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있다. 세 번째의 견해는 중국어의 -t를 한국어에서 -l로 대체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주요 연구로는 박병채(1971[1973]), 강신항(1997[2003]), 엄익상(2001) 그리고 중국의 楊耐思(1997) 등이 있다.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중국어 입성운미의 약화 현상은 중국어 음운사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아무리 일러도 후기 중고한어 이전 시기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입성운미의 약화는 북방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남방음에서는 입성운미가 잘 보존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전기 중고한어 시기부터 이미 활발하였으며 중국어와의 접촉은 북방음은 물론 남방음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중국어 입성운미 약화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견해에 따라 한국어 내부의 음운변화라고 본다 하여도 음운변화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과도기의 혼용 현상이 보여야 하지만 한국한자음에서 ‘-ㄷ’ 설내입성운미의 반영은 너무나도 정연하다. 따라서 한국어 내부 음운변화의 가설도 설득력이 약하다.

본고는 진언 표기의 고찰을 통하여 세 번째의 견해, 즉 중국어의 -t를 한국어의 -l로 수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우선 진언 표기에서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범어의 ‘-t, -d, -r’와 모두 대응하지만 한글은 ‘-ㄷ’가 ‘-t, -d’와 대응하고, ‘-ㄷ’는 ‘-r’와 대응하는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사실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한국어의 ‘-ㄷ’와도 대응 가능하고 ‘-ㄷ’와도 대응 가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고대 한국어 시기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중국어의 한자를 차자표기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차자표기의 재구 방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고대 한국어의 음운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장희(2005)에서는 고구려의 한자음은 한어의 [-tʰ]를 ①∅, ②[-di], ③[-ri], ④[-r]의 네 가지로 수용되었을 것이라 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아래와 같

이 하였다.

예9

- 1) 述川郡(一云省知買)<삼사, 권37> : 沂(一作沂)川郡, 本高句麗 述川郡<삼사, 권35>
- 2) 屑夫妻城, 本肖利巴利忽<삼사, 권37 당군전황표>
- 3) 悉直郡(一云史直)<삼사, 권37>

위의 예9에 대하여 이장희(2005)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1)번 예에 대해서는 ‘川’과 ‘買’가 대응하고 ‘述’과 ‘省知’가 대응한다. ‘省’는 음차 표기에서 ‘蘇, 所’ 등으로 읽힐 수 있어 중세한국어에서 ‘소’로 읽혔을 것이다. ‘知’의 전승 한자음은 ‘디’이며 중고음이 [tje]이므로 ‘省知’는 [sUdi]로 재구될 수 있다.

2)번의 예에서는 ‘屑’이 ‘肖利’와 대응하고 ‘夫妻’가 ‘巴利’와 대응하는데 ‘肖利’의 ‘利’가 ‘屑’의 [-t̚]가 유음으로 변화된 이후의 반영이다. 한어 입성 운미의 [-t̚]가 [-r], [-ri]로 반영된 것이다.

3)번 예에서는 ‘悉直’과 ‘史直’이 고구려에서 함께 쓰였음을 의미하는데 ‘悉’과 ‘史’는 음차자로 호용되며 ‘悉’은 한어에서 [-t̚] 운미를 가졌는데 운미가 무시된 채 ‘史’와 호용된 것이어서 고구려 한자음이 한어의 [-t̚]를 ∅로 수용한 예라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장희(2005)에서는 결론적으로 [-t̚]>[-r]를 세 단계로 보았는데 1단계는 한어의 [-t̚]를 [-di]으로 수용(고구려어의 개음절 구조 제약), 2단계는 d→r/V_i(고구려어 내의 음운변화), 3단계는 i→∅/V_으로 고구려 폐음절화이다.

본고의 진언 표기 방법의 고찰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은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함을 보았다.

예10

- k/-ㄱ/見*k, -k/-ㄱ/溪*kh, -p/-ㅍ/幫*p, -s/-ㅅ/生*ʃ, -s/-ㅅ/心*s,
-r/-ㄹ/囉(聲母)*?, -r/-ㄹ/唎(聲母)*?, -r/-ㄹ/哩(聲母)

위의 예10을 보면 만약 고대 한국어 시기의 차자표기에서도 진언 표기

와 같은 표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즉 한국어의 종성 자음이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하다면 예9에서의 1)번을 다르게 재구할 수 있다. ‘省知’에서 ‘知’는 음절말 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sUd]으로 재구된다.

그리고 2)번 예에서 ‘屑’과 ‘肖利’가 비록 하나는 1음절의 한자 표기이고 다른 하나는 2음절의 한자 표기로 서로 다르지만 이 두 표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어는 같은 1음절일 수 있다.

본고 제3장과 제4장의 고찰을 보면 진언 표기에서 중국어 자음운미는 개음절 범자와의 대응 표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복자음 음절에서 단순한 자음의 표기에서 한자의 성모만 적용되어 자음운미의 유무와 상관없게 된다. 즉 진언의 한자 표기에서 음성운의 ‘史’와 입성운의 ‘悉’은 모두 같은 범자 ‘si’ 혹은 ‘s’를 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9의 3)번 예에서 ‘悉直’과 ‘史直’은 한자의 운미와 상관없이 이들은 동일한 한국어 음절의 표기일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이 진언 표기의 방법을 적용하여 예9의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를 재해석한다면 1)번에서 ‘述’는 ‘省知’와 대응되고, 2)번에서 ‘屑’는 ‘肖利’와 대응되게 된다. 차자표기에서도 중국어 *-t 자음운미의 한자는 당시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 ‘知[-d]’와도 대응이 가능하고, ‘利[-r]’와도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차자표기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의 문자를 차용하면서 동일한 한국어의 음절에 다양한 표기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차자표기의 방법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일부 음운변화 설정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장희(2005)에서의 ‘-di’와 ‘-ri’를 각각 ‘-d’와 ‘-r’으로 본다면 2단계의 음운변화인 ‘d→r/V_i’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고대 한국어에는 음절말 자음이 ‘知[-d]’와 ‘利[-r]’가 있는데 중국어에는 *-t 운미 하나만 있어서¹⁶¹⁾, 한국어 ‘-d’의 차자표기에도 *-t 자음운미의 한자 ‘述’를 사용하였고, 한국어 ‘-r’의 차자표기에서도 *-t 자음운미의 한자 ‘屑’를 사용한 것이 된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어가 중국어음을 받아들여서 한국한자음으로 나타내려면 한국어의 ‘-d’와 ‘-r’ 두 가지 음에

161) 상고한어에는 *-l 자음운미가 재구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전설모음에 제한되어 있고 중고한어에 이르러 대부분 *-i로 변화한다. 위의 차자표기 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어 *-t 음가의 자음운미 글자들은 한국어에서 ‘-r’보다 ‘-d’가 음성적으로 더욱 가까웠을 것이다.

문제는 고대 한국어 시기의 ‘-d’가 과연 중세한국어의 ‘-ㄷ’ 종성자음과 직접적인 기원이 되는가이다. 고대한국어 시기의 주요 연구 자료는 차자표기이다. 진언 표기도 외국어 표기이고, 차자표기도 최초에는 외국어인 중국어의 음가를 갖고 문자로 표기한 것이다. 외국어 표기와의 대응에서 ‘-d’와 ‘-r’의 대립이 보이는 것은 당시 한국어에 이러한 음소 대립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음가도 일치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언어접촉의 시각에서 유사한 음가의 대응도 가능하다. ‘-d’는 유음의 폐쇄음화로 쉽게 설명이 가능한 자음이므로 외국어 표기에서 ‘-d’와 ‘-r’의 대립이지만 한국어 내부의 실제 음소 대립은 아마 두 가지의 유음일 수도 있다.

차자표기 연구에 따르면 고대한국어 시기에는 두 가지 유음의 음소 대립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尸’와 ‘乙’의 대립이다. 이들의 음가는 모두 유음과 관련되며, 문법형태소로 나타날 때의 문법적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고대 한국어시기의 음소 대립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고대 한국어의 재구음을 대개 ‘尸’은 ‘ㄹᄇ’, ‘乙’은 ‘ㄹ’로 보고 있다.¹⁶²⁾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유음 중 외국어 표기에서 음성적으로 ‘-d’와 유사하였을 것은 ‘ㄹᄇ’일 것이다.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음 운서 『동국정운』은 현실 한자음의 ‘-ㄹ’를 모두 ‘-ㄹᄇ’으로 교정하였다. 동국정운은 당시 한자음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국어의 음운체계에 가깝게 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국어 *-t의 음가와 현실 한자음의 ‘-ㄹ’ 음가의 차이가 크므로 보다 가까운 음가의 ‘-ㄹᄇ’으로 교정하였을 것이다. 한국어 화자의 입장에서 만약 ‘ㄹ’와 ‘ㄹᄇ’의 두 가지 유음이 있다면 중국어 *-t와 음성적으로 가까운 유음은 그 중 ‘ㄹᄇ’이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고대한국어 시기에 중국어의 *-t 자음운미는 한국한자음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유음 ‘ㄹᄇ’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고대한국어로부터 중세한국어 시기로 내려 가면서 ‘ㄹᄇ’와 ‘ㄹ’ 이 두 가지 유음의 음소대립이 점차 사라지면서, 특히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하나

162) 황선엽(2000), 한경호(2006) 참조.

의 半舌音 문자 ‘ㄹ’를 만들면서 현실 한자음에서 모두 하나의 설내입성운미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물론 본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와 증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더욱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진언의 한글 표기 방법을 통하여 고대 한국어의 차자표기의 표기 특징을 분석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¹⁶³⁾

5.2.3.2. ‘ㅅ’계 합용병서와 ‘-ㅅ’ 종성자음

진언의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다. 진언 표기에 사용되는 합용병서의 종류는 ‘ㅅ’계 합용병서뿐이다. 먼저 합용병서의 종류별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겠다. 합용병서 표기와 혼용되는 기타 표기도 함께 제시할 것인데 ‘ㅅ’ 종성자음의 표기 예는 ★으로 표시하였고, ‘으’ 모음을 추가한 2음절 표기의 예를 사용하는 경우는 ●으로 표시하였다.

아래는 ‘ㅅㄷ, ㅅㅌ’의 합용병서 표기이다.

예11

- 1) ㅅㄷ/st-: ㅅ타/sta/娑多, ㅅ티/sti/娑底, ㅅ타/strya/娑底也, ㅅ타/stra/薩怛囉
- 2) ㅅㅌ/ṣṭ-: ㅅ타/ṣṭa/瑟吒, ㅅ타/ṣṭai/瑟𪎸, ㅅ타/ṣṭra/瑟吒囉, ㅅ타/ṣṭam/史擔
- 3) ㅅㅌ/ṣṭh-: ㅅ타/ṣṭha/瑟吒, ㅅ타/ṣṭhi/瑟底
- 4) ㅅㅌ/ṣṭ-: ㅅ타/ṣṭi/瑟恥(耻) ★붓티/pu-ṣṭi/補瑟置

위의 예11에서 1)번부터 3)번까지 ‘ㅅㄷ’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응하는 범자 자음은 각각 ‘st-, ṣṭ-, ṣṭh-’로 다르다. 4)번의 예에서 합용병서 ‘ㅅㅌ’가 보인다. 이에 대응되는 범자 자음은 ‘ṣṭ-’이다. 앞서 2)번에서 범자 자음 ‘ṣṭ-’는 ‘ㅅㄷ’와 대응되므로, ‘ㅅㄷ’와 ‘ㅅㅌ’의 표기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ṣṭ-’에서 ‘ṣ’를 제외한 단순한 ‘ṭ’ 자음의 한글 표기에서도 ‘ㄷ’와 ‘ㅌ’가 혼용된다.

163) ‘gra/알/藥囉[二合]/1’, ‘mra/말/沫/1’의 예외도 있는데 ‘-ㄹ’ 종성자음과 관련하여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4)번의 예에서 ★의 표기가 있는데 이 예에서는 ‘ㅅ’계 합용병서가 예상되지만 ‘-ㅅ’ 종성자음의 표기에 사용되고 있다. 즉 ‘pu-ʃti’의 두 번째 범자 음절 ‘ʃti’는 앞서 예의 표기 ‘ㅅ’와 같이 합용병서로 표기되어도 되지만 ‘-ㅅ’ 종성자음의 표기 ‘pu-ʃ’는 ‘ㅅ’으로, ‘ti’는 ‘티’로 표기되었다.

진언 표기에서 비록 ‘ㅅ’과 ‘ㅅ’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당시 중세한국어의 합용병서 표기에서 ‘ㅅ’이 더욱 일반적인 표기인데 비하여 ‘ㅅ’은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생소한 표기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제4장의 복자음 음절의 표기 방법에서 합용병서 표기는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 제1자음이 S계인 복자음 음절에 사용된다는 규칙성을 볼 수 있었다. 즉 진언 표기의 범자 음절 대응 규칙에 의하면 ‘ㅅ’ 표기가 마땅하지만 당시 중세한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기이므로 이보다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ㅅ’ 종성자음의 표기와 혼용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ㅅ’의 합용병서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12

- 1) ㅅ/sp-: ㅅ/spā/澀跛, ㅅ/pre/澀必噉
- 2) ㅅ/sph-: ㅅ/spha/瑟破, ㅅ/spho/瑟普, ㅅ/spho/薩普, ㅅ/spho/娑普
- 3) ㅅ/sv-: ㅅ/sva/沙嘩/4, ㅅ/svah/娑嘩/3 ●스바/svā/娑嘩/132, 스바/svā/薩嘩/22

위의 예12를 보면 ‘ㅅ’ 합용병서 표기에 대응되는 범자음절은 ‘sp-, sph-, sv-’ 등이 있다. 1)번과 2)번의 범자 자음 ‘sp-, sph-’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 유형에 속하므로 합용병서 표기의 규칙성과 일치한다.

하지만 3)번의 범자 자음 ‘sv-’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으로 복자음 음절의 일반 대응의 표기 규칙에 의하면 마땅히 ‘으’ 모음을 첨가한 2음절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3)번에서 ●의 기타 표기 예가 있는데 ‘스바’로 나타나며 출현 횟수가 각각 132회, 22회이다. 즉 3)번의 합용병서 ‘ㅅ’이 4회, ‘ㅅ’이 3회 나타나는 것은 예외 표기인 것이다. 이러한 예외 표기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진언 표기의 규칙에 따르면 ‘으’ 표기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어의 표기에 ‘ㅅ’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2음절 표기보다 1음절 표기가 더 경제적이므로 이러한 예외 표기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ㅅ, ㅅ, ㅅ’ 등의 합용병서 표기를 보겠다.

예13

- 1) ㄱ/sk-: ㄱ리/skr/塞訖哩/8¹⁶⁴) ●스간(건)나/ska-nda/塞謏娜/2
 2) ㄴ/ṣṇ-: 씨/ṣṇi/瑟拏/9 ★밋노/vi-ṣṇo/尾瑟努/1, ㄱ릿나/kr-ṣṇa/訖哩瑟拏/1
 ●스니/ṣṇi/瑟拏/1, 스나/ṣda/瑟拏/1
 3) ㅁ/sm-: ㅁ/sma/娑麼/2 ★밋마/pa-sma/跋娑麼/1 ●스마/sma/娑麼/4

위의 예13은 앞서 다른 합용병서에 비하여 중세한국어에서 출현율이 높지 않은 예들이다. 1)번의 ‘ㄱ’은 중세한국어에서 그나마 자주 등장하는 합용병서 표기이다. 이에 진언 표기에서도 ‘ㄱ리’ 표기 예가 나타난다. 하지만 ●의 ‘스간’ 혹은 ‘스건’의 2음절 표기도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도 ‘ㅁ’ 혹은 ‘ㅁ’ 즉 종성자음 ‘-ㄴ’과 결합하는 음절의 출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음절 구조의 표기가 부자연스럽기에 2음절 표기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2)번 예의 ‘ㄴ’과 같이 진언 표기에서의 ‘씨’가 보인다. 중세한국어의 한글 표기에서 ‘ㄴ’의 합용병서 표기 예로는 지금까지 ‘싸히(男)’ 하나의 예만 발견된다. ‘ㄴ’의 표기가 일반적인 표기가 아니었으므로 ★의 ‘밋노, ㄱ릿나’와 같이 ‘ㅁ’ 종성자음의 표기와 ●의 ‘스니, 스나’의 2음절 표기법이 혼용되었을 것이다. 실제 중세한국어에서도 ‘ㅁ’ 종성자음과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석보상절』 19에서 ‘갓나히’의 예가 2회 나온다(김성규 1996:18-19 참고).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3)번의 ‘ㅁ’과 같이 특이한 합용병서 표기가 보인다. 실제 중세한국어의 표기에서는 이러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또한 자주 사용하는 표기가 아니므로 ★에서 ‘밋마’의 ‘ㅁ’ 종성자음 표기와 ●의 ‘스마’의 2음절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위의 진언 표기에서 ‘ㅁ’계 합용병서 표기는 ‘ㅁ’ 종성자음의 분리 표기

164) 범자 ‘skr’는 사실 ‘-s#kr’의 경계가 있다. 즉 ‘s’는 앞의 형태단위 마지막 자음이고 ‘kr’는 후행하는 어휘의 첫 음절이다. 이를 표기하기 위한 한자 표기에서 ‘塞訖哩’로 묶어서 그리고 ‘三歟’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국어의 번역에서 음이 들리는 데로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 표기 역시 한자를 따라서 이를 하나의 복자음 음절로 인지하고 있다.

와 혼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한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뽕, 슌’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 ‘바썰, 수씨’로 표기되기도 하고, 이외 기타 ‘城 밧긔 (龍 69), 안팏긔 (釋 19, 23)’, 혹은 ‘숫글 (楞 7.16), 숫근(楞 8.97)’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이익섭 1992:157).

그럼 이러한 표기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음가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세한국어시기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하여 기존 연구는 주로 자음군으로 발음하였다는 견해와 된소리 즉 경음으로 발음하였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는 최현배(1942), 허웅(1965) 등이 대표적이고 된소리로 보는 견해는 이기문(1955, 1972)가 대표적이다(박창원 1996:176-177 참고).

앞서 진언 표기의 예에서 합용병서 ‘ㅅᄇ’, ‘ㅅᄃ’, ‘ㅅᄂ’의 특이한 표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특히 ‘ㅅᄇ, ㅅᄂ’ 표기는 중세한국어 고유어의 표기에서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ㅅᄃ’ 또한 ‘ㅅᄃᄃ’ 하나만 나타나고 있다. ‘ㅅᄇ, ㅅᄂ’를 단순히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이러한 표기의 음가가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중세한국어로 가면서 점차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설상 단순한 외국어표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기는 특히 유기음의 ‘ㅌ’와 결합하는 ‘ㅅᄇ’, 비음의 ‘ㄴ, ㅁ’와 결합하는 ‘ㅅᄃ, ㅅᄂ’의 존재는 된소리를 표현하였다 보기보다 자음군으로 발음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창원(1996:177)에서는 합용병서를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외국어와의 전사 비교 역시 전사 자료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범자의 복자음 음절에서 자음의 연쇄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으’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스바, 스간, 스니, 스마’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합용병서의 ‘ㅅᄇ, ㅅᄃ, ㅅᄂ’와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당시 합용병서의 음가가 된소리 즉 경음이었다면 이러한 혼용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중세한국어의 ‘-ㅅ’ 종성자음의 음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아래와 같다. 허웅(1953, 1958), 이기문(1959) 등의 초창기 연구에서는 ‘ㅅ’와 ‘ㄷ’는 순전히 표기법의 문제일 뿐 음절말에서의 음성실현형은 내파음 [t̚]이라 보았다가 이후 이기문(1961, 1963, 1972), 허웅(1965, 1975) 등에서는 점차 견해를 바꾸어 [t̚]까지는 中和가 미치지 못한 ‘내파적인 [s]’ 또는 ‘매우 간극이 좁으면서도 그 마찰은 매우 약한 [s]음’일 것으로 보았다. 이 중적 음가의 표기 견해도 있는데 박창원(1991)에서는 음절말에서 [s]와 [ʔ]가 모두 종성표기 ‘ㅅ’로 나타난다고 보았다(이상의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김경아 1992:114-115 참고). 이에 김경아(1992)에서는 15세기는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에서 ‘ㅅ’과 ‘ㄷ’의 대립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이며 ‘ㅅ’이 내파화의 과정에 있을 것이라 보았고 중간 단계로 ‘ㅎ’와 等價일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진언 표기 고찰에 의하면 ‘-ㄷ’ 종성자음은 범자 ‘-t, -d’와 대응되고 동시에 한자는 *-t 자음운미와 대응되고 있으며 ‘-ㅅ’ 종성자음의 혼용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ㅅ’ 종성표기는 오히려 ‘ㅅ’계 합용병서와 나타난다. 앞서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는 ‘으’ 모음의 2음절 표기 ‘스바, 스나, 스마’와 혼용되면서 자음군의 음가를 가졌을 것이라 추정 한바, 이러한 자음군 표기와 ‘ㅅ’ 종성자음의 혼용은 만약 내파음으로 발음 되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파적인 [s] 혹은 내파화 과정의 음가로 본다면 진언 표기가 나타나는 현상은 외국어의 표기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본고는 오대진언(1485)의 한글의 진언 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진언 범자를 이해하고 진언 텍스트의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범자의 음절 분석과 음절 유형도 분류하였다. 그리고 범자와 한글, 한자를 음절단위의 대응 예로 분리시켰다. 제3장에서는 기본 음절 범자에 대한 한글 표기 예들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복자음 음절 범자에 대한 한글 표기를 분석하였다. 주로 한글의 표기방법과 梵-韓-中 음소대응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한자의 음가는 전기 중고한어의 채구 음가를 적용하였다.

먼저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대개 아래와 같다.

기본 범자 음절에서 ①범자 자음 ‘ś’와 ‘y’ 대응에 한글 ‘시’와 ‘이’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śa, ya’ 대응의 한글 표기에서 상향이중모음의 ‘샤, 야’로 되어 있다. ②범자 ‘e’ 모음 대응에 한글 ‘예’ 표기가 일반적이다. 일부 범자 ‘ai’ 모음 대응에도 ‘예’ 표기가 반영되는데 이는 동일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범자 ‘ai’ 대응의 한글 모음 표기는 ‘애, 익, 예’가 일반적이다. ③범자 ‘u’와 ‘o’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으며 같은 범자 모음에 한글 표기가 혼용한다.

복자음 범자 음절에서 한글은 비교적 다양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에서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으’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kra’의 한글 표기는 ‘크라’이다. 이런 표기방법은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제일 일반적인 표기법이다. 하지만 제2자음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음절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kya’는 한글 ‘가’로 표기한다. 한자 표기에서는 표기법의 차이가 없이 모두 ‘二슴’으로 표기한다. 즉 상향이중모음의 한글 표기는 한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과 대응하여 폐음절로 나타나는 표기법이 제일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범자 ‘ma-rga’의 한글 표기는 ‘말아’이다. 한글의 종성자음 ‘-르’는 범자 자음 ‘-r’과 대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계인 경우는 ‘스’계 합용병서의 표

기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 대응의 한글 표기가 ‘ㅉ’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음소대응의 규칙성을 보면 본고에서 고찰한 오대진언(1485)에서 실제 진언 표기의 梵-韓-中 음소 대응은 상당히 규칙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梵-韓-中 음소 대응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대진언(1485)의 표기 규칙과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표기 원칙과 거의 일치함을 보았다. 이로부터 진언의 한글과 한자 표기는 상당히 엄격한 규칙대응에 의하여 작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나타나는 일부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초성 자음의 대응에서 우선 한글 자음 ‘ㄱ, ㄷ, ㅂ’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음의 ‘ㅇ, ㄴ, ㅁ’은 비록 중국어 번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범어의 유성음과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에 유성성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성의 대응에서는 우선 실담장에서 범자 모음과 한글 모음은 1:多로 대응하는 현상 즉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표기의 모음은 ‘아, 으, 어, 으’가 대응하는 현상은 실제 진언 표기를 근거로 체계화하여 반영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글 모음은 한자 운모의 등운과 관련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음성모음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하는 경향이 보인다.

중성자음의 대응에서 주목한 것은 한글의 중성 자음이 한자의 성모와 대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글 중성 자음의 ‘-ㄱ’은 한자 자모 來母 및 유사한 음가의 한자 성모와 대응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을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의 독법 연구에 적용하여 새롭게 해석하여 보았다. 예를 들어 한자 ‘知’의 聲母는 한국어 [-d]와 대응할 수 있고, ‘利’의 聲母는 [-r]와 대응한다. 그리고 ‘ㄴ’계 합용병서 표기가 ‘-ㄴ’의 중성자음과의 혼용되어 표기한다. 이는 당시 적어도 진언 표기에서 ‘ㄴ’계 합용병서는 경음화되지 않았을 것이며 ‘ㄴ’ 중성자음은 완전히 내파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원전류>

『五大眞言』(1485), 원간본, 국가기록유산 보물 793-5 [영인].

『眞言集』(1569), 安心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眞言集』(1777), 萬淵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眞言集』(1800), 望月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논저류>

강대현(2014), 『安然의 悉曇藏에 나타난 東아시아 佛敎家の 悉曇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강신항(1987), 한국한자음내 설음계자음의 변화에 대하여, 『동방학지』.

강신항(2004), <오대진언> 안의 한자에 대한 한글 주음 고찰, 『한국어연구』 2, 한국어연구회.

권인한(1998),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학총서 29, 서울 태학사.

권인한(2009), 『중세 한국한자음의 분석적 연구』(자료편), 제이앤씨.

권혁준(2000), 古今韻會舉要에 반영된 重紐 현상 및 그 상관 문제, 『中國語文論叢』 第19輯, 155-190.

김경아(1992), 중세국어 종성표기 ‘ㅅ’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113-139.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김완진(1975), 訓民正音 子音字와 加劃의 原理, 『어문연구』 통권 제7호, 제8호 합집, 1975.5, 186-194.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127-139

김주원(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33-56

김주원(1993),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17.

김태경(2007), 월인석보 진언표기를 통한 중국어음 연구, 『중국어문학논

집』 제43호.

김현(2009), ‘ㄸ>ㄷ’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 『開新語文研究』 第29輯.

김현덕(2016), 실담문자 음사 연구, -진언집 소재 진언 하자 및 한글음사 비교·분석-, 『불교학연구』 제46호.

남권희(2005), 韓國 記錄文化에 나타난 眞言의 流通, 『密教學報』 7집, 51-122.

남희숙(2000), 조선시대 다라니경·진언집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의 분석을 중심으로, 『회당학보』 5, 회당학회.

도수희(1971), 각자병서 연구, 『한글50주년기념논총』, pp69-104.

미즈노 순페이(2011), 梵字의 한글 음사(音寫)에 대한 고찰, -五大眞言의 “神妙章句大陀羅尼”와 “佛頂尊勝陀羅尼”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131-166.

민지원(2009), 中古漢語 3·4等韻의 介音 研究,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병채(1979), 진언집 실담장고, 『국어문학』 20, 국어문학회.

박창원(1996), 『중세국어 자음연구』, 한국문화사.

변순미(2003), 楞嚴心呪 悉曇梵字 한글표기에 관하여, 『불교학연구』 7.

안주호(2002),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

안주호(2003), 상원사본 <오대진언>의 표기법 연구, 『언어학』, 69-87.

안주호(2006), 불교 문헌에 나타난 진언표기 방식 연구, 『회당학보』 제11집

이동석(2013), ‘ㄴ’의 음가론, 『국어사연구』 17.

이승재(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 45.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장희(2005), 한자음 설내 입성 운미의 유음화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2.

이진호(2013), ‘ㄹ’ 음가론, 『국어사연구』 17.

이진호(2014), 『국어음운론 강의』 (개정판), 삼경문화사.

이태승, 최성규(2008), 『실담범자입문』, 정우서적.

- 이태승·안주호(2003), 망월사본 <眞言集凡例>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제19집, 207-227.
- 전순환(2005),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신묘장구대다라니 편』, 서울문화사.
- 전순환(2012),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반야바라밀다심경 편』, 지식과 교양.
- 정승석(2003), 범어의 자모 사용 빈도와 음성학적 특성, 『印度哲學』 제13집 1호, 39-64.
- 주재진(2006), 한자음 -1 운미 연구의 성과와 과제, 『中國學論叢』 제21輯.
- 최영애(1999), 韓國漢字音에 나타난 重紐현상과 해석, 『중국어언어연구』 8권, 1-63.
- 최영애(2000),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 한경호(2006), 고대 한국어 借字 표기 ‘尸’ 음가의 고찰, 『成均語文研究』 제40집.
- 허웅(1953), 竝書의 音價에 對한 反省, 『국어국문학』 7호.
- 허인영(2016), 전사 자료를 통해 본 /ㄴ/계 중모음의 변화, 2016년 겨울 국어사학회 발표문.
- 황국정(2000), 음절말 ‘ㅅ’의 음가에 대한 역사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황선엽(2000), 석독구결 ‘尸’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제26집.
- 馬淵和夫(2006), 『悉曇章の研究』, 勉誠出版.
- 伊藤智ゆき(2007), 朝鮮語眞言·陀羅尼轉寫音の音韻論的研究, 『朝鮮學報』 203, 31-67.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 (『한국 한자음 연구』, 이진호 역, 2011, 역락)
- 田久保周譽(1944[1978]), 『批判悉曇學』, 第一篇, 第二篇, 平文社.
- 河野六郎(1968[1979]),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 平凡社. (『한국 한자음의 연구』, 이진호 역, 2010, 역락)

- 唐作藩(2002),『音韻學教程』(第三版), 北京大學出版社. [1986년 初版, 1991년 再版] (『중국어음운학』, 심소희 역, 교육과학사, 2000)
- 劉廣和(1984), 唐代八世紀長安音聲紐,『語文研究』, 總第12期.
- 陸志韋(1939),『古音說略』, 學生書局.
- 麥耘(2009),『音韻學概論』, 江蘇教育出版社. [古文獻學基礎知識叢書, 主編 裘錫圭 楊忠]
- 潘悟雲(2000),『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중국어역사음운학』, 권혁준 역, 2014, 學古房)
- 聶鴻音(1992), 番漢對音簡論,『固原師專學報』, 1992年2期, 70-75.
- 施向東(1983), 玄奘譯著中的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音,『語言研究』1983年第1期(總 第4期).
- 李榮(1973),『切韻音系』, 鼎文書局(臺灣).
- 鄭張尚芳(1987), 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溫州師範學院學報』第4期, 67-90 [『鄭張尚芳語言學論文集』, 上冊, 中華書局, 2012 재수록]
- 鄭張尚芳(2003),『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 黃笑山(1996), 切韻三等韻的分類問題,『鄭州大學學報』4期, 79-88.
- Henri Masper(1920), Le dialecte de Tchang-ngan sous les Tang, BEFEO., XX, 2. (『唐代長安方言考』, 馬伯樂 著, 聶鴻音 譯, 2005, 中華書局)

부록1: 오대진언(1485)의 진언 텍스트

1) 신묘장구다라니

觀世音菩薩如意珠手眞言

진언	om vajra vatara humphaṭ
한자	唵 _ㄱ 囉日囉 _[二合] 嚩嚩訖發吒
오대	2옴○2바2스1라○2바다1라○2흠바1탁 _[3a]

觀世音菩薩羅索手眞言

진언	om kirilara modra humphaṭ
한자	唵 _ㄱ 枳哩攞囉謨捺囉 _[二合] 吽泮吒
오대	2옴이기1리라1라○1모2느1라○2흠바1탁 _[3b]

觀世音菩薩寶鉢手眞言

진언	om kirikiri vajra humphaṭ
한자	唵 _ㄱ 枳哩枳哩囉日囉 _[二合] 吽發吒
오대	2옴이기1리1기1리○2바2스1라○2흠바1탁 _[4a]

觀世音菩薩寶劍手眞言

진언	om teṣeteja tuvini tuḍhe saddhaya humphaṭ
한자	唵 _ㄱ 帝勢帝惹覩尾憍提娑駄野泮吒
오대	2옴○2테1세2테2샤○2도2미1니○2도1테○1산1다2야○2흠바1탁 _[4b]

觀世音菩薩跋折羅手眞言

진언	om dibhe dibhe dipya mahāśrīye svāhā
한자	唵 _ㄱ 你陞你陞你跋野 _[二合] 摩訶室哩 _[二合] 曳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이니1베○1니1베○1니2바○2마1하1시1리2예○스1바1하 _[5a]

觀世音菩薩金剛杵手眞言

진언	om vajra gni pra diptaya svāhā
한자	唵 _ㄱ 囉日囉 _[二合] 祇憐 _[二合] 鉢囉 _[二合] 你鉢多 _[二合] 野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2바2스1라○2ㄱ1니○ㄷ1라○1넵다2야○스1바1하 _[5b]

觀世音菩薩施無畏手眞言

진언	om jranaya humpāṭ
한자	唵 _ㄱ 日囉 _[二合] 曩野泮吒
오대	2옴○2스1라1나2야○2흠바1탁 _[6a]

觀世音菩薩日精摩尼手眞言

진언	om tupikaya tupipra varidi svāhā
한자	唵 _ㄱ 度比迦野度比鉢囉 _[二合] 嚩哩憐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이도1비가2야○1도1비 ㄷ1라○2바2리1니○스1바1하 _[6b]

觀世音菩薩月精摩尼手眞言

진언	om susidhi gr svāhā
한자	唵 _ㄱ 蘇悉地揭哩 _[二合] 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이소1시1디○2ㄱ2리○스1바1하 _[7a]

觀世音菩薩寶弓手眞言

진언	om acavire svāhā
한자	唵 _ㄱ 阿左尾嚩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2아자2미1레○스1바1하 _[7b]

觀世音菩薩寶箭手眞言

진언	om kamala svāhā
한자	唵迦摩羅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가1마라。스1빠1하 _[8a]
觀世音菩薩楊柳枝手眞言	
진언	om susiddhi karivarita nānta muktaye vajra vajra bandha hanahana humphaṭ
한자	唵蘇悉地迦哩嚩哩哆喃哆目哆曳嚩日囉 _[二合] 嚩日囉 _[二合] 畔駄賀曩賀曩畔泮吒
오대	2옴이소1신1디。가2리2바2리1다。1남1다。1목다1예。2바2스1라。2바2스1라。1반1다。1하1나1하1나。2흠바1탁 _[8b]
觀世音菩薩白拂手眞言	
진언	om padmi nibhagavate mohāyajagamohāni svāhā
한자	唵鉢娜弭 _[二合] 憍婆譏嚩帝謨賀野惹譏謨賀憍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바2느2미。1니1바2아2바2데。1모1하2야2사2아1모1하1니。스1빠1하 _[9a]
觀世音菩薩寶瓶手眞言	
진언	om gri sarṁmarṇyaṁ svāhā
한자	唵揭嚩 _[二合] 糝滿欲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2으1레。1삼2만1염。스1빠1하 _[9b]
觀世音菩薩傍牌手眞言	
진언	om yakṣaṁ nadayaśanra dhaduparyapaśa paśa svāhā
한자	唵藥葛釤 _[二合] 曩那野戰捺囉 _[二合] 達耨播哩野 _[二合] 跋舍跋舍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이약1삼。1나2나2야。2전2느1라。1다1노1발2야바1샤。바1샤。스1빠1하 _[10a]
觀世音菩薩鉞斧手眞言	
진언	om viraya viraya svāhā
한자	唵 _[引] 味囉野味囉野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이미1라2야。1미1라2야。스1빠1하 _[10b]
觀世音菩薩玉環手眞言	
진언	om padmaṁ viraya svāhā
한자	唵 _[引] 鉢娜捨 _[二合] 味囉野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바2느1맘。1미1라2야。스1빠1하 _[11a]
觀世音菩薩白蓮華手眞言	
진언	om vajra viraya svāhā
한자	唵 _[引] 嚩日囉 _[二合] 味囉野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바2스1라。1미1라2야。스1빠1하 _[11b]
觀世音菩薩靑蓮華手眞言	
진언	om kirikiri vajra bhurvandha humphaṭ
한자	唵 _[引] 枳哩枳哩嚩 _[二合] 部囉畔 _[二合] 駄泮吒
오대	2옴이기1리1기1리。2바2스1라。1불1반1다。2흠바1탁 _[12a]
觀世音菩薩寶鏡手眞言	
진언	om visphorada rakṣa vajra maṇḍhala humphaṭ
한자	唵 _[引] 尾薩普 _[二合] 囉那囉葛叉 _[二合] 嚩日囉 _[二合] 曼荼羅泮泮吒
오대	2옴이미1쁘1라2나。1락사。2바2스1라。1만1다라。2흠바1탁 _[12b]
觀世音菩薩紫蓮華手眞言	
진언	om sarasara vajra kara humphaṭa
한자	唵 _[引] 薩囉薩囉嚩日囉 _[二合] 迦囉泮泮吒
오대	2옴ㅇ사1라2사1라。2바2스1라。가1라。2흠바타 _[13a]
觀世音菩薩寶篋手眞言	
진언	om vajra paśakari gana mānrahum

한자	唵 _[ㄹ] 嚩日囉 _[二合] 播設迦哩揭曩唵囉吽
오대	2옴○2바1스1라.바1샤가1리.2아1나.1맘1라2흠 _[13b]
觀世音菩薩五色雲手眞言	
진언	om vajra kari raṭa māmṭa
한자	唵 _[ㄹ] 嚩日囉 _[二合] 迦哩囉吒唵吒
오대	2옴○2바1스1라.가1리.1라타.1맘타 _[14a]
觀世音菩薩君遲手眞言	
진언	om vajra śekha rūṭa māmṭa
한자	唵 _[ㄹ] 嚩日囉 _[二合] 勢佉嚩吒唵吒
오대	2옴○2바1스1라.1셔카.2로타.1맘타 _[14b]
觀世音菩薩紅蓮華手眞言	
진언	om śaṃgri svāhā
한자	唵 _[ㄹ] 商揭嚩 _[二合] 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이상2으1레.스1빠1하 _[15a]
觀世音菩薩寶戟手眞言	
진언	om saṃmaiya kini hari huṃphaṭ
한자	唵 _[ㄹ] 糝昧野祇儻賀哩吽泮吒
오대	2옴이삼2디2야.2기1니.1하2리.2흠바1탁 _[15b]
觀世音菩薩寶螺手眞言	
진언	om śaṃgre maha saṃmaṃyaṃ svāhā
한자	唵 _[ㄹ] 商揭嚩 _[二合] 摩賀糝滿皤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이상2으1레.2마1하.1삼1만1염.스1빠1하 _[16a]
觀世音菩薩髻杖手眞言	
진언	om dhunavajra haḥ
한자	唵 _[ㄹ] 度曩嚩日囉 _[二合] 口郝
오대	2옴이도1나2바2스1라.1후 _[16b]
觀世音菩薩數珠手眞言	
진언	namora tna tra yāya om anabhate vijaye sidhi siddhārthe svāhā
한자	曩謨囉怛曩 _[二合] 怛囉 _[二合] 夜野唵 _[ㄹ] 阿那婆帝尾惹曳悉地悉駄唎替 _[二合] 薩嚩 _[二合] 賀
오대	1나1모1라.ㄷ1나.ㄷ1라.1야2야.2옴○2아1나1바2데.1미2사2예.1시1디.1진1달2데.스1빠1하 _[16b-17a]
觀世音菩薩寶鐸手眞言	
진언	namo padmaṃ paṇaye om amṛ tāṃgaṃbhe śrīye śrī ṭaṃrini svāhā
한자	曩謨鉢娜𑖦 _[二合] 播拏曳唵阿蜜唎 _[二合] 擔儼陞室哩 _[二合] 曳室哩 _[二合] 𑖦哩儻薩嚩 _[二合] 賀
오대	1나1모.바1느1맘.바1나1예.2옴○2아1ㅁ1리.1담1얌1베.1시1리1예.1시1리.1담2리1니.스1빠1하 _[17b]
觀世音菩薩寶印手眞言	
진언	om vajra detaṃ jaye svāhā
한자	唵 _[ㄹ] 嚩日囉儻擔惹曳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2바1스1라.1네1담.2사1예.스1빠1하 _[18a]
觀世音菩薩俱尸鐵鉤手眞言	
진언	om akro tara kara viṣaye namo svāhā
한자	唵 _[ㄹ] 阿喏嚩 _[二合] 哆囉迦囉尾沙曳曩謨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2아ㄸ1로.다1라.가1라.1미사1예.1나1모.스1빠1하 _[18b]
觀世音菩薩錫杖手眞言	
진언	om nartinarti nartapati narte dayapani huṃphaṭ

한자	唵 _[ㄹ] 那 _[ㄴ] 嚩 _[ㄴ] 智 _[ㄴ] 那 _[ㄴ] 嚩 _[ㄴ] 智 _[ㄴ] 那 _[ㄴ] 嚩 _[ㄴ] 吒 _[ㄴ] 鉢 _[ㄴ] 底 _[ㄴ] 那 _[ㄴ] 嚩 _[ㄴ] 帝 _[ㄴ] 那 _[ㄴ] 夜 _[ㄴ] 鉢 _[ㄴ] 儻 _[ㄴ] 呬 _[ㄴ] 泮 _[ㄴ] 吒 _[ㄴ]
오대	2옴이 _[ㄴ] 날 _[ㄴ] 1디 _[ㄴ] 1날 _[ㄴ] 1디 _[ㄴ] 1날 _[ㄴ] 타 _[ㄴ] 바 _[ㄴ] 1디 _[ㄴ] 1날 _[ㄴ] 2데 _[ㄴ] 2나 _[ㄴ] 2야 _[ㄴ] 바 _[ㄴ] 1니 _[ㄴ] 2흠 _[ㄴ] 바 _[ㄴ] 1탁 _[19a]
觀世音菩薩合掌手眞言	
진언	om padmāñjalīm hr̥
한자	唵 _[ㄹ] 鉢 _[ㄴ] 訥 _[ㄴ] 曼 _[ㄴ] 惹 _[ㄴ] 陵 _[ㄴ] 紇 _[ㄴ] 哩 _[ㄴ]
오대	2옴 _[ㄴ] 바 _[ㄴ] 2느 _[ㄴ] 1만 _[ㄴ] 2사 _[ㄴ] 링 _[ㄴ] 1ㅎ _[ㄴ] 2리 _[19b]
觀世音菩薩化佛手眞言	
진언	om caṇḍara bhamāṃṭari kari dakiri dakiriṇi huṃphaṭ
한자	唵 _[ㄹ] 戰 _[ㄴ] 娜 _[ㄴ] 囉 _[ㄴ] 婆 _[ㄴ] 舍 _[ㄴ] 吒 _[ㄴ] 哩 _[ㄴ] 迦 _[ㄴ] 哩 _[ㄴ] 娜 _[ㄴ] 祇 _[ㄴ] 哩 _[ㄴ] 娜 _[ㄴ] 祇 _[ㄴ] 哩 _[ㄴ] 拏 _[ㄴ] 泮 _[ㄴ] 吒 _[ㄴ]
오대	2옴 _[ㄴ] 2전 _[ㄴ] 2나 _[ㄴ] 1라 _[ㄴ] 1바 _[ㄴ] 1맘 _[ㄴ] 타 _[ㄴ] 2리 _[ㄴ] 가 _[ㄴ] 2리 _[ㄴ] 2나 _[ㄴ] 2기 _[ㄴ] 2리 _[ㄴ] 2나 _[ㄴ] 2기 _[ㄴ] 2리 _[ㄴ] 1니 _[ㄴ] 2흠 _[ㄴ] 바 _[ㄴ] 1탁 _[20a]
觀世音菩薩化宮殿手眞言	
진언	om visara visara huṃphaṭ
한자	唵 _[ㄹ] 微 _[ㄴ] 薩 _[ㄴ] 囉 _[ㄴ] 微 _[ㄴ] 薩 _[ㄴ] 囉 _[ㄴ] 呬 _[ㄴ] 泮 _[ㄴ] 吒 _[ㄴ]
오대	2옴 _[ㄴ] 이 _[ㄴ] 미 _[ㄴ] 2사 _[ㄴ] 1라 _[ㄴ] 1미 _[ㄴ] 2사 _[ㄴ] 1라 _[ㄴ] 2흠 _[ㄴ] 바 _[ㄴ] 1탁 _[20b]
觀世音菩薩寶經手眞言	
진언	om ahara sarvāvidya dhara pudite svāhā
한자	唵 _[ㄹ] 阿 _[ㄴ] 賀 _[ㄴ] 囉 _[ㄴ] 薩 _[ㄴ] 囉 _[ㄴ] 嚩 _[ㄴ] 尾 _[ㄴ] 你 _[ㄴ] 野 _[ㄴ] 馱 _[ㄴ] 囉 _[ㄴ] 布 _[ㄴ] 你 _[ㄴ] 帝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2아 _[ㄴ] 1하 _[ㄴ] 1라 _[ㄴ] 1살 _[ㄴ] 1바 _[ㄴ] 1미 _[ㄴ] 2냐 _[ㄴ] 1다 _[ㄴ] 1라 _[ㄴ] 1보 _[ㄴ] 1니 _[ㄴ] 2데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1a]
觀世音菩薩不退金輪手眞言	
진언	om śanamica svāhā
한자	唵 _[ㄹ] 設 _[ㄴ] 那 _[ㄴ] 彌 _[ㄴ] 左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이 _[ㄴ] 셔 _[ㄴ] 1나 _[ㄴ] 1미 _[ㄴ] 자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1b]
觀世音菩薩頂上化佛手眞言	
진언	om vajrṇi vajraṃge svāhā
한자	唵 _[ㄹ] 嚩 _[ㄴ] 日 _[ㄴ] 哩 _[ㄴ] 尼 _[ㄴ] 嚩 _[ㄴ] 日 _[ㄴ] 嚩 _[ㄴ] 藝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2바 _[ㄴ] 2스 _[ㄴ] 2리 _[ㄴ] 1니 _[ㄴ] 2바 _[ㄴ] 2스 _[ㄴ] 1람 _[ㄴ] 1예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2a]
觀世音菩薩蒲萄杵手眞言	
진언	om amala kaṃṭedini svāhā
한자	唵 _[ㄹ] 阿 _[ㄴ] 摩 _[ㄴ] 囉 _[ㄴ] 釳 _[ㄴ] 帝 _[ㄴ] 你 _[ㄴ] 儻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2아 _[ㄴ] 1마 _[ㄴ] 라 _[ㄴ] 2검 _[ㄴ] 2데 _[ㄴ] 2니 _[ㄴ] 1니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2b]
觀世音菩薩甘露手眞言	
진언	om surūsurū prasurū prasurū surū surūya svāhā
한자	唵 _[ㄹ] 素 _[ㄴ] 嚩 _[ㄴ] 素 _[ㄴ] 嚩 _[ㄴ] 鉢 _[ㄴ] 囉 _[ㄴ] 素 _[ㄴ] 嚩 _[ㄴ] 鉢 _[ㄴ] 囉 _[ㄴ] 素 _[ㄴ] 嚩 _[ㄴ] 素 _[ㄴ] 嚩 _[ㄴ] 素 _[ㄴ] 嚩 _[ㄴ] 野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이 _[ㄴ] 소 _[ㄴ] 1로 _[ㄴ] 1소 _[ㄴ] 1로 _[ㄴ] 뵤 _[ㄴ] 1라 _[ㄴ] 1소 _[ㄴ] 1로 _[ㄴ] 뵤 _[ㄴ] 1라 _[ㄴ] 1소 _[ㄴ] 1로 _[ㄴ] 1소 _[ㄴ] 1로 _[ㄴ] 2야 _[ㄴ] 스 _[ㄴ] 1바 _[ㄴ] 하 _[23a]
觀世音菩薩摠攝千臂手眞言	
진언	tadyatha varūkite śvāraya sabhātuṣṭha uhaviya svāhā
한자	怛 _[ㄴ] 你 _[ㄴ] 也 _[ㄴ] 他 _[ㄴ] 嚩 _[ㄴ] 路 _[ㄴ] 枳 _[ㄴ] 諦 _[ㄴ] 濕 _[ㄴ] 嚩 _[ㄴ] 囉 _[ㄴ] 野 _[ㄴ] 薩 _[ㄴ] 婆 _[ㄴ] 咄 _[ㄴ] 瑟 _[ㄴ] 吒 _[ㄴ] 鳴 _[ㄴ] 賀 _[ㄴ] 彌 _[ㄴ] 野 _[ㄴ] 娑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다 _[ㄴ] 2나 _[ㄴ] 타 _[ㄴ] 2바 _[ㄴ] 1로 _[ㄴ] 2기 _[ㄴ] 2데 _[ㄴ] 1시 _[ㄴ] 1바 _[ㄴ] 1라 _[ㄴ] 2야 _[ㄴ] 1살 _[ㄴ] 1바 _[ㄴ] 1도 _[ㄴ] 싸 _[ㄴ] 1오 _[ㄴ] 1하 _[ㄴ] 1미 _[ㄴ] 2야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3b]
神妙章句大陀羅尼	
진언	namo ratna trayāya(1) namaḥ aryaḥ valokite śvāraya(2) bodhi atvāya mahā satvāya(3) mahā kārūṇikaya(4) om(5) sarvā bhayesau(6) trā
한자	曩 _[ㄴ] 謨 _[ㄴ] 囉 _[ㄴ] 怛 _[ㄴ] 曩 _[ㄴ] 怛 _[ㄴ] 囉 _[ㄴ] 夜 _[ㄴ] 野 _[ㄴ] 莫 _[ㄴ] 啊 _[ㄴ] 哩 _[ㄴ] 也 _[ㄴ] 嚩 _[ㄴ] 路 _[ㄴ] 枳 _[ㄴ] 諦 _[ㄴ] 濕 _[ㄴ] 嚩 _[ㄴ] 囉 _[ㄴ] 野 _[ㄴ] 二 冒 _[ㄴ] 地 _[ㄴ] 薩 _[ㄴ] 怛 _[ㄴ] 嚩 _[ㄴ] 野 _[ㄴ] 摩 _[ㄴ] 賀 _[ㄴ] 薩 _[ㄴ] 怛 _[ㄴ] 嚩 _[ㄴ] 野 _[ㄴ] 三 摩 _[ㄴ] 賀 _[ㄴ] 迦 _[ㄴ] 嚩 _[ㄴ] 泥 _[ㄴ] 迦 _[ㄴ] 野 _[ㄴ] 四 唵 _[ㄴ] 五 薩 _[ㄴ] 嚩 _[ㄴ] 婆 _[ㄴ] 曳 _[ㄴ] 數 _[ㄴ] 六 怛 _[ㄴ] 囉 _[ㄴ] 七
오대	1나 _[ㄴ] 1모 _[ㄴ] 1라 _[ㄴ] ㄷ _[ㄴ] 1나 _[ㄴ] ㄷ _[ㄴ] 1라 _[ㄴ] 1야 _[ㄴ] 2야 _[ㄴ] 나 _[ㄴ] 1막 _[ㄴ] 1알 _[ㄴ] 1약 _[ㄴ] 2바 _[ㄴ] 1로 _[ㄴ] 2기 _[ㄴ] 2데 _[ㄴ] 1시 _[ㄴ] 2바 _[ㄴ] 1라 _[ㄴ] 2야 _[ㄴ] 1모 _[ㄴ] 1디 _[ㄴ] 1사 _[ㄴ] ㄷ _[ㄴ] 2바 _[ㄴ] 2야 _[ㄴ] 2마 _[ㄴ] 1하 _[ㄴ] 1사 _[ㄴ] ㄷ _[ㄴ] 2바 _[ㄴ] 2야 _[ㄴ] 2마 _[ㄴ] 1하 _[ㄴ] 1가 _[ㄴ] 1로 _[ㄴ] 2니 _[ㄴ] 가 _[ㄴ] 2야 _[ㄴ] 2옴 _[ㄴ]

	1살1바.1바2예2수. ㄷ1라 ^[24b]
진언	na karaya tasyamyem(7) namaḥ skṛtvā(8) imām(9) aryā valokite śvāra tava(10) nilakanṭha namaḥ hr̥daya(11) mavarta yiśyāmi(12) sarvārthā sa
한자	拏 ^引 迦囉野怛寫銘 ^七 曩莫塞訖哩 ^[三合] 怛嚩 ^[二合] 引八 伊捨 ^{引九} 啊 ^引 哩也 ^[二合] 嚩路 ^引 枳諦濕嚩 ^[二合] 引囉怛嚩 ^十 顛攞建姪曩麼訖哩 ^[二合] 娜野 ^一 麼嚩唎路 ^[二合] 以瑟也 ^[二合] 引强 ^二 薩唎嚩 ^[二合] 囉他 ^[二合] 娑
오대	1나.가1라2야.다1샤2명. 1나1막.1췌2리ㄷ1바. 2이1맘. 1알1야.2바1로2기2데.1시1ㅁ1라.다2바. 1니라2간타.1나1막.1ㅎ2리2나2야. 2마1발다.2이1샤2미. 1살1발1타.1사 ^[25a]
진언	dhanām(13) śubham ajeyam(14) sarvā bhūtānām(15) bhavamarga miśūdhakam(16) tadyathā(17) om(18) aloke aloka(19) matilokā tīkrānte(20) hehe hale(21) ma
한자	駄喃 ^{引三} 輸伴阿薺琰 ^四 薩唎嚩 ^[二合] 步 ^引 路 ^引 喃 ^五 娑嚩沫唎識 ^[二合] 尾戌駄劔 ^六 怛你也 ^[二合] 他 ^{引七} 唵 ^八 阿路計阿路迦 ^九 麼底路迦 ^引 底羯囉 ^[二合] 諦 ^{二十} 醯醯賀唎 ^一 摩
오대	1다1남. 1슈1반.2예2세2염. 1살1바.2보1다1남. 1바2바1말2야.1미1슈1다2감. 다1냐1타. 2옴. 2아1로2계.2아1로가. 2마1디1로1가.1디 ㄱ1란2데. 2혜2혜.1하2례. 2마 ^[25b]
진언	hābodhi satvā(22) smara smara hr̥daya(23) korū korū karma(24) sādahaya sādahaya(25) dhuru dhurū miyānte(26) mahā viyānte(27) dharadhara dhālī
한자	賀冒地薩怛嚩 ^[二合] 引二 娑麼 ^[二合] 囉娑麼 ^[二合] 囉訖哩 ^[二合] 娜野 ^三 矩嚩矩嚩羯囉麼 ^[二合] 四 娑 ^引 達野娑駄野 ^五 度嚩度嚩尾演 ^引 諦 ^六 摩賀尾演諦 ^七 駄囉駄囉達嚩
오대	1하1모1디.1사ㄷ1바. 1스2마1라.1스2마1라.1ㅎ2리2나2야. 2구1로.2구1로.갈2마. 1사1다2야.1사1다2야. 2도1로.2도1로.2미1연2데. 2마1하.2미1연2데. 1다1라1다1라.1다1린 ^[26a]
진언	nre(28) śvāra calacala(29) mala vimala(30) amala murte(31) ehyehe(32) loke śvārā rāga(33) viṣavi nāśaya(34) dveṣavi ṣavi nāśaya(35) mohā
한자	捺嚩 ^[二合] 引八 濕嚩 ^[二合] 囉左攞左攞 ^九 摩攞尾摩攞 ^{三十} 阿摩攞母唎諦 ^一 暲醯曳 ^[二合] 四 ^二 路計濕嚩 ^[二合] 引囉囉 ^引 識 ^三 尾灑尾曩 ^引 捨野 ^四 彌吠 ^[二合] 灑尾灑尾曩捨野 ^五 謨 ^引 賀
오대	2느2례. 1시1ㅁ1라.자라자라. 2마라.1미2마라. 2아2마라.1몰2데. 1예2혜2혜. 1로2계.1시1ㅁ1라.1라2야. 1미사1미.1나1샤2야. 2느2베사1미.사1미.1나1샤2야. 1모1하 ^[26b]
진언	cala viṣavi nāśaya(36) horū horū(37) mala hurū hale(38) panma nābhā(39) sara sara(40) siri siri(41) surū surū(42) budhya budhya(43) bodhaya bo
한자	左羅尾灑尾曩捨野 ^六 虎嚩虎嚩 ^七 麼攞虎嚩賀黎 ^八 鉢娜麼 ^[二合] 曩婆 ^{引九} 娑囉娑囉 ^{四十} 悉哩悉哩 ^一 素 ^上 嚩素嚩 ^二 沒地野 ^[二合] 沒地野 ^[二合] 三 冒駄野 ^[二合] 冒
오대	자라.1미사1미.1나1샤2야. 1호1로.1호1로. 2마라.1호1로.1하2례. 바2느2마.1나1바. 1사1라.1사1라. 1시2리.1시2리. 2소1로2소1로. 1몰2다1몰2다. 1모1다2야.1모 ^[27a]
진언	dhaya(44) maitriya(45) nilakanṭha(46) kamasya darśanām(47) pra hlā daya mānaḥ(48) svāhā(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siddhaya(52) svāhā(53) siddhāyoge śvārāya(54) svāhā(55)
한자	駄野 ^[二合] 四 昧怛哩 ^[二合] 野 ^五 顛攞建姪 ^六 迦麼寫捺哩捨 ^[二合] 喃 ^七 鉢囉 ^[二合] 賀囉 ^[二合] 娜野摩 ^引 諾 ^八 入 娑嚩 ^[二合] 引賀 ^{引九} 悉駄野 ^{五十} 娑嚩 ^[二合] 賀 ^一 摩賀悉駄野 ^二 娑嚩 ^[二合] 賀 ^三 悉駄喻藝 濕嚩 ^[二合] 囉野 ^四 娑嚩 ^[二合] 賀 ^五
오대	1다2야. 2믹ㄷ1리2야. 1니라2간타. 가2마2샤.1닐1샤1남. ㅁ1라.1ㅎ라.2나1야.1마1낙. 스1ㅁ1하. 1실1다2야. 스1ㅁ1하.

	2마1하1실1다2야ㅇ 스1바1하ㅇ 1실1다2유2예.1시1바1라2야ㅇ 스1바1하ㅇ _[27b]
진언	nila kaṇṭhaya(56) svāhā(57) varaha mukha(58) sinha mukhaya(59) svāhā(60) padmā hastaya(61) svāhā(62) cakra yukdhaya(63) svāhā(64) śaṅkha śabṇane(65) bodhanaya(66) svāhā(67)
한자	顚攞建姪野 _六 娑嚩 _{[二合]賀七} 嚩囉賀目佉 _八 僧賀目佉野 _九 娑嚩賀 _{六十} 鉢娜麼 _{[二合]引} 賀娑路野 _一 娑嚩 _{[二合]賀二} 作羯囉 _[二合] 欲駄野 _三 娑嚩 _{[二合]賀四} 商佉攝娜窣 _五 冒達曩野 _六 娑嚩 _{[二合]賀七}
오대	1니라.2간타2야ㅇ 스1바1하ㅇ 2바1라1하.1목카ㅇ 1싱1하.1목카2야ㅇ 스1바1하ㅇ 마2느2마.1하짜2야ㅇ 스1바1하ㅇ 자ㄴ1라.1욕1다2야ㅇ 스1바1하ㅇ 1상카.1섭1나2네ㅇ 1모1다1나2야ㅇ 스1바1하ㅇ _[28a]
진언	mahāla koṭa(68) ¹⁶⁵⁾ dharaya(69) svāhā(70) vama skāṇṭha niśa sthita(71) kṛṣṇa jinaya(72) svāhā(73) vyaghra carma(74) niva sanaya(75) svāhā(76) namora tnatra yā
한자	摩賀攞矩吒 _{[八]166)} 駄囉野 _[九] 娑嚩 _{[二合]賀[七十]} 嚩麼娑建 _[二合] 姪你捨悉體 _{[二合]路[一]} 訖哩 _[二合] 瑟拏 _[二合] 喏曩野 _[二] 娑嚩 _{[二合]賀[三]} 尾野 _[二合] 伽囉 _[二合] 撝囉麼 _{[二合][四]} 你嚩娑曩野 _[五] 娑嚩 _{[二合]賀[六]} 曩謨囉怛曩 _[二合] 怛囉 _[二合] 夜
오대	2마1하라.2구타ㅇ 1다2라2야ㅇ 스1바1하ㅇ 2바2마.스2간타.2니1샤.1시2테다ㅇ ㄴ2릿1나.2시1나2야ㅇ 스1바1하ㅇ 2마1ㄴ1라.잘2마ㅇ 2니2바.1사1니2야ㅇ 스1바1하ㅇ 1나1모1라.ㄷ1나ㄷ1라.야 _[28b]
진언	ya(77) namaḥ ārya valokite śvārāya(78) svāhā
한자	野 _[七] 曩莫啊 _引 哩也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囉野 _[八] 娑嚩 _{[二合]賀}
오대	2야ㅇ 1나1막.1알2야.2바1로2기2데.1시1바1라2야ㅇ 스1바1하 _[29a]

2) 근본다라니

千手千眼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진언	namoratnatrayāya(1) namaḥārya valoki
한자	曩謨囉怛曩 _[二合] 怛囉 _[二合] 夜野 _一 娜莫啊 _引 哩野 _[二合] 嚩路枳
오대	나무라드나드라야야ㅇ 나막알야.바로기 _[29a]
진언	te śvārāya(2) bodhisatvāya(3) mahāsatvāya(4) mahākārūṇikaya(5) mahāvīrāya(6) sahāsrakṣaya(7) sahāśraśrīṣaya(8) sahāśra pana
한자	帝濕嚩 _[二合] 囉野 _二 冒地薩怛嚩 _[二合] 野 _三 摩賀薩怛嚩 _[二合] 野 _四 摩賀迦 _引 嚩拏迦野 _五 摩賀尾囉野 _六 娑賀娑囉 _[二合] 乞灑 _[二合] 野 _七 娑賀娑囉 _[二合] 室哩 _[二合] 灑野 _八 娑賀娑囉 _[二合] 播那
오대	데.시바라야ㅇ 모디사드바야ㅇ 마하사드바야ㅇ 마하가로니가야ㅇ 마하미라야ㅇ 사하.스락사야ㅇ 사하스라.시리사야ㅇ 사하스라.바나 _[29b]
진언	ya(9) sahasra jihvaya(10) sahāsrabhūjāya(11) ehebhagavaṁ(12) ārya valokite śvāra(13) ograatyogra(14) mahāogra(15) mahānada(16) kiriki
한자	野 _九 娑賀娑囉 _[二合] 余賀嚩 _[二合] 野 _十 娑賀娑囉 _[二合] 步惹野 _一 嚩呬婆識 _二

165) 신묘 한자 총 79句. 오대진언 67句가 두 개 반복. 그 뒤로 모두 하나씩 밀려서 78구로 오류가 발생. 망월사본에서 정정.

166) 오대진언(1485)에서 제67구에 ‘七’이 있으므로 제68구로 마땅히 ‘八’이 되어야 하는데 원본에서 ‘七’로 되어 있어 오류가 생겼다. 뒤의 구도 모두 숫자 하나씩 차이가 있어 마치 78句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땅히 총 79句가 되어야 한다. 이의 오류를 바로 잡아 표기할 것이며 새로 수정한 부분을 괄호로 표기하여 ‘[八], [九]..’등으로 하였다.

	啊哩野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囉 _三 塢疋囉 _[二合] 阿底庾 _[二合] 疋囉 _[二合] 四 摩賀塢疋囉 _[二合] 五 摩賀曩那 _六 枳哩枳
오대	야○ 사하스라.△히배야○ 사하스라.보사야○ 예혜.바아른○ 알야.바로기데.시바라○ 오으라.아듀으라○ 마하오으라○ 마하나나○ 기리기 _[30a]
진언	ri kirikiri(17) mirimiri mirimiri(18) ciriciri ciriciri(19) natyonatyō natyonatyō(20) krasakrasa krasakrasa[21] korukoro ko
한자	哩哩哩哩 _七 弭哩弭哩哩哩 _八 唧哩唧哩唧哩唧哩 _九 曩跢曩跢曩跢曩跢 _{二十} 訖囉 _[二合] 娑訖囉 _[二合] 娑訖囉 _[二合] 娑訖囉 _[二合] 娑 _[一] ¹⁶⁷⁾ 矩嚕矩嚕矩
오대	리.기리기리○ 미리미리.미리미리○ 지리지리.지리지리○ 나듀나듀.나듀나듀○ ㄹ라사ㄹ라사.ㄹ라사ㄹ라사○ 구로구로.구 _[30b]
진언	rukuru(22) ehyehe(23) mahāvira(24) malaṇḍana(25) viryeṇḍana(26) sarvākamāmmerṇ prayecha(27) śighraṇ vahamerṇ(28) raṣṭaraṣṭaṇ sarajakakkuro(29) sa
한자	嚕矩嚕 _二 噯醯咽 _三 摩賀尾囉 _四 摩嚩娜那 _五 尾哩演 _[二合] 娜那 _六 薩嚩迦捨銘鉢囉 _[二合] 曳蹉 _七 試伽嚩 _[二合] 嚩陁銘 _八 囉瑟吒 _[二合] 囉瑟旨鳥 _[二合] 娑囉惹兢矩嚕 _九 娑
오대	로구로○ 예혜혜○ 마하미라○ 마란나나○ 미련나나○ 살바가맘명.브라예차○ 시ꄹ람.바헝명○ 라짜라쌈.사라사궁구로○ 사 _[31a]
진언	ha srabhūja(30) saha sravira(31) lokaiśvara sadhaya(32) sana siddhiṇmembhava(33) varaṇobhava(34) aguru bhavami(35) om namostute bhagavaṇ(36)
한자	賀娑囉 _[二合] 步惹 _{三十} 娑賀娑囉 _[二合] 尾囉 _一 路髻濕嚩 _[二合] 囉娑駄野 _二 娑娜悉朕銘娑囉 _三 嚩囉努娑囉 _四 阿虞嚕娑囉 _五 唵曩謨宰堵 _[二合] 帝婆識刎 _六
오대	하.스라보사○ 사하.스라미라○ 로게시바라.사다야○ 사나.싯딤명바바○ 바라노바바○ 아우로.바바미○ 움.나무또데.바아른○ _[31b]
진언	arya valokite svāra(37) prabuddhya praṣṇamām(38) varadumama(39) bhavahe svāhā(40)
한자	啊哩野 _[二合] 嚩路枳帝濕嚩 _[二合] 囉 _七 鉢囉 _[二合] 沒地野 _[二合] 鉢囉 _[二合] 杳娜捨 _八 嚩囉努摩 _九 娑囉唎娑囉 _[二合] 賀 _{四十句}
오대	알야.바로기데.시바라○ 브라마다.브라시나맘○ 바라노마마○ 바바혜.스와하 _[32a]

3) 대수구다라니

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진언	buddhābhaṣṭaṇ sarvāṭethāgatā saṃmantaṇ jvalavala viśoddhe sphoridā cintamaṇi mudra hṛdaya apara jitaṇ dharāṇi mahāpratisara mahāvidya rāja mahādharāṇi
한자	沒駄婆史擔 _[二合] 薩嚩 _引 怛他藥哆 _引 三滿跢 _引 入嚩 _[二合] 囉 _[一] 磨邏尾秣第娑普 _[二合] 哩哆震哆摩拏母捺囉 _[二合] 紇哩 _[二合] 娜野阿跛囉喏哆 _引 _[二] 陀囉尼摩賀鉢囉 _[二合] _[三] 底娑囉摩賀尾你也 _[二合] 囉惹 _引 _[四] 摩賀駄囉尼
오대	몰다바쌈.살바다타아다.삼만다.스바라○ 마라.미술데.쁘리다.진다마니.모느라.히리나야.아바라.△다○ 다라니. 마하브라○ 디사라.마하미나.라샤○ 마하.다라니 _[33b-34a]

167) 20구와 22구 사이의 21구일 것인데 오류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오류의 예들은 [] 괄호로 보충하여 표기하였다.

진언	tra(52) sarvāpāpa viśudhani(53) hurūhurū naḥkṣatra(54) mālā dhāriṇi(55) rakṣarakṣa mām̐mama(56) anāthāśya(57) trāṇa parāya ṇasya(58) pari maucaṇyāmyeṇ(59)
한자	怛囉 _{[二合]二} 薩囉播跋尾戌 _引 馱囉 _三 虎嚕虎嚕諾 _入 乞察 _[二合] 怛囉 _{[二合]四} 麼邏 _引 馱 _引 哩拏 _五 囉乞灑 _[二合] 囉乞灑 _[二合] 捨 _引 麼麼 _六 阿曩他 _引 寫 _七 怛囉 _[二合] 拏跋囉野拏寫 _八 跋哩謨 _去 左 _引 野銘 _{去九}
오대	드라○ 살바바바.미슈다니○ 호로호로.낙사드라○ 마라.다리니○ 락사락사.맘마마○ 아나타샤○ 드라나.바라야.나샤○ 바리.모자야명○ _[37b]
진언	sarvā dukebhyah(60) caṇḍicaṇḍi caṇḍini(61) vegavati(62) sarvāduṣṭa(63) nivāraṇi(64) śatrū paḥkṣa(65) pra barthāni(66) vijaya vāhaini(67) hurūhurū(68) murūmu
한자	薩囉耨契 _引 毗藥 _{[二合]六十} 讚拏讚拏讚拏囉 _一 吠譏囉底 _二 薩囉訥瑟吒 _{[二合]三} 囉囉囉拏 _四 設咄嚕 _[二合] 博乞灑 _{[二合]五} 鉢囉 _[二合] 末他 _{去引} 囉 _六 尾惹野囉咽囉 _七 虎嚕虎嚕 _八 母嚕母
오대	살바.녹케약○ 잔니 잔니.잔니니○ 베아바디○ 살바노짜○ 니바라니○ 샤드로.박사○ 브라.말타니○ 미샤야.바혜니○ 호로호로○ 모로모 _[38a]
진언	rū(69) curūcurū(70) ayuḥ pālani(71) suravara varthāni(72) sarvā devatā pujite(73) dhiridhiri(74) saṁmantā valokite(75) prabhe prabhe(76) suprabhā viśo
한자	嚕 _九 祖嚕祖嚕 _{七十} 阿 _去 欲播囉囉 _一 素囉囉囉末他 _引 囉 _二 薩囉 _引 囉 _去 囉 _引 布 _引 些帝 _三 地理地哩 _四 三滿哆囉路 _引 枳帝 _五 鉢囉 _[二合] 陛鉢囉 _[二合] 陛 _六 素鉢囉 _[二合] 婆 _引 尾秣
오대	로○ 조로조로○ 아욕.바라니○ 소라바라.말타니○ 살바.네바다.보시 데○ 디리디리○ 삼만다.바르기 데○ 브라베.브라베○ 소브라바.미숀 _[38b]
진언	ddhe(77) sarvāpāpa viśudhani(78) dharadhara dharāṇi(79) dharadhale(80) sumusumu(81) rūrūcale(82) cālaya duṣṭāṁ(83) puraya memāśāṁ(84) śrīvapu(85) dhanañja
한자	第七 薩囉 _引 播跋尾戌 _引 馱囉 _八 馱囉馱囉馱囉拏 _九 馱囉馱囉 _{八十} 素母素母 _一 嚕嚕左 _二 佐囉野努瑟旨鳥 _{[二合]三} 布囉野茗 _引 阿苦 _{去四} 室哩 _[二合] 囉補 _五 馱難 _上 惹
오대	데○ 살바바바.미슈다니○ 다라다라.다라니○ 다라다레○ 소모소모○ 로로자레○ 자라야.노쌌. 보라야.명아섬○ 시리비보○ 다난샤 _[39a]
진언	ya karṇmale(86) kṣiṇi kṣiṇi(87) vara devara dāṁkuśe(88) om̐(89) padma viśoddhe śodhaya śodhayaśoddhe(90) bharabhara(91) bhiribhiri(92) bhurūbhurū(93) māṅgāla
한자	野劔麼嚙 _六 乞史 _[二合] 拏乞史 _[二合] 拏 _七 囉囉囉囉囉囉能矩勢 _八 唵 _九 鉢娜麼 _[二合] 尾秣 _{第四} 馱野戌馱野秣 _{第九十} 婆囉婆囉 _一 鼻哩鼻哩 _二 部嚕部嚕 _三 憎 _去 譏 _去 囉
오대	야.감마레○ ㄴ시니.ㄴ시니○ 바라.네바라.농구세○ 음○ 바느마.미숀데.슈다야.슈다야숀데○ 바라바라○ 비리비리○ 보로보로○ 몽아라 _[39b]
진언	viśoddhe(94) pavī tramuke(95) khargiṇi khargiṇi(96) khārahāra(97) jvalita śīle(98) sām̐mantā pra saritā(99) vabhā sitaśoddhe(100) jvāla jvala(101) sarvā devaga
한자	尾秣 _{第四} 跋尾怛囉 _[二合] 穆企 _五 羯擬拏羯擬拏 _六 佉囉佉囉 _七 入囉 _[二合] 里多始嚙 _八 三滿多 _引 鉢囉 _[二合] 娑 _上 哩哆 _{引九} 囉婆 _{六168} 悉多 _上 秣 _{第一百} 入囉 _[二合] 囉入囉 _[二合] 囉 _一 薩囉 _引 囉囉囉
오대	미숀데○ 바미.드라목케○ 칼이니.칼이니○ 카라카라○ 슝바리다.시례○

	삼만다。브라。사리다。바바。시다술데。스바라。스바라。살바。네바아 _[40a]
진언	ṇa(102) sām̐māta karṣaṇi(103) satyavate(104) taratara tārayamāṇ(105) nāga vilokite(106) lahulahu(107) huduhudu(108) kṣiṇikṣiṇi(109) sarvā grahā bhākṣaṇi(110) pīm̐
한자	拏 _{上二} 三 _去 麼多 _月 羯囉灑 _[二合] 拈 _三 薩底也 _[二合] 嚩帝 _四 多 _上 囉多囉跢囉野 _{捨五} 曩 _引 識尾路 _引 枳帝 _六 囉虎囉虎 _七 虎努 _鼻 虎努 _八 乞史 _[二合] 拈乞史 _[二合] 拈 _九 薩嚩呬囉 _[二合] 賀薄乞灑 _[二合] 拈 _{百一十} 冰
오대	나。삼만다。갈사니。사다바데。다라다라。다라야맘。나아。미로기데。라호라호。 호호호노。ㄹ시니。ㄹ시니。살바。ㄹ라하。박사니。빙 _[40b]
진언	gari pīm̐gari(111) cumucumu(112) sumusumu(113) cuvicala(114) taratara(115) nāga vilokiṇi(116) tāraya tumāṇ(117) bhāgavati(118) aṣṭamahm̐ bhayebhyaḥ(119) sām̐mu
한자	藥哩冰藥哩 _一 祖母祖母 _二 素母素母 _三 祖尾左 _{嚩四} 多囉多囉 _五 曩識尾路枳顛 _六 跢囉野 _覩 捨 _{引七} 婆 _去 識嚩底 _八 阿瑟吒 _[二合] 麼賀 _引 婆 _上 曳毗藥 _[二合] 九 三母
오대	아리。빙아리。조모조모。소모소모。조미자레。다라다라。나아。미로기니。 다라야。도맘。바아바디。아짜마하。바예박 삼모 _[41a]
진언	dra sāgara(120) pāryāntāṇ(121) pātāla gagana taram̐(122) sarvātra sām̐mantena(123) diśamandhena(124) vajra prakara(125) vajra paśa mandhanena(126) vajra jvala vi
한자	捺囉 _[二合] 娑 _去 識囉 _{二十} 播哩演 _[二合] 擔 _一 播跢囉識曩怛覽 _二 薩嚩怛囉 _[二合] 三 _去 滿帝曩 _三 你舍滿弟曩 _四 嚩日囉 _[二合] 鉢囉 _[二合] 迦囉 _五 嚩日囉 _[二合] 播 _引 捨滿馱甯曩 _六 嚩日囉 _[二合] 入囉 _[二合] 囉尾
오대	느라。사아라。바련담。바다라。아아나。다람。살바드라。삼만데나。니샤。만데나。 바스라。브라가라。바스라。바샤。만다네나。바스라。스바라。미 _[41b]
진언	śoddhe(127) bhuribhuri(128) garbhāvatī(129) garbhā viśodhani(130) koḥkṣi sāmpuraṇi(131) jvala jvala(132) calacala(133) jvalini(134) pra barṣatu deva(135) sām̐mantena(136) dimyu
한자	秫 _七 部哩部哩 _八 藥婆 _去 嚩底 _九 藥婆 _去 尾戌馱顛 _{三十} 鋤乞史 _[二合] 三布囉拈 _一 入嚩 _[二合] 囉入嚩 _[二合] 囉 _二 左囉左囉 _三 入嚩 _[二合] 里顛 _四 鉢囉 _[二合] 鞞灑覩禰嚩 _五 三 _去 滿帝曩 _六 你弭庾 _[二合]
오대	술데。보리보리。알바바디。알바。미슈다니。국시。삼보라니。스바라。스바라。 자라자라。스바리니。브라。말사도。네바。삼만데나。니뮤 _[42a]
진언	da kena(137) amṛta varṣaṇi(138) devatā vatāraṇi(139) abhi ṣimcatumer̐(140) sugata vara vacana(141) amṛta vara vapuṣai(142) rakṣarakṣa mama(143) sarvāsa
한자	娜計 _引 曩 _七 阿 _上 密哩 _[二合] 多 _上 鞞灑拈 _八 禰嚩跢嚩跢 _引 囉拈 _九 阿鼻洗 _去 左覩若 _{四十} 蘇識多嚩囉嚩左曩 _一 阿密哩 _[二合] 多嚩囉嚩補囉 _二 囉乞灑 _[二合] 囉乞灑 _[二合] 麼麼 _{三ム} 甲 薩嚩 _引 薩
오대	나。게나。아므리다。말사니。네바다。바다라니。아비。션자도명。 소아다。바라。바자나。아므리다。바라。바보세。락사락사。마마。살바사 _[42b]
진언	tvānāṇca(144) sarvātra sarvāda(145) sarvā bhāyebhyaḥ(146) sarbo padra vebhyaḥ(147) sarbopasargebhyaḥ(148) sarvā duṣṭabhāya bhitasya(149) sarvā kālīka lāha(150) vighraha
한자	怛嚩 _[二合] 引難 _去 左四 薩嚩怛囉 _[二合] 薩嚩娜 _{去五} 薩嚩 _引 婆 _去 曳毗藥 _[二合] 六 薩冒 _引 跋捺囉 _[二合] 吠毗藥 _[二合] 七 薩冒 _引 跋薩藝毗藥 _[二合] 八 薩嚩 _[二合] 引訥瑟吒 _[二合] 婆 _去 野鼻怛寫 _九 薩嚩 _引 迦 _引 里迦邏 _引 賀 _{五十} 尾呬囉 _[二合] 賀

오대	득바.난자ㅇ 살바드라.살바나ㅇ 살바.바예박ㅇ 살모.바느라.베박ㅇ 살모바살예박ㅇ 살바.노짜바야.비다샤ㅇ 살바.가리가.라하ㅇ 미ㅇ라하 _[43a]
진언	vivāda(151) duḥsvapna durdi(152) mitā māṅgalya pāpa vinaśani(153) sarvā yakṣa rākṣasa(154) nāgani vāraṇi(155) saraṇi sare(156) malamala malavati(157)
한자	尾嚩娜 _一 耨娑嚩 _[二合] 跋曩 _[二合] 訖賴 _二 彌路 _引 憐識里也 _[二合] 播跋尾曩捨賴 _三 薩嚩藥乞灑 _[二合] 囉 _引 乞灑 _[二合] 娑 _四 曩 _引 識賴嚩囉拏 _五 娑 _上 囉拏娑 _上 嚩 _六 麼攞麼攞麼攞嚩底 _七
오대	미바나ㅇ 녹쌌나.놀니ㅇ 미다.몽아라.바바.미나샤니ㅇ 살바.약사.락사사ㅇ 나아니.바라니ㅇ 사라니.사레ㅇ 마라마라.마라바디 _[43b]
진언	jayajaya jayatumaṁ(158) sarvātra sarvākālaṁ(159) siddhyantumem(160) imaṁmahā vidyāṁ(161) sādahaya sādahaya(162) sarvā maṇḍala sādhani(163) khādaya sarvā vi
한자	惹野惹野惹野觀 _{引八} 薩嚩怛囉 _[二合] 薩嚩迦 _去 覽 _九 悉鈿觀 _{茗六十} 嚩 _引 麼賀 _引 尾你琰 _{引一} 娑 _去 馱野 _去 馱野 _二 薩嚩 _引 滿拏 _上 攞娑馱賴 _三 伽 _去 多 _上 野薩嚩尾
오대	샤야샤야.샤야도맘ㅇ 살바드라.살바가람ㅇ 싯던도명ㅇ 예맘마하.미념ㅇ 사다야.사다야ㅇ 살바.만나라.사다니ㅇ 카다야.살바.미 _[44a]
진언	ghnā(164) jayajaya(165) siddhesiddhe susiddhe(166) siddhyasidhya(167) budhyabudhya(168) purayapuraya(169) pulaṇi pulaṇi(170) puraya memasāṁ(171) sarvāvidyā dhigata
한자	覲曩 _{引四} 惹野惹野 _五 悉弟悉弟蘇悉弟 _六 悉地野 _[二合] 悉地野 _[二合七] 沒地野 _[二合] 沒地野 _八 布 _引 囉野布囉野 _九 布囉拏布囉拏 _{七十} 布囉野茗阿 _去 苦 _{去一} 薩嚩 _引 尾你也 _[二合] 地識多 _上
오대	깅나ㅇ 샤야샤야ㅇ 싯데싯데.소싯데.싯다싯다ㅇ 몬다몬다ㅇ 보라야.보라야ㅇ 보라니ㅇ 보라니.보라야.명아섬ㅇ 살바미니.디아다 _[44b]
진언	burte(172) jayotari(173) jayāvati(174) tiṣṭatiṣṭa(175) sāmmeṃya manu pālaya(176) tathāga tāhṛdaya śaddhe(177) myavalo kayatumaṁ(178) aṣṭabhi mahādā ru
한자	慕啼帝 _[二合] 惹 _二 惹 _引 喻多哩 _三 惹野嚩底 _四 底瑟吒 _[二合] 底瑟吒 _[二合五] 三 _去 麼野麼努播 _引 攞野 _六 怛他 _去 曩多 _引 紇哩 _[二合] 乃野 _引 秣弟 _七 彌也 _[二合] 嚩路 _引 迦 _上 野觀 _{引八} 阿瑟吒 _[二合] 鼻麼賀娜嚩
오대	몰데ㅇ 샤유다리ㅇ 샤야바디ㅇ 디짜디짜ㅇ 삼마야.마노.바라야ㅇ 다타야.다흐리나야.술데ㅇ 마바로.가야도맘ㅇ 아짜비.마하나.로 _[45a]
진언	ṇa bhaye(179) sarasara(180) prasara prasara(181) savā varaṇa viśodhani(182) sāmmanā kāra maṇḍala viśoddhe(183) vigate vigate(184) vigata mala vi
한자	拏婆 _上 曳 _九 娑囉娑囉 _{八十} 鉢囉 _[二合] 娑囉鉢囉 _[二合] 娑囉 _一 薩嚩嚩囉拏 _上 尾戌馱賴 _二 三 _去 滿路 _引 迦 _去 囉滿拏攞尾秣弟 _三 尾識帝尾識帝 _四 尾識多 _上 麼攞尾
오대	나.바예ㅇ 사라사라ㅇ 트라사라.트라사라ㅇ 살바.바라나.미슈다니ㅇ 삼만다.가라.만나라.미술데ㅇ 미아데.미아데ㅇ 미아다.마라.미 _[45b]
진언	śodhani(185) kṣiṇi kṣiṇi(186) sarvāpāpa viśoddhe(187) mala vigate(188) tejavati(189) vajra vati(190) trailokya dhiṣṭite svāhā(191) sarvā tathāgata mudhāna bhi
한자	戌 _引 馱賴 _五 乞史 _[二合] 拏乞史 _[二合] 拏 _六 薩嚩 _引 播跋尾秣弟 _七 麼攞尾識帝 _八 帝惹嚩底 _九 嚩日囉 _[二合] 嚩底 _十 怛賴 _[二合] 路枳也 _[二合] 地瑟吒 _[二合] 帝 _引 娑嚩 _[二合] 賀 _{引一} 薩嚩 _引 怛他 _去 識多 _上 馱 _引 曩鼻

오대	슈다니오 ㄴ시니.ㄴ시니오 살바바바.미술데오 마라.미아데오 데사바디오 바스라.바디오 드래로가.디씨데.스바하오 살바.다타아다.모다나.비 ^[46a]
진언	ṣikte svāhā(192) sarvābodhi satvā bhiṣikte svāhā(193) sarvā devatā bhiṣikte svāhā(194) sarvā tathāgata hṛdaya dhiṣṭita hṛdaye svāhā(195) sarvā tathāga
한자	色訖帝 ^[二合] 娑嚩 ^[二合] 賀 ^{引二} 薩嚩冒地薩怛嚩 ^[二合] 鼻色訖帝 ^[二合] 娑嚩 ^[二合] 賀 ^{引三} 薩嚩禰嚩哆鼻色訖帝 ^[二合] 娑嚩 ^[二合] 賀 ^{引四} 薩嚩怛他藥多 ^上 紇哩 ^[二合] 娜夜地瑟恥 ^[二合] 多紇哩 ^[二合] 乃曳娑嚩 ^[二合] 賀 ^{引五} 薩嚩 ^引 怛
오대	식 데.스바하오 살바모디.사드바.비식 데.스바하오 살바.네바다.비식 데.스바하오 살바.다타아다.호리나야.디씨다.호리나예.스바하오 살바.다 ^[46b]
진언	tā sarṁmaya siddhe svāhā(196) ĩnre ĩnra vati ĩnra myavalo kite svāhā(197) brahmerṁ brahma dyukṣite svāhā(198) viṣṇonamaḥ skṛte svāhā(199) mahe śvā
한자	他去藥跢三麼野悉弟娑嚩 ^[二合] 賀 ^{引六} 印捺嚩 ^[二合] 印捺囉 ^[二合] 嚩底印捺囉 ^[二合] 彌也 ^[二合] 嚩路枳帝娑嚩 ^[二合] 賀 ^{引七} 沒囉 ^[二合] 賀 ^引 銘 ^[二合] 沒囉 ^[二合] 賀 ^引 麼 ^[二合] 你庚 ^[二合] 乞史 ^[二合] 帝娑嚩 ^[二合] 賀 ^{引八} 尾瑟努 ^[二合] 曩莫塞訖哩 ^[三合] 帝 ^引 娑嚩 ^[二合] 賀 ^{引九} 麼系濕嚩 ^[二合]
오대	타아다.삼마야.신 데.스바하오 인느레.인느라.바디.인느라.마바로.기 데.스바하오 므라호명.므라호마.늑시 데.스바하오 밋노나막.쑈리 데.스바하오 마혜.시 ^[47a]
진언	ra mannita pūjitāye svāhā(200) vajra dhara vajra pāṇi malavīrya dhiṣṭite svāhā(201) dhṛtara ṣṭraya svāhā(202) virū ḍhakaya svāhā(203) virū paḥkṣa
한자	囉滿你多布爾跢 ^引 曳娑嚩 ^[二合] 賀 ^{引二百} 嚩日囉 ^[二合] 馱囉嚩日囉 ^[二合] 播拏麼囉尾哩也 ^[二合] 地瑟恥 ^[二合] 帝娑嚩 ^[二合] 賀 ^{引一} 地 ^上 囉 ^[二合] 多 ^上 囉瑟吒囉 ^[三合] 野娑嚩 ^[二合] 賀 ^{引二} 尾嚕茶迦野娑嚩 ^[二合] 賀 ^{引三} 尾嚕播 ^引 乞灑 ^[二合]
오대	라.만니다.보시다예.스바하오 바스라.다라.바스라.바니.마라미라.디씨 데.스바하오 드리다라.쑈라야.스바하오 미로.다가야.스바하오 미로.박사 ^[47b]
진언	ya svāhā(204) veśra maṇāya svāhā(205) caturmahā rāanamaḥ skṛtāya svāhā(206) yaṁmāya svāhā(207) yaṁmā pūjita namaḥ skṛtāya svāhā(208) varuṇaya svā
한자	野娑嚩 ^[二合] 賀 ^{引四} 吠室囉 ^[二合] 麼拏野娑嚩 ^[二合] 賀 ^{引五} 拶咄麼賀囉惹曩莫塞訖哩 ^[三合] 跢 ^引 野娑嚩 ^[二合] 賀 ^{引六} 琰麼野娑嚩 ^[二合] 賀 ^{引七} 琰麼布諾哆曩莫塞訖哩 ^[三合] 跢野娑嚩 ^[二合] 賀 ^{引八} 嚩嚕拏 ^上 野娑嚩 ^[二合]
오대	야.스바하오 베시라.마나야.스바하오 자돌마하.라사나막.쑈리다야.스바하오 염마야.스바하오 염마.보시다.나막.쑈리다야.스바하오 바로나야.스바 ^[48a]
진언	hā(209) marūtāya svāhā(210) mahā marūtāya svāhā (211) agṇaye svāhā(212) nagavilo kitāya svāhā(213) devaga ṇebhyaḥ svāhā(214) nāgaga debhyaḥ svāhā(215) yaḥkṣa
한자	賀 ^{引九} 麼嚕跢野娑嚩 ^[二合] 賀 ^{引十} 麼賀麼嚕跢野娑嚩 ^[二合] 賀 ^{引一} 阿疋曩 ^[二合] 曳娑嚩 ^[二合] 賀 ^{引二} 曩譏尾路枳跢 ^引 野娑嚩 ^[二合] 賀 ^{引三} 禰嚩譏妳毗藥 ^[二合] 娑嚩 ^[二合] 賀 ^{引四} 曩譏譏妳毗藥 ^[二合] 娑嚩 ^[二合] 賀 ^{引五} 藥乞灑 ^[二合]
오대	하오 마로다야.스바하오 마하.마로다야.스바하오 아으나예.스바하오 나아미로.기다야.스바하오 네바아.네박.스바하오 나아아.네박.스바하오 약사 ^[48b]
진언	ga debhyaḥ svāhā(216) rakṣasaga debhyaḥ svāhā(217) gandharvāga debhyaḥ svāhā(218) asulaga ṇebhyaḥ svāhā(219) garuṇaga ṇebhyaḥ svāhā(220) kinnaraga debhyaḥ svāhā(221)

한자	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六 囉乞灑 _[二合] 娑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七 火獻 達嚩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八 阿蘇羅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九 誡嚕拏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二十} 緊曩囉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一
오대	아.네박.스바하 _○ 락사사아.네박.스바하 _○ 안달바아.네박.스바하 _○ 아소라아.네박.스바하 _○ 아로나아.네박.스바하 _○ 긴나라아.네박.스바하 _○ [49a]
진언	mahura gaga debhyaḥ svāhā(222) maṇuṣaibhyaḥ svāhā(223) amaṇu ṣaibhyaḥ svāhā(224) sarvāgra hebhyaḥ svāhā(225) sarvā bhutebhyaḥ svāhā(226) pṛtebhyaḥ svāhā(227) piśācebhyaḥ
한자	麼護囉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二 麼努囉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三 阿麼努囉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四 薩嚩屹囉 _[二合] 系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五 薩嚩 _[二合] 部帝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六 必哩 _[二合] 帝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七 比舍祭毗藥 _[二合]
오대	마호라.아아.네박.스바하 _○ 마노새박.스바하 _○ 아마노.새박.스바하 _○ 살바으라.혜박.스바하 _○ 살바.보데박.스바하 _○ 브리데박.스바하 _○ 비샤제박 _○ [49b]
진언	svāhā(228) apasma rebhyaḥ svāhā(229) kumbhāṇdebhyaḥ svāhā(230) om dhurūdhurū svāhā(231) om turūturū svāhā(232) om murūmurū svāhā(233) hanahana sarvā śatrūnām
한자	娑嚩 _[二合] 賀 _八 阿 _[上] 跋娑麼 _[二合] 嚩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九 矩昧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三十} 唵 _[二合] 度嚕度嚕娑嚩 _[二合] 賀 _一 唵 _[二合] 靺嚕靺嚕娑嚩 _[二合] 賀 _二 唵 _[二合] 母嚕母嚕娑嚩 _[二合] 賀 _三 賀曩賀曩薩嚩設咄嚕 _[二合] 喃
오대	스바하 _○ 아밧마.레박.스바하 _○ 구반네박.스바하 _○ 움.도로도로.스바하 _○ 움.도로도로.스바하 _○ 움.모로모로.스바하 _○ 하나하나.살바.샤드로남 _○ [50a]
진언	svāhā(224) dahhadaḥha sarvaduṣṭa pra duṣṭānām svāhā(225) pacapaca sarvāpra tyarthika(226) pratyami trānām yemama svāhā(227) ahe teṣṇa(228) teṣām sarve
한자	娑嚩 _[二合] 賀 _四 娜賀娜賀薩嚩訥瑟吒 _[二合] 鉢囉 _[二合] 訥瑟吒 _[二合] 喃娑嚩 _[二合] 賀 _五 跋左跋左薩嚩鉢囉 _[二合] 室別迦 _[二合] 鉢囉 _[二合] 底也弭 _[二合] 怛囉 _[二合] 喃 _[二合] 曳麼麼娑嚩 _[二合] 賀 _七 阿 _[上] 呬 _[二合] 帝 _[二合] 史拏 _[二合] 帝 _[二合] 鈇 _[二合] 薩吠
오대	스바하 _○ 낙하낙하.살바노짜.브라.노짜남.스바하 _○ 바자바자.살바브라.딜턱가.브라다미.드라남.예마마.스바하 _○ 아혜.테시나 _○ 데삼.살베 _[50b]
진언	śām śariram(229) jvalaya duṣṭa cittānām svāhā(240) jvali tāya svāhā(241) pra jvali tāya svāhā(242) diptā jvalaya svāhā(243) sāmmanantā jvalāya svāhā(244) māṇi bha
한자	鈇 _[二合] 設哩嚩 _[二合] 入嚩 _[二合] 囉野訥瑟吒 _[二合] 唧踰喃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四十} 入嚩 _[二合] 里踰野娑嚩 _[二合] 賀 _一 鉢囉 _[二合] 入嚩 _[二合] 里踰野娑嚩 _[二合] 賀 _二 捻跋踰 _[二合] 入嚩 _[二合] 囉野娑嚩 _[二合] 賀 _三 三滿哆 _[二合] 入嚩 _[二合] 囉野娑嚩 _[二合] 賀 _四 麼拈跋
오대	삼.샤리람 _○ 스바라야.노짜.길다남.스바하 _○ 스바리.다야.스바하 _○ 브라.스바리.다야.스바하 _○ 님다.스바라야.스바하 _○ 삼만다.스바라야.스바하 _○ 마니.바 _[51a]
진언	draya svāhā(245) purṇa bhadraya svāhā(246) mahā kālaya svāhā(247) māṭṛ gaṇāya svāhā(248) yaḥkṣiṇām svāhā(249) rākṣasiṇām svāhā(250) ākāśa māstrinām svāhā(251)
한자	捺囉 _[二合] 野娑嚩 _[二合] 賀 _五 布囉拏 _[二合] 跋捺囉 _[二合] 野娑嚩 _[二合] 賀 _六 麼賀迦囉野娑嚩 _[二合] 賀 _七 麼 _[二合] 底哩 _[二合] 誡拏野娑嚩 _[二合] 賀 _八 藥乞史 _[二合] 拈喃娑嚩 _[二合] 賀 _九 囉乞灑 _[二合] 泉喃娑嚩 _[二合] 賀 _{五十} 阿迦 _[二合] 捨麼 _[二合] 底哩 _[二合] 喃娑嚩 _[二合] 賀 _一

오대	느라야.스바하ㅇ 불나.바느라야.스바하ㅇ 마하.가라야.스바하ㅇ 마드리.아나야.스바하ㅇ 약시니남.스바하ㅇ 락사시남.스바하ㅇ 아가샤.마드리남.스바하ㅇ _[51b]
진언	sāṃmudra vāsininām svāhā(252) rātri cārānām svāhā(253) divasa carānām svāhā(254) trisāntya carānām svāhā(255) velā carānām svāhā(256) avela carānām
한자	三去母捺囉 _[二合] 囉泉顫喃娑囉 _[二合] 賀二 囉 _[二合] 底哩 _[二合] 左囉喃娑囉 _[二合] 賀三 你囉娑 _[二合] 左囉喃娑囉 _[二合] 賀四 底哩 _[二合] 散地野 _[二合] 左囉 _[二合] 喃娑囉 _[二合] 賀五 吠邏左囉 _[二合] 喃娑囉 _[二合] 賀六 阿 _[二合] 吠邏左囉 _[二合] 喃
오대	삼모느라.바시니남.스바하ㅇ 라드리.자라남.스바하ㅇ 니바사.자라남.스바하ㅇ 드리산다.자라남.스바하ㅇ 베라.자라남.스바하ㅇ 아베라.자라남 _[52a]
진언	svāhā(257) garbhāha rebhyaḥ svāhā(258) garbhā santāraṇi svāhā(259) hurūhurū svāhā(260) om svāhā(261) svaḥ svāhā(262) bhuḥ svāhā(263) bhuvāḥ svāhā(264) om bhurbhuvāḥ svaḥ svāhā(265) ciṭi
한자	娑囉 _[二合] 賀七 藥婆賀囉毗藥 _[二合] 娑囉 _[二合] 賀八 藥婆散踰囉拏娑囉 _[二合] 賀九 護嚕護嚕娑囉 _[二合] 賀六十 唵娑囉 _[二合] 賀一 娑囉 _[二合] 娑囉 _[二合] 賀二 僕娑囉 _[二合] 賀三 部囉 _[二合] 娑囉 _[二合] 賀四 唵部囉部 _[二合] 囉 _[二合] 娑囉 _[二合] 賀五 唧置
오대	스바하ㅇ 알바하.레박.스바하ㅇ 알바.산다라니.스바하ㅇ 호로호로.스바하ㅇ 옴.스바하ㅇ 싹.스바하ㅇ 복.스바하ㅇ 보박.스바하ㅇ 옴.불보박.싹.스바하ㅇ 지티 _[52b]
진언	ciṭi svāhā(266) viṭiviṭi svāhā(267) dharāṇi dharāṇi svāhā(268) agniye svāhā(269) tejovapu svāhā(270) ciriciri svāhā(271) sirisiri svāhā(272) buddhyabuddhya
한자	唧置娑囉 _[二合] 賀六 尾置尾置娑囉 _[二合] 賀七 駄囉拏駄囉拏娑囉 _[二合] 賀八 阿疋顫 _[二合] 曳娑囉 _[二合] 賀九 帝孺囉補娑囉 _[二合] 賀七十 唧哩唧哩娑囉 _[二合] 賀一 悉哩悉哩娑囉 _[二合] 賀二 沒地野 _[二合] 沒地野 _[二合]
오대	지티.스바하ㅇ 미티미티.스바하ㅇ 다라니.다라니.스바하ㅇ 아으니예.스바하ㅇ 데슈바보.스바하ㅇ 지리지리.스바하ㅇ 시리시리.스바하ㅇ 몬다몬다 _[53a]
진언	svāhā(273) siddhyasiddhya svāhā(274) maṇḍala siddhe svāhā(275) maṇḍala mandhe svāhā(276) sīmā mandhani svāhā(277) sarvā śātrūnām svāhā(278) jambhajambha svāhā(279) stambhaya
한자	娑囉 _[二合] 賀三 悉地野 _[二合] 悉地野 _[二合] 娑囉 _[二合] 賀四 滿拏囉悉弟娑囉 _[二合] 賀五 滿拏 _[二合] 囉滿弟娑囉 _[二合] 賀六 泉麼去滿駄顫娑囉 _[二合] 賀七 薩囉 _[二合] 設咄嚕 _[二合] 喃娑囉 _[二合] 賀八 咎婆咎婆娑囉 _[二合] 賀九 娑膽 _[二合] 婆 _[二合] 上野
오대	스바하ㅇ 신다신다.스바하ㅇ 만나라.신데.스바하ㅇ 만나라.만데.스바하ㅇ 시마.만다니.스바하ㅇ 살바.샤드로남.스바하ㅇ 삼바삼바.스바하ㅇ 째마야 _[53b]
진언	stamdhaya svāhā(280) chindachinda svāhā(281) bhindabhinda svāhā(282) bhañja bhañja svāhā(283) mandhamandha svāhā(284) mauhāya mauhaya svāhā(285) maṇi viśoddhe svāhā(286) su
한자	娑膽 _[二合] 婆野娑囉 _[二合] 賀八十 嚩去娜嚩娜娑囉 _[二合] 賀一 枇娜枇娜娑囉 _[二合] 賀二 畔惹畔惹娑囉 _[二合] 賀三 滿駄滿駄娑囉 _[二合] 賀四 謨賀野謨賀野娑囉 _[二合] 賀五 麼拏尾秣弟娑囉 _[二合] 賀六 素
오대	쌌마야.스바하ㅇ 친나친나.스바하ㅇ 빈나빈나.스바하ㅇ 반사반사.스바하ㅇ 만다만다.스바하ㅇ 모하야.모하야.스바하ㅇ 마니.미술데.스바하ㅇ 술 _[54a]
진언	ryesurye surya viśoddhe viśudhaṇi svāhā(287) cadre sucadre purna cadre svāhā(288) grahebhyaḥ svāhā(289) naḥkṣa trebhyaḥ svāhā(290) śive

	svāhā[291] śanti svāhā(292) svaḥ
한자	哩曳 _[二合] 素哩曳 _[二合] 素哩曳 _[二合] 尾梳弟尾戌馱顛娑嚩 _[二合] 賀七 讚捺嚩 _[二合] 素讚捺嚩 _[二合] 布羅娜 _[二合] 讚捺嚩 _[二合] 娑嚩 _[二合] 賀八 疙囉 _[二合] 係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九 諾乞灑 _[二合] 怛嚩 _[二合] 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九十 始吠娑嚩 _[二合] 賀一 扇底娑嚩 _[二合] 賀二 娑嚩 _[二合]
오대	예술예.술야.미술데.미슈다니.스바하ㅇ 잔느레.소잔느레.불나.잔느레.스바하ㅇ 으라혜박.스바하ㅇ 낙사.드레박.스바하ㅇ 시베.스바하ㅇ 선디.스바하ㅇ 싹 _[54b]
진언	styayani svāhā(293) śivaṃkari(294) śintikari(295) puṣṭikari(296) mala mardhani svāhā(297) srikari svāhā(298) śrīya mardhani svāhā(299) śrīya jvalani svāhā(300) namau
한자	娑底也 _[三合] 野顛娑嚩 _[二合] 賀三 始鍔迦哩 _四 扇底迦哩 _五 補瑟置 _[二合] 迦哩 _六 麼囉沫馱顛娑嚩 _[二合] 賀七 室哩 _[二合] 迦哩娑嚩 _[二合] 賀八 室哩 _[二合] 野沫馱顛娑嚩 _[二合] 賀九 室哩 _[二合] 野入嚩 _[二合] 囉顛娑嚩 _[二合] 賀三百 曩謨
오대	싸야니.스바하ㅇ 시맘가리ㅇ 선디가리ㅇ 못티가리ㅇ 마라.말디니.스바하ㅇ 시리가리.스바하ㅇ 시리야.말다니.스바하ㅇ 시리야.스바라니.스바하ㅇ 나모 _[55a]
진언	ci svāhā(301) marūci svāhā(302) vegavati svāhā
한자	些娑嚩 _[二合] 賀一 麼嚩些娑嚩 _[二合] 賀二 吠誡嚩底娑嚩 _[二合] 賀
오대	지.스바하ㅇ 마로지.스바하ㅇ 베아바디.스바하 _[55b]

4) 대불정다라니

一切如來心眞言

진언	om(1) sarvā tathāgatānām murti(2) pravara vigata bhaya(3) śamaya svameri(4) bhāgavati(5) sarvā pāpe
한자	唵 _一 薩嚩怛他藥多喃沒唎底 _[二合] 鉢囉 _[二合] 嚩囉尾誡多婆野 _三 捨麼野娑嚩 _[二合] 銘 _四 婆誡嚩底 _五 薩嚩播閉毗
오대	옴ㅇ 살바.다타아다남.몰디ㅇ 브라바라.미아다.바야ㅇ 샤마야.스바명ㅇ 바아바디ㅇ 살바.바베 _[55b]
진언	bhyaḥ(6) svasti(7) rbhavatu(8) munimuni vimuni vimuni(9) care calani(10) bhāya vigate(11) bhāya hāraṇi(12) bodhibodhi(13) bodhaya bodhaya(14) buddhiri buddhiri(15) sarvā tathāgatā(16) hṛdaya juṣṭai svāhā
한자	藥 _[二合] 六沙嚩 _[二合] 娑底 _[二合] 七 囉婆 _[二合] 嚩觀 _八 母你母你尾母你尾母你 _九 左嚩左囉顛 _十 婆 _去 野尾誡帝 _一 婆 _去 野賀囉拏 _二 冒地冒地 _三 冒馱野冒馱野 _四 沒地里沒地哩 _五 薩嚩怛他藥多 _{引六} 紇哩 _[二合] 乃野足瑟猊 _[二合] 娑嚩 _[二合] 賀
오대	박ㅇ 싸썰ㅇ 바바도ㅇ 모니모니.미모니.미모니ㅇ 자레.자라니ㅇ 바야.미아테ㅇ 바야.하라니ㅇ 모디모디ㅇ 모다야.모다야ㅇ 몰디리.몰디리ㅇ 살바.다타아다ㅇ 히리나야.쇼썩.스바하 _[56a-56b]

一切如來心印眞言

진언	om(1) vajra vati(2) vajra pra tiṣṭita śuddhe(3) sarvā tathāgata mudra dhiṣṭana dhiṣṭite(4) mahā mudre svāhā
한자	唵 _一 嚩日囉 _[二合] 嚩底 _二 嚩日囉 _[二合] 鉢囉 _[二合] 底瑟耻 _[二合] 多梳 _三 薩嚩怛他誡多母捺囉 _[二合] 地瑟妬 _[二合] 曩地瑟耻 _[二合] 帝 _四 麼賀母坦嚩 _[二合] 娑嚩 _[二合] 賀
오대	옴ㅇ 바스라.바디ㅇ 바스라.브라.디썩다.술데ㅇ 살바.다타아다.모느라.디싸나.디썩데ㅇ 마하.모느레.스바하 _[56b-57a]

168) 이 ‘六’는 있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류인 듯하다.

一切如來灌頂眞言

진언	om(1) munimuni(2) munivare(3) abhi śimcatumārṇ(4) sarvā tathāgata(5) sarvāvidya bhiṣaikai(6) mahā
한자	唵 _一 母顚母顚 _二 母顚嚩嚩 _三 阿鼻誑左觀鈴 _{引四} 薩嚩 _引 怛他葉多 _五 薩嚩 _引 尾你也 _{二合} 鼻嚩闍 _六 麼賀
오대	옴 모니모니 모니바례 오 아비.선자도맘 살바.다타아다 살바미냐.비새 게 오 마하 _{오[57a]}
진언	vājraka vaca(7) budra mudritai(8) sarvā tathāgatā hṛdaya(9) dhiṣṭita vajre(10) svāhā(11)
한자	嚩日囉 _{二合} 迦嚩左 _七 母捺囉 _{二合} 母捺哩 _{二合} 帶 _八 薩嚩 _引 怛他誡多 _引 紇哩 _{二合} 乃野 _九 地瑟耻 _{二合} 多嚩日囉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十一}
오대	바스라가.바자 오 모느라.모느리디 오 살바.다타아다.호리나야 디제다.바스례 오 스바하 _[57b]

一切如來灌頂印眞言

진언	om(1) amṛta vare(2) varavara(3) pravara viśoddhe(4) humhum(5) phatṭphaṭ(6) svāhā
한자	唵 _一 阿蜜哩 _{二合} 多嚩嚩 _二 嚩囉嚩囉 _三 鉢囉 _{二合} 嚩囉尾秣弟 _四 咩咩 _五 發吒發吒 _六 娑嚩 _{二合} 賀
오대	옴 아므리다.바례 오 바라바라 오 브라바라.미순데 오 훌훌 오 바탁바탁 오 스바하 _[57b-58a]

一切如來結界眞言

진언	om(1) amṛta vilokini(2) garbhā simraḥkṣaṇi(3) akarsaṇi(4) humhum(5) phatṭphaṭ(6) svāhā(7)
한자	唵 _一 阿蜜哩 _{二合} 多尾路枳顚 _二 葉婆僧囉乞灑 _{二合} 拈 _三 阿羯灑拈 _四 咩咩 _五 發吒發吒 _六 娑嚩 _{二合} 賀 _七
오대	옴 아므리다.미로기니 오 알바.싱락사니 오 아갈사니 오 훌훌 오 바탁바탁 오 스바하 _[58a-58b]

一切如來中心眞言

진언	om(1) vimale(2) jayavare(3) amṛte(4) humhumhumhum(5) phatṭphaṭphaṭphaṭ(6) svāhā
한자	唵 _一 尾麼黎 _二 惹野嚩嚩 _三 阿蜜哩 _{二合} 帝 _四 咩咩咩咩 _五 發吒發吒發吒發吒 _六 娑嚩 _{二合} 賀
오대	옴 미마례 오 사야바례 오 아므리데 오 훌훌훌훌 오 바탁바탁.바탁바탁 스바하 _[58b]

一切如來隨心眞言

진언	om(1) bhārabhara(2) sambhara sambhara(3) idrīya viśudhani(4) humhum(5) rūṛūcale(6) svāhā(7)
한자	唵 _一 跋囉跋囉 _二 三婆囉三婆囉 _三 印捺哩 _{二合} 野尾戌馱顚 _四 咩咩 _五 嚕嚕左黎 _六 娑嚩 _{二合} 賀 _七
오대	옴 바라바라 오 삼바라.삼바라 오 인느리야.미슈다니 오 훌훌 로로자례 오 스바하 _[59a]

大佛頂陀羅尼

진언	namosarvā tathāgatā(1) suhātāya ārhate(2) sammyakṣāmbuddhāya(3) namaḥ sarvā tathāgatā(4) ku
한자	曩謨 _引 薩囉嚩 _{二合} 怛他 _{去引} 葉跢 _{引一} 素誡跢野阿囉曷 _{二合} 帝 _二 三 _去 藐三沒馱野 _三 曩莫 _入 薩囉嚩 _{二合} 怛他 _{去引} 誡跢 _{引四} 矩

오대	나무살바.다타아다ㅇ 송아다야.알하데ㅇ 삼막삼몬다야ㅇ 나막살바.다타아다ㅇ 구 ^[61a]
진언	ti uṣṇīṣārṇ(5) namaḥsarvābuddhā(6) bodhisatvedhyaḥ(7) namaḥsaptānārṇ(8) sārṇmyakṣārṇbuddhā koṭinārṇ(9) saśravaka siṁghanārṇ(10) namolokear hatārṇ(11) namaḥsrau
한자	致塢瑟拏 ^{[二合] 鈿^{引五} 曩莫薩囉嚩^{[二合] 沒馱^{引六} 冒地薩怛呬^{[二合] 毗藥^{[二合] 七}} 曩莫入 颯鉢路^{[二合] 引南^{引八} 三藐三沒馱^{引九} 句致南^{引九} 薩室囉^{[二合] 引嚩迦僧伽南^{引十}} 曩謨路^{引計} 阿上囉曷^{[二合] 擔^{引一} 曩莫素嚕^[二合]}}}}
오대	티.오씨삼ㅇ 나막살바몬다ㅇ 모디사드베막ㅇ 나막삼다남ㅇ 삼막삼몬다.구티남ㅇ 사시라바가.싱가남ㅇ 나무루게알.하담ㅇ 나막스로 ^[61b]
진언	tā pannānārṇ(12) namaḥskṛ dāgaminārṇ(13) namoanāgāminārṇ(14) namoloke sārṇmyakgatānārṇ(15) namosārṇmyak pratipannānārṇ(16) namodevarṣinārṇ(17) namaḥsi
한자	多 ^引 半曩南 ^{引二} 曩莫塞訖哩 ^{[三合] 娜^引 誡弭南^{引三} 曩謨阿上曩誡^{引南^{引四}}} 曩謨路 ^{引計} 三藐藥多 ^{引南^{引五}} 曩謨三藐鉢囉 ^{[二合] 底半曩南^{引六}} 曩謨祢囉哩史 ^{[二合] 喃^{引七} 曩莫悉}
오대	다.반나남ㅇ 나막쑈리.나아미남ㅇ 나무아나아미남ㅇ 나무로게.삼막아다남ㅇ 나무삼막.브라디반나남ㅇ 나무네발시남ㅇ 나막싯 ^[62a]
진언	ddhāvīdyā dhararṣinārṇ(18) śāpānu graha(19) samarthānārṇ(20) namobra hmaṇi(21) namoīnraya(22) namobhāgavate(23) rūdrāya(24) omāpati sahaiyāya(25) namo
한자	馱 ^引 尾你也 ^{[二合] 馱囉哩史^{[二合] 喃^{引八} 舍^引 播弩^鼻 薩囉^{[二合] 賀^九 娑上沫囉他^{[二合] 南^{引二十}}} 曩謨沒囉^{[二合] 憾麼^{[二合] 祢^鼻 曩謨印捺囉^{[二合] 引野^二 曩謨婆誡囉帝^{引三}} 嚕捺囉^{[二合] 引野^四 塢上麼^引 鉢底娑上^引 夜^{引野^五} 曩謨}}}}}
오대	다미나.다랄시남ㅇ 사바노.알하ㅇ 사말타남ㅇ 나무므라.흐마네ㅇ 나무인느라야ㅇ 나무바아바데ㅇ 로느라야ㅇ 오마바디.사혜야야ㅇ 나무 ^[62b]
진언	bhāgavate(26) nārāyaṇḍāya(27) pañcamaha mudrā(28) namaḥskṛtāya(29) namobhāgavate(30) mahākālāya(31) tṛpurānagara(32) vidrā pāṇakārāya(33) a
한자	婆去誡囉帝 ^六 曩囉 ^引 演上拏野 ^七 半左摩賀 ^引 母捺囉 ^{[二合] 引八} 曩莫入 塞訖哩 ^{[三合] 引野^九 曩謨婆去誡囉帝^{三十} 摩賀迦^引 囉野^一} 底哩 ^{[二合] 補囉曩誡囉^二 尾捺囉^{[二合] 引跛^{引鼻} 迦^引 囉野^三 阿}}
오대	바아바데ㅇ 나라연나야ㅇ 반자마하.모느라ㅇ 나막쑈리다야ㅇ 나무바아바데ㅇ 마하가라야ㅇ 드리보라.나아라ㅇ 미느라.바나가라야ㅇ 아 ^[63a]
진언	dhi muktāka(34) śmāśana(35) vāsineya(36) mātṛgaṇa(37) namaḥ skṛtāya(38) namobhagavate(39) tathāgata kolāya(40) namobhāgavate(41) padma kolāya(42) na
한자	地穆訖 ^{[二合] 得多^{[二合] 引迦^四 濕麼^{[二合] 引舍曩^五 嚩^引 泉寧野^六 麼^引 底哩^{[二合] 誡弩^七}} 曩麼塞訖哩^{[三合] 引野^八 曩謨婆去誡囉帝^{引九} 怛他去^引 藥多矩囉^{引野^{四十}}} 曩謨婆去誡囉帝^{引一} 鉢娜麼^{[三合] 矩囉^{引野^二} 曩}}}
오대	디.목다가ㅇ 스마샤나ㅇ 바시네야ㅇ 마드리야나ㅇ 나막쑈리다야ㅇ 나무바아바데ㅇ 다타아다.구라야ㅇ 나무바아바데ㅇ 바느마.구라야ㅇ 나 ^[63b]
진언	mobhāgavate(43) vajrakolāya(44) namobhāgavate(45) manikolāya(46) namobhāgavate(47) garjakolāya(48) namobhāgavate(49) dṛḍhā śurasena(50) pra
한자	謨婆去誡囉帝 ^{引三} 囉日囉 ^{[二合] 矩囉^{引野^四} 曩謨婆去誡囉帝^{引五} 麼拏矩囉^{引野^六}}

	曩謨婆去 識囉帝引七 藥惹矩囉引野八 曩謨婆去 識囉帝引九 你哩[二合]茶去 戊引囉細曩五十 鉢囉[二合]
오대	무바아바데○ 바스라구라야○ 나무바아바데○ 마니구라야○ 나무바아바데○ 알사구라야○ 나무바아바데○ 느리다.슈라세나○ 브라[64a]
진언	hara ṇarājāya(51) tathāgatāya arhate(52) sāmmyakṣāmbuddhāya(53) namobhāgavate(54) amitābhāya(55) tathāgatāya arhate(56) sāmmyakṣān buddhāya(57)
한자	賀囉弩囉引上 惹引野一 怛他去引 藥哆野阿上 囉曷[二合]帝引二 三藐三沒馱引野三 曩謨婆去 識囉帝引四 阿彌跢引婆去野五 怛他藥哆引野阿上 囉曷帝引六 三去 藐三沒馱引野七
오대	하라.나라사야○ 다타아다야.알하데○ 삼막삼몬다야○ 나무바아바데○ 아미다바야○ 다타아다야.알하데○ 삼막삼몬다야○[64b]
진언	namobhāgavate(58) akṣobhyāya(59) tathāgatāya āhate(60) sāmmyakṣāmbuddhāya(61) namobhāgavate(62) bhaisajyāgūrū(63) vedurya prabhārājāya(64) tathā
한자	曩謨婆去 識囉帝引八 阿上 屈葛[二合]引毗夜[二合]引野九 怛他去引 識哆引野阿上 囉曷[二合]帝引六十一 三藐三沒馱引野一 曩謨婆去 識囉帝引二 佩殺紫野[二合]引慶 嚕三 吠叟哩也[二合]鉢囉[二合]婆去 囉引上 惹引野四 怛他去引
오대	나무바아바데○ 악수바야○ 다타아다야.알하데○ 삼막삼몬다야○ 나무바아바데○ 배사자우로○ 베누랴.브라바라사야○ 다타[65a]
진언	gatāya arhate(65) sāmmyakṣāmbuddhāya(66) namobhāgavate(67) sāṃpuṣpaitā(68) sāredrarājāya(69) tathāgatāya arhate(70) sāmmyakṣāmbuddhāya(71) namaubha
한자	藥哆引野阿上 囉曷[二合]帝引五 三藐三沒馱引野六 曩謨婆去 識囉帝引七 三去 補澀閉[二合]多引八 娑去 嗽引捺囉[二合]囉上 惹引野九 怛他藥哆引野阿囉曷[二合]帝引七十 三藐三沒馱引野一 曩謨引婆去
오대	아다야.알하데○ 삼막삼몬다야○ 나무바아바데○ 삼보스베다○ 사례느라라사야○ 다타아다야.알하데○ 삼막삼몬다야○ 나무바[65b]
진언	gavate(72) śakyamunāye(73) tathāgatāya arhate(74) sāmmyakṣāmbuddhāya(75) namaubhāgavate(76) ratna kosuma(77) keturājāya(78) tathāgatāya arha
한자	識囉帝引二 舍枳野[二合]母曩引曳引三 怛他去 藥哆引野阿上 囉曷[二合]帝引四 三藐三沒馱引野五 曩謨婆去 識囉帝引六 囉[二合]怛曩[二合]矩素麼七 計靚囉引上 惹引野八 怛他去 藥哆引野阿上 囉曷[二合]
오대	아바데○ 샤가모나예○ 다타아다야.알하데○ 삼막삼몬다야○ 나무바아바데○ 라드나.구소마○ 계도라사야○ 다타아다야.알하[66a]
진언	te(79) sāmmyakṣāmbuddhāya(80) tesāṃnamah skṛtvā(81) imāmbhāgavate(82) stathāga tuṣṇisām(83) mahāśītata patraṃ(84) namāaparājitaṃ(85) pratyamgirāṃ(86) sarvā
한자	帝引九 三藐三沒馱引野八十 帝鈇引曩莫塞訖哩[三合]怛囉[二合]引一 伊上 舍引婆去 識囉帝引二 娑怛[二合]他去 藥靚瑟拏[二合]鈇引三 摩賀引悉跢多上 鉢怛嚩[二合]四 曩麼阿跛囉爾擔引五 鉢囉[二合]底孕[二合]擬嚩引六 薩囉囉[二合]
오대	데○ 삼막삼몬다야○ 데삼나막.ᄃ리드바○ 이맘바아바데○ 짜타야.도스니삼○ 마하시다다.바드람○ 나마아바라시담○ 브라덩이람○ 살바[66b]
진언	bhūta graha(87) nigrāha karaṇīm(88) paravidyā chedanīm(89) akāla(90) mr̥tyo(91) paritrā ṇakarīm(92) sarvāmandha(93) namokṣaṇīm(94)

	sarvāduṣṭa dusvaḥpna(95) niva
한자	部多藥囉 ^{[二合]賀七} 顫藥囉 ^[二合] 賀迦囉泥淫 ^{[二合]引八} 跛囉尾你也 ^{[二合]砌引} 娜顫寅 ^{[二合]引九} 阿迦囉 ^{九十} 沒哩 ^{[二合]底庾^{[二合]一}} 跛哩怛囉 ^{[二合]拏鼻} 迦哩寅 ^{[二合]二} 薩囉嚩 ^[二合] 滿駄 ^三 曩謨乞灑 ^[二合] 泥淫 ^{[二合]引四} 薩囉嚩 ^{[二合]引} 訥瑟吒 ^[二合] 耨娑嚩 ^{[二合]入} 鉢難 ^{[二合]五} 顫嚩
오대	보다.으라하.니으라하.가라님.바라미냐.체나닌.아가라.므리듀. 바리드라.나가린.살바만다.나무꺾사님.살바노짜.늑쌈나.니바 ^[67a]
진언	raṇīm(96) catura śitinām(97) grahasahasrānām(98) vidhvaṃsa nakarīm(99) aṣṭaviṃ śitinām(100) nakṣatrānām(101) prasa danakarīm(102) aṣṭānām mahā grahānām(103) vi
한자	囉泥淫 ^{[二合]六} 拶覩囉施 ^引 底南 ^{引七} 乞囉 ^[二合] 賀娑 ^上 賀娑囉 ^{[二合]引} 喃 ^{引八} 尾駄網 ^上 娑 ^上 曩迦哩寅 ^{引九} 阿瑟吒 ^[二合] 尾孕 ^[二合] 試底南 ^{引一百} 諾乞察 ^[二合] 怛囉 ^{[二合]引} 喃 ^{引一} 鉢囉 ^[二合] 娑 ^引 娜曩迦哩寅 ^{[二合]引二} 阿 ^上 瑟吒 ^[二合] 喃摩賀藥囉 ^{[二合]賀引} 喃 ^{引三} 尾
오대	라님.자도라.시디남.으라하사하스라님.미드망사.나가린.아싸핑.시디남. 낙사드라님.브라사.나나가린.아싸남.마하으라하남.미 ^[67b]
진언	dhvaṃsa nakarīm(104) sarvāśatrū(105) nivārāṇīm(106) ghorām(107) dusva pananāṅca(108) nāśaṇīm(109) viśaśa strāagno otāraṇīm(110) aparājitām(111) mahāghorām(112) mahā
한자	駄網 ^[二合] 娑 ^上 曩迦哩寅 ^{[二合]引四} 薩囉嚩 ^[二合] 設咄嚩 ^{[二合]五} 顫嚩囉 ^引 泥淫 ^{[二合]六} 具嚩 ^{引七} 耨娑嚩 ^[二合] 跛曩難者 ^{上八} 曩設顫寅 ^{[二合]引九} 尾灑設薩怛囉 ^[三合] 阿 ^上 儼収鄒跢 ^引 囉泥淫 ^{[二合]引十} 阿 ^上 跛囉 ^引 爾擔 ^{引一} 摩賀 ^引 具嚩 ^二 摩賀
오대	드망사.나가린.살바샤드로.니바라님.구람.노췌.바나난자.나샤닌. 미샤샤.쯔라야으뉴.오다라님.아바라시담.마하구람.마하 ^[68a]
진언	marām(113) mahācaṇḍam(114) mahādiptām(115) mahātejaṃ(116) mahāśvetām(117) mahājvārām(118) mahāmālā(119) paṇḍaravā sini(120) āryatārām(121) bhrmkotīm(122) caiva vijaya(123) va
한자	摩嚩 ^三 摩賀 ^引 贊喃 ^{引四} 摩賀 ^引 捻鉢擔 ^{[二合]五} 摩賀 ^引 帝咎 ^{引六} 摩賀 ^引 濕吠 ^[二合] 擔 ^七 摩賀 ^引 入嚩 ^[二合] 覽 ^{引八} 摩賀 ^引 摩囉 ^{引九} 半拏囉嚩 ^引 泉顫 ^{引二十} 啊 ^引 哩野 ^{[二合]引} 跢 ^引 嚩 ^{引一} 敦 ^[二合] 矩砧 ^{引二} 載嚩尾惹野 ^{引三} 嚩
오대	마람.마하잔담.마하닙담.마하데삼.마하스베담.마하스바람.마하마라. 만나라바.시니.아라다람.브링구팀.진바.미샤야.바 ^[68b]
진언	jra maleti viśrotām(124) padmakām(125) vajra cihmāṅca(126) mālācaiva(127) aparājitām(128) vajra naṇimca(129) viśālāca(130) śāntavaide vapujitām(131) comyarūpām(132)
한자	日囉 ^[二合] 麼嚩底尾戌嚩 ^{[二合]擔引四} 鉢娜麼 ^[二合] 撿 ^{引五} 嚩日囉 ^[二合] 紫賀滿 ^[二合] 左 ^六 麼邏 ^引 載嚩 ^七 阿跛囉 ^引 爾擔 ^八 嚩日囉 ^[二合] 難 ^上 旒演 ^[二合] 左 ^九 尾舍 ^引 囉 ^引 左 ^{三十} 扇 ^引 跢 ^引 吠祢嚩布爾擔 ^{引一} 燥去弭也嚩 ^{引二}
오대	스라.마레디.미시로담.바느마검.바스라.지ㅎ만자.마라지바.아바라.시담. 바스라.난닌자.미샤라자.선다베네.바보시담.조마로반 ^[69a]
진언	mahāśvetām(133) āryatārām(134) mahāmalaṃ(135) aparā(136) vajra śaṃkalāmcaiva(137) vajra koṃārī(138) kolandhari(139) vajraha stāca(140) mahāvidyākāṅca namālī
한자	摩賀 ^引 濕吠 ^[二合] 擔 ^{引三} 阿 ^引 哩也 ^[二合] 哆嚩 ^{引四} 摩賀 ^引 摩覽 ^五 阿跛囉 ^{引六} 嚩入日囉 ^[二合] 餉迦 ^上 覽 ^引 載 ^引 嚩 ^七 嚩日囉 ^[二合] 矯麼哩 ^{引八} 矩嚩 ^上 駄哩 ^九

	嚩日囉 _[二合] 賀娑跢 _[二合] 左 _{上四十} 摩賀 _引 尾你也 _[二合] 嚩 _{上引} 左 _上 曩麼 _{引里}
오대	마하시 배답○ 아라다람○ 마하마람○ 아바라○ 박스라.샹가람지바○ 바스라.구마리○ 구란다리○ 바스라하.짜자○ 마하미나건자.나마리 _[69b]
진언	kārṇ(141) kosumbhā ratnacaiva(142) verūcana(143) kolarthānām(144) oṣṇiṣa(145) vijrṇ bhāmāṇāṃca(146) sarvāsuvajra kanaka(147) prabhalocanā(148) vajrā tuṇḍim(149) caśvetā
한자	撿 _{引一} 矩素唵 _[二合] 婆囉 _上 怛曩 _[二合] 載囉 _二 吠嚩 _左 曩 _上 三 矩嚩 _上 囉他 _[二合] 難 _{引四} 塢瑟拏 _[二合] 灑 _五 尾入嚩 _[二合] 婆去麼 _{上引} 左 _六 薩囉 _素 嚩日囉 _[二合] 迦曩迦 _七 鉢囉 _[二合] 婆去 _引 路 _引 左 _上 曩 _{引八} 嚩日囉 _[二合] 頓施寅 _[二合] 左 _{引九} 濕吠 _[二合] 跢
오대	검○ 구솜바.라드나지바○ 베로자나○ 구랄타난○ 오씨사○ 미스림.바마난자○ 살바소바스라.가나가○ 브라바로자나○ 바스라.돈닌자○ 시베다 _[70a]
진언	ca(150) kamalā kṣām(151) śaśi prabhā(152) ityetyām(153) mudrā gaṇa(154) sarverakṣām(155) kurmantu(156) mamasarvā satvānaṃca(157) omgrīṣi gaṇa(158) praśastaya(159) stathāgatuo
한자	左 _{上五十} 迦麼囉乞釤 _[二合] 引一 設始鉢囉 _[二合] 婆 _{引二} 伊 _上 底曳 _[二合] 底孕 _[二合] 引三 母捺囉 _[二合] 諶拏 _{鼻四} 薩囉吠 _[二合] 略乞鉢 _[二合] 引五 菴口律挽 _[二合] 覩 _六 麼麼薩囉囉 _[二合] 薩怛囉 _[二合] 難 _{左七} 唵乞哩 _[二合] 史諶拏 _{鼻八} 鉢囉 _[二合] 設娑跢 _[二合] 野 _九 娑跢 _[二合] 他 _{去引} 藥覩塢
오대	자○ 가마라.ㄴ삼○ 샤시.브라바○ 이데딩○ 모느라.아나○ 살베락산○ 굴만도○ 마마살바.사드바난자○ 음으리시.아나○ 브라샤짜야○ 짜타아도.오 _[70b]
진언	ṣṇiṣa(160) huṃtrum(161) paravidra vakara huṃtrum jāṃmbhānakara(162) huṃtrum(163) stambhānakara(164) huṃtrum(165) mauhana kara huṃtrum marthānakara huṃtrum paravidyā
한자	瑟拏 _[二合] 灑 _{六十} 𑖀𑖦𑖫𑖞𑖞 _[三合] 一 跛囉尾捺囉 _[二合] 嚩迦囉𑖀𑖦𑖫𑖞𑖞 _[三合] 吳 ₁₆₉ 咎婆曩迦囉 _二 𑖀𑖦𑖫𑖞𑖞 _[三合] 三 娑擔 _[二合] 婆曩迦囉 _四 𑖀𑖦𑖫𑖞𑖞 _[三合] 五 謨曩曩迦囉𑖀𑖦𑖫𑖞𑖞 _[三合] 吳 沫他曩迦囉𑖀𑖦𑖫𑖞𑖞 _[三合] 吳 跛囉尾你也 _[二合]
오대	씨사○ 흠드롬○ 바라미느라.바가라.흠드롬.삼바나가라○ 흠드롬○ 째바나가라○ 흠드롬○ 모하나가라.흠드롬.말타나가라.흠드롬.바라미나 _[71a]
진언	sāṃpakṣā nakara(166) huṃtrum(167) sarvāduṣṭānām(168) stambhānakara(169) huṃtrum(170) sarvāyakṣa(171) rakṣasa grahānām(172) vidhvaṃsa nakara(173) huṃtrum(174) catura śitinām(175) gra
한자	三薄乞灑 _[二合] 曩迦囉 _六 𑖀𑖦𑖫𑖞𑖞 _[三合] 七 薩囉囉 _[二合] 訥瑟吒 _[二合] 南 _八 娑擔 _[二合] 婆曩迦囉 _九 𑖀𑖦𑖫𑖞𑖞 _[三合] 七十 薩囉囉 _[二合] 藥乞灑 _[二合] 一 囉乞灑 _[二合] 娑藥囉 _[二合] 賀 _引 喃 _{引二} 尾馱網 _[二合] 娑 _上 曩迦囉 _三 𑖀𑖦𑖫𑖞𑖞 _[三合] 四 穆覩囉試 _引 底南 _{引五} 藥囉 _[二合]
오대	삼박사.나가라○ 흠드롬○ 살바노짜남○ 째바나가라○ 흠드롬○ 살바약사○ 락사사.으라하남○ 미드망사.나가라○ 흠드롬○ 자도라.시디남○ 으라 _[71b]
진언	hā sahasrānām(176) vidhvaṃsa nakara(177) huṃtrum(178) aṣṭaviṃ śitinām(179) nakṣatrānām(180) prasādā nakara(181) huṃtrum(182) aṣṭānām(183) mahāgrahānām(184) ochādā nakara(185)
한자	賀娑賀娑囉 _[二合] 引南 _{引六} 尾馱網 _[二合] 娑曩迦囉 _七 𑖀𑖦𑖫𑖞𑖞 _[三合] 八 阿瑟吒 _[二合] 尾孕 _[二合] 試底南 _{引九} 諾入乞察 _[二合] 怛囉 _[二合] 喃 _{引八十} 鉢囉 _[二合] 娑 _引 那 _引 曩迦囉 _一 𑖀𑖦𑖫𑖞𑖞 _[三合] 二 阿 _上 瑟吒 _[二合] 引南 _{引三} 摩賀 _引 藥囉 _[二合] 賀南 _四 嚩入蹉娜 _引 曩迦囉 _五
오대	하.사하스라남○ 미드망사.나가라○ 흠드롬○ 아짜밍.시디남○ 낙사드라남○ 브라사나.나가라○ 흠드롬○ 아짜남○ 마하으라하남○ 오차나.나가라○ _[72a]

진언	hurñtrum(186) rakṣarakṣamāñ(187) mamasarvā satvānañca(188) bhāgavañ(189) stathāgatu oṣṇiṣa(190) ṣītāta patrañ mahāvajro ṣṇiṣa mahāpra tyañgire(191) mahāsa
한자	咩納嚕唵 ^{[三合]六} 囉入乞灑 ^[二合] 囉入乞灑 ^[二合] 唵 ^{引七} 麼麼薩囉嚕 ^{[二合]引} 薩怛嚕 ^[二合] 難左 ^八 婆去 ^九 誡錢 ^九 娑怛 ^[二合] 他 ^{去引} 藥覩塢瑟拏 ^[二合] 灑 ^{九十} 悉路 ^引 多鉢怛嚕 ^[二合] 摩賀囉日嚕 ^[二合] 瑟拏 ^[二合] 灑摩賀 ^吳 鉢囉 ^[二合] 底孕 ^[二合] 擬嚕 ^一 摩賀娑
오대	흠드롬으 락사락사맘으 마마살바.사드바난자으 바아밤으 짜타아도.오씨사으 시다다.바드담.마하바스로.씨사.마하브라.딩이레으 마하사 ^[72b]
진언	hā srābhuje(192) sahāsrāśīrṣi(193) yekoṭiśastasahāsrānetrai(194) abhedyajvalitatatṭhaka(195) mahā vajronāra(196) ṭṛbhuvā nāmaṇḍala(197) omsvastirbhā
한자	賀 ^引 娑囉 ^[二合] 部齊 ^{引二} 娑 ^上 賀娑囉 ^[二合] 試哩囉 ^{[二合]三} 曳句致捨娑多 ^[二合] 娑賀娑囉 ^[二合] 甯怛嚕 ^{[二合]四} 阿 ^上 陞你也 ^[二合] 入囉 ^[二合] 里多怛吒迦 ^五 摩賀囉日嚕 ^{[二合]引} 娜囉 ^六 底哩 ^[二合] 部嚕曩曼拏囉 ^七 唵娑囉 ^[二合] 悉底 ^[二合] 囉婆 ^[二合]
오대	하.스라부세으 사하스라.실세으 예구티샤짜.사하스라.네드래으 아베나.스바리다.다타가으 마하바스로.나라으 드리부바.나만나라으 음스바썰바 ^[73a]
진언	vatu mama(198) rājābhāyā(199) corabhāyā(200) agnibhāyā(201) odakabhāyā(202) viṣabhāyā(203) śastrabhāyā(204) paraca krabhāyā(205) durbhi kṣabhāyā(206) aśanibhāyā(207)
한자	嚕覩麼麼 ^八 囉惹婆 ^{去引野引九} 祖囉婆 ^{去野引二百} 阿儼顚 ^[二合] 婆野 ^{引一} 塢娜迦婆野 ^{引二} 尾灑婆野 ^{引三} 設薩怛囉 ^[三合] 婆野 ^{引四} 跛囉訖訖囉 ^[二合] 婆野 ^{引五} 訥躡乞灑 ^[二合] 婆野 ^{引六} 阿 ^上 捨顚婆野 ^{引七}
오대	바도.마마으 라사바야으 조라바야으 아으니바야으 오나가바야으 미사바야으 샤썩라바야으 바라자.ㄹ라바야으 놀비.ㄹ사바야으 아샤니바야으 ^[73b]
진언	akāla mṛdyubhāyā(208) dhāraṇibhūmi kaṃpātābhāyā(209) dulkā pātābhāyā(210) rājā naṇḍabhāyā(211) supra riṇibhāyā(212) nagabhāyā(213) vidyubhāyā(214) deva
한자	阿迦 ^引 擢蜜唎 ^[二合] 底庾 ^[二合] 婆野 ^{引八} 馱 ^引 囉拏部弭檢跛多 ^{引婆野引九} 訥勒迦 ^[二合] 跛 ^引 多婆野 ^{引十} 囉惹 ^引 難拏婆野 ^{引一} 素鉢囉 ^[二合] 哩拏婆野 ^{引二} 曩誡婆野 ^{引三} 尾你庾 ^[二合] 婆野 ^{引四} 祢嚕
오대	아가라.ㄹ리듀바야으 다라니보미.검바다바야으 놀가.바다바야으 라사.난나바야으 소브라.리니바야으 나아바야으 미뉴바야으 네바 ^[74a]
진언	grahā(215) nāgragrahā(216) yakṣagrahā(217) rakṣasagrahā(218) pretagrahā(219) piśācagrahā(220) bhutagrahā(221) kumbhāṇḍagrahā(222) putanagrahā(223) kaṭa putanagrahā(224)
한자	佉囉 ^[二合] 賀 ^{引五} 曩誡佉囉 ^[二合] 賀 ^{引六} 藥乞灑 ^[二合] 佉囉 ^[二合] 賀 ^{引七} 囉乞察 ^[二合] 娑佉囉 ^[二合] 賀 ^八 必嚕 ^[二合] 多佉囉 ^[二合] 賀 ^{引九} 秣舍左佉囉 ^[二合] 賀 ^{引二十} 部多佉囉 ^[二合] 賀 ^{引一} 嚕畔拏佉囉 ^[二合] 賀 ^{引二} 布單曩佉囉 ^[二合] 賀 ^{引三} 揭吒布單曩佉囉 ^[二合] 賀 ^{引四}
오대	으라하으 나아으라하으 약사으라하으 락사사으라하으 브레다으라하으 비샤자으라하으 보다으라하으 굴반나으라하으 보단나으라하으 가타.보단나으라하으 ^[74b]
진언	skandagrahā(225) apa smāragrahā(226) otmanāgrahā(227) chayāgrahā(228) revatigrāhā(229) jamikagrahā(230) kaṇṭakaminigrāhā(231)

	ojahāriṇyā(232) garbhahāriṇ
한자	塞嚩 ^[二合] 娜 ^引 僂 ^[二合] 賀 ^引 五 阿跛娑麼 ^[二合] 囉 ^引 僂 ^[二合] 賀 ^引 六 嚩怛麼 ^[二合] 囊 ^引 僂 ^[二合] 賀 ^引 七 蹉夜 ^引 僂 ^[二合] 賀 ^引 八 嚩嚩底 ^引 僂 ^[二合] 賀 ^引 九 惹 ^引 彌 ^引 僂 ^[二合] 賀 ^引 三十 建 ^引 姪 ^引 彌 ^引 賴 ^引 僂 ^[二合] 賀 ^引 一 嚩惹 ^引 賀 ^引 哩 ^引 二 藥 ^引 囉 ^引 婆 ^[二合] 賀 ^引 去
오대	스 간나으라하오 아바.빠라으라하오 오드마나으라하오 차야으라하오 례바디으라하오 사미가으라하오 건타가미니으라하오 오사하리나오 알바하리 ^[75a]
진언	ya(233) jātāhāriṇyā(234) rūdhirāhāriṇyā(235) māmsāhāriṇyā(236) medāhāriṇyā(237) majāhāriṇyā(238) vasāhāriṇyā(239) jīvitahāriṇyā(240) bantāhāriṇyā(241) aśu
한자	嬢 ^引 三 惹 ^引 踰 ^引 賀 ^引 哩 ^引 四 嚩地囉 ^引 賀 ^引 哩 ^引 五 莽 ^引 娑 ^引 賀 ^引 哩 ^引 六 謎 ^引 娜 ^引 賀 ^引 哩 ^引 七 沫 ^引 惹 ^引 賀 ^引 哩 ^引 八 嚩娑 ^引 賀 ^引 哩 ^引 九 爾尾多 ^引 賀 ^引 哩 ^引 四十 挽 ^引 踰 ^引 賀 ^引 哩 ^引 一 阿 ^上 秣
오대	나오 사다하리나오 로디라하리나오 망사하리나오 메나하리나오 말사하리나오 바사하리나오 시미다하리나오 만다하리나오 아슈 ^[75b]
진언	cyāhāriṇyā(242) cicāhāriṇyā(243) śadanekahāriṇyā khetāhāriṇyā putrahāriṇyā puyahāri ṇyā śrīsmahāriṇyā śaṁghāḍakahāriṇyā taisām
한자	紫野 ^[二合] 賀 ^[二合] 哩 ^[二合] 嬢 ^引 二 唧 ^引 佐 ^引 賀 ^引 哩 ^引 三 寫 ^引 娜 ^引 甯 ^引 賀 ^引 哩 ^引 野 ^[二合] 吳 契 ^引 吒 ^引 賀 ^引 哩 ^引 野 ^[二合] 吳 補 ^引 怛 ^引 囉 ^[二合] 賀 ^引 哩 ^引 野 ^[二合] 吳 布 ^引 野 ^引 賀 ^引 哩 ^引 野 ^[二合] 吳 室 ^引 哩 ^[二合] 蔬 ^引 麼 ^[二合] 賀 ^引 哩 ^引 野 ^吳 餉 ^引 伽 ^引 拏 ^引 賀 ^引 哩 ^引 野 ^吳 帝 ^引 鈇
오대	자하리나오지자하리나오샤나네가.하리나.케타하리나.보드라하리나.보야하리나. 시리스마하리나.상카나가.하리나.테삼 ^[76a]
진언	sarveśām(244) sarvā grahānām(245) kṛtām(246) vidyām(247) chindayāni(248) kilayāmi(249) paribrājaka kṛtām(250) vidyām(251) chindayāmi(252) kilayāmi(253) ḍakaḍakini(254) kṛtāmvi
한자	薩 ^引 囉 ^引 呬 ^[二合] 鈇 ^引 四 薩 ^引 囉 ^引 嚩 ^[二合] 僂 ^引 囉 ^[二合] 賀 ^引 南 ^引 五 訖 ^引 哩 ^[二合] 擔 ^引 六 尾 ^引 你 ^引 琰 ^[二合] 七 窺 ^引 娜 ^引 野 ^引 八 枳 ^引 攞 ^引 野 ^引 九 跛 ^引 哩 ^引 沒 ^引 囉 ^[二合] 惹 ^引 彌 ^引 訖 ^引 哩 ^[二合] 擔 ^引 五十 尾 ^引 你 ^引 琰 ^[二合] 一 窺 ^引 娜 ^引 野 ^引 二 枳 ^引 攞 ^引 野 ^引 三 拏 ^引 去 ^引 彌 ^引 拏 ^引 去 ^引 枳 ^引 賴 ^引 四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오대	살베삼으 살바.으라하남으 ㄹ리담으 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바리ㄹ라사가.ㄹ리담으 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나가나기니으 ㄹ리담미 ^[76b]
진언	dyām(255) chindayāmi(256) kilayāmi(257) brahmane kṛtāmvidyām chindayāmi kilayāmi mahāpaśupatirūdra(258) kṛtāmvidyām(259) chindayāmi(260) kilayāmi(261) nā
한자	你 ^引 琰 ^[二合] 引五 窺 ^引 娜 ^引 夜 ^引 六 枳 ^引 攞 ^引 夜 ^引 七 ^{○170} 沒 ^引 囉 ^[二合] 憾 ^引 麼 ^[二合] 甯 ^引 .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引 你 ^引 琰 ^[二合] ○ 窺 ^引 娜 ^引 野 ^引 枳 ^引 攞 ^引 野 ^引 吳 摩 ^引 賀 ^引 鉢 ^引 戌 ^引 鉢 ^引 底 ^引 嚩 ^引 捺 ^引 囉 ^[二合] 八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引 你 ^引 琰 ^[二合] 引九 窺 ^引 娜 ^引 野 ^引 六十 枳 ^引 攞 ^引 野 ^引 引一 曩
오대	념으친나야미으기라야미으ㄹ라하마네.ㄹ리담미념.친나야미.기라야미.마하바슈바 디.로느라으 ㄹ리담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나 ^[77a]
진언	rāyāṇḍa(262) pañcamahā mudrā(263) kṛtāmvidyām(264) chindayāmi(265) kilayāmi(266) tatva garūḍa saheyāya(267) kṛtāmvidyām(268) chindayāmi(269) kilayāmi(270) mahākā
한자	囉 ^引 演 ^引 拏 ^引 二 半 ^上 左 ^上 摩 ^引 賀 ^引 母 ^引 捺 ^引 囉 ^[二合] 引三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引 你 ^引 琰 ^[二合] 引四 窺 ^引 娜 ^引 野 ^引 五 枳 ^引 攞 ^引 夜 ^引 六 怛 ^引 怛 ^引 嚩 ^[二合] 識 ^引 嚩 ^引 拏 ^引 娑 ^上 咽 ^引 夜 ^引 野 ^引 七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引 你 ^引 琰 ^[二合] 八 窺 ^引 娜 ^引 夜 ^引 九 枳 ^引 攞 ^引 夜 ^引 引七十 摩 ^引 賀 ^引 彌 ^引
오대	라연나으 반자마하.모느라으 ㄹ리담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다드박.아로나.사혜야야으 ㄹ리담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마하가 ^[77b]
진언	la(271) mātṛgaṇa saheyāya(272) kṛtāmvidyām(273) chindayāmi(274)

	kīlayāmi(275) kāpālika(276) kṛtāmvidyām(277) chindayāmi(278) kīlayāmi(279) jayakara madhukara(280)
한자	攞 ^一 麼 ^引 底哩 ^[二合] 識 ^上 拏 ^上 娑 ^上 呬 ^引 夜 ^引 野 ^二 訖哩 ^[二合] 擔尾你琰 ^{[二合]三} 窺娜夜弭 ^四 枳攞夜弭 ^五 迦 ^引 跋 ^引 里 ^引 迦 ^六 訖哩 ^[二合] 擔尾你琰 ^{[二合]七} 窺娜夜弭 ^八 枳攞夜弭 ^九 惹夜迦囉麼 ^鼻 度迦囉 ^{八十}
오대	라 [○] 마 [○] 드 리 [○] 아 [○] 나.사 [○] 혜야야 [○] ㄹ리담미넴 [○] 친 [○] 나야미 [○] 기 [○] 라야미 [○] 가 [○] 바리 [○] 가 [○] ㄹ리담미넴 [○] 친 [○] 나야미 [○] 기 [○] 라야미 [○] ㅅ아 [○] 가 [○] 라 [○] .마 [○] 도 [○] 가 [○] 라 [○] [78a]
진언	sarvārthā sadhanaka(281) kṛtāmvidyām(282) chindayāmi(283) kīlayāmi(284) caturbhā gini(285) bhratṛ pañcamala saheyāya(286) kṛtāmvidyām(287) chindayāmi(288) kīlayā
한자	薩囉 ^[二合] 囉 ^[二合] 他 ^[二合] 娑 ^上 駄 ^上 曩 ^上 迦 ^一 訖哩 ^[二合] 擔尾你琰 ^{[二合]二} 窺娜夜弭 ^三 枳攞夜弭 ^四 拶咄 ^去 婆 ^去 儼 ^五 顚 ^五 悖囉 ^[二合] 底哩 ^[二合] 半 ^上 左 ^鼻 攞娑呬夜 ^引 野 ^六 訖哩 ^[二合] 擔尾你琰 ^{[二合]七} 窺娜夜弭 ^八 枳攞夜
오대	살 [○] 발 [○] 타.사 [○] 다 [○] 나 [○] 가 [○] ㄹ리담미넴 [○] 친 [○] 나야미 [○] 기 [○] 라야미 [○] 자 [○] 돌 [○] 바.이 [○] 니 [○] 브 [○] 라 [○] 드 [○] 리.반 [○] 자 [○] 마 [○] 라.사 [○] 혜야야 [○] ㄹ리담미넴 [○] 친 [○] 나야미 [○] 기 [○] 라야 ^[78b]
진언	mi(289) bhrṃgiriṭika(290) nandike śvāra(291) gandapati sahiyāya(292) kṛtāmvidyām(293) chindayāmi(294) kīlayāmi(295) nagnaśramaṇa(296) kṛtāmvidyām(297) chindayāmi(298) kī
한자	弭 ^九 勃 ^上 陵 ^[二合] 儼 ^上 哩 ^上 致 ^上 迦 ^{九十} 難 ^上 你 ^上 計 ^上 濕 ^[二合] 囉 ^一 彦 ^上 拏 ^上 跋 ^上 底 ^上 娑 ^上 呬 ^引 夜 ^引 野 ^二 訖哩 ^[二合] 擔尾你琰 ^{[二合]三} 窺娜夜弭 ^四 枳攞夜弭 ^五 曩 ^上 佉 ^上 曩 ^[二合] 室囉 ^[二合] 麼 ^鼻 拏 ^鼻 六 訖哩 ^[二合] 擔尾你琰 ^{[二合]七} 窺娜夜弭 ^八 枳
오대	미 [○] ㅅ [○] 링 [○] 이 [○] 리 [○] 티 [○] 가 [○] ㄴ [○] 니 [○] 게.시 [○] 바 [○] 라 [○] ㄴ [○] 나 [○] 바 [○] 디.사 [○] 혜야야 [○] ㄹ리담미넴 [○] 친 [○] 나야미 [○] 기 [○] 라야미 [○] 나 [○] ㄴ [○] 나 [○] 시 [○] 라 [○] 마 [○] 나 [○] ㄹ리담미넴 [○] 친 [○] 나야미 [○] 기 ^[79a]
진언	layāmi(299) arhanta(300) kṛtāmvidyām(301) chindayāmi(302) kīlayāmi(303) vitarāga(304) kṛtāmvidyām(305) chindayāmi[306] kīlayāmi(307) vajrapāṇi(308) guhyākādhipati(309) kṛ
한자	攞夜弭 ^九 阿 ^上 囉 ^上 罕 ^[二合] 多 ^{三百} 訖哩 ^[二合] 擔尾你琰 ^{[二合]一} 窺娜夜弭 ^二 枳攞夜弭 ^三 尾 ^多 囉 ^引 識 ^四 訖哩 ^[二合] 擔尾你琰 ^{[二合]五} 窺娜夜弭 ^[六] 枳攞夜弭 ^七 囉 ^日 囉 ^[二合] 播 ^拏 八 嚩 ^上 呬 ^上 野 ^[二合] 迦 ^引 地 ^引 跋 ^上 底 ^九 訖哩 ^[二合]
오대	라야미 [○] 알 [○] 한 [○] 다 [○] ㄹ리담미넴 [○] 친 [○] 나야미 [○] 기 [○] 라야미 [○] 미 [○] 다 [○] 라야 [○] ㄹ리담미넴 [○] 친 [○] 나야미 [○] .171 기 [○] 라야미 [○] 바 [○] 스 [○] 라 [○] 바 [○] 니 [○] 우 [○] 햐 [○] 가 [○] 디 [○] 바 [○] 디 [○] ㄹ리 ^[79b]
진언	tāmvidyām(310) chindayāmi(311) kīlayāmi(312) rakṣarakṣamām(313) bhāgavām(314) stathāgatau ṣṇisām(315) sitāta patraṃ(316) namostute(317) asitā nālāraka prabhā(318) sphoṭa
한자	擔尾你琰 ^{[二合]十} 窺娜夜弭 ^一 枳攞夜弭 ^二 囉 ^入 乞 ^上 灑 ^[二合] 囉 ^入 乞 ^上 灑 ^[二合] 捨 ^引 三 婆 ^去 識 ^四 鏤 ^四 娑 ^但 他 ^[二合] 藥 ^上 覩 ^上 瑟 ^上 拏 ^[二合] 鈇 ^引 五 泉 ^上 踰 ^上 多 ^上 鉢 ^上 怛 ^上 嚩 ^{[二合]六} 曩 ^上 謨 ^上 宰 ^上 覩 ^[二合] 帝 ^引 七 阿 ^上 泉 ^上 踰 ^引 曩 ^上 攞 ^上 略 ^上 迦 ^上 鉢 ^上 囉 ^[二合] 婆 ^去 八 塞 ^上 普 ^[二合] 吒
오대	담미넴 [○] 친 [○] 나야미 [○] 기 [○] 라야미 [○] 락 [○] 사 [○] 락 [○] 사 [○] 맘 [○] 바 [○] 아 [○] 밤 [○] ㅅ [○] 타 [○] 아 [○] 도.씨 [○] 삼 [○] 시 [○] 다 [○] 다.바 [○] 드 [○] 람 [○] 나 [○] 모 [○] 포 [○] 데 [○] 아 [○] 시 [○] 다.나 [○] 라 [○] 라 [○] 가 [○] .브 [○] 라 [○] 바 [○] ㅅ [○] 타 ^[80a]
진언	vika(319) mahāsītāta patraṃ(320) jvalajvala(321) dhakadhaka vidhaka vidhaka(322) daradara(323) vidara vidara(324) chindachinda(325) bhindabhinda(326) bandhabandha
한자	尾 ^迦 九 摩 ^上 賀 ^上 泉 ^上 踰 ^上 多 ^上 鉢 ^上 怛 ^上 嚩 ^{[二合]十} 入 ^[二合] 囉 ^[二合] 入 ^[二合] 囉 ^[二合] 囉 ^一 駄 ^上 迦 ^上 迦 ^上 尾 ^上 駄 ^上 迦 ^上 尾 ^上 駄 ^上 迦 ^上 娜 ^上 囉 ^上 娜 ^上 囉 ^三 尾 ^上 娜 ^上 囉 ^上 尾 ^上 娜 ^上 囉 ^四 嚩 ^上 娜 ^上 嚩 ^上 娜 ^上 頻 ^上 娜 ^上 頻 ^上 娜 ^上 六 滿 ^上 駄 ^上 滿 ^上 駄
오대	미 [○] 가 [○] ㅁ [○] 하 [○] 시 [○] 다 [○] 다.바 [○] 드 [○] 람 [○] ㅅ [○] 바 [○] 라 [○] ㅅ [○] 바 [○] 라 [○] 다 [○] 가 [○] 다 [○] 가 [○] .미 [○] 다 [○] 가 [○] .미 [○] 다 [○] 가 [○] 나 [○] 라 [○] 나 [○] 라 [○] ○

	미나라.미나라○ 친나친나○ 빈나빈나○ 만다만다 ^[80b]
진언	humhūm(327) phaṭphaṭ(328) svāhā(329) hehephaṭhuhuphaṭh(330) amukhāphaṭ(331) aprati hatayaphaṭ(332) vara pradayaphaṭh(333) asura vidrā paṇakara
한자	吽吽 ^七 發吒 ^{半音} 發吒 ^八 娑嚩 ^[二合] 賀 ^{引九} 系系發吒 ^{上半音} 護護發吒 ^{三十} 阿耨伽 ^{去引} 發吒 ^一 阿鉢囉 ^[二合] 底賀多野發吒 ^二 嚩囉鉢囉 ^[二合] 娜野發吒 ^三 阿 ^上 素囉尾捺囉 ^[二合] 跋拏迦囉
오대	흠흠○ 바닥 ¹⁷²⁾ 바닥○ 스바하○ 헤헤바닥호호바닥○ 아모카바닥○ 아브라디.하다야바닥○ 바라.브라나야바닥○ 아소라.미느라.바나가라 ^[81a]
진언	yaphaṭ(334) sarvā devaibhyaḥphaṭ(335) sarvā nāgebhyaḥphaṭ(336) sarvāyakṣabhyaḥphaṭ(337) sarvāra kṣasebhyaḥphaṭ(338) sarvāgarū debhyaḥphaṭ(339) sarvāgandha rve
한자	野發吒 ^四 薩囉嚩 ^[二合] 祇吠毗藥 ^[二合] 發吒 ^五 薩囉嚩 ^[二合] 曩 ^引 覓毗藥 ^[二合] 發吒 ^六 薩囉嚩 ^[二合] 藥乞囉 ^[二合] 毗藥 ^[二合] 發吒 ^七 薩囉嚩 ^[二合] 囉乞察 ^[二合] 細毗藥 ^[二合] 發吒 ^八 薩囉嚩 ^[二合] 誑嚕祇毗藥 ^[二合] 發吒 ^九 薩囉嚩 ^[二合] 獻達 ^{轉舌} 囉吠 ^[二合]
오대	야바닥○ 살바.네베박바닥.살바.나예박바닥○ 살바약사박바닥○ 살바락.사세박바닥○ 살바아로.네박바닥○ 살바안달.베 ^[81b]
진언	bhyaḥphaṭ(340) sarvāasu rebhyaḥphaṭ(341) sarvākinnarebhyaḥphaṭ(342) sarvāmahura gebhyaḥphaṭ sarvāmaṇu ṣaibhyaḥphaṭ sarvāmaṇu ṣaibhyaḥphaṭ
한자	毗藥 ^[二合] 發吒 ^{四十} 薩囉嚩 ^[二合] 阿 ^上 素嚩毗藥 ^[二合] 發吒 ^一 薩囉嚩 ^[二合] 緊娜嚩 ^引 毗藥 ^[二合] 發吒 ^二 薩囉嚩 ^[二合] 麼護囉覓毗藥 ^[二合] 發吒 ^吳 薩囉嚩 ^[二合] 麼努囉毗藥 ^[二合] 發吒 ^吳 薩囉嚩 ^[二合] 阿麼努囉毗藥 ^[二合] 發吒 ^{吳¹⁷³⁾}
오대	박바닥○ 살바아소.레박바닥○ 살바긴나레박바닥○ 살바마호라.예박바닥.살바마노.새박바닥.살바아마노.새박바닥 ¹⁷⁴⁾ ^[82a]
진언	sarvābhutaibhyaḥphaṭ(343) sarvāpiśa cebhyaḥphaṭ(344) sarvākumbhaṇdebhyaḥpāt(345) sarvāputanebhyaḥphaṭ(346) sarvākāṭa putanebhyaḥphaṭ(347) sarvādulim
한자	薩囉嚩 ^[二合] 部帝毗藥 ^[二合] 發吒 ^三 薩囉嚩 ^[二合] 毗舍 ^引 際毗藥 ^[二合] 發吒 ^四 薩囉嚩 ^[二合] 嚩句字 ^音 毗藥 ^[二合] 發吒 ^五 薩囉嚩 ^[二合] 布單寧 ^音 毗藥 ^[二合] 發吒 ^六 薩囉嚩 ^[二合] 羯吒布單寧 ^引 毗藥 ^[二合] 發吒 ^七 薩囉嚩 ^[二合] 訥楞
오대	살바부데박바닥○ 살바미샤.제박바닥○ 살바굼반네박바닥○ 살바보다네박바닥○ 살바가탁.보다네박바닥○ 살바노링 [○] ^[82b]
진언	gitebhyaḥphaṭ(348) sarvāduṣpre kṣitebhyaḥphaṭ(349) sarvājvarebhyaḥphaṭ(350) sarvāapasmare bhyaḥphaṭh(351) sarvāśrama debhyaḥphaṭ(352) sarvātirdhi kebhyaḥpha
한자	擬帝毗藥 ^[二合] 發吒 ^八 薩囉嚩 ^[二合] 弩澀必嚩 ^[三合] 乞史 ^[二合] 帝毗藥 ^[二合] 發吒 ^九 薩囉嚩 ^[二合] 入嚩 ^[二合] 嚩毗藥 ^[二合] 發吒 ^{五十} 薩囉嚩 ^[二合] 阿跋娑麼 ^[二合] 嚩毗藥 ^[二合] 發吒 ^一 薩囉嚩 ^[二合] 室囉 ^[二合] 麼 ^鼻 妳毗藥 ^[二合] 發吒 ^二 薩囉嚩 ^[二合] 底嚩體 ^[二合] 計毗藥 ^[二合] 發
오대	이데박바닥○ 살바노쎄레.ㄹ시데박바닥○ 살바스바레박바닥○ 살바아바스마.레박바타○ 살바시라마.네박바닥○ 살바딜테.게박바 ^[83a]
진언	ṭh(353) sarvāotmā debhyaḥphaṭ(354) sarvāvidyā cāryebhyaḥphaṭ(355) jayakara mradhukara(356) sarvārthā sādhaḥkebhyaḥphaṭ(357) sarvāvidyā cāryebhyaḥphaṭ(358) cā
한자	吒 ^三 薩囉嚩 ^[二合] 唄怛麼 ^[二合] 妳毗藥 ^[二合] 發吒 ^四 薩囉嚩 ^[二合] 尾你也 ^[二合] 左 ^引 哩曳 ^[二合] 毗藥 ^[二合] 發吒 ^五 惹野迦囉沫度迦囉 ^六

	薩囉嚩 _[二合] 囉他 _[二合] 娑駄計毗藥 _[二合] 發吒 _七 薩囉嚩 _[二合] 尾你也 _[二合] 左 _引 哩曳 _[二合] 毗藥 _[二合] 發吒 _八 拶 _引
오대	타오 살바오 드마.네 박바닥오 살바미나.잘예 박바닥오 사야가라.말도가라오 살발타.사다게 박바닥오 살바미나.잘예 박바닥오 자 _[83b]
진언	tura bhagribhyaḥphaṭ(359) vajrakaumāre(360) mahāvidyā rājebhyaḥphaṭ(361) mahāpra tyamgirebhyaḥphaṭ(362) vajra śamkalayaphaṭ(363) mahāpra tyamgira(364) rā
한자	咄囉溥儼你 _[二合] 毗藥 _[二合] 發吒 _九 嚩日囉 _[二合] 矯麼 _引 嚩 _{六十} 摩賀尾你也 _[二合] 囉 _引 薺毗藥 _[二合] 發吒 _一 摩賀鉢囉 _[二合] 底孕 _[二合] 儼嚩毗藥 _[二合] 發吒 _二 嚩日囉 _[二合] 餉迦囉野發吒 _三 摩賀鉢囉 _[二合] 底孕 _[二合] 儼囉 _四 囉
오대	도라.바오 니 박바닥오 바스라구마레오 마하미나.라세 박바닥오 마하브라.딩이레 박바닥오 바스라.상가라야바닥오 마하브라.딩이라오 라 _[84a]
진언	jāyaphaṭ(365) mahākālaya(366) mahāmātrgaṇa(367) namaḥskṛtāphaṭ(368) vaiṣṭa viyephaṭ(369) brahma ṇiyephaṭ(370) gñiyephaṭ(371) mahākāliyephaṭ(372)
한자	惹 _引 野發吒 _五 摩賀迦囉 _引 野 _六 摩賀麼 _引 底哩 _[二合] 譏拏 _七 曩莫塞訖哩 _[三合] 踰 _引 發吒 _八 吠瑟拏 _[二合] 尾曳發吒 _九 沒囉 _[二合] 憾麼 _[二合] 拏 _引 曳發吒 _{七十} 阿 _引 乞顛 _[二合] 曳發吒 _一 摩賀迦 _引 里裔 _引 發吒 _二
오대	사야바닥오 마하가라야오 마하마드리아나오 나막신타리다바닥오 베스나.미예바닥오 므라호마.니예바닥오 아오 니예바닥오 마하가리예바닥오 _[84b]
진언	kālanandiyephaṭ(373) inriyephaṭ(374) rodriyephaṭ(375) cāmuṇḍiyephaṭ(376) kālarā ṭryephaṭ(377) kāpāliyephaṭ(378) adhimuktaka śmaśāna vā
한자	迦 _引 囉難膩 _引 裔 _引 發吒 _三 印涅哩 _[二合] 裔 _引 發吒 _四 嚩轉舌捺哩 _[二合] 裔發吒 _五 左 _引 捫上膩裔 _引 發吒 _六 迦囉囉 _{去引} 底哩 _[二合] 裔發吒 _七 迦 _引 播里裔 _引 發吒 _八 阿 _上 地穆訖 _[二合] 得多 _[二合] 迦濕麼 _[二合] 舍 _引 曩嚩
오대	가라난니예바닥오 인느리에바닥오 로느리에바닥오 자문니예바닥오 가라라.드리예바닥오 가바리예바닥오 아디목다가.스마샤나.바 _[85a]
진언	sinīyephaṭ(379) yekecittā(380) sarvāsatvāmama(381) duṣṭadittā(382) pāpacittā(383) rūdracittā(384) amaitra cittā(385) otāpadāyanti kilayanti naḥparṁti
한자	衆顛 _引 裔 _引 發吒 _九 曳計唧踰 _{引八十} 薩囉嚩 _[二合] 嚩 _引 薩怛嚩 _[二合] 麼麼 _{鼻一} 訥瑟吒 _[二合] 唧踰 _{引二} 播 _引 跛唧踰 _{引三} 嚩捺囉 _[二合] 唧踰 _{引四} 阿每怛囉 _[二合] 唧踰 _{引五} 塢 _上 踰 _引 跛那 _引 演底枳囉演底諾畔底
오대	시니예바닥오 예게진다오 살바사드바마마오 노짜진다오 바바진다오 로느라진다오 아미드라.진다오 오다바나연디.기라연디.낙반디 _[85b]
진언	cohanti ujahārā(386) garbhāhārā(387) rūdhirāhārā(388) bāmsahāra vasāhārā(389) majjahārā(390) jātahārā(391) jivitahārā(392) baryāhārā(393) gandhahārā(394)
한자	祖罕底 _吳 塢 _上 惹 _引 賀 _引 囉 _{引六} 藥囉婆 _[二合] 賀 _引 囉 _{引七} 嚩地囉賀 _引 囉 _{引八} 曼娑賀 _引 囉 _引 嚩娑 _引 賀 _引 囉 _{引九} 沫惹 _引 賀 _引 囉 _{引九十} 惹 _引 踰賀 _引 囉 _{引一} 爾尾踰賀 _引 囉 _{引二} 沫里也 _引 賀 _引 囉 _{引三} 彥駄 _引 賀 _引 囉 _{引四}
오대	조한디.오사하라오 알바하라오 로디라하라오 만사하라.바사하라오 말사하라오 사다하라오 시미다하라오 말야하라오 언다하라오 _[86a]
진언	puṣpāhārā(395) phalahārā(396) sāsyāhārā(397) pāpacittā(398) duṣṭacittā(399) rodracittā(400) yaḥkṣagrahā(401) rākṣasagrahā(402) pretagrahā(403) piśacāgrahā(404) bhutagra

한자	補澀跛 ^{[二合]賀^引囉^{引五}} 頗攞賀 ^{囉^{引六}} 薩寫 ^{賀^{引七}} 播跛啣 ^{引八} 訥瑟吒 ^{[二合]啣^{引九}} 嚙捺囉 ^{[二合]啣^{引四}} 藥乞灑 ^{[二合]乞囉^{[二合]賀^{引一}} 囉^引 乞察^{[二合]娑乞囉^{[二合]賀^{引二}} 畢噉^{[二合]多乞囉^{[二合]賀^{引三}} 枇舍^引 左乞囉^{[二合]賀^{引四}} 部^引 多乞囉^[二合]}}}
오대	보빠하라 ^오 바라하라 ^오 사샤하라 ^오 바바진다 ^오 노짜진다 ^오 로느라진다 ^오 약사 ^오 라하 ^오 락사 사 ^오 라하 ^오 브레다 ^오 라하 ^오 비사자 ^오 라하 ^오 보다 ^오 라 ^[86b]
진언	hā(405) kumbhāṇḍagrahā(406) putanagrahā kaṭaputa nagrahā skandagrahā(407) otmadagrahā(408) chāyāgrahā(409) apasmaragrahā(410) ḍakaḍukinigrāhā(411) re
한자	賀 ^{引五} 矩畔 ^{拏乞囉^{[二合]賀^{引六}} 布^引單曩乞囉^{[二合]賀^{引吳}} 迦吒布單曩乞囉^{[二合]賀^{引吳}} 塞騫^{[二合]娜乞囉^{[二合]賀^{引七}} 嚙怛麼^{[二合]娜乞囉^{[二合]賀^{引八}} 蹉^引夜乞囉^{[二合]賀^{引九}} 阿^上跛娑麼^{[二合]囉^引 乞囉^{[二合]賀^{引十}} 拏迦拏^引 枳顚乞囉^{[二合]賀^{引一}} 噉 你吠^{[二合]底野迦^{引九}}}}}}
오대	하 ^오 굼반나 ^오 라하 ^오 보다나 ^오 라하 ^오 가타 ^오 보다나 ^오 라하 ^오 스건나 ^오 라하 ^오 오드마나 ^오 라하 ^오 차야 ^오 라하 ^오 아바싸라 ^오 라하 ^오 나가노 ^오 기니 ^오 라하 ^오 례 ^[87a]
진언	vatigrahā(412) jāmīkagrahā(413) śakonīgrahā(414) mātranandekagrahā(415) lāṇvikagrahā(416) hādukaṇṭapātāṇigrahā(417) jvarāḥkāhikā(418) nvetīyakā(419)
한자	嚙底乞囉 ^{[二合]賀^{引二}} 咎弭迦乞囉 ^{[二合]賀^{引三}} 爍 ^引 矩顚乞囉 ^{[二合]賀^{引四}} 麼怛囉 ^{[二合]難^上祢迦乞囉^{[二合]賀^{引五}} 覽^{引上}尾迦乞囉^{[二合]賀^{引六}} 賀^鼻弩建^上蛇播^引蹉^引拏乞囉^{[二合]賀^{引七}} 入嚙^{[二合]囉^引 噉迦^引 泗迦^{引八} 你吠^{[二合]底野迦^{引九}}}}
오대	바디 ^오 라하 ^오 삼미가 ^오 라하 ^오 샤구니 ^오 라하 ^오 마드라난네가 ^오 라하 ^오 람미가 ^오 라하 ^오 하노진타 ^오 바다니 ^오 라하 ^오 스바라 ^오 예가혜가 ^오 느베디아가 ^오 [87b]
진언	satraitīyakā(420) cāturthakā(421) nityajvarā(422) viṣamajvara(423) vātikāpaitikā(424) sreṣmika(425) sānnipātikā(426) sarvajvarā(427) sirūrṭi(428) arthāvabhedakā(429)
한자	娑怛嚙 ^{[二合]底^引野迦^{引二十}} 拶咄囉他 ^{[二合]迦^{引一}} 顚入底野 ^{[二合]入嚙^{[二合]囉^{引二}} 尾灑麼入嚙^{[二合]囉^{引三}} 嚙^引底迦^引背底迦^{引四} 始噉^{[二合]瑟弭^{[二合]迦^{引五}} 散^引顚跛底迦^{引六} 薩囉嚙^{[二合]入嚙^{[二合]囉^{引七}} 始嚙嚙底^{[二合]八} 阿囉駄^{[二合]引} 嚙陞娜迦^{引九}}}}
오대	사드래디 ^오 야가 ^오 자돌타가 ^오 니다스바라 ^오 미사마스바라 ^오 바디가 ^오 빈디가 ^오 스레스미가 ^오 산니바디가 ^오 살바스바라 ^오 시룰디 ^오 알다바베나가 ^오 [88a]
진언	alaucakā(430) akṣiraukaṁ(431) mukharaukaṁ(432) hṛdraukaṁ(433) galagrahaṁ(434) karṇaśulāṁ(435) dantaśulāṁ(436) jihvaśu lāṁhṛdayaśrāṁ(437) marmaśulāṁ(438) paraśvaśulāṁ(439)
한자	阿嚙 ^引 左迦 ^{引三十} 阿乞史 ^{[二合]嚙^引 穆佉嚙^引 紇哩^{[二合]訥嚙^{[二合]撿^三} 譏攞藥囉^{[二合]憾^四} 羯囉拏^{[二合]戊嚙^{引五}} 難^上多^上戊嚙^六 囉 賀^{[二合]戊嚙^引 紇哩^{[二合]娜野戊嚙^{[二合]七}} 沫囉麼^{[二合]戊嚙^八} 播囉濕嚙^{[二合]戊嚙^九}}}}
오대	아로자가 ^오 악시로검 ^오 모카로검 ^오 흐리느로검 ^오 아라 ^오 라함 ^오 갈나슈람 ^오 난다슈람 ^오 시 ^오 하바슈람 ^오 흐리나야슈람 ^오 말마슈람 ^오 바라시 ^오 바슈람 ^오 [88b]
진언	prṣṭaśulāṁ(440) udaraśulāṁ(441) ghaṇṭiśulāṁ(442) vastiśulāṁ(443) orūśulāṁ(444) jaṁghāśulāṁ(445) hastaśulāṁ(446) pādaśulāṁ(447) sarvāṅgapratyaṅgaśulāṁ(448) bhutabhai
한자	跛哩 ^{[二合]瑟吒^{[二合]戊嚙^{四十}} 塢^上娜囉戊嚙^一 建致戊嚙^二 嚙娑底^{[二合]戊嚙^三} 塢嚙戊嚙^四 壤^引伽^引戊嚙^五 賀娑多^{[二合]戊嚙^六} 播^引娜戊嚙^七 薩囉嚙^{[二合]盎^引譏鉢囉^{[二合]底孕^{[二合]譏戊嚙^八} 部多吠}}}

오대	브리싸슈람○ 오나라슈람○ 건티슈람○ 바씨슈람○ 오로슈람○ 양카슈람○ 하싸슈람○ 바나슈람○ 살바앙아브라딩아슈람○ 보다베 _[89a]
진언	taṇa(449) ḍūkāḍūkini(450) jvarādrakāṇḍakīṭi(451) bhālatapai(452) sarparūha(453) liṃga(454) śuśatra(455) sāgara(456) viṣa(457) yoga(458) agni(459) odaka(460) parabera(461) kān
한자	多拏 _{引九} 拏 _引 迦拏 _引 枳賴 _{五十} 入嚩 _{二合} 囉捺訥嚩 _{二合} 建拏 _鼻 枳致 _一 婆 _去 路 _引 多吠 _{引二} 薩囉跛 _{二合} 嚩賀 _三 陵 _上 誡 _四 戌灑怛囉 _{二合五} 娑誡囉 _六 尾灑 _七 喻誡 _八 阿 _上 儼賴 _{二合九} 唄娜迦 _{六十} 跛囉吠囉 _一 建
오대	다나○ 노가노기나○ 스바라.나느로건나.기티○ 바로다베○ 살바로하○ 링아○ 슈사드라○ 사아라○ 미사○ 유아○ 아으니○ 오나가○ 바라베라○ 건 _[89b]
진언	tāra(462) akālaṃ(463) br̥tyu(464) traimuka(465) trailātaka(466) br̥scika(467) sarppa(468) nakula(469) śimha(470) vyaghra(471) rikṣa(472) tarakṣo(473) bṛgasvapara(474) jivā(475) taiśāṃsarvesaṃ(476) mahā
한자	踰 _引 囉 _二 阿迦 _引 覽 _三 沒哩 _{二合} 底庾 _{二合四} 怛嚩 _{二合} 穆迦 _五 怛嚩 _{二合} 攞 _引 吒迦 _六 沒哩 _{二合} 室旨 _{二合} 迦 _七 薩囉跛 _{二合八} 曩矩攞 _九 僧賀 _{七十} 尾野 _{二合} 伽囉 _{二合一} 哩乞灑 _{二合二} 多囉乞葛 _{二合三} 沒哩 _{二合} 誡娑嚩 _{二合} 跛囉 _四 爾嚩 _{引五} 帝鈇 _引 薩囉吠 _{二合} 鈇 _六 摩賀 _引
오대	다라○ 아가람○ 므리듀○ 드래모가○ 드래라타가○ 므리시지가○ 살바○ 나구라○ 싱하○ 마᳚라○ 릅사○ 다락슈○ 므리.아싸바라○ ᄇ바○ 데삼살베삼○ 마하 _[90a]
진언	sitāta(477) patraṃ mahāva[478] jrooṣṇīsaṃmahāpratyaṃgirāṃ(479) yāvanvadaśa(480) yojanā(481) bhyantāreṇa(482) simabandhaṃkarūmi(483) niśa bandhaṃkarumi(484) pa
한자	悉踰 _引 多 _七 鉢怛嚩 _{二合} 摩賀 _引 嚩 _{八⁷⁵} 日嚩 _{二合} 塢 _上 瑟拏 _{二合} 鈇 _引 入 _引 摩賀鉢囉 _{二合} 底孕 _{二合} 儼嚩 _{二合九} 夜 _引 嚩囉嚩 _{二合} 娜捨 _{八十} 喻惹曩 _{引一} 便踰 _引 嚩拏 _二 臬麼 _去 滿鄧迦嚩 _{引三} 顛捨滿鄧迦嚩 _{引四} 跛
오대	시다다○ 바드람.마하바○ 스로오시삼마하브라딩이람○ 야바느바나샤○ 유사나○ 변다레나○ 시마만둥가로미○ 니샤.만둥가로미○ 바 _[90b]
진언	ravidyā bandhaṃkarūmi(485) tejū bandhaṃkarūmi(486) siddha vandhaṃkarūmi paladā bandhaṃkarūmi(487) paravidyā bandhaṃkarūmi(488) sarmamaṅga pratyam
한자	囉尾你也 _{二合引} 滿鄧迦嚩 _{引五} 帝租滿鄧迦嚩 _{引六} 悉駄滿鄧迦嚩 _引 跛囉娜 _引 滿鄧迦嚩 _{引七} 跛囉尾你也 _{二合引} 滿鄧迦嚩 _{引八} 薩罔盎誡鉢囉 _{二合} 底孕 _{二合} 吠囉嚩日囉 _{二合} 駄嚩 _{引四} 滿駄顛滿駄顛 _五 嚩日囉 _{二合} 播 _引 拏發吒 _六 咩訥嚩 _{三合} 發吒 _七 娑嚩 _{二合}
오대	라미나.만둥가로미○ 데슈.만둥가로미○ 신다.만둥가로미.바라나.만둥가로미○ 바라마나.만둥가로미○ 살망앙아.브라딩 _[91a]
진언	gabandhaṃkarūmi(489) tadyāthā(490) om(491) anale anale(492) viśade viśade(493) vaira vajradhare(494) bandani bandhani(495) vajrapāṇi phaṭ(496) huṃtrūmphaṭ(497) svā
한자	誡滿鄧迦嚩 _{引九} 怛你也 _{二合} 他 _{引九十} 唵 _{引一} 阿曩黎阿 _上 曩黎 _{引二} 尾捨祢尾捨祢 _{引三} 吠囉嚩日囉 _{二合} 駄嚩 _{引四} 滿駄顛滿駄顛 _五 嚩日囉 _{二合} 播 _引 拏發吒 _六 咩訥嚩 _{三合} 發吒 _七 娑嚩 _{二合}
오대	아만둥가로미○ 다나타○ 옴○ 아나레.아나레○ 미샤네.미샤네○ 베라.바스라다레○ 만다니.만다니○ 바스라바니.바닥○ 흠득롬바닥○ 스바 _[91b]
진언	hā(498) om(499) virūde(500) svāhā(501) namosarvā tathāgata(502) suṅgatāya(503) arhate(504) sārṃmyaksaṃmuthāya(505) oṣṇīṣa(506) mahāsitāta patraṃ(507) mahāsidyantu(508) bantrapadaya(509) svāhā(510)
한자	賀 _{引八} 唵 _{引九} 尾嚩祢 _{引五百} 娑嚩 _{二合} 賀 _{引一} 曩謨薩囉嚩 _{二合} 怛他誡哆 _{引二} 素誡多野 _三

	阿 ^上 囉曷 ^{[二合]帝^{引四}三藐三沒駄^{引野五}塢瑟拏^{[二合]灑^六摩賀^{引悉路^引多鉢怛嚩^{[二合]七}} 摩賀^{引悉鉤觀^八滿怛囉^{[二合]跋那野^九娑嚩^{[二合]引賀^{引五百一十句}}}}}}
오대	하 ^오 음 ^오 미로네 ^오 스바하 ^오 나무살바.다타아다 ^오 송아다야 ^오 알하데 ^오 삼막삼몬다야 ^오 오씨사 ^오 마하시다다.바드람 ^오 마하시던도 ^오 만드라.바나야 ^오 스바하 ^{오[92a-92b]}

5) 불정존승다라니

佛頂尊勝陀羅尼

진언	namobhagavate(1) trailokya(2) prati(3) viśiṣṭaya(4) muddhaya(5) bhagavate(6) tadyathā(7) om(8) viśudhaya(9) viśodhaya(10) samāsama(11) samanta(12) vabhasa(13) spha
한자	曩謨婆識嚩帝 ^一 怛嚩 ^{[二合]路枳也^{[二合]二鉢囉^{[二合]底^三尾悉瑟吒^{[二合]野^四冒駄野^五}} 婆識嚩帝^六 怛你也^{[二合]他^七唵^八尾秣吒野^九尾秣吒野^十娑麼婆麼^一娑万哆^二 嚩婆娑^三瑟破^[二合]}}}
오대	나무바아바데 ^오 드래루가 ^오 브라디 ^오 미시짜야 ^오 모다야 ^오 바아바데 ^오 다나타 ^오 음 ^오 미슈타야 ^오 미슈타야 ^오 사마사마 ^오 사만다 ^오 바바사 ^오 싸 ^[93a]
진언	raṇa gategahana(14) svābhā vaviśote(15) abhiṣimca(16) tumāṁ(17) sugatavaravacana(18) amṛta(19) bhiṣaikai(20) ahara(21) ahara(22) ayusandharāṇi(23)
한자	囉拏誡帝誡賀曩 ^四 娑嚩 ^{[二合]婆^引嚩尾秣帝^五 阿鼻誡左^六 觀捨^七 素誡多嚩囉嚩左曩^八 阿蜜哩^{[二合]多^九 鼻灑闍^{二十} 阿賀囉^一 阿賀囉^二 阿庾散駄囉拏^三}}
오대	라나.아데아하나 ^오 싸바.바미슈데 ^오 아비신자 ^오 도맘 ^오 소아다.바라바자나 ^오 아므리다 ^오 비새게 ^오 아하라 ^오 아하라 ^오 아우산다라니 ^{오[93b]}
진언	śudhaya(24) śudhaya(25) gagana viśoddhe(26) uṣṇiṣavi jayaviśuddhe(27) sahasra raśmaṁ saṁcodite(28) sarvātathāgatā valokaṇi(29) satpāramitā
한자	戌駄野 ^四 戌駄野 ^五 誡誡曩尾秣弟 ^六 鄔瑟拏 ^{[二合]沙尾惹野尾秣弟^七} 娑賀娑囉 ^{[二合]囉濕茗^{[二合]散祖泥帝^八薩唎嚩^{[二合]多他誡哆^引嚩路迦拏^九} 娑怛播^{[二合]囉弭哆^引}}}
오대	슈다야 ^오 슈다야 ^오 아아나.미술데 ^오 오새사미.샤야미술데 ^오 사하스라.라스명.산조니데 ^오 살바다타아다.바루가니 ^오 사드바라미다 ^[94a]
진언	paripurāṇi(30) sarvātathāgatāhṛdaya(31) dhiṣṭana(32) dhiṣṭhita(33) mahāmudra(34) vajrakaya(35) simhātana viśoddhe(36) sarvāvaranapaya durgati

- 169) ‘읏’자가 있는 것은 한글 텍스트에서 끊기가 반영되지만 한자 텍스트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오류라는 의미로 ‘誤’을 나타내는 글자로 판단된다. 이러한 표기는 중국어 번역 당시부터 사용되었던 것인지 한국에서 첨가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 170) 원본의 표기 그대로 반영하였다. 한자 텍스트에 간혹 권점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 중국어 번역의 원문에는 없었지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추가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 171) 한자에서 응당 六이 있어야 하는데 빠졌다. 한글은 한자 텍스트에 따라 ㅁ으로 표기하였다. 즉 한글 절 경계는 우선 한자의 句를 우선으로 한다.
- 172) 사십이수진언에서 ‘탁’, 여기서 탁
- 173) 원본에서 한자가 ‘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읏’의 오류일 것이다.
- 174) 원본에서 ‘ㅇ’으로 되어 있지만 마땅히 ‘ㅇ’이어야 한다.
- 175) 실제 원본에서 ‘入’으로 되어 있는데 ‘八’의 잘못된 되기로 판단된다.

한자	跋里布囉泥 _{三十} 薩囉嚩 _{二合} 怛他誡多 _引 紇哩 _{二合} 拏野 _一 地瑟吒 _{二合} 那 _二 地瑟底 _{二合} 多 _三 摩賀母捺囉 _{二合} 嚩日囉 _{二合} 迦野 _五 僧賀多那 _引 尾戌弟 _六 薩囉嚩 _{二合} 嚩囉曩跋野訥誡底
오대	바리보라니 _○ 살바다타아다 _○ 흐리나야 _○ 디짜나 _○ 디찌다 _○ 마하모느 _○ 라 _○ 바스라가야 _○ 싱 하다나미술데 _○ 살바바라나바야 _○ 놀아디 _○ [94b]
진언	pariśuddhe(37) pratidi martaya ayuśuddhe(38) samaya dhiṣṭhite(39) mañimaṇi(40) mamaṇi(41) tathāḍa bhūtakodhi pariśuddhe(42) visphoṭa modhiśuddhe(43)
한자	跋哩戌弟 _七 鉢囉 _{二合} 底拈轆哆野阿庾秣弟 _八 娑麼野地瑟底 _{二合} 帝 _九 麼拈麼拈 _{四十} 麼麼泥 _一 多歎哆步哆具地跋哩戌弟 _二 尾瑟普 _{二合} 姤母地秣弟 _三
오대	바리술데 _○ 브라디니.말다야.아유술데 _○ 사마야.디찌 데 _○ 마니마니 _○ 마마니 _○ 다탄다.보다구디.바리술데 _○ 미쑤타.모디술데 _○ [95a]
진언	jāyajāya(44) vijayavijaya(45) smarasmara(46) sarvāmuddhā dhiṣṭhita śuddhe(47) vajre(48) vajra garbhe(49) vajraṃ(50) bhavatu mamasya(51) śariraṃ sarvāsatvānām
한자	惹野惹野 _四 尾惹野尾惹野 _五 娑麼 _{二合} 囉娑麼 _{二合} 囉 _六 薩囉嚩 _{二合} 母駄地瑟底 _{二合} 多秣弟 _七 嚩日嚩 _{二合} 八 嚩日囉 _{二合} 藥陸 _九 嚩日覽 _{二合} 五十 婆嚩靚麼麼寫 _一 舍哩嚩薩囉嚩 _{二合} 薩怛嚩 _{二合} 難
오대	샤야샤야 _○ 미샤야미샤야 _○ 스마라스마라 _○ 살바몰다.디찌다.술데 _○ 바스 레 _○ 바스라알베.바스 람 _○ 바바도.마마샤 _○ 샤리 람.살바사드바난 _○ [95b]
진언	ca(52) kāya pariśuddhe(53) sarvāgati pariśuddhe(54) sarvātathāgatā scameṃ(55) samasvā sayamtu(56) sarvātathāgatā samasvāsa(57) dhiṣṭhite(58) muddhyamu
한자	左 _二 迦 _引 野跋哩秣弟 _三 薩囉嚩 _{二合} 誡底跋哩秣弟 _四 薩囉嚩 _{二合} 多他誡哆室者 _{二合} 銘 _五 娑麼濕囉 _{二合} 娑演靚 _六 薩囉嚩 _{二合} 多他誡多娑麼濕囉 _{二合} 娑 _七 地瑟底 _{二合} 帝 _八 母地也 _{二合} 母
오대	자 _○ 가야.바리술데 _○ 살바아디.바리술데 _○ 살바다타아다.스자명 _○ 사마스바.사연도 _○ 살바다타아다.사마빠사 _○ 디찌 데 _○ 몰다몰 _○ [96a]
진언	ddhya(59) vimudhaya(60) vimudhaya(61) sarīmanta pariśuddhe(62) sarvātāt hāgatāḥṛdaya(63) dhiṣṭhana(64) dhiṣṭhita(65) mahāmudre(66) svāhā
한자	地也 _{二合} 九 尾母駄野 _{六十} 尾母駄野 _一 三万哆跋哩秣弟 _二 薩囉嚩 _{二合} 怛他誡哆紇哩 _{二合} 拏野 _三 地瑟吒 _{二合} 那 _四 地瑟底 _{二合} 哆 _五 摩賀母捺囉 _{二合} 六 娑嚩 _{二合} 賀
오대	다 _○ 미모다야 _○ 미모다야 _○ 삼만다.바리술데 _○ 살바다타아다.흐리나야 _○ 디짜나 _○ 디찌다 _○ 마하모느 _○ 레 _○ 스바하 _○ [96b]

尊勝大心呪

진언	omamṛda prabhe vipulagarbhe bodhisatme siddhisidhi mahāgarbhe dhuludhurusvāhā
한자	俺阿蜜哩 _{二合} 多鉢囉 _{二合} 陸尾布攞藥陸母地娑多迷 _{二合} 悉地悉地麼賀藥陸度嚩度嚩 娑嚩 _{二合} 賀
오대	움아므리다.브라베.미보라알베.모디사드메.시디시디.마하알베.도로도로스바하 _○ [97 a]

尊勝小心呪

진언	omamṛta javati svāhā
한자	俺阿蜜哩 _{二合} 多惹嚩底娑嚩 _{二合} 賀
오대	움아므리다.사바디스바하 _○ [97b]

부록2: 산스크리트 원어와의 대비-신묘장구대다라니¹⁷⁶⁾

문장1

[원어] namo ratnatrayāya
[오대] namo ratnatrayāya
[만연] namo ratnatrayāya
[망월] namo ratnatrayāya
[번역] 三寶께 敬拜/歸依[합니다]

문장2

[원어] nama āryāvalokiteśvarāya bodhisttvāya mahāsattvāya mahākārunikāya
[오대] namaḥ aṛyaḥvalokiteśvāraya bodhisatvāya mahāsattvāya mahākārunikaya
[만연] namaḥ āryaḥvalokiteśvārāya modhisatvāya mahāsattvāya mahākāraunikaya
[망월] namaḥ aṛyaḥvalokiteśvāraya bodhisatvāya mahāsattvāya mahākārunikaya
[번역]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께, 깨달음의 존재자/菩薩께,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께, 위대한 수행자/大慈大悲의 존재자께 敬拜/歸依[합니다]

문장3

[원어] om sarvabhayeṣu trāṇakarāya tasmai namas
[오대] om sarvābhayesa trāṇakaraya tasyamyem namoḥ
[만연] om sarvābhayesa trāṇakaraya tasyamyem namoḥ
[망월] om sarvābhayesa trāṇakaraya tasyamyam namoḥ
[번역] 옴, 공포/두려움을 가진 피조물들에서(/에 대해/를) 보호를 수행하는 [존재자인] 그에 敬拜/歸依[합니다]

문장4

[원어] kṛtvā imāmāryāvalokiteśvarastavaṁ nilakanṭhanāma hṛdayaṁ
[오대] skṛtvā imāmā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nṭhanamaḥ hṛdayama
[만연] skṛtvā imāmā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nṭhanamaḥ hṛdayama
[망월] skṛtvā imāmā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nṭhanamaḥ hṛdayama

[원어] vartayiṣyāmi sarvārthasāadhanam śubham ajeyam sarvabhūtānam
[오대]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am śubham ajeyam sarvābhūtānam
[만연]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am śobham ajeyam sarvābhūtānam
[망월]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am śubham ajeyam sarvābhūtānam

[원어] bhavamārgaviśodhakam
[오대] bhavamargamiśūdhakam
[만연] bhavamargamiśodhakam
[망월] bhavamargamiśūdhakam

[번역]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에 대해 이와 같은/다음의 찬양을 하고난 후에(는) 오! 검푸른 목/青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자시여! 저는 (저의) 마음이 모든 목적을 조장하는 아름다움/빛으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모든 피조물의

176) 산스크리트 원어 텍스트의 복원과 한국어 번역은 전순환(2005)을 참고하였다.

생명의 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문장5

[원어] tadyathā

[오대] tadyathā

[만연] tadyathā

[망월] tadyathā

[번역] 이러(한 것으로)하여

문장6

[원어] om āloka e ālokamatilokātikrānta ehyehi

[오대] om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만연] om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망월] om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번역] 음, 오! 면밀한 注視를 하는 존재자시여, 면밀한 注視의 마음으로 세상을 초월한 존재자시여! 가소서, 가소서!

문장7

[원어] hare mahābodhisattva smarasmara hṛdayaṁ kurukuru

[오대]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만연]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망월]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원어] karma sādhasādhaya dhurudhurū

[오대] karma sādhasādhaya dhurudhurū

[만연] karma sādhasādhaya dhurūdhurū

[망월] karma sādhasādhaya dhurudhurū

[번역] 오! (황)금색의 옷을 걸친 존재자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이시여, (그) 마음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 일/業을 수행하소서, 수행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지탱하소서, 지탱하소서!

문장8

[원어] vijayanta e mahāvijayanta e dharadhara dhaṇi

[오대]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i

[만연]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i

[망월]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i

[번역] 오! 승리의 존재자시여, 위대한 승리의 존재자시여, 大地를 지탱하소서, 지탱하소서!

문장9

[원어] dhareśvara calacala

[오대] dhareśvāra calacala

[만연] dhareśvāra calacala

[망월] dhareśvāla calacala

[번역] 오, 지탱의 지배자시여, 起動하소서, 起動하소서!

문장10

[원어] malla vimalāmalamūrtte ehyehi
 [오대] mala vimalaamalamurte ehyehe
 [만연] mala mimalaamalamurte ehyehe
 [망월] mala vimalaamalamurte ehyehe
 [번역] 오! 존재자시여, 흠이 없고 얼룩이지지 않은 體現이시여, 가소서, 가소서!

문장11

[원어] lokeśvara rāgaviṣaṁ vināśaya dveṣaviṣaṁ vināśaya
 [오대] lokeśvārā rāgaviṣa vināśaya dveṣaviṣa vināśaya
 [만연] lokeśvārā rāgaṁiṣa mināśaya dveṣaṁiṣa mināśaya
 [망월] lokeśvārā rāgaviṣa vināśaya dveṣaviṣa vināśaya
 [번역]

[원어] mohajālaviṣaṁ vināśaya huluhulu
 [오대] mohājalaviṣa vināśaya holuholu
 [만연] mohājalamiṣa mināśaya holuholu
 [망월] mohājalaviṣa vināśaya holoholo

[번역] 오! 세상의 지배자시여,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독을 몰아내게 하소서, 증오의 독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물과 같이 퍼져있는 혼란/꼬임의 독을 몰아내게 하소서!

문장12

[원어] malla hulu
 [오대] mala hulu
 [만연] mala hulu
 [망월] mala hōlu
 [번역] 오! 존재자시여, 가져오소서!

문장13

[원어] hare padmanābha sarasara sirisiri surusuru budhyabudhya
 [오대]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만연]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망월]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원어] bodhayabodhaya
 [오대] modhayamodhaya
 [만연] modhayamodhaya
 [망월] modhayamodhaya

[번역] 오! (황)금색의 옷을 걸친 존재자시여, 연꽃의 중심(점)이시여, 서둘러 가소서, 서둘러 가소서, 서둘러 가소서, 깨어나지소서, 깨어나지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문장14

[원어] maitriya nilakaṇṭha kāmasya darśanena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오대] maitriya ni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m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만연] maitriya ni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m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망월] maitriya ni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m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번역] 오! 검푸른 목/靑頸을 갖는 동맹의 존재사시여, 희망의 視覺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기뻐하게 하소서! 사바하

문장15

[원어] siddhāya svāhā
 [오대] sidhāya svāhā
 [만연] sidhāya svāhā
 [망월] sidhāya svāhā
 [번역] 수행한/완전한 존재자에게 (敬拜/歸依) (합니다). 사바하

문장16

[원어] mahāsiddhāya svāhā
 [오대] mahāsidhāya svāhā
 [만연] mahāsidhāya svāhā
 [망월] mahāsidhāya svāhā
 [번역] 위대한 성취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17

[원어] siddhayogeśvarāya svāhā
 [오대] sidhāyogeśvaraya svāhā
 [만연] sidhāyogeśvaraya svāhā
 [망월] sidhāyogeśvaraya svāhā
 [번역] 완전한 지배자에게 (敬拜/歸依) (합니다). 사바하

문장18

[원어] nilakaṇṭhāya svāhā
 [오대] nilakaṇṭhaya svāhā
 [만연] nilakaṇṭhaya svāhā
 [망월] nilakaṇṭhaya svāhā
 [번역] 검푸른 목/靑頸을 갖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19

[원어] varāhamukhasirīhamukhāya svāhā
 [오대] varahamukhasirīhamukhaya svāhā
 [만연] varahamukhasirīhamukhaya svāhā
 [망월] varahamukhasirīhamukhaya svāhā
 [번역] 멧돼지의 얼굴과 사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 (합니다). 사바하

문장20

[원어] padmahastāya svāhā
 [오대] padmāhastaya svāhā
 [만연] padmāhastaya svāhā
 [망월] padmāhastaya svāhā
 [번역] 연꽃을 손에 쥐고/들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1

[원어] cakrāyudhāya svāhā

[오대] cakrāyudhaya svāhā
 [만연] cakrāyudhaya svāhā
 [망월] cakrāyudhaya svāhā
 [번역] 원반으로 싸우는 전사/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2

[원어] śaṅkhaśabdanibodhanāya svāhā
 [오대] śaṅkhaśabṇanebodhanaya svāhā
 [만연] śaṅkhaśabṇanebodhanaya svāhā
 [망월] śaṅkhaśabṇanebodhanaya svāhā
 [번역] 소라(껍질)의 소리를 알아채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3

[원어] mahālakṣadharāya svāhā
 [오대] mahālakṣadharaya svāhā
 [만연] mahālakṣadharaya svāhā
 [망월] mahālakṣadharaya svāhā
 [번역]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4

[원어] vāmaskandhadeśasthitakṛṣṇajīnāya svāhā
 [오대] vāmaskāndhaniśasthitakṛṣṇajīnaya svāhā
 [만연] vāmaskāndhaniśasthitakṛṣṇajīnaya svāhā
 [망월] vāmaskāndhaniśasthitakṛṣṇajīnaya svāhā
 [번역] 왼쪽 어깨의 위치에 (선/서있는) 검은 영양 가죽을 걸치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5

[원어] vyāghracarmanivasanāya svāhā
 [오대] vyāghracarmanivasanaya svāhā
 [만연] vyāghracarmanivasanaya svāhā
 [망월] vyāghracarmanivasanaya svāhā
 [번역] 호랑이의 가죽을 걸치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6

[원어] namo ratnatrayāya
 [오대] namo ratnatrayāya
 [만연] namo ratnatrayāya
 [망월] namo ratnatrayāya
 [번역] 문장1과 동일함.

문장27

[원어]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 svāhā
 [오대] namaḥ aṛyaḥvalokiteśvārāya svāhā
 [만연] namaḥ āryaḥvalokiteśvārāya svāhā
 [망월] namaḥ aṛyaḥvalokiteśvārāya svāhā
 [번역] 문장2와 동일함.

부록3: 한글 텍스트 형태 경계 단위의 비교

ㄱ)	namo ratnatrayāya(1) nama āryāvalokiteśvarāya(2)
ㄴ)	nam-as ratna=traya-aya(1) nam-as ārya=avalokita=iśvara-aya(2)
ㄷ)	<u>namo ratna</u> trayāya(1) nama āryā valokite śvarāya(2)
韓)	나모(라)드나드라야야 나막알약바로기데시바라야
漢)	曩謨囉怛曩 _[二合] 怛囉 _[二合] 夜 _引 野 _一 莫啊哩也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囉野 _二
ㄱ)	bodhisttvāya mahāsattvāya(3) mahākārunikāya(4)
ㄴ)	bodhi=sattva-aya mahā=sattva-aya(3) mahā=kārunika-aya(4)
ㄷ)	bodhi sttvāya mahā sattvāya(3) mahā kārunikāya(4)
韓)	보디사드바야마하사드바야 마하가로니가야
漢)	冒地薩怛嚩 _[二合] 野摩賀 _引 薩怛嚩 _[二合] 野 _三 摩賀迦 _引 嚩拏迦野 _四
ㄱ)	om(5) sarvabhayeṣu(6) trāṇakarāya tasmai(7)
ㄴ)	om(5) sarva=bhay-a~eṣu(6) trā-ṇa=kar-a-aya tasm-ai(7)
ㄷ)	om(5) sarva bhayeṣu(6) trāṇa karāya tasmai(7)
韓)	옴 살바바예수 드라나가라야다샤명
漢)	唵 _五 薩唎嚩 _[二合] 婆曳數 _六 怛囉 _[二合] 拏 _引 迦囉野怛寫銘 _七
ㄱ)	namas(8) kṛtvā imam(9)>āryāvalokiteśvarastavaṃ(10)
ㄴ)	nam-aḥ(8) kṛ-tu-ā im-am(9) āri~ya=ava-lok-a~ita=iś-vara=stav-a-m(10)
ㄷ)	namas(8) kṛtvā imam(9) āryā valokite śvara stavaṃ(10)
韓)	나막 쓰리드바이맘 알야바로기데식바라다바
漢)	曩莫塞訖哩 _[三合] 怛嚩 _[二合] 引 _八 伊舍 _引 九 啊哩也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引 _{囉怛嚩} _十
ㄱ)	nilakanṭhanāma hṛdayaṃ(11) vartayiṣyāmi(12)
ㄴ)	nila=kanṭha=nāma hṛd-aya-m(11) vart-aya~iṣyā-mi(12)
ㄷ)	<u>nila kanṭha</u> nāma hṛdayaṃ(11) varta yiṣyāmi(12)
韓)	니라간타나막호리나야 마발다이샤미
漢)	顛囉建陀曩麼訖哩 _[二合] 娜野 _一 麼嚩唎 _[二合] 以瑟也 _[二合] 引 _弭 _二
ㄱ)	sarvārthasādhanaṃ(13) śubham ajeyaṃ(14)
ㄴ)	sarva=ar-tha=sādh-ana-m(13) śubh-am a-je-ya-m(14)
ㄷ)	sarvārtha sādhanam(13) śubham ajeyam(14)
韓)	살발타사다남 슈반에세염
漢)	薩唎嚩 _[二合] 囉他 _[二合] 娑駄喃 _引 三 輸伴阿薺琰 _四
ㄱ)	sarvabhūtānām(15) bhavamārgaviśodhakam(16)
ㄴ)	sarva-bhū-ta-anām(15) bhav-a=mārg-a=vi-śodh-aka-m(16)
ㄷ)	sarva bhūtānām(15) <u>bhava mārga</u> viśodhakam(16)
韓)	살바보다남 바바말야미슈다감
漢)	薩唎嚩 _[二合] 步 _引 路 _引 喃 _五 婆嚩沫唎 _[二合] 尾戍駄劔 _六
ㄱ)	tadyathā(17) om(18) āloka e āloka(19)

ㄴ)	tad=ya-thā(17) om̃(18) ā-lok-a e ā-lok-a(19)
ㄷ)	<u>tad yathā</u> (17) om̃(18) āloka e āloka(19)
韓)	다나타ㅇ 움ㅇ 아로계ㅇ아로가ㅇ
漢)	怛你也 _{[二合]他_{引七} 唵_八 阿路計阿路迦_{引九}}
ㄱ)	>matilokātikrānta e(20) hyehi hare(21) mahābodhisattva(22)
ㄴ)	ma-ti=lok-a=ati-krān-ta(20) e-hi#e-hi hare(21) mahā=bodh-i=s-at-tva(22)
ㄷ)	<u>mati lokā tigrānta</u> e(20) hyehi hare(21) <u>mahā bodhi</u> sattva(22)
韓)	마디로가ㅇ디ㄴ란데ㅇ 헤헤ㅇ하례ㅇ 마하모디ㅇ사ㄷ마ㅇ
漢)	麼底路迦底羯囉 _{[二合]諦_{二十} 醯醯賀嚩_一 摩賀冒地薩怛嚩_{[二合]引二}}
ㄱ)	smarasmara hrdayam̃(23) kurukuru karma(24) sādahaya(25)
ㄴ)	smar-a#smar-a hrd-aya-r̃m̃(23) kur-u#kur-u kar-ma(24) sādha-aya(25)
ㄷ)	smara smara hrdayam̃(23) kuru kuru karma(24) sādahaya(25)
韓)	스마라.스마라.ㅎ리나야ㅇ 구로.구로.갈마ㅇ 사다야ㅇ
漢)	娑麼 _{[二合] 囉娑麼_{[二合] 囉紇哩_{[二合] 娜野_三 矩嚕矩嚕羯囉麼_{[二合]四 娑_引達野娑駄野_五}}}}
ㄱ)	>sādahaya dhurudhuru vijayanta e(26) mahāvijayanta e(27)
ㄴ)	sādh-aya dhur-u#dhur-u vi-jay-ant-a e(26) mahā=vi-jay-ant-a e(27)
ㄷ)	sādahaya dhuru dhuru vi(ja)yanta e(26) mahā vijayanta e(27)
韓)	사다야ㅇ도로.도로.미연데ㅇ 마하.미연데ㅇ
漢)	度嚕度嚕尾演 _引 諦 _六 摩賀尾演諦 _七
ㄱ)	dharadhara dharani(28) dhareśvara calacala(29)
ㄴ)	dhar-a#dhar-a dhar-aṇi-m dhar-a=i(28) ś-vara cal-a#cal-a(29)
ㄷ)	dhara dhara dharanidhare(28) śvara calacala(29)
韓)	다라다라.다린느례ㅇ 시바라.자라자라ㅇ
漢)	駄囉駄囉達隣捺嚩 _{[二合]引八 濕嚩_{[二合] 囉左囉左囉_九}}
ㄱ)	malla vimalā(30)>malamūrtte(31) ehyehi(32)
ㄴ)	mal-la vi-mala-a(30) mala=mūr-tte(31) e-hi#e-hi(32)
ㄷ)	malla vimalā(30) mala mūrtte(31) ehyehi(32)
韓)	마라.미마라ㅇ 아마라.몰데ㅇ 예헤헤ㅇ
漢)	摩囉尾摩囉 _{三十} 阿摩囉母嚩 _一 暲醯曳 _{[二合]四二}
ㄱ)	lokeśvara rāga(33)>viṣaṁ vināśaya(34) dveṣaviṣaṁ vināśaya(35)
ㄴ)	lok-a=iś-vara rāg-a(33) viṣa-r̃m̃ vi-nāś-aya(34) dveṣ-a=viṣa-r̃m̃ vi-nāś-aya(35)
ㄷ)	loke śvara rāga(33) viṣaṁ vināśaya(34) <u>dveṣa viṣaṁ</u> vināśaya(35)
韓)	로계.시바라.라야ㅇ 미사미.나샤야ㅇ 느베사미.사미.나샤야ㅇ
漢)	路計濕嚩 _{[二合]引 囉囉_引 誡_三 尾灑尾曩_引捨野_四 爾吠_{[二合] 灑尾灑尾曩捨野_五}}
ㄱ)	mohajālavīṣaṁ vināśaya(36) huluhulu(37) malla hulu hare(38)
ㄴ)	moh-a=jāla=viṣa-r̃m̃ vi-nāś-aya(36) hul-u#hul-u(37) mal-la hul-u hare(38)
ㄷ)	moha jāla viṣaṁ vināśaya(36) hulu hulu(37) malla hulu hare(38)
韓)	모하.자라.미사미.나샤야ㅇ 호로.호로ㅇ 마라.호로.하례ㅇ

漢)	謨 _引 賀左羅尾灑尾曩捨野 _六 虎嚕虎嚕 _七 麼羅虎嚕賀黎 _八
ㄱ)	padmanābha(39) sarasara(40) sirisiri(41) surusuru(42)
ㄴ)	padma=nābha(39) sar-a#sar-a(40) siri siri(41) sur-u#sur-u(42)
ㄷ)	padma nābha(39) sara sara(40) siri siri(41) <u>suru suru</u> (42)
韓)	바느마.나바 _○ 사라.사라 _○ 시리.시리 _○ <u>소로소로</u> _○
漢)	鉢娜麼 _[二合] 曩婆 _{引九} 娑囉娑囉 _{四十} 悉哩悉哩 _一 素 _上 嚕素嚕 _二
ㄱ)	budhyabudhya(43) bodhayabodhaya(44) maitriya(45)
ㄴ)	budh-ya#budh-ya(43) bodh-aya#bodh-aya(44) mai-tra~iya(45)
ㄷ)	budhya budhya(43) bodhaya bodhaya(44) maitriya(45)
韓)	몬다몬다 _○ 모다야.모다야 _○ 띠드리아 _○
漢)	沒地野 _[二合] 沒地野 _{[二合]三} 冒駄野 _[二合] 冒駄野 _{[二合]四} 昧怛哩 _[二合] 野 _五
ㄱ)	nilakanṭha(46) kāmasya darśanena(47) prahlādaya manah(48)
ㄴ)	nila=kanṭha(46) kā-ma-sya darś-ana~ena(47) pra-hlād-aya man-aḥ(48)
ㄷ)	nila kanṭha(46) kāmasya darśanena(47) pra hlā daya manah(48)
韓)	나라간타 _○ 가마샤.닐샤남 _○ 브라.хра.나야.마낙 _○
漢)	顛羅建陀 _六 迦麼寫捺哩捨 _[二合] 喃 _七 鉢囉 _[二合] 賀囉 _[二合] 娜野摩 _{引諾八入}
ㄱ)	svāha(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siddhāya(52)
ㄴ)	svāhā(49) sidha-aya(50) svāhā(51) mahā=siddha-aya(52)
ㄷ)	svāha(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 siddhāya(52)
韓)	스바하 _○ 신다야 _○ 스바하 _○ 마하.신다야 _○
漢)	娑嚩 _[二合] 賀 _{引九} 悉駄野 _{五十} 娑嚩 _[二合] 賀 _一 摩賀悉駄野 _二
ㄱ)	svāha(53) siddhayogeśvarāya(54)
ㄴ)	svāhā(53) siddha=yog-a=iś-vara-aya(54)
ㄷ)	svāhā(53) <u>siddha yoge</u> śvarāya(54)
韓)	스바하 _○ 신다유예.시바라야 _○
漢)	娑嚩 _[二合] 賀 _三 悉駄喩藝 濕嚩 _[二合] 囉野 _四
ㄱ)	svāha(55) nilakanṭhāya(56) svāhā(57) varāhamukha(58)
ㄴ)	svāhā(55) nila=kanṭha-aya(56) svāhā(57) varāha=mukha(58)
ㄷ)	svāhā(55) nila kanṭhāya(56) svāhā(57) varāha mukha(58)
韓)	스바하 _○ 나라.간타야 _○ 스바하 _○ 바라하.목카 _○
漢)	娑嚩 _[二合] 賀 _五 顛羅建陀野 _六 娑嚩 _[二合] 賀 _七 嚩囉賀目佉 _八
ㄱ)	>simhamukhāya(59) svāhā(60) padmahastāya(61)
ㄴ)	simha=mukha-aya(59) svāhā(60) padma=hasta-aya(61)
ㄷ)	simha mukhāya(59) svāhā(60) padma hastāya(61)
韓)	싱하.목카야 _○ 스바하 _○ 바느마.하짜야 _○
漢)	僧賀目佉野 _九 娑嚩賀 _{六十} 鉢娜麼 _[二合] 賀 _一 娑婆野 _一
ㄱ)	svāhā(62) cakrāyudhāya(63) svāhā(64) śaṅkhaśabdani(65)
ㄴ)	svāhā(62) ca-kr-ā=yudh-a-aya(63) svāhā(64) śaṅkha=śab-da=ni(65)

ㄷ)	svāhā(62) cakrā yudhāya(63) svāhā(64) śaṅkha śabdani(65)
韓)	스바하ㅇ 자ㄴ라.욕다야ㅇ 스바하ㅇ 상카.섭나네ㅇ
漢)	娑嚩 _[二合] 賀 _二 作羯囉 _[二合] 欲馱野 _三 娑嚩 _[二合] 賀 _四 商佉攝娜寧 _五
ㄱ)	>bodhanāya(66) svāhā(67) mahālakūṭa(68)>dharāya(69)
ㄴ)	bodh-ana-aya(66) svāhā(67) mahā=lakūṭa(68) dhar-a-aya(69)
ㄷ)	bodhanāya(66) svāhā(67) mahā lakūṭa(68) dharāya(69)
韓)	모다나야ㅇ 스바하ㅇ 마하(라).구타ㅇ 다라야ㅇ
漢)	冒達曩野 _六 娑嚩 _[二合] 賀 _七 摩賀攞矩吒 _[八] 馱囉野 _[九]
ㄱ)	svāhā(70) vāmaskandhadeśasthita(71)>kṛṣṇajināya(72)
ㄴ)	svāhā(70) vā-ma=skandha=deś-a=sthi-ta(71) kṛṣṇa=ajina-aya(72)
ㄷ)	svāhā(70) vāma skandha deśa sthita(71) kṛṣṇa jināya(72)
韓)	스바하ㅇ 바마.스 간타.니샤.시테다ㅇ ㄴ릿나.ㄷ나야ㅇ
漢)	娑嚩 _[二合] 賀 _[七十] 嚩麼娑建姤你捨悉體 _[二合] 踰 _[一] 訖哩 _[二合] 瑟拏諾曩野 _[二]
ㄱ)	svāhā(73) vyāghracarma(74)>nivasanāya(75) svāhā(76)
ㄴ)	svāhā(73) vi-ā-ghra=carma(74) ni-vas-ana-aya(75) svāhā(76)
ㄷ)	svāhā(73) vyāghra carma(74) niva sanāya(75) svāhā(76)
韓)	스바하ㅇ ㅁㄴ라.잘마ㅇ 니바.사니야ㅇ 스바하ㅇ
漢)	娑嚩 _[二合] 賀 _[三] 尾野 _[二合] 伽囉 _[二合] 撝唎麼 _[二合] [四] 你嚩娑曩野 _[五] 娑嚩 _[二合] 賀 _[六]
ㄱ)	namo ratnatrayāya(77)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78)
ㄴ)	nam-o ratna=tray-a-aya(77) nam-aḥ āri~ya=ava-lok-a-ita=iś-vara-aya(78)
ㄷ)	namo ratna trayāya(77) namaḥ āryā valokite śvarāya(78)
韓)	나모(라).드나드라.야야ㅇ 나막.알야.바로기테.시바라야ㅇ
漢)	曩謨囉怛曩 _[二合] 怛囉 _[二合] 夜野 _[七] 曩莫啊 _[八] 哩也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囉野 _[八]
ㄱ)	svāhā(79)
ㄴ)	svāhā(79)
ㄷ)	svāhā(79)
韓)	스바하
漢)	娑嚩 _[二合] 賀

설명:

- 1) ‘>’ 기호는 원문의 단어뭉치가 끊어지지 않는 부분에 한자의 구가 끊어지는 부분이다.
- 2) 한글의 끊기와 불일치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부록4: 제 학자들의 『切韻』 재구음 비교표

<聲母類>¹⁷⁷⁾

	갈그렌	李方桂	陸志韋	董同龢	李榮	王力	邵榮芬	蒲立本	周法高	鄭張尚芳
幫	p	p	p	p	p	p	p	p	p	p
滂	p'	ph	p'	p'	p'	p'	p'	ph	p'	ph
並	b'	b	b	b'	b	b'	b	b	b	b
明	m	m	m	m	m	m	m	m	m	m
端	t	t	t	t	t	t	t	t	t	t
透	t'	th	t'	t'	t'	t'	t'	th	t'	t'
定	d'	d	d	d'	d	d'	d	d	d	d
泥	n	n	n	n	n	n	n	n	n	n
娘	ń	ŋ					n̥	ŋ	ŋ	n̥
知	t̪	t̪	t̪	t̪	t̪	t̪	t̪	t̪	t̪	t̪
徹	t'	t̪h	t̪'	t̪'	t̪'	t̪	t̪'	t̪h	t̪'	t̪h
澄	d'	d̪	d̪	d̪'	d̪	d̪'	d̪	d̪	d̪	d̪
精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清	ts'	tsh	ts'	ts'	ts'	ts'	ts'	tsh	ts'	tsh
從	dz'	dz	dz	dz'	dz	dz'	dz	dz	dz	dz
心	s	s	s	s	s	s	s	s	s	s
邪	z	z	z	z	z	z	z	z	z	z
莊	tʃ	tʃ	tʃ	tʃ	tʃ	tʃ	tʃ	tʃ	tʃ	tʃ
章	tʃ	tʃ	t̪	t̪	tʃ	t̪	t̪	c	tʃ	t̪
初	tʃ'	tʃh	tʃ'	tʃ'	tʃ'	tʃ'	tʃ'	tʃh	tʃ'	tʃh
昌	tʃ'	tʃh	t̪'	t̪'	tʃ'	t̪'	t̪'	ch	tʃ'	t̪h
崇	dʒ'	dʒ	dʒ'	dʒ	dʒ	dʒ'	dʒ	dʒ	dʒ	dʒ
船	dʒ'	dʒ	z	dʒ'	dʒ	dʒ'	z	(ʒ)	ʒ	z
山	ʃ	ʃ	ʃ	ʃ	ʃ	ʃ	ʃ	ʃ	ʃ	ʃ
書	ʃ	ʃ	ɕ	ɕ	ʃ	ɕ	ɕ	ʃ	ʃ	ɕ
俟	ʒ	ʒ	dz	(ʒ)	z	z	ʒ	(ʒ)	dʒ	dʒ
禪				ʒ	ʒ		dz	dʒ		
見	k	k	k	k	k	k	k	k	k	k
溪	k'	kh	k'	k'	k'	k'	k'	kh	k'	kh
群	g'	g	g	g'	g	g'	g	g	g	g
疑	ŋ	ŋ	ŋ	ŋ	ŋ	ŋ	ŋ	ŋ	ŋ	ŋ
影	·	·	∅	?	?	∅	?	?	?	?
曉	x	x	x	x	x	x	x	h	x	h
匣	ɣ	ɣ	ɣ	ɣ	ɣ	ɣ	ɣ	ɦ	ɣ	ɦ
云	j	j						j	j	
以	∅	ji	j	∅	∅	j	∅	j	∅	j
來	l	l	l	l	l	l	l	l	l	l
日	ńʒ	ńʒ	n̥ʒ	n̥	ń	ɾ	nʒ	ń	ń	n̥ʒ

177) 권혁준 역 (2014:99-100)

<韻母>178)

韻攝	等	韻目	갈그렌	董同龢	李榮	王力	邵榮芬	陸志韋	蒲立本	周法高	鄭張尚芳
果	1等	歌	â	a	â	a	a	ɒ	a	a	a
	3等	戈	ja	ja	ia	ia	ia	ɪa	ja	ia	ia
假	2等	麻	a	a	a	a	a	a	a	a	ɣa
	3等	麻	ja	ia	ia	ia	ia	ia	ja	ia	ia
遇	1等	模	uo	uo	o	u	uo	wo	ou	uo	uo
	3等	虞	ju	juo	io	iu	io	ɪwo	jou	iuo	io
		魚	jwo	jo	ia	io	io	io	jio	io	ia
蟹	1等	泰	ai	ai	ai	ai	ai	ai	ai	ai	ai
		哈	qi	ai	ei	vi	vi	vi	ei	ei	ai
		灰	uqi	uai	uei	uvi	uvi	wɛi	uei	uei	uai
	2等	佳	ai	æi	ä	ai	æi	æi	æ	æi	ɣe
		皆	ai	ei	äi	ei	ei	ei	aai	ei	ɣei
		夬	ai(?)	ai	ai	æi	ai	ai(ei)	ai	ai	ɣai
	3等	祭A	jai	jæi	iai	iei	jæi	iei	jei	iai	iei
		祭B	jai	jæi	iai	iei	iai	iei	jei	iai	ɣiei
		廢	joi	jæi	iei	iei	iei	iei	jai	iai	iei
	4等	齊	iei	iei	ei	iei	ei	ei	ei	iei	iei
止	3等	支A	(j)ie	je	ie	ie	je	iei	je	ir	ie
		支B	(j)ie	jě	ie	ie	ie	iei	je	ie	ɣie
		脂A	(j)i	jei	i	i	ji	iei(>i)	ji	iri	ir
		脂B	(j)i	jěi	i	i	ir	iei(>ɪ)	ji	iei	ɣir
		之	(j)i	(j)i	iə	ie	ie	ɪ(ə)i(>i)	jə	i	i
		微	(j)ei	jəi	iəi	iei	iəi	iei	jəi	iəi	ii
效	1等	豪	au	au	au	au	au	ɒu	au	au	au
	2等	肴	au	au	au	au	au	ɐu	au	au	ɣau
	3等	宵A	jau	jæu	iaü	ieü	jæu	ieü	jeu	iaü	ieü
		宵B	jau	jæu	iaü	ieü	iaü	ieü	jeu	iaü	ɣieü
	4等	蕭	ieu	ieu	eu	ieu	eu	eu	eu	ieu	eu
流	1等	侯	əu	u	u	əu	əu	əu	u	əu	əu
	3等	幽	jəu	jəu	ieü	iəu	ieü	ieü	A:jiu B:(jiu)	A:iru B:ieu	iru
		尤	jəu	ju	iu	ieü	iəu	ieü	ju	iəu	iu
咸	1等	談	am	am	am	am	am	am	am	am	am
		覃	qm	am	em	om	om	om	əm	əm	am
	2等	銜	am	am	am	am	am	am	am	am	ɣam
		咸	am	em	em	em	em	em	aəm	əm	ɣem
	3等	鹽A	jām	jæm	iām	iem	jæm	iem	jem	iæm	iem
		鹽B	jām	jæm	iām	iem	iæm	iem	jem	iam	ɣiem
	3等	嚴	jom	jem	iem	iem	iem	iem	jam	iam	iem
		凡	jwom	juem	iuem	iwem	iem				
	4等	添	iem	iem	em	iem	em	em	em	iem	em

深	3등	侵A	jəm	jem	iəm	ǽm	jem	iēm	jim	im	im
		侵B	jəm	jēm	iəm	ǽm	iem	iem	jim	iem	ɣim
山	1등	寒	ân	an	ân	an	an	ɒn(an)	an	an	an
	2등	刪	an	an	an	an	en	en	an	an	ɣan
		山	ǎn	æn	ǎn	æn	æn	an	aən	æn	ɣen
	3등	仙A	ǰän	jæn	iän	ǽn	jæn	ien	jen	iæn	ien
		仙B	ǰän	jǽn	iän	ǽn	iæn	ien	jæn	ian	ɣien
	3등	元	jɒn	jen	ien	ǽn	ien	ien	jan	ian	ien
臻	4등	先	ien	ien	en	ien	en	en	en	ien	en
	1등	痕	ən	ən	ən	ən	ən	ən	ən	ən	ən
		魂	uən	uən	uən	uən	uon	wən	uən	uən	uən
	2등	臻	jɛu	(j)en	ien	ǽn	ien	iēn	in	en	in
	3등	眞A	jěn	jen	ien	ǽn	jen	ien	jim	im	im
		眞B	jěn	jěn	ien	ǽn	ien	iēn	jim	ien	ɣim
宕	3등	殷	jən	jən	ien	ǽn	ien	ien	jen	ien	in
		文	juən	juən	iuən	iuən	iuən	rwən	juən	iuən	iuən
	1등	唐	âng	aŋ	âŋ	aŋ	aŋ	ɒŋ	aŋ	aŋ	aŋ
	3등	陽	jâng	jaŋ	iaŋ	ǽŋ	iaŋ	iaŋ	jaŋ	iaŋ	ieŋ
	2등	庚	ɒŋ	eŋ	eŋ	eŋ	aŋ	aŋ	aŋ	aŋ	ɣæŋ
		耕	eng	æŋ	ǣŋ	æŋ	eŋ	eŋ	aəŋ	æŋ	ɣeŋ
梗	3등	庚	jɒŋ	jeŋ	ieŋ	ǽŋ	iaŋ	iæŋ	jaŋ	iaŋ	ɣiæŋ
		清	jǣŋ	jeŋ	iǣŋ	ǽŋ	iæŋ	ieŋ	(jeŋ) jeŋ	iæŋ	ieŋ
	4등	青	ieng	ieŋ	eŋ	ieŋ	eŋ	eŋ	eŋ	ieŋ	eŋ
	1등	登	əŋ	əŋ	əŋ	əŋ	əŋ	əŋ	əŋ	əŋ	əŋ
曾	3등	蒸A	jəŋ	jəŋ	iəŋ	ǽŋ	ieŋ	iēŋ	jəŋ	im ieŋ	im
		蒸B	jəŋ	jəŋ	iəŋ	ǽŋ	ieŋ	iēŋ	jəŋ	im ieŋ	im
通	1등	東	ung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冬	uonŋ	uonŋ	onŋ	uonŋ	onŋ	wonŋ	onŋ	uonŋ	uonŋ
	3등	東	jung	jŋ	iuŋ	ǽŋ	iuŋ	iuŋ	jŋ	iuŋ	iuŋ
		鍾	jwong	juonŋ	ionŋ	ǽwong	ionŋ	rwonŋ	jŋ	ionŋ	ionŋ
江	2등	江	âng	aŋ	âŋ	aŋ	aŋ	aŋ	aŋ	onŋ	ɣaŋ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眞言의 한글 표기법 연구

-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안 영 희

국 문 초 록

본고는 『五大眞言』(1485)를 대상으로 한글의 眞言 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의 특성상 한글 표기와 범자·한자가 함께 병기되어 있으며 진언 범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음절단위로 梵-韓-中 대응을 찾아 통계하였으며 한자의 음가는 중국에서 불경이 번역되던 7-8세기의 前期 中古漢語 시기 재구 음가를 참고하였다.

우선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기본 음절에서 범자 자음 ‘ś’, ‘y’의 구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 ‘이’가 대응하거나, 범자의 ‘e’ 모음에 한글 ‘예’가 대응하고 범자의 ‘ai’ 모음에는 ‘애, 익, 에’가 대응하며, 범자의 ‘u’와 ‘o’ 모음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는다.

복자음 음절에서는 복자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한글 표기법이 적용되는데, 우선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으’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범자 ‘kra’는 한글 표기 ‘ㄱ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2자음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표기를 사용한다. 즉 범자 ‘kya’는 한글 ‘갸’로 표기된다. 다음으로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을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범자 ‘ma-rga’는 한글 ‘말아’로 표기한다. 즉 한글 ‘-ㄹ’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r’과 대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류인 경우는 ‘ㅅ’계 합용병서의 표기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의 한글 표기는 ‘싸’이다.

다음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반영된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보겠다. 초성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자음 ‘ㄱ, ㄷ, ㅂ’는 진언 표기에서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비음의 ‘ㅇ, ㄴ, ㅁ’는 중국어 번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범어의 유성음과 대응하고 있지만, 당시 한국어 비음에 유성성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성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은 비록 대부분

‘아’로 대응하지만 기타 모음 ‘으, 어, 으’ 등도 대응한다. 그리고 한글 모음의 분류와 한자 운모의 등운과의 규칙성 대응의 경향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음성모음인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 양상이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에서 한국어의 종성자음이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성 자음의 ‘-ㄱ’는 한자 자모 來母 및 유사한 음가의 한자 성모와 대응한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범자 표기에 ‘ㅅ’계 합용병서 표기와 ‘-ㅅ’의 종성자음의 표기가 혼용한다.

주제어: 진언, 다라니, 실담자, 한글 표기법, 범한대응, 중고한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선행연구	2
1.3. 연구의 자료와 방법	4
제 2 장 진언 자료의 기초적 이해	7
2.1. 悉曇 梵字와 산스크리트	7
2.1.1. 悉曇章의 摩多와 모음체계	7
2.1.2. 悉曇章의 體文와 자음체계	11
2.1.3. 복자음의 유형과 음운현상	15
2.2. 범자 대응 단위의 고찰	20
2.2.1. 한글 텍스트의 절 경계	20
2.2.2. 범자 음절 단위의 분리	26
2.3.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	30
제 3 장 梵字 기본 음절의 한글 표기	41
3.1. 기본 開音節의 표기	41
3.1.1. ‘C+a’ 음절	41
3.1.1.1. 아음류	41
3.1.1.2. 설음류	45
3.1.1.3. 권설음류	48
3.1.1.4. 순음류	50
3.1.1.5. 치음류	52
3.1.1.6. 후음류 및 기타	56
3.1.2. ‘C+i’ 음절	58
3.1.3. ‘C+e’, ‘C+ai’ 음절	63

3.1.4. ‘C+u’, ‘C+o’, ‘C+au’ 음절	70
3.2. 기본 閉音節의 표기	78
3.2.1. ‘-m’류	78
3.2.1.1. [m]	78
3.2.1.2. [n]	80
3.2.1.3. [ŋ]	82
3.2.2. ‘-h’류	84
3.3. 기타 음절의 표기	86
3.3.1. 모음음절	86
3.3.2. 자음음절	87

제 4 장 梵字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 88

4.1. ‘C+제2자음’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88
4.1.1. 제2자음 ‘y’류	88
4.1.1.1. ‘a’ 모음	88
4.1.1.2. 기타 모음	91
4.1.2. 제2자음 ‘r’류, ‘l’류	93
4.1.2.1. ‘a’ 모음	93
4.1.2.2. 기타 모음	95
4.1.3. 제2자음 ‘v’류	98
4.1.3.1. ‘a’ 모음	98
4.1.3.2. 기타 모음	100
4.1.4. 제2자음 ‘m’류	101
4.1.5. 제2자음 ‘n’류	103
4.1.6. 제2자음 ‘-r’류	104
4.2. ‘제1자음+C’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106
4.2.1. 제1자음 ‘r’류	106
4.2.1.1. 표기 유형(1)	106
4.2.1.2. 표기 유형(2)	108

4.2.1.3. 표기 유형(3)	112
4.2.1.4. 표기 유형(4)	114
4.2.2. 제1자음 ‘N’류	116
4.2.2.1. 제1자음 ‘n’류(1)	116
4.2.2.2. 제1자음 ‘n’류(2)	120
4.2.2.3. 제1자음 ‘ŋ’류	124
4.2.2.4. 제1자음 ‘ɲ’류	126
4.2.2.5. 제1자음 ‘ɳ’류	128
4.2.3. 제1자음 ‘T’류	129
4.2.3.1. 표기 유형(1)	129
4.2.3.2. 표기 유형(2)	132
4.2.4 제1자음 ‘S’류	134
4.2.4.1. 제1자음 ‘s’류(1)	134
4.2.4.2. 제1자음 ‘s’류(2)	136
4.2.4.3. 제1자음 ‘ʃ’류(1)	139
4.2.4.4. 제1자음 ‘ʃ’류(2)	142
4.2.4.5. 제1자음 ‘ʒ’류	143
4.2.5. 제1자음 ‘k’류	145
4.2.5.1. 표기 유형(1)	144
4.2.5.2. 표기 유형(2)	146
4.2.6. 제1자음 ‘m’류	149
4.3. 복자음 閉音節의 표기	151
4.3.1. ‘-m’류	151
4.3.1.1. 표기 유형(1)	151
4.3.1.2. 표기 유형(2)	155
4.3.1.3. 표기 유형(3)	157
4.3.2. ‘-h’류	159
4.3.2.1. 표기 유형(1)	159
4.3.2.2. 표기 유형(2)	161

제 5 장 한글 진언 표기의 음운 특징	163
5.1. 한글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	163
5.1.1. 실담장의 한글 표기	163
5.1.2. 자음의 대응 비교	170
5.1.2.1. 초성 자음의 대응 비교	170
5.1.2.2. 종성 자음의 대응 비교	175
5.1.3. 모음의 대응 비교	178
5.2. 한글 음소 표기의 특징	181
5.2.1. 초성 표기	181
5.2.1.1. ‘ㄱ, ㄷ, ㅂ’	181
5.2.1.2. ‘ㅇ, ㄴ, ㄹ’	184
5.2.1.3. ‘병’	187
5.2.2. 중성 표기	190
5.2.2.1. ‘으, 으’	190
5.2.2.2. ‘아, 어’	191
5.2.2.3. ‘오, 우’	192
5.2.3. 종성 및 합용병서	196
5.2.3.1. ‘-ㄱ’와 ‘-ㄷ’	198
5.2.3.2. ‘-ㅅ’계 합용병서와 ‘-ㅈ’	203
제 6 장 결론	208
참고문헌	210
부록1.	214
부록2.	243
부록3.	248
부록4.	252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고는 1485년의 『五大眞言』(이하 ‘오대진언(1485)’이라 약칭)을 중심으로 眞言의 한글 표기 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眞言은 陀羅尼라고도 불리는데, 불경에서 呪文의 성격을 지닌다. 불경 번역은 일반적으로 意譯이 아니라 音譯으로 진행된다. 오대진언(1485)에는 범자, 한자, 한글 세 문자가 병기(併記)되어 있으며 한자는 梵-中 번역음을 표기하고, 한글은 梵-韓 번역음을 표기한다. 梵-韓 번역에는 梵-中 번역의 간섭과 영향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과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梵-韓-中의 대응 규칙을 찾아야 한다.

이에 앞서 진언의 범자와 한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부터 시작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진언 범자의 자형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실담 범자의 자형과 차이가 있다. 이에 한국의 진언 범자와 일본의 범자와의 정밀한 비교를 통하여 로마자로 전환된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오대진언(1485)에 쓰인 범자의 중국어 번역은, 7-8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자에 반영된 중국어의 음가는 前期 中古音이다. 그리고 비록 진언의 한글 표기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梵-韓 번역은 이미 이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므로, 진언의 한글 표기에 반영된 한국어의 음운 현상은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의 특징도 반영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진언 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음운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음에도, 진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진언 자료에 대한 기초적 정리 작업과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을 우선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몇몇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본고에서는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일부 대표적인 선행연구만 살펴볼 것이다.¹⁾ 기존 연구를 보면 진언 연구의 주요 논의는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법과 실담장의 표기 원칙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범어에서 한 음절에 여러 자음이 연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重字, 子音聯續, 자음군’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본고는 산스크리트 언어 연구 저서인 전순환(2012)를 따라서 ‘복자음’이라 부르겠다.

먼저 안주호(2003)을 보면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한글의 진언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重字’의 한글 표기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의 표기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즉 약모음 ‘·, |’를 넣어 음절로 표기하는 방법, 합용병서를 쓰는 방법, 앞 자의 성모와 뒷글자의 운모를 합하여 만드는 방법, 어두자음군 중 첫 자를 앞글자의 종성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이다. 이는 본고에서 고찰한 한글 진언 표기의 방법과 대체적으로 일치하지만, 극히 일부의 예만 제시하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본고는 오대진언(1485)에서 나타나는 모든 복자음 음절의 유형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글 진언의 표기 방법을 일일이 고찰하였다. 한편, 안주호(2003)에서는 한글 표기의 통계에 있어서 단순히 한글의 초성, 중성만을 중심으로 출현 횟수의 통계를 진행하였는데 본고는 梵-韓-中 음소 단위의 대응규칙을 찾아서 통계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伊藤智ゆき(2007)은 실담장의 한글 표기의 판본별 비교와 오대진언(1485) 등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를 모두 망라하여 고찰하였으며 또 당시 중세한국어의 현실한자음과의 비교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같이 방대한 자료들을 망라하여 다룬 것에 비하여 세부적인 진언 표기에 대한 분석과 검토는 미약하다. 특히 범자의 ‘子音聯續’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 당시 한국의 편찬자들이 청각적으로 범자 자음의 공명도와 관련하여 음성학적인 인지를 통해 선택된 표기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즈노 순페이(2011:135)에서는 15세기로부터 19세기까지의 진언 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사이 일어난 음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 자음

1) 기타 관련 선행연구들은 미즈노 순페이(2011:133-134)를 참고할 수 있다.

군의 음사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음성학적인 관점의 접근 방식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즈노 슌페이(2011)은 오대진언(1485)의 일부 다라니를 선정하여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실담장의 표기 원칙은 梵-韓-中의 대응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한글 표기의 고찰은 梵-韓 대응만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한편, 범자 ‘자음군’의 한글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자 표기 방법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대응 분석으로 진행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실제 한글 표기의 고찰에 있어, 한자가 반영하는 당시 고대 중국어의 음가와 함께 梵-韓-中 대응으로 규칙성을 찾아서 실담장의 표기 원칙과 비교하였으며,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 고찰에서는 한자 표기와 비교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히 한글 표기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연구의 자료와 방법

본고는 오대진언(1485)의 원간본을 참고자료로 하였다. 오대진언(1485) 원간본은 월정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793-5’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에서 발굴된 것으로 1984년에 국가 보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유산’에서 이미지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상원사본 오대진언(1485)라 부르기도 한다.

오대진언(1485)는 조선시대 學祖²⁾가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오대진언(1485)는 여러 개의 진언을 모아서 만든 일종의 眞言集 자료이다. 수록 된 다라니를 보면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陀羅尼”,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隨求即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 등 6개의 다라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四十二手眞言”은 手印眞言으로 후행하는 “神妙章句大陀羅尼”와 하나의 다라니로 묶을 수 있다.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는 모두 大悲心陀羅尼의 종류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다라니이다(남경란 1999 참고).³⁾ 본고는 “四十二手眞言”과 “神妙章句大陀羅尼”를 하나로 묶고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를 서로 다른 다라니로 분리하여 총 다섯 다라니로 하여 이들을 ‘신묘장구대다라니’, ‘근본다라니’, ‘수구즉득다라니’, ‘대불정다라니’, ‘불정존승다라니’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순서별로 로마자 대문자 ‘S, G, Q, D, F’으로 표기하였다.

오대진언(1485)의 진언 기록 문자는 梵字, 漢字, 한글의 세 문자로 되어

-
- 2) 學祖(?-?)는 본관이 安東이고 속성은 김씨이며 호는 燈谷, 黃岳山人이다. 아버지는 金係權이다. 信眉, 學悅등과 함께 선종의 승려로서 세조시기 많은 불경을 번역, 간행하였다. 그는 1464년(세조 10) 속리산 福泉寺에서 신미, 학열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고, 1467년 왕명으로 금강산 楡岾寺를 중창하였으며, 1488년(성종 19) 仁粹大妃의 명으로 海印寺 중수 및 대정경판당을 중창하였고, 1500년(연산군 6) 왕비의 명으로 해인사의 대장경 3부를 刊印하고 그 발문을 지었으며, 1520년(중종 15) 왕명으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 1부를 간인하였다. 그리고 그에 의해 번역, 교정되어 완성된 불전으로 『地藏經諺解』, 『金剛經三家解諺解』, 『千手經』, 『證道歌南明繼頌』, 『六祖法寶壇經諺解』, 『眞言勸供·三壇施食文諺解』, 『五大眞言』 등 다수가 있다.
- 3) 오대진언(1485)의 뒷부분에는 진언의 영험을 담은 글인 ‘靈驗略抄’가 합철되어 있는데 판심제가 ‘五大’로 되어 있다. ‘영험약초’에는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를 하나의 ‘대비심다라니’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다.

있다. 그 중 漢字의 중국어 번역은 다라니 S, G, Q, D에서는 모두 ‘大廣智三藏沙門 不空譯’⁴⁾이라 제시되어 있고, F만이 ‘闍賓國三藏沙門 佛陀波利譯’⁵⁾이라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한자 번역은 오대진언(1485)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다. 그리고 범자는 일본의 실담 범자와 비교하여 로마자로 전환하였으며 한자 표기 번역과 한글 표기 번역과 함께 부록1에 정리되어 있다. 실제 문헌에는 한글 번역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부록에서 거성의 방점을 숫자 ‘1’, 상성의 방점은 숫자 ‘2’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한글 초성, 중성, 종성의 표기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방점 표기는 잠시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오대진언(1485)에 반영된 언어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부록2에서는 다라니 S를 예로 들어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의 텍스트를 로마자로 전환하여 범자 텍스트와 비교하여 보았다. 범자 텍스트는 오대진언(1485) 및 기타 진언 자료인 <진언집>의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 실린 같은 다라니의 범자 텍스트도 함께 제시하였다. 산스크리트 원문 텍스트는 전순환(2005)를 참고하였다. 오대진언(1485)의 범자 텍스트는 비록 원문과 비교하여 일부 차이가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하여 텍스트의 언어는 산스크리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대진언(1485),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는 비록 판본별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범자 텍스트에 나타나는 차이는 매우 적다. 즉 한국 내부에서의 범자 텍스트의 전승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제2장에서는 우선 범자 즉 문자를 단위로 음절구조적인 분석을 하여 ‘범자의 음절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의 대응 예들을 찾아 음절 단위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4) 不空(705년-774년)은 師子國(오늘의 스리랑카) 사람이다. 唐나라의 密宗祖師 중의 한 사람으로 중국에서 善無畏, 金剛智와 함께 ‘開元三大士’ 불린다. 그리고 鳩摩羅什, 玄奘, 眞諦와 함께 중국 불교계의 4대 譯經家로 불리기도 한다. 10세부터 중국에서 생활하였고 15세부터 금강지를 따랐으며 그 후 중국과 天竺 등의 지역을 왕복하면서 많은 梵本 불경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 그는 평생 거의 110여부 등 다수의 밀교경전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5) 佛陀波利(?-?)는 闍賓國(오늘의 카슈미르 지역) 출신의, 唐高宗 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승려이다. 676년에 중국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에 계빈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그가 번역한 불경으로는 주로 『佛頂尊勝陀羅尼經』, 『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있다.

음절 유형에 따라 제3장에서는 기본 음절의 표기를, 제4장에서는 복자음 음절의 표기를 고찰하였는데 기본 음절의 고찰은 음가 대응 규칙을 찾는 데 중심을 두었고 복자음 음절의 고찰은 한글의 표기 방법을 고찰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오대진언(1485) 실제 한글 표기와 실답자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일부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찾아보았다.

제 2 장 진언 자료의 기초적 이해

본 장에서는 진언 자료의 기초적인 이해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범자의 자형과 산스크리트의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다음 텍스트의 경계 단위와 범-한-중 대응 예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1. 悉曇 梵字와 산스크리트

2.1.1. 悉曇章의 摩多와 모음체계

悉曇字는 梵字의 일종이며 7세기에서 13세기까지 북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던 문자이다.⁶⁾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온 많은 불전들이 싘담자로 기록되어 있다(전순환 2012:43). ‘悉曇’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 siddham의 한자 음사어이며 이는 ‘완성된’ 또는 ‘완벽한’ 등의 의미를 지닌 siddha와 ‘문자’를 의미하는 mātṛkā의 합성어이다(김현덕 2016:158-159). 하지만 오늘의 중국에서는 싘담자의 문헌자료를 찾기 힘들다. 일본의 구법승 空海(774-835)가 唐나라로부터 밀교와 함께 싘담자료를 일본으로 가져왔으며 싘담 연구는 일본에서 점차 悉曇學을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왔다.

悉曇學의 발전에 悉曇章 연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悉曇章이란 渡邊英明(1983:89)에서는 “싘담범어의 字母와 字體를 배열하고, 字를 만들

6) 현재 인도의 북부와 남부에서 사용되는 100여개 이상의 문자들의 모체는 브라흐미(Brahmī) 문자이다. 브라흐미 문자는 형태 변화에 따라 인도의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게 되는데 북부에서 4세기 즈음 나타나기 시작한 굽타 문자는 산스크리트를 위해 사용되었고 굽타 문자에서 몇 개의 변이형이 발전되는데 그 가운데 悉曇 문자가 있다. 또 다른 변이형으로 나가리(Nāgarī) 문자가 있으며 나가리 문자는 8세기 무렵부터 사용되었고 원래는 산스크리트를 쓰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벵골어, 네팔어, 티베트어와 같은 많은 언어들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deva- ‘신; god’라는 단어가 붙여진 ‘데바나가리(Deva-Nāgarī)’가 ‘나가리’보다 더 대중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전순환 2012:39-45).

어 내는 결합 방법 등을 기록한 하나의 형식적·조직전인 音韻書”라고 하였고, 周廣榮(2004:6)에서는 “범어를 배우는 가장 초급의 교재를 말하는 것으로, 주요 범문자모와 아울러 이들이 병합하고 連聲하는 등의 기본적인 語音과 어법을 알게 해주는 것을 실담장”라 한다고 하였다(강대현 2014: 14-15 재인용). 일본에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오거나 일본에서 자체로 만든 다양한 실담장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 唐나라 智廣(760?-830?)의 《悉曇字記》, 安然(841-?)의 《悉曇藏》(880) 등이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馬淵和夫(2006), 강대현(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범자로 기록된 제일 이른 시기의 진언은 葛項寺의 목서 다라니인 准提眞言(758)이고, 한자로 기록된 것은 이보다 좀 더 이른 시기의 佛國寺 釋迦塔에서 나온 無垢淨光大陀羅尼(701-751)이다(남권희 2005).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범자 혹은 한자 기록의 진언이 늦어도 8세기 중엽에는 이미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悉曇章도 있는데 『고려대장경』의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에 不空의 실담장 50字門이 실려 있으며 범자와 한자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다(안주호 2002:177-178).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서명이 『眞言集』인 책에 ‘梵本五十字母悉曇章’이 실려 있으며 이 책 이후로는 범자, 한자, 한글이 모두 표기된다.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범자 자료의 자형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유통되는 범자 자형과 비교하여 보면 일부 차이들이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범자 역시 실담 범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 본고가 고찰할 오대진언(1485)에는 실담장이 실려 있지 않다.

현재 『眞言集』은 여러 판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이 있다.⁷⁾ 이 중 망월사본(1800)이 간행 배경과 보존 상태로 보아 한국의 범자 자형을 이해하는 데 제일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7) 18세기의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은 중간본이다. 망월사본(1800)의 범례와 실담장은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중간본의 실담장은 앞서 기존의 실담장 범자의 오류를 교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심사본(1569)에서 한자 ‘佉’와 대응하는 범자와 ‘識’ 대응 범자가 뒤바뀌었는데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서 정확하게 되돌려 놓았다.



안심사본(1569)















망월사본(1800)

진언집 실담장에서 큰 글씨로 제시된 범자가 있는데, 이를 아래 [표1]에서 ‘大字’라 하였다. 이외에 한자 표기의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시된 여러 개의 범자도 있다. 大字로 제시된 범자의 형태는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서예적인 성격이 강하며 실제로 진언의 본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 진언 범자로 나타나는 자형은 한자 표기 아래에 제시된 작은 글씨의 범자들인데 이들은 범자가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이체 형태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실담장 끝부분에 또 다시 보다 작은 글씨 범자의 제시가 있는데 이는 大字의 원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小字’라 할 것이다. 아래 범자의 이체 형태까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므로 본 장에서는 大字와 小字의 제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필요 시 이체 형태의 범자도 언급할 것이다.

아래의 [표1]에서는, 한국 범자 자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일본에서 유통하는 범자 자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일본의 실담자 자형의 이미지는 馬淵和夫(2006:2-11)을 참고하였다. 먼저 범자 摩多의 자형과 범어의 모음체계에 대해 보겠다.

[표1] 진언집 悉曇章 摩多의 자형 및 문자전환

제1면 左				제1면 右			
전환	일본	大字	小字 ⁸⁾	전환	일본	大字	小字
a			* 	u			* 
ā			* 	ū			* 
i				e			
ī				ai			
제2면 左				제2면 (助音) 右			
전환	일본	大字	小字	전환	일본	大字	小字
o			* 	r(ri)			
au			* 	ṛ(rī)			

am			* 	l(li)			
ah			* 	l̄(lī)			










위 도표에서 ‘전환’은 로마자로의 전환을 말한다. 범자 마다는 한글의 중성과 같은 것으로 제1면과 제2면의 좌와 우로 모두 4개의 면에 16개 범자 摩多가 제시되어 있다. 小字에 ‘*’으로 제시된 것이 있는데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는 이체 형태의 범자를 제시한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의 小字는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는 범자 자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앞 3개의 면에 제시된 12개 범자 마다를 通摩多라 부르고 마지막 면의 범자 마다를 別摩多라 부른다.

먼저 별마다부터 보면 ‘r, ṛ, l, ḷ’을 전순환(2012:51-52)에서는 ‘소난트(Sonant)’라 부른다. 소난트란 r, l, m, n 등의 유음(Liquid) 또는 비음(Nasal)의 레소난트(Resonant) 자음들이 특정 환경에서 즉 자음 사이에 놓이게 될 때 모음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된 모음들을 말한다. 4개의 소난트 중 ‘ṛ’은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며 고전적 문자 전환에서는 ‘ri, rī, li’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의 도표에서 진언집의 실담 범자를 보면 고전적 문자 전환과 같이 ‘ri, rī, li, lī’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면의 ‘am, ah’ 두 범자가 있는데 이는 문자라기보다 문자적 기호에 가깝다. 즉 ‘am’는 범자 ‘a’의 꼭대기에 ‘ˆ’의 점을 찍고 있으며 ‘ah’는 범자 ‘a’의 오른쪽에 ‘˙’의 두 점을 찍고 있다. 전자를 ‘아누스와라’, 후자를 ‘위사르가’라 부른다(전순환 2012:56).

기타 남은 마다로는 ‘a, ā, i, ī, u, ū, e, ai, o, au’ 10개가 있다.⁹⁾ ‘a:ā’,

8) 실제로 小字 즉 大字의 원형 제시에서 ‘a ’, ‘ā ’, ‘u ’, ‘ū ’, ‘o ’, ‘au ’로 되어 있다. ‘ah’와 ‘am’ 또한 ‘a ’에 문자적 기호와 함께 각각 , 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小字들은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이고 小字의 기타 이형태 표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들을 찾을 수 있다. 도표에서 ‘*’ 기호가 표기된 범자는 이형태 범자로 교체된 것들이다.

9) 진언집 범자의 大字 자형을 보면 대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크다. 하지만 小字들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일본의 실담 범자와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au’

‘i:ī’, ‘u:ū’, ‘e:ai’, ‘o:au’는 短音과 長音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중 ‘a:a’, ‘i:ī’, ‘u:ū’는 單母音이고, ‘e:ai’, ‘o:au’는 二重母音이다. 하지만 ‘e, o’는 ‘ai, au’와의 장단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실제 음성적으로는 ‘e, o’는 장음에 속하며 이중모음으로 인지된다.

위의 로마자 전환은 단순 문자 전환이므로 실제 범어의 음가를 참고하면 아래와 같다. (문자적 기호의 아누스와라 ‘m’와 위사르가 ‘h’는 제외하였다.)

[표2] 산스크리트 모음체계 음가 (전순환 2012:52)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일모음	문자변환 음가	a [e], [ə]	ā [a:]	i [i]	ī [i:]	u [u]	ū [u:]
소난트	문자변환 음가	r [ɾ]	ṛ [ɾ:]	l [l]	ḷ [l:]		
이중모음	문자변환 음가	e [e:]	ai [a:i]	o [o:]	au [a:ɔ]		

위의 음가를 보면 ‘a’의 음가는 실제로 [e], [ə]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순환(2012:53)에서는 사실 ‘a’의 음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음성학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 두 음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위의 범자 장단음의 한글 진언 표기에 대한 고찰을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본고의 ‘a’ 모음은 ‘a, ā’ 모음을 포함하고, ‘i’ 모음은 ‘i, ī’ 모음을 포함하며, ‘u’ 모음은 ‘u, ū’ 모음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중모음의 ‘e’와 ‘ai’, ‘o’와 ‘au’는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은 각각의 모음으로 제시할 것이다.

2.1.2. 悉曇章의 體文과 자음체계

다음은 이어서 실답장 제3면부터 제6면까지의 범자 體文에 대해 보겠다.

에서 가 좀 특이한데 이는 진언집 범자의 大字 의 머리 부분의 형태를 따르고 있음이 보인다. 이외 기타 小字 범자들은 일본의 범자와 거의 일치한다.

[표3] 진언집 悉曇章 體文의 자형 및 문자 전환

제3면 牙音 (左)				제3면 齒音 (右)			
범어	일본	大字	小字	범어	일본	大字	小字
ka				ca			
kha				cha			
ga				ja			
gha				jha			
ṇa				ṇa			
제4면 舌音 (左)				제4면 喉音 (右)			
범어	일본	大字	小字	범어	일본	大字	小字
ṭa				ta			
ṭha				tha			
ḍa				da			
ḍha				dha			
ṇa				n			
제5면 唇音 (左)				제5면 超音亦云和會聲 (右)			
범어	일본	大字	小字	범어	일본	大字	小字
pa				ya			
pha				ra			
ba				la			
bha				va			
ma				śa			
제6면 超音亦云和會聲							
범어	일본	大字	小字				
ṣa							
sa							

ha				
kṣa				

범자 體文은 한글의 초성과 같은 것이다. 제3면부터 제5면까지 각각 좌와 우 두 개의 열로 범자가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제6면은 한 개 열의 범자가 있다. 제3면의 좌측 열부터 순서별 각각 ‘牙音’의 ‘ka, kha, ga, gha, ṇa’, ‘齒音’의 ‘ca, cha, ja, jha, ṇa’, ‘舌音’의 ‘ṭa, ṭha, ḍa, ḍha, ṇa’, ‘喉音’의 ‘ta, tha, da, dha, na’, ‘脣音’의 ‘pa, pha, ba, bha, ma’, ‘超音’의 ‘ya, ra, la, va, śa, ṣa, sa, ha, kṣa’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범자는 단순히 자음만을 위한 표기가 아닌 ‘a’ 모음의 음절 표기이다. 이들을 대체적으로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牙音’은 연구개음, ‘齒音’은 경구개음, ‘脣音’은 순음이다. 하지만 ‘舌音’은 사실 권설음이고, ‘喉音’이 치조음이며 이외 ‘超音’은 기타 유음, 마찰음, 반자음등을 모은 것들이다. ‘超音’에서 맨 마지막 범자 ‘kṣa’는 기타 범자의 單子音 음절 성격과 달리 2개의 자음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복자음 음절이라 할 것이다.

실제 범자 체문의 산스크리트 자음 음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4] 산스크리트 자음체계 음가 (전순환 2012:55)

		파열음				비음
		무성음		유성음		
		무기음	유기음	무기음	유기음	무기음
연구개음	문자변환 음가	ka [ka]	kha [kha]	ga [ga]	gha [gha]	ṇa [ṇa]
경구개음	문자변환 음가	ca [t̪a]	cha [t̪ha]	ja [d̪a]	jha [d̪ha]	ṇa [ṇa]
반설음	문자변환 음가	ṭa [t̪a]	ṭha [t̪ha]	ḍa [d̪a]	ḍha [d̪ha]	ṇa [ṇa]
치조음	문자변환 음가	ta [ta]	tha [tha]	da [da]	dha [dha]	na [na]
순음	문자변환 음가	pa [pa]	pha [pha]	ba [ba]	bha [bha]	ma [ma]

		유성음			
		경구개음	치조음	치조음	순치음
접근음	문자변환 음가	ya [ja]	ra [ra]	la [la]	va [va], [va]
		무성음			유성음
		경구개음	권설음	치조음	성문음
마찰음	문자변환 음가	śa [ça]	ṣa [ṣa]	sa [sa]	ha [fa]

산스크리트 자음체계의 제일 큰 특징은 파열음은 조음방법에 따라 무성음과 유성음, 그리고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눌 수 있어 무성무기음, 무성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ya’의 음가는 [ja]이고, ‘va’는 실제로 [va], [va] 두 가지 음으로 발음이 가능하며 ‘ha’는 유성후두마찰음의 [fa]으로 발음이 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글의 진언 표기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어의 전통적인 조음위치의 분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1) 아음: ka kha ga gha ṇa
- 2) 설음: ta tha da dha na
- 3) 권설음: ṭa ṭha ḍa ḍha ṇa
- 4) 순음: pa pha ba bha ma va
- 5) 치음: ca cha ja jha ṇa śa ṣa sa
- 6) 기타: ya ha ra la

위의 분류에서 ‘설음’은 치조음이고 ‘권설음’은 치조권설음으로 실담장의 명칭과 다르다. 다음 훈민정음의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에 따라 ‘치음’을 다섯 번째 순서로 옮겼다. 그리고 마찰음들을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즉 ‘va’는 순음으로, ‘śa, ṣa, sa’를 치음으로 하였다. 기타 남은 후음과 유음들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위와 같이 실담장에서 제시된 單子音의 體文과 12개의 通摩多가 결합되는 범자를 하나의 음절로 보고 이를 ‘기본 음절’이라 부를 것이다. 12개 통마다 중 ‘a(ā), i(i), u(ū), e, ai, o, au’ 모음과 결합한 것은 ‘기본 開音節’, 남은 ‘-m, -h’가 결합한 것은 ‘기본 閉音節’로 분류한다.

단순히 마다로만 음절을 형성하는 경우 이들을 ‘모음 음절’이라 부르고, 실담장 맨 마지막 體文에 제시되었던 ‘kṣa’와 소난타 ‘ṛ’ 결합의 음절들은 복자음 음절로 분류하여 볼 것이다.

이외 비록 실담장에서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진언 범자에서 아누스와라와 위사르가와 같이 문자적 기호의 범자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 ‘𑖅’, ‘𑖆’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ta’, ‘tha’의 범자에 ‘𑖅’ 혹은 유사한 문자적 기호를 가하여 고유의 ‘a’ 모음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라마’로 부른다고 한다(전순환 2012:56). 본고는 ‘ṭ, ṭh’ 등을 ‘자음 음절’이라 부를 것이다.

2.1.3 복자음의 유형과 음운현상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복자음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없다. 하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 매우 다양한 복자음 유형들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전해 온 실담장에서는 복자음 분류의 논의가 있는데 편찬자들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 본고는 흔히 알려진 비교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18章 체제¹⁰⁾의 실담장을 통해 복자음의 분류를 알아 볼 것이다.

18章 체제의 구성을 보면 제1장은 대체적으로 기본 음절의 범자가 소개되어 있고 제2장부터 복자음이 시작된다. 기본 음절의 單子音を ‘C’라 하고 모음을 ‘V’라고 하면 제1장 기본 음절의 구조는 ‘CV’이다. 제2장부터 제7장의 복자음 음절은 순차적으로 ‘CyV’, ‘CrV’, ‘CIV’, ‘CvV’, ‘CmV’, ‘CnV’의 구조를 갖는다. 이들의 차이는 ‘C’ 다음의 제2자음에 있다. 제8장부터 제14장까지는 앞서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모든 음절 앞에 음절 ‘r’를 추가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rCV’, ‘rCyV’, ‘rCrV’, ‘rCIV’, ‘rCvV’, ‘rCmV’, ‘rCnV’이다. ‘r’를 제1자음이라고 하면 제15장은 ‘r’ 대신 치조비음과 결합하고, 제16장은 소난타의 자음 결합의 음절로 ‘Cr’ 등이고, 제17장은 규칙을 찾기 힘

10) 일본에는 12章 체제, 13章 체제, 14章 체제 등 다양한 체제의 실담장이 남아 있다(강대현 2014 참고). 제1장 기본 음절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제2장부터의 복자음의 유형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편찬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후에 18章 체제의 실담장이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는 唐나라 智廣(760?-830?)이 만든 『悉曇字記』에서 비롯된 것이다.

들다는 의미로 ‘難覺章’이라 부르는데 제1자음이 ‘s’인 복자음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제18장은 孤合章이라 부르며 분류가 어려운 특이한 복자음들을 따로 모아놓았다.

위의 복자음에서 제1자음이 ‘r’인 음절에서 ‘r’은 기타 자음과 달리 사실은 두 음절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가리 범자에서 후행 음절에 문자적 기호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karma’에서 ‘kar#ma’의 음절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전순환 2012:65 참고). 실담 문자에서도 ‘r’은 ᳚(rma), ᳚(rya), ᳚(rśa)’ 등과 같이 일반 범자의 머리 위에 ‘᳚’과 같은 기호적인 표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는 범자 즉 문자적 단위의 음절 구조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후행음절의 제1자음인 복자음 음절로 간주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예를 들어 ‘karma’를 문자가 반영하는 그대로 ‘ka-rma’의 2음절로 볼 것이다.

사실 위의 18장 체제의 실담장의 복자음 분류는 실제 진언 범자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제1자음이 ‘r’인 복자음이 제8장에서 제14장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 진언 텍스트의 범자 유형에서 제9장부터 제14장의 복자음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범자 음절 예를 들어 ‘ddha, nna’ 등은 難覺章, 孤合章에 들어가거나 혹은 없기도 한다. 즉 실담장의 분류는 비경제성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한글 표기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는 복자음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정리할 것이다.

유형1: <C+제2자음>

- (1) 제2자음 ‘y’류: kya, hye, dya, dhya, sya, śya, vya
- (2) 제2자음 ‘r’류: kra, ghra, tra, tri, trai, dre, pra, jra, jre
- (3) 제2자음 ‘l’류: hlā
- (3) 제2자음 ‘v’류: tva, tve, nva, jva, dve, sva, śva, hva
- (4) 제2자음 ‘m’류: tma, dma, nma, sma, hma, dmi, śmi
- (5) 제2자음 ‘n’류: gna, ghna, tna, gni
- (6) 제2자음 ‘-r’류: kṛ, gr, ṭṛ, ḍṛ, dhṛ, pṛ, mṛ, jṛ, hṛ

유형2: <제1자음+C>

- (1) 제1자음 ‘r’류: rya, rtha, ryaḥ, rta, rbhe, rga, rma, rte, rśa
- (2) 제1자음 ‘N’류: (n-) nta, nti, ndi, nni (ṇ-) ṇṭa, ṇṭha, ṇḍi (ñ-) ñca, ñja
- (3) 제1자음 ‘T’류: (t-) tta (d-) ddhya, ddha, ddhe
- (4) 제1자음 ‘S’류: (s-) sta, ska, spha (ś-) śṇa, śṇi, śṭa, śṭhi (ś-) śpai
- (5) 제1자음 ‘k’류: kṣa, kku, kga, kta, kdha
- (6) 제1자음 ‘m’류: mbha

유형3: 복자음 폐음절 및 기타

- (1) ‘-m’류: tyaṁ, ghraṁ, dhvaṁ, rmaṁ, ṇdaṁ, śṭaṁ
- 2)) ‘-ḥ’류: bhyaḥ, svaḥ, ryaḥ, paḥ, naḥ. koḥ

위의 분류는 본고에서 범자의 문자 단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산스크리트의 음운변화는 문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문자와 음운의 차이가 보일 때도 있다. 본고 고찰 자료에서 반영되는 일부 음운현상에 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전순환 2012:149-150, 212-218의 내용을 참고).

먼저 아누스와라 ṁ의 산디현상을 보겠다. 산디는 산스크리트의 음운변화 현상을 말한다. 어말의 -m은 자음 앞에서 아누스와라로 변하는데 이의 발음은 따라오는 자음의 조음과 동일하다. 하지만 문장 휴지나 끝에 올 경우 바뀌지 않고 m 그대로 쓰인다. 후행 자음에 의한 발음의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변화전	환경		변화후	발음	환경
m +	k/kh/g/gh/ṇ	→	ṁ	[ŋ]	k/kh/g/gh
m +	c/ch/j/jh/ñ	→	ṁ	[ɲ]	c/ch/j/jh
m +	t/ṭh/d/ḍh/ṇ	→	ṁ	[ɳ]	t/ṭh/d/ḍh
m +	t/ṭh/d/ḍh/n	→	ṁ	[n]	t/ṭh/d/ḍh
m +	p/ph/b/bh/m	→	ṁ/n	[m]	p/ph/b/bh
m +	y/l/r/v, ś/ś/s, h	→	ṁ	[ŋ]	y/l/r/v, ś/ś/s, h

어말의 -m이 모든 자음 앞에서 아누스와라로 변하는 이 현상은 산디에서 매우 높은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범자는 발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모두 아누스와라 ṁ의 문자 기호 표기로 반영된다.

다음으로 어근의 형태변화에 대해 보겠다. 산스크리트 어근의 모습은 고

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교체(Ablaut)에 따라 음량(Sound Quantity)이 줄어드는 감소단계(Reduction Grade), 고유의 음량이 유지되는 표준단계(Normal Grade), 음량이 늘어나는 증가단계(Lengthened Grade) 등 이론적으로 세 단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감소단의 형태를 약형태(Weak Form), 표준단계와 증가단계를 강형태(Strong Form)라 한다. 이들의 모교체 현상은 단일모음의 교체, 이중모음의 교체, 유음(모음)의 교체, 비음의 교체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범위에 제한하여 이중모음의 교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겠다.

모음 앞/자음 앞	모음 앞/자음 앞	모음 앞/자음 앞
y/i (<i)	ay/e (<ay)	āy/ai (<aay)
v/u (<u)	av/o (<av)	āv/au (<aav)
감소단계	표준단계	증가단계

즉 이론적으로 ‘ay’의 음량이 줄어들면 ‘i’의 감소단계가 되고, ‘a’가 추가되면 증가단계의 ‘aay’가 되는데 모음 앞에서의 형태는 ‘y<ay<āy’이고, 자음 앞에서 형태는 ‘i<e<ai’가 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원순모음을 보면 이론적으로 ‘u<av<aav’이지만 형태는 모음 앞에서 ‘v<av<āv’이고, 자음 앞에서 ‘u<o<au’이다. (이 부분은 필자의 이해에 따른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어근의 형태를 예로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주로 자음 앞의 예를 중심으로 보겠다.

[표5] 모음교체에 의한 어근의 형태변화의 예

	어근의 형태변화			MONIER 표제어
	감소단계	표준단계	증가단계	
1)	cit	cet	cait	cit
2)	diś	deś	daiś	diś
3)	bhikṣ	bhekṣ	bhaikṣ	bhikṣ
4)	mith	meth	maith	mith
5)	vid	ved	vaid	vid
6)	budh	bodh	baudh	budh
7)	mud	mod	maud	mud
8)	rudh	rodh	raudh	rudh
9)	luk	lok	lauka	lok
10)	śru	śro	śrau	śru

위 도표에서 1)-5)번은 자음 앞에서 'i<e<ai'의 형태변화의 예이고, 6)번-10번은 자음 앞에서 'u<o<au'의 형태변화의 예이다. 음영을 한 부분은 세 단계의 형태에서 표제어로 사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어근의 표제어는 기본적으로 감소단계로 되어 있는데, 감소단계가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면 표준단계, 이 단계도 존재하지 않으면 증가단계로 설정된다.

2.2. 범자 대응 단위의 고찰

2.2.1. 한글 텍스트의 절 경계

먼저 오대진언(1485)의 원본 이미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예로 보겠다.

[그림1]

오대(1485) 24b										오대(1485) 25a									
	9	8	7	6	5	4	3	2	1		9	8	7	6	5	4	3	2	1
1	摩	賀	迦	嚩	野	嚩	嚩	嚩	嚩	1	麼	訶	嚩	野	嚩	嚩	嚩	嚩	嚩
2	賀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2	訶	嚩	嚩	野	嚩	嚩	嚩	嚩	嚩
3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3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4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4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5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5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6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6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7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7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8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8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9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9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0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0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1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1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2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2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3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3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4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14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嚩

위의 [그림1]을 보면 오대진언(1485)는 1면에 6행, 매 행에 14자 혹은 15자로 되어 있으며 문자는 ‘梵字→한글→漢字’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먼저 한자 텍스트를 보면 일부 작은 글씨로 ‘一, 二, 三, ...’의 숫자 표기를 볼 수 있다. 하나의 숫자는 하나의 句가 끊기는 단위를 말한다. 매 10개구가 끝나는 곳에 ‘十, 二十, 三十, ...’의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11구, 제12구, 제13구 등은 ‘十一, 十二, 十三, ...’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一, 二, 三, ...’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제20구에는 ‘二十’이라 하고 제21구부터 다시 ‘一, 二, 三, ...’으로 표기한다. 백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제100구, 제200구, 제300구에 ‘一百, 二百, 三百, ...’이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一, 二, 三,

...’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의 숫자 표기는 생략한다. 예를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총 79句로 되어 있는데 제78句까지 숫자 표기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의 제79句에는 숫자 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최대한 간략한 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부록1에서 범자 텍스트에 ‘(1), (2), (3)...(11), (12), (13), ..., (101), (102), (103), ...’의 표기가 있는데 이는 한자 텍스트가 끊기는 부분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글 텍스트를 보면 속이 비어있는 圈點 ‘ㅇ’가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자의 句 단위가 끊어지는 부분과 대응하는 곳에 권점이 찍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자의 구 단위보다 좀 더 작은 단위로 또 다른 권점들이 찍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자의 구 단위와 대응하는 권점은 한글의 아래 중앙에 찍혀 있고, 작은 단위의 끊기에는 한글 아래에서 오른쪽 편에 찍혀져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1에서 제1구가 끊어지는 부분에 한글의 권점이 ‘양’과 같이 아래 중앙에 찍혀 있고 그 아래 작은 단위의 권점은 ‘막, 양’과 같이 한글 아래 오른쪽에 찍혀 있다.

기타 진언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가 있는데 망월사본(1800)에서는 한자의 구 단위와 대응하는 부분에는 권점 ‘ㅇ’으로 표기하고 작은 단위의 끊기는 ‘△’의 표기가 있다. 같은 문구의 다라니를 예로 아래와 같이 오대진언(1485)와 망월사본(1800)으로 비교하여 보겠다.

[그림2]

오대진언(1485)	망월사본(1800)

위의 그림에서 오대진언(1485)는 ‘나모라.드나.드라야야’와 ‘마하가로니

가야.’로 표기하고 있지만 망월사본(1800)은 ‘나모라△드나△드라야야.’와 ‘마하△가로니가야.’로 표기되어 있다. 오대진언(1485) 권점 표기가 18세기 망월사본에 이르기까지 비록 표기 방법은 다르지만 경계 단위는 매우 엄격히 전승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한자의 구가 끊어 지는 부분의 경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작은 단위의 경계의 실체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다.

작은 단위의 경계 표기를 안주호(2003) 등에서는 ‘절 경계’라고 불렀다. 안주호(2003:76)에서는 절 경계에 대해, 이미 한역에서부터 절 경계가 잘못 규정된 경우도 있으며, 한자로 음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음사하는 과정에서 진언이 길 경우 독자적으로 해독하여 우리말에 가까운 독법으로 경계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우리 고유 음을 3,4 내지 7,5를 즐기는 탓’이라 하였다. 하지만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한글의 권점 표기는 한자 句 단위의 경계는 우선 매우 철저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절 경계는 한자의 구 단위보다 더 작은 하위분류의 단위일 것이다. 본고는 산스크리트 형태 분석 단위를 통하여 절 경계 단위를 알아 볼 것이다.

아래 다라니 S(‘신묘장구대다라니’)의 한자 구 단위의 제1구, 제2구, 제3구를 예로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겠다. 이에 대응하는 부분의 범어 원문에 각각 (1), (2), (3)으로 표기하였다.

[표6] 산스크리트 형태분석 단위의 경계

제1구	ㄱ)namo ratnatrayāya(1) ㄴ)nam-as ratna=traya-aya ㄷ)namo ratna trayāya
제2구	ㄱ)nama āryāvalokiteśvarāya(2) ㄴ)namas ārya=avalokita=īśvara-aya ㄷ)nama āryā valokite śvarāya
제3구	ㄱ)bodhisattvāya mahāsattvāya(3) ㄴ)bodhi=sattva-aya mahā=sattva-aya ㄷ)bodhi sattvāya mahā sattvāya

위 도표의 원문에서 제1구의 ㄱ)를 보면 ‘namo’와 ‘ratnatrayāya’의 두 개의 단위로 끊어지는데 이를 ‘단어뭉치’라 부른다.¹¹⁾ 한자의 구 단위를 보

면 흔히 2개 정도의 단어덩치 크기로 끊어짐을 볼 수 있다. ㄴ)은 원문의 형태소 분석과 음운변화 환경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들을 풀어서보면 설명하고 번역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¹²⁾

[제1구]

1. nam-as ⇒ namo

[어근] nam-: “(목, 허리 등)구부리다, 인사하다”

[산디] -as: 접사. 유성자음 즉 후행자음 ‘r’에 의하여 -o로 변한다.

[의미] 敬拜(를) 하다, 歸依(를) 하다

2. ratna=traya-aya ⇒ ratna trayāya

[어근] ratna-: “선물, 물건, 부(富), 보물”, tray-: “셋”

[합성어] “ratna”=“tray” : 三寶

[접사] ‘-a-’와 ‘-aya’는 접사. -a-aya → -āya : 동종의 모음이 연이어 출현할 때 장모음으로 나타난다.

[의미] 三寶께

[제2구]

1. namas ⇒ nama

[산디] -as→-aḥ→a: 자음 ḥ-어간은 후행모음이 장모음 ā인 경우 ḥ가 탈락한다.

[의미] 敬拜(를)하다, 歸依(를)하다

2. āri~ya=ava-lok-a~ita=iś-vara-aya ⇒ āryā valokite śvarāya

[형태] ‘āri+ya’ 어형성, i탈락의 약형태 ‘āryā’

[형태] ava(접사)-lok(어근)-a(접사)-ita(접사): 어형성

[산디] ita-iś→iteś: a/ā가 다른 종류의 모음인 i/i와 결합할 때 e/ai로 나타난다.

[형태] iś-vara(접사)-aya(접사): 어형성

[의미]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께

3. 원문) nama āryā ⇒ 문헌) namaḥ aryah

원문에서 ‘nama āryā’가 문헌에서 ‘namaḥ aryah’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대개 장음 ā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위사르가 ḥ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구]

1. bodh-i=s-at-tva-aya ⇒ bodhi sttvāya

[어근] budh-: 알아채다, 인지/주의하다, 깨(어나)다

11) 전순환(2012:137)에서 ‘단어덩치’란 실사와 동사와 같은 變化詞(Inflectional Words)와 不變化詞(No-Inflectional Words)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12) 전순환(2005)의 형태분석을 참고하였다.

[어휘] budh+i(접사): 어형성
 [어근] as-at-: ‘있다, 존재하다’+‘...하는’
 [어휘] ‘as+at+tva(접사)-aya(접사)’ 어형성
 [합성어] ‘budh+i’=‘as+ant+tva’
 [의미] 깨달음의 존재자/菩薩께

2. mahā=s-at-tva-aya ⇒ mahā sattvāya
 [어근] mah-: ‘일으키다, 해내다’
 [합성어] ‘mahāḥ’=‘as+ant+tva’
 [의미]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께

3. 원문) sattvāya ⇒ 문헌) satvāya
 원문에서 tty-의 三重 자음군이 문헌 실답자에서는 ty-의 二重 자음군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형태와 음운 분석을 근거로 형태단위 경계를 찾아 끊으면 ㄷ)가 된다. 예를 들어 제1구의 ㄱ)는 ‘namo ratnatrayāya’로 2개의 단어묵치로 끊어지지만, ㄷ)는 형태 단위의 끊기로 ‘namo ratna trayāya’와 같이 3개의 경계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한글의 작은 단위의 끊기 즉 절 경계가 ㄷ)의 형태 단위와 상당히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아래는 원문 ㄷ) 문장과 대응 한글 및 한자 텍스트를 비교하여 본 것이다.

[표7] 한글 절 경계의 단위의 대비

제1구	ㄷ) namo ratna trayāya(1) 韓) 나모(라)도나도라야야o 漢) 曩謨囉怛曩[二合]怛囉[二合]夜野一
제2구	ㄷ) namaḥ aryah valokite śvāraya(2) 韓) 나막알약바로기데시바라야o 漢) 曩莫啊[引]哩也[二合]嚩路[引]枳諦濕嚩[二合]囉[引]野二
제3구	ㄷ) bodhi satvāya mahā satvāya(3) 韓) 모디사드바야마하사드바야o 漢) 冒地薩怛嚩[二合]野摩賀[引]薩怛嚩[二合]野三

위의 도표에서 예를 들어 제2구를 보면 ㄷ)는 ‘namaḥ aryah valokite śvāraya(2)’으로 네 개의 형태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에 한글 텍스트는 ‘나막알약바로기데시바라야o’으로 역시 4개의 단위로 끊어지면서 이들의

경계 위치도 일치한다. 이들을 대응하여 보면 ‘namaḥ/나막ᵒ, aṛyaḥ알약ᵒ/, valokite/바로기테ᵒ, śvāraya/시바라야ᵒ’가 된다. 기타 구도 마찬가지로이다. 본고의 부록3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전체 문장을 모두 비교한 것이다. 비록 절 경계의 끊기 대응이 불일치하는 예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 즉 한글의 절 경계는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의 경계를 기준으로 끊어지는 것이다.

불일치의 예에서 일부 한국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 위의 [표7]의 제1구에서 ㄷ)의 경계 단위는 ‘namo ratna trayāya’으로 두 번째 단위는 ‘ratna’이고 첫 번째 음절은 ‘ra’이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 음절은 ‘라’인데 실제 한글 표기에서 두 번째 단위가 아닌 첫 번째 단위의 끝 음절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namo/나모(라)ᵒ’, ‘ratna/드나ᵒ’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아마 한국어 고유어에서의 어두에 ‘ㄹ’ 자음이 오지 않는다는 어두법칙의 제약의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같은 환경의 기타 예에서의 한글 표기의 상황을 좀 더 살펴해보겠다.

부록3을 보면 ‘신묘장구대다라니’ 전체 문장의 모든 형태 단위에서 제1구와 같은 음운 환경의 예가 아래와 같이 몇 개 더 있음을 볼 수 있다.

예1

- 1) ㄷ) namo ratna trayāya(1)
韓) 나모(라)ᵒ.드나ᵒ.드라야야ᵒ
- 2) ㄷ) mahā lakuṭa(68)
韓) 마하(라)ᵒ.구타ᵒ
- 3) ㄷ) namo ratna trayāya(77)
韓) 나모(라)ᵒ.드나드라ᵒ.야야ᵒ
- 4) ㄷ) mati lokā tīkrānta e(20)
韓) 마디로가ᵒ.디ᵒ.ᵑ란테ᵒ
- 5) ㄷ) loke śvara rāga(33)
韓) 로게ᵒ.시ᵑ바라ᵒ.라아ᵒ

위의 예1를 보면 2)번의 제68구, 3)번의 제77구가 1)번의 제1구와 같이

후행 단위의 첫 음절 ‘라’가 선행 단위의 끝 음절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번에서는 산스크리트 경계가 ‘mati lokā’으로 나타나므로 한글 표기 역시 마땅히 ‘마디.로가.’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마디로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라’가 어두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처리라 볼 수 있겠다. 다만 예 5)번의 제33구에서는 ‘śvara rāga’가 한글 표기의 절 경계에서 ‘시.바라.라아’로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ㄹ’ 어두 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 5개 중에서 1개의 예만이 외국어 표기에 충실히 하고 기타 4개는 한국어 음운 법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외국어 표기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진언이 독송되고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글 진언 텍스트의 절 경계 단위가 처음의 단순한 외국어의 형태단위로부터 점차 한국어 고유의 형태단위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2.2.2. 범자 음절 단위의 분리

위의 분석을 근거로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와 한글의 절 경계 단위를 대응시키면 아래와 같이 梵-韓-中의 형태단위의 대응이 가능하다.

[표8] 범어 형태단위의 분리

제1구	1) namo/나모./曩謨 2) ratna/(라)드나./囉怛曩 _[二合] 3) trayāya/드라야야./怛囉 _[二合] 夜野
제2구	1) namaḥ/나막./曩莫 2) aryah/알약./啊哩也 _[二合] 3) valokite/바로기테./嚩路枳諦 4) śvāraya/시.바라야./濕嚩 _[二合] 囉野
제3구	1) bodhi/모디./冒地 2) satvāya/사드바야./薩怛嚩野 3) mahā/마하./摩訶

위의 도표는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와 한글의 절 경계 단위를 대응 시

킨 것이며 이에 한자 표기 역시 같은 단위로 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제1구는 세 개의 형태단위가 있으며 범어와 한글의 대응은 각각 ‘namo/나모, ratna/(라)드나, trayāya/드라야야o’로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를 끊어서 ‘namo/나모/曩謨, ratna/(라)드나/囉怛曩_[二合], trayāya/드라야야o/怛囉_[二合]夜野’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기타 제2구와 제3구 역시 같은 방법으로 형태단위를 기준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이러한 형태 단위의 대응을 범자를 단위로 즉 문자 음절의 더 작은 단위로 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1구에서 ‘namo’는 ‘na’와 ‘mo’ 두 개의 기본 음절로 분리할 수 있고, ‘ratna’는 ‘ra’와 ‘tna’의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로 분리할 수 있으며, ‘trayāya’는 ‘tra’, ‘yā’, ‘ya’의 복자음 음절과 기본 음절로 분리할 수 있다. 이들과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를 보면 아래와 같이 대응시킬 수 있다.

[표9] 범자(음절)단위의 분리

제1구	1) na/나/曩, mo/모/謨 2) ra/라/囉, tna/드나/怛曩 _[二合] 3) tra/드라/怛囉 _[二合] , yā/야/夜, ya/야/野
제2구	1) na/나/曩, mah/막/莫 2) a-ryah/알약/啊哩也 _[二合] 3) va/바/嚩, lo/로/路, ki/기/枳, te/테/諦 4) śvā/시바/濕嚩 _[二合] , ra/라/囉, ya/야/野
제3구	1) bo/모/冒, dhi/디/地 2) sa/사/薩, tvā/드바/怛嚩 _[二合] , ya/야/野 3) ma/마/摩, hā/하/賀

위의 도표는 모두 1음절의 범자를 단위로 끊은 것이다. 이에 기본 음절이 있을 수 있고 복자음 음절이 있을 수 있다. 범자 기본 음절의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보면 대부분 똑같이 1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na/나/曩, mo/모/謨, ra/라/囉, yā/야/夜, ya/야/野, na/나/曩, va/바/嚩, lo/로/路, ki/기/枳, te/테/諦, bo/모/冒, dhi/디/地, sa/사/薩, ma/마/摩, hā/하/賀, mah/막/莫’ 등이다. 하지만 복자음 1음절의 경우 한글과 한자가 각각 2개의 음절로 표기된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tna/드나/怛曩_[二合], śvā/시바/濕嚩_[二合], tvā/

ㄷ바/怛𠵽[二合]’이다. 이는 당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대응하는 복자음 음절과 유사한 자음군이 없어서 多音節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복자음 음절의 다음절 표기에서 한글은 첫 음절이 ‘으’ 모음 음절이고, 한자는 ‘二合’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글의 표기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의 4.1의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의 표기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한자의 ‘二合’에 대해 보겠다.

실제로 오대진언(1485)의 한자 표기를 보면 ‘二合’이란 표기가 없다. ‘二合’이란 표기는 『진언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그림2]를 보면 망월사본(1800)의 다음절 한자 표기에서 ‘怛囊’, ‘怛囉’에 ‘二合’이란 작은 글자 표기가 있지만¹³⁾, 해당 한자들이 오대진언(1485)에서는 ‘二合’의 표기가 없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한자들이 좀 작게 좁은 간격으로 들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3]과 같다. 그러니 오대진언(1485)는 비록 망월사본(1800)처럼 ‘二合’이란 두 글자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二合’ 단위의 묶음은 존재하였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다음절 표기의 묶음을 모두 찾아서 부록1에 ‘二合’으로 제시해놓았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는 망월사본(1800)처럼 글자의 제시가 없으므로 괄호를 넣어 ‘[二合]’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二合’뿐만 아니라 ‘三合’도 있는데 즉 1음절의 범자 대응 한자의 음절이 세 개인 것도 있다.

[그림3]

ㄷ나	ㄷ라	ㅅ라	ㄷ롬
怛囊	怛囉	薩怛囉	納嚕唵
tna/ㄷ나/怛囊[二合]	tra/ㄷ라/怛囉[二合]	strā/ㅅ라/薩怛囉[三合]	trum/ㄷ롬/納嚕唵[三合]

위의 [그림3]을 보면 범자는 복자음 음절 ‘tna, tra, strā, trum’의 1음절

13) 이외의 ‘ㄹ’ 표기는 범어의 장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지만 한자는 2음절 혹은 3음절로 ‘二合’ 혹은 ‘三合’의 ‘怛曩_[二合], 怛囉_[二合], 薩怛囉_[三合], 訥嚕唵_[三合]’으로 대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글은 ‘드나, 드라, 쑈라, 드롬’으로 모두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복자음 범자음절 대응에 합용병서의 한글 표기가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자는 3음절의 ‘三合’으로 한글은 한자 표기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들을 더욱 작은 단위의 음소대응으로 쪼개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은 제4장의 복자음 음절 표기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외에 1음절의 범자 음절이 아닌 2개 음절의 범자 음절의 대응 예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표9]에서 제2구의 두 번째 절 경계의 단위 대응을 보면 ‘a-ryah/알약/啊哩也_[二合]’으로 되어 있다. 범자 ‘a-ryah’은 두 개의 범자 즉 2개의 음절을 말하며 본고에서는 ‘-’로 음절 경계를 표기하였다. 구체적인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그림4]

ᄃᆞ (a)	ᄃᆞᆫ (ryah)
알	약
啊	哩
a-ryah/알약/啊哩也 _[二合]	

위의 [그림4]을 보면 범자의 첫 음절 ‘a’는 한자 ‘啊’와 대응되고 한글은 종성 자음이 있는 ‘알’과 대응된다. 범자의 두 번째 음절 ‘ryah’의 복자음 음절은 한자 ‘哩也_[二合]’의 2음절과 대응되지만 한글은 ‘약’의 1음절과 대응됨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글의 ‘알’에서 종성자음 ‘-ㄹ’이 범자의 제2음절의 첫 자음 ‘-r’과 대응되기 때문이다. 즉 위의 대응은 실제로 ‘a-r/알/啊哩’, ‘yah/약/也’의 대응이 되는 것이다.

2.3.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

중국어의 음운사는 흔히 上古漢語, 中古漢語, 近代漢語, 現代漢語 4개의 시기로 나눈다. 상고한어 시기는 대체적으로 魏晉南北朝 시기 이전을 말하고, 중고한어 시기는 흔히 唐나라와 宋나라 시기를 말하며, 근대한어는 元·明·淸 시기를 말한다. 즉 대개 5-6세기 이전은 상고한어 시기, 6세기부터 12세기는 중고한어 시기, 12세기부터 20세기 이전까지가 근대한어 시기인 것이다. 그 중 중고한어는 다시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전기는 5세기부터 8세기 중엽까지, 후기는 中唐 시기를 기준으로 8세기 중엽부터 12세기로 나눌 수 있다.¹⁴⁾ 오대진언(1485)의 한자 텍스트는 不空과 佛陀波利가 번역한 것이며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7-8세기로 중국어의 음운사에서 前期 中古漢語 시기에 속한다.

고대 중국에서 韻書는 중국어 음운학 연구의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중국어 음운학 연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韻書 자료로는 『切韻』(601)이다. 『切韻』이 만들어진 시기인 전기 중고한어는 위로 상고한어, 아래로 근대한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切韻』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이와 같은 계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운서들을 ‘切韻系韻書’라 한다. 현재 절운계운서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서는 宋代의 『廣韻』(1008)이다.¹⁵⁾ 광운이 만들어진 시기는 宋代로 비록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속하지만 이 운서가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전기 중고

14) 麥耘(2002)의 연구에 의하면 中唐부터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많은 음운변화가 발생하는데 輕唇音의 분화, 3·4等韻 글자의 합류 등이 전형적이라고 하였다. 中唐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잘 반영되고 있으며 中唐시기의 음운변화가 중고한어 표준음운체계의 전이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는 시기는 여전히 10세기 이후의 五代, 北宋시기이다. Pulleyblank(1984)에서 中古漢語前期를 ‘EMC(Early Middle Chinese)’, 後期를 ‘LMC(Late Middle Chinese)’이라고 불렀다.

15) 절운계운서에서 시기적으로 절운과 제일 가까운 것으로 706년 王仁昉의 『刊謬補缺切韻』이 있는데 195운이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에 따라 ‘王一’, ‘王二’, ‘王三’이라 부르기도 한다. 송대 광운의 전칭은 『大宋重修廣韻』이고 총 26,194자 수록되어 있고 206운 체계로 되어 있다. 이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절운계 운서 중 제일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외 1037년 丁度的 『禮部韻略』, 1039년의 『集韻』, 1252년 劉淵의 『壬子新刊禮部韻略』이 있다. 劉淵의 예부운락은 107운으로 되어 있으며 흔히 平水韻이라고 부른다. 元明이후 106운으로 바뀐다.

한어의 것이다. 운서 연구는 주로 한자의 注音으로 사용되는 反切의 上字와 下字를 통하여 진행된다.¹⁶⁾

韻書 이외 또 중국어 음운학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韻圖가 있다. 韻圖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개 宋代이후로 흔히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는 연구 자료라고 한다.¹⁷⁾ 하지만 일부 早期 韻圖가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여전히 전기 중고한어 시기의 것이다. 예를 들어 唐末 시기 저자 미상의 『韻鏡』과 南宋 시기 鄭樵의 『七音略』이다.¹⁸⁾ 韻圖의 특징은 가로로 字母의 체계가, 세로로 等韻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등운은 운서의 각 韻들을 4개의 칸으로 나누어 1등칸에 배열된 운을 1등운, 2등칸에 배열된 운은 2등운의 순서로 3등운, 4등운이다. 字母는 당시의 중국어 자음체계를 36자모로 정리한 것이다.¹⁹⁾

- 16) ‘反切’은 한자의 注音法의 일종으로 두개의 한자 즉 反切上字와 反切下字가 또 다른 한자 즉 被切字를 주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東,德紅切’하면 ‘東’은 被切字이고, ‘德’은 反切上字이며 ‘紅’은 反切下字이다. 피절자의 자음을 반절상자의 자모를 통해 알고, 피절자의 운모와 성조는 반절상자의 운모와 성조를 통해 알 수 있다.
- 17) 중국어 음운사에서 시기별 대표적인 연구 자료가 있는데 상고한어의 대표 자료는 『詩經』(기원전 5세기 무렵)이고, 중고한어 대표 자료는 『切韻』(601)이며, 근대한어의 대표 자료는 『中原音韻』(1324)이다. 중고한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切韻』은 전기 중고한어의 대표 자료이고, 宋代의 韻圖가 후기 중고한어의 대표 자료이다. 이외 근고한어 시기도 있는데 이는 중고한어로부터 근대한어로의 과도기를 말하며 대표자료로는 『古今韻會舉要』(1297)이다. 『古今韻會舉要』는 표면적으로 중고한어 전통 운서의 체계를 따르는 듯하지만 ‘字母韻’으로 또 다른 체계 즉 당시 이미 변화된 음이 반영된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 『洪武正韻』(1375)는 시기적으로 『중원음운』보다 50년이 늦은 명나라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훨씬 보수적인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 대개 남방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上古漢語	前期中古漢語	後期中古漢語	近古漢語	近代漢語
5세기이전	5-8세기	8-12세기	13세기	14세기이후
《詩經》	《切韻》	韻圖	《古今韻會舉要》	《中原音韻》(北) 《洪武正韻》(南)

- 18) 韻圖는 早期 韻圖와 後期 韻圖 두 종류로 나누는데 早期 韻圖는 切韻系韻書의 체계를 반영하고 後期 韻圖에는 후기 중고한어 그리고 일부 근대음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자모의 배열에 있어서도 초기 운도는 순, 설, 아, 치, 후의 순서로 배열하지만 후기 운도는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로 배열하는 차이를 갖기도 한다. 후기 운도의 대표적인 자료로 宋代 혹은 遼代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四聲等子』이다.
- 19) 唐末의 守溫 스님이 ‘字母’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흔히 이 시기 이미 36개의 자모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왔었지만 20세기 초 중국 敦煌에서 守溫의 韻學殘卷이 발굴되면서 실제 守溫이 정리한 字母는 사실은 30개였음이 밝혀졌다. 수운의 30자로도 唇音의 ‘不, 芳, 并, 明’, 舌頭音의 ‘端, 透, 定, 泥’, 舌上音의 ‘知, 徹, 澄, 日’, 牙音의 ‘見, 溪, 群, 來, 疑’, 齒頭音의 ‘精, 清, 從’, 正齒音의 ‘審, 穿, 禪, 照’이 있다.

[표10] 36字母 체계 (후기 중고한어)

	全清	次清	全濁	次濁	清	濁
重唇音	幫	滂	并	明		
輕唇音	非	敷	奉	微		
牙音	見	溪	群	疑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娘		
齒頭音	精	清	從		心	邪
正齒音	照	穿	牀		審	禪
喉音	影			喻	曉	匣
半舌音				來		
半齒音				日		

중국어 음운학의 연구는 韻書, 韻圖 이외에도 실제 문학 작품에서 사용되는 押韻 자료, 현대 중국어의 방언 자료, 외국어의 번역 자료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당시의 음가를 재구하기에 이른다. 특히 20세기 초에 이르러 스웨덴의 한학자 칼그렌의 『中國音韻學』(1915)은 처음으로 현대 음운론의 시각에서 고대 중국어의 음가를 재구한 연구 저서이다. 그 후로 중국 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고대 중국어의 음가 재구의 연구를 진행하여 왔는데 특히 2000년 이후 중고한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上古漢語 음가의 재구까지 이르렀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Baxter William의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1992), 鄭張尚芳의 『上古音系』(2003) 등이 있다.

潘悟雲의 『漢語歷史音韻學』(2000)는 기존의 상고한어 연구들을 정리하고 발전시켰으며 상고한어의 연구에 앞서 중고한어에 대한 설명도 있다. 반오운(2000)에서의 중고한어 음운체계는 상고한어의 연구와 체계적인 연결이 가능하므로 본고는 반오운(2000)의 중고한어 음운체계의 재구 음가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구 음가의 국제음성기호의 반영은 반오운(2000)의 한국어 번역본인 권혁준 역 (2014)을 따를 것이다.

반오운(2000)에서는 제 학자들의 전기 중고한어 재구음을 비교하여 도표를 만들었는데 번역본을 참고하면 자음체계의 비교도는 권혁준(2014:99-100)에 있고, 운모체계의 비교도는 권혁준(2014:135-140)에 있다.

이를 본고의 부록4에 그대로 다시 제시하여 놓았다.

아래는 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먼저 자음체계부터 볼 것이다. 아래는 권혁준 역(2014:99-100)의 제 학자 비교도에서 반오운의 재구음만 선택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11]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의 재구 음가

	全淸	次淸	全濁	次濁	淸	濁
脣音	幫母 *p ²⁰⁾	滂母 *ph	并母 *b	明母 *m		
牙音	見母 *k	溪母 *kh	群母 *g	疑母 *ŋ		
舌頭音	端母 *t	透母 *th	定母 *d	泥母 *n		
舌上音	知母 *t̪	徹母 *t̪h	澄母 *d̪	娘母 *n̪		
齒頭音	精母 *ts	淸母 *tsh	從母 *dz		心母 *s	邪母 *z
正齒音	莊母 *tʃ	初母 *tʃh	崇母 *dʒ		生母 *ʃ	
	章母 *tʃ̥	昌母 *tʃ̥h	禪母 *dʒ̥		書母 *ç	船母 *ʒ
喉音	影母 *ʔ			以母 *j	曉母 *h	匣 _[云] 母 *ɦ
半舌音				來母 *l		
半齒音				日母 *n̪̥		

위의 [표11]이 반영하는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는 앞서 [표10]의 36자모와 다소 차이가 있다. 36자모는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전기 중고한어의 순음은 重脣音 하나의 계열을 갖지만 후기 중고한어에 이르러 3등운 글자에서 輕脣音이 분화되어 나온다. 절운계운서 『廣韻』의 反切 자료에서 脣音은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있다(唐作藩 2002:110 참조). 이에 대해 麥耘(2009:61)은 일부 중국 사람의 注音 혹은 梵漢 대응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이 분류가 보이는 경향이 보이지만 이는 해당 자모와 결합하는 모음 즉 경순음은 세음성 개음이 있는 글자에만 나타나므로 개음의 영향을 받아 마찰성분이 들어 pf와 같은 발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변이음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즉 /p/=[p, pf]의 관계로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은 아직 음소적인 대립을 가지지 않는다고

20)중국어 음운학 분야에서 흔히 ‘*’표기는 상고한어 재구음을 나타낼 때 표기한다. 중고한어 재구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고의 중국어 음운사 주요 고찰 범주가 중고한어이며 또 범자의 로마자 전환과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중고한어 재구음에 ‘*’표기를 하겠다.

하였다.

둘째, 전기 중고한어의 莊系와 章系는 후기 중고한어에서 하나의 照系가 된다. 莊系는 2등운과 3등운 글자와 결합하지만 운도에서 2등칸에만 출현하며²¹⁾, 章系는 오직 3등운과 결합하며 운도에서 3등칸에만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를 각각 照2系, 照3系라 부르기도 한다.

셋째, 후기 중고한어에서 喻母는 운도에서 3등칸에만 출현하는 것과 4등칸에만 출현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喻3母 혹은 ‘云母, 于母’라 하고 후자를 喻4母 혹은 ‘以母, 羊母’라 부른다. 匣母는 1등, 2등, 4등운에만 나타나는데 3등운에만 나타나는 喻3母와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전기 중고한어 이들은 하나의 자모였지만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匣母와 喻3母로 분화된 것이다. 전기 중고한어시기의 *h이 후행하는 3등운의 세음성 개음에 의해 약화된 음으로 변하면서 喻3母가 된 것이다.

위로부터 일부 자모는 운모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경순음은 3등운에만, 莊系는 2등운 혹은 3등운, 章系는 3등운에만, 喻母 역시 3등운에만 나타난다. 이외 기타 자모의 운모 결합의 제약을 본다면 精系는 1등운, 3등운, 4등운에만 출현하고(운도에서는 1등칸과 4등칸에서만 출현하여 3등운은 4등칸에서 나타난다), 설음에서 端系는 1등운, 4등운 글자와만 결합하고, 知系는 2등운, 3등운 글자와만 결합한다. 牙音에서 群母, 齒音의 禪母, 半齒音의 日母 모두 오직 3등운에서만 나타난다.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 대해 기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다. 하지만 일부 쟁점으로 다루었던 문제점이 있는데 娘母, 來母, 濁音 등이 그것이다.²²⁾

먼저 娘母에 대해 보겠다. 초기 연구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李榮(1956:126)에서는 중고한어의 ‘娘母’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모라고 하였다. 娘母와 泥母는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 대부분 분별하지 않고 있으며,

21) 韻圖에서 4등분을 한 매 칸을 각각 1등칸, 2등칸, 3등칸, 4등칸이라 부른다. 1등칸에 글자를 배열되는 운을 1등운, 2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2등운, 3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3등운, 4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4등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부 3등운의 글자이지만 2등칸에 들어가거나 4등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22) 학자들 간 禪母와 俟母를 분리하느냐 하나로 보느냐의 견해 차이도 존재한다. 반오운(2000)은 俟母를 분리하고 *ʒ으로 재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특이한 자모이며 梵漢 번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본고는 이에 관련 내용을 생략하겠다.

『守溫撰論字音之書』에서 舌頭音은 ‘端, 透, 定, 泥’로 되어 있고 舌上音은 ‘知, 徹, 澄, 日’로 되어 있는데 娘母의 자리에 日母가 들어 있는데 후에 日母가 독립되어 나가고 娘母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빈칸을 채워넣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많은 학자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특히 邵榮芬(1982:35-43)에서는 운서의 反切 자료 등 여러 문헌자료를 통하여 보면 娘母는 중고한어에서 泥母와 분리되어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불경 번역에서 娘母는 知系의 기타 자모와 함께 범어의 권설음 계열과 대응하고 있다. 중고한어 시기 娘母와 泥母는 비록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하여 자주 혼용하였을 것이지만 엄격히 보면 서로 독립된 음소를 가졌을 것이다.

다음 來母에 대해 보겠다. 중고한어의 來母는 *l으로 재구되지만 상고한어에서는 *r으로 재구된다. 즉 중국어 음운사에서 來母는 *r>*l의 음운변화 과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²³⁾ 來母가 *l으로 전환된 시기에 대하여 李榮(1956)은 東晉 시기의 불경 번역에서 ‘羅’와 ‘la’을 대응시킬 때 ‘輕音’이라 注를 달았지만, ‘ra’와 대응할 때는 注가 없었는데 注가 있는 것은 유표적이고 주가 없는 것은 무표적이라 본다면 당시 來母는 ‘r’이었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北凉 天竺 曇無讖의 불경 번역에서 ‘ra’ 번역에 ‘囉’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 산스크리트와 대응하는 음가가 없을 경우 한자에 부수 ‘口’를 추가하여 造字하는데 ‘囉’는 이러한 造字에 속한다. ‘囉’가 ‘ra’와 대응하고 ‘羅’는 ‘la’와 대응하는 것은 여기서 來母는 이미 *l으로 전환하였을 말한다. 즉 대체적으로 東漢시기로 보고 있다. 후기의 불경 번역에서 來母의 음가 전환의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전통번역의 영향에 의한 혼란성일 것이다.

다음은 全濁音의 문제이다. 중고한어 전탁음은 일반적으로 유성음으로

23) 일찍이 20세기 초 曾運乾(1928)의 고문헌 고찰에서 喻4母와 定母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현상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학계에서 흔히 ‘喻四歸定’이라 불렀다. 이에 대해 李方桂(1971:10)은 喻4母 글자는 상고한어에서 流音과 관련될 것이라고 보았다. ‘喻四歸定’은 流音의 폐쇄음화 현상이다. 하지만 상고한어 喻4母를 *r로 재구하였는데 潘悟云(2000, 권혁준 역 2014:431-438)에서는 티베트-버마어군의 同源語에서 중국어의 來母와 대응하는 것은 주로 r-인 반면 以母와 대응하는 것은 주로 l-이며, 베트남 한자어에서 來母는 古 베트남 한자어에서는 r-와 대응하고 좀 늦은 층위의 베트남 한자어에서 l-과 대응하며, 특히 중국어 음운변화로 보면 來母는 상고한어 시기로부터 *r->l-의 변화를 겪었고 以母는 *l->j-의 음운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재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성유기음으로 재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劉廣和(1984)는 不空이 전탁음 글자로 범어의 유성유기음을 번역하고 있는데 당시 중국어의 전탁음은 범어와 같이 유성유기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群母 *gh, 定母 *dh, 并母 *bh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施向東(1983)에서는 玄奘의 번역이 唐代 中原音を 반영하는 것이며 全濁音으로 범어의 순수 유성음을 번역하고 있어서 당시 중국어의 전탁음은 群母 *g, 定母 *d, 并母 *b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중국어 음운학계에서는 施向東(1983)의 견해를 받아들여 中原音を 반영하는 玄奘의 번역을 따라 전탁음을 유성음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신 不空의 번역 특징은 당시 중국어의 長安方言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위의 고찰은 중국어의 자모로부터 자음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다음은 중국어의 운모에 대해 볼 것인데 운모는 모음의 체계 및 음절말 자음의 체계 등 여러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이에 먼저 중국어의 운모의 음절 구조를 보면 韻頭, 韻腹, 韻尾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韻頭는 介音を 말하고, 韻腹은 주요모음을 말하며, 韻尾는 음절말음이다.²⁴⁾

그러나 중고한어 음절말음의 韻尾는 자음운미와 모음운미 두 종류로 나눈다. 자음운미를 갖는 운모로는 -m, -n, -ŋ의 비음운미를 가지는 陽聲韻과, -p, -t, -k의 입성운미를 갖는 入聲韻이다. 이외 陰聲韻이 있는데 음절말음이 없거나 모음운미를 가지는 것으로 -∅, -i, -u이 있다.

다음 주요모음을 보면 潘悟雲(2000)에서는 6모음 체계 즉 /a/, /e/, /i/, /ə/, /o/, /u/으로 나누고 비슷한 모음의 운들을 변이음으로 처리하여 /a/ [a, a, æ], /e/ [e, ɛ, ɛ], /i/ [i, ɪ], /ə/ [ə, i], /o/ [ɔ, ʏ, o, ʊ], /u/ [u]으로 재구하였다. 아래는 권혁준 역 (2014:135-140)에서 제 학자들의 운모체계 재구음 중 반오운의 재구음만 분리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24) 중국어의 음절구조는 (C)(M)V(E)으로 되어 있으며 C-성모, M-개음, V-주요모음, E-운미이다. M은 C와 V(E)의 사이에 위치하므로 ‘介音’이라 부르는 것이다. 개음은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음성학 시각의 ‘활음’과는 다르다. 음성학에서의 ‘활음’은 음소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어의 개음과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은 음소의 자격을 갖는다. 이진호(2014:37)에서는 ‘활음’ 개념에 대해 재조명하고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을 ‘반모음’으로 수정하였다.

[표12] 전기 중고한어 운모체계의 재구 음가

모음: /a/ [a, a, æ]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歌1*a	泰1*ai	豪1*au	唐1*aŋ	談1*am	寒1*an	鐸1*ak	盍1*ap	曷1*at
ø	戈1*(w)a					桓1*(w)an			末1*(w)at
ʏ	麻2*ya	夬2*yai	肴2*yæu	庚2*yæŋ	銜2*yæm	刪2*yæn	阮2*yæk	狎2*yæp	鎋2*yæt
i	麻3*ia			庚3*iaŋ			阮3*iek		
i		廢3*iai		陽3*iaŋ	嚴(凡)3*iam		藥3*iak	業(乏)*iap	

모음: /e/ [e, e, ɛ]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ʏ	佳2*ye	皆2*yei		耕2*yæŋ	咸2*yæm	山2*yæn	麥2*yæk	洽2*yæp	黠2*yæt
i	支A*ie	祭A*iei	宵A*ieu	淸A*ieŋ	鹽A*iem	仙A*ien	昔A*iek	葉A*iep	薛A*iet
ui	支B*ui ɛ	祭B*uiiei	宵B*uiieu	淸B*uiieŋ	鹽B*uiiem	仙B*uiien	昔B*uiiek	葉B*uiiep	薛B*uiiet
ø		齊4*ei	蕭4*eu	靑4*ej	添4*em	先4*en	錫4*ek	帖4*ep	屑4*et

모음: /i/ [i, i]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i	脂A*ɪ		幽3*iu		侵A*(i)m	眞(臻)A*in		緝A*ip	質(櫛)A*it
ui	脂B*ui				侵B*ui(i)m	眞(臻)B*uin		緝B*uiip	質(櫛)B*uit

모음: /ə/ [ə, i]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咍1*əi		登1*əŋ	覃1*əɱ	痕1*ən	德1*ək	合1*əp	
i	之3*ɪ	微3*ii	尤3*iu	蒸3*ɪŋ		殷3*in	職3*ɪk		迄3*ɪt

모음: /o/ [ɔ, ɤ, o, ʊ]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模1*ɔo	灰1*ɔoi		冬1*ɔoŋ		魂1*ɔon ²⁵⁾	沃1*ɔok		沒1*ɔot
ʏ				江2*ɔoŋ			覺2*ɔok		
i	魚3*ɪɤ					元3*ɪɱ			月3*ɪt
i	虞3*ɪü			鍾3*ɪüŋ			燭3*ɪüok		

모음: /u/ [u]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侯1*əu			東1*əuŋ			屋1*uk		
i				東3*iuŋ		文3*iuɱ	屋3*iuok		物3*iut

25) 권혁준(2014:140)에서의 재구음이 ‘üon’으로 되어 있는데 ‘u’가 오타에 의한 오류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 중고한어의 운모체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사실 개음에 있다. 특히 3등운 글자의 개음에 있다. 위의 도표를 보면 반오운의 개음 체계는 2등운 -ɣ -, 3등운 B류 -ɰi-, 3등운 A류 -i-으로 되어 있다.

3등운 A류와 B류의 분류는 重紐의 분류이다. 重紐는 대개 전기 중고한 어시기의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等韻圖에서 3등운의 글자이지만 脣, 牙, 喉에서는 3등칸과 4등칸에 나누어서 배치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重紐 글자라 한다. 이런 현상은 모든 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운을 重紐韻이라한다. 중뉴운은 일반적으로 支韻, 脂韻, 祭韻, 眞(諄)韻, 仙韻, 宵韻, 侵韻, 鹽韻등 3등운들을 말한다. 그리고 4등칸에 배치되는 중뉴글자를 重紐4등 혹은 A류 글자라 하고, 3등칸에 배치되는 글자를 重紐3등 혹은 B류 글자라고 한다.

重紐의 A류와 B류가 반영하는 차이는 개음에 있다.²⁶⁾ 중뉴는 3등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3등운은 細音性 개음을 갖는 글자이며 여기서 다시 하위분류로 A류와 B류 두 가지 개음이 나누어진다. 그 중 B류 개음은 ‘약한·이완된·中舌적인 음’(최영애 2000:63)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음성기호에 대한 재구 음가의 표현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B류 개음의 특성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반오운(2000, 권혁준 역 2014)에서는 B류 개음을 ‘ɰi’으로 하고 이와 대응하는 A류 개음을 ‘i’으로 재구한 것이다. 이러한 재구는 당시의 구체적인 음가의 재현을 위한 것이라 보기보다 음소적인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뉴의 두 가지 개음이 확인되면서 비중뉴운의 3등운 글자들의 개음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陸志韋(1939:28), 麥耘(1992:122) 등은 성모의 종류에 따라 대체적으로 莊系, 云母, 知2系, 來母등의 反切下字는 被切字 B류와 보다 높은 접촉 빈도를 보여주고, 章系, 精系, 日母, 以母의 反切下字는 被切字 A류와 보다 높은 접촉 빈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²⁷⁾ 이에 권혁준(2000)은 중뉴 이외 모든 3등운 글자를 C류라 하고 A류

26) 중뉴의 차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성모의 차이, 모음의 차이, 운미의 차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현재 대개 개음의 차이로 견해를 모으고 있다.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영애(1999)를 참고할 수 있다.

와 가까운 것을 C1류, B류와 가까운 것을 C2류로 하고 C1류의 개음을 A류와, C2류의 개음을 B류와 같이 재구하였다.

개음의 문제에 있어 앞서 3등운의 개음 이외 4등운의 개음 문제와 2등운의 개음 문제도 많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다. 4등운 개음 문제의 쟁점은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있는데 현재 개음이 없었다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다.²⁸⁾ 4등운 글자는 후기 중고한어로부터 3등운 A류와 혼용되어 합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4등운 개음이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없었다가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점차 개음이 생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2등운의 개음 문제 역시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본고는 상고한어 시기 2등운 글자가 3등운 B류 글자와 해성하는 등의 현상으로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2등운에 개음이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²⁹⁾ 鄭張尙芳(1987[2012])은 중고한어 시기에 2등운에 r개음이 있으며 상고한어에서부터 중고한어로 r>y>w>i>i의 음운변화를 가졌다고 하였다. 즉 2등운 개음은 r의 변화과정에서 y단계를 반영하고, 3등운 B류는 w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등운 B류 개음에 있어서 반오운(2013)은 ‘wi’으로 재구하면서 실제 발음은 융합되어 ‘i’와 같을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음의 반모음 성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w’을 ‘u’으로 수정하였다.³⁰⁾ 본고 역시 최근의 견해를 받아들여 3등운 B류의 개음을 ‘wi’으로 반영할 것이다.

앞서 전기 중고한어 시기의 음운체계의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보았다. 하지만 본고의 중고한어 음가의 고찰 목적은 梵漢 번역을 이해하는데 있으므로 일부 중국어 내부의 세부적인 분류에 대한 재구음의 반영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본고는 권혁준 역 (2014)에서 제시하는 전기 중고한어 음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을 할 것이다.

첫째, 3등운 개음의 분류에 있어서 본고는 중뉴글자의 A류와 B류 개음

27) 이러한 분류는 경향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으로 일부 자모 특히 知母와 來母는 B류와의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A류와의 경향도 적지 않게 보인다(黃笑山 1996 참고).

2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영애(2000:260-263)을 참고할 수 있다.

29) 반오운(2000, 권혁준 역 2014:473-487) 참고.

30) 이는 復旦大學東亞語言數據中心 <http://ccdc.fudan.edu.cn/bases/index.jsp>에서 제시된 반오운의 재구음을 참고할 수 있는데 3등운 B류 개음이 모두 ‘u’로 바뀌었다.

의 차이만 반영할 것이다. 기타 비중뉴의 글자들은 모두 단순한 하나의 3등운 개음 ‘i’개음으로 반영한다. 다만 莊系 3등 글자만은 B류 개음과 같이 하여 ‘wi’으로 반영하겠다.

둘째, 戈韻, 桓韻, 末韻은 중국어 음운학에서 合口韻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의 梵漢 번역에서는 비원순모음의 글자와 대응한다. 이에 대해 당시 중국어 자음에 아마 원순성 자질의 첨가로 ʷ가 첨가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 예를 들어 ‘pʷa’ 등으로 재구성하였다. 본고는 ʷ의 첨가를 삭제하고 그냥 단순한 ‘pa’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셋째, 권혁준(2014:144)에 의하면 ‘모음 o, ɔ 음소에는 모두 전이음 ü가 선행하며 이는 普通話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ü’는 음소적인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본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한 ‘o, ɔ’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제 3 장 梵字 기본 음절의 한글 표기

본 장은 기본음절 범자의 한글 표기에 대해 볼 것이다. 범자 모음의 종류에 따라 ‘C+a’류, ‘C+i’류, ‘C+전설모음’류, ‘C+원순모음’류 음절로 분류하였다. 전설모음에는 ‘e, ai’가 포함되고, 원순모음에는 ‘u, o, au’가 포함된다. 산스크리트에서 ‘a’ 모음 음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³¹⁾ 이에 먼저 ‘a’ 모음 표기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기타 모음의 예를 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1 기본 開音節의 표기

3.1.1 ‘C+a’ 음절

3.1.1.1 아음류

‘C+a’류에서 C자음이 아음인 범자 음절로 ‘ka, kha, ga, gha’가 출현한다. 이와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로마자 대문자는 출현 다라니를 말하며 숫자는 출현 빈도를 가리킨다. 이외 한자의 중고 한어 재구 음가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고의 기타 예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

예1

1) ka/가/迦/116 [S;8, G;3, Q;13, D;89, F;3] [迦:見母 戈3韻 *kia]³²⁾

31) 정승석(2003)은 고대 인도 백과전서로 평가되는 가장 방대한 서사시에 대하여 자모 통계를 내었는데 모음의 사용빈도의 통계를 보면 역시 ‘a/ā’ 모음음절이 제일 많아 66.5%를 차지하고, 기타 ‘i/ī’ 모음음절이 12.1%, ‘u/ū’ 모음음절이 7.4%, ‘e’ 모음음절이 6.2%, ‘o’ 모음음절이 3.6%, ‘ai’ 모음음절이 1.6%, ‘au’ 모음음절이 0.7%의 순으로 되어 있다.

32) ‘迦’는 중고음에서 見母 戈3韻의 *kia와 見母 麻2韻의 *kya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이 두 음가의 자모는 모두 見母이지만 운모에서 하나는 戈3韻, 다른 하나는 麻2韻으로 차이를 보여준다. 기타 한자의 운모 대응을 보면 戈3韻은 나타나지만 麻2韻은 없다. 戈3韻이 더 일반성을 띠는 것이므로 麻2韻을 제외하고 戈3韻으로 대응시켰다.

- 2) ka/가/揭/1 [D;1] [揭:見母 薛B韻 *kuɿet]³³⁾
- 3) ka/가/羯/1 [D;1] [羯:見母 月3韻 *kiɿt]
- 4) ga/아/諷/117 [S;3, G;2, Q;54, D;45, F;13] [諷:疑母 歌1韻 *ŋa]
- 5) ga/아/藁/21 [Q;6, D;15] [藁:疑母 薛B韻 *ŋuɿet]
- 6) ga/아/揭/1 [S;1] [揭:群母 薛B韻 *guɿet]
- 7) ga/아/阿/1 [Q;1] [阿:影母 歌1韻 *ʔa]
- 8) kha/카/佉/6 [S;3, Q;2, D;1] [佉:溪母 戈3韻 *khia]
- 9) kha/카/伽/2 [Q;1, D;1] [伽:群母 戈3韻 *gia]
- 10) gha/가/伽/1 [D;1] [伽:群母 戈3韻 *gia]
- 11) gha/카/伽/2 [D;2] [伽:群母 戈3韻 *gia]

위의 예1를 범자와 한글의 대응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ka/가, ga/아, kha/카, gha/가, gha/카’ 등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한어 음과 결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ka/가’ 1)번~3)번

1)번에 ‘ka/가/迦’ 대응의 예가 있는데 다라니의 출현 분포와 빈도는 ‘S;8, G;3, Q;13, D;89, F;3’으로 되어 있다. 즉 다섯 다라니에 모두 출현하며 출현 횟수는 총 116회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 2)번 ‘ka/가/揭’과 3)번 ‘ka/가/羯’의 예도 있는데 다라니 D에서 각각 1회만 출현한다. 1)번 예는 여러 다라니에 출현하고 높은 출현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향의 대응이라는 의미로 ‘일반대응’이라 하겠다. 2)번과 3)번의 경우 극히 적은 출현 횟수로 소수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대응이라 하여 무조건 예외인 것은 아니다.

일반대응 예인 ‘ka/가/迦/116’에서 한자 ‘迦’의 중고음은 見母 戈3韻 *kia 이므로 梵-韓-中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戈3(*ia)’이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예들도 분리하여 대응시킬 수 있는데

33) ‘揭’는 중고음에서 見母 薛B韻 *kuɿet, 群母 薛B韻 *guɿet, 溪母 祭B韻 *khuɿiei의 세 가지 음이 있는데 1)번의 ‘ka’의 대응에서 見母 薛B韻 *kuɿet의 음가를 적용하였고, 3)번의 ‘ga’의 대응에서 群母 薛B韻 *guɿet의 음가를 적용하였다. 이외 集韻의 반절에 의한 見母 月3韻 *kiɿt, 群母 月3韻 *giɿt도 있지만 이는 후기 중고한어와 가까운 시기의 반절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시켰다.

소수 대응인 ‘ka/가/揭/1’와 ‘ka/가/羯/1’은 모두 자음의 대응이 ‘k/ㄱ/見(*k)’으로 일반대응의 예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음의 대응에서 2)번이 ‘a/아/薛B(*ɰiet)’이고, 3)번이 ‘a/아/月3(*ixt)’인데 한자가 *-t 자음운미의 入聲韻 글자로 되어 있어 일반대응과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마치 예외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의 예들을 고찰하여 보면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 ‘ga/아’ 4)번~7)번

위의 예들에서 4)번의 ‘ga/아/諷/117’예가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5)번의 ‘ga/아/藥/21’도 20여회 적지 않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5)번 예의 출현 횟수가 비록 4)번만큼 많지는 않지만 예외로 보기에 높은 출현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일반대응으로 볼 것이다. 6)번과 7)번 예는 각각 1회로 소수대응이다.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일반대응인 4)번과 5)번이 ‘g/ㅇ/疑(*ŋ)’으로 같고 총 138회이다. 소수대응의 6)번은 ‘g/ㅇ/群(*g)’이고 7)번은 ‘g/ㅇ/影(*ʔ)’이다. 6)번과 7)번의 범자와 한글 대응은 ‘g/ㅇ’으로 일치하지만 한자에서 차이를 보여주므로 예외에 속한다.

다음으로 모음의 대응을 보면 4)번과 7)번이 ‘a/아/歌1(*a)’로 총 118회이고 5)번과 6)번이 ‘a/아/薛B(*ɰiet)’으로 총 22회이다. 5)번과 6)번의 한자 대응에서 *-t 자음운미를 글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20여회의 출현 횟수로 보아 예외는 아니다. 중국어 번역에서 개음절 범자와 자음운미의 한자가 대응하는 현상이 비록 음성운 글자보다 출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보아 앞서 ‘ka/가’ 대응의 2)번과 3)번의 소수대응에서의 모음의 대응은 예외가 아니게 된다.

☞ ‘kha/카’ 8)번~9)번

해당 예들의 출현 횟수를 보면 8)번 예가 6회, 9)번 예가 2회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8)번이 일반대응이 되고 9)번이 소수대응이 된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8)번이 ‘kh/ㅋ/溪(*kh)’이고 9)번이 ‘kh/ㅋ/群(*g)’으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9)번이 예외가 된다. 모음의 대응은 8)번과 9)번 모두 ‘a/아/戈3(*ia)’로 일치한다.

ㄱ ‘gh/가’ 10)번, ‘gh/카’ 11)번

10)번 예는 ‘gha/가/伽/1’이고, 11)번의 예는 ‘gha/카/伽/2’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출현 횟수로 보아 일반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각각 ‘gh/ㄱ/群(*g)’와 ‘gh/ㅋ/群(*g)’으로 한글 자음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같은 한자 ‘伽’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앞서 9)번의 예에서도 ‘kha/카/伽/2’로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 群母 *g의 한자 ‘伽’가 범자 ‘kh’ 혹은 ‘gh’와의 혼용 표기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한글 표기는 동일 한자의 영향을 받아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 진언 표기의 대응체계에 의하면(제5장의 5.1.2절 참고), 10)번 예가 일반적인 대응이다. 이들의 모음의 대응은 모두 ‘a/아/戈3(*ia)’으로 일치한다.

위의 예들에서 나타나는 일부 음소대응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보겠다.

우선 ‘ga/아’의 대응에서 유성음 범자 ‘g’가 대응하는 한글 초성은 ‘ㅇ’이다. 한자 자모가 疑母 *ŋ로 나타나는데 15세기의 훈민정음의 규칙에 의하면 疑母 대응에 한글의 초성자음은 마땅히 꼭지가 달린 ‘ㅇ’이어야 한다.³⁴⁾ 여기에서 반영되는 한글 초성이 비록 ‘ㅇ’지만 실제로는 꼭지가 달린 ‘ㅇ’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표기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유성음의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의 한자 대응이 비교적 특이한데, 중고한어시기 중국어 번역 체계에 따라 비음의 疑母가 사용되고 한글 표기가 한자를 따라 비음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유성음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이후에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관련된 상세한 음운적 논의는 제5장의 5.2.1절 초성 표기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g/ㅇ’의 한자 대응에 群母 *g와 影母 *ʔ가 예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群母 *g는 한자 *g와 범자 g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한 예외 대응으로 보인다. 한글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와의 일반대응을 따라 ‘ㅇ’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影母 *ʔ는 한글 표기에 의한 ‘ㅇ’와 꼭지 달린 ‘ㅇ’ 표기의 혼란성에 의한 것이 되겠다.

34) 참고로 만연사본(1777)에서의 진언 표기에서는 유성음 범자 ‘g’ 모두 한글 초성을 꼭지가 있는 ‘ㅇ’을 사용하고 있다.

모음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범자가 모두 ‘a’ 모음이고 한글 모음도 모두 ‘아’이며 한자 운모는 대부분 歌1韻 *a, 戈3韻 *ia의 주요모음 *a에 대응한다. 하지만 개음절 범자 ‘a’와의 대응에 자음운미의 入聲韻 한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薛B韻 *uɿet, 月3韻 *ixt 등이 사용되며 이들의 출현 횟수 또한 20여회로 단순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어 번역의 한자 표기에서 비록 개음절과 陰聲韻 글자의 대응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운미의 한자도 어느 정도 허용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모음도 *ɛ, *ʏ으로 *a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넓은 영역의 음가 대응이 허용됨을 볼 수 있다.

3.1.1.2 설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설음인 예로 ‘ta, tha, da, dha, na’가 출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

- 1) ta/다/多/64 [D;36, Q;18, F;10] [多:端母 歌1韻 *ta]
- 2) ta/다/𪛗/42 [S;2, D;22, Q;18] [𪛗:端母 歌1韻 *ta]³⁵⁾
- 3) ta/다/𪛘/24 [S;4, D;9, Q;5, F;6] [𪛘:端母 歌1韻 *ta]³⁶⁾
- 4) ta/다/𪛙/17 [S;1, Q;7, D;19] [𪛙:端母 曷1韻 *tat]
- 5) ta/다/單/4 [D;4] [單:端母 寒1韻 *tan]³⁷⁾
- 6) dha/다/𪛚/54 [S;10, G;1, Q;29, D;12, F;2] [𪛚:定母 歌1韻 *da]³⁸⁾
- 7) dha/다/陀/21 [Q;21] [陀:定母 歌1韻 *da]
- 8) dha/다/達/1 [S;1] [達:定母 曷1韻 *dat]³⁹⁾

35) ‘𪛗’는 중고음에서 端母 歌1韻 *ta와 端母 泰1韻 *tai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36) ‘𪛘’는 중고음에서 端母 歌1韻 *ta, 徹母 麻2韻 *thya, 知母 麻2韻 *tɕya, 昌母 麻3韻 *tɕhia, 昌母 支A韻 *tɕhiɛ, 昌母 之3韻 *tɕhi 등의 다양한 음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의 端母 歌1韻의 *ta음을 선택하였다.

37) ‘單’은 중고음에서 端母 寒1韻 *tan와 禪母 仙A韻 *dziɛn의 두 종류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端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38) ‘𪛚’는 중고음에서 定母 歌1韻 *da, 定母 泰1韻 *dai, 定母 齊4韻 *dei의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39) ‘達’은 중고음에서 定母 曷1韻 *dat와 透母 曷1韻 *that의 두 가지 음이 있는데 여기

- 9) tha/타/他/22 [S;1, D;21] [他:透母 歌1韻 *tha]
- 10) tha/타/佗/13 [S;1, Q;7, F;5] [佗:透母 歌1韻 *tha]⁴⁰⁾
- 11) da/나/娜/32 [S;6, Q;6, D;21] [娜:泥母 歌1韻 *na]
- 12) da/나/那/5 [S;2, G;1, D;2] [那:泥母 歌1韻 *na]
- 13) da/나/乃/4 [Q;2, D;2] [乃:泥母 > 哈1韻 *nəi]
- 14) da/나/拏/2 [F;2] [拏:>娘母 > 麻2韻 *nɣa]
- 15) da/나/捺/1 [D;1] [捺:泥母 曷1韻 *nat]
- 16) da/다/多/1 [Q;1] [多:>端母 歌1韻 *ta]
- 17) na/나/曩/122 [S;9, G;7, Q;26, D;79] [曩:泥母 唐1韻 *naŋ]
- 18) na/나/那/8 [S;2, G;3, F;3] [那:泥母 歌1韻 *na]
- 19) na/나/娜/4 [G;3, D;1] [娜:泥母 歌1韻 *na]
- 20) na/나/拏/1 [S;1] [拏:>娘母 > 麻2韻 *nɣa]
- 21) na/나/顗/1 [D;1] [顗:泥母 > 青4韻 *neŋ]

위의 예2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은 ‘ta/다, dha/다, tha/타, da/나, na/나’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ta/다’ 1)번~5)번

여기에서 1)번이 64회, 2)번이 42회, 3)번이 24회, 4)번이 17회, 5)번이 4회의 출현 횟수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대응 예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다양한 한자를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예들이 나타나지만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으로 모두가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가 130회가 있으며 이외 또 ‘a/아/曷1(*at)’가 17회, ‘a/아/寒1(*an)’가 4회 등 *-t 혹은 *-n의 자음운미 글자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 번역에서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만 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글 표기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정연하게 개음절 범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 ‘dha/다’ 6)번~8)번

에서는 定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40) ‘佗’는 중고음에서 透母 歌1韻 *tha, 定母 歌1韻 *da 두 종류의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透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번이 54회, 7)번이 21회로 일반대응에 속하고 8)번이 소수대응이 된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dh/ㄷ/定(*d)’으로 모두 완전 일치한다. 여기에서 유성유기음 범자 ‘dh’에 한글 평음 ‘ㄷ’가 표기되고 한자는 全濁音의 定母 글자를 사용하여 일반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서 아음에서 고찰한 ‘gh/ㄱ/群(*g)’와 체계적으로 평행한다. 다음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가 75회, ‘a/아/曷1(*at)’가 1회이다.

☞ ‘tha/타’ 9)번~10)번

9)번이 22회, 10)번이 13회로 출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자음의 대응이 ‘th/ㅌ/透(*th)’, 모음의 대응이 ‘a/아/歌1(*a)’로 두 예가 완전히 일치한다.

☞ ‘da/나’ 11)번~16)번

여기에서는 다양한 예들이 나타나며 총 45회 출현하는데 그 중 11)번이 32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에서 대부분 ‘d/ㄴ/泥(*n)’로 나타나고 총 41회이다. 여기에서도 유성음 범자 자음과 비음의 한글, 한자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타 자음의 대응을 보면 14)번의 ‘d/ㄴ/娘(*n)’가 2회, 15)번의 ‘d/ㄷ/端(*t)’가 1회이다. 이 중 14)번은 한자 泥母 대신 娘母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 泥母와 娘母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한 것이다. 이들의 혼용은 한글의 ‘ㄴ’ 표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娘母의 대응을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15)번에서는 유성음의 범자 자음 ‘d’의 대응에 한글이 마땅히 비음의 ‘ㄴ’가 나타나야 하는데 ‘ㄷ’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자 ‘多’의 성모가 端母 *t인데 범자 자음 ‘d’와 대응하는 오류에 의한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a)’로 대부분 일치하지만 13)번에서만 ‘a/아/哈1(*ai)/4’의 대응이 나타난다. 주요모음 *ə의 반영을 앞선 고찰의 다른 모음의 출현 예와 비교하여 비교적 넓은 영역의 대응이라 볼 수 있겠지만 모음운미 ‘*-i’의 대응이 보임이 비교적 특이하다.

ㄱ ‘na/나’ 17)번~21)번

여기에서도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는데 총 136회에서 17)번만 122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거의 대부분 ‘n/ㄴ/泥(*n)’로 일치하고 20)번 예에서만 ‘n/ㄴ/娘(*n)’의 대응이 1회 나타나는데 예외로 처리된다. 모음의 대응은 17번이 ‘a/아/唐1(*aŋ)’이 122회로 제일 많고 18)번과 19)번이 ‘a/아/歌1(*a)’의 대응으로 총 12회이다. 이외 20)번의 ‘a/아/麻2(*ɣa)’가 1회, 21)번의 ‘a/아/靑4(*eŋ)’가 1회인데 예외이다. 그 중 20)번은 한자의 자모가 娘母이므로 2등운 혹은 3등운 글자에만 출현해야 하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3.1.1.3 권설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권설음인 예로 ‘ʈa, ʈha, ɖa, ɖha, ɳa’가 출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3

- 1) ʈa/타/吒/13 [S;7, Q;1, D;5] [吒:知母 麻2韻 *tɣa]
- 2) ʈa/타/姪/1 [F;1] [姪:徹母 麻2韻 *tɥa]
- 3) ʈha/타/吒/1 [D;1] [吒:徹母 麻2韻 *tɣa]
- 4) ɖha/다/茶/2 [Q;1, D;1] [茶:澄母 麻2韻 *dɣa]
- 5) ɖa/나/拏/5 [D;5] [拏:娘母 麻2韻 *nɣa]
- 6) ɳa/나/拏/21 [S;1 Q;11, D;8, F;1] [拏:娘母 麻2韻 *nɣa]
- 7) ɳa/나/弩/4 [D;4] [弩:泥母 模1韻 *no]

위의 예3에서 범자와 한글의 대응으로 ‘ʈa/타, ʈha/타, ɖha/다, ɳa/나’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ㄱ ‘ʈa/타’ 1)번~2)번

자음의 대응을 보면 1)번이 ‘ʈ/ㅌ/知(*t)/13’이고 2)번이 ‘ʈ/ㅌ/徹(*th)/1’으로 2)번이 예외가 된다. 권설음의 범자 자음 ‘ʈ’가 무엇 때문에 한글에서 유기음의 ‘ㅌ’로 표기됨이 비교적 특이하다. 혹시 한자 ‘吒’의 한국한자음 ‘

타'41)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ㄱ 'tha/타' 3)번

이에 3)번의 예 'tha/타/吒' 하나만 있는데 출현 횟수도 1회이다. 이에 사용된 한자 '吒'는 앞서 'ta/타'의 1)번 일반대응에서 사용하는 한자 '吒'와 일치한다. 즉 3)번의 예는 예외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한글만 보아서는 유기음 범자 자음의 'th'을 유기음의 한글 자음 'ㅌ'로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적 자연스럽다. 권설음 범자 자음 't'와 'th'의 한글 표기의 특이한 현상은 3.2.3절의 자음 음절에서도 나타난다.

ㄴ 'dha/다' 4)번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dh/ㄷ/澄(*d)'으로 유성유기음의 범자 자음과 평음의 한글 표기 및 全濁音의 한자가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아음과 설음에서의 예와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ㄷ 'na/나' 6)번~7)번

6)번의 자음의 대응은 'n/ㄴ/娘(*n)/21'이고 7)번은 'n/ㄴ/泥(*n)/4'이다. 출현 빈도를 보아 권설음 비음의 대응에서 6)번의 娘母가 일반적이다. 앞서 설음의 범자 자음 'n' 대응에 한자 자모 泥母를 규칙 대응으로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娘母를 규칙대응으로, 泥母를 예외로 할 것이다.

위의 고찰은 자음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였다. 권설음 범자는 치조음 계열로 한글 표기에서는 앞선 설음의 표기와 같이 'ㄷ, ㅌ, ㄴ'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 표기에서는 설음에서 端系가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권설음에서는 知系가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知系 자모는 중고한어에서 출현 제약이 있어 2등운과 3등운에만 나타난다. 위의 권설음 한자 표기 예의 운모 또한 모두 2등운 글자로 'a/아/麻2(*ɣa)'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대응에 속하긴 하지만 본고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운모의 대응을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1) 중세 한국한자음을 찾을 수 없어 현대 한국한자음을 참고하였다.

3.1.1.4 순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순음인 예로 ‘pa, pha, bha, ma, va’가 출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4

- 1) pa/ㅍ/跛/54 [S;2, Q:14, D;31, F;7] [跛⁴²⁾:幫母 戈1韻 *pa]
- 2) pa/ㅍ/播/24 [S;2, G;1, Q:11, D;10] [播:幫母 戈1韻 *pa]
- 3) pa/ㅍ/鉢/18 [S;6, Q:1, D;11] [鉢:幫母 末1韻 *pat]
- 4) pa/ㅍ/泮/1 [S;1] [泮:滂母 桓1韻 *phan]
- 5) pa/ㅍ/發/1 [D;1] [發:幫母 月3韻 *piɤt]
- 6) pha/ㅍ/發/60 [S;2, D;58] [發:滂母 月3韻 *piɤt]
- 7) pha/ㅍ/泮/10 [S;10], [泮:滂母 桓1韻 *phan]
- 8) pha/ㅍ/頗/1 [D;1] [頗:滂母 戈1韻 *pha]
- 9) bha/ㅍ/婆/85 [S;7, G;6, Q:19, D;48, F;5] [婆:并母 戈1韻 *ba]
- 10) bha/ㅍ/跛/4 [Q:2, D;2] [跛:滂母 戈1韻 *pa]
- 11) bha/ㅍ/溥/1 [D;1] [溥⁴³⁾:滂母 鐸1韻 *pak]
- 12) va/ㅍ/嚕/172 [S;29, G;10, Q:49, D;71, F;13] [嚕:*?]
- 13) ma/ㅁ/麼/100 [S;2, Q:51, D;36, F;11] [麼:明母 戈1韻 *ma]
- 14) ma/ㅁ/摩/67 [S;14, G;9, Q:4, D;38, F;2] [摩:明母 戈1韻 *ma]
- 15) ma/ㅁ/磨/1 [Q:1] [磨:明母 戈1韻 *ma]

위의 예4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pa/ㅍ, pha/ㅍ, bha/ㅍ, va/ㅍ, ma/ㅁ’가 있다. 한자의 중고한어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pa/ㅍ’ 1)번~5)번

자음의 대응은 대부분 ‘p/ㅍ/幫(*p)’으로 일치하지만 4)번에서만 ‘p/ㅍ/滂(*ph)/1’의 예외가 나타난다. 모음의 대응은 ‘a/ㅏ/戈1(*a)’가 총 78회, ‘a/ㅏ

42) ‘跛’는 중고음에서 幫母 戈1韻 *pa와 幫母 支B韻 *puɿe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43) ‘溥’는 중고음에서 幫母 鐸1韻 *pak와 滂母 模1韻 *pho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末1(*at)'가 총 18회 및 'a/아/桓1(*an)', 'a/아/月3(*irt)'가 각각 1회 나타난다.

☞ 'pha/바' 6)번~8)번

자음의 대응에서 6)번은 'ph/ㅂ/幫(*p)'으로 60회이고, 7)번과 8)번은 'ph/ㅅ/滂(*ph)'으로 총 11회이며 한자의 자모에서 차이를 보여준다(유기음 범자 'ph'에 한글이 평음의 'ㅂ'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제5장의 5.2.1절 초성 표기에서 다룰 것이다.).

6)번의 구체적인 대응 예는 'pha/바/發/60'으로 한자 '發'은 幫母이며 3등운 글자이다. 그리고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輕唇音으로 변화한다. 제2장의 중고한어 음가의 고찰에서 이러한 글자들은 전기 중고한어시기에 음성적으로 마찰성을 가지고 있어 [pf]의 음가에 가까웠을 것이라 하였다. 즉 '發'은 비록 중국어의 음소적인 차원에서 幫母에 속하지만 음성적인 [pf]의 특성에 의하여 유기음 범자 'ph'와 대응하였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6)번의 'ph/ㅂ/幫(*p)/60'은 예외의 대응으로 처리한다. 즉 여기에서는 7)번과 8)번의 대응이 일반대응이 된다.

모음의 대응은 6)번은 'a/아/月3(*irt)/60', 7)번은 'a/아/桓1(*an)/10', 8)번은 'a/아/戈1(*a)/1'이다.

☞ 'bha/바' 9)번~11)번

자음의 대응에서 9)번이 'bha/바/并(*b)/85'로 일반대응이고, 10)번과 11)번은 'bha/바/幫(*p)'의 소수대응이며 일반대응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의 원인은 중국어 번역에서 범자 'bh' 자음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a/아/戈1(*a)'은 89회이고, 'a/아/鐸1(*ak)'은 1회이다.

☞ 'va/바' 12)번

여기에서 한자 '𪛗'는 진언 표기를 위한 造字이므로 중고한어음을 찾을 수 없는데 172회의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음의 대응과 모음의 대응을 'v/ㅂ/𪛗(*?)/172', 'a/아/𪛗(*?)/172'로 할 것이다.

ㄹ‘ma/마’ 13)번~15)번

이 예들은 자음의 대응은 ‘m/口/明(*m)’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戈 1(*a)’로 매우 정연하다.

위의 대응 예에서 한글 ‘바’는 범자 ‘pa’, ‘pha’, ‘bha’, ‘va’ 네 가지 음가와 동시에 대응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음가 분석은 제 5장의 5.2.1의 초성 표기에서 다룰 것이다.

3.1.1.5 치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치음인 예로 ‘ca, cha, ja, śa, ṣa, sa’가 출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5

- 1) ca/자/左/45 [S;5, Q:18, D;16, F;3] [左:精母 歌1韻 *tsa]
- 2) ca/자/撈/5 [G:1, D;4] [撈:精母 曷1韻 *tsat]
- 3) ca/자/佐/3 [G:1, D;2] [佐:精母 歌1韻 *tsa]
- 4) ca/자/櫟/1 [D;1] [櫟:精母 曷1韻 *tsat]
- 5) ca/자/斫/1 [D;1] [斫:章母 藥3韻 *tɕiak]
- 6) cha/차/蹉/4 [G:1, D;3] [蹉:清母 歌1韻 *tsha]
- 7) ja/ㄸ/惹/47 [S;4, G:3, Q:17, D;18, F;5] [惹⁴⁴⁾:日母 麻3韻 *ɲia]
- 8) śa/샤/捨/14 [S;4, G:3, D;7] [捨:書母 麻3韻 *cia]
- 9) śa/샤/舍/13 [S;2, G:2, D;8, F;1] [舍:書母 麻3韻 *cia]
- 10) śa/샤/設/12 [S;1, G:5, D;6] [設:書母 麻3韻 *cia]
- 11) śa/샤/爍/1 [D;1] [爍:書母 藥3韻 *ciak]
- 12) śa/샤/寫/1 [D;1] [寫:寫心母 麻3韻 *sia]
- 13) śa/샤/設/1 [S;1] [設:書母 麻3韻 *cia]⁴⁵⁾
- 14) śa/샤/捨/1 [G:1] [捨:書母 麻3韻 *cia]⁴⁶⁾
- 15) ṣa/사/灑/16 [S;4, G:1, G:1, D;10] [灑⁴⁷⁾:生母 麻2韻 *fɣa]

44) “惹”는 중고음에서 日母 麻3韻 *ɲia와 日母 藥3韻 *ɲiak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麻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45) 원본 21b

46) 원본 36b

- 16) ʃa/사/沙/2 [S:1, F:1] [沙:生母 麻2韻 *ʃʏa]
- 17) ʃa/사/殺/1 [D:1] [殺⁴⁸):生母 鎋2韻 *ʃʏæt]
- 18) sa/사/娑/74 [S:6, G:14, Q:15, D:29, F:11] [娑:心母 歌1韻 *sa]
- 19) sa/사/薩/18 [S:4, G:2, G:6, D:6] [薩:心母 曷1韻 *sat]

위의 예5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ca/자, cha/차, ja/차, śa/샤, ʃa/사, sa/사’ 등의 대응이 있다. 한자의 중고한어음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ㄷ ‘ca/자’ 1)번~5)번

이에 비교적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는데 총 55회의 출현 횟수에서 1)번 예가 45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거의 대부분 ‘c/𪛗/精(*ts)’으로 일치한다. 다만 5)번에서 한자의 자모 章母 *tɕ가 1회 나타난다. 이를 단순한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는 범어의 치음과 중국어의 치음이 1:多의 대응이 가능하였다. 즉 중고한어에서는 精系, 章系, 莊系 세 종류의 치음계열이 있고 그 중 권설음의 莊系를 제외한 精系와 章系가 모두 범자 치음과 대응될 수 있었다. 즉 이 중 범어 치음의 음가와 더 가까운 精系の 글자를 선호하겠지만 章系の 글자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다만 진언 표기에서 범자 ‘c’ 자음의 표기로 精母 글자의 사용 빈도가 章母보다 훨씬 월등하므로 통계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특히 이들의 차이는 한글 표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는 범자 ‘c’ 자음의 대응 통계에서 精母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a)/48’가 제일 많고, 이외 ‘a/아/曷1(*at)/6’와 ‘a/아/藥3(*iak)/1’가 있다.

ㄷ ‘cha/차’ 6)번

47) “灑”은 중고음에서 生母 麻2韻 *ʃʏa, 生母 支B韻 *ʃʏiɛ와 生母 皆2韻 *ʃʏei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48) “殺”은 중고음에서 生母 鎋2韻 *ʃʏæt, 生母 皆2韻 *ʃʏei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여기에서는 5)번의 한 가지의 예만 있고 출현 횟수도 4회로 많지 않다. 자음의 대응은 ‘ch/츠/清(*tsh)/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4’이다.

☞ ‘ja/ㅈ’ 7)번

여기에서도 한 가지의 예만 있는데 47회의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음의 대응은 ‘j/ㅈ/日(*n_ㅈ)’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麻3(*ia)’이다. 여기에서 모음의 한자 3등운을 사용하는 것은 日母자가 반드시 3등운에 출현해야 하는 제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대응은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앞서 자음의 대응에서 일반적으로 유성음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 한자가 대응함을 보았다. 범자 자음 ‘j’도 유성음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 日母 *n_ㅈ⁴⁹⁾ 역시 비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한글 표기로 써 반치음 ‘ㅈ’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당시의 한국어의 ‘ㅈ’이 비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이는 외국어 표기의 대응이기 때문에, ‘ㅈ’에 비음의 성격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하므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sa/ㅅ’, 8)번~12)번 ‘sa/ㅅ’ 13)번, ‘sa/ㅅ’ 14)번

여기에서는 우선 범자와 한글의 ‘sa/ㅅ’ 대응에 대해 볼 것이다. 범자 모음은 단모음의 ‘a’이지만 한글은 상향이중모음의 ‘ㅅ’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응 한자의 운모를 보면 麻3韻 *ia이어서 한자의 3등운 세음성 개음의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3등운은 한자가 적지 않게 출현하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자와 상관없이 한글의 활음 ‘j’은 범자 자음 ‘s’의 구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범자 음절을 ‘s+a’로 분리하고, 한글 표기는 ‘시+아’로 분리하면, 자음의 대응은 마땅히 ‘s/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음의 대응 분석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복자음 음절 ‘sua’의 한글 표기를 들 수 있다. 범자 자음의 연쇄 발음 사이에 한글 표기에서는 흔히 ‘으’ 모음을 첨가하여 나타나는데 범자 자음 ‘s’와 ‘v’의 연쇄표기에서 ‘시바’

49) 중국어 음운학 연구 분야에서 日母 음가의 제구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日母 글자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 비음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파찰음으로도 반영되기도 한다.

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에서 ‘시’는 범자 자음 ‘ś’와 대응하고, ‘으’ 모음은 첨가된 것이다(본고의 4.1.3절을 참고 할 수 있음).

다음 13)번의 ‘śa/셔/設/1’와 14)번의 ‘śa/사/捨/1’를 보면 모두 소수대응이다. 13)번 예와 10)번의 ‘śa/샤/設/12’와 비교하여 보면 한글에서만 ‘샤’와 ‘셔’의 차이가 보이는데 ‘샤’가 12회, ‘셔’가 1회로 13)번 표기는 한글의 예외 표기임을 알 수 있다. 14)번과 8)번 ‘śa/샤/捨/14’을 비교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한글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샤’가 14회, ‘사’가 1회로 14)번 예가 예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일반대응을 기준으로 자음의 대응이 ‘ś/시/書(*c)’이고 모음의 대응이 ‘a/아/麻3(*ia)’으로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가 3등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書母가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에 의한 것으로 음소 대응 고찰의 통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유독 12)번 자음의 대응에서만 ‘ś/시/心(*s)/1’의 예외가 나타난다. 대응 한자가 ‘寫’인데 이는 성모 心母 *s가 3등운의 세음성 개음 ‘i’와 결합하면서 ‘si’의 음가가 나타나면서 범자 자음 ‘ś’를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śa/샤’ 15)번~17)번, ‘sa/사’ 18)번~19)번

권설음의 범자 ‘śa’와 일반 마찰음의 ‘sa’의 한글 표기는 모두 ‘샤’로 동일하다. 하지만 범자 ‘śa’에서 자음의 대응 ‘ś/ㅅ/生(*f)’가 일반적이고, ‘sa’에서 ‘s/ㅅ/心(*s)’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즉 한글에서는 범자 자음 ‘ś’와 ‘s’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자 번역의 경우 하나는 莊系의 生母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精系의 心母를 사용하여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śa’에서는 ‘a/아/麻2(*ya)’로 2등운 한자를 사용하고, ‘sa’에서는 ‘a/아/歌1(*a)’ 혹은 ‘a/아/曷1(*at)’로 1등운 한자를 사용한다. 권설음 ‘śa’에서 2등운 한자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자모가 莊系 즉 生母이며 2등운 혹은 3등운에만 나타나야 한다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이 또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3.1.1.6 후음류 및 기타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후음 및 기타인 예로 ‘ya, ha, ra, la’가 출현한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6

- 1) ya/야/野/229 [S;45, G;12, Q;61, D;91, F;20] [野⁵⁰):以母 麻3韻 *jia]⁵¹⁾
- 2) ya/야/夜/38 [S;4, G;1 Q;1, D;32] [夜:以母 麻3韻 *jia]
- 3) ha/하/賀/344 [S;56, G;14, Q;129, D;137, F;8] [賀:匣母 歌1韻 *ha]
- 4) ha/하/訶/1 [S;1] [訶:曉母 歌1韻 *ha]
- 5) ra/라/囉/228 [S;39, G;13, Q;61, D;104, F;11] [囉:*?]
- 6) ra/라/略/1 [D;1] [略:*?]
- 7) la/라/囉/91 [S;12, Q;36, D;43] [囉:來母 模1韻 *lo]
- 8) la/라/羅/2 [S;1, Q;1] [羅:來母 歌1韻 *la]
- 9) la/라/邏/7 [Q;6, D;1] [邏:來母 歌1韻 *la]
- 10) la/라/囉/1 [D;1] [囉:*?]

위의 예6에서 먼저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ya/야, ha/하, ra/라, la/라’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한어 음가와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ya/야’ 1)번~2)번

위의 1)번과 2)번 예는 각각 229회와 38회로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글 표기가 예외 없이 ‘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sa/샤’와 같은 상황이다. 즉 범자 모음이 단모음의 ‘a’이지만 한글 모음은 ‘야’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응 관계는 ‘y/이’와 ‘a/아’가 된다. 한자와 결합하여 보면 자음의 대응이 ‘y/이/以(*j)’로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a/아/麻

50) “野”는 중고음에서 以母 麻3韻 *ia, 禪母 魚3韻 *dziy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를 음가를 택하였다.

51) 대응 한자가 비록 以母 麻3韻 *jia으로 재구하였지만 특히 以母는 오직 3등운에서만 출현하는 것으로 실제 음절은 단순한 *ia일 것이다. 以母의 실제 음가는 ∅이다. 하지만 자음 대응의 규칙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j라 하여 ‘y/이/以(*j)’로 대응시킬 것이다.

3(*ia)’으로 일치한다. 자모 以母 역시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3등운 운모 麻3韻의 대응 역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 ‘ha/하’ 3)번~4)번

먼저 출현 빈도를 보면 3)번이 344회이고, 4)번이 1회로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3)번의 자음의 대응은 ‘h/ㅎ/匣(*h)/344’이고 4)번은 ‘h/ㅎ/曉(*h)/1’이다. 이에 4)번을 소수대응으로서 예외로 볼 수 있겠지만,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 범자 *h와 대응이 가능한 후음은 匣母 *h와 曉母 *h 두 가지로 1:多의 대응이 된다. 여기에서는 曉母의 출현 횟수가 비록 1회 밖에 되지 않지만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의 모음의 대응은 모두 ‘a/아/歌1(*a)’로 완전히 일치한다.

☞ ‘ra/라’ 5)번~6)번, ‘la/라’ 7)번~10)번

위의 예에서 범자 ‘ra’와 ‘la’의 한글 표기가 모두 ‘라’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범자 ‘ra’ 대응에 ‘囉, 略’ 등 부수 ‘口’를 첨가한 造字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범자 ‘la’는 ‘攞, 羅, 邏’ 등 일반 중국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來母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중고한어의 재구 음가의 고찰에서 당시 來母의 음가가 *r이 아닌 *l와 가까웠을 것임을 보았다. 즉 한자 표기에서 범자 자음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고 있지만 한글에서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자음의 대응을 고찰함에 있어 범자 ‘r’에서 대표적인 한자를 택하여 ‘r/ㄹ/囉(*?)’로 하고, ‘l’은 ‘l/ㄹ/來(*l)’로 할 것이다. ‘r’과 ‘l’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하여 이와 같은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들을 모두 음소대응 고찰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7)번 예가 ‘a/아/模1(*o)/91’, 8)번과 9)번을 합한 예가 ‘a/아/歌1(*a)/9’이다. 하지만 7)번은 범자 자음 ‘l’과의 대응을 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운모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어 원순모음의 模1韻을 사용하였을 것이다.⁵²⁾ 즉 비록 91회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52)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한자 ‘攞’의 상고한어 운부는 魚部이며 주요 모음이 ‘a’이며, 중고한어로 가면서 a>o의 음운변화를 겪는다. 보다 이른 시기의 불경 번역에서 범자 ‘a’ 모음의 대응에 ‘攞’를 사용하였고 후기의 불경 번역에서는 일부 전

는 자음의 대응을 위한 고려에 의한 것으로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1.2 ‘C+i’ 음절

본 절은 ‘C+i’류 범자 음절의 예에 대해 볼 것인데 역시 C자음의 종류에 따라 볼 것이다.

예7 아음류

- 1) ki/기/枳/43 [S;9, G;7, Q;5, D;22] [枳⁵³):見母 支A韻 *kiɛ]
- 2) ki/기/祇/3 [S;3] [祇:群母 支A韻 *giɛ]
- 3) ki/기/岐/2 [Q;2] [岐:群母 支A韻 *giɛ]
- 4) gi/이/擬/10 [Q;2, D;8] [擬⁵⁴):疑母 之3韻 *ŋi]

위의 예7은 C자음이 아음인 표기 예들인데 범자 음절의 유형은 ‘ki, gi’ 두 가지만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1)번의 ‘k/ㄱ/見(*k)/43’, 4)번의 ‘g/ㅇ/疑(*ŋ)/10’가 앞서 ‘a’ 모음 음절에서 고찰한 아음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하지만 2)번, 3)번의 자음의 대응은 ‘k/ㄱ/群(*g)/5’로 한자가 마땅히 見母이어야 하는데 群母가 예외로 나타난다. 이들을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에 5회라는 출현 횟수를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 모음 ‘i’ 대응의 중뉴 A류 한자를 찾아야 하는 우선 조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모음의 대응을 위한 제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음소 대응의 고찰을 위한 통계에서는 이들을 제외시킬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모두 ‘i/이/支A(*iɛ)/48’, ‘i/이/之3(*i)/10’으로 정연하게 대

통적인 표기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다. 즉 당시의 중고한어에서 a>o의 음운변화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진언 독송에서는 여전히 옛 발음의 ‘a’ 모음으로 읽혔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에서 이같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한자의 예로 상고한어 魚部 *a의 ‘弩’, 月1部 *at의 ‘揭, 羯, 發’가 더 있다. 상고한어의 음가는 권혁준 역 (2014)를 참고하였다.

- 53) ‘枳’는 중고음에서 見母 支A韻 *kiɛ와, 章母 支3韻 *tɕiɛ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그 중 見母 음가를 선택하고 章母 음가를 제외시켰다.
- 54) ‘擬’ 역시 중고음에 疑母 之3韻의 *ŋi와 曉母 哈1韻의 *hɛi가 있는데 성모가 疑母인 음가를 선택하고 曉母는 제외시켰다.

응되어 있다. 특히 支3韻이 모음 ‘i’와의 대응에서 중뉴 A류 글자와 대응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支3韻과 之3韻은 모두 止攝에 속하며 止攝 글자들은 보다 이른 시기인 전기 중고한어 시기부터 혼용하기 시작하여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이르러 점차 합류한다.⁵⁵⁾

다음은 설음류 범자의 표기 예들을 보겠다.

예8 설음류

- 1) ti/디/底/48 [S;2, Q;20, D;22, F;4] [底:端母 齊4韻 *tei]
- 2) dhi/디/地/33 [S;4, G;1, Q;8, D;11, F;9] [地:定母 脂3韻 *di]
- 3) di/니/你/8 [S;5, Q;3] [你:娘母 之3韻 *ni]
- 4) di/니/儻/1 [S;1] [儻:娘母 耕2韻 *niŋ]
- 5) di/니/泥/1 [F;1] [泥:娘母 支3韻 *niē]
- 6) di/니/泥/1 [F;1] [泥:泥母 齊4韻 *nei]
- 7) ni/니/你/6 [S;2, D;4] [你:娘母 之3韻 *ni]
- 8) ni/니/儻/7 [S;7] [儻:娘母 耕2韻 *niŋ]
- 9) ni/니/顛/46 [Q;26, D;20] [顛:泥母 靑4韻 *neŋ]
- 10) ni/니/泥/1 [D;1] [泥:娘母 支3韻 *niē]

위의 예8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ti, dhi, di, ni’등이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48’, ‘dh/ㄸ/定(*d)/33’가 ‘a’ 모음 음절의 대응과 일치한다. 다음 유성음 범자 ‘d’의 대응에서 ‘d/ㄴ/娘(*n)/10’, ‘d/ㄴ/泥(*n)/1’가 있고, ‘n’의 대응에 ‘n/ㄴ/娘(*n)/14’와 ‘n/ㄴ/泥(*n)/46’이 있다. 단순히 범자와 한글을 보면 ‘d/ㄴ’, ‘n/ㄴ’의 대응은 앞선 ‘a’ 모음 음절의 고찰과 일치한다. 다만 한자에서 ‘a’ 모음 음절에서는 泥母를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娘母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의 대응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55) 北齊 顏之推 《顏氏家訓·音辭篇》에서 북방 사람들은 “以紫爲姊”라며 북방 사람들의 발음을 지적한 글이 있다. ‘紫’는 支韻의 상성 글자이고, ‘姊’는 脂韻의 상성 글자로 이는 북방 사람들은 支韻과 脂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남방 사람들은 분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唐시기 《五經文字》에 이르러 支韻, 脂韻, 之韻이 완전히 합류한다. 微韻은 비록 합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완전히 합류하지 않았다(邵榮芬 1964). 후기 중고한어의 문헌자료인 慧琳 《一切經音義》(807)에 이르러 止攝 글자들이 완전히 합류한다(黃淬伯 1930).

범자 모음 ‘i’ 대응에 일반적으로 止攝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止攝에는 오직 3등운 글자만 있다. 설음과의 일반적인 대응으로 端系 자모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3등운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자 자모와 운모의 출현 조건이 모순된다. 모음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면 자모의 선택에서 3등운에 출현 가능한 娘母등을 선택해야 하고, 자음의 대응을 우선하게 되면 모음의 대응에서 기타 4등운 글자로 대체하여야 하는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1)번, 6)번, 9)번의 한자가 4등운 齊4韻, 靑4韻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기타 3등운 글자를 중심으로 보면 ‘i/이/脂3(*i)/33’, ‘i/이/之3(*i)/14’, ‘i/이/支3(*)/2’가 일반대응이 된다. 이외 4)번과 8)번은 같은 한자 ‘儻’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등운 글자로 예외이다. 이는 자모 娘母가 3등운 및 2등운에도 출현할 수 있다는 출현 조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다 특이한 예로 2)번에서 한자 ‘地’는 定母의 제약에 의하여 4등운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3등운의 脂3韻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자 ‘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실제 후기 중고한어시기의 韻圖 자료에서도 3등칸에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중국어 음운학계에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는 듯하다.

다음은 권설음류의 예에 대해 보겠다.

예9 권설음류

- 1) ti/티/置/4 [Q;4] [置:知母 之3韻 *ti]
- 2) ti/티/致/5 [D;5] [致:知母 脂3韻 *ti]
- 3) ni/니/拈/49 [S;2, G;1, Q;32, D;9, F;5] [拈:娘母 支3韻 *niɛ]
- 4) ni/니/尼/3 [S;1, Q;2] [尼:娘母 脂3韻 *ni]
- 5) ni/니/顛/3 [Q;3] [顛:泥母 靑4韻 *neɯ]
- 6) ni/니/泥/1 [F;1] [泥:泥母 齊4韻 *nei]
- 7) ni/네/祢/1 [D;1] [祢:泥母 齊4韻 *nei]

위의 예9에서 범자 음절의 종류는 ‘ti, ni’ 두 가지가 있고 자음의 대응은

‘t/ㄷ/知(*t)/9’, ‘n/ㄴ/娘(*n)/52’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또한 ‘i/이/之3(*i)/4’, ‘i/이/支3(*iē)/49’, ‘i/이/脂3(*i)/8’ 등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5)번~7)번에서 일부 한자 泥母의 대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고한어 娘母와 泥母의 음가 유사성에 의한 혼용일 것이다. 泥母의 영향을 받아 한자 운모도 4등운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특히 7)번에서 한글이 일반대응에서 ‘니’로 나타나야 하는데 ‘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등운 한자는 일반대응에서 범자 ‘e’ 모음과 대응하고 한글은 ‘예’ 모음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0 순음류

- 1) pi/비/比/3 [S;2, Q;1] [比⁵⁶:幫母 脂A韻 *pi]
- 2) pi/비/枇/2 [D;2] [枇:幫母 脂A韻 *pi]
- 3) pi/비/枇/1 [D;1] [枇⁵⁷:幫母 脂A韻 *pi]
- 4) bhi/비/鼻/12 [Q;8, D;2, F;2] [鼻:并母 脂A韻 *bi]
- 5) mi/미/弭/60 [S;3, G;5, Q;4, D;47, F;1] [弭:明母 支A韻 *miē]
- 6) vi/미/尾/138 [S;16, G;4, Q;53, D;59, F;12] [尾:明母 微3韻 *mii]
- 7) vi/미/味/4 [S;4] [味:明母 微3韻 *mii]
- 8) vi/미/微/2 [S;2] [微:明母 微3韻 *mii]

위의 예10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pi, bhi, mi, vi’로 되어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ㅍ/幫(*p)/6’, ‘bh/ㅂ/并(*b)/12’, ‘m/ㅁ/明(*m)/60’이 있는데 이들은 ‘a’ 모음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v’ 자음의 대응에서 ‘v/ㅍ/明(*m)/144’로 나타나는데 ‘a’ 음절에서 한글 초성은 ‘ㅂ’이다. 한글 ‘ㅍ’ 대응에는 한자 자모가 明母 *m가 쓰이고 ‘ㅂ’ 대응에는 한자가 거의 대부분 ‘ㅍ’이 쓰인다. 부수 ‘ㅍ’를 제외한 ‘縛’이 并母 *b인 것으로 아마 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6) ‘比’는 중고음에서 幫母 脂A韻 *pi, 并母 脂A韻 *bi, 并母 質A韻 *bit의 세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57) ‘枇’는 중고음에서 幫母 脂A *pi와 并母 脂A韻 *bi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i/이/脂A(*i)/18’, ‘i/이/支A(*iE)/60’, ‘i/이/微3(*i)/144’이다. 여기에서도 중뉴 A류 글자를 사용하며, 止攝 내의 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치음류를 보겠다.

예11 치음류

- 1) ci/지/唧/12 [G;4, Q;7, D;1] [唧:*?]
- 2) ci/지/紫/1 [D;1] [紫:精母 支3韻 *tsiE]
- 3) ji/△/爾/9 [G;1, Q;1, D;7] [爾:日母 支3韻 *ŋiE]
- 4) ji/△/喏/3 [S;1, Q;2] [喏:*?]
- 5) ji/△/𠵿爾/1 [D;1] [𠵿爾:*?]
- 6) śi/시/試/4 [G;1, D;3] [試:書母 之3韻 *ei]
- 7) śi/시/始/4 [Q;3, D;1] [始:書母 之3韻 *ei]
- 8) śi/시/施/1 [D;1] [施:書母 支iE韻 *eiE]
- 9) śi/시/悉/1 [D;1] [悉:心母 質3韻 *sit]
- 10) ʃi/시/史/3 [Q;2, D;1] [史:生母 之3韻 *fi]
- 11) ʃi/시/臬/1 [G;1] [臬:心母 之3韻 *si]
- 12) ʃi/시/悉/1 [D;1] [悉:心母 質3韻 *sit]
- 13) si/시/悉/10 [S;2, Q;5, D;3] [悉:心母 質3韻 *sit]
- 14) si/시/臬/10 [Q;3, D;7] [臬:心母 之3韻 *si]
- 15) si/시/始/1 [D;1] [始:書母 之3韻 *ei]

위의 예11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ci, ji, śi, ʃi, si’로 되어 있다. 먼저 일부 예들에서 즉 1)번, 4)번, 5)번에서 한자가 ‘唧, 喏, 𠵿爾’ 등의 造字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 ‘i’인 관련 자음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造字를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음소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대응예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기타 대응들을 중심으로 자음의 대응을 보면 ‘c/ㄗ/精(*ts)/1’, ‘j/△/日(*ŋ)/9’, ‘ś/시/書(*ɕ)/9’, ‘ʃ/ㄣ/生(*f)/3’, ‘s/ㄣ/心(*s)/20’이 일반대응이다. 이외 예외가 있으나 주로 한자 자모의 혼용에 있으며, 한글 표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i/이/支3(*iE)/11’, ‘i/이/之3(*i)/23’, ‘i/이/質3(*it)/12’

로 나타난다.

다음은 후음 및 기타류에 대해 보겠다.

예12 후음 및 기타류

- 1) yi/이/以/1 [S;1] [以:以母 之3韻 *ji]
- 2) ri/리/哩/108 [S;18, G;12, Q;47, D;25, F;6] [哩:*?]
- 3) ri/리/里/2 [D;1, F;1] [里:來母 之3韻 *li]
- 4) li/리/里/10 [Q;5, D;5] [里:來母 之3韻 *li]

위의 예12에서 범자 음절은 ‘yi, ri, li’가 있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은 ‘y/이/以(*)/1’, ‘r/ㄹ/哩(*)/108’, ‘l/ㄹ/來(*)/10’이고, 모음의 대응은 ‘i/이/之3(*)/13’이다. 2)번의 한자 ‘哩’는 造字로 범자 자음 ‘r’과 ‘l’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음의 대응 통계에서만 반영하고 모음의 대응에서는 의미가 없기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3)번과 4)번에서 동일 한자 ‘里’를 사용하고 있는데 4)번이 더 일반성을 띠고 있다. 3)번은 음가의 유사성에 의한 것이지만 통계에 넣지 않고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3.1.3 ‘C+e’, ‘C+ai’ 음절

본 절은 ‘C+전설모음’류 범자 음절의 표기 예에 대해 보겠다. 전설모음 ‘e’와 ‘ai’를 포함하여 함께 볼 것이다.

예13 아음류

- 1) ke/계/計/10 [S;2, Q;1, D;7] [計:見母 齊4韻 *kei]
- 2) khe/계/契/2 [Q;1, D;1] [契⁵⁸):溪母 齊4韻 *khei]
- 3) ge/예/藝/2 [S;2] [藝:疑母 祭A韻 *ŋiei]
- 4) ge/예/霓/2 [D;2] [霓⁵⁹):疑母 齊4韻 *ŋei]

58) ‘契’는 중고한어에서 溪母 齊4韻 *khei, 溪母 迄3韻 *khiæt, 溪母 屑4韻 *khet의 세 가지 음가가 있는데 이들의 성모는 모두 溪母로 차이가 없지만 운모는 齊韻을 제외한 나머지 음이 각각 迄韻, 屑韻의 入聲韻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진언 표기에 사용된 음가는 齊韻일 것으로 추정된다.

59) ‘霓’는 중고한어에서 疑母 齊4韻 *ŋei와 疑母 屑4韻 *ŋet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성모가 모두 疑母로 같지만 운모에 차이가 있는데 齊韻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 5) kai/계/髻/1 [G:1] [髻:見母 末1韻 *kat]
 6) kai/계/𪔐/1 [F:1] [𪔐:見母 祭B韻 *kɯiɛi]⁶⁰⁾
 7) kai/계/𪔐/1 [D:1] [𪔐:見母 祭B韻 *kɯiɛi]⁶¹⁾

위의 예13에서 출현하는 범자 음절의 유형은 ‘ke, khe, ge, kai’이다.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3’, ‘kh/ㅋ/溪(*kh)/2’, ‘g/ㅇ/疑(*ŋ)/4’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e’ 모음에서 ‘e/예/齊4(*ei)/14’가 제일 일반적이고 이외 ‘e/예/祭A(*iei)/2’가 있다. ‘ai’ 모음에서 5)번~7)번 예의 한자를 먼저 보면 末1韻 *at, 祭B韻 *ɯiɛi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e’ 모음 대응에서 祭韻은 A류 글자를 사용하지만 ‘ai’ 대응에서는 B류 개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중류의 A류와 B류의 차이로 범자의 ‘e’ 모음과 ‘ai’ 모음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을 보면 5)번과 6)번은 모두 ‘e’ 모음과 같이 ‘예’로 표기되어 있다. 즉 한글 표기에서 범자 ‘e’와 ‘ai’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산스리트의 모음체계에서 ‘e’는 이중모음에 속하며 ‘e’와 ‘ai’는 상대적인 장단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마 중국어 번역에서는 범어의 ‘e’와 ‘ai’의 차이를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어 번역 당시의 진언 독송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의 음운현상으로 하나의 어근이 i<e<ai의 세 단계 모음교체에 의한 서로 다른 형태가 허용되므로 오랜 세월의 전승과정으로 인해 e와 ai의 분별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문자의 전승에서는 ‘ai’ 모음 글자가 그대로 전승되어 왔겠지만 구어에서의 전승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자 ‘ai’ 모음의 대응에서의 한글 ‘예’ 표기는 문자와 음가의 불일치에 의한 현상일 것이므로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7)번 예에서의 한글 표기는 ‘예’ 모음으로 되어 있다. 이에 6)번과 7)번의 한자가 모두 ‘𪔐’로 서로 같아 6)번이 ‘kai/계/𪔐’의 대응으로, 7)번이 ‘kai/계/𪔐’의 대응으로 나타난다. 물론 7)번의 ‘계’ 표기를 단순한 오각 등에 의한 오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일반대응 예로 분석이

60) 원본 93b
 61) 원본 57a

가능하다.

우선 한자 ‘闕’는 祭B韻 *ɥiei의 B류 글자로, 단순한 음가의 대응에서도 한글의 ‘에’보다 ‘예’와의 대응이 자연스럽다. 한자 B류의 사용은 범자 ‘e’모음 ‘ai’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게’ 표기가 범자 ‘ai’ 모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의 제5장 5.1.1절에서 제시한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한글 모음 표기의 원칙에서 범자 ‘ai’ 모음 대응에 ‘예’ 모음이 출현한다. 즉 ‘ai/예/祭B(ɥiei)’는 모음의 일반대응으로 보겠다.

다음은 설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4 설음류

- 1) te/테/帝/71 [S;7, G;3, Q;19, D;35, F;7] [帝:端母 齊4韻 *tei]
- 2) te/테/諦/4 [S;3, G;1] [諦:端母 齊4韻 *tei]
- 3) dhe/데/弟/1 [Q;1] [弟:定母 齊4韻 *dei]
- 4) de/네/儻/1 [S;1] [儻:娘母 耕2韻 *nɣɛŋ]
- 5) de/네/祢/16 [Q;8, D;8] [祢:泥母 齊4韻 *nei]
- 6) de/네/妳/8 [Q;6, D;2] [妳⁶²:泥母 齊4韻 *nei]
- 7) ne/네/甯/4 [Q;1, D;3] [甯:泥母 靑4韻 *neŋ]
- 8) ne/네/寧/3 [D;3] [寧:泥母 靑4韻 *neŋ]
- 9) tai/▶데/帝/2 [D;2] [帝:端母 ▶齊4韻 *tei]
- 10) tai/타/帶/1 [D;1] [帶:端母 泰1韻 *tai]

위의 예14에서 범자의 음절 유형은 ‘te, dhe, de, ne, tai’가 있다. 이에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78’, ‘dh/ㄸ/定(*d)/1’, ‘d/ㄴ/泥(*n)/24’, ‘n/ㄴ/泥(*n)/7’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 ‘e’ 모음 대응에 ‘e/예/齊(*ei)/100’, ‘e/예/靑4(*eŋ)/3’가 일반대응이고, ‘ai’ 모음에 ‘ai/이/泰1(*ai)/1’가 일반대응이다.

9)번의 범자가 ‘tai’이지만 한글이 ‘데’로 되어 있는데 이는 4등운 대응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자 ‘帝’를 보면 1)번 예에서도 동일 한자가 출현하는데 71회나 된다. 즉 중국어 번역에서 한자 ‘帝’는 범자 ‘e’ 모음과

62)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 *nei와 娘母 佳2韻 *nɣɛ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ai’ 모음 모두 사용한 것이며 이에 9)번 예에서 한글은 한자가 ‘e’ 모음 대응에 사용되었던 ‘데’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9)번 모음의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다음 권설음류를 보겠다.

예15 권설음류

- 1) d_he/테/提/1 [S;1] [提⁶³):>定母 齊4韻 *dei]
- 2) ŋe/네/妳/3 [Q;3] [妳⁶⁴):>泥母 齊4韻 *nei]

위의 예15를 보면 권설음에서 범자 음절은 ‘e’ 모음의 ‘d_he, ŋe’만 있고 ‘ai’ 모음 음절은 없다. 여기에서 권설음 범자 대응의 한자 자모가 일반대응으로 知系가 나타나야 하는데, 知系는 2등운 혹은 3등운에서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범자 ‘e’ 모음의 대응에는 4등운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모순된다. 위의 예들을 보면 모음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여 4등운 글자를 사용하여 ‘e/예/齊4(*ei)/4’로 되어 있다. 이에 자음의 대응에서 定母와 泥母는 통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6 순음류

- 1) pe/폐/閉/1 [D;1] [閉⁶⁵):幫母 齊4韻 *pei]
- 2) bhe/베/陞/7 [S;3, Q;2, D;2] [陞:并母 齊4韻 *bei]
- 3) ve/베/吠/10 [Q;7, D;3] [吠:并母 >廢3韻 *biai]
- 4) me/메/謎/1 [D;1] [謎:明母 齊4韻 *mei]
- 5) me/>마/麼/1 [Q;1] [麼:明母 >戈1韻 *ma]
- 6) pai/빚/背/1 [D;1] [背⁶⁶):幫母 灰1韻 *poi]
- 7) bhai/배/佩/1 [D;1] [佩:并母 灰1韻 *boi]

63) ‘提’는 중고음에서 定母 齊4韻 *dei와 禪母 支3韻 *dziɛ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4)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 *nei와 娘母 佳2韻 *ŋɣɛ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5) ‘閉’는 중고음에서 幫母 齊4韻 *pei와 幫母 屑4韻 *pe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66) ‘背’는 중고음에서 幫母 灰1韻 *poi와 并母 灰1韻 *bo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 8) mai/미/昧/2 [S;2] [昧⁶⁷:明母 灰1韻 *moi]
- 9) mai/미/每/1 [D;1] [每:明母 灰1韻 *moi]
- 10) vai/배/吠/1 [Q;1] [吠:并母 廢3韻 *biai]
- 11) vai/▶베/吠/5 [D;5] [吠:并母 廢3韻 *biai]
- 12) bhai/▶베/吠/1 [D;1] [吠:并母 廢3韻 *biai]
- 13) ▶phai/마/發/1 [D;1] [發:幫母 月3韻 *piɤt]⁶⁸⁾

위의 예16에서 범자 음절이 ‘pe, bhe, ve, me, pai, phai, bhai, vai, mai’로 있는데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ㅍ/幫(*p)/3’, ‘bh/ㅂ/并(*b)/9’, ‘v/ㅅ/并(*b)/16’, ‘m/ㅁ/明(*m)/5’의 일반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모음의 대응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e’ 모음을 보면 ‘e/예/齊4(*ei)/9’, ‘e/예/廢3(*iai)/10’가 일반적이다. ‘ai’ 모음에서는 ‘ai/이/灰1(*oi)/4’와 ‘ai/애/灰1(*oi)/2’가 일반대응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가지 예외들이 있다.

우선 ‘vai’ 번역의 11)번과 ‘bhai’ 번역의 12)번에서 ‘예’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들은 ‘ve’ 번역의 3)번과 모두 동일한 한자 ‘吠’를 사용하고 있어 한자 영향에 의한 혼용일 것이다.

이외 5)번 예가 ‘me/마/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대응에서 한자 ‘麼’는 범자 ‘a’ 모음과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e’ 모음과 대응하는 것으로 오류일 것이다. 물론 중국어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진언집 범자 텍스트에서 ‘ma’이어야 하는데 ‘me’로 잘못 전승되었거나 혹은 오각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13)번 예에서 ‘phai/마/發’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자 ‘發’은 일반적으로 범자 ‘a’ 모음과 대응한다. 여기에서 범자 ‘phai’는 오각이거나, 전승과정의 오류이거나, 혹은 ‘a’와 ‘ai’ 음가의 청각적인 인지의 오류이거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치음류에 대해 보겠다.

67) ‘昧’는 중고음에서 明母 灰1韻 *moi와 明母 泰1韻 *ma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68) 원본 82b

예17 치음류

- 1) ce/제/祭/1 [Q;1] [祭⁶⁹):精母 祭3韻 *tsiei]
- 2) ce/제/際/1 [D;1] [際:精母 祭3韻 *tsiei]
- 3) che/체/砌/1 [D;1] [砌:淸母 齊4韻 *tshei]
- 4) je/쎄/薺/2 [D;2] [薺⁷⁰):從母 齊4韻 *dzei]
- 5) sé/세/勢/2 [S;1, Q;1] [勢:書母 祭3韻 *ɕiei]
- 6) sé/셔/勢/1 [S;1] [勢:書母 祭3韻 *ɕiei]⁷¹⁾
- 7) se/세/細/2 [D;2] [細:心母 齊4韻 *sei]
- 8) cai/지/載/4 [D;4] [載⁷²):精母 哈1韻 *tsəi]
- 9) ʃai/새/曬/6 [Q;3, D;3] [曬⁷³):生母 佳2韻 *fʏɛ]
- 10) ʃai/새/灑/1 [F;1] [灑⁷⁴):生母 佳2韻 *fʏɛ]

위의 예17에서 범자 음절은 ‘ce, che, je, sé, se, cai, ʃai’가 있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은 ‘c/ㄷ/精(*ts)/6’, ‘ch/ㄷ/淸(*tsh)/1’, ‘ś/시/書(*ɕ)/2’, ‘ʃ/ㅅ/生(*f)/7’, ‘s/ㅅ/心(*s)/2’ 등이 일반대응으로 나타난다. 다만 4)번에서 ‘j/ㄷ/從(*dz)/2’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자는 마땅히 日母가 나타나야 한다. 日母는 오직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고, 범자 모음 ‘e’대응에서 4등운의 齊4韻이 일반적이 대응되므로 여기에서는 운모 대응을 우선으로 하여 자모 대응은 기타 근접한 자모인 從母로 대체한 것이다. 이 또한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할 것이다. 범자 ‘e’ 대응에 3등운의 祭3韻 글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모가 日母에 속하는 마땅한 한자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e/예/齊4(*ei)/5’ ‘e/예/祭3(*iei)/4’, ‘ai/이/哈1(*əi)/4’, ‘ai/애/佳2(*ɥɛ)/7’가 일반대응이다. 다만 6)번에서 ‘sé/셔/勢/1’의

69) “祭”은 중고음에서 精母 祭3韻 *tsjei와 莊母 皆2韻 *tɕɣe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0) “薺”는 중고음에서 從母 齊4韻 *dzei와 從母 脂3韻 *dz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1) 원본 14b

72) “載”는 중고음에서 精母 哈1韻 *tsəi와 從母 哈1韻 *dzə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3) “曬”는 중고음에서 生母 佳2韻 *fʏɛ, 生母 支B韻 *fɥiɛ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4) “灑”는 중고음에서 生母 佳2韻 *fʏɛ, 生母 支B韻 *fɥiɛ, 生母 麻2韻 *fʏa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대응으로 한글이 ‘셔’로 나타나고 있다. 5)번에서 ‘se/세/勢/2’로 이 두 예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범자 ‘e’ 모음에서 5)번의 ‘예’ 표기가 일반대응에 속하며 6)번의 ‘셔’는 예외 표기이다. 중세한국어의 한자음을 보면 ‘勢’는 ‘셔’ 혹은 ‘세’(권인한 2009)로 되어 있어 한자음의 영향에 의한 혼용일 수도 있겠지만, ‘셔’와 ‘세’의 전설성 음가의 유사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논의는 본고 제5장의 5.2.2절의 중성 표기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의 후음과 기타류를 보겠다.

예18 후음 및 기타류

- 1) ye/예/曳/26 [S;8, G;1, Q;11, D;6] [曳⁷⁵:以母 祭A韻 *jiei]
- 2) ye/예/裔/8 [D;8] [裔:以母 祭A韻 *jiei]
- 3) he/혜/醢/2 [S;2] [醢:曉母 齊4韻 *hei]
- 4) he/혜/系/5 [Q;3, D;2] [系:匣母 齊4韻 *fei]
- 5) he/혜/係/1 [Q;1] [係:匣母 齊4韻 *fei]⁷⁶⁾
- 6) re/례/嘸/20 [S;1, Q;3, D;16] [嘸:??]
- 7) le/례/黎/5 [S;1, D;4] [黎:來母 齊4韻 *lei]
- 8) le/례/嚟/1 [S;1] [嚟:??]
- 9) le/례/嘸/13 [Q;12, D;1] [嘸:??]
- 10) he/혜/𩚑/8 [S;1, G;3, Q;1, D;3] [𩚑:曉母 脂B韻 *hui]
- 11) hai/혜/𩚑/2 [Q;1, D;1] [𩚑:曉母 脂B韻 *hui]
- 12) hi/혜/𩚑/2 [D;2] [𩚑:曉母 脂B韻 *hui]

위의 예18에서 범자의 음절유형을 보면 ‘ye, he, re, le, hai’가 있다. 자음의 대응에서 ‘y/이/以(*j)/34’, ‘r/ㄹ/嘸(*?)/20’, ‘l/ㄹ/來(*l)/5’, ‘h/ㅎ/曉(*h)/14’, ‘h/ㅎ/匣(*h)/6’가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에서는 ‘e/예/祭A(*ie i)/34’, ‘e/예/齊4(*ei)/13’가 일반대응이다.

다만 10)번~12)번을 보면 모두 동일한 한자 ‘𩚑’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이 모두 ‘혜’로 되어 있지만 범자 모음은 각각 ‘e’, ‘ai’, ‘i’로 되어 있다. 한

75) “曳”는 중고음에서 以母 祭A韻 *jiei와 以母 薛A韻 *jet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76) “係”는 중고음에서 匣母 齊4韻 *fei, 見母 齊4韻 *kei, 見母 脂A韻 *ki 등의 음가가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글 ‘예’ 모음에 범자 모음의 일반적인 대응은 ‘e’이지만, 한자 ‘咽’의 중고음 脂B韻 *hwi와 대응이 가능한 범자 모음은 ‘ai’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범어에서 ‘e’는 음성적으로 장음이지만, ‘e’와 ‘ai’는 상대적인 단음과 장음의 관계로 중국어 번역에서 ‘e’와 ‘ai’를 청각적으로 혼용하여 동일한 한자 ‘咽’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범자 ‘i’ 모음의 대응에서는 산스크리트의 모음 교체 등의 영향에 의하여 문자는 ‘i’로 표기되지만 독송할 때에는 ‘e’로 발음되어 한자 ‘咽’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오각 및 오류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동일한 한자의 경우 한국어의 진언 독송과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동일 표기 ‘예’ 모음으로 정리하였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의 10)번~12)번 예들은 음소대응의 고찰에 적절한 예들이 아닌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1.4 ‘C+u’, ‘C+o’, ‘C+au’ 음절

아래 예19의 범자 음절은 ‘C+u’류에 속하며 자음이 아음인 예로 ‘ku, gu’가 출현한다. 이에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19 아음류

- 1) ku/구/矩/4 [Q;3, D;1] [矩:見母 虞3韻 *kiɔ]⁷⁷⁾
- 2) ko/구/矩/19 [S;3, G;4, D;12] [矩:見母 虞3韻 *kiɔ]
- 3) ko/구/句/2 [D;2] [句⁷⁸⁾:見母 虞3韻 *kiɔ]
- 4) ko/구/矯/1 [D;1] [矯:見母 宵B韻 *kwiɐu]
- 5) kau/구/矯/1 [D;1] [矯:見母 宵B韻 *kwiɐu]

77) 한자 자모의 아음 즉 見系에서 群母만이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다른 자모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아음의 대응 한자를 보면 群母는 물론이고 다른 자모 역시 모두 3등운 글자만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앞서 내용의 ‘a’ 모음에서도 戈3韻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자모의 제약이 없다면 범자 ‘a, u/o’등 대응 한자의 1 순위는 마땅히 1등운 글자이어야 하는데 3등운 글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78) ‘句’는 중고음에서 見母 虞3韻 *kiɔ와 見母 侯1韻 *kəu의 두 개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전자 虞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 6) gu/우/夔/2 [D;2] [夔⁷⁹):疑母 虞3韻 *ɲiɔ]
- 7) gu/우/虞/1 [G;1] [虞:疑母 虞3韻 *ɲiɔ]
- 8) gu/오/虞/4 [Q;4] [虞:疑母 虞3韻 *ɲiɔ]
- 9) ko/구/具/1 [F;1] [具:群母 虞3韻 *giɔ]
- 10) gho/구/具/2 [D;2] [具:群母 虞3韻 *giɔ]

위의 예19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을 보면 ‘ku, ko, kau, gu, gho’가 있다.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k/ㄱ/見(*k)/27’, ‘g/ㅇ/疑(*ɲ)/7’, ‘gh/ㄱ/群(*g)/2’이 일반대응이다. 예외로는 9)번에서 범자 ‘k’ 대응에 한자 자모 見母를 써야 하는데 群母를 쓰고 있다. 이는 9)번과 10)번이 동일한 한자 ‘具’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중국어 번역에서 혹은 범자 텍스트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 있겠다.

모음의 대응을 범자 모음 ‘u’와 ‘o’로 나누어 보겠다. 먼저 범자 ‘u’ 모음의 예를 보면 대부분 ‘u/우/虞3(*iɔ)/7’로 나타나지만, 8)번에서는 ‘u/오/虞3(*iɔ)/4’와 같이 한글 모음이 ‘오’로 나타나고 있다. 7)번과 8)번이 동일한 한자 ‘虞’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7)번은 ‘우’, 8)번은 ‘오’로 표기된 것이다.

‘o’ 모음의 예들은 대부분 ‘o/우/虞3(*iɔ)/23’이다. 이는 ‘u’ 모음의 대응 예에서 한자가 虞3韻인 것과 일치한다. 즉 한글의 ‘우’와 한자의 虞3韻이 범자의 ‘u’와 ‘o’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5)번 예에서 ‘au/우/宵B(*ɰiɐu)/1’의 대응도 있는데, 4)번과 5)번이 동일한 한자 ‘矯’를 사용하고 있어 범자 ‘o’ 모음과도 한자 宵B韻의 대응한다.

다음은 설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0 설음류

- 1) tu/도/覩/21 [S;2, Q;7, D;9, F;3] [覩:端母 模1韻 *to]
- 2) tau/도/覩/1 [D;1] [覩:端母 模1韻 *to]
- 3) tu/도/咄/2 [S;1, D;1] [咄⁸⁰):端母 沒1韻 *tot]
- 4) tu/도/度/2 [S;2] [度⁸¹):定母 模1韻 *do]

79) ‘夔’는 중고음에서 疑母 虞3韻 *ɲiɔ와 疑母 模1韻 *ɲo의 두 개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虞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0) ‘咄’는 중고음에서 端母 沒1韻 *tot와 端母 末1韻 *tat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沒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1) ‘度’는 중고음에서 定母 模1韻 *do와 定母 鐸1韻 *dak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 5) dhu/도/度/7 [S;3, Q;2, D;2] [度:定母 模1韻 *do]
- 6) du/노/耨/2 [S;1, D;1] [耨⁸²:泥母 沃1韻 *nok]
- 7) du/노/努/4 [G;1, Q;3] [努:泥母 模1韻 *no]
- 8) du/노/訥/10 [Q;5, D;5] [訥:泥母 沒1韻 *not]
- 9) du/노/弩/2 [D;2] [弩:泥母 模1韻 *no]
- 10) du/누/旼/1 [D;1] [旼:*?]
- 11) nu/노/努/1 [Q;1] [努:泥母 模1韻 *no]
- 12) nu/노/弩/1 [D;1] [弩:泥母 模1韻 *no]

위의 예20에서 범자의 음절을 보면 ‘tu, tau, dhu, du, nu’로 원순모음 ‘o’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t/ㄷ/端(*t)/24’, ‘dh/ㄷ/定(*d)/7’, ‘d/ㄴ/泥(*n)/18’, ‘n/ㄴ/泥(*n)/2’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은 ‘u/오/模1(*o)/39’, ‘u/오/沒1(*o)/12’, ‘u/오/沃1(*ok)/2’를 일반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한자가 모두 1등운 글자이고 한글의 모음은 대부분 ‘오’임을 볼 수 있다. 다만 10)번에서 한글은 ‘누’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자는 ‘旼’로 되어 있다. ‘旼’는 造字이므로 부수를 제외한 ‘女’를 참고하면 虞3韻으로 3등운 글자이다. 즉 ‘오’ 모음은 1등운 한자와,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되는 경향이 보인다.

다음은 이어서 권설음류를 보겠다.

예21 권설음류

- 1) dū/노/弩/3 [D;3] [弩:泥母 模1韻 *no]
- 2) nu/노/努/4 [Q;2, D;2] [努:泥母 模1韻 *no]
- 3) no/노/努/1 [G;1] [努:泥母 模1韻 *no]

위의 예21에서 범자음절은 ‘dū, nu, no’로 되어 있다. 권설음 범자 대응에 한자 자모는 知系가 일반적이지만 2,3등운에 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원순모음의 대응은 1등운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모순된다. 위의 예들 모두 운모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고 자모는 근접한 端系 자모를 사용하

模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2) ‘耨’는 중고음에서 泥母 沃1韻의 *nok와 泥母 侯1韻 *nəu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侯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u/오/模1(*o)/7’와 ‘o/오/模1(*o)/1’가 있다. 여기에서도 한글과 한자가 범자의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2 순음류

- 1) pu/보/布/20 [S;1, Q;10, D;8, F;1] [布:幫母 模1韻 *po]
- 2) pu/보/補/9 [Q;5, D;4] [補:幫母 模1韻 *po]
- 3) bhu/보/步/5 [S;1, G;2, F;2] [步:并母 模1韻 *bo]
- 4) bhu/보/部/11 [Q;6, D;5] [部:并母 模1韻 *bo, 并母 侯1韻 *bəu]⁸³⁾
- 5) bhu/부/部/3 [D;3] [部:并母 模1韻 *bo]
- 6) bo/모/冒/9 [S;5, G;1, Q;2, D;1] [冒⁸⁴⁾:明母 豪1韻 *mau]
- 7) mu/모/沒/1 [Q;1] [沒:明母 沒1韻 *mot]
- 8) mu/모/穆/2 [D;2] [穆:明母 屋3韻 *miuk]
- 9) mu/모/暮/1 [D;1] [暮:*?]
- 10) mu/모/母/32 [Q;14, D;16, F;2] [母:明母 侯1韻 *məu]
- 11) mo/모/母/3 [F;3] [母:明母 侯1韻 *məu]
- 12) mo/모/謨/12 [S;9, Q;1, D;1, F;1] [謨:明母 模1韻 *mo]
- 13) mo/무/謨/25 [G;2, D;23] [謨:明母 模1韻 *mo]
- 14) mau/모/謨/5 [D;4, D;1] [謨:明母 模1韻 *mo]
- 15) mau/무/謨/2 [D;2] [謨:明母 模1韻 *mo]

위의 예22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을 보면 ‘pu, bhu, mu, bo, mo, mau’가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ㅍ/幫(*p)/9’, ‘bh/ㅂ/并(*b)/19’ ‘b/ㅍ/明(*m)/9’ ‘m/ㅍ/明(*m)/82’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을 한자 운모에 따라 보겠다. 우선 模1韻에서 ‘u/오/模

83) ‘部’는 중고음에서 多音字로 并母 模1韻 *bo, 并母 侯1韻 *bəu의 두 가지 음가가 있다. 실제로 어느 음가를 사용하여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중 模1韻이 더욱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84) ‘冒’는 중고음에서 明母 豪1韻 *mau와 明母 德1韻 *mæk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o)/34'와 'o/오/模1(*o)/12'를 비교하여 보면 한글과 한자 모두 범자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o/우/模1(*o)/25'를 보면 같은 범자 'o' 대응에서 한글 모음이 '오'와 '우'가 모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외 'au/오/模1(*o)/5', 'au/우/模1(*o)/2'도 있다.

다음 侯1韻도 마찬가지로 'u/우/侯1(*əu)/3'와 'o/우/侯1(*əu)/3'의 대응이 있어 범자 모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u/오/侯1(*əu)/43'도 있어서 같은 범자 대응에 한글 '오'와 '우' 모두 가능하다. 그 밖의 예로 'o/오/豪1(*au)/9', 'u/오/沒1(*ot)/1', 'u/오/屋3(*uk)/2'가 있다.

특히 3)번과 4)번은 동일한 한자 '部'를 사용하고, 10)번과 11)번은 모두 '母', 12)번~15)번은 모두 '謨'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범자 모음 'u'와 'o'의 대응이 모두 가능하고, 한글과의 대응에서도 '오'와 '우' 모두 가능하다.

앞선 고찰에서 대체적으로 한글 '오' 모음은 1등운 한자와 대응하고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함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예외가 많이 출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동일한 한자 출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분석은 본고 제5장의 5.2.2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치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3 치음류

- 1) cu/조/祖/5 [Q;5] [祖:精母 模1韻 *tso]
- 2) co/조/祖/3 [D;2, F;1] [祖:精母 模1韻 *tso]
- 3) sú/쑤/戊/23 [Q;4, D;19] [戊:ㄱ心母 術3韻 *suit⁸⁵⁾]
- 4) só/쑤/戊/5 [Q;5] [戊:ㄱ心母 術3韻 *suit]
- 5) sú/쑤/輸/1 [S;1] [輸:書母 虞3韻 *ciö]
- 6) sú/쑤/稭/1 [D;1] [稭:船母 術3韻 *zuit]
- 7) só/쑤/稭/1 [Q;1] [稭:船母 術3韻 *zuit]
- 8) su/소/素/23 [S;8, Q;9, D;5, F;1] [素:心母 模1韻 *so]
- 9) su/소/蘇/5 [S;2] [蘇:心母 模1韻 *so]
- 10) sau/수/數/1 [S;1] [數⁸⁶⁾:ㄱ生母 虞3韻 *fuiö]

85) 眞韻 대응 습口韻으로 재구하였다.

86) “數”는 중고음에서 生母 虞3韻 *fuiö와 生母 覺2韻 *fɣok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 11) jo/쥬/孺/1 [Q:1] [孺:日母 虞3韻 *ŋiø]
- 12) ju/쥬/租/1 [D:1] [租:精母 模1韻 *tso]
- 13) ju/쥬/足/1 [D:1] [足:精母 燭3韻 *tsiøk]

위의 예23에서 범자의 음절 유형은 ‘cu, co, sú, só, su, sau, ju, jo’가 있다. 자음의 대응에서 ‘c/ㄷ/精(*ts)/8’, ‘ś/시/書(*ɕ)/1’, ‘s/ㅅ/心(*s)/28’이 일반대응이다.

3)번 ‘sú/쥬/戌/23’과 4)번 ‘só/쥬/戌/5’를 보면 범자 자음 ‘ś’ 대응의 한글은 ‘시’로 되어 있지만 한자는 書母가 아닌 心母로 되어 있다. 心母는 범자 자음 ‘s’와의 대응이 일반대응이므로 예외가 되는데 출현 횟수가 많은 편이다. ‘戌’은 術3韻 즉 3등운 글자로 세음성 개음이 있어 개음으로 범자 ‘ś’ 자음의 구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원순모음인 동시에 보다 자주 사용하는 한자이므로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음소대응의 통계에서는 제외시킬 것이다.

다음 6)번 ‘sú/쥬/稊/1’과 7)번 ‘só/쥬/稊/1’을 보면 이 역시 대응 한자가 마땅히 書母이어야 하지만 ‘稊’은 船母이다. 船母는 書母와 함께 모두 章系 글자로 범자 자음 ‘ś’와 1:多의 대응이 가능하다. 즉 ‘ś/시/書(*ɕ)’와 ‘ś/시/船(*ʒ)’이 가능한 것이므로 예외는 아니다. 원순모음에 마땅한 글자를 찾기 위해 船母도 동원하였을 것이다. 이것 역시 일반대응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번~13)번 예를 보면 범자 자음은 ‘j’이고 일반대응의 한글 표기는 ‘ㄷ’, 한자는 日母이다. 그러나 12)번~13)번에서 精母가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원순모음을 찾아야 하는 제한에 의하여 유사 음가의 精母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이것보다 특이한 점은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의 ‘쥬, 쥬’로 되어 있는데 범자 ‘ja’ 대응에서는 ‘ㅅ’ 즉 활음이 없는 단모음 표기라는 것이다. 3등운 한자의 세음성 개음의 영향이 아닐까 가정해 볼 수도 있는데 12)번의 한자는 3등운이 아닌 洪音의 1등운 模1韻이다. 즉 범자 모음과 한자 운모 모두에도 세음성이 없음에 불구하고 한글에서만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난다. 한글에서 활음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고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마 당시 진언 독송에서 ‘ju, jo’가 음성적으로 이중모음에 가깝게 들렸을 것이라 추측된다. 전통적인 진언 독송의 어떤 영향일 것이라 생각되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음의 대응은 ‘c/ㄷ/日(*n)/1’, ‘c/ㄷ/精(*ts)/2’가 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u/오/模1(*o)/34’와 ‘o/오/模1(*o)/3’, ‘u/우/術3(*uit)/24’와 ‘o/우/術3(*uit)/6’가 있는데 한글과 한자 모두 범자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오’와 ‘우’의 차이는 범자 ‘u’와 ‘o’ 차이와 평행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음류 및 기타 음절 유형에 대해 보겠다.

예24

- 1) yu/유/庾/2 [F;2] [庾:以母 虞3韻 *iø]
- 2) yo/유/喻/4 [S;1, Q;1, D;2] [喻:以母 虞3韻 *iø]
- 3) hu/호/護/7 [Q;4, D;3] [護:匣母 模1韻 *ho]
- 4) hu/호/虎/9 [S;1, Q;8] [虎:曉母 模1韻 *ho]
- 5) ho/호/虎/2 [S;2] [虎:曉母 模1韻 *ho]
- 6) ru/로/嚕/67 [S;17, G;5, Q;32, D;13] [嚕:*?]
- 7) ro/로/嚕/2 [G;2] [嚕:*?]
- 8) rau/로/嚕/1 [D;1] [嚕:*?]
- 9) ru/로/嚙/1 [D;1] [嚙:*?]
- 10) ro/로/嚙/2 [D;2] [嚙; *?]
- 11) ru/로/嚙/9 [D;9] [嚙:*?]
- 12) rau/로/嚙/1 [D;1] [嚙:*?]
- 13) lau/로/嚙/1 [D;1] [嚙:*?]
- 14) ru/로/路/1 [S;1] [路:來母 模1韻 *lo]
- 15) lo/로/路/21 [S;7, G;4, Q;7, D;3] [路:來母 模1韻 *lo]
- 16) lo/루/路/2 [D;1, F;1] [路:來母 模1韻 *lo]⁸⁷⁾

위의 예24에서와 같이 범자의 음절 유형으로 ‘yu, hu, ru, yo, ho, ro, rau, lau’ 등이 있다.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y/이/以(*j)/6’, ‘h/ㅎ/匣(*h)/7’, ‘h/ㅎ/曉(*h)/11’, ‘l/ㄹ/來(*l)/23’ 등이 일반대응이다. 이외 범자 ‘r’ 대응의 한자는 造字로 ‘r/ㄹ/嚕(*?)/70, r/ㄹ/嚙(*?)/3, r/ㄹ/嚙(*?)/10’ 등이 있다.

87) 원본 61b, 93a

모음의 대응을 보면 ‘u’ 모음에 ‘u/오/模1(*o)/17’과 ‘u/우/虞3(*iɔ)/2’가 있고, ‘o’ 모음에 ‘o/오/模1(*o)/23’과 ‘o/우/虞3(*iɔ)/4’가 있다. 범자 ‘u’와 ‘o’ 모음이 한글 ‘우’와 ‘오’가 평행하지는 않지만 한자와 비교하여 ‘오’ 모음은 1등운 模1韻과, ‘우’는 3등운 虞3韻과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6)번에서는 이와 반대로 ‘o/우/模1(*o)/2’가 있다. 16)번과 15)번은 서로 범자도 같고 한자도 같은 ‘路’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와 ‘우’의 혼용이 생긴 것이다.

3.2 기본 閉音節의 표기

3.2.1 ‘-m’류

3.2.1.1 [-m]

아래는 ‘m’ 폐음절에서 실제로 [m]으로 발음되는 범자 음절 대응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들이다.

예25

- 1) kam/감/劍/3 [S;1, Q;2] [劍:見母 嚴3韻 *kiam]
- 2) gam/암/儼/3 [S;1, Q;2] [儼:疑母 嚴3韻 *ɣiam]
- 3) tam/담/擔/26 [S;2, D;24] [擔:端母 談1韻 *tam]
- 4) nam/남/喃/29 [S;4, Q;15, D;10] [喃:*?]
- 5) nam/남/南/18 [D;18] [南:泥母 覃1韻 *nəm]
- 6) tam/탐/𪛗/1 [S;1] [𪛗:知母 咸2韻 *tɣəm]
- 7) mam/맘/𪛗/18 [S;5, G;2, Q;6, D;4, F;1] [𪛗:*?]
- 8) vam/밤/鏝(鏝)/3 [Q;1, D;2] [鏝(鏝):>明母 凡3韻 *miam]⁸⁸⁾
- 9) jam/삼/咎/4 [Q;2, D;2] [咎:>精母 覃1韻 *tsəm]
- 10) šam/삼/釤/11 [Q;2, D;9] [釤:生母 銜2韻 *ʃɣəm]
- 11) sam/삼/糝/3 [S;3] [糝:心母 覃1韻 *səm]
- 12) sam/삼/三/32 [Q;16, D;16] [三:心母 談1韻 *sam]
- 13) ham/함/憾/1 [D;1] [憾:匣母 覃1韻 *həm]
- 14) ram/람/覽/2 [Q;1, D;1] [覽:>來母 談1韻 *lam]
- 15) ram/람/𪛗/2 [Q;1, D;1] [𪛗:*?]
- 16) ram/람/𪛗/8 [D;7, F;1] [𪛗:*?]
- 17) lam/람/覽/5 [Q;1, D;4] [覽:來母 談1韻 *lam]
- 18) lam/람/𪛗/14 [D;14] [𪛗:*?]
- 19) kam/검/劔(劔)⁸⁹⁾/1 [S;1] [劔(劔):見母 嚴3韻 *kiam]
- 20) kam/검/檢/6 [D;6] [檢⁹⁰⁾:見母 鹽B韻 *kɥiəm]

88) ‘鏝’와 ‘鏝’는 이체자이다.

89) ‘劔’과 ‘劔’은 이체자이다.

- 21) śam/섬/苦/2 [Q;2] [苦:書母 鹽3韻 *ɕiɛm]
 22) yam/염/琰/3 [S;1, Q;2] [琰:以母 鹽3韻 *jiɛm]
 23) yam/염/燄/2 [S;2] [燄:以母 鹽3韻 *jiɛm]
 24) tim/팀/砵/1 [D;1] [砵:知母 侵3韻 *tim]
 25) hum/흙/咍/40 [S;15, D;25] [咍:*?]
 26) om/옴/庵/63 [S;42, G;1, Q;8, D;4, F;1] [庵:*?]

위의 예25에서 1)번~18)번은 범자 모음 ‘a’인 폐음절 대응에 한글 모음이 ‘아’인 예이고, 19)번~23)번은 범자 모음 ‘a’인 폐음절 대응에 한글이 모음이 ‘어’인 예이며, 24)번~26)번은 기타 모음 ‘i, u, o’의 폐음절 예이다.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見(*k)/10, g/ㅇ/疑(*ŋ)/3, t/ㄷ/端(*t)/26, n/ㄴ/泥(*n)/18, t/ㅌ/知(*t)/2, v/ㅍ/明(*m)/3, ś/ㅅ/書(*ɕ)/2, ʃ/ㅆ/生母(*ʃ)/11, s/ㅈ/心(*s)/35, y/ㅇ/以(*j)/5, h/ㅎ/匣(*h)/1, r/ㄹ/日母(*r)/2, r/ㄹ/日母(*r)/8, l/ㄹ/來(*l)/5’로 대부분 앞서 開音節에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예외로 ‘v/ㅍ/明(*m)/3’의 대응이 있다. 앞서 開音節 자음의 대응에서 범자 자음 ‘v’는 한자 자모에 따라 明母일 경우 한글 자음이 ‘ㅍ’이고, 并母일 경우 ‘ㅍ’임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한자 자모가 明母인데 한글 자음이 ‘ㅍ’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 예는 8)번의 ‘vam/밤/鎔(鏞)/3’으로 여기에서 한글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 자음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자 자음 ‘v’ 대응에도 한글 표기 ‘ㅍ’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범자 ‘a’ 모음의 ‘va, vam’은 ‘바, 밤’으로 표기하고, ‘i’ 모음의 ‘vi’인 경우는 ‘미’로 표기하였다.

이외 9)번 예에서 자음의 대응이 ‘j/ㄷ/精(*ts)’로 나타난다. 일반대응에서 한자 자모는 日母 (혹은 從母)이어야 하는데 精母로 나타난다. 精母는 마땅히 범자 ‘c’ 자음과 대응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 예를 보면 ‘jam/삼/咍/4’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운모 및 *-m 운모까지 고려하여 맞는 음가의 한자를 찾으면서 부득이 자모의 대응을 유사한 음가의 기타 자모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예들은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90) “撿”은 중고음에서 見母 鹽B韻 *kɕiɛm과 來母 鹽3韻 *lɕiɛm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이외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 자모의 제약을 받는 것과, 무의미한 造字의 예들을 제외하고 보면 1)번~18)번은 ‘a/아/談1(*a)/65, a/아/覃1(*ə)/26, a/아/嚴3(*ia)/6’이고, 19)번~23)번은 ‘a/어/嚴3(*ia)/1, a/어/鹽B(*ɥiɛ)/6, a/어/鹽3(*iɛ)/7’이며 24)번~26)번은 ‘i/이/侵3(*i)/1’이다.

한글 모음 ‘아’와 ‘어’ 모두 범자 ‘a’ 모음과 대응하고 있다. ‘어’ 모음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21)번~23)번은 범자 자음 ‘ś, y’의 구개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글 표기가 ‘섬, 염’으로 되어 있고, 19)번~20)번은 범자 자음 ‘k’와의 대응 한글이 단모음의 ‘검’으로 되어 있다. 1)번~2)번도 범자 자음이 ‘k’이지만 한글 모음이 ‘감’으로 되어 있어 대립을 이룬다. 특히 1)번의 ‘kam/감/劒/3’과 19)번의 ‘kam/검/劔(劒)/1’이 한글에서만 차이가 반영되는 ‘아’와 ‘어’가 혼용한다. 즉 한글 ‘어’ 모음은 3등운 한자와 대응하고, ‘아’ 모음은 대부분 1등운 한자와 대응하지만 일부 3등운과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아음의 범자 ‘k’의 대응에서 한글 ‘아’와 ‘어’는 혼용된다.

다음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m/-ㄹ/談1(*-m)/65, -m/-ㄹ/覃1(*-m)/26, -m/-ㄹ/銜2(*-m)/11, -m/-ㄹ/咸2(*-m)/1, -m/-ㄹ/鹽3(*-m)/13, -m/-ㄹ/嚴3(*-m)/7, -m/-ㄹ/凡3(*-m)/1, -m/-ㄹ/侵3(*-m)/1 등이 대응한다.

이외 한자 ‘喃(*?), 𪛗(*?), 𪛘(*?), 𪛙(*?)’의 대응 예들은 한자가 造字인데 이들은 음절말 자음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제한에 의한 것이다. 해당 음소 대응은 통계에 의미가 없는 예들이므로 제외시킨다. 예를 들어 이들은 범자 음절초 자음 ‘n, m, h, 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에 의미가 없다.

3.2.1.2 [-n]

다음은 같은 범자 ‘m’이지만 출현 환경에 따라 [n]의 음가를 가지는 경우이다. 해당 예들의 한자와 한글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26

1) nam/난/難/3 [Q;1, D;1, F;1] [難:泥母 寒1韻 *nan]

2) nam/난/𪛗/1 [D;1] [𪛗⁹¹:娘母 刪2韻 *nɣæn]

- 3) paŋ/반/噉/1 [D;1] [噉:??]
- 4) paŋ/반/畔/1 [D;1] [畔:并母 桓1韻 *ban]
- 5) bām/만/曼/1 [D;1] [曼⁹²):明母 桓1韻 *man]
- 6) bham/반/伴/1 [S;1] [伴:并母 桓1韻 *ban]
- 7) marŋ/만/滿/2 [S;2] [滿:明母 桓1韻 *man]
- 8) marŋ/만/曼/1 [D;1] [曼:明母 桓1韻 *man]
- 9) saŋ/산/散/1 [F;1] [散:心母 寒1韻 *san]
- 10) vaŋ/문/刎/2 [G;2] [刎:明母 文3韻 *miun]⁹³⁾
- 11) yaŋ/연/演/1 [F;1] [演:以母 仙3韻 *jiēn]
- 12) ʃim/ㄸ선/洗/2 [Q;1, D;1] [洗:生母 臻3韻 *ʃuŋin]⁹⁴⁾
- 13) ʃim/신/洗/1 [F;1] [洗:生母 臻3韻 *ʃuŋin]⁹⁵⁾

위의 예26에서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n/ㄴ/泥(*n)/3, ŋ/ㄴ/娘(*ŋ)/1, p/ㅍ/并(*b)/1, b/ㅍ/明(*m)/1, bh/ㅍ/并(*b)/1, m/ㅍ/明(*m)/3, v/ㅍ/明(*m)/2, y/ㅇ/以(*j)/1, ʃ/ㄴ/生(*ʃ)/1, s/ㄴ/心(*s)/1’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대부분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보면 우선 1)번~9)번이 ‘a/아/桓1(*a)/6, a/아/寒1(*a)/4’로 범자 모음이 ‘a’이고 한글 모음도 ‘아’이며, 10)번~11)번은 ‘a/으/文3(*iu)/2, a/어/仙3(*iE)/1’로 범자 모음은 여전히 ‘a’이지만 한글 모음은 ‘으’ 혹은 ‘어’이다. 이들은 한자는 모두 3등운이란 공통특징을 가지는데 한글 표기에서 ‘으’, ‘어’ 등 음성모음이 3등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2)번~13)번 모음은 ‘i’인 범자인데 범자 ‘ʃim’와 한자 ‘洗’가 모두 같지만 한글에서는 하나는 ‘선’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다. 13)번의 ‘신’은 범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을 것이고 12)번 ‘선’은 한국 한자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12)번의 기준을 ‘i/이/臻3(*uŋi)/1’ 모음의 대응으로 할

91) “𪛗”은 중고음에서 娘母 刪2韻 *ŋɣæn과 娘母 仙3韻 *ŋiE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2) “曼”은 중고음에서 明母 桓1韻 *man과 明母 元3韻 *miɣ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3) 원본 30a, 31b

94) 원본 42b, 57a

95) 원본 93b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m/-ㄴ/桓1(*-n)/6, -m/-ㄴ/寒1(*-n)/4, -m/-ㄴ/刪2(*-n)/1, -m/-ㄴ/文3(*-n)/2, -m/-ㄴ/仙3(*-n)/1, -m/-ㄴ/臻3(*-n)/3’이다.

3.2.1.3 [-ŋ]

이번에는 ‘m’이 [-ŋ]의 음가를 가지는 예들을 볼 것이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7

- 1) maŋ/망/莽/1 [D;1] [莽⁹⁶):明母 唐1韻 *maŋ]
- 2) jaŋ/양/壤/1 [D;1] [壤:日母 陽3韻 *ŋiaŋ]
- 3) saŋ/상/商/2 [S;2] [商:書母 陽3韻 *ciaŋ]
- 4) saŋ/상/餉/3 [D;3] [餉:書母 陽3韻 *ciaŋ]
- 5) daŋ/능/能/2 [Q;2] [能⁹⁷):泥母 登1韻 *nəŋ]
- 6) maŋ/몽/懵/1 [Q;1] [懵:明母 東1韻 *muŋ]
- 7) piŋ/빙/冰/2 [Q;2] [冰:幫母 蒸3韻 *piŋ]
- 8) siŋ/싱/僧/5 [S;1, Q;1, D;2, F;1] [僧:心母 登1韻 *səŋ]
- 9) liŋ/링/陵/2 [S;1, D;1] [陵:來母 蒸3韻 *liŋ]
- 10) liŋ/링/楞/1 [D;1] [楞:來母 登1韻 *ləŋ]
- 11) meŋ/명/銘/4 [G;3, D;1] [銘:明母 青4韻 *meŋ]
- 12) meŋ/명/茗/4 [Q;4] [茗:明母 青4韻 *meŋ]

위의 예27에서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m/口/明(*m)/10, j/ㄷ/日(*ŋ)/1, ㄱ/시/書(*c)/5, d/ㄴ/泥(*n)/2, p/ㅍ/幫(*p)/2, s/ㅅ/心(*s)/5, l/ㄹ/來(*l)/3’ 등 대부분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범자 ‘j’와 한글 ‘ㄷ’가 대응하고 있는데 개음절에서는 원순모음에서만 ‘ㄷ’과 대응한다. 즉 범자 ‘ja’ 대응에서는 ‘ㅈ’이고, 원순모음에서는 ‘ㅊ, ㅍ’이다. 여기에서 관련

96) “莽”은 중고음에서 明母 唐1韻 *maŋ와 明母 模1韻 *mo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7) “能”은 중고음에서 泥母 登1韻 *nəŋ와 泥母 咍1韻 *nəi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2)번 예를 보면 ‘jam/샹/壤/1’ 즉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의 ‘샹’으로 되어 있다. 당시 아마 중세 한국한자음 ‘壤(샹)’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진언 독송의 범자 음가의 반영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확신하기 어렵다.

한자 자모의 제약을 받는 예를 제외하고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唐1(*a)/1, a/ㄹ/登1(*ə)/2, i/이/蒸3(*i)/4’가 있다. 1)번~4)번 예에서 범자 ‘a’ 모음 대응 한글 모음은 ‘아’이고 5)번과 6)번은 ‘ㄹ’이다. ‘ㄹ’ 모음의 출현에 대해 한자의 중세 한국한자음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能(능~릉), 懜(몽)’으로 보아 한국한자음의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이는 아마 범자의 음가에서 음절말 자음 [-ŋ]의 영향을 받아 모음 ‘a’가 상대적으로 후설고모음화 되어 발음되면서 ‘ㄹ’로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5)번의 대응 한자는 登1韻 *əŋ이고 6)번은 東1韻 *muŋ인데 외국어 표기의 시각에서 보면 6)번 원순모음의 대응도 허용되겠지만 음소대응의 통계에서는 이를 제외시킬 것이다.

이외 8)번 ‘sim/싱/僧/5’와 10)번 ‘lim/링/楞/1’에서 한자는 모두 登1韻 *ləŋ이지만 한글은 ‘싱, 링’으로 표기되었다. 5)번 登1韻의 ‘能’ 대응 한글이 ‘능’으로 된 것과 다르다. 이들의 한글 표기는 한자가 아닌 범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고의 음소대응은 梵-韓-中의 대응규칙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 또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과 12)번 모음의 대응을 보면 ‘e/여/靑4(*eŋ)/8’로 되어 있다. 개음절의 일반대응에서 범자 모음 ‘e’ 대응의 한글은 마땅히 ‘예’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로 되어 있다. 만약 폐음절에서 개음절 일반대응을 따라 표기하려면 ‘명’이 되는데 아무리 외국어 표기라고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절구조이었을 것이며, 이에 이와 음가가 유사하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음절만 자음의 대응을 보면 ‘-m/-ㅇ/唐1(*-ŋ)/1, -m/-ㅇ/陽3(*-ŋ)/6, -m/-ㅇ/登1(*-ŋ)/8, -m/-ㅇ/東1(*-ŋ)/1, -m/-ㅇ/蒸3(*-ŋ)/4, -m/-ㅇ/靑4(*-ŋ)/8’ 등이 있다.

3.2.2 ‘-h’류

다음은 ‘-h’의 폐음절의 예를 볼 것인데 먼저 ‘a’ 모음 음절을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8

- 1) gaḥ/악/虐/1 [Q;1] [虐:疑母 藥3韻 *ŋiak]
- 2) daḥ/낙/娜/2 [Q;2] [娜:泥母 歌1韻 *na]
- 3) naḥ/낙/諾/2 [S;1, D;1] [諾:泥母 鐸1韻 *nak]
- 4) maḥ/막/莫/18 [S;3, G;1, Q;5, D;9] [莫:明母 鐸1韻 *mak]
- 5) maḥ/막/麼/2 [S;1, D;1] [麼:明母 戈1韻 *ma]
- 6) vaḥ/박/嘯/2 [Q;2] [嘯:*?]
- 7) va/박/嘯⁹⁸/1 [D;1] [嘯:*?]
- 8) haḥ/ᄒ/𪛗/1 [S;1] [𪛗:*?]
- 9) duḥ/눅/耨/1 [Q;1] [耨⁹⁹:泥母 沃1韻 *nok]
- 10) buḥ/복/僕/1 [Q;1] [僕¹⁰⁰:并母 沃1韻 *bok]
- 11) yuḥ/욕/欲/1 [Q;1] [欲:以母 燭3韻 *jiøk]

위의 예28에서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g/ㅇ/疑(*ŋ)/1, d/ㄴ/泥(*n)/3, n/ㄴ/泥(*n)/2, bh/ㅃ/并(*b)/1, m/ㅁ/明(*m)/20, v/ㅅ/嘯(*?)/2, y/이/以(*j)/1’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1)번~7)번은 ‘a/아/藥3(*ia)/1, a/아/鐸1(*a)/20’이고 8)번은 ‘a/ᄒ/𪛗(*?)/1’이므로 같은 범자 모음 ‘a’에 한글 모음 ‘아’와 ‘ᄒ’가 대응하고 있다. 9)번~10)번에서 범자는 원순모음의 음절이며 ‘u/오/沃1(*o)/2, u/오/燭3(*iø)/1’의 대응을 가지고 있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ḥ/-ㄱ/藥3(*-k)/1, -ḥ/-ㄱ/鐸1(*-k)/20, -ḥ/-ㄱ/沃1(*-k)/2, -ḥ/-ㄱ/燭3(*-k)/1’가 된다. 그러나 2)번 ‘daḥ/낙/娜/2’, 5)번 ‘maḥ/막/麼/2’, 6)번 ‘vaḥ/박/嘯/2’을 보면 대응 한자는 자음 운미가 없는 음

98) 원본에 ‘入聲’이란 두 글자의 주석이 있다.

99) “耨”은 중고음에서 泥母 沃1韻 *nok과 泥母 侯1韻 *nəu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00) “僕”은 중고음에서 并母 沃1韻 *bok과 并母 屋1韻 *buk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성운 글자이다. 이는 중국어 번역에서 해당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개음절 대응에 사용하던 음성운 글자들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이외 7)번에서 범자는 ‘va’이고 한자는 ‘𪛗’이므로 한글이 마땅히 ‘바’로 나타나야 하는데 ‘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글의 오류일 수도 있고 혹은 범자 ‘va’가 ‘vah’의 오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을 중성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3.3 기타 기본 음절의 표기

3.3.1 모음 음절

본 절의 범자는 단순 모음으로 형성된 모음 음절로 ‘a, i, e, u, o’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9

- 1) a/아/阿/71 [S;6, G;2, Q;18, D;40, F;5] [阿:影母 歌1韻 *?a]
- 2) a/아/啊/1 [D;1] [啊:*?]
- 3) i/이/伊/3 [S;1, D;2] [伊:影母 脂A韻 *?i]
- 4) e/예/噎/4 [S;1, G;1, Q;1, D;1] [噎:影母 齊4韻 *?ei]
- 5) u/오/鳴/1 [S;1] [鳴:影母 模1韻 *?o]
- 6) u/오/塢/2 [D;2] [塢:影母 模1韻 *?o]
- 7) u/오/鄔/1 [F;1] [鄔¹⁰¹):影母 模1韻 *?o]
- 8) o/오塢/12 [G;2, D;10] [塢:影母 模1韻 *?o]
- 9) o/오/鄔/1 [D;1] [鄔:影母 模1韻 *?o]
- 10) o/오/𦵏/6 [D;6] [𦵏¹⁰²):影母 沒1韻 *?ot]

위의 예29에서 범자는 자음이 없으므로 ‘ø’으로 한다. 자음의 대응은 ‘ø/○/影(*?)’으로 모든 예들이 일치한다.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는 순수하게 ‘ø’를 나타내는 자모가 없으므로 이와 제일 가까운 것으로 影母 *?(혹은 以母 *j)를 사용하는데 위의 예들은 모두 影母를 사용하고 있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71’, ‘i/이/脂A(*i)/3’, ‘e/예/齊4(*ei)/4’, ‘u/오/模1(*o)/4’, ‘o/오/模1(*o)/13’, ‘o/오/沒1(*ot)/6’으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101) “鄔”은 중고음에서 影母 模1韻 *?o와 影母 魚3韻 *?iɣ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102) “𦵏”은 중고음에서 影母 沒1韻 *?ot와 影母 鏗2韻 *?ɣæ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3.3.2 자음 음절

다음은 범자의 단순히 자음으로만 음절을 형성하는 자음 음절의 예이다.
대응 한글과 한자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30

- 1) t/탁/吒/20 [S;12, D;8] [吒:知母 麻2韻 *tɣa]
- 2) ʈa/탁/吒/1 [D;1] [吒:知母 麻2韻 *tɣa]¹⁰³⁾
- 3) t/탁/吒/48 [D;48] [吒:知母 麻2韻 *tɣa]
- 4) tʰ/탁/吒/3 [D;3] [吒:知母 麻2韻 *tɣa]
- 5) tʰ/타/吒/2 [D;2] [吒:知母 麻2韻 *tɣa]

위의 예30를 보면 범자 음절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며 권설음의 ‘t’와 ‘tʰ’뿐이다(이는 산스크리트의 언어현상으로 ‘위라마’로 부르며 본고 제2장 2.1.2절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표기하고 있는 한자는 자음운미가 없는 麻2韻 *ɣa 즉 개음절에서 사용하던 글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t’와 ‘tʰ’ 모두 같은 한자 ‘吒’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은 ‘탁, 탁’의 ‘-ㄱ’종성자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2)번 예 ‘ʈa/탁/吒/1’에서 범자가 자음 음절이 아닌 옹근 음절의 ‘ʈa’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동일 한자에 의한 한글의 오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知(*t)/20’가 앞서 고찰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하지만 범자 ‘t’ 자음의 대응에는 ‘t/ㄷ/知(*t)/48’ 즉 한글 ‘ㄷ’의 대응 예도 있다. 그리고 개음절에서 범자 ‘tʰ’ 자음의 예가 거의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tʰ/ㄷ/知(*t)/3, tʰ/ㄷ/知(*t)/2’로 5회 나타난다.

103) 원본 82b

제 4 장 梵字 복자음의 한글 표기

본 장에서는 한글의 복자음 음절 표기에 대해 볼 것이다. 이에 먼저 한글의 범자 표기 방법을 분석하고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분리한 다음 음소의 대응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범자의 음절유형에 따라 開音節의 ‘C+제2자음’류, 開音節의 ‘제1자음+C’류, 閉音節류의 순서로 살펴 볼 것이다.

4.1 ‘C+제2자음’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4.1.1 제2자음 ‘y’류

4.1.1.1. ‘a’ 모음

아래의 범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제2자음은 ‘y’이고, 모음은 ‘a’인 예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1

- 1) kya/가/枳也_[二合]/2 [Q;1, F;1] [枳(聲母):見母*k][也:以母 麻3韻*jia]
- 2) kya/가/枳野_[二合]/1 [D;1] [枳(聲母):見母*k][野:以母 麻3韻*jia]
- 3) tyā/다/底也_[二合]/2 [Q;2] [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 4) tyā/다/底野_[二合]/1 [D;1] [底(聲母):端母*t][野:以母 麻3韻*jia]
- 5) dya/냐/你也_[二合]/18 [S;2, Q;3, D;12, F;1] [你(聲母):娘母*n][也:以母 麻3韻*jia]
- 6) dya/냐/你野_[二合]/1 [S;1] [你(聲母):娘母*n][野:以母 麻3韻*jia]
- 7) dhya/다/地野_[二合]/2 [S;2] [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 8) nya/냐/拏野_[二合]/6 [D;6] [拏(聲母):娘母*n][野:以母 麻3韻*jia]
- 9) pya/ㅃ/跛野_[二合]/1 [S;1] [跛(聲母):幫母*p][野:以母 麻3韻*jia]
- 10) bhya/ㅃ/毗夜_[二合]/1 [D;1] [毗(聲母):并母*b][夜:以母 麻3韻*jia]
- 11) mya/ㅃ/弭也_[二合]/3 [Q;2, D;1] [弭(聲母):明母*m][也:以母 麻3韻*jia]
- 12) vya/ㅃ/尾野_[二合]/2 [S;1, D;1] [尾(聲母):明母*m][野:以母 麻3韻*jia]
- 13) cya/자/紫野_[二合]/1 [D;1] [紫(聲母):精母*ts][野:以母 麻3韻*jia]

- 14) jya/자/紫野_[二合]/1 [D;1] [紫(聲母):>精母*ts][野:以母 麻3韻*jia]
- 15) sya/샤/瑟也_[二合]/1 [S;1] [瑟(聲母):生母*f][也:以母 麻3韻*jia]
- 16) hya/하/哂野_[二合]/1 [D;1] [哂(聲母):曉母*h][野:以母 麻3韻*jia]
- 17) rya/랴/哩也_[二合]/3 [Q;1, D;2] [哩(聲母):哩*?][也:以母 麻3韻*jia]
- 28) rya/랴/哩野_[二合]/1 [D;1] [哩(聲母):哩*?][野:以母 麻3韻*jia]
- 19) lya/랴/里也_[二合]/1 [Q;1] [里(聲母):來母*l][也:以母 麻3韻*jia]

위의 예1에서 범자 음절은 ‘C+y+a’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C’의 종류에 따라 아음의 ‘kya’, 설음의 ‘tya, dya, dhya’, 권설음의 ‘ṇya’, 순음의 ‘pya, bhya, mya, vya’, 치음의 ‘cya, jya, sya’, 후음 등의 ‘hya, rya’가 있다.

이를 표기하는 한글은 ‘가, 다, 나, 바, 마, 자, 샤, 하, 랴’로 되어 있는데 한글의 초성자음은 범자 C자음과 대응하고, 상향이중모음의 활음은 범자의 두 번째 자음 ‘y’와 대응한다. 예를 들어 범자 ‘kya’의 한글 표기는 ‘가’이며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k/ㄱ’, ‘ya/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분리 후의 ‘k’와 ‘ya’는 두 개의 單子音 음절로 볼 수 있는데, ‘k’는 ‘자음 음절’의 형태와 같고 ‘ya’는 기본 개음절의 형태와 같다.

한자를 보면 범자와 한글 모두 1음절인데 비해 모두 [二合]¹⁰⁴⁾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자 ‘kya’의 한자 표기는 ‘枳也_[二合]’이고 범자의 첫 자음 ‘k’와 첫 번째 한자 ‘枳’의 聲母가 대응하고, 범자의 남은 부분 ‘ya’는 두 번째 한자 ‘也’의 ㄹ 음절과 대응한다.¹⁰⁵⁾ 즉 ‘k/枳(聲母)’,

104) 진언집의 실담장의 체문에서 ‘kṣa’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한자가 ‘乞灑_[二合]’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한자의 ‘二合’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五音 중 만약 위 12성의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은 즉 한자의 反切과 같다. 만약 아래 초음과 서로 합하여져 마치 乞灑처럼 위 글자의 半訓과 아래 글자의 全訓이 합하여진다(取五音之字. 若與上十二聲. 反之, 則如漢字反, 若與下超音相合, 則如乞灑之類, 上字半訓, 下字全訓)’고 하였다(미즈노 순페이 2011:149의 번역문 참조).

105) ‘二合’을 흔히 중국어 음운자료의 ‘反切’과 같다고 보는데 사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우선 ‘二合’은 외국어 대응의 표기법이고 ‘反切’은 한자의 음가를 나타내는 일종의 注音法이다. 反切은 예를 들어 흔히 ‘東, 德紅切’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東’은 被切字, ‘德’은 反切上字, ‘紅’은 反切下字라고 한다. 반절상자 ‘德’의 성모는 피절자 ‘東’의 성모를 나타내고 반절하자 ‘紅’의 韻(韻은 운모와 다른 개념이다. 개음을 포함하지 않지만 성조를 포함하는 押韻을 위한 단위이다.)은 피절자 ‘東’의 韻을 나타낸다. 즉, 반절하자는 성모를 주음에 동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二合’은 두 번째 한자의 성모와 운모를 모두 동원하며 첫 번째 한자의 성모와 함께 범어의 복자음 음절을 나타낸다.

‘ya/也’로 대응한다. 만약 梵-韓-中 세 가지 문자의 음절대응으로 정리하면 ‘k/ㄱ/枳(聲母)’, ‘ya/야/也’가 된다. 여기에서 한글 ‘가’는 ‘ㄱ+야’로 세분화하여 분리시켰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범자 음절이지만 다른 표기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예2

- 1) nya/냐/孃/12 [D;12] [孃(聲母):娘母*ɲ][孃(韻母):陽3韻*iaŋ]
- 2) sya/샤/寫/6 [S;2, Q;3, D;1] [寫:心母 麻3韻*sia]

앞서 예1에서 고찰한 일반적인 표기에서 범-한-중 음절 대응은 1:1:2으로 나타나지만 위의 예2는 1:1::1 대응으로 한자가 1음절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한글은 일반표기와 같지만 한자만 차이가 있으며 성모는 범자 C자음과 대응하고 운모가 남은 범자 ‘ya’와 대응한다. 이에 범-한-중의 대응은 ‘ɲ/ㄴ/孃(聲母), ya/야/孃(韻母)’와 ‘s/ㅅ/寫(聲母), ya/야/寫(韻母)’로 된다. 즉 한자 ‘孃’는 陽3韻 *iaŋ, ‘寫’는 麻3韻 *sia로 3등운의 세음성 개음이 범자 ‘y’와 대응하여 ‘y/이/陽3(*-i-), ‘y/이/麻3(*-i-)’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앞서 일반표기에서 한자가 ‘二음’이라는 2음절 표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해당 1음절 범자를 1개의 漢字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2음절의 표기가 1음절 표기보다 비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1음절 표기가 가능하다면 1음절 표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예2의 ‘孃, 寫’의 1음절 표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1음절 표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고의 음소대응의 고찰에서는 3등운 개음이 범자 자음과 대응되는 것을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자는 표의문자이므로 외국어 표기에 많은 제한을 가진다. 이에 상황에 따라 1음절 혹은 2음절이 사용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보다 정연하게 경제적인 표기를 선택하여 1음절 표기가 가능함을 볼 수 있다. 물론 한자도 규칙 없이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체계성과 경제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자 ‘ya’ 대응에 있어 주로 ‘也, 野’ 이 두 글자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위의 대응 분석을 따라 예1~예2를 單子音 단위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k/ㄱ/枳(聲母)/3, t/ㄷ/底(聲母)/3, d/ㄴ/你(聲母)/19, dh/ㄷ/地(聲母)/2, n/ㄴ/扼(聲母)/6, n/ㄴ/孃(聲母)/12, p/ㅍ/跛(聲母)/1, bh/ㅍ/毗(聲母)/1, m/ㅁ/弭(聲母)/3, v/ㅁ/尾(聲母)/2, c/ㅈ/紫(聲母)/1, j/ㅈ/紫(聲母)/1, s/ㅅ/瑟(聲母)/1, s/ㅅ/寫(聲母)/6, h/ㅎ/咽(聲母)/1, r/ㄹ/哩(聲母)/4, l/ㄹ/里(聲母)/1

【개음절】 ya/야/也/28, ya/야/野/20, ya/야/夜/1, ya/야/孃(韻母)/12, ya/야/寫(韻母)/6

위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을 기초로 더 세부적인 음소단위의 대응을 볼 수 있다. 한글 초성의 단위로 대응 관계를 보면 ‘k/ㄱ/見(*k)/3, t/ㄷ/端(*t)/3, dh/ㄷ/定(*d)/2, n/ㄴ/娘(*n)/18, p/ㅍ/幫(*p)/1, bh/ㅍ/并(*b)/1, m/ㅁ/明(*m)/3, v/ㅁ/明(*m)/2, c/ㅈ/精(*ts)/1, s/ㅅ/心(*s)/6, h/ㅎ/曉(*h)/1, y/이/以(*i)/49, r/ㄹ/哩(*?)/4, l/ㄹ/來(*l)/1’ 등이 있는데 거의 모두 제3장에서 고찰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는바, 15)번의 ‘jya/자/紫野_[二合]/1’에서 범자 자음 ‘j’ 대응에 한자 자모는 마땅히 日母이어야 하는데 精母 *ts의 ‘紫’가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14)번 ‘cya/자/紫野_[二合]/1’의 대응은 일반대응에 속하는데 15)번의 범자 ‘j’는 아마 오류일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개음절’에만 있는데, 개음절의 ‘ya’와 대응하는 한자 자모는 모두 以母이고, 以母는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운모의 대응이 麻3韻 *ia으로 나타난다. 즉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1.1.2. 기타 모음

다음은 ‘C+y’류 복자음이지만 기타 모음의 ‘C+ye’, ‘C+yu’, ‘C+yo’ 예들이 다. 대응 한글과 한자의 표기 및 한자의 중고음은 아래와 같다.

예3

1) tye/떼/底曳_[二合]/1 [D;1] [底(聲母):端母*t][曳:以母 祭A韻*jiei]

- 2) hye/혜/醢曳_[二合]/1 [S;1] [醢(聲母):曉母*h][曳:以母 祭A韻*jie]
- 3) tyu/뉘/底庾_[二合]/1 [D;1] [底(聲母):端母*t][庾:以母 虞3韻*jiø]
- 4) dyu/뉴/你庾_[二合]/1 [D;1] [你(聲母):娘母*ŋ][庾:以母 虞3韻*jiø]
- 5) dyu/뉘/底庾_[二合]/1 [D;1] [底(聲母):端母*t¹⁰⁶][庾:以母 虞3韻*jiø]
- 6) myu/뮤/弭庾_[二合]/1 [Q;1] [弭(聲母):明母*m][庾:以母 虞3韻*jiø]
- 7) tyo/뉘/底庾_[二合]/2 [G;1, D;1] [底(聲母):端母*t][庾:以母 虞3韻*jiø]

위의 예3은 앞서 예1과 복자음 유형이 같고 모음에서만 차이가 있다. 한글 상향이중모음의 표기와, 한자의 ‘二合’ 2음절 표기의 방법이 같다. 하지만 일부 기타 표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예4

- 1) tyo/뉘/跬/4 [G;4] [跬:澄母¹⁰⁷ 虞3韻*diø]
- 2) hye/혜/醢/1 [G;1] [醢:曉母 齊4韻*hei]¹⁰⁸

여기에서도 범-한-중 음절의 일반대응은 1:1:2이지만 1:1:1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번에서 한자 ‘跬’의 운모는 虞3韻 *iø으로 3등운의 세음성 개음 ‘-i-’는 범자 자음 ‘y’와 대응할 수 있어 1음절 표기로 대체하였을 것이다. 2)번에서 한자 ‘醢’의 운모는 齊4韻 *ei에 속하며 범자 ‘ye’와 대응시켰다. 물론 중국어 번역의 오류에 의한 예외인 것이지만 그냥 유사한 음가의 글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한글은 ‘혜’로 표기되어 있는데 각자병서 ‘ㄷ’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외 표기로 나타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예3~예4를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분리하고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6) 유성음 범자의 대응은 비음의 한자와 한글 대응이 일반적이므로 마땅히 ‘뉴’로 나타나야 한다. 대응 한자에서 端母로 나타나는 것은 한자에서 생긴 예외이며 한글은 한자를 따라 ‘뉘’로 나타났을 것이다. 혹은 범자 ‘d’ 자음이 ‘t’ 자음의 오류일 수도 있다.
 107) 범자 ‘t’ 대응은 일반적으로 端母이다. 한자 자모 澄母가 대응하는 범자는 권설음의 ‘dh’가 마땅하다. 이는 아마 범자 전승의 오류일 것이다. 그러나 범자 자음이 ‘t’이든 ‘dh’ 한글 자음은 모두 ‘ㄷ’로 대응하며 한글 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8) 원본 31a

【자음음절】 <초성자음> t/ㄷ/底(聲母)/4, t/ㄷ/跬(聲母)/4, h/ㅎ/醢(聲母)/1, h/ㅎ/醢(聲母)/1, d/ㄴ/你(聲母)/1, d/ㄷ/底(聲母)/1, m/ㅁ/弭(聲母)/1

【개음절】 ye/예/曳/2, ye/예/醢(韻母)/1, yu/유/庾/4, yo/유/庾/2, yo/유/跬(韻母)/4

위의 음절대응을 한글의 음소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초성의 대응이 ‘t/ㄷ/端(*t)/4, m/ㅁ/明(*m)/1, h/ㅎ/曉(*h)/1, y/이/以(*j)/8’등으로 거의 대부분 제3장에서 고찰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응도 ‘e/예/祭A(*iei)/2, e/예/齊4(*ei)/1, u/우/虞3(*iü)/4, o/우/虞3(*iü)/6’으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1.2 제2자음 ‘r’류, ‘l’류

4.1.2.1. ‘a’ 모음

다음은 제2자음이 ‘r’인 복자음과 제2자음이 ‘l’인 복자음인 ‘C+ra’, ‘C+la’의 범자 음절을 보겠다.

예5

- 1) kra/ㄱ라/羯囉_[ㄱ라]/1 [S:1] [羯(聲母):見母*k][囉:~?]
- 2) kra/ㄱ라/訖囉_[ㄱ라]/5 [G:4, D:1] [訖(聲母):見母*k][囉:~?]
- 3) gra/ㄱ라/疙囉_[ㄱ라]/7 [G:3, Q:4] [疙(聲母):疑母*ŋ][囉:~?]
- 4) gra/ㄱ라/仡囉_[ㄱ라]/38 [D:38] [仡(聲母):疑母*ŋ][囉:~?]
- 5) gra/ㄱ라/藁囉_[ㄱ라]/7 [D:7] [藁(聲母):疑母*ŋ][囉:~?]
- 6) ghra/ㄱ라/伽囉_[ㄱ라]/2 [S:1, D:1] [伽(聲母):群母*g][囉:~?]
- 7) tra/ㄷ라/怛囉_[ㄷ라]/21 [S:4, G:1, Q:9, D:7] [怛(聲母):端母*t][囉:~?]
- 8) dra/ㄴ라/捺囉_[ㄴ라]/21 [S:1, Q:6, D:13, D:1] [捺(聲母):泥母*n][囉:~?]
- 9) pra/ㅂ라/鉢囉_[ㅂ라]/45 [S:5, G:3, Q:14, D:21, F:2] [鉢(聲母):幫母*p][囉:~?]
- 10) bra/ㅁ라/沒囉_[ㅁ라]/6 [Q:2, D:4] [沒(聲母):明母*m][囉:~?]
- 11) bhra/ㅂ라/悖囉_[ㅂ라]/1 [D:1] [悖¹⁰⁹⁾(聲母):并母*b][囉:~?]
- 12) jra/ㅅ라/日囉_[ㅅ라]/42 [S:16, Q:7, D:17, D:2] [日(聲母):日母*ɳ][囉:~?]

109) “悖”는 중고음에서 并母 灰1韻 *boi와, 并母 沒1韻*bot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 13) śra/시라/室囉_[二合]/4 [Q;1, D;3] [室(聲母):書母*ɕ][囉:*?]
 14) sra/스라/娑囉_[二合]/12 [G;6, D;5, D;1] [娑(聲母):心母*s][囉:*?]
 15) hla/헨라/賀囉_[二合]/1 [S;1] [賀(聲母):匣母*ɦ][囉:*?]

위의 예5에서 범자 음절은 ‘kra, gra, ghra, tra, dra, pra, bra, bhra, jra, śra, sra, hla’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ㄱ라, ㄴ라, ㄷ라, ㄹ라, ㅂ라, ㅃ라, ㅅ라, ㅆ라, ㅈ라, ㅊ라’의 2음절 표기 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음절이 모두 ‘ㄹ’ 모음의 음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범자와 한글을 대응시켜 보면 예를 들어 범자 ‘kra’를 한글 ‘ㄱ라’로 표기하고 있는데 ‘k/ㄱ, ra/라’로 대응한다. 여기에서는 한글의 ‘ㄹ’ 모음 음절은 단순히 범자 자음 ‘k’와 대응하고 있어 ‘ㄹ’ 모음은 사실 범자 모음과의 대응 없이 단순히 첨가된 것이다.

여기에서 한자 표기는 앞서 살펴본 제2자음이 ‘y’인 복자음 표기와 같이 ‘二슴’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자 음절 ‘kra’의 한자 표기는 ‘羯囉_[二合]’이고 범자와의 대응은 ‘k/羯(聲母), ra/囉’이다. 한글과 결합하여 범-한-중의 대응으로 보면 ‘k/ㄱ/羯(聲母)’, ‘ra/라/囉’가 된다.

여기에서도 일부 특이한 표기 예들이 있는바 아래와 같다.

예6

- 1) gra/알/藥囉_[二合]/1 [D;1] [藥(聲母):疑母*ŋ][囉:*?]¹¹⁰⁾
 2) mra/말/沫/1 [D;1] [沫:明母 末1韻*mat]¹¹¹⁾

만약 앞서 예5에서 한글의 일반 표기에 의하면 범자 ‘gra, mra’은 ‘ㄹ’ 모음을 첨가하여 ‘ㄹ라, ㅃ라’로 나타나야 하지만 예6에서는 각각 ‘알, 말’로 나타났다. 2)번 예에서 한자가 1음절의 ‘沫’로 예외 표기가 나타났는데,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말’로 나타나며 예외 표기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1)번 예를 보면 한자가 ‘藥囉_[二合]’ 즉 일반적인 二슴 2음절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한글 ‘알’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10) 원본 62b

111) 원본 83b

여기의 ‘알, 말’의 ‘-ㄹ’ 중성은 모두 범자 자음 ‘r’과 대응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한글의 음절구조에 따르면 범자는 ‘gar, mar’가 된다. 실제 범자 ‘gra, mra’와 비교하여 보면 ‘r’과 ‘a’가 도치되어 있다. 즉 한글의 ‘알, 말’이 범자 자음 ‘r’과 모음 ‘a’를 도치하여 반영한 예외 표기이다. 이런 도치 현상은 진언이 외국어로 장기간 독송되어 오면서 점차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절구조로 ‘동화’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외 표기는 구체적인 음절대응과 음소대응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위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위의 예들을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ㄹ’음절> k/ㄱ/羯(聲母)/1, k/ㄱ/訖(聲母)/5, g/ㄱ/疙(聲母)/7, g/ㄱ/乞(聲母)/38, g/ㄱ/藪(聲母)/8, gh/ㄱ/伽(聲母)/2, t/ㄷ/怛(聲母)/21, d/ㄴ/捺(聲母)/21, p/ㅍ/鉢(聲母)/45, b/ㅍ/沒(聲母)/6, bh/ㅍ/悖(聲母)/1, j/ㄷ/日(聲母)/1, ś/ㅅ/室(聲母)/42, s/ㅅ/娑(聲母)/16, h/ㅎ/賀(聲母)/1

【기본음절】 ra/라/囉/212, la/라/囉/1

위의 대응에서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k/ㄱ/見(*k)/6, g/ㄱ/疑(*ŋ)/53, gh/ㄱ/群(*g)/2, t/ㄷ/端(*t)/21, d/ㄴ/泥(*n)/21, p/ㅍ/幫(*p)/45, b/ㅍ/明(*m)/6, bh/ㅍ/并(*b)/1, j/ㄷ/日(*r)/1, ś/ㅅ/書(*c)/42, s/ㅅ/心(*s)/16, h/ㅎ/匣(*h)/1, r/ㄹ/囉(*?)/21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응은 범자 ‘a’ 모음만 있고 한자가 造字인 ‘囉’만 있는 것으로 통계에 무의미하여 제외시킨다.

4.1.2.2. 기타 모음

기타 모음의 ‘C+ri, C+re, C+rai, C+ru, C+ro, C+rau’의 범자 음절 및 한글과 한자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7

1) gri/ㄱ 레/揭[二合]/2 [S;2] [揭(聲母):群母*g][嗽:*?]

- 2) gri/ㄱ 리/乞哩_[二合]/1 [D;1] [乞(聲母):溪母*kh¹¹²][哩:*?]
- 3) tri/ㄷ 리/怛哩_[二合]/1 [S;1] [怛(聲母):端母*t][哩:*?]
- 4) tri/ㄷ 리/底哩_[二合]/3 [Q;3] [底(聲母):端母*t][哩:*?]
- 5) dri/ㄴ 리/捺哩_[二合]/2 [D;2] [捺(聲母):泥母*n][哩:*?]
- 6) śri/ㅅ 리/室哩_[二合]/9 [S;3, G;1, Q;4, D;1] [室(聲母):書母*ɕ][哩:*?]
- 7) gre/ㄱ 레/揭噉_[二合]/1 [S;1] [揭(聲母):群母*g][噉:*?]
- 8) tre/ㄷ 레/怛噉_[二合]/1 [Q;1] [怛(聲母):端母*t][噉:*?]
- 9) dre/ㄴ 레/汔噉_[二合]/1 [D;1] [汔(聲母):*?][噉:*?]
- 10) dre/ㄴ 레/捺噉_[二合]/1 [F;1] [捺(聲母):泥母*n][噉:*?]
- 11) nre/ㄴ 레/捺嚙_[二合]/1 [S;1] [捺(聲母):泥母*n][嚙:*?]
- 12) pre/ㅂ 레/必噉_[二合]/1 [D;1] [必(聲母):幫母*p][噉:*?]
- 13) pre/ㅂ 레/畢噉_[二合]/1 [D;1] [畢(聲母):幫母*p][噉:*?]
- 14) jre/ㄴ 레/日噉_[二合]/2 [D;1, F;1] [日(聲母):日母*ɳ][噉:*?]
- 15) sre/ㅅ 레/始噉_[二合]/1 [D;1] [始(聲母):書母*ɕ][噉:*?]
- 16) trai/ㄷ 래/怛賴_[二合]/1 [Q;1] [怛(聲母):端母*t][賴:來母 泰1韻*lai]
- 17) trai/ㄷ 래/怛噉_[二合]/5 [D;4, F;1] [怛(聲母):端母*t][噉:*?]
- 18) tru/ㄷ 로/咄嚙_[二合]/5 [Q;4, D;1] [咄(聲母):端母*t][嚙:*?]
- 19) kro/ㅁ 로/喙嚙_[二合]/1 [S;1] [喙(聲母):*?][嚙:*?]
- 20) jro/ㄴ 로/日嚙_[二合]/3 [D;3] [日(聲母):日母*ɳ][嚙:*?]
- 21) śro/ㅅ 로/戌嚙_[二合]/1 [D;1] [戌(聲母):心母*s][嚙:*?]
- 22) drau/ㄴ 로/訥嚙_[二合]/1 [D;1] [訥(聲母):泥母*n][嚙:*?]
- 23) srau/ㅅ 로/素嚙_[二合]/1 [D;1] [素(聲母):心母*s][嚙:*?]

위의 예7에서 범자 음절 대응의 한글 표기가 ‘ㅇ’ 첨가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 역시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을 單子音 음절의 대응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ㅇ’음절> k/ㅁ/喙(聲母)/1, g/ㄱ/乞(聲母)/1, g/ㄱ/揭(聲母)/3, t/ㄷ/怛(聲母)/8, t/ㄷ/咄(聲母)/5, t/ㄷ/底(聲母)/3, d/ㄴ/捺(聲母)/3, d/ㄴ/汔(聲母)/1, d/ㄴ/訥(聲母)/1, n/ㄴ/捺(聲母)/1, p/ㅂ/必(聲母)/1, p/ㅂ/畢(聲母)/1, j/ㄴ/日(聲母)/5, ś/ㅅ/室(聲母)/9, ś/ㅅ/

112) 범자 자음 ‘g’는 마땅히 비음 한자가 대응하여야 하므로 溪母의 ‘乞’은 예외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ㅇ’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범자 자음 ‘g’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자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戌(聲母)/1, s/스/素(聲母)/1, s/스/始(聲母)/1

【기본음절】 ri/리/哩/16, re/레/噤/9, re/레/嚙/1, rai/래/賴/1, rai/래/噤/5, ru/로/嚙/5, ro/로/嚙/2, ro/로/嚙/3, rau/로/嚙/2

여기에서 보다 특이한 한글 표기가 보이는데 바로 ‘시’이다. 6)번의 ‘sri/시리/室哩_[二合]/9’, 21)번의 ‘sro/시로/戌嚙_[二合]/1’에서 나타난다. 이들의 범자 자음이 모두 ‘ś’이란 공통성을 가지는데 개음절 범자에서 ‘ś’ 자음은 한글 ‘시’와 대응한다. 복자음에서 자음 ‘ś’ 대응의 한글은 ‘시’에 ‘으’ 모음을 첨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으’가 되어 ‘시’ 음절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훈민정음해례에서 ‘기, 깐’등은 비록 당시 國語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兒童之言’ 혹은 ‘邊野之語’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¹¹³⁾ 진언은 범어라는 외국어의 표기이므로 ‘邊野之語’의 표기로 볼 수 있겠다.

음소 표기의 대응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의 대응이 ‘g/ㅇ/群(*g)/3, t/ㄷ/端(*t)/16, d/ㄴ/泥(*n)/4, n/ㄴ/泥(*n)/1, p/ㅍ/幫(*p)/2, j/ㅈ/日(*n₂)/5, ś/시/書(*ś)/9, s/ㅅ/心(*s)/1, r/ㄹ/哩(*r)/16, r/ㄹ/噤(*r)/9, r/ㄹ/嚙(*r)/9, r/ㄹ/噤(*r)/5’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i/애/泰1(*ai)/1’ 외 기타 대응의 한자는 모두 造字이며 ‘i/이/哩(*i)/16, ai/애/噤(*i)/5, u/오/嚙(*i)/5, o/오/嚙(*i)/2, au/오/嚙(*i)/2, o/오/嚙(*i)/3’ 등이 있다.

이외 일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번 ‘gri/으레/揭噤_[二合]/2’에서 범자가 ‘gri’이므로 한글 표기는 ‘으리’가 예상되는데 ‘으레’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음절의 한자 ‘噤’을 보면 일반적으로 범자 모음 ‘e’와 대응한다. 범자 ‘e’의 한글 일반 표기는 ‘예’로, 한글이 ‘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 한자 ‘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¹¹⁴⁾

113) ・一起ㄴ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當合二字而用。如：기, 깐之類。

114) 그럼 한자는 무엇 때문에 범자 ‘i’ 대응에 ‘噤’를 사용하였는가? 진언집의 범자 ‘i’ 모음의 단순한 ‘e’ 모음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산스크리트의 음운현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 모음교체 형태 변화 ‘i<e<ai’의 세 단계 형태가 있는데 문자는 ‘i’ 모음의 감소단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어 번역 당시 발음은 ‘e’ 모음의 표준단계일 수도 있을 것이다.

4.1.3 제2자음 ‘v’류

4.1.3.1. ‘a’ 모음

다음은 제2자음이 ‘v’이고 모음이 ‘a’인 범자 음절 ‘C+v+a’의 한글과 한자 표기이다.

예8

- 1) tva/ㄷ바/怛_[二合]/7 [S;4, G;2, D;1, F;1] [怛(聲母):端母*t][_[噤:??]]
- 2) tva/ㄷ바/怛_[二合]/9 [Q;5, D;4] [怛(聲母):端母*t][_[噤:??]]
- 3) nva/ㄴ바/娜_[二合]/1 [D;1] [娜(聲母):泥母*n][_[噤:??]]
- 4) jva/ㅈ바/入_[二合]/25 [Q;15, D;10] [入(聲母):日母*n_[二合]][_[噤:??]]
- 5) śva/시바/濕_[二合]/14 [S;7, G;4, Q;1, D;2] [濕¹¹⁵⁾(聲母):書母*ɕ][_[噤:??]]
- 6) sva/스바/娑_[二合]/132 [S;14, Q;104, D;13, F;1] [娑(聲母):心母*s][_[噤:??]]
- 7) sva/스바/薩_[二合]/22 [S;22] [薩(聲母):心母*s][_[噤:??]]
- 8) sva/스바/濕_[二合]/1 [F;1] [濕(聲母):書母*ɕ][_[噤:??]]
- 9) hva/ㅎ바/賀_[二合]/1 [D;1] [賀(聲母):匣母*h][_[噤:??]]

위의 예8을 보면 여기에서도 한글 표기는 모두 ‘ㄲ’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 표기가 일반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특이한 것은 범자 ‘v’ 대응의 한글 초성이 ‘ㄷ’ 혹은 ‘ㄴ’가 혼용되어 표기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범자와 한자 대응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1)번과 2)번 모두 범자는 ‘tva’이고, 한자는 ‘怛_[二合]’이지만 1)번 한글은 ‘ㄷ바’이고, 2)번 한글은 ‘ㄷ바’이다. 출현 횟수도 각각 7회와 9회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ㄴ’는 개음절 범자 대응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나는데 ‘ㄷ바, 스바, 시바, 스바, ㅎ바’ 등의 출현 환경을 보면 ‘ㄴ’는 두 모음 사이에 끼어 있어 유성음 환경에 위치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중세한국어 ‘ㄴ’의 유성음 환경에서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본고의 제5장 5.2.1.3의 내

115) “濕”는 중고음에서 書母 緝3韻*ɕip와 透母 合1韻*thəm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위의 일반 표기 이외의 일부 기타 표기를 보겠다.

예9

- 1) sva/ㅍ/娑囉[二合]/3 [D;2, F;1] [娑(聲母):心母*s][囉:*?]
- 2) sva/ㅍ/沙囉[二合]/1 [S;1] [沙(聲母):>生母*f][囉:*?]
- 3) sva/ㅍ/濕囉[二合]/1 [F;1] [濕(聲母):>書母*c][囉:*?]
- 4) sva/스와/娑囉[二合]/1 [G;1] [沙(聲母):生母*f][囉:*?]¹¹⁶⁾
- 5) hva/ㅎ배/賀囉[二合]/1 [G;1] [賀(聲母):匣母*h][囉:*?]¹¹⁷⁾

위의 예9에서 먼저 1)번~3)번을 보면 범자 ‘sva’의 한글이 ‘ㅍ’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반 표기에 따르면 마땅히 ‘스바’ 혹은 ‘스바’가 되어야 한다. ‘ㅍ’계 합용병서는 한글의 일반 표기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응 범자의 복자음 유형은 ‘제1자음+C’류에서 제1자음이 ‘S’에 속한 경우이다(구체적인 것은 4.2.4의 내용을 참고). ‘ㅍ’계 합용병서의 출현 횟수도 3회 혹은 1회 등으로 많지 않는 것으로 보아 표기법의 혼란에 의한 예외 표기인 것이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을 구하기 위하여 합용병서의 두 자음을 분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s/ㅍ/娑(聲母)’, ‘va/바/囉’와 같다.

4)번 예를 보면 범자가 여전히 ‘sva’이지만 일반 표기의 ‘스바, 스바’도 아니고, 합용병서의 예외 표기 ‘ㅍ’도 아닌 ‘스와’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순경을 ‘붕’에 있어서 진언 표기의 유성음 환경에서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스와’ 역시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즉 ‘스바’의 ‘바’가 한국어의 음운현상에 따라 원순모음으로 변화하여 ‘바>와’로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음절과 음소 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범자 ‘hva’ 대응의 한글이 ‘ㅎ배’로 되어 있다. 범자가 ‘va’ 대응 한자가 ‘囉’로 여기에서의 한글은 마땅히 ‘바’이어야 한다. 진언 텍스트를 보면 ‘ㅎ배’의 후행 음절은 ‘야’이다. 즉 후행 음절 ‘야’의 상향이중모음의 영향을 받아 선행음절인 ‘바’에 활음이 첨가되어 하향이중모음

116) 원본 32a

117) 원본 30a

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본래의 진언은 ‘헉바-야’이지만 진언 독송 과정에서 ‘바’가 후행음절의 영향을 받아서 ‘바>배’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다. 이 역시 예외 표기로 음절과 음소 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킨다.

위의 예외 표기를 제외한 일반 표기를 중심으로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으’음절> t/ㄷ/怛(聲母)/17, n/ㄴ/娜(聲母)/1, j/ㄱ/入(聲母)/25, ś/시/濕(聲母)/16, s/스/娑(聲母)/133, s/스/薩(聲母)/22, s/스/濕(聲母)/2, h/헉/賀(聲母)/2 <초성자음> s/스/娑(聲母)/3, s/스/沙(聲母)/1

【개음절】 va/바/嘩/203, va/바/嘩/15

위의 음절 대응을 한글 음소단위로 본다면 즉 초성의 대응은 ‘t/ㄷ/端(*t)/17, n/ㄴ/泥(*n)/1, v/ㅂ/嘩(*?)/15, j/ㄱ/日(*n_r)/25, ś/시/書(*e)/14, s/스/心(*s)/159, h/헉/匣(*h)/2’로 이 역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v/ㅂ/嘩(*?)/203’으로 기본음절에 없는 ‘ㅂ’이 사용된다. 중성의 대응은 ‘개음절’에서의 ‘a/아/嘩(*?)/218’가 있지만 이는 중성 대응의 통계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외시킨다.

4.1.3.2. 기타 모음

다음은 기타 모음의 예로 ‘e’ 모음만 있어 ‘C+ve’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예10

- 1) tve/ㄷ 베/怛吠_[二合]/1 [D;1] [怛(聲母):端母*t][吠:并母 廢3韻*bai]
- 2) dve/ㄴ 베/禰吠_[二合]/1 [S;1] [禰(聲母):泥母*n][吠:并母 廢3韻*bai]
- 3) nve/ㄴ 베/你吠_[二合]/1 [D;1] [你(聲母):娘母*n_r][吠:并母 廢3韻*bai]
- 4) śve/시 베/濕吠_[二合]/1 [D;2] [濕(聲母):書母*e][吠:并母 廢3韻*bai]
- 5) śve/스 베/濕吠_[二合]/1 [D;1] [濕(聲母):書母*e][吠:并母 廢3韻*bai]

위의 예10에서 범자 음절 대응 한글은 ‘으’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며, 한자 또한 二合의 2음절 표기이다. 예8에서의 ‘a’ 모음의 일반 표기와 표기

방법이 같다. 범자 ‘ve’ 대응에 한글이 모두 ‘베’, 한자는 모두 ‘吠’로 표기하고 있다. 이 예들을 단자음의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으’음절> t/ㄷ/怛(聲母)/1, d/ㄴ/禰(聲母)/1, n/ㄴ/你(聲母)/1, ś/시/濕(聲母)/2, ś/스/濕(聲母)/1

【기본음절】 ve/베/吠/5

이에 자음의 대응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t/ㄷ/端(*t)/1, d/ㄴ/泥(*n)/1, v/ㅅ/并(*b)/4, ś/시/書(*c)/16’ 등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5)번에서 범자 자음이 ‘ś’이고 한자도 書母 *c로 일반 표기에서 한글은 ‘시’로 나타나야 하는데 ‘스’로 1회 나타나므로 예외 표기이다. 중성의 대응은 기본음절에서만 반영되며 ‘e/예/廢3(*iai)/5’이다.

4.1.4 제2자음 ‘m’류

다음은 제2자음이 ‘m’인 복자음 유형으로, 모음이 ‘a, i’인 범자 음절의 예만 있는데 예가 많지 않아 아울러 보겠다. 이에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1

- 1) tma/ㄷ마/怛麼_[二合]/3 [D;3] [怛(聲母):端母*t][麼:明母 戈1韻*ma]
- 2) dma/ㄴ마/娜麼_[二合]/5 [S;2, Q;1, D;2] [娜(聲母):泥母*n][麼:明母 戈1韻*ma]
- 3) śma/스마/濕麼_[二合]/2 [D;2] [濕(聲母):書母*c][麼:明母 戈1韻*ma]
- 4) śma/스마/澁麼_[二合]/1 [D;1] [澁(聲母):生母*ʃ][麼:明母 戈1韻*ma]
- 5) sma/스마/娑麼_[二合]/4 [S;2, D;1, D;1] [娑(聲母):心母*s][麼:明母 戈1韻*ma]
- 6) hma/ㅎ마/賀麼_[二合]/1 [Q;1] [賀(聲母):匣母*ɦ][麼:明母 戈1韻*ma]
- 7) hma/ㅎ마/憾麼_[二合]/3 [D;3] [憾(聲母):匣母*ɦ][麼:明母 戈1韻*ma]
- 8) dmi/ㄴ미/娜弭_[二合]/1 [S;1] [娜(聲母):泥母*n][弭:明母 支A韻*miē]
- 9) śmi/스미/瑟弭_[二合]/1 [D;1] [瑟(聲母):生母*ʃ][弭:明母 支A韻*miē]

위의 예11의 진언 표기 역시 한글이 ‘으’ 모음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반 표기이다. 하지만 일부 예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예12

- 1) sma/ㅅ마/娑麼_[二合]/2 [D;2] [娑(聲母):心母*s][麼:明母 戈1韻*ma]
- 2) pa-sma/ㅃ마/跛娑麼_[二合]/1 [Q;1] [跛:幫母 戈1韻*pa][娑(聲母):心母*s][麼:明母 戈1韻*ma]

위의 예12에서 1)번은 범자 ‘sma’의 한글 표기가 ‘ㅅ마’ 즉 합용병서로 되어 있는데 예11의 일반표기에 의하면 마땅히 ‘스마’이어야 한다. 합용병서 ‘ㅅ마’가 ‘스마’와 혼용된 것이다. 중세한국어에서 ‘ㅅ’의 합용병서 표기는 흔하지 않다. 물론 진언의 외국어 표기이므로 고유어에 없는 음절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ㅅ’의 합용병서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은 ‘s/ㅅ/娑(聲母), ma/마/麼’이다.

다음 2)번을 보면 범자가 ‘pa-sma’ 즉 두 번째 음절이 역시 ‘sma’이다. 여기에서 ‘-’는 음절경계를 나타낸다. 첫 음절은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다. 일반 표기에 따르면 첫 음절의 한글 표기는 ‘바’, 두 번째 음절이 ‘스마’이다. 만약 두 번째 음절을 합용병서로 표기 하면 ‘ㅃ마’가 된다. 하지만 2)번 예에서 ‘ㅃ마’로 표기되어 있는데 즉 두 번째 음절의 ‘s’ 자음은 선행 음절과 결합하여 한글 표기에서 ‘-ㅅ’ 종성자음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pa/바/跛(聲母), -s/-ㅅ/娑(聲母), ma/마/麼’가 된다. 사실 이런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첫 번째 자음과 대응하고 동시에 한자의 성모와 대응하는 현상은 본고의 제4장 4.2절의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일반 표기 방법으로 나타난다. 즉 여기서는 한글 표기 방법의 혼용인 것이다.

위의 예11~예12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ㄱ’음절> t/ㄷ/怛(聲母)/3, d/ㄴ/娜(聲母)/6, ś/ㄷ/濕(聲母)/2, ṣ/ㄷ/澁(聲母)/1, ṣ/ㄷ/瑟(聲母)/1, s/ㅅ/娑(聲母)/6, h/ㅎ/賀(聲母)/1, h/ㅎ/憾(聲母)/3 <종성자음> -s/-ㅅ/娑(聲母)/1

【개음절】 pa/바/跛/1, ma/마/麼/22, mi/미/弭/2

위의 ‘자음음절’의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t/ㄷ/端(*t)/3, d/ㄴ/泥(*n)/6, ś/ㄴ/書(*c)/2, ʃ/ㄴ/生(*f)/2, s/ㅅ/心(*s)/6, h/ㅎ/匣(*h)/4, m/ㅁ/明(*m)/23’으로 대부분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일부 예외로 ‘ś/ㅅ/濕(聲母)/2’가 있는데 범자 ‘ś’와 한자 書母 *c 대응으로 일반대응과 일치하지만 한글이 일반대응에 따르면 ‘시’이어야 하는데 ‘스’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외 한글 중성자음의 대응이 있는데 ‘-s/-ㅅ/心(*s)/1’이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p/ㅍ/幫(*p)/1, m/ㅁ/明(*m)/24’이고, 중성의 대응은 ‘a/ㅏ/戈1(*a)/23, i/ㅣ/支A(*iē)/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1.5 제2자음 ‘n’류

다음은 제2자음이 ‘n’인 복자음이고 모음의 종류에 따라 ‘C+na’, ‘C+ni’, ‘C+no’인 범자 음절의 예이다.

예13

- 1) gna/ㄱ나/ㄱ囊_[二合]/1 [Q;1] [ㄱ(聲母):疑母*ŋ][囊:泥母 唐1韻*naŋ]
- 2) gna/ㄱ나/ㄱ囊_[二合]/1 [D;1] [ㄱ(聲母):疑母*ŋ][囊:泥母 唐1韻*naŋ]
- 3) ghna/ㄱ나/覲囊_[二合]/1 [Q;1] [覲(聲母):群母*g][囊:泥母 唐1韻*naŋ]
- 4) tna/ㄷ나/怛囊_[二合]/7 [S;3, G;1, Q;1, D;2] [怛(聲母):端母*t][囊:泥母 唐1韻*naŋ]
- 5) gni/ㄱ니/祇儻_[二合]/1 [S;1] [祇(聲母):群母*g¹¹⁸][儻:娘母 耕2韻*ŋɣeŋ]
- 6) gni/ㄱ니/ㄱ顚_[二合]/1 [Q;1] [ㄱ(聲母):疑母*ŋ][顚:泥母 青4韻*neŋ]
- 7) gni/ㄱ니/儼顚_[二合]/2 [D;2] [儼(聲母):疑母*ŋ][顚:泥母 青4韻*neŋ]
- 8) gni/ㄱ니/儼你_[二合]/1 [D;1] [儼(聲母):疑母*ŋ][你:娘母 之3韻*ŋi]
- 9) gni/ㄱ니/ㄱ顚_[二合]/1 [D;1] [ㄱ(聲母):疑母*ŋ][顚:泥母 青4韻*neŋ]
- 10) gno/ㄱ뉴/儼攷_[二合]/ [D;1] [儼(聲母):疑母*ŋ][攷*?]

위의 예13에서 한글은 모두 ‘ㅇ’ 모음 첨가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

118) 유성음 범자 대응 한자와 한글 비음이 일반적이므로 群母의 한자 대응은 예외이다. 이에 한글은 일반대응을 따라 비음의 ‘ㅇ’으로 대응되어 있다.

습'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을 단자음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으’음절> g/ㄱ/疙(聲母)/2, g/ㄱ/乞(聲母)/2, g/ㄱ/祇(聲母)/1, g/ㄱ/擬(聲母)/4, gh/ㄱ/覲(聲母)/1, t/ㄷ/怛(聲母)/7

【기본음절】 na/나/曩/10, ni/니/寔/1, ni/니/顚/4, ni/니/你/1, no/뉴/叟/1

위의 음절 대응에서 ‘gh/ㄱ/覲(聲母)/1’이 있는데 이는 3)번 예의 대응으로 한글이 각자병서로 표기되어 예외에 속한다.¹¹⁹⁾ 이를 제외하고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g/ㄱ/疑(*ŋ)/8, t/ㄷ/端(*t)/7, n/ㄴ/泥(*n)/14’가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모음의 대응은 ‘a/아/唐1(*aŋ)/10, i/이/之3(*i)/1, o/우/叟(*?)’이다. 이 중 ‘叟’은 비록 造字이지만 부수를 제외한 ‘女’를 참고하면 魚3韻 *iɤ으로 3등운 글자이다.

4.1.6 제2자음 ‘r’류

본 절의 범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과 비슷하지만 제2자음이 일반자음이 아닌 마다 ‘r’인 음절이다. 즉 ‘Cr’의 음절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 한글과 한자 및 한자와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4

- 1) kr/ㄱ리/訖哩_[二合]/16 [D;16] [訖(聲母):見母*k][哩*?]
- 2) gr/ㄱ리/揭哩_[二合]/1 [S;1] [揭(聲母):ㄱ群母*g][哩*?]
- 3) tr/ㄷ리/底哩_[二合]/8 [Q;1] [底(聲母):端母*t][哩*?]
- 4) dr/ㄴ리/你哩_[二合]/1 [D;1] [你(聲母):ㄴ娘母*n][哩*?]
- 5) dhr/ㄷ리/地哩_[二合]/1 [Q;1] [地(聲母):定母*d][哩*?]
- 6) pr/ㅍ리/必哩_[二合]/1 [Q;1] [必(聲母):幫母*p][哩*?]

119) 본고에서 고찰한 오대진언(1485)에서 각자병서의 표기는 ‘ㄱ’와 본장 예2의 ‘𪎩’ 표기까지 포함하여 모두 2개 나타난다. 이들을 단순한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ㄱ’ 대응 범자 자음이 유성유기음 ‘gh’이고, ‘𪎩’ 대응 범자 자음이 ‘h’인 것으로 만연사본(1777)의 실답장에서 제시된 한글 표기의 원칙과 일치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고찰과 연구를 향후에 진행할 것이다.

- 7) pr/ㅍ리/跛哩_[二合]/1 [D;1] [跛(聲母):幫母*p][哩*?]
- 8) br/ㅂ리/沒哩_[二合]/4 [D;4] [沒(聲母):明母*m][哩*?]
- 9) mr/ㅁ리/密哩_[二合]/2 [Q;2] [密(聲母):明母*m][哩*?]
- 10) mr/ㅁ리/蜜哩_[二合]/4 [D;3, F;1] [蜜(聲母):明母*m][哩*?]
- 11) mr/ㅁ리/蜜唼_[二合]/2 [S;1, D;1] [蜜(聲母):明母*m][唼*?]
- 12) jr/ㅈ리/日哩_[二合]/1 [S;1] [日(聲母):日母*n_ㅈ][哩*?]
- 13) hr/ㅎ리/紇哩_[二合]/11 [S;1, Q;4, D;4, F;2] [紇(聲母):匣母*ḥ][哩*?]

위의 예14를 보면 범자 음절이 비록 ‘Cr’으로 앞서 ‘C+제2자음’류 복자음과 차이가 있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는 각각 ‘ㄹ’ 모음 첨가의 2음절과 ‘二合’의 2음절 표기로 일치한다. 다만 마다 ‘r’ 대응에 모두 한글은 ‘리’ 하나의 음절로 나타내고 한자는 대부분 ‘哩’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산스크리트 음가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r’은 음성적으로 ‘ri’와 가까운 것으로 이를 하나의 음절과 같이 인지하여 표기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ㄹ’음절> k/ㄱ/訖(聲母)/16, g/ㄱ/揭(聲母)/1, t/ㄷ/底(聲母)/8, d/ㄴ/你(聲母)/1, dh/ㄷ/地(聲母)/1, p/ㅍ/必(聲母)/1, p/ㅍ/跛(聲母)/1, b/ㅂ/沒(聲母)/4, m/ㅁ/密(聲母)/2, m/ㅁ/蜜(聲母)/6, j/ㅈ/日(聲母)/1, h/ㅎ/紇(聲母)/11 <‘리’음절> r/리/哩/50, r/리/唼/2, r/리/唎/1

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見(*k)/16, t/ㄷ/端(*t)/8, dh/ㄷ/定(*d)/1, p/ㅍ/幫(*p)/2, b/ㅂ/明(*m)/12, j/ㅈ/日(*n_ㅈ)/1, h/ㅎ/匣(*ḥ)/11, r/리/哩(*?)/50’으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범자 음절에서 자음 ‘r’가 모음의 역할을 하므로 실제 모음의 대응은 없게 된다.

4.2 ‘제1자음+C’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본 절은 ‘제1자음+C’류의 복자음 유형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제1자음의 유형에 따라 ‘r, N, T, S, k, m’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문자는 같은 부류 자음의 묶음으로 ‘N’은 ‘n, ɳ, ñ, ñ’을 포함하고, ‘T’는 ‘t, d’를 포함하며, ‘S’는 ‘s, ʃ, ś’을 포함한다.

4.2.1 제1자음 ‘r’류

4.2.1.1 표기 유형(1)

아래 예15의 범자를 보면 ‘ga-rga’로 되어 있는데 이는 2개의 범자 음절을 말하며 두 번째 즉 ‘rga’가 제1자음이 ‘r’인 복자음 음절이다. 구체적으로 ‘r+Ca’, ‘r+Ci’, ‘r+Ce’, ‘r+Co’의 범자 음절의 예들이 있으며 이에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5

- 1) ga-rga/알아/藥識/2 [Q;2] [藥:疑母 薛B韻*ɲuɿet][識:疑母 歌1韻*ɲa]
- 2) du-rga/놀아/訥識/1 [F;1] [訥:泥母 沒1韻*not][識:疑母 歌1韻*ɲa]
- 3) ma-rta/말다/鞞哆/1 [F;1] [鞞:明母 月3韻*miɿt][哆:端母 歌1韻*ta]
- 4) ma-rtha/말타/沫他/1 [D;1] [沫:明母 末1韻*mat][他:透母 歌1韻*tha]
- 5) va-rtha/말타/沫佗/1 [Q;1] [沫:明母 末1韻*mat][佗:透母 歌1韻*tha]
- 6) va-rtha/말타/末佗/2 [Q;2] [末:明母 末1韻*mat][佗:透母 歌1韻*tha]
- 7) ma-rdha/말다/沫駄/2 [Q;2] [沫:明母 末1韻*mat][駄:定母 歌1韻*da]
- 8) ga-rbha/알바/藥婆/6 [Q;5, D;1] [藥:疑母 薛B韻*ɲuɿet][婆:并母 戈1韻*ba]
- 9) tu-rbha/돌바/咄婆/1 [D;1] [咄:端母 沒1韻*tot][婆:并母 戈1韻*ba]
- 10) tu-rma/돌마/咄麼/1 [Q;1] [咄:端母 沒1韻*tot][麼:明母 戈1韻*ma]
- 11) dha-rma/달마/達磨/1 [Q;1] [達:定母 曷1韻*dat][磨:明母 戈1韻*ma]
- 12) sa-rva/살바/薩囉/54 [Q;42, D;11, G;1] [薩:心母 曷1韻*sat][囉:??]
- 13) ga-rja/알샤/藥惹/1 [D;1] [藥:疑母 薛B韻*ɲuɿet][惹:日母 麻3韻*ɲia]
- 14) ka-rṣa/갈사/羯灑/1 [D;1] [羯:見母 月3韻*kivt][惹:日母 麻3韻*ɲia]

- 15) ba-rṣa/말사/鞞灑/1 [Q;1] [鞞:明母 月3韻*miɿt][灑:生母 麻2韻*fɻa]
- 16) va-rṣa/말사/鞞灑/2 [Q;2] [鞞:明母 月3韻*miɿt][灑:生母 麻2韻*fɻa]
- 17) kha-rgi/칼이/揭僞/2 [Q;2] [揭:溪母 薛B韻*khɯiɛt][僞:疑母 之3韻*ŋi]
- 18) du-rdi/놀니/訥顚/1 [Q;1] [訥:泥母 沒1韻*not][顚:泥母 青4韻*neŋ]
- 19) du-rbhi/놀비/訥躡/1 [D;1] [訥:泥母 沒1韻*not][躡:并母 昔3韻*biek]
- 20) sa-rge/살예/薩藝/1 [Q;1] [薩:心母 曷1韻*sat][藝:疑母 祭A韻*ŋiei]
- 21) ga-rbhe/알베/藥陛/4 [Q;3, F;1] [藥:疑母 薛B*ŋɯiɛt][陛:并母 齊4韻*bei]
- 22) sa-rve/살베/薩吠/1 [Q;1] [薩:心母 曷1韻*sat][吠:并母 廢3韻*bial]
- 23) sa-rbo/살모/薩冒/2 [Q;2] [薩:心母 曷1韻*sat][冒:明母 豪1韻*mau]

위의 예15을 보면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고 첫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들이다. 1)번~16)번은 ‘a’ 모음 음절이고, 17)번~19)번은 ‘i’ 모음 음절이며, 20)번~22)번은 ‘e’ 모음 음절, 23)번은 ‘o’ 모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를 보면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의 종성자음이 범자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과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tha/말타’의 대응을 단자음 음절 단위로 분리하면 ‘ma-r/말’, ‘tha/타’의 대응으로 된다. 즉 범자에서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r’이 한글 첫 음절의 종성자음 ‘-ㄹ’과 대응하고, 제1자음 ‘r’를 제외한 남은 부분 ‘ga’은 개음절로 한글과 대응한다.

한자 표기를 보면 역시 2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二음은 아니다. 이 2개의 음절이 하나의 범자 음절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자는 한글과 같이 첫 번째 음절이 *-t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이며, 자음운미 *-t가 범자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r’과 대응한다. 예를 들어 ‘ma-rtha/沱他’로 대응하는데 단자음 음절의 단위로 분리하면 ‘ma-r/沱(*mat)’, ‘tha/他(*tha)’가 된다.

이들을 梵-韓-中의 단자음 음절의 대응으로 보면 각각 ‘ma-r/말/沱’, ‘tha/타/他’로 된다. 단순히 음절 형태로 보아 ‘ma-r’는 폐음절이라 하고 ‘tha’을 개음절이라 하여 분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예들을 모두 단자음의 음절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ka-r/갈/羯/1, kha-r/칼/揭/2, ga-r/알/藥/13, tu-r/돌/咄/2, du-r/놀/訥/3,

dha-r/달/達/1, ba-r/말/轡/1, ma-r/말/轡/1, ma-r/말/沫/1, va-r/말/沫/1, va-r/말/末/2, va-r/말/轡/2, sa-r/살/薩/58

【개음절】 ga/아/諷/3, gi/이/疑/2, ge/예/藝/1, ta/다/哆/1, tha/타/他/1, tha/타/佗/3, di/니/顛/1, dha/다/駄/2, bo/모/冒/2, bha/바/婆/7, bhi/비/躋/1, bhe/베/陞/4, ma/마/麼/1, ma/마/磨/1, ma/마/沫/2, va/바/嘩/54, ve/베/吠/1, ja/△/惹/1, şa/사/灑/4

위의 대응을 ‘폐음절’과 ‘개음절’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음소 대응 또한 분류별로 고찰하여 보겠다. 먼저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kh/ㅋ/溪(*kh)/2, g/ㅇ/疑(*ŋ)/13, t/ㄷ/端(*t)/2, d/ㄴ/泥(*n)/3, dh/ㄷ/定(*d)/1, b/ㅁ/明(*m)/1, m/ㅁ/明母(*m)/2, v/ㅁ/明(*m)/5, s/ㅅ/心(*s)/58’이 있으며, 모음의 대응은 ‘a/아/曷1(*at)/59, a/아/薛B(*ɯiɛt)/15, a/아/月3(*iɣt)/5, a/아/末1(*at)/4, u/오/沒1(*ot)/5’로 기본 개음절에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서 특히 ‘b/ㅁ/明(*m)/1’의 예가 보이는데 이 또한 ‘개음절’에서의 범자 유성음과 한글 및 한자의 비음과의 대응 규칙과 어울리는 예이다.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도 있는데 ‘-r/-ㄹ/曷1(*-t)/59, -r/-ㄹ/薛B(*-t)/15, -r/-ㄹ/月3(*-t)/5, -r/-ㄹ/末1(*-t)/4, -r/-ㄹ/沒1(*-t)/5’이다.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 ‘r’과 첫 음절 한글의 ‘-ㄹ’ 종성자음, 첫 음절 한자의 *-t 자음운미가 규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위의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이 ‘g/ㅇ/疑(*ŋ)/6, t/ㄷ/端(*t)/1, th/ㅌ/透(*th)/4, d/ㄴ/泥(*n)/1, dh/ㄷ/定(*d)/2, b/ㅁ/明(*m)/2, bh/ㅁ/并(*b)/12, m/ㅁ/明(*m)/4, v/ㅁ/嘩(?) /54, v/ㅁ/并(*b)/1, j/△/日(*ɳ)/1, ş/ㅅ/生(*ʃ)/4’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예들을 제외하여 ‘a/아/歌1(*a)/10, a/아/戈1(*a)/9, a/아/末1(*at)/2, i/이/昔3(*iek)/1, i/이/之3(*i)/2, e/예/祭A(*iei)/1, e/예/齊4(*ei)/4, e/예/廢3(*iai)/1, o/오/豪1(*au)/2’이므로 역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2.1.2 표기 유형(2)

아래 예16의 범자 음절은 앞서 예15의 범자 음절 유형과 똑같다. 하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의 대응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예16

- 1) va-rta/발다/𑖦𑖳𑖫𑖞[二合]/1 [S;1] [𑖦:母][𑖳:母][𑖫:端母 歌1韻 *ta]
- 2) a-rtha/알다/阿囉𑖳[二合]/1 [D;1] [阿:影母 歌1韻*ʔa][𑖳:母][𑖳:定母¹²⁰⁾ 歌1韻 *da]
- 3) na-rṭa/날타/娜唎𑖳[二合]/1 [S;1] [娜:泥母 歌1韻*na][𑖳:母][𑖳:知母 麻2韻 *tʔa]
- 4) pu-rṇa/불나/布囉拏[二合]/1 [Q;1] [布:幫母 模1韻*po][囉:母][拏:娘母 麻2韻 *ṇʔa]
- 5) pu-rṇa/불나/布羅娜[二合]/1 [Q;1] [布:幫母 模1韻*po][羅:來母*1][娜:泥母 歌1韻 *na]
- 6) ra-rṣi/랄시/囉哩史[二合]/1 [D;1] [囉:母][哩:母][史:生母 之3韻 *ʃi]
- 7) va-rṣi/발시/囉哩史[二合]/1 [D;1] [𑖦:母][哩:母][史:生母 之3韻 *ʃi]
- 8) pa-rya/발야/播哩野[二合]/1 [S;1] [播:幫母 戈1韻*pa][哩:母][野:以母 麻3韻 *jia]
- 9) su-rya/술야/素哩曳[二合]/1 [Q;1] [素:心母 模1韻*so][哩:母][曳:以母 祭A韻 *jiē]
- 10) a-rya/알야/啊哩也[二合]/2 [S;1] [啊:母][哩:母][也:以母 麻3韻 *jia]
- 11) a-rya/알야/啊哩野[二合]/3 [G;3] [啊:母][哩:母][野:以母 麻3韻 *jia]
- 22) a-rha/알하/阿囉曷[二合]/10 [D;10] [阿:影母 歌1韻*ʔa][囉:母][曷:匣母 曷1韻 *ʃat]
- 23) na-rti/날디/那唎智[二合]/2 [S;2] [那:泥母 歌1韻*na][唎:母][智:知母¹²¹⁾ 支3韻*tʃi]
- 24) rū-rti/룰디/嚕唎底[二合]/1 [D;1] [嚕:母][唎:母][底:端母 齊4韻*tei]
- 25) ti-rdhi/틸>테/底唎體[二合]/1 [D;1] [底:端母 齊4韻*tei][唎:母][體:透母 齊4韻*thei]
- 26) śī-rṣi/실>새/試哩麤[二合]/1 [D;1] [試:書母 之3韻*ci][哩:母][麤:生母 佳2韻*ʃɛ]
- 27) na-rte/날테/那唎帝[二合]/1 [S;1] [那:泥母 歌1韻*na][唎:母][帝:端母 齊4韻*tei]
- 28) bu-rte/몰테/慕唎帝[二合]/1 [Q;1] [慕:明母 模1韻*mo][唎:母][帝:端母 齊4韻*tei]
- 29) mu-rte/몰테/母唎諦[二合]/1 [S;1] [母:明母 侯1韻*məu][唎:母][諦:端母 齊4韻*tei]
- 30) su-rye/술예/素哩曳[二合]/2 [Q;2] [素:心母 模1韻*so][哩:母][曳:以母 祭A韻*jiē]
- 31) ca-rye/잘예/左哩曳[二合]/2 [D;2] [左:精母 歌1韻*tsa][哩:母][曳:以母 祭A韻*jiē]
- 32) bhu-rbhu/불보/部囉部[二合]/1 [Q;1] [部:并母 模1韻*bo][囉:母][部:并母 模1韻*bo]

위의 예16에서 한글 표기는 앞서 예15과 같지만 한자만 3개의 음절로

120) 한자 ‘𑖳’는 定母로 일반적으로 유성유기음의 범자 ‘dha’와 일반대응을 이룬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무성유기음의 ‘tha’와 대응하고 있어 예외이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한자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다. 이에 한글 표기는 ‘다’로 되어 있는데 한글 ‘다’는 범자 ‘ta’ 혹은 ‘dha’와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범자 ‘tha’를 따르면 ‘타’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한글 ‘다’는 범자 ‘dha’ 대응의 한자 ‘𑖳’를 따른 것이다.

121) 한자 ‘智’의 자모가 知母이며 知母는 일반적으로 권설음 범자 자음의 ‘ʃ’와 대응하며 한글 초성은 ‘ㅈ’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대응 범자 자음이 ‘t’이므로 예외이다. 한글 ‘ㄷ’는 범자 ‘t’자음을 따랐을 것이다.

되어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자의 3개 음절에서 마지막 두 음절은 [二合]으로 되어 있어 범자 두 번째의 복자음 음절과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 한자의 표기를 보면 ‘va/囉, a/阿, ti/底, na/娜, pu/布, pa/播, a/啊, a/阿, na/那, rū/嚕, ra/囉, śī/試, bu/慕, mu/母, su/素, ca/左, bhu/部’로 모두 陰聲韻 글자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예10에서의 한자는 모두 ‘*-t’ 자음운미를 가지는 入聲韻 글자이다. 두 번째의 복자음 음절은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rta/唎𪛗_[二合], rtha/囉𪛗_[二合], rdhi/唎體_[二合], rṭa/唎吒_[二合], ṛṇa/囉拏_[二合], ṛṇa/囉娜_[二合], rya/哩野_[二合], rya/哩曳_[二合], rya/哩也_[二合], rya/哩野_[二合], rha/囉曷_[二合], rti/唎智_[二合], rti/唎底_[二合], rṣi/哩史_[二合], rṣī/哩曬_[二合], rte/唎帝_[二合], rte/唎諦_[二合], rye/哩曳_[二合], rbhu/囉部_[二合]’와 같다. 이 또한 한자의 ‘二合’이 하나의 옹근 범자와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글 표기와 비교하여 보면, 예를 들어 ‘va-rta/발다/囉唎𪛗_[二合]/1’에서 범자와 한글은 ‘va-r/발, ta/다’로 대응하고, 범자와 한자는 ‘va/囉, rta/唎𪛗_[二合]’로 대응하면서 불일치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梵-韓-中 대응을 위하여 더욱 세분화시켜서 ‘va/바/囉, -r/-ㄹ/唎(聲母), ta/다/𪛗’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 단위의 대응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a/아/阿/11, a/아/啊/5, ta/다/𪛗/1, tha/다/駄/1, na/나/那/3, na/나/娜/1, ṭa/타/吒/1, ṇa/나/拏/1, ṇa/나/娜/1, pa/파/播/1, va/바/囉/2, ca/차/左/2, ya/야/野/4, ya/야/曳/1, ya/야/也/2, ra/라/囉/1, ha/하/曷/10, ti/디/智/2, ti/디/底/2, dhi/ㄷᄒᆞᆫ테/體/1, ṣi/시/史/2, ṣi/시/試/1, ṛṣi/새/曬/1, te/테/帝/2, te/테/諦/1, ye/예/曳/4, pu/보/布/2, bu/모/慕/1, bhu/보/部/2, mu/모/母/1, rū/로/嚕/1, su/소/素/3

【자음음절】 <종성자음> -r/-ㄹ/囉(聲母)/13, -r/-ㄹ/哩(聲母)/14, -r/-ㄹ/唎(聲母)/9, -r/-ㄹ/囉(聲母)/1

먼저 개음절의 예에서 자음의 대응은 ‘ø/ㅇ/影(*?)’/11, ø/ㅇ/啊(*?)’/5, t/ㄷ/端(*t)/6, dh/ㄸ/透(*th)/1, n/ㄴ/泥(*n)/4, t/ㄷ/知(*t)/1, ṇ/ㄴ/娘(*ṇ)/1, p/ㅍ/幫(*p)/3, b/ㅍ/明(*m)/1, bh/ㅍ/并(*b)/2, m/ㅁ/明(*m)/1, v/ㅍ/囉(*?)’/2, c/ㅈ/精(*ts)/2, ṣ/ㅅ/生(*f)/3, s/ㅅ/心(*s)/3, y/ㅇ/以(*j)/11, h/ㅎ/匣(*h)/10,

r/ㄹ/囉(*?)/1, r/ㄹ/嚕(*?)/1'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또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고 보면 'a/아/歌1(*a)/20, a/아/曷1(*at)/10, a/아/戈1(*a)/1, i/이/支3(*iE)/2, i/이/之3(*i)/3, e/예/祭A(*iEi)/4, u/오/模1(*o)/8, u/오/侯1(*əu)/1' 등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의 대응에서는 범자 자음 '-r'이 한글 종성자음 '-ㄹ'가 대응하며 한자는 聲母가 대응하여 '-r/-ㄹ/囉(聲母*?)/13, -r/-ㄹ/哩(聲母*?)/14, -r/-ㄹ/嚙(聲母*?)/9'가 된다. 기본 개음절 표기에서 범자 'r' 대응의 한자가 대부분 造字를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囉, 哩, 嚙'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예외 현상에 대해 보겠다. 25)번의 예가 'ti-rdhi/틸테/底嚙體[二合]/1'로 되어 있는데 복자음 범자 모음은 'i'이지만 한글은 '테', 한자는 齊4韻의 '體'를 사용하고 있다. 한글 모음 '예'와 한자 齊4韻은 일반대응에서 마땅히 범자 'e' 모음과 대응하는데 여기에서는 'i' 모음과 대응하고 있어서 예외가 된 것이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산스크리트 모음교체 'i<e<ai'에 의한 것이다. 즉 진언의 범자 텍스트는 'i' 모음이지만 실제 진언 독송에서 'e'로 발음되며 중국어 번역에서 청각적으로 들리는 데로 'e' 모음으로 번역하여 '體'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한글 '테'는 한자를 따라 표기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음의 대응에서도 'dh/ㄷ/透(*th)'로 나타나고 있다. 범자 'dh'의 일반대응에서 한자는 마땅히 定母 *d이어야 하는데 透母 *th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 'dh'에 대한 한자의 오류이며 한글이 한자를 따라 'ㄷ'로 나타난 것이다. 한자 透母의 오류는 단순히 모두 유기음이라는 데에 따른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모음의 대응을 고려한 기타 자모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26)번 예는 'śi-rṣi/실>새/試哩曬[二合]/1'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범자 음절의 대응에서 한글은 '새', 한자는 佳2韻 *fʏɛ '曬'이다. 일반대응에 한글 '애' 모음과 한자 '曬'는 일반적으로 범자 'ai' 모음과 대응하지만 여기에서는 'i' 모음과 대응하고 있어 예외 표기이다. 이는 범자 등의 단순한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산스크리트의 모음교체 'i<e<ai'에 의한 형태적 차이에 의한 문자와 독음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한글의 '애' 표

기는 한자를 따왔을 것이다.

4.2.1.3 표기 유형 (3)

다음의 예17은 앞서 예16의 범자 음절과 한글 표기가 같다. 하지만 한자 표기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예17

- 1) ma-rga/말아/沫唼_[二合]/1 [S;1] [沫:明母 末1韻*mat][唼:*?][識:疑母 歌1韻*ga]
- 2) la-rtha/랄타/賴囉他_[二合]/1 [D;1] [賴:來母 寒1韻*lan][囉:*?][他:透母 歌1韻*tha]
- 3) ma-rtha/말타/沫囉他_[二合]/1 [D;1] [沫:明母 末1韻*mat][囉:*?][他:透母 歌1韻*tha]
- 4) tu-rtha/돌타/咄囉他_[二合]/1 [D;1] [咄:端母 沒1韻*tot][囉:*?][他:透母 歌1韻*tha]
- 5) ka-rṇa/갈나/羯囉拏_[二合]/1 [D;1] [羯:見母 月3韻*kiɾt][囉:*?][拏:娘母 麻2韻*ṇya]
- 6) sa-rpa/살바/薩囉跛_[二合]/2 [D;2] [薩:心母 曷1韻*sat][囉:*?][跛¹²²⁾:幫母 戈1韻*pa]
- 7) ga-rbha/알바/藥囉婆_[二合]/2 [D;2] [藥:疑母 薛B韻*ɲuɿet][囉:*?][婆:并母 戈1韻*ba]
- 8) ka-rma/갈마/羯唼麼_[二合]/1 [S;1] [羯:見母 月3韻*kiɾt][唼:*?][麼:明母 戈1韻*ma]
- 9) ma-rma/말마/沫囉麼_[二合]/1 [D;1] [沫:明母 末1韻*mat][囉:*?][麼:明母 戈1韻*ma]
- 10) ca-rma/잘마/抄唼麼_[二合]/1 [S;1] [抄:精母 曷1韻*tsat][唼:*?][麼:明母 戈1韻*ma]
- 11) sa-rva/살바/薩囉嚩_[二合]/48 [S;1, D;38, F;9] [薩:心母 曷1韻*sat][囉:*?][嚩:*?]
- 12) sa-rva/살바/薩唼嚩_[二合]/2 [S;2] [嚩:*?][唼:*?][嚩:*?]
- 13) da-rśa/날¹²³⁾샤/捺哩捨_[二合]/1 [S;1] [捺:泥母 曷1韻*nat][哩:*?][捨:書母 麻3韻*cia]
- 14) ka-rṣa/갈사/羯囉灑_[二合]/2 [Q;2] [羯:見母 月3韻*kiɾt][囉:*?][灑:生母 麻2韻*ɕɿa]
- 15) ba-rya/말야/沫里也_[二合]/1 [D;1] [沫:明母 末1韻*mat][里:來母*l][也:以母 麻3韻*jia]
- 16) mu-rti/몰디/沒唼底_[二合]/1 [D;1] [沒:明母 沒1韻*moɿt][唼:*?][底:端母 ▶齊4韻*te i]¹²⁴⁾
- 17) sa-rve/살베/薩囉吠_[二合]/3 [D;3] [薩:心母 曷1韻*sat][囉:*?][吠:并母 廢3韻*bai]

122) ‘跛’는 중고음에서 幫母 戈1韻*pa와 幫母 支B韻*puɿe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123) 범자 ‘a’ 모음 대응의 한글 모음은 일반적으로 ‘아’ 모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으’ 모음으로 되어 있다. 폐음절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범자 ‘a’ 모음 대응에 이같이 종종 기타 모음이 올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5장 5.1.2.1에서 다룰 것이다.

124) 여기에서 4등운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端母가 1,4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즉 한자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만약 기계적으로 한자를 따르면 ‘예’ 모음으로 표기되는데, ‘디’ 즉 ‘이’ 모음으로 표기된 것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를 따왔기 때문이다.

위의 예17에서 한자는 예16과 같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이 ‘二合’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예16에서 첫 음절의 한자는 자음운미가 없는 陰聲韻 글자이지만, 여기에서의 첫 음절은 자음운미 *-t를 가지는 入聲韻 글자들이다. 즉 ‘沫, 嬾, 咄, 羯, 薩, 蘖, 撈, 捺, 沒’ 등으로 모두 ‘*-t’ 운미를 가진다. 앞서 예15에서 한자의 첫음절 역시 入聲韻 글자이지만 2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3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ma-rga/沫唼識_[二合]’을 세분화하여 ‘ma-r/沫’, ‘rga/唼識_[二合]’의 대응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범자 ‘r’은 한자 ‘沫’의 자음운미 *-t와도 대응하고 한자 ‘唼(聲母)’와도 대응하여 중복 표기된 것이다.

본고의 제3장에서 기본 개음절 범자의 표기 고찰에서 비록 대부분 陰聲韻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운미가 있는 入聲韻 혹은 陽聲韻 글자들도 많이 대응하고 있음을 보았다. 전형적인 예로 양성운의 ‘曩’은 범자 ‘na’와 대응하고, 입성운의 ‘蘖’은 범자 ‘ga’와 대응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입성운 글자를 개음절 범자와 대응하여 ‘ma/沫, la/嬾, tu/咄, ka/羯, sa/薩, ga/蘖, ca/撈, da/捺, ba/沒, mu/沒’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예17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ka/가/羯/4, ga/아/識/1, ga/아/蘖/2, tha/타/他/3, da/ㄴ/捺/1, na/나/拏/1, pa/바/跛/3, ba/마/沫/1, bha/바/婆/2, ma/마/沫/3, ma/마/麼/3, va/바/嚩/50, ca/자/撈/1, śa/샤/捨/2, ṣa/사/灑/2, sa/사/薩/56, ya/야/也/1, la/라/嬾/1, ti/디/底/1, ve/베/吠/3, tu/도/咄/1, mu/모/沒/1

【자음음절】 <중성자음> -r/-ㄹ/囉(聲母)/63, -r/-ㄹ/唼(聲母)/6, -r/-ㄹ/哩(聲母)/1, -r/-ㄹ/里(聲母)/1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을 대응을 보면 ‘k/ㄱ/見(*k)/4, g/ㅇ/疑(*ŋ)/3, t/ㄷ/端(*t)/2, th/ㅌ/透(*th)/3, n/ㄴ/娘(*n)/1, p/ㅍ/幫(*p)/3, b/ㅂ/明(*m)/1, bh/ㅃ/并(*b)/2, m/ㅁ/明(*m)/7, v/ㅅ/并(*b)/1, v/ㅅ/嚩(*?)/50, c/ㅈ/精(*ts)/1, ś/ㅅ/書(*c)/2, ṣ/ㅅ/生(*f)/2, s/ㅅ/心(*s)/56, y/ㅇ/以(*j)/1, l/

ㄹ/來(*l)/1'이 있는데 거의 모두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예를 제외하고 보면 'a/아/月3(*irt)/4, a/아/歌1(*a)/4, a/아/薛B(*ɰiet)/2, a/아/曷1(*at)/55, a/ㄱ/曷1(*at)/1, a/아/戈1(*a)/8, a/아/末1(*at)/4, a/아/寒1(*an)/1, e/예/廢3(*iai)/1, u/오/沒1(*ot)/2'로 여전히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자음 음절 즉 '-r'의 표기 대응으로는 '-r/-ㄹ/囉(聲母*?)/63, -r/-ㄹ/哩(聲母*?)/1, -r/-ㄹ/唼(聲母*?)/6'가 있는데 예10의 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예16~예17의 한글과 한자 표기를 비교하여 보면 한글은 모두 2음절로 표기되고 '-ㄹ' 중성자음이 범자 '-r'과 대응하고 있지만 한자는 2음절 혹은 3음절로 표기하거나 심지어 중복 표기를 사용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글 표기는 한자의 표기법 혼란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글의 특성에 따라 2음절 표기로 시종일관 정연하게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1.4 표기 유형(4)

본 절의 예는 복자음 음절이 연이어 나타나거나 혹은 한글, 한자가 범자와의 대응이 불일치한 특이한 예들이다.

예18

- 1) sa-rva-rtha/살발타/薩唼囉_[二合]囉佗_[二合]/1 [S;1] [薩:心母 曷1韻*sat][唼:*?][囉:*?][佗:透母 歌1韻*tha]
- 2) sa-rva-rtha/살발타/薩囉唼_[二合]囉他_[二合]/2 [D;2] [薩:心母 曷1韻*sat][囉:*?][囉:*?][他:透母 歌1韻*tha]
- 3) tya-rthi-ka/딜턱가/窒剔迦/1 [Q;1] [窒¹²⁵:端母 屑4韻*tet][剔:透母 錫4韻*thek][迦:見母 戈3韻*kia]
- 4) ma-dhu/말도/沫度/1 [D;1] [沫:明母 末1韻*mat][度¹²⁶:定母 模1韻*do]

125) “窒”는 중고음에서 端母 屑4韻*tet와 知母 質B韻*tɰit의 두 음가를 가지는데 자모를 보면 端母가 적절하지만 운모를 보면 質B韻이 더 가까운 것으로 모순이 된다. 하지만 자모를 우선 순위로 고려하여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할 것이다.

126) ‘度’는 중고음에서 定母 模1韻*do와 定母 鐸1韻*dak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模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5) ma-ja/말샤/沫惹/2 [D;1] [沫:明母 末1韻*mat][惹:日母 麻3韻*nja]

위 예18에서 먼저 1)번~2)번 예를 보면 범자는 모두 ‘sa-rva-rtha’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절은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는 모두 ‘살발타’ 3개의 음절로 되어 있어 범자와 대응시키면 ‘살/sa-r, va-r/발, 타/tha’이다. 하지만 한자는 ‘薩唎囉_[二合]囉佉_[二合]’ 혹은 ‘薩囉囉_[二合]囉他_[二合]’ 5개의 글자로 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글의 3음절 표기가 한자의 5字 표기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a/사/薩, -r/-ㄹ/唎(聲母) 혹은 囉(聲母), va/바/囉, -r/-ㄹ/囉(聲母), tha/타/佉’가 된다.

3)번 예의 범자 음절은 ‘tya-rthi-ka’와 같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절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의 복자음이며, 세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다. 한글은 ‘딜턱가’로 표기하여 범자와 대응하면 ‘딜/tya-r, 턱/thi(-k), 가/ka’가 된다. 한글의 두 번째 음절 ‘턱’에서의 ‘-ㄱ’ 종성자음은 후행 범자 ‘k’ 자음의 중복표기가 된다. 이는 범자 ‘thi’가 후행 음절 ‘ka’의 자음 ‘k’의 영향을 받아 음성적으로 ‘thi-k’로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자는 ‘窒剔迦’로 범자와의 대응이 ‘tya-r/窒, thi(-k)/剔, ka/迦’가 된다. 두 번째 한자 ‘剔’은 *-k의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로 자음운미 *-k는 ‘k’의 중복 표기가 된다. 즉 한글의 ‘-ㄱ’ 종성자음은 한자 *-k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글 표기의 첫 번째 글자 ‘딜’의 모음은 ‘이’이지만 대응하는 범자는 ‘tya-r’ 즉 모음과 대응하는 부분이 ‘ya’이다. 이 또한 한자 ‘窒’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한글의 대응은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번~5)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각각 ‘ma-dhu’, ‘ma-ja’로 모두 2개의 기본 개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한글 표기를 보면 ‘말도’, ‘말샤’로 되어 있는데 대응 한자가 ‘沫度, 沫惹’로 첫 번째 한자가 *-t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들이다. 한자 표기에서 입성운 글자는 개음절 범자와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예외 표기가 아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개음절 범자와 종성자음의 한글과의 대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외이다. 이 같은 한글 표기의 예외는 입성운 한자의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한 범-한-중 음소대응의 통계는 ‘ma/마/沫, -ø/-르/沫(*-t), dhu/도/度’, ‘ma/마/沫, -ø/-르/沫(*-t), ja/야/惹’로 할 것이다.

위의 예들을 분석하여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ka/가/迦/1, tha/타/佗/1, tha타/他/2, ma/마/沫/3, va/바/嘩/3, ja/야/惹/2, sa/사/薩/3, dhu/도/度/1

【폐음절】 tya-r/▶딜/窒/1, thi-(k)/▶턱/剔/1

【자음음절】 <종성자음> -ø/-르/沫(*-t)/3, -r/-르/唼(聲母)/1, -r/-르/囉(聲母)/5

위의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th/ㅌ/透(*th)/3, m/ㅁ/明(*m)/3, v/ㅂ/嘩(?) /3, j/ㅈ/日(*n_l)/2, s/ㅅ/心(*s)/3, dh/ㅊ/定(*d)/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일부 통계에 무의미한 예들을 제외하면 ‘a/아/戈3(*ia)/1, a/아/歌1(*a)/3, a/아/末1(*at)/3, a/아/曷1(*at)/3, u/오/模1(*o)/1’ 등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th/ㅌ/透(*th)/1’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r/-르/屑4(*-t)/1’이 있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표기 대응의 예는 ‘-r/-르/囉(聲母*)/5, -r/-르/唼(聲母*)/1’이 있다. ‘-ø/-르/沫(*-t)/3’은 범자 자음의 빈칸으로 음소대응의 고찰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2.2 제1자음 ‘N’류

제1자음 ‘N’류의 복자음은 제1자음 ‘n, ɲ, ñ, n’인 복자음 음절을 말한다. 아래는 제1자음의 유형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4.2.2.1 제1자음 ‘n’류 (1)

아래 예의 두 번째 범자 음절은 제1자음이 ‘n’인 복자음이고 ‘n+Ca,

n+Ci, n+Ce, n+Cu'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9

- 1) ka-nta/건다/建跬/1 [D;1] [建:見母 元3韻*kiɿn][跬:端母 歌1韻*ta]
- 2) tha-nta/탄다/歎哆/1 [F;1] [歎:透母 寒1韻*than][哆:端母 歌1韻*ta]
- 3) da-nta/난다/難多/1 [D;1] [難:泥母 寒1韻*nən][多:端母 歌1韻*ta]
- 4) ma-nta/만다/滿跬/4 [Q;4] [滿:明母 桓1韻*man][跬:端母 歌1韻*ta]
- 5) ma-nta/만다/滿哆/2 [Q;2] [滿:明母 桓1韻*man][哆:端母 歌1韻*ta]
- 6) ma-nta/만다/滿多/1 [Q;1] [滿:明母 桓1韻*man][多:端母 歌1韻*ta]
- 7) ba-nta/만다/挽跬/1 [Q;1] [挽:明母 元3韻*miɿn][跬:端母 歌1韻*ta]
- 8) ma-nta/만다/万哆/1 [F;1] [万¹²⁷:明母 元3韻*miɿn][哆:端母 歌1韻*ta]
- 9) bhya-nta/변다/便跬/1 [D;1] [便:并母 仙A韻*biɛn][跬:端母 歌1韻*ta]
- 10) ca-nta/산다/散跬/1 [Q;1] [散:心母 刪2韻*syæn][跬:端母 歌1韻*ta]
- 11) śa-nta/선다/扇跬/1 [D;1] [扇:書母 仙3韻*ciɛn][跬:端母 歌1韻*ta]
- 12) ci-nta/진다/震哆/1 [Q;1] [震:章母 眞3韻*ciɛn][哆:端母 歌1韻*ta]
- 13) ga-nda/언나/彦拏/1 [D;1] [彦:疑母 仙B韻*ŋwiɛn][拏:娘母 麻2韻*ŋɿa]
- 14) bhi-nda/빈나/頻娜/1 [D;1] [頻:并母 眞A韻*bin][娜:泥母 歌1韻*na]
- 15) bhi-nda/빈나/枇娜/2 [Q;2] [枇:幫母 脂A韻*pi][娜:泥母 歌1韻*na]
- 16) chi-nda/친나/嚵娜/2 [Q;2] [嚵:初母 臻3韻*tshuɿn][娜:泥母 歌1韻*na]
- 17) chi-nda/친나/窺娜/15 [D;15] [窺:淸母 眞3韻*tshin][娜:泥母 歌1韻*na]
- 18) chi-nda/친나/噴娜/2 [D;2] [噴:昌母 眞3韻*chin][娜:泥母 歌1韻*na]
- 19) ga-ndha/언다/彦駄/1 [D;1] [彦:疑母 仙B韻*ŋwiɛn][駄:定母 歌1韻*da]
- 20) la-ndha/란다/嬾駄/1 [D;1] [嬾:來母 寒1韻*lan][駄:定母 歌1韻*da]
- 21) ma-ndha/만다/滿駄/8 [Q;3, D;5] [滿:明母 桓1韻*man][駄:定母 歌1韻*da]
- 22) ba-ndha/만다/畔駄/1 [S;1] [畔:并母 桓1韻*ban][駄:定母 歌1韻*da]
- 23) pa-nna/만나/半曩/2 [D;2] [半:幫母 桓1韻*pan][曩:泥母 唐1韻*naŋ]
- 24) ki-nna/긴나/緊曩/1 [Q;1] [緊:見母 眞A韻*kin][曩:泥母 唐1韻*naŋ]
- 25) ki-nna/긴나/緊娜/1 [D;1] [緊:見母 眞A韻*kin][娜:泥母 歌1韻*na]
- 26) śa-nti/선디/扇底/2 [Q;2] [扇:書母 仙3韻*ciɛn][底:端母 齊4韻*tei]
- 27) ya-nti/연디/演底/2 [D;2] [演:以母 仙3韻*jiɛn][底:端母 齊4韻*tei]

127) “万”은 중고음에서 明母 元3韻*miɿn과 明母 德1韻*m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 28) ha-nti/한디/罕底/1 [D;1] [罕:曉母 寒1韻*han][底:端母 齊4韻*tei]
 29) na-ndi/난니/難你/1 [D;1] [難:泥母 寒1韻*nan][你:娘母 之3韻*ŋi]
 30) na-ndi/난니/難膩/1 [D;1] [難:泥母 寒1韻*nan][膩:娘母 脂B韻*ŋui]
 31) ma-nni/만니/滿你/1 [Q;1] [滿:明母 桓1韻*man][你:娘母 之3韻*ŋi]
 32) sa-nni/산니/散顛/1 [D;1] [散:心母 寒1韻*san][顛:泥母 青4韻*neŋ]
 33) ma-nte/만테/滿帝/2 [Q;2] [滿:明母 桓1韻*man][帝:端母 齊4韻*tei]
 34) ya-nte/연테/演諦/2 [S;2] [演:以母 仙3韻*jien][諦:端母 齊4韻*tei]
 35) na-nde/난네/難祢/1 [D;1] [難:泥母 寒1韻*nan][祢:泥母 齊4韻*nei]
 36) ma-ndhe/만데/滿弟/2 [Q;2] [滿:明母 桓1韻*man][弟:定母 齊4韻*dei]
 37) dya-ntu/던도/鈿覩/1 [D;1] [鈿:定母 先4韻*djen][覩:端母 模1韻*to]

위의 예19에서 범자는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고 한글과 한자도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글의 첫 음절은 모두 ‘-ㄴ’ 종성자음을 가지고 있으며 범자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 ‘-n’과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 표기도 첫 음절 한자가 *-n 자음운미를 가지는 陽聲韻 글자들로 범자 ‘-n’과 대응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앞서 제1자음이 ‘r’인 예15의 표기와 일치한다. 같은 방법으로 단자음을 단위로 음절 대응을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tha-n/탄/歎/1, da-n/난/難/1, na-n/난/難/3, pa-n/반/半/2, ba-n/반/畔/1, ba-n/만/挽/1, ma-n/만/滿/20, ma-n/만/万/1, ca-n/산/骺/1, sa-n/산/散/1, ha-n/한/罕/1, la-n/란/爛/1, ki-n/긴/緊/2, bhi-n/빈/頻/1, bhi-n/빈/枇/2, ci-n/진/震/1, chi-n/친/嚙/2, chi-n/친/窺/15, chi-n/친/噀/2, ka-n/건/建/1, ga-n/연/彦/2, śa-n/선/扇/3, ya-n/연/演/4, dya-n/던/鈿/1, bhya-n/변/便/1

【개음절】 ta/다/跢/9, ta/다/多/2, ta/다/哆/5, ti/디/底/5, te/테/帝/2, te/테/諦/2, tu/도/覩/1, da/나/拏/1, da/나/娜/22, di/니/你/1, di/니/膩/1, de/네/祢/1, dha/다/駄/11, dhe/데/弟/2, na/나/曩/3, na/나/娜/1, ni/니/你/1, ni/니/顛/1

위의 예에서 ‘폐음절’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k/ㄱ/見(*k)/3, g/ㅇ/疑(*ŋ)/2, th/ㅌ/透(*th)/1, d/ㄴ/:泥(*n)/1, n/ㄴ/泥(*n)/3, p/ㅍ/幫(*p)/2, b/ㅍ/明(*m)/1, bh/ㅍ/并(*b)/2, m/ㅍ/明(*m)/21, c/ㅈ/章(*tʃ)/1, ch/ㅈ/初(*tʃh)/2, ch/ㅈ/淸(*tʃh)/15, ch/ㅈ/昌(*tʃh)/2, ś/ㅅ/書

(*ɛ)/3, s/入/心(*s/1, h/𪛗/曉(*h/1, y/이/以(*j/4, l/ㄹ/來(*l/1'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예외로는 22)번의 ‘畔’과 37)번의 ‘鉤’의 성모가 각각 전탁음의 并母*b와 定母*d인데 일반대응에 의하면 마땅히 유성유기음의 범자 ‘bh, dh’와 대응하여야 하지만 유성음 범자 ‘b, d’와 대응하고 있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중국어 번역에서의 오류일 수도 있다.

하지만 9)번의 ‘bhya-nta/변다/便趺/1’와 37)번의 ‘dya-ntu/던도/鈎觀/1’에서 범자 자음 ‘y’의 대응은 각각 ‘y/이/先4(*-j-)/1, y/이/仙A(*-i-)/1’로 나타난다. 범자 ‘bhya, bya’는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제2자음이 ‘y’인 경우 한글은 상향이중모음으로 표기하지만 한자는 二습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한자는 각각 3등운 글자의 세음성 개음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자 표기의 경제성을 위한 것이므로 예외 표기는 아니지만 음소대응의 고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의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 ‘아’가 대응하는 것과 ‘어’가 대응하는 두 종류가 나타난다. ‘아’의 대응으로 ‘a/아/寒1(*an)/8, a/아/桓1(*an)/23, a/아/元3(*iɤn)/2, a/아/刪2(*ɣæn)/1’가 있고, ‘어’의 대응으로 ‘a/어/元3(*iɤn)/1, a/어/仙B(*ɰiɛn)/2, a/어/仙A(*iɛn)/1, a/어/仙3(*iɛn)/7, a/어/先4(*jen)/1’가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 설명은 제5장의 5.2.2.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기타 ‘i’ 모음의 대응은 ‘i/이/眞A(*in)/3, i/이/眞3(*in)/18’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러나 16)번에서의 ‘𪛗’은 造字로 중고음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부수를 제외한 ‘親’을 기준으로 하면 初母 臻3韻 *tɕhuɿn이다. 初母는 범자의 유기음 ‘ch’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初母는 莊組의 자모로 ‘ɰi’의 3등운 개음이 있는데 범자 ‘i’ 모음의 대응에 후설성 개음의 한자가 대응할 수 없다. 즉 후설성 3등운 개음의 대응은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며 아마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𪛗’이란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성 자음의 대응은 ‘-n/-ㄴ/寒1(*-n)/8, -n/-ㄴ/桓1(*an)/23, -n/-ㄴ/刪2(*ɣæn)/1, -n/-ㄴ/元3(*iɤn)/3, -n/-ㄴ/仙3(*iɛn)/10, -n/-ㄴ/先4(*jen)/1, -n/-ㄴ/眞3(*in)/21’이 있다. 그러나 15)번에서 한자 ‘枇’는 脂A韻*i의 음성

운 글자이지만 대응하는 범자가 ‘bhi-n’으로 예외이다. 중국어 번역에서 간혹 폐음절 범자와 개음절의 한자가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음운미까지 고려하여 폐음절 범자에 어울리는 마땅한 1음절 한자를 찾을 수 없어서 음성운 한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ㄴ’ 종성자음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이 ‘t/ㄷ/端(*t)/26, d/ㄴ/泥(*n)/23, dh/ㄷ/定(*d)/13, n/ㄴ/泥(*n)/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도 ‘a/아/歌1(*a)/50, a/아/麻2(*ya)/1, a/아/唐1(*aŋ)/3, i/이/之3(*i)/2, i/이/脂B(*wi)/1, e/예/齊4(*ei)/7, u/도/模1(*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2.2 제1자음 ‘n’류 (2)

다음은 여전히 제1자음 ‘n’류 복자음의 예들이지만 앞서 예14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범자 음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예20

- 1) sa-ntya/산다/骹地野_[二合]/1 [Q;1] [骹:心母 刪2韻*syæn][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 2) ba-ntra/만트라/滿怛囉_[二合]/1 [D;1] [滿:明母 桓1韻*man][怛(聲母):端母*t][囉:*?]
- 3) kra-nte/ᄇ란테/羯囉_[二合]諦/1 [S;1] [羯(聲母):見母*k][囉:*?][諦:端母 齊4韻*tei]

위의 예20에서 1)번~2)번의 범자 음절은 각각 ‘sa-ntya’와 ‘ba-ntra’이다. 이들의 두 번째 음절을 보면 ‘nty-’와 ‘ntr-’로 삼중 복자음으로 되어 있으며 복자음 구조는 ‘n+C+y’와 ‘n+C+r’로 되어 있다. 첫 두 자음은 ‘제1자음+C’류이고, 그 다음의 두 자음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에 속한다.

범자와 한글을 대응시키면 각각 ‘sa-n/산, tyā/다’와 ‘ba-n/만, tra/트라’인데 첫 음절 ‘산, 만’은 ‘-ㄴ’ 종성자음이 복자음의 제1자음 ‘-n’과 대응한다. 이에 한자도 각각 ‘骹 *syæn, 滿 *man’으로 모두 *-n 자음운미의 글자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음절에서 ‘tyā’는 제2자음이 ‘y’일 때 일반적인 상하이중모음 표기를 따라 ‘다’로 표기한 것이고, ‘tra’는 제2자음이 ‘r’일 때 일반적인 ‘ㄹ’ 모음 첨가의 표기를 따라서 ‘트라’로 된 것이다. 한자 또한 제2

자음이 ‘y’, ‘r’인 일반 표기를 따라 ‘地野_[二合]’, ‘怛囉_[二合]’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각각 ‘sa-n/산/散, t/ㄷ/地(聲母), ya/야/野’와 ‘ba-n/만/滿, t/ㄷ/怛(聲母), ra/라/囉’이다.

3)번의 ‘kra-nte’는 첫 음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음절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ㄱ란테’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의 ‘ㄱ’은 ‘으’ 모음이 첨가된 것이고, ‘란’에서 ‘-ㄴ’ 종성자음은 제1자음 ‘-n’와 대응하는 것이다. 즉 첫 두 음절 ‘ㄱ란’은 두 가지 유형의 복자음 표기 방법이 함께 적용된 것이다. 한자는 ‘羯囉_[二合]諦’로 되어 있는데 첫 두 음절은 ‘二合’으로 2음절 표기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음절 ‘囉’는 비록 造字이지만 부수를 제외한 ‘蘭 *lan’을 참고하면 *-n 자음운미가 있으며 범자 ‘-n’과 대응한다. 즉 한자 표기도 각각 복자음 유형의 표기법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k/ㄱ/羯(聲母)’, ‘ra-n/란/囉’, ‘te/테/諦’이 된다.

예21

- 1) ku-rma-ntu/굴만도/窟口律挽_[二合]觀/1 [D;1] [窟:*?][口律:挽明母 元3韻*mim]
[觀:端母 模1韻*to]
- 2) a-rha-nta/알한다/阿囉罕_[二合]多/1 [D;1] [阿:影母 歌1韻*a][囉:*?][罕:曉母 寒1韻*han]
[多:端母 歌1韻*ta]
- 3) bhu-rva-ndha/불반다/部囉畔_[二合]馱/1 [S;1] [部:并母 模1韻*bo][囉:*?][畔:并母 桓1韻*ban]
[馱:定母 歌1韻*da]
- 4) ga-ndha-rve/안달베/巖達囉吠_[二合]/1 [D;1] [巖⁽¹²⁸⁾:疑母 元3韻*ɣim][達:定母 曷1韻*dat]
[囉:*?][吠:并母 廢3韻*bial]
- 5) ga-ndha-rva/안달바/火巖達囉/1 [Q;1] [火巖:*?][達:定母 曷1韻*dat][囉:*?]

위의 예21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은 모두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모두 ‘제1자음+C’류 복자음을 가진다.

한글 표기의 첫 음절 ‘굴, 알, 불, 안’ 등의 ‘-ㄱ, -ㄴ’ 종성자음은 두 번

128) “巖”은 중고음에서 疑母 元3韻*ɣim와, 疑母 仙B韻*ɣwien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째 범자 음절의 제1자음 ‘r, n’과 대응하고, 두 번째 음절의 ‘만, 한, 반, 달’ 등은 세 번째 범자 음절의 제1자음 ‘n, r’과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범자와 한글은 각각 1)번 ‘ku-r/굴, ma-n/만, tu/도’, 2)번 ‘a-r/알, ha-n/한, ta/다’, 3)번 ‘bhu-r/불, va-n/반, dha/다’, 4)번 ‘ga-n/안, dha-r/달, ve/베’, 5)번 ‘ga-n/안, dha-r/달, va/바’로 대응하여 매우 정연하다.

하지만 한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 표기에 있어서 자음운미의 표기방법 혹은 二습의 2음절 표기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위에 예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와 한자의 대응을 보면 1)번 ‘ku/菰, rma-n/口律挽_{二合}, tu/도/覩’, 2)번 ‘a/阿, rha-n/囉_{二合}, ta/多’, 3)번 ‘bhu/部, rva-n/囉_{二合}, dha/馱’, 4)번 ‘ga-n/獻, dha/達, rve/囉_{二合}, 5)번 ‘ga-n/火獻, dha-r/達, va/囉’이다. 특히 4)번을 보면 ‘達’의 자음운미 *-t와 후행하는 한자 ‘囉(聲母)’가 범자 ‘r’을 중복표기하고 있지만, 5)번에서 ‘達’의 *-t 자음운미가 범자 ‘-r’과 대응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22

- 1) ca-dre/잔느레/讚捺囉_{二合}/3 [Q;3] [讚:從母 寒1韻*dzan][捺(聲母):泥母*n][囉:~?]
- 2) i-dri/인느리/印捺哩_{二合}/1 [D;1] [印:眞A韻*in][捺(聲母):泥母*n][哩:~?]
- 3) śa-nra/전느라/戰捺囉_{二合}/1 [S;1] [戰:章母 仙3韻*ɕiɛn][捺(聲母):泥母*n][囉:~?]
- 4) i-nra/인느라/印捺囉_{二合}/4 [Q;3, D;1] [印:眞A韻*in][捺(聲母):泥母*n][囉:~?]
- 5) i-nri/인느리/印涅哩_{二合}/1 [D;1] [印:眞A韻*in][涅(聲母):泥母*n][哩:~?]
- 6) ta-na/단나/單曩/2 [D;2] [單:端母 寒1韻*tan][曩:泥母 唐1韻*naŋ]

위의 예22에서 1)번~5)번의 범자 음절은 ‘ca-dre, i-dri, śa-nra, i-nra, i-nri’로 첫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며 복자음의 유형은 ‘C+제2자음’류에 속한다. 그리고 1)번~2)번의 C는 유성음의 ‘d’이고, 3)번~5)번은 비음의 ‘n’이다. 앞서 일반적인 음소대응의 표기에서 유성음 범자 ‘d’는 한글과 한자 모두 비음과 대응하므로 여기에서도 ‘d’와 ‘n’ 모두 비음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한글 표기를 보면 ‘잔느레, 인느리, 전느라, 인느라, 인느리’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ㄴ’ 모음의 첨가로 각각 두 번째 음절의 복자음 ‘dre, dri, nra, nra, nri’를 나타낸다. 하지만 첫 음절 ‘잔,

인, 전’ 등은 모두 ‘-ㄴ’ 종성자음을 가져 후행 음절의 첫 자음 ‘-d, -n’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한글에서도 중복 표기가 반영된 것이다. 범자와 한글을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면 1)번 ‘ca(-n)/잔, dre/ㄴ레’, 2)번 ‘i(-n)/인, dri/ㄴ리’, 3)번 ‘sa(-n)/전, nra/ㄴ라’, ‘i(-n)/인, nra/ㄴ라’, ‘i(-n)/인, nri/ㄴ리’가 된다.

한자 표기를 보면 ‘讚捺囉_[二合], 印捺哩_[二合], 戰捺囉_[二合], 印捺囉_[二合], 印涅槃_[二合]’로 되어 있는데 ‘二合’은 두 번째 범자 음절의 복자음을 표기위한 것이다. ‘二合’의 첫 글자 ‘捺(聲母)’ 혹은 ‘涅槃(聲母)’은 범자 ‘d, n’와 대응한다. 하지만 이에 첫 번째 음절 ‘讚, 印, 戰’ 등을 보면 모두 *-n 자음운미를 가지고 있어 이들 또한 후행 음절의 첫 자음 ‘-d, -n’을 반영하고 있다. 즉 한자에서도 중복 표기된다.

앞선 고찰에서 한글은 일반적으로 한자의 중복 표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외로 한자의 중복 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기계적으로 한자의 영향을 받은 오류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진언 독송에서 음성적으로 ‘n’이 추가되어 발음되었을 지도 모른다.

6)번을 보면 범자가 ‘ta-na’로 2개의 기본 개음절로 되어있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단나’로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이 후행 음절의 ‘n’ 자음을 중복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자표기가 ‘單囊’로 되어 있어 첫 음절 ‘單’의 *-n 자음운미가 후행 범자 자음의 ‘n’을 중복표기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중복 표기가 되어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위의 예20~예22의 대응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ga-n/안/獻/1, ga-n/안/火獻/1, ta-(n)/단/單/2, ba-n/만/滿/1, ma-n/만/挽/1, va-n/반/畔/1, ca(n)/잔/讚/3, sa(n)/전/戰/1, sa-n/산/散/1, ha-n/한/罕/1, ra-n/란/嘯/2, dha-r/달/達/1, i(n)/인/印/6

【개음절】 a/아/阿/1, ta/다/多/1, dha/다/駄/1, dha/다/達/1, na/나/囊/2, va/바/嘩/1, ya/야/野/1, ra/라/囉/6, ri/리/哩/2, te/테/諦/2, ve/베/吠/1, re/레/嘸/3, ku/구/窟/1, tu/도/覩/1, bhu/보/部/1

【자음음절】 <‘으’음절> k/ㄱ/羯(聲母)/2, t/ㄷ/怛(聲母)/1, d/ㄴ/捺(聲母)/4, n/ㄴ/捺(聲

母)/5, n/ㄴ/ㄴ(聲母)/1 <초성자음> t/ㄷ/地(聲母)/1 <종성자음> r/-ㄹ/口律(聲母)/1, -r/-ㄹ/囉(聲母)/3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g/ㄱ/疑(*ŋ)/1, t/ㄷ/端(*t)/1, dh/ㄷ/定(*d)/1, b/ㅍ/明(*m)/1, m/ㅍ/明(*m)/1, v/ㅂ/并(*b)/1, c/ㅈ/從(*dz)/1, s/ㅅ/心(*s)/1, h/ㅎ/曉(*h)/1’로 대부분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도 한자 자모의 제약 등을 제외하여 ‘a/아/元3(*iɾn)/2, a/아/寒1(*an)/4, a/아/桓1(*an)/2, a/아/曷1(*at)/1, a/어/仙3(*iɛn)/1, i/이/眞A(*in)/6’ 등이 있으며 대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n/-ㄴ/桓1(*-n)/2, -n/-ㄴ/寒1(*-n)/1, -n/-ㄴ/刪2(*-n)/1, -n/-ㄴ/元3(*-n)/2, -r/-ㄹ/曷1(*-t)/1’ 등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ø/ㅇ/影(*ʔ)/1, t/ㄷ/端(*t)/4, dh/ㄷ/定(*d)/2, n/ㄴ/泥(*n)/2, bh/ㅂ/并(*b)/1, v/ㅂ/嘸(*ʔ)/1, v/ㅂ/并(*b)/1, y/이/以(*j)/1, r/ㄹ/囉(*ʔ)/1, r/ㄹ/哩(*ʔ)/2, r/ㄹ/嚙(*ʔ)/3’ 등이 있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대부분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가운데 한자 자모의 제약 등을 제외하여 보면 ‘a/아/歌1(*a)/3, a/아/曷1(*at)/1, a/아/唐1(*aŋ)/2, i/이/哩(*ʔ)/2, e/예/齊4(*ei)/2, e/예/廢3(*iai)/1, e/예/嚙(*ʔ)/3, u/우/菑(*ʔ)/1, u/오/模1(*o)/2’ 등이 있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2, t/ㄷ/端(*t)/1, t/ㄷ/定(*d)/1, d/ㄴ/泥(*n)/4, n/ㄴ/泥(*n)/6’으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종성 자음의 대응도 있는데 ‘-r/-ㄹ/口律(聲母)/1, -r/-ㄹ/囉(聲母)/1’이다.

4.2.2.3 제1자음 ‘n’류

다음은 제1자음이 권설음 비음 ‘n’인 복자음을 가지는 범자 음절에 대해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23

- 1) ka-ŋta/건타/建蛇/2 [D;2] [建:見母 元3韻*kiɾn][蛇:徹母 麻2韻 *thya]
- 2) ka-ŋtha/간타/建蛇/3 [S;3] [建:見母 元3韻*kiɾn][蛇:徹母 麻2韻 *thya]

- 3) ka-ṇda/건나/建拏/1 [D;1] [建:見母 元3韻*kiɿn][拏:娘母 麻2韻 *ŋɿa]
- 4) na-ṇda/난나/難拏/1 [D;1] [難:泥母 寒1韻*nan][拏:娘母 麻2韻 *ŋɿa]
- 5) la-ṇda/란나/懶娜/1 [G;1] [懶:來母 寒1韻*lan][娜:泥母 歌1韻 *na]
- 6) ma-ṇda/만나/滿拏/5 [Q;1] [滿:明母 桓1韻*man][拏:娘母 麻2韻 *ŋɿa]
- 7) ma-ṇda/만나/曼拏/1 [D;1] [曼:明母 桓1韻*man][拏:娘母 麻2韻 *ŋɿa]
- 8) pa-ṇda/반나/半拏/1 [D;1] [半:幫母 桓1韻*pan][拏:娘母 麻2韻 *ŋɿa]
- 9) ca-ṇda/전나/戰娜/1 [S;1] [戰:章母 仙3韻*teien][娜:泥母 歌1韻 *na]
- 10) ya-ṇda/연나/演拏/2 [D;2] [演:以母 仙3韻*jien][拏:娘母 麻2韻 *ŋɿa]
- 11) ma-ṇdha/만다/曼茶/1 [S;1] [曼:明母 桓1韻*man][茶:澄母 麻2韻 *dɿa]
- 19) gha-ṇṭi/건티/建致/1 [D;1] [建:見母 元3韻*kiɿn][致:知母 脂3韻*i]
- 20) mu-ṇḍi/문니/捫膩/1 [D;1] [捫:明母 魂1韻*mon][膩:娘母 脂3韻*ni]
- 21) ca-ṇḍi/잔니/讚拏/3 [Q;3] [讚:從母 寒1韻*dzan][拏:娘母 支3韻*niɛ]
- 22) rye-ṇda/런나/哩演_[二合]娜/1 [G;1] [哩(聲母):*?][演:以母 仙3韻*jien][娜:泥母 歌1韻 *na]

위의 예23을 보면 제1자음 ‘ṇ’의 복자음의 표기는 앞선 제1자음 ‘n’의 표기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한글 표기에서 두 번째 복자음의 ‘-ṇ’ 자음은 한글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과 대응하고, 한자 역시 첫 글자의 *-n 자음운미와 대응한다.

1)번~21)번의 범자 음절에서의 첫 음절은 모두 기본 개음절이지만 마지막 22)번은 ‘rye-ṇda’로 첫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음절이다. 사실 첫 음절 ‘rye’을 ‘제1자음+C’에서 제1자음이 ‘r’인 복자음 음절로 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일반 표기는 ‘-ㄴ’ 종성자음 ‘r’ 자음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글 표기는 ‘런’ 즉 상향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C+제2자음’류 복자음의 일반 표기에 속한다. 22)번의 한글 표기는 ‘런나’이고 한자는 ‘哩演_[二合]娜’이다. 이에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rye-ṇ/런, da/나’이고, 범자와 한자의 대응은 ‘r/哩, ye-ṇ/演, da/娜’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좀더 세분화하여 범-한-중 대응을 구할 수 있는데 ‘r/ㄹ/哩(聲母), ye-ṇ/연/演, da/나/娜’가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시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ka-ṇ/간/建/3, ka-ṇ/건/建/3, gha-ṇ/건/建/1, na-ṇ/난/難/1, pa-ṇ/반/半/1,

ma-n/만/滿/5, ma-n/만/曼/2, ca-n/전/戰/1, ca-n/잔/讚/3, ya-n/연/演/2, la-n/란/爛/1, ye-n/연/演/1, mu-n/문/捫/1

【개음절】 ʈa/타/姪/2, ʈha/타/姪/3, da/나/拏/11, da/나/娜/3, dha/다/茶/1, di/니/膩/1, di/니/泥/3, ti/티/致/1

【자음음절】 <초성자음> r/ㄹ/哩(聲母)/1

위의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6, n/ㄴ/泥(*n)/1, p/ㅍ/幫(*p)/1, m/ㅁ/明(*m)/8, c/ㅈ/章(*tɕ)/1, y/ㅇ/以(*j)/3, l/ㄹ/來(*l)/1’로 대부분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a/아/元3(*iɤn)/3, a/아/寒1(*an)/5, a/아/桓1(*an)/8, a/어/元3(*iɤn)/4, a/어/仙3(*iɛn)/3, u/우/魂1(*on)/1’ 역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n/-ㄴ/元3(*-n)/7, -n/-ㄴ/寒1(*-n)/5, -n/-ㄴ/桓1(*-n)/8, -n/-ㄴ/仙3(*-n)/3, -n/-ㄴ/魂1(*-n)/1’이 된다.

‘개음절’의 예에서 자음의 대응은 ‘d/ㄴ/泥(*n)/3, t/ㅌ/知(*t)/1, th/ㅌ/徹(*th)/3’이며 모음의 대응은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a/아/歌1(*a)/3, i/이/支3(*iɛ)/3, i/이/脂3(*i)/2’가 있는데, 모두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 ‘r/ㄹ/哩(*?)/1’이 있다.

4.2.2.4 제1자음 ‘n’류

다음은 제1자음이 구개성 비음의 ‘n’인 복자음 음절에 대해 보겠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24

- 1) ka-ñca/견자/謫左/1 [D;1] [謫:見母 仙B韻*kuɿɛn][左:精母 歌1韻*tsa]
- 2) pa-ñca/반자/半左/3 [D;3] [半:幫母 桓1韻*pan][左:精母 歌1韻*tsa]
- 3) na-ñca/난자/難左/4 [Q;2, D;2] [難:泥母 寒1韻*nɛn][左:精母 歌1韻*tsa]
- 4) na-ñca/난자/難者/1 [D;1] [難:泥母 寒1韻*nɛn][者:章母 麻3韻*ɕia]
- 5) na-ñja/난자/難惹/1 [Q;1] [難:泥母 寒1韻*nɛn][惹:日母 麻3韻*ɕia]
- 6) bha-ñja/반자/畔惹/2 [Q;1] [畔:并母 桓1韻*ban][惹:日母 麻3韻*ɕia]
- 7) hma-ñca/ᄒᆞ만자/賀滿_(二合)左/1 [D;1] [賀(聲母):匣母*ɦ][滿明母 桓1韻*man][左:精母 歌1韻*tsa]

8) dma-ñja/ㄴ만자/訥曼惹_{二合}/1 [S:1] [訥(聲母)泥母*n][曼明母 桓1韻*man][惹日母 麻3韻*nia]

위의 예24를 보면 구개성 비음의 ‘-ñ’의 한글과 한자 표기가 앞선 ‘-n, -ŋ’와 같음을 볼 수 있다. 한글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과 한자의 *-n 자음운미가 범자 자음 ‘-ñ’와 대응한다.

1)번~6)번은 범자 첫 음절이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다. 7)번~8)번은 ‘hma-ñca, dma-ñja’로 첫 번째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이고 두 번째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이에 한글은 ‘ㅇ’모음 첨가의 표기와 ‘-ㄴ’ 종성자음의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ㅎ만자, ㄴ만자’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 또한 二合의 2음절과 *-n 자음운미의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賀滿_{二合}左, 訥曼_{二合}惹’로 표기하였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h/ㅎ/賀, ma-ñ/만/滿, ca/자/左’, ‘d/ㄴ/訥, ma-ñ/만/曼, ja/ㅈ/惹’이다.

위의 예들을 각각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ka-ñ/건/蹇/1, na-ñ/난/難/6, pa-ñ/반/半/3, bha-ñ/반/畔/2, ma-ñ/만/滿/1, ma-ñ/만/曼/1

【개음절】 ca/자/左/9, ca/자/者/1, ja/ㅈ/惹/4

【자음음절】 <‘ㅇ’음절> d/ㄴ/訥(聲母)/1, h/ㅎ/賀(聲母)/1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n/ㄴ/泥*n/6, p/ㅍ/幫*p/3, bh/ㅂ/并*b/2, m/ㅁ/明*m/2’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a/아/寒1(*an)/6, a/아/桓1(*an)/7’ 역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a/어/仙B(*uɿen)/1’의 대응이 있는데 1)번 ‘ka-ñca/건자/蹇左’의 예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같은 범자 모음 ‘a’에 한글 모음의 대응이 ‘아’도 있고 ‘어’도 있는 것이다. 종성 자음의 대응으로는 ‘-ñ/-ㄴ/寒1(*-n)/6, -ñ/-ㄴ/桓1(*-n)/7, -ñ/-ㄴ/仙B(*-n)/1’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c/ㅈ/精(*ts)/9, c/ㅈ/章(*tɕ)/1, j/ㅈ/日(*ɲ)/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9, ca/자/麻3(*ia)/5’이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 ‘d/ㄴ/泥(*n)/1, h/ㅎ/匣(*h)/1’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2.4 제1자음 ‘n’류

다음은 제1자음이 연구개 비음인 ‘n’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와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25

1) tya-nga/딩아/底孕_[二合]識/1 [D;1] [底(聲母):端母*t][孕:以母 蒸3韻*jiŋ][識:疑母 歌1韻*ŋa]

2) su-na/송아/素識/1 [D;1] [素:心母 模1韻*so][識:疑母 歌1韻*ŋa]

위의 예25에서 사실 진정한 ‘n+C’류 복자음은 1)번 예뿐이다. 1)번의 범자 음절은 ‘tya-nga’로 첫 번째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는 ‘딩아’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은 ‘tya-n/딩, ga/아’이다. 범자 자음 ‘-n’과 한글 중성자음 ‘-o’가 대응한다. 한자는 ‘底孕_[二合]識’로 되어 있고 범자와의 대응은 ‘tya-n/底孕_[二合], ga/識’이다. 범-한-중의 대응을 보면 ‘t/ㄷ/底(聲母), ya-n/잉/孕, ga/아/識’가 된다. 여기에서 ‘ya-n/잉/孕’을 보면 한글의 ‘이’ 모음이 범자의 ‘ya’와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한자 ‘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어 번역에서 범자 ‘ya’ 대응에 한자 ‘孕 *jiŋ’ 즉 모음이 다른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 완전 일치한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비슷한 음가의 한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의 ‘이’ 모음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2)번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은 ‘su-na’로 사실상 2개의 기본 개음절이다. 한글이 ‘송아’로 표기되어 있어 범자와의 대응을 복자음 표기법에 따라 ‘su-n/송, a/아’로 대응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자를 보면 범자와 ‘su/素 *so, na/識 *ŋa’로 대응한다. 즉 두 번째 음절의 한글 ‘아’는 자음이 ∅가 아닌, 범자 n과 한자 *ŋ가 대응하는 꼭지가 달린 ‘o’의 ‘아’일 것이다. 다시 정리하여 범-한-중의 대응은 마땅히 ‘su/소/素, na/아/識’이어야 한다. 실제 진언 표기에서 ‘소’에 ‘-o’ 중성자음이 추가되어 ‘송’으로 반영된 것은 후행 음절 ‘아’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마치 중세한국어에서 ‘鯉魚’가 마땅히 ‘이어’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음은 ‘잉어’로 반영된 것과 같은 것이다.

즉 한국어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위의 예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아래와 같다.

【개음절】 ga/아/諷/1, na/아/諷/1, su/ㄱ/肅/1

【폐음절】 ya-n/ㄴ/寧/1

【자음음절】 <초성자음> t/ㄷ/底(聲母)/1

위의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g/○/疑(*ŋ)/1, n/○/疑(*ŋ)/1, s/ㄱ/心(*s)/1’이다. 이 중 ‘n/○/疑(*ŋ)/1’의 예는 기본 음절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이고 기타 대응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2, u/오/模1(*o)/1’로 여전히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y/이/以(*j)/1’이고 종성 자음의 대응은 ‘-n/-○/蒸3(*-ŋ)/1’이며 모음의 대응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t/ㄷ/端(*t)/1’이다.

4.2.3 제1자음 ‘T’류

4.2.3.1 표기 유형 (1)

다음은 제1자음이 ‘T’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의 예이며 ‘T’ 자음에는 ‘t’와 ‘d’가 있지만 실제로 제1자음이 ‘t’인 음절의 예는 1개만 보인다. 다른 예들은 모두 ‘d’자음의 예들이다.

예26

- 1) ci-tta/진다/啍跢/9 [Q;1, D;8] [啍¹²⁹:精母 質3韻*tsit][跢:端母 歌1韻*ta]
- 2) bu-ddha/몰다/沒駄/13 [Q;2, D;10] [沒:明母 沒1韻*mot][駄:定母 歌1韻*da]
- 3) si-ddha/싯다/悉駄/5 [S;3, D;2] [悉:心母 質3韻*sit][駄:定母 歌1韻*da]
- 4) si-ddhi/싯디/悉地/1 [S;1]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
- 5) bu-ddhi/몰디/沒地/2 [D;2] [沒:明母 沒1韻*mot][地:定母 脂3韻*di]

129) “啍”은 중고음에서 精組 質3韻*tsit와 精組 職3韻*tsik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한다.

- 6) si-ddhe/신태/悉弟/5 [Q;5] [悉:心母 質3韻*sit][弟:定母 齊4韻*dei]
- 7) só-ddhe/솔테/稭第/12 [Q;12] [稭:船母 術3韻*zuit][第:定母 齊4韻*dei]
- 8) só-ddhe/솔테/稭弟/9 [F;8, D;1][稭:船母 術3韻*zuit][弟:定母 齊4韻*dei]
- 9) só-ddhe/솔테/戌弟/3 [F;3] [戌:心母 術3韻*suit][弟:定母 齊4韻*dei]
- 10) sú-ddhe/솔테/稭第/1 [D;1] [稭:船母 術3韻*zuit][第:定母 齊4韻*dei]

위의 예26에서 1)번의 ‘ci-tta’에서만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이 ‘t’이고 나머지 2)번~10)번 예들은 ‘bu-ddha, si-ddha, si-ddha, si-ddhi, bu-ddhi, si-ddhe, só-ddhe, só-ddhe, sú-ddhe’로 두 번째 음절의 복자음에서의 제1자음은 ‘d’이다. 그런데 제1자음 ‘t’의 후행 자음은 ‘t’이고, 제1자음 ‘d’의 후행 자음이 모두 ‘dh’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설음의 제1자음은 대개 같은 조음위치의 자음이 온다.

한글과 한자의 표기방법은 앞선 제1자음 ‘r’, ‘N’과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보태어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한글 표기에서 범자 ‘-d’ 자음 대응에 ‘-ㄷ’ 종성자음이 대응하고 있고, 한자는 *-t 자음운미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t 자음운미의 한자는 범자 ‘-r’ 자음과의 대응에서도 사용되어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 범자 ‘-d’와 ‘-r’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은 범자 ‘-d’ 대응에 ‘-ㄷ’ 종성자음을, ‘-r’ 대응에 ‘-ㄹ’ 종성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본고 제5장의 5.2.3.1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 또 다른 범자 음절의 유형의 예에 대해 보겠다.

예27

- 1) si-ddhya/신태/悉地野[二合]/4 [Q;4]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野:以母 麻3韻*jia]
- 2) bu-ddhya/몰타/沒地野[二合]/6 [S;2, Q;4] [沒:明母 沒1韻*mot][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 3) si-ddha-rthe/신태테/悉駄唎替[二合]/1 [S;1] [悉:心母 質3韻*sit][駄:定母 歌1韻*da][唎(聲母):*?][替:透母 齊4韻*thei]
- 4) si-ddhya-ntu/신태도/悉鈿覩/1 [Q;1] [悉:心母 質3韻*sit][鈿:定母 先4韻*den][覩:端母 模1韻*to]

위의 예27에서 먼저 1)번~2)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si-ddhya’, ‘bu-ddhya’로 두 번째 음절이 ‘d+C+y’의 삼중 복자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 두 자음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이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음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 된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신다’, ‘몬다’로 범자와의 대응은 ‘si-d/신, dhya/다’, ‘bu-d/몬, dhya/다’이다. 범자 ‘dhya’의 대응에서 한글은 ‘다’로 나타나고 한자는 ‘地野_[二合]’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제2자음이 ‘y’인 경우의 일반 표기와 일치한다. 이들의 범-한-중 음절 대응을 ‘si-d/신/悉, dh/ㄷ/地, ya/야/野’, ‘bu-d/몬/沒, dh/ㄷ/地, ya/야/野’이다.

3)번~4)번에서 범자 음절은 각각 ‘si-ddha-rthe’, ‘si-ddhya-ntu’로 3개의 음절이다. 첫 번째 음절은 개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특히 4)번의 두 번째 음절은 ‘d+C+y’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을 표기하고 있는 한글은 ‘신달데, 신던도’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은 ‘si-d/신, dha-r/달, the/데’, ‘si-d/신, dhya-n/던, tu/도’이다. 한자 표기는 ‘悉駄𪛗替_[二合]’, ‘悉鈿覩’으로 되어 있으며 범자와 대응하면 ‘si-d/悉, dha/駄, r/𪛗(聲母), the/替’, ‘si-d/悉, dhya-n/鈿, tu/覩’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의 차이에 의하여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i-d/신/悉, dha/다/駄, -r/-ㄷ/𪛗(聲母), the/데/替’, ‘si-d/신/悉, dhya-n/던/鈿, tu/도/覩’이다.

위의 예26~예27의 대응들을 단자음을 단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ta/다/𪛗/9, dha/다/駄/19, ya/야/野/12, dhi/디/地/3, the/▶데/替/1, dhe/데/弟/35, tu/도/覩/1

【폐음절】 ci-t/진/啍/9, bu-d/몬/沒/23, si-d/신/悉/17, só-d/술/戌/3, só-d/술/秫/21, sú-d/술/秫/1, dhya-n/▶던/鈿/1

【자음음절】 <초성자음> dh/ㄷ/地(聲母)/12 <종성자음> -r/-ㄷ/𪛗(聲母)/1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t/ㄷ/端(*t)/20, dh/ㄷ/定(*d)/57, y/이/以(*j)/12’의 대부분 예들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로 3)번에서 ‘the/데/替’가 있는데 범자 ‘th’와 한자 ‘替(透母 *th)’ 대응의 한글은 마땅히 유기음의 ‘ㅌ’가 예상되지만 ‘ㄷ’ 자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ㄷ’와 ‘ㅌ’가 혼용 현상에 대하여 본고 제5장의 5.2.1.1절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모음의 대응은 대부분 ‘a/아/歌1韻*da]/28, i/이/脂3韻*di]/3, e/예/齊4韻*dei]/36, u/오/模1韻*t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c/ㅈ/精(*ts)/9, b/ㅍ/明(*m)/23, s/ㅅ/心(*s)/17, ś/ㅅ/船(*z)/22, dh/ㄷ/定(*d)/1’ 등 대부분의 예들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로 4)번에서 ‘dhya-n/던/鈿’가 있는데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이 ‘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 ‘ya-n’ 대응에 한자 ‘鈿 (先4韻 *den)’을 사용하면서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역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이외 모음의 대응은 ‘i/이/質3(*it)/26, u/오/沒1(*ot)/23, o/우/術3(*uit)/24, u/오/術3(*uit)/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t/-ㄷ/質3(*it)/26, -d/-ㄷ/沒1(*ot)/23, -d/-ㄷ/術3(*uit)/27, -n/-ㄴ/先4(*jen)/1’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dh/ㄷ/定(*d)/12’가 있고, 종성자음의 대응에서는 ‘-r/-ㄹ/ㄹ(聲母 *?)/1’이 있다.

4.2.3.2 표기 유형 (2)

다음은 ‘T+C’류 복자음 음절 관련하여 보다 특이한 대응 현상을 보여주는 예들에 대해 볼 것이다.

예28

- 1) mu-ddha/모다/冒駄/1 [F;1] [冒:明母 豪1韻*mau][駄:定母 歌1韻*da]
- 2) sa-ddha/산다/娑駄/1 [S;1] [娑:心母 歌1韻*sa][駄:定母 歌1韻*da]
- 3) mu-ddha/몰다/母駄/1 [F;1] [母:明母 侯1韻*məu][駄:定母 歌1韻*da]
- 4) mu-tha/몰다/沒駄/1 [Q;1] [沒:明母 沒1韻*mot][駄:定母 歌1韻*da]
- 5) bu-ddhya/모다/沒地野_{二合}/2 [G;1] [沒:明母 沒1韻*mot][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 6) mu-ddhya/몰다/母地也_{二合}/2 [F;2] [母:明母 侯1韻*məu][地(聲母):定母*d][也:以母 麻3韻*jia]

먼저 1)번~3)번의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이 ‘mu-ddha, sa-ddha, mu-ddha’

로, 첫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를 보면 ‘모다, 산다, 못다’로 되어 있는데 특히 1)번의 ‘모다’에서 ‘모’는 종성자음 없이 ‘모/mu-d’로 대응한다. 이들의 하자 표기를 보면 ‘冒馱, 娑馱, 母馱’로 첫 글자가 모두 陰聲韻 글자로 범자와 ‘mu-d/冒, sa-d/娑, mu-d/母’의 대응이 된다. 이는 중국어 번역에서 원순모음과 *-t 자음운미가 동시에 구비된 한자를 찾기 어려웠거나 혹은 범자의 ‘-d’를 생략하여 표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번에서의 한글 표기 ‘모’는 한자 ‘冒’의 영향을 받아 종성자음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고, 2)번과 3)번의 ‘산’과 ‘못’은 각각 한자 ‘娑’, ‘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범자음 ‘sa-d, mu-d’을 따랐을 것이다.

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mu-tha’로 2개의 기본 개음절이다. 그러나 한글은 ‘못다’로 표기되어 ‘-ㄷ’ 종성자음이 중복 표기로 나타난다. 한자 표기를 보면 ‘沒馱’, 즉 첫 글자 ‘沒’는 비록 *-t 자음운미의 입성운 글자이지만 개음절 범자 ‘mu’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일반대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한글 ‘못’의 ‘-ㄷ’ 종성자음은 진언의 독송음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한자 ‘沒’의 *-t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외 두 번째 범자 음절 ‘tha’는 한글의 일반 표기에서 ‘타’이고 한자는 透母이어야 하는데, 한글은 ‘다’이고 한자는 ‘馱’ 즉 定母 *d 글자으로 예외 표기이다. 일반대응에서 한글 ‘ㄷ’와 한자 定母 *d는 범자 ‘dha’와 대응한다. 범자 ‘tha’는 아마 범자 ‘dha’ 혹은 ‘ddha’의 잘못된 전승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6)번의 범자는 ‘bu-ddhya’, ‘mu-ddhya’로 두 번째 음절이 ‘d+C+y’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보면 ‘bu-d/모/沒, dhya/다/地野_[ㄷㅅ]’, ‘mu-d/못/母, dhya/다/地也_[ㄷㅅ]’이다. 여기서 첫 음절의 대응을 보면 5)번에서 범자 ‘bu-d’ 대응에 한자 ‘沒 *mot’이 사용되었지만 한글은 ‘모’ 즉 종성자음이 반영되지 않는다. 6)번에서는 범자 ‘mu-d’ 대응에 한자가 ‘母 *məu’ 즉 자음운미가 없는 글자로 반영되어 있고 한글이 ‘못’ 즉 ‘-ㄷ’ 종성자음이 반영되어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tha/다/駄/1, dha/다/駄/3, mu/모/冒/1, ya/야/野/1, ya/야/也/1

【폐음절】 sa-d/산/娑/1, mu-d/몬/母/2, bu-d/모/沒/1, mu(-d)/몬/沒/1

【자음음절】 <초성자음> dh/ㄷ/地(聲母)/2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dh/ㄷ/定(*d)]/3, m/ㅁ/明(*m)/1, y/ㅇ/以(*j)/2’이고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a/아/歌1(*a)/4, u/오/豪1(*au)/1’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은 ‘s/ㅅ/心(*a)/1, m/ㅁ/明(*m)/3, b/ㅂ/明(*m)/1’과 모음의 대응은 ‘a/아/歌1(*a)/1, u/오/侯1(*əu)/2, u/오/沒1(*ot)/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의 불규칙 대응이므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dh/ㄷ/定(*d)/2’이다.

4.2.4 제1자음 ‘S’류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은 제1자음이 ‘s, ʃ, ʃ’인 복자음을 모두 포함한다. 제1자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4.2.4.1 제1자음 ‘s’류 (1)

아래는 제1자음 ‘s’류 복자음 음절의 한글 및 한자 표기의 예이다.

예29

- 1) sta/ㅅㅏ/娑怛_[二合]/3 [D;3] [娑(聲母):心母*s][怛:端母 曷1韻*tat]
- 2) sta/ㅅㅏ/娑跢_[二合]/3 [D;3] [娑(聲母):心母*s][跢:端母 歌1韻*ta]
- 3) sta/ㅅㅏ/娑多_[二合]/2 [D;2] [娑(聲母):心母*s][多:端母 歌1韻*ta]
- 4) sti/ㅅㅏ/娑底_[二合]/1 [D;1] [娑(聲母):心母*s][底:端母 齊4韻*tei]
- 5) stu/ㅅㅏ/窣堵_[二合]/1 [G;1] [窣(聲母):心母*s][堵¹³⁰:端母 模1韻*to]
- 6) stu/ㅅㅏ/窣覩_[二合]/1 [D;1] [窣(聲母):心母*s][覩:端母 模1韻*to]

130) “堵”는 중고음에서 端母 模1韻*to와 章母 麻3韻*ɬia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한다.

- 7) spha/𪛗/瑟破_[二合]/1 [F;1] [瑟(聲母):生母*ɸ][破:滂母 戈1韻*pha]
- 8) spho/𪛗/塞普_[二合]/1 [Q;1] [塞(聲母)¹³¹:心母*s][普:滂母 模1韻*pho]
- 9) spho/𪛗/瑟普_[二合]/1 [F;1] [瑟(聲母):生母*ɸ][普:滂母 模1韻*pho]
- 10) spho/𪛗/薩普_[二合]/1 [S;1] [薩(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 11) spho/𪛗/娑普_[二合]/1 [D;1] [娑(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위의 예29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st-, sph-’ 복자음의 1음절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한글 음절은 합용병서 ‘ㄷ, ㅌ’로 된 1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sta/𪛗, sti/𪛗, stu/𪛗, spha/𪛗, spho/𪛗’로 되어 있고, 범자와 한자의 대응은 ‘sta/娑怛_[二合], sta/娑跢_[二合], stu/窣覩_[二合], spha/瑟破_[二合], spho/塞普_[二合], spho/薩普_[二合]’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범-한-중으로 대응시키려면 더 세분화하여 분리하여야 한다. 즉 ‘s/ㄷ/娑(聲母), ta/다/怛’, ‘s/ㄷ/娑(聲母), ta/다/跢’, ‘s/ㄷ/窣(聲母), tu/도/覩’, ‘s/ㄷ/瑟(聲母), pha/바/破’, ‘s/ㄷ/塞(聲母), pho/보/普’, ‘s/ㄷ/薩(聲母), pho/보/普’ 등이 된다.

이와 같이 단자음을 단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s/ㄷ/娑(聲母)/10, s/ㄷ/窣(聲母)/2, s/ㄷ/塞(聲母)/1, s/ㄷ/薩(聲母)/1, s/ㄷ/瑟(聲母)/2

【개음절】 ta/다/怛/3, ta/다/跢/3, ta/다/多/2, tu/도/堵/1, tu/도/覩/1, ti/디/底/1, pha/바/破/1, pho/보/普/4

먼저 ‘자음음절’에서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자음의 대응에서 ‘s/ㄷ/心(*s)/16’이 대부분 차지하며 이 또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일부 한자에서 生母 *ɸ의 ‘瑟’이 사용되는데, 예외에 속한다.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에서 ‘t/ㄷ/端(*t)/11, ph/ㅍ/滂(*ph)/5’가 있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특히 한글 초성 ‘ㅍ’를 보면 유기음의 범자 ‘ph’와 한자 자모 滂母 *ph와 대응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본음절의 대응과 같다(본고 제3장 3.1.1.4의 내용을 참고). 관련된 한국어 음운

131) “塞”는 중고음에서 心母 哈1韻*səi와 心母 德1韻*s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모만 취하므로 어느 음가든 상관없다.

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본고 제5장의 5.2.1.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a)/5, a/아/曷1(*at)/3, a/아/戈1(*a)/1, u/오/模1(*o)/2, o/오/模1(*o)/4’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4.2 제1자음 ‘s’류 (2)

아래는 여전히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이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예30

- 1) styɑ/ㅅㅌ/娑底也_[三合]/1 [Q;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 2) stra/ㅅㄹ/薩怛囉_[三合]/2 [D;2] [薩(聲母):心母*s][怛(聲母):端母*t][囉:*?]
- 3) sti-rbha/ㅅㅌㅂㅏ/娑底囉婆_[二合]/1 [D;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囉:*?]
[婆:并母 戈1韻*ba]
- 4) sti-rbha/ㅅㅌㅂㅏ/悉底囉婆_[二合]/1 [D;1] [悉(聲母):心母*s][底(聲母):端母*t][囉:*?]
[婆:并母 戈1韻*ba]
- 5) skr/ㅅㄹ/塞訖哩_[三合]/8 [Q;3, D;5] [塞(聲母):心母*s][訖(聲母):見母*k][哩:*?]
- 6) sva-pna/ㅅㅌㅂㄴ/娑縛跋曷_[二合]/1 [Q;1] [娑(聲母):心母*s][縛:*?][跋(聲母):幫母*p][曷泥母 唐1韻*nan]

위의 예30에서 먼저 1)번~2)번의 범자 음절을 보면 ‘styɑ, stra’ 즉 ‘s+C+y’, ‘s+C+r’의 삼중 복자음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s’를 제외하면 1)번 범자는 ‘tyɑ’가 되며 한글의 일반표기에 따르면 ‘다’가 된다. ‘s+tyɑ’의 결합으로 ‘ㅅ+다’가 되어 ‘ㅅㅌ’로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2)번 범자는 ‘s’를 제외하면 ‘tra’가 되고 일반표기에 따르면 ‘ㄸ라’가 되고 ‘ㅅ’와 결합하여 ‘ㅅㄹ’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반드시 ‘ㅅ’ 합용병서가 자음군으로 발음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들의 한자 표기를 보면 ‘娑底也_[三合], 薩怛囉_[三合]’ 즉 三合의 3음절 표기로 되어 있다. 이는 三重 복자음의 범자는 1음절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는 3개의 글자이므로 ‘三合’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두 음절은 모두 聲母만 대응하여 ‘s/娑(聲母), t/底(聲母), ya/也’와 ‘s/薩(聲母), t/怛(聲母), ra/囉’가 된다. 이들을 범-한-중의 대응으로 보려면 한글을 더욱 세분화하

여야 하며 ‘s/ㅅ/娑(聲母), t/ㄷ/底(聲母), ya/야/也’와 ‘s/ㅅ/薩(聲母), t/ㄷ/怛(聲母), ra/라/囉’가 된다.

3)번~4)번 예의 범자 음절은 모두 ‘sti-rbha’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 범자는 ‘s+C’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범자는 ‘r+C’류 복자음이다. 이에 한글은 모두 ‘셀바’로 표기되어 있어 첫 번째 복자음을 합용병서 ‘ㄷ’로 표기하였고, 두 번째 복자음의 ‘r’ 자음을 ‘-ㄹ’ 종성자음과 대응시켰다. 이에 한자는 각각 ‘娑底_[二合]囉婆_[二合]’, ‘悉底_[二合]囉婆_[二合]’로 두 개의 二합 표기를 사용한다. 이 두 표기는 비록 첫 번째 한자 ‘娑’와 ‘悉’의 차이가 있지만 聲母만 대응에 참여하고 모두 心母 *s에 속하므로 사실은 같은 표기에 속한다. 한글은 합용병서를 사용하여 2개의 음절로도 표기가 가능하지만, 한자는 4개의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한글 표기가 한자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범-한-중 대응은 ‘s/ㅅ/娑(聲母), ti/디/底, -r/-ㄹ/囉(聲母), bha/바/婆’이다.

5)번의 범자 음절은 ‘skr’ 즉 ‘s+C’류 복자음과 마다 ‘r’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은 ‘ㄷ리’로 표기되어 있다. 마다 ‘r’는 음절 결합에서 모음의 역할을 하며 범자 ‘skr’는 1음절로 한자는 ‘塞訖哩_[三合]’ 즉 三合 3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ㅅ/塞(聲母), k/ㄱ/訖(聲母), r/리/哩’가 된다.

마지막으로 6)번의 범자를 보면 ‘sva-pna’로 두 개의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되어 있다. ‘C+제2자음’류 복자음의 일반적인 표기에 의하면 ‘sva’는 ‘스바/스바’로 표기하여야 하고, ‘pna’는 ‘브나’로 표기하여야 한다. 한자 역시 일반 표기에 따라 두 개의 ‘二합’인 ‘娑嚩_[二合]跋囊_[二合]’으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글 표기는 ‘쌌나’ 즉 ‘제1자음+C’류 복자음의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ㄷ’ 종성자음은 두 번째 범자 음절의 자음 ‘p’와 대응한다. 물론 이러한 표기는 ‘ㄹ’ 모음 추가법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들의 범-한-중 음절은 ‘s/ㅅ/娑(聲母), va/바/嚩, -p/-ㄷ/跋(聲母), na/나/囊’가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같은 유형의 범자 음절이지만 서로 다른 한글 표기법이 사용된 예도 있다.

예31

1) ska-nda/스간나/塞_{二合}娜/1 [D:1] [塞(聲母)¹³²:心母*s][審見母 仙B韻*kuɿen][娜泥母 歌1韻*na]

2) ska-nda/스건나/塞_{二合}娜/1 [D:1] [塞(聲母):心母*s][審見母 仙B韻*kuɿen][娜泥母 歌1韻*na]

위의 예31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ska-nda’로 첫 음절은 ‘s+C’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n+C’류 복자음이다. 첫 번째 음절의 ‘s+C’류 복자음은 앞선 고찰의 일반적인 표기에 따르면 한글은 마땅히 ‘ㅅ’계 합용병서가 나타나야 하지만 5)번 ‘스간나’, 6)번 ‘스건나’로 ‘ㅇ’ 첨가의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표기는 일반적인 표기를 따라 ‘-ㄴ’ 종성자음이 대응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범자 ‘ka-n’에 대응하는 한글이 하나는 ‘간’, 다른 하나는 ‘건’이라는 점이다. 한자는 모두 ‘塞_{二合}娜’로 되어 있어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5)번 ‘s/ㅅ/塞(聲母), ka-n/간/審, da/나/娜’, 6)번 ‘s/ㅅ/塞(聲母), ka-n/건/審, da/나/娜’가 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단자음 음절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s/ㅅ/娑(聲母)/3, s/ㅅ/薩(聲母)/2, s/ㅅ/悉(聲母)/1, t/ㄷ/底(聲母)/1 <‘ㅇ’음절> s/ㅅ/塞(聲母)/10, k/ㄱ/訖(聲母)/8, t/ㄷ/怛(聲母)/2 <종성자음> -r/-ㄹ/囉(聲母)/2, -p/-ㅍ/跛(聲母)/1

【개음절】 da/나/娜/2, na/나/囊/1, bha/마/婆/2, va/마/嘩/1, ya/야/也/1, ra/라/囉/2, ti/디/底/2, ɾ/리/哩/8

【폐음절】 ka-n/간/審/1, ka-n/건/審/1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와 <‘ㅇ’음절> 표기에서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k/ㄱ/見(*k)/8, s/ㅅ/心(*s)/16, t/ㄷ/端(*t)/3’가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에 ‘-r/-ㄹ/囉(*?)/2’가 있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d/ㄴ/泥(*n)/2, n/ㄴ/泥(*n)/1, bh/ㅍ/并(*b)/2, v/ㅍ/嘩(*?)/1, y/이/以(*j)/1, r/ㄹ/囉(*?)/2, t/ㄷ/端(*t)/2, ɾ/리/哩(*?)/8’, 중성의 대응은 ‘a/아/歌1(*a)/2, a/아/戈1(*a)/4, a/아/唐1(*aŋ)/1’로

132) “塞”는 중고음에서 心母 哈1韻*səi와 心母 德1韻*s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모만 취하므로 어느 음가든 상관없다.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 역시 초성의 대응인 ‘k/ㄱ/見(*k)/2’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중성의 대응에서 ‘a/아/仙B(*wiɛn)/1’와 ‘a/어/仙B(*wiɛn)/1’가 있는데 범자 ‘a’ 모음에 대응하는 한글 중성이 ‘아’ 혹은 ‘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 설명은 본고 제5장의 5.2.2.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 중성의 대응으로 ‘-n/-ㄴ/仙B(*wiɛn)/2, -p/-ㅂ/幫(*p)/1’가 있다.

4.2.4.3 제1자음 ‘ʃ’류 (1)

다음은 제1자음이 ‘ʃ’인 복자음을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32

- 1) ʃta/ㅈ/瑟吒_[二合]/22 [G;1, Q;9; D;11, F;2]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ɬya]
- 2) ʃta/ㅈ/瑟姹_[二合]/1 [D;1] [瑟(聲母):生母*ʃ][姹:徹母 麻2韻*ɬya]
- 3) ʃti/ㅈ/瑟恥_[二合]/3 [Q;3] [瑟(聲母):生母*ʃ][恥:徹母 之3韻*ɬi]
- 4) ʃti/ㅈ/瑟耻_[二合]/3 [D;3] [瑟(聲母):生母*ʃ][耻:徹母 之3韻*ɬi]
- 5) ʃtai/ㅈ/瑟𪗇_[二合]/1 [D;1] [瑟(聲母):生母*ʃ][𪗇:??]
- 6) ʃtha/ㅈ/瑟吒_[二合]/2 [S;1, G;1]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ɬya]
- 7) ʃthi/ㅈ/瑟底_[二合]/5 [F;5] [瑟(聲母):生母*ʃ][底:端母 齊4韻*tei]
- 8) ʃni/ㅈ/瑟拏_[二合]/9 [D;8, F;1] [瑟(聲母):生母*ʃ][拏:娘母 支3韻*ɳiɛ]
- 9) ʃpa/ㅈ/灑跛_[二合]/1 [D;1] [灑(聲母):生母*ʃ][跛¹³³:幫母 戈1韻*pa]
- 10) ʃtra/ㅈ/瑟吒囉_[三合]/1 [Q;1]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ɬya][囉:??]
- 11) ʃpre/ㅈ/灑必𪗇_[三合]/1 [D;1] [灑(聲母):生母*ʃ][必(聲母):幫母*p][𪗇:??]

위의 예32에서 1)번~5)번의 범자는 ‘ʃta, ʃti, ʃtai’이고, 6)번~7)번의 범자는 ‘ʃtha, ʃthi’인데 이들 복자음의 차이는 유기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ʃ’의 후행자음이 ‘t’이고 다른 하나는 ‘th’이다. 한글 표기는 1)번~2)번에서는 ‘ㅈ’, 3)번~4)번에서는 ‘ㅈ’, 5)번에서는 ‘ㅈ’로 하였다. 모두 같은

133) ‘跛’는 중고음에서 幫母 戈1韻*pa와 幫母 支B韻*puɛ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st-’의 복자음이지만 ‘st’ 혹은 ‘st’ 두 가지 합용병서 표기가 보인다. 그런데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는 ‘st’의 합용병서 표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비교적 특이한 표기이다. ‘st’와 함께 같은 범자 ‘st-’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성적으로 이 두 음이 서로 매우 유사하였을 것이다. 6)번~7)번을 보면 범자 ‘sth-’에 대해 한글이 ‘씨, 씨’로 대응하는데, 합용병서 ‘st’이 사용되었다. 즉 ‘t’가 ‘th’와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분석은 제5장의 5.2.1.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한자 표기를 보면 1)번~5)번에서 ‘st-’의 ‘t’ 대응에 1)번은 知母 *t, 2)번~4)번은 徹母 *th를 사용하고 있다. 1)번 예의 출현 횟수가 22회로 제일 많아 일반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徹母는 유기음 자모로 음가의 차이가 있어 예외이긴 하지만 7회가 되고 ‘姦, 恥(耻)’ 등 여러 글자로 나타나므로 단순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6)번~7)번을 보면 복자음 ‘sth-’에서 ‘th’의 대응에 한자가 知母 *t 혹은 端母 *t를 사용하고 있다. 端母는 한자 운모의 대응과의 결합에 의한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예외로 처리해야 한다. 知母 *t는 범자 ‘th’의 표기에도 사용된다. 전반적으로 ‘t’ 대응에 知母 *t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대응이라 할 수 있겠지만, ‘t’와 ‘th’의 유기성 차이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8)번의 범자는 ‘sni’이고 한글은 ‘씨’로 되어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st’의 합용병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기가 아니다. ‘싸히’의 용례 1개가 보일 뿐이다. 하지만 진언 표기는 외국어 표기이기 때문에 ‘st’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9)번의 범자는 ‘spa’이고 한글은 ‘싸’로 되어있다. 앞서 4.1.3절에서의 ‘C+v’류 복자음의 한글 표기에서, ‘sva’가 대부분 ‘스바, 스바’로 표기되지만 일부 ‘싸’의 표기도 있음을 보았다. 범자 ‘spa’와 ‘sva’는 형태도 음가도 비슷하지만 복자음 유형이 다르다. 전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이고, 후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이다. 전자의 복자음류의 일반표기는 합용병서 표기이고, 후자 복자음류의 일반표기는 ‘으’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다. 하지만 텍스트 전반에서 범자 ‘spa’의 출현률은 매우 낮고, 반대로 ‘sva’의 출현률은 매우 높다. 음가의 유사성과 합용병서 표기의 경제성 등 때문에 ‘sva’의 한글 표기에 ‘싸’의 예외 표기가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0)번~11)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ʃtra, ʃpre’로 되어 있고 모두 ‘s+C+r’의 삼중 복자음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첫 두 자음을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 사이에 ‘ㄹ’ 모음을 첨가하면서 ‘샤라, 섹레’로 표기하여 2음절로 나타난다. 한자는 ‘瑟吒囉_[三合], 澀必嚧_[三合]’의 三습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중 복자음의 범자 음절이 1음절이며 1음절 범자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가 3개이므로 三습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세분화하여 보면 ‘ㄷ/ʃt, 라/ra’와 ‘ㅅ/ʃp, 레/re’이다. 이들의 범자와의 대응은 ‘ʃ/ㄷ/瑟(聲母), t/ㄷ/吒(聲母), ra/라/囉’와 ‘ʃ/ㄷ/澀(聲母), p/ㄷ/必(聲母), re/레/嚧’이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ʃ/ㄷ/瑟/44, ʃ/ㄷ/澀/2 <‘ㄹ’음절> t/ㄷ/吒/1, p/ㅅ/必/1

【개음절】 ʃa/다/吒/22, ʃa/다/蛇/1, ʃai/디/嚧/1, ʃha/다/吒/2, ʃhi/디/底/5, ɳi/니/捫/9, pa/바/跛/1, ra/라/囉/1, re/레/嚧/1

위의 ‘자음음절’에서의 한글 초성의 대응은 ‘ʃ/ㄷ/生(*f)/46, t/ㄷ/知(*t)/1, p/ㅅ/幫(*p)/1’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t/ㄷ/知(*t)/22, ɳ/ㄴ/娘(*ɳ)/9, p/ㅅ/幫(*p)/1, r/ㄹ/囉(*r)/1, r/ㄹ/嚧(*r)/1’ 등으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t, th’에 있어 보다 혼란스러운 예들이 있는데 즉 ‘t/ㄷ/徹(*th)/1’은 범자와 한글은 무기음이지만 한자는 유기음이고, ‘th/ㄷ/知(*t)/2’는 한글과 한자는 무기음이지만 범자는 유기음이다. 이외 ‘th/ㄷ/端(*t)/5’가 있는데 권설음 범자 대응의 한자는 마땅히 知系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端系 글자가 쓰이는 것이다. 이는 한자 운모와 결합에서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범자와 한글만 보아도 범자는 유기음이지만 한글은 무기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글의 ‘ㄷ’는 범자와 한자의 유기성과 무기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개음절’의 모음의 대응 가운데 한자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과 통계에 무의미한 예를 제외하면 ‘a/아/戈1(*a)/1, i/이/支3(*iɛ)/9’이다. 이 또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4.4 제1자음 ‘ʃ’류 (2)

다음은 여전히 제1자음이 ‘ʃ’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이지만 기타 표기의 예이다.

예33

- 1) ʃda/스나/瑟拏_[二合]/1 [D;1] [瑟(聲母):生母*ʃ][拏:娘母 麻2韻*ŋɤa]
- 2) ʃni/스니/瑟拏_[二合]/1 [D;1] [瑟(聲母):生母*ʃ][拏:娘母 支3韻*ŋiɛ]
- 3) kɾ-ʃna/ㄴ릿나/訖哩_[二合]瑟拏_[二合]/1 [S;1] [訖(聲母):見母*k][哩:*ʔ][瑟(聲母):生母*ʃ]
[拏:娘母 麻2韻*ŋɤa]
- 4) vi-ʃno/밋노/尾瑟努_[二合]/1 [Q;1] [尾:明母 微3韻*miɪ][瑟(聲母):生母*ʃ][努:泥母 模1韻*no]
- 5) pu-ʃti/붓티/補瑟置_[二合]/1 [Q;1] [補:幫母 模1韻*po][瑟(聲母):生母*ʃ][置:知母 之3韻*ti]

위의 예33에서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범자의 복자음 음절을 보면 ‘ʃda, ʃni, ʃna, ʃno, ʃti’가 있는데 이에 한글 표기는 ‘스나, 스니, (ㄴ)릿나, 밋노, 붓티’로 되어 있다. 즉 1)번~2)번은 ‘ㅇ’ 모음 첨가의 표기방법을 사용하였고, 3)번~5)번은 ‘-ㄴ’ 종성자음으로 범자 자음 ‘ʃ’를 표기하였다. 한자 표기는 앞서 예32의 일반 표기와 일치한다. 예32에서 한글의 일반 표기는 즉 제1자음이 ‘ʃ’일 경우 ‘ㄴ’계 합용병서로 표기한다. 즉 여기서 한글의 표기는 기타 표기법과 혼용한 예가 된다.

위의 예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 단위의 대응으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ti/티/置/1, na/나/拏/1, ni/니/拏/1, no/노/努/1, da/나/拏/1, pu/보/補/1, vi/미/尾/1

【자음음절】 <‘ㅇ’음절> k/ㄴ/訖/1, ʃ/스/瑟/2 <‘리’음절> r/리/哩/1 <종성자음> -ʃ/-ㄴ/瑟(聲母)/3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知(*t)/1, n/ㄴ/娘(*n)/1, p/ㅍ/幫(*p)/1, v/ㅍ/明(*m)/1’, 중성모음의 대응은 ‘i/이/支3(*iɛ)/1, i/이/之3(*i)/1, o/오/模1(*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ʃ/ㅅ/生(*f)/2, r/리/哩(*?)’이고 종성자음의 대응은 ‘-ʃ/-ㅅ/生(*f)/3’이다.

4.2.4.5 제1자음 ‘s’류

다음은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의 예이다.

예34

- 1) ʃpai/스베/澁閉[二合]/1 [D;1] [澁(聲母):生母*ʃ][閉¹³⁴):幫母 齊4韻*pei]
- 2) sci/시지/室旨[二合]/1 [D;1] [室(聲母):書母*ɕ][旨:章母 脂3韻*tei]

위의 예34에서 1)번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은 ‘ʃpai’인데 제1자음이 ‘s’ 자음이다. 일반대응에 의하면 범자 자음 ‘s’ 대응에 마땅히 한글은 ‘시’, 한자 자모는 書母가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글은 ‘ㅅ’, 한자는 生母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대응에서 범자 ‘s’와 대응한다. 즉 범자의 제1자음 ‘s’는 ‘ʃ’의 잘못된 전승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중국어 번역에서 ‘s’를 청각적으로 ‘ʃ’로 판단하여 잘못 번역하여 한글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번의 범자는 ‘sci’로 제1자음이 ‘s’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글 자음은 ‘시’, 한자는 書母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에 따르면 일반대응에서의 범자 자음은 마땅히 ‘s’이어야 한다. 즉 제1자음이 비록 ‘s’이지만 실제로는 ‘ʃ’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범자 제1자음의 대응은 모두 예외가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ㄱ’음절> ➤ʃ/스/澁(聲母)/1, ➤s/시/室(聲母)/1

【개음절】 pai/베/閉/1, ci/지/旨/1

위의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모두 예외대응이다. ‘개음절’을 보

134) ‘閉’는 중고음에서 幫母 齊4韻*pei와 幫母 屑4韻*pe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면 초성자음의 대응에서의 ‘p/ㅍ/幫(*p)/1, c/ㅈ/章(*tɕ)/1’이, 중성모음의 대응에서의 ‘i/이/脂3(*i)/1’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일부 ‘ai/예/齊4(*ei)/1’의 기본 개음절에서도 이와 같은 대응이 있긴 하지만 ‘ai’ 대응의 한글 ‘예’ 모음 표기는 대부분 한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대응에서 한자 齊4韻이 대응하는 범자 모음은 ‘e’이므로 ‘ai’는 예외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의 ‘예’는 齊4韻의 영향을 받아서 범자 ‘e’ 모음 표기에 사용하는 ‘예’가 표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기의 비율이 낮지 않은데 이는 범자 모음 ‘e’가 長音이고 ‘ai’가 ‘e’와 상대적으로 장단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음성적인 차이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2.5 제1자음 ‘k’류

4.2.5.1 표기 유형 (1)

제1자음이 ‘k’류인 복자음 가운데 먼저 ‘kɕ-’류 자음에 대해 보겠다. ‘kɕ-’는 형태적으로 보아 ‘제1자음+C’류의 복자음으로 분류가 된다. ‘kɕ-’는 기타 복자음에 비하여 출현률이 비교적 높다.

예35

- 1) kɕa/ㄱ사/乞灑_[二合]/12 [D;12] [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2) ra-kɕa/락사/囉乞灑_[二合]/6 [D;6] [囉:*?][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3) ra-kɕa/락사/囉乞察_[二合]/3 [D;3] [囉:*?][乞(聲母):>溪母*kh][察:>初母 鎋2韻*tɕhyæt]
- 4) ra-kɕa/락사/囉葛叉_[二合]/1 [S;1] [囉:*?][葛(聲母):見母*k][叉¹³⁵):>初母 麻2韻*tɕhyɑ]
- 5) ri-kɕa/릭사/哩乞灑_[二合]/1 [D;1] [哩:*?][乞(聲母):>溪母*kh][灑:生母 佳2韻*fɿɛ]
- 6) na-kɕa/낙사/諾乞察_[二合]/2 [D;2] [諾泥母 鐸1韻*nak][乞(聲母):>溪母*kh][察:>初母 鎋2韻*tɕhyæt]
- 7) bha-kɕa/박사/薄乞灑_[二合]/1 [D;1] [薄:并母 鐸1韻*b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8) pa-kɕa/박사/薄乞灑_[二合]/1 [Q;1] [薄:>并母 鐸1韻*b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9) ya-kɕa/약사/藥乞灑_[二合]/3 [D;3] [以母 藥3韻*ji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ɿa]
- 10) sra-kɕa/스락사/娑囉乞灑_[二合]/1 [G;1] [娑(聲母):心母*s][囉:*?][乞(聲母):>溪母*kh]

135) “叉”은 중고음에서 初母 麻2韻*tɕhyɑ과 初母 佳2韻*tɕhyɛ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灑:生母 麻2韻*fya]

위의 예35에서 1)번 예는 ‘kṣa’ 1개의 범자 음절인 반면, 2)번~10)번은 ‘ra-kṣa, ri-kṣa, na-kṣa, bha-kṣa, pa-kṣa, ya-kṣa, sra-kṣa’ 등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한글 표기를 보면 1)번에서는 ‘ㄱ사’ 등 ‘으’ 모음이 첨가 되는 표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2)번에서는 ‘-ㄱ’ 종성자음으로 제1자음 ‘k’를 대응시키고 있다. 한자는 차이 없이 모두 ‘二合’으로 표기된다. 다만 범자 ‘k’가 중복 표기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번~5)번 첫 번째 한자는 ‘囉, 哩’ 등 음성운 글자이고, 6)번~9)번의 첫 번째 한자는 ‘諾, 薄’ 등 입성운 글자이다. 입성운 글자의 자음운미 *-k는 후행하는 한자 ‘乞’의 성모와 함께 범자 ‘k’를 중복 표기한다. 10)번에서 범자는 ‘sra-kṣa’로 첫 음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이 ‘제1자음+C’류 복자음이다. 이에 한글은 ‘스락사’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들의 범-한-중의 대응은 ‘s/스/娑(聲母), ra/라/囉, -k/-ㄱ/乞(聲母), ṣa/사/灑’로 된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na/나/諾/2, pa/바/薄/1, bha/바/薄/1, ṣa/사/灑/24, ṣa/사/察/5, ṣa/사/叉/1, ṣa/사/灑/1, ya/야/藥/3, ra/라/囉/11, ri/리/哩/1

【자음음절】 <초성자음> k/ㄱ/乞(聲母)/12, s/스/娑(聲母)/1 <종성자음> -k/-ㄱ/乞(聲母)/18, -k/-ㄱ/葛(聲母)/1

먼저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을 보면 ‘n/ㄴ/泥(*n)/2, bh/ㅃ/并(*b)/1, ṣ/ㅅ/生(*ṣ)/25, y/이/以(*j)/3, r/ㄹ/囉(*r)/11, r/리/哩(*r)/1’이 있는데 일반 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종성 모음의 대응의 경우,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서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면 ‘a/아/鐸1(*ak)/4’만 유효하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을 보면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s/ㅅ/心(*s)/1’이 있으며 종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이 있다.

4.2.5.2 표기 유형 (2)

다음은 제1자음이 ‘k’류 복자음이지만 ‘kʃ-’가 아닌 기타 범자 음절에 대해 보겠다.

예36

- 1) yu-kdha/욕다/欲馱/1 [S;1] [欲:以母 燭3韻*jiɔk][馱:定母 歌1韻*da]
- 2) mu-kta/목다/目哆/1 [S;1] [目:明母 屋3韻*miuk][哆:端母 歌1韻*ta]
- 3) ka-kku/궁구/兢矩/1 [G;1] [兢:見母 蒸3韻*kiŋ][矩:見母 虞3韻*kiɔ]
- 4) ʃi-kte/식테/色訖帝_[二合]/3 [Q;3] [色:生母 職3韻*ʃɥiɔk][訖(聲母):見母*k]
[帝:端母 齊4韻*tei]
- 5) mya-kga/막아/藐藁/1 [D;1] [藐:明母 覺2韻*myɔk][藁:疑母 薛B韻*ŋɥiet]
- 6) mya-kpra/막뻬라/藐鉢囉_[二合]/1 [D;1] [藐:明母 覺2韻*myɔk][鉢(聲母):幫母*p][囉:*?]

위의 예36에서 1)번~2)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yu-kdha, mu-kta’로 되어 있고 한글은 ‘욕다, 목다’로 ‘-ㄱ’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 ‘k’와 대응하고 있다. 한자 표기는 ‘欲馱, 目哆’이고 첫 글자는 ‘欲, 目’으로 모두 *-k 자음운미가 있고 범자의 복자음 제1자음 ‘k’를 표기한다.

3)번의 범자는 ‘ka-kku’이고 한글은 ‘궁구’로 되어 있다. 한글의 ‘-ㅇ’ 종성자음이 범자 자음 ‘k’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k’의 대응의 경우는 마땅히 ‘극’이 되어야 하는데 ‘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兢 見母 蒸3韻 *kiŋ’으로 되어 있다. 즉 한글의 ‘-ㅇ’ 종성자음은 한자의 자음운미 *-ŋ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자는 무엇 때문에 ‘-k’ 자음을 *-ŋ으로 번역하였을까. 이는 중국어번역에서 청각적으로 범자 ‘kku’의 첫 자음 ‘k’가 후행 자음 ‘k’의 영향에 의하여 이화되어 ‘ŋ’으로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4)번의 범자는 ‘ʃi-kte’이며 한글은 ‘식테’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범자 ‘i’ 모음에 대하여 한글 중성이 ‘익’로 대응되어 있다. 한자는 ‘色訖帝_[二合]’로 되어 있으며 ‘色’의 자음운미 *-k와 ‘訖(聲母)’가 범자 자음 ‘k’가 중복 표기되어 있다. ‘色’의 중세한국어 한자음이 ‘식’이므로 한글의 ‘익’ 모음은 한국 한자음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중성모음 ‘익’과 범자 ‘i’의 대응은 예외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5)번~6)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mya-kga, mya-kpra’로 되어 있다. 이들의 첫 번째 음절은 모두 ‘C+제2자음’류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5)번이 ‘제1자음+C’류 복자음이며, 6)번은 ‘k+C+r’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보면 5)번은 ‘mya-k/막/藐, ga/아/藁’이고, 6)번은 ‘mya-k/막/藐, p/ㅍ/鉢, ra/라囉’이다.

다음은 기타 일부 특이한 대응의 표기 예이다.

예37

- 1) mu-hta/목다/穆訖_[二合]得多_[二合]/2 [D;2] [穆:明母 屋3韻*miuk][訖(聲母):見母*k][得(聲母):端母*t][多(韻母):歌1韻*a]
- 2) mu-kha/목카/目佉/2 [S;2] [目:明母 屋3韻*miuk][佉:溪母 戈3韻*khia]
- 3) du-ke/눅케/耨契/1 [Q;1] [耨:泥母 沃1韻*nok][契:溪母 齊4韻*khei]
- 4) mu-ke/목케/穆企/1 [Q;1] [穆:明母 屋3韻*miuk][企:溪母 支B韻*khuiē]

위의 예37에서 1)번을 보면 범자는 ‘mu-hta’로 되어 있고 한글은 ‘목다’로, 앞선 예36의 2)번 예와 같다. 즉 한글의 ‘-ㄱ’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 ‘k’와 대응된다. 하지만 한자 표기의 경우, 예36의 2)번에서 한자는 ‘目哆’이지만 여기에서는 2개의 ‘二合’ 즉 ‘穆訖_[二合]得多_[二合]’로 되어 있다. ‘二合’은 하나의 범자 음절을 표기하는 것으로 마땅히 ‘mu/穆訖_[二合], hta/得多_[二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음가대응으로 보면 ‘訖’은 범자 ‘k’와 대응해야 하고, ‘得’은 ‘t’와, ‘多’는 ‘a’와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범-한-중으로 대응을 시키면 ‘mu/모/穆, -k/-ㄱ/訖(聲母), t/ㄷ/得(聲母), a/아/多(韻母)’가 된다. 이와 같이 한자가 극히 비경제인 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산스크리트 원어의 범자 텍스트가 원래는 이 보다 복잡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2)번~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차례대로 ‘mu-kha, du-ke, mu-ke’로 되어 있다. 모두 2개의 기본 개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복자음이 없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목카, 눅케, 목케’로, 첫 음절에 모두 ‘-ㄱ’ 종성자음이 있어 복자음의 대응으로 반영된다. 이들의 한자를 보면 ‘目佉, 耨契, 穆企’이므로 이것들은 첫 글자가 모두 *-k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들인데, 한자

에서도 한글과 같이 중복 표기가 되어 있다.

한글 ‘-ㄱ’ 종성자음의 후행 자음은 모두 ‘ㄱ’자음으로 되어 있다. 한자의 두 번째 글자는 모두 溪母 *kh이다. 이들이 표기하는 범자 자음은 마땅히 ‘kkh-’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범자 음절은 복자음이 없고 2)번의 두 번째 음절의 자음은 ‘kh’이고, 3)번~4)번은 ‘k’이다. 이는 범자 텍스트의 전송과정에서의 오류이거나 혹은 중국어 번역을 진행할 당시 음성적으로 ‘k’ 혹은 ‘h’ 자음이 첨가되어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h’자음은 폐음절에 나타나며 ‘-ㄱ’ 종성자음과 *-k 자음운미와 대응하기도 하고 두 음절 사이에 첨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첨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4.3.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별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음절】 a/아/多(韻母)/2, kha/카/佉/2, ga/아/藪/1, ta/다/哆/1, dha/다/駄/1, ra/라/囉/1, ㄱke/케/契/2, ㄱke/케/企/1, te/테/帝/3, ku/구/矩/1, mu/모/穆/2

【폐음절】 ka-k/ㄱ궁/兢/1, ʃi-k/ㄱ식/色/3, mu-k/목/目/1, yu-k/욕/欲/1, mya-k/ㄱ막/藐¹³⁶⁾/2, mu-(k)/목/目/2, mu-(k)/목/穆/1, du-(k)/눅/耨/2

【자음음절】 <종성자음> -k/-ㄱ/訖(聲母)/5 <초성자음> t/ㄷ/得(聲母)/2 <‘ㄹ’음절> p/ㄹ/鉢(聲母)/1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 kh/ㄱ/溪(*k)/2, g/ㅇ/疑(*ŋ)/1, t/ㄷ/端(*t)/4, dh/ㄷ/定(*d)/1, m/ㅁ/明(*m)/2’가 있는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 모음의 대응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면 ‘a/아/歌1(*a)/3, e/예/齊4(*ei)/5, e/예/支B(*wiɛ)/1, u/우/虞3(*iʊ)/1, u/오/屋3(*iuk)/2’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폐음절’에서도 초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 d/ㄴ/泥(*n)/2, m/ㅁ/明(*m)/6, ʃ/ㅅ/生(*f)/3, y/이/以(*j)/1’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응으로는 ‘a/으/蒸3(*iŋ)/1, u/오/屋3(*iuk)/4, u/오/燭3(*iʊk)/1, u/오/沃1(*ok)/2’가 있는데 특히 범자 ‘a’ 모음에 한글 모음의 ‘으’가 대응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예외라 보기 어렵다. 상세한 설명은 제5장의 5.1.2.1

136) “藐”은 중고음에서 明母 覺2韻 *mɣɔk와 明母 宵A韻 *miɛu와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에는 ‘-k/-ㄱ/職3(*-k)/3, -k/-ㄱ/屋3(*-k)/1, -k/-ㄱ/燭3(*-k)/1, -k/-ㄱ/覺2(*-k)/2’가 있다.

이외에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t/ㄷ/端(*t)/2, p/ㅍ/幫(*p)/1’이 있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k/-ㄱ/見(*k)/5’가 있다.

4.2.6 제1자음 ‘m’류

다음은 제1자음이 ‘m’인 복자음의 예를 보겠다.

예38

- 1) ku-mbha-nda/굽반나/噤畔拏/2 [D:2] [噤*?][畔:并母 桓1韻*ban][拏>娘母 麻2韻*ŋa]
- 2) ku-mbha-nda/굽반나/矩畔拏/1 [D:1] [矩群母 虞3韻*giö][畔:并母 桓1韻*ban][拏>娘母 麻2韻*ŋa]
- 3) ku-mbha-nde/굽반네/噤畔妳/1 [D:1][噤*?][畔:并母 桓1韻*ban][妳¹³⁷:泥母 齊4韻*nei]
- 4) ku-mbha-nde/구반네/矩畔妳/1 [Q:1] [矩群母 虞3韻*giö][畔:并母 桓1韻*ban][妳¹³⁸:泥母 齊4韻*nei]
- 5) sta-mbha/쌔마/娑磨_[二合]婆/2 [D:2] [娑(聲母):心母*s][磨端母 談1韻*tam][婆:并母 戈1韻*ba]
- 6) sta-mbha/쌔마/娑磨_[二合]婆/2 [D:2] [娑(聲母):心母*s][磨端母 談1韻*tam][婆:并母 戈1韻*ba]

위의 예38에서 1)번~2)번의 범자 음절은 ‘ku-mbha-nda’이고, 3)번~4)번의 범자 음절은 ‘ku-mbha-nde’로 모두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이중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이 ‘m’인 복자음을 가진다. 이들의 한글 표기는 1)번~2)번은 ‘굽반나’이고 3)번은 ‘굽반네’, 4)번은 ‘구반네’이다. 1)번~3)번의 첫 음절 ‘-ㄱ’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m’과 대응한다. 하지만 4)번의 범자에도 ‘-m’ 자음이 있지만 한글 표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한자 표기를 보면 1)번 ‘噤畔拏’, 2)번 ‘矩畔拏’, 3)번 ‘噤畔妳’, 4)번 ‘矩畔妳’이다. 1)번과 3)번의 첫 글자 ‘噤’는 범자 ‘ku-m’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造字이다. 부수 ‘口’를 제외한, ‘禁 見母 侵B韻 *kuɿm’을 보면

137)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nei와 娘母 佳2韻*ŋɤ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138)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nei와 娘母 佳2韻*ŋɤ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ku-m’와 음가가 비슷하지만 開口이므로 이를 造字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본을 보면 ‘噤’아래에 ‘句字合口’란 작은 글씨의 주석이 달려있기도 한다. 2)번과 4)번의 첫 번째 한자 ‘矩’는 자음운미가 없는 陰聲韻 글자인데 범자 ‘ku-m’에 대응하는 한자를 찾을 수 없어 임시로 ‘ku’의 글자로 대체 하고 ‘-m’의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번의 한글은 ‘굼’으로 음성운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범자를 따라 ‘-m’을 반영한 것이고, 4)번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m’를 반영하지 못하고 ‘구’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 5)번~6)번은 모두 ‘sta-mbha’의 2개 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 모두 ‘제1자음+C’류 복자음에 속한다. 다만 첫 번째 음절의 제1자음은 ‘s’이고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은 ‘m’이다. 이에 대하여 한글은 제1자음 ‘s’의 일반 표기 즉 합용병서 표기를 적용하는 동시에 제1자음 ‘m’ 표기에서 사용되는 ‘-ㅁ’ 중성자음 표기와 결합하여 ‘쌈바’로 되어 있다. 이들의 한자는 ‘娑膽[_{二合}]婆, 娑擔[_{二合}]婆’로 두 번째 글자에 ‘膽’와 ‘擔’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 da/나/拏/3, bha/바/婆/4, de/네/妳/2, ku/구/矩/1

【폐음절】 ta-m/담/膽/2, ta-m/담/擔/2, bha-ㄴ/반/畔/5, ku-m/굼/噤/3, ku-m/굼/矩/1

【자음음절】 <초성자음> s/ㅅ/娑(聲母)/4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bh/ㅂ/并(*b)/4, d/ㄴ/泥(*n)/2, k/ㄱ/見(*k)/1’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중성모음의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면 ‘a/아/戈1(*a)/4, e/예/齊4(*ei)/2, u/우/虞3(*iö)/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도 ‘k/ㄱ/見(*k)/1, k/ㄱ/噤(*?)/3, t/ㄷ/端(*t)/4, bh/ㅂ/并(*b)/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모음의 대응은 ‘a/아/談1(*am)/4, a/아/桓1(*an)/5, u/우/噤(*?)/3, u/우/虞3(*iö)/1’이고 중성자음의 대응은 ‘-m/-ㅁ/談1(*-m)/4, -m/-ㅁ/噤(*?)/3, -ㄴ/-ㄴ/桓1(*-n)/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s/ㅅ/心(*s)/4’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3 복자음 閉音節의 표기

4.3.1 ‘-m’류

4.3.1.1 표기 유형 (1)

본 절은 ‘-m’류 복자음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한글 표기법에 따라 ‘ㅇ’ 모음 첨가법, 1음절 표기법, 종성자음 표기법등이 규칙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예들을 먼저 보겠다.

예39

- 1) ghram/ㄱ람/伽覽_[二合]/1 [G;1] [伽(聲母):群母*g][覽:??]
- 2) tram/ㄷ람/怛檻_[二合]/4 [D;4] [怛(聲母):端母*t][檻:??]
- 3) tram/ㄷ람/怛檻_[二合]/2 [D;2] [怛(聲母):端母*t][檻:??]
- 4) trum/ㄷ롬/獬魯庵_[三合]/13 [D;13] [獬(聲母):??][魯(聲母):??][庵:??]
- 5) jram/ㄱ람/日檻_[二合]/1 [S;2] [日(聲母):日母*n_r][檻:??]
- 6) dhvam/ㄷ망/馱網_[二合]/4 [D;4] [馱(聲母):定母*d][網:明母 陽3韻*mian]
- 7) dnam/ㄴ맘/娜谿_[二合]/2 [S;2] [娜(聲母):泥母*n][谿:??]
- 8) śmam/ㄸ명/濕茗_[二合]/1 [F;1] [濕(聲母):書母*c][茗:明母 青4韻*meŋ]
- 9) hmem/ㅎ명/賀銘_[二合]/1 [Q;1][賀(聲母):匣母*ɦ][銘:明母 青4韻*meŋ]
- 10) jrm/ㄱ림/入隴_[二合]/1 [D;1] [入(聲母):日母*n_r][隴:??]
- 11) bhṛm/ㅂ링/敦陵_[二合]/2 [D;2] [敦(聲母):并母*b][陵:??]
- 12) kṣam/ㄱ삼/乞鈗_[二合]/1 [D;1] [乞(聲母):>溪母*kh][鈗:生母 銜2韻*ʃyæm]

위의 예39에서 범자음절은 모두 ‘-m’류 폐음절인 동시에 복자음이 있다. 1)번~9)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10)번~11)번은 마다가 ‘-r’인 음절이며 12)번은 ‘kṣ-’의 범자 음절이다. 앞서 개음절에 대한 고찰에서 이들 범자 유형은 모두 ‘ㅇ’ 모음 첨가의 표기법을 사용함을 보았다. 이 중 ‘kṣ-’류 복자음은 ‘ㅇ’ 모음 첨가의 표기법과 종성자음의 표기법 두 가지가 모두 허용되기도 한다. 다만 개음절 복자음과의 차이는, 한글은 ‘-ㅁ’ 혹은 ‘-ㅇ’ 종성자음이 있는 것들이며 한자에는 *-m 혹은 *-ŋ의 자음운미가 있는 글

자들이다. 이들 두 가지 자음의 차이는 산스크리트에서의 ‘m’의 음운변화에 의한 것이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o’음절> k/ㄱ/乞(聲母)/1, gh/ㄱ/伽(聲母)/1, t/ㄷ/怛(聲母)/6, t/ㄷ/納(聲母)/13, d/ㄴ/娜(聲母)/2, dh/ㄷ/駄(聲母)/4, bh/ㅂ/敦(聲母)/2, j/ㄴ/日(聲母)/1, j/ㄴ/入(聲母)/1, ś/ㅅ/濕(聲母)/1, h/ㅎ/賀(聲母)/1, r/ㄹ/嚕(聲母)/13

【폐음절】 mam/ㅁ/𑖦/2, sam/ㅅ/𑖦/1, ram/ㄹ/𑖦/1, ram/ㄹ/𑖦/5, ram/ㄹ/𑖦/2, um/ㅇ/ㄱ/13, rm/ㄹ/𑖦/1, vam/ㅁ/網/4, mam/ㅁ/茗/1, mem/ㅁ/銘/1, rm/ㄹ/𑖦/2

다음은 ‘-m’류 폐음절에서 복자음을 가지는 것이지만 한글은 1음절로 표기된 것들이다.

예40

- 1) tyam/딩/底孕_[二合]/7 [D;7] [底(聲母):端母*t][孕:以母 蒸3韻*jiŋ]
- 2) dyam/님/你琰_[二合]/17 [Q;1 D;16] [你(聲母):娘母*n][琰:以母 鹽3韻*jiem]
- 3) myem/명/銘/2 [S;1, Q;1] [銘(聲母):明母*m][銘(韻母):青4韻*meŋ]
- 4) ştam/쌈/瑟𑖦_[二合]/2 [G;1, Q;1] [瑟(聲母):生母*ʃ][𑖦:*?]
- 5) ştam/쌈/史擔_[二合]/1 [Q;1] [史(聲母):生母*ʃ][擔:端母 談1韻*tam]

위의 예40에서 1)번~3)번의 범자의 복자음은 ‘C+제2자음’류에 속하고 제2자음이 ‘y’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딩, 님, 명’으로 범자 ‘y’ 대응에 상향이 중모음의 활음을 사용하고 있다. 상향이중모음의 활음을 ‘이’로 하여 대응에 표기한 것이다. 다음 4)번~5)번의 범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이며 제1자음이 ‘ş’인 예이다. 이에 대해 한글은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어 있어 ‘쌈’ 1음절로 되어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 <초성자음> t/ㄷ/底(聲母)/7, d/ㄴ/你(聲母)/17, m/ㅁ/銘(聲母)/2, ş/ㅅ/瑟(聲母)/2, ş/ㅅ/史(聲母)/1

【폐음절】 yam/ㅇ/孕/7, yam/ㅇ/琰/17, yem/ㅇ/銘(韻母)/2, tam/담/𑖦/2, tam/담/擔/1

다음은 ‘m’류 폐음절이지만 한글이 종성자음으로 범자의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제1자음과 대응하는 예이다.

예41

- 1) sa-rmarin/살망/薩罔/1 [D;1] [薩:心母 曷1韻*sat][罔:明母 陽3韻*miaŋ]
- 2) ba-ndharin/만등/滿鄧/8 [D;8] [滿:明母 桓1韻*man][鄧:定母 登1韻*dəŋ]
- 3) ca-ndarin/잔남/贊喃/1 [D;1] [贊:精母 寒1韻*tsan][喃:ʔ]
- 4) tu-ndim/돈년/頓旼_{二合}/1 [D;1] [頓:端母 魂1韻*ton][旼(聲母):娘母*ŋ][寅¹³⁹):以母 仙3韻*jiɛ n]
- 5) si-ddhim/신딤/悉朕/1 [G;1] [悉:ʔ心母 質3韻*sit][朕:澄母 侵3韻*dɨm]
- 6) di-ptam/넙담/捻鉢擔_{二合}/1 [D;1] [捻:泥母 帖4韻*nep][鉢(聲母):幫母*p][擔:端母 談1韻*tam]
- 7) ya-kšam/약삼/藥葛_{二合}/1 [S;1] [藥:以母 藥3韻*jiak][葛(聲母):見母*k][鉉生母 銜2韻*fyæm]
- 8) ra-kšam/략산/略乞_{二合}/1 [D;1] [略:ʔ][乞(聲母):溪母*kh][鎗¹⁴⁰):初母 刪2韻*tshyæn]
- 9) mya-kšam/막삼/藐三_{二合}/10 [D;10] [藐:明母 覺2韻*myɔk][三:心母 談1韻*sam]

위의 예41에서 두 번째 범자 음절이 ‘제1자음+C’류의 복자음을 갖는다. 이들의 제1자음은 한글 표기에서 모두 종성자음으로 표기된다. 즉 제1자음 ‘-r, -n, -ŋ, -d, -p, -k’ 등은 종성자음 ‘-ㄹ, -ㄴ, -ㄷ, -ㅂ, -ㄱ’ 등으로 표기하였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 tam/담/擔/1, dham/등/鄧/8, dam/남/喃/1, dhim/딤/朕/1, mam/망/罔/1, šam/삼/鉉/1, šam/삼/三/10, im/인/寅/1, šam/산/鎗/1, sa-r/살/薩/1, ba-n/만/滿/8, ca-ŋ/잔/贊/1, tu-ŋ/돈/頓/1, si-d/신/悉/1, mya-k/막/藐/10

【개음절】 ni/di/捻/1, ya/야/藥/1, ra/라/略/1

【자음음절】 <초성자음> d/ㄴ/旼(聲母)/1 <종성자음> -k/-ㄱ/葛(聲母)/1, -k/-ㄱ/乞(聲母)/1, -p/-ㅂ/鉢(聲母)/1

위의 예39~예41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한 후 음소대응을 보면 아래와 같다.

139) “寅”은 중고음에서 以母 眞3韻*jin와 以母 脂3韻*ji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40) “鎗”은 중고음에서 初母 刪2韻*tshyæn와 初母 山2韻*tshyæn와,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폐음절’의 모든 예에서 초성자음은 ‘m/口/明(*m)/2, v/口/明(*m)/4, ʃ/入/生(*f)/1, y/이/以(*j)/24, t/ㄷ/端(*t)/2, dh/ㄷ/定(*d)/8, b/口/明(*m)/8, m/口/明(*m)/11, c/ㄷ/精(*ts)/1, ʃ/入/生(*f)/1, ʃ/入/初(*tʃh)/1, s/入/心(*s)/2’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r/ㄹ/覽(*?)/1, r/ㄹ/藍(*?)/5, r/ㄹ/藍(*?)/2, ʃ/리/藍(*?)/1, ʃ/리/藍(*?)/2’ 등의 대응에서 한자가 造字인데 이들은 범자 자음이 ‘r, 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음운미 표기를 위한 것도 있다. 즉 부수 ‘口’를 제외한 남은 부분의 한자 ‘藍, 藍, 臨, 陵’ 등은 모두 *-m, *-ŋ의 자음운미를 가지는 글자들이다. 이들은 자음의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의미가 없는 예들을 제외하여 보면 ‘a/아/談1(*am)/12, a/아/陽3(*iaŋ)/5, a/아/曷1(*at)/1, a/아/桓1(*an)/8, a/아/寒1(*an)/1, i/이/侵3(*im)/1, i/이/質3(*it)/1, u/오/魂1(*on)/1’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a/어/鹽3(*iem)/17, a/으/登1(*əŋ)/8’의 예도 있다. 범자 ‘a’ 모음대에 한글 모음 ‘으’가 대응하는데 실담장의 한글 표기 규칙에 어울리는 것으로 예외로 처리할 수 없다(제5장의 5.1.3절의 내용 참고).

그리고 ‘e/여/靑4(*eŋ)/2’예가 있는데 범자 ‘e’ 모음의 대응에 한글 모음이 ‘여’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예39의 9)번 ‘hmem/헝명/賀銘_[二合]/1’이 있다. 범자 ‘e’ 모음의 한글 중성은 일반 표기에서는 마땅히 ‘예’가 되는데 ‘-o’ 종성자음과 결합하면 ‘멩’이 된다. 하지만 ‘멩’은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음절구조이며, 한자 ‘銘’의 한국한자음의 영향 등을 받아서 ‘멩’으로 되었을 수도 있다.

이외 ‘e/어/靑4(*eŋ)/2’의 대응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예40의 3)번 ‘myem/명/銘/2’이다. 여기에서는 한글 ‘명’의 상향이중모음 활음이 범자 ‘y’와 대응하므로 범자 ‘e’는 ‘어’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범자 ‘ye’와 ‘e’의 음성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 모두 ‘여’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자 ‘e’ 대응의 한글 모음 ‘어’는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폐음절’의 종성자음을 보면 통계에 무의미한 造字등을 제외하면 ‘-口’ 종성자음의 ‘-m/-口/銜2(*-m)/2, -m/-口/鹽3(*-m)/17, -m/-口/談1(*-m)/12, -m/-口/侵3(*-m)/1’의 예와, ‘-o’ 종성자음의 ‘-m/-o/陽

3(*-ŋ)/5, -m/-o/靑4(*-ŋ)/4, -m/-o/蒸3(*-ŋ)/7, -m/-o/登1(*-ŋ)/8'의 예와, ‘-ㄴ’ 종성자음의 ‘-m/-ㄴ/仙3(*-n)/1, -m/-ㄴ/刪2(*-n)/1, -n/-ㄴ/桓1(*-n)/8, -n/-ㄴ/寒1(*-n)/1, -n/-ㄴ/魂1(*-n)/1’의 예와, ‘-ㄹ’ 종성자음의 ‘-r/-ㄹ/曷1(*-t)/1’의 예와, ‘-ㄷ’ 종성자음의 ‘-d/-ㄷ/質3(*-t)/1’의 예와, ‘-ㄱ’ 종성자음의 ‘-k/-ㄱ/覺2(*-k)/10’의 예가 있다.

‘개음절’을 보면 초성의 대응으로 ‘d/ㄴ/泥(*n)/1, y/이/以(*j)/1’이 있고 모음의 대응으로 ‘a/아/藥3(*iak)/1’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溪(*kh)/1, gh/ㄱ/群(*g)/1, t/ㄷ/端(*t)/13, d/ㄴ/泥(*n)/2, dh/ㄷ/定(*d)/4, bh/ㅅ/并(*b)/2, m/ㅁ/明(*m)/2, s/ㅅ/生(*f)/3, j/ㅈ/日(*n₂)/2, h/ㅇ/匣(*h)/1, r/ㄹ/嚕(聲母?)/13’ 등으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k/-ㄱ/見(*k)/1, -p/-ㅍ/幫(*p)/1’이 있다.

4.3.1.2 표기 유형 (2)

본 절은 ‘-m’ 폐음절의 복자음이지만 한글 및 한자의 불규칙 표기인 예에 대해 보겠다.

예42

- 1) rya-ntam/련담/哩演_{二合}擔/1 [Q:1] [哩(聲母):*?][演:以母 仙3韻*jien][擔:端母 談1韻*tam]
- 2) na-nim/난닌/難旆演_{二合}/1 [D:1] [難:泥母 寒1韻*nan][旆(聲母):娘母*n][演:以母 仙3韻*jien]
- 3) jam-mbha/삼바/答婆/1 [D:1] [答:精母 覃1韻*tsəm][婆:并母 戈1韻*ba]
- 4) ma-ta/맘다/麼多/1 [Q:1] [麼:明母 戈1韻*ma][多:端母 歌1韻*ta]

위의 예42에서 1)번의 범자음절 ‘rya-ntam’을 보면 첫 번째 음절의 복자음은 ‘C+y’로 ‘C+제2자음’류 복자음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r+C’로 ‘제1자음+C’류 복자음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한글 표기가 ‘련’ 즉 상향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어 이는 ‘C+y’의 복자음으로 판단하였음을 볼 수 있다. 만약 ‘r+C’의 복자음이라면 제1자음 r이 선행음절의 종성 자음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한-중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은 ‘r/ㄹ/哩(聲母), ya-n/연/演, tam/담/擔’이 된다.

2)번의 범자는 ‘na-ɳim’이고 한글은 ‘난닌’이다. 범자와 한글의 대응을 보면 ‘na(-ɳ)/난, ɳim/닌’ 즉 한글 ‘-ㄴ’ 종성자음이 범자 자음 ‘-ɳ’를 중복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難旆演_[二合]’으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na(-ɳ)/難, ɳim/旆演_[二合]’이다. 첫 번째 글자 ‘難(泥母 寒1韻*nan)’의 자음운미 *-n이 여전히 범자 자음 ‘-ɳ’을 중복 표기하고 있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ㄴ’ 종성자음의 중복 표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은 ‘na(-ɳ)/난/難, ɳ/ㄴ 旆(聲母), im/인/演’이다. 따라서 ‘[-ɳ]/-ㄴ/寒1(*-n)’의 음소대응은 통계 자료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번의 범자는 ‘jam-mbha’로 첫 번째 음절은 ‘-m’류 폐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의 복자음은 ‘m+C’로 ‘제1자음+C’류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한글은 ‘삼바’로 표기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ja(m)-m/삼, bha/바’가 된다. 한글의 첫 번째 음절 ‘삼’의 종성자음 ‘-ㅁ’은 범자의 첫 번째 음절 ‘m’와도 대응하고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m’과도 대응하게 된다. 즉 여기에서는 ‘m-m’ 두 자음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하나의 자음으로 인지하여 축소 번역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咎婆’로 범자와의 대응이 ‘ja(m)-m/咎, bha/婆’인데 한글의 경우와 같다. 즉 한글의 축소 번역은 한자 번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4)번의 범자는 ‘ma-ta’로 2개의 기본 개음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맘다’로 되어 있어 범자와 ‘ma/맘, ta/다’의 대응을 보여주는데 첫 음절 ‘맘’의 종성자음 ‘-ㅁ’이 추가되어 반영되었다. 이들의 한자 표기는 ‘麼多’ 즉 범자와의 대응이 ‘ma/麼, ta/多’로 두 개의 개음절로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자와 한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어 자체의 어떤 원인으로 ‘-ㅁ’ 종성자음이 추가되었을 것인데 어떠한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ㅁ’ 종성자음의 음소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폐음절】 tam/담/擔/1, im/인/演/1, jam-m/삼/咎/1, ma/맘/麼/1, na(-ɳ)/난/難/1, ya-n/연/演/1

【개음음절】 ta/다/多/1, bha/바/婆/1

【자음음절】 <초성자음> ᅇ/ㄴ/旆(聲母)/1, r/ㄹ/哩(聲母)/1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n/ㄴ/泥(*n)/1, m/ㄹ/明(*m)/1, y/이/以(*j)/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談1(*am)/1, a/아/覃1(*əm)/1, a/아/寒1(*an)/1, a/어/仙3(*ien)/1’이 있는데 범자 ‘a’ 모음 대응에 대부분 한글 ‘아’가 대응하지만 일부 ‘어’의 대응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m/-ㄹ/談1(*-m)/1, -m/-ㄹ/覃1(*-m)/1, -m/-ㄴ/仙3(*-n)/1, -n/-ㄴ/仙3(*-n)/1’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bh/ㅃ/并(*b)/1’, 모음의 대응 ‘a/아/歌1(*a)/1, a/아/戈1(*a)/1’가 있는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ᅇ/ㄴ/娘(*ᅇ)/1, r/ㄹ/哩(聲母)(*?)’도 있다.

4.3.1.3 표기 유형 (3)

다음은 기타 표기의 예들로 특히 한자의 ‘二合’ 2음절 표기가 특이한 경우이다.

예43

- 1) ᅇim/님/昵淫_[二合]/5 [D;5] [昵:娘母 支3韻 *ᅇiɛ] [淫:以母 侵3韻 *jim]
- 2) sum/숨/素唵_[二合]/1 [D;1] [素:心母 模1韻 *so] [唵:影母 覃1韻 *ʔəm]
- 3) nim/닌/顛寅_[二合]/2 [D;2] [顛:泥母 青4韻 *neŋ] [寅¹⁴¹:以母 眞A韻 *jin]
- 4) rim/린/哩寅_[二合]/4 [D;4] [哩:*?], [寅:以母 眞A韻 *jin]
- 5) vim/밍/尾孕_[二合]/2 [D;2] [尾:明母 微3韻 *mii] [孕:以母 蒸3韻 *jiŋ]

위의 예43에서 범자는 ‘ᅇim, sum, nim, rim, vim’으로 1음절 폐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님, 숨, 닌, 린, 밍’의 1음절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ㄹ, -ㄴ, -ㅇ’의 종성자음의 ‘m’의 [m, n, ᅇ]의 음가 차이를 반영한

141) “寅”은 중고음에서 以母 眞3韻 *in과 以母 之3韻 *i, 以母 脂3韻 *i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것이다. 범자와 한글은 1:1의 음절대응 관계를 가지며 이들은 單子音 음절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자를 보면 ‘二슴’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앞서 내용의 고찰에서 한자의 ‘二슴’은 복자음 음절 표기에서만 사용되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單子音 음절에도 사용되고 있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자와 한자를 대응시켜 보면 ‘ ηim /掇_[二슴]’인데 이를 세분화하면 ‘ η /掇(聲母), im /淫’이다. 한자 ‘掇’는 娘母 支3韻 $*\eta i\epsilon$ 으로 특히 운모 支3韻은 흔히 범자 ‘i’ 모음과 대응한다. 즉 ‘掇’는 ‘ ηi ’와도 대응이 가능하다. 즉 범자 모음 ‘i’가 중복 표기되어 ‘ $\eta(i)$ /掇, im /淫’의 대응이 된다. 이는 우연한 일치가 아니며 기타 표기 역시 범자 모음이 모두 중복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2)번에서의 ‘ su /素, um /唵’, 3)번에서의 ‘ ni /顛, im /寅’, 4)번에서의 ‘ ri /哩, im /寅’, 5)번에서의 ‘ vi /尾, im /孕’이다.

이들 두 번째 한자에 공통특징이 있는데, ‘淫(以母 *j), 唵(影母 *ʔ), 寅(以母 *j), 孕(以母 *j)’으로 이들의 자모는 以母 혹은 影母이다. 이 자모들은 일반대응에서는 흔히 자음이 없는 모음음절에만 사용된다. 두 번째 음절의 선택은 운모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자음이 약하거나 자음이 없는 글자를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두 번째 음절의 선택은 임의로 수의적인 아니라 상당히 규칙성 있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한자는 범자 자음과 모음의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두 번째 한자 ‘淫, 唵, 寅, 孕’은 주로 범자의 종성 자음 ‘-m’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모음의 중복 표기는 첫 글자가 아닌 두 번째 글자에 있는 것이며 범자와 한자 韻尾가 대응되는 것이다. 즉 ‘-m/-ㄹ/淫(韻尾)’의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음절대응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음절】 ηi /니/掇/5, su /소/素/1, ni /니/顛/2, ri /리/哩/4, vi /미/尾/2

【자음음절】 <종성자음> -m/-ㄹ/淫(韻尾)/5, -m/-ㄹ/唵(韻尾)/1, -m/-ㄴ/寅(韻尾)/2, im /인/寅/4, im /잉/孕/2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 η /ㄴ/娘($*\eta$)/5, s /ㅅ/心($*s$)/1, n /ㄴ/泥($*n$)/2, r /ㄹ/哩($*?$)/4, v /ㅁ/明($*m$)/2’가 되고 모음의 대응은 ‘i/이/侵

3(*i)/5, i/이/眞A(*i)/6, i/이/蒸3(*i)/2, u/오/覃1(*ə)/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자음음절’의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m/-ㄹ/侵3(*-m)/5, -m/-ㄹ/覃1(*-m)/1, -m/-ㄴ/眞A(*-n)/6, -m/-ㅇ/蒸3(*-ŋ)/2’가 있다.

4.3.2 ‘-h’류

4.3.2.1 표기 유형 (1)

본 절은 복자음 ‘-h’류 복자음 음절의 표기 예이다. 구체적인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44

- 1) bhyah/박/毗藥_[二合]/57 [Q;26, D;31] [毗(聲母):并母*b][藥:以母 藥3韻*jiak]
- 2) svah/씩/娑嘑_[二合]/3 [Q;3] [娑(聲母):心母*s][嘑:*?]
- 3) a-ryah/알약/啊哩也_[二合]/1 [S;1] [啊:*?][哩(聲母):*?][也:以母 麻3韻*jia]
- 4) svah-pna/뺨나/娑鉢難_[二合]/鉢難_[二合]/1 [D;1] [娑(聲母):心母*s][嘑:*?][鉢(聲母):幫母*p]
[難:泥母 寒1韻*nan]

위의 예44에서 1)번의 범자는 ‘bhyah’으로 복자음이 ‘C+y’ 즉 ‘C+제2자음’류에 속하며 이에 ‘h’의 음절말 자음을 가지는 폐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박’으로 되어 있어 범자와의 대응은 ‘bh/ㅂ, yah/약’가 된다. 한자는 ‘二合’의 2음절 즉 ‘毗藥_[二合]’으로 되어 있으며, 범자와의 대응은 ‘bh/毗(聲母), yah/藥’이다. 즉 범자 ‘h’ 대응에 한글이 ‘-ㄱ’ 종성자음이 사용되고, 한자는 ‘*-k’ 운미의 ‘藥’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번의 범자는 ‘svah’으로 복자음이 ‘C+v’ 즉 ‘C+제2자음’류에 속하므로 ‘ㅎ’ 모음 첨가 표기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씩’으로 되어 있다. ‘C’자음이 ‘s’인 경우 종종 합용병서 표기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한자 표기를 보면 ‘娑嘑_[二合]’으로, 범자와의 대응이 ‘s/娑, vah/嘑’가 되는데 한자 ‘嘑’는 일반적으로 개음절 ‘va’와 대응된다. 여기에서는 ‘vah’의 폐음절과 대응하고 있다. 이는 아마 마땅한 자음운미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개음절 한자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은 ‘-h/-ㄱ/-ø’가 되는데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번 예의 범자 음절은 ‘a-ryah’이고 한글 표기는 ‘알약’이며 한자는 ‘啊哩也_[二合]’이다. 이들의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은 ‘a/아/啊, -r/-ㄹ/哩(聲母), ya/야/也, -h/-ㄱ/-ø’가 된다. 여기에서도 범자 ‘-h’ 음절말 자음의 대응에 한글이 ‘-ㄱ’ 종성자음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한자는 ‘也’를 사용하여 범자 자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svah-pna’인데 첫 번째 음절은 앞서 2)번의 한글 표기를 따라 ‘씩’으로도 표기될 수 있다. ‘pna’는 ‘C+n’ 구조의 복자음으로 ‘C+제2자음’류에 속하므로 마땅히 ‘브나’로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글 표기는 ‘쌩나’로 되어 있다. 범자와 대응하여 보면 ‘sva(h)-p/쌩, na/나’가 되는데 첫 음절 범자의 음절말 자음 ‘-h’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 ‘pna’의 복자음은 ‘p+C’의 ‘제1자음+C’류의 일반 표기법인 종성자음의 표기법을 사용하여 범자 자음 ‘-p’와 ‘-ㅂ’ 종성자음이 사용되었다. 이에 한자는 두 개의 ‘二合’ 즉 ‘娑嚩_[二合]鉢難_[二合]’으로 되어 있다. 한글과 함께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을 보면 ‘s/ㅅ/娑(聲母), vah/바/嚩, -p/-ㅂ/鉢(聲母), na/나/難’가 된다.

위의 분석들을 근거로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폐음절】 yah/약/藥/56, yah/약/也/1, vah/박/嚩/3, vah/바/嚩/1

【개음절】 na/나/難/1, a/아/啊/1

【자음음절】 <초성자음> bh/ㅂ/毗(聲母)/57, s/ㅅ/娑(聲母)/4 <종성자음> -r/-ㄹ/哩(聲母)/1, -p/-ㅂ/鉢(聲母)/1

위의 ‘폐음절’에서 초성의 대응은 ‘y/이/以(*j)/57, v/ㅂ/嚩(*?)/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藥3(*iak)/56’이며 종성의 대응은 ‘-h/-ㄱ/藥3(*-k)/56’이다. ‘개음절’에서 초성의 대응은 ‘n/ㄴ/泥(*n)/1, ø/ㅇ/啊(*?)/1’이며 종성의 대응은 ‘a/아/寒1(*an)/1’이다.

그리고 ‘자음음절’의 초성 대응은 ‘bh/ㅂ/并(*b)/57, s/ㅅ/心(*s)/4’이고 종성대응은 ‘-r/-ㄹ/哩(聲母*?)/1, -p/-ㅂ/幫(*p)/1’이 된다.

4.3.2.2 표기 유형 (2)

다음은 여전히 음절말 자음이 ‘h’인 폐음절이지만 좀 특이한 표기 양상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예45

- 1) paḥ-kṣa/박사/博乞灑_[二合]/1 [Q;1] [博:幫母 鐸1韻*p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ya]
- 2) naḥ-kṣa/낙사/諾乞察_[二合]/2 [Q;2] [諾:泥母 鐸1韻*nok][乞(聲母):溪母*kh][察>初母 鎋2韻*tshyæt]
- 3) yaḥ-kṣa/약사/藥乞灑_[二合]/1 [D;2] [藥:以母 藥3韻*jia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ya]
- 4) yaḥ-kṣi/약시/藥乞史_[二合]/1 [Q;1] [藥:以母 藥3韻*jiak][乞(聲母):溪母*kh][史:生母 之3韻*fī]
- 5) koḥ-kṣi/국시/銅乞史_[二合]/1 [Q;1] [銅:見母 燭3韻*kiok][乞(聲母):溪母*kh][史:生母 之3韻*fī]
- 6) paḥ-kṣa/박사/播乞灑_[二合]/1 [Q;1] [播:幫母 戈1韻*pa][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ya]
- 7) raḥ-kṣa/락사/囉乞灑_[二合]/1 [D;1] [囉:*?][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fya]

위의 예45에서 범자 음절을 보면 첫 번째 음절은 모두 음절말 자음이 ‘h’인 폐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모두 ‘kṣ-’류 복자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paḥ-kṣa, naḥ-kṣa, yaḥ-kṣa, yaḥ-kṣi, koḥ-kṣi, paḥ-kṣa, raḥ-kṣa’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박사, 낙사, 약사, 약시, 국시, 락사’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첫 음절에서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pa(h)-k/박, na(h)-k/낙, ya(h)-k/약, ko(h)-k/국, pa(h)-k/박, ra(h)-k/락’이다. 한글의 ‘-ㄱ’ 종성자음은 후행음절의 ‘-k’ 자음과 대응하는 동시에 범자 자음 ‘h’과도 대응하고 있다. 범자의 ‘-h’ 자음이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博乞灑_[二合], 諾乞察_[二合], 藥乞灑_[二合], 藥乞史_[二合], 銅乞史_[二合], 播乞灑_[二合], 囉乞灑_[二合]’로 되어 있다. 범자와 대응하여 보면 첫 번째 한자가 ‘paḥ/博, naḥ/諾, yaḥ/藥, koḥ/銅, paḥ/播, raḥ/囉’로 대응되고 ‘二合’은 범자 ‘kṣ-’류 복자음과 대응되어 ‘kṣa/乞灑_[二合], kṣa/乞察_[二合], kṣi/乞史_[二合]’가 된다. 특히 첫 번째 한자의 대응에서 ‘博, 諾, 藥, 銅’은 자음운미 ‘*-k’를 가지고 있어 범자의 ‘h’ 자음을 표기하고 있지만, ‘播, 囉’ 등은 개음절이므로 범자의 ‘h’ 자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범자 ‘h’ 자음의 표기에 한글은 모두 생략되어 있고 한자는

반영되는 예도 있고 반영하지 못하는 예도 있는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한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폐음절】 nah/낙/諾/2, pah/박/博/1, yah/약/藥/2, koh/국/銅/1, pah/박/播(음성운)/1, rah/락/囉(음성운)/1

【개음절】 sa/사/灑/4, sa/사/察/2, si/시/史/2

【자음음절】 <중성자음> -k/-ㄱ/ㄱ(聲母)/8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n/ㄴ/泥(*n)/1, p/ㅍ/幫(*p)/2, y/이/以(*j)/2, r/ㄹ/囉(*?)/1, k/ㄱ/見(*k)/1’이고 중성의 대응은 ‘a/아/鐸1(*ak)/2, a/아/戈1(*a)/1, a/아/藥3(*iak)/2, a/아/囉(*?)/1, o/우/燭3(*iök)/1’이며 중성의 대응은 ‘-h/-ㄱ/鐸1(*-k)/2, -h/-ㄱ/藥3(*-k)/2, -h/-ㄱ/燭3(*-k)/1’이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s/ㅅ/生(*ʃ)/6’가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중성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면 ‘i/이/之3(*i)/2’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중성자음의 대응은 ‘-k/-ㄱ/溪(*kh)/8’이 있다.

제 5 장 한글 진언 표기의 음운 특징

본 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3장과 제4장에서 고찰한 한글 진언 표기를 음소단위의 대응규칙을 찾아서 실담장의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하여 볼 것이며, 다음 진언의 한글 표기를 분석하여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5.1. 한글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

5.1.1 실담장의 한글 표기

<진언집> 실담장에서는 梵-漢-韓의 대응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진언집> 여러 판본의 실담장에서 漢字 번역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¹⁴²⁾, 한글 번역에 있어서는 일부 판본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반영된다. 그 중 대표적

142) 사실 <진언집>에서 제시된 한자 번역이 과연 중국에서 중국어 번역을 위한 번역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에 박병채(1979:83)은 진언집 한자 번역의 출처를 고찰하였는데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과는 28字, ‘悉曇字記’와는 17字가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兩本이 공통되는 것이 13字, 기타 字母品에서 4字, 또 중국 中國諸經의 字母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14字가 있다고 하였다. 즉 중국어의 번역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으며 한국 내에서 한자 번역에 일부 조정이 있었을 것이다. 안주호(2002:177-178)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려대장경》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의 不空 50자문을 제시하였는데 필자는 이것과 진언집 한자를 일일이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마다의 한자 번역을 보면 ‘塢→烏, 瞿→曳, 闇→暗, 哩→里, 𑖀→梨, 阿→啊, 伊→咿, 奧→𑖀, 哩→哩’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첫 번째 글자가 자모품의 것이고 두 번째 글자가 진언집의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어려운 한자를 보다 쉬운 한자로 변경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음 표기에서 자모품은 ‘引’이란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진언집에서는 부수 ‘口’를 추가한 造字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체문을 보면 ‘磋(淸)→差(初), 鄼(從)→社(初), 穰(日)→攘(日), 咤(知)→佗(徹), 孃(娘)→囊(泥), 他(透)→佗(透), 娜(泥)→那(泥), 囊(泥)→娜(泥), 跋(幫)→波(幫), 麼(明)→摩(明), 囉(來)→邏(來), 捨(書)→舍(書), 灑(生)→沙(生), 娑(心)→薩(心)’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역시 쉬운 글자 혹은 진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자로 변경되어 있다. 변경 후의 한자 자모는 사실 변경 전과 한자와 대부분 일치한다. 일부 치음과 娘母와 泥母등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은 한국어 자음체계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에 전반적인 번역의 체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즉 <진언집>의 한자는 비록 한자 사용의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번역 체계에는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번역은 不空 번역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¹⁴³⁾와 만연사본(1777)의 한글 번역 체계의 차이를 들 수 있다.¹⁴⁴⁾

아래 먼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의 체문의 한글 표기를 비교하여 보겠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의 중고한어 음가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¹⁴⁵⁾

[표1] 실담장 체문의 한글 표기의 판본 비교

순서	범자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한자	
1	ka	가 ㄱ 거 ㄱ	가 ㄱ 거 ㄱ	迦	見母 戈3韻 *kia
2	kha	카 ㅋ 커 ㅋ	카 ㅋ 커 ㅋ	佉	溪母 戈3韻 *khia
3	ga	아 ㄹ 어 ㄹ	아 ㄹ 어 ㄹ	諷	疑母 歌1韻 *ŋa
4	gha	가 ㄱ 거 ㄱ	까 ㄱ 껌 ㄱ	伽	群母 戈3韻 *gia
5	ña	항 ㅎ 엉 ㅎ	항 ㅎ 엉 ㅎ	仰	疑母 陽3韻 *ŋian
6	ca	자 ㅈ 저 ㅈ	자 ㅈ 저 ㅈ	左	精母 歌1韻 *tsa
7	cha	차 ㅈ 처 ㅈ	차 ㅈ 처 ㅈ	差	初母 麻2韻 *tshya
8	ja	샤 ㅅ 셔 ㅅ	샤 ㅅ 셔 ㅅ	惹	日母 麻3韻 *ɲia
9	jha	자 ㅈ 저 ㅈ	짜 ㅈ 껌 ㅈ	社	禪母 麻3韻 *dzia
10	ña	상 ㅎ 성 ㅎ	상 ㅎ 성 ㅎ	攘	日母 陽3韻 *ɲian
11	ta	다 ㄷ 더 ㄷ	다 ㄷ 더 ㄷ	吒	知母 麻2韻 *tɕa
12	tha	타 ㅌ 터 ㅌ	타 ㅌ 터 ㅌ	佗	徹母 麻2韻 *tɕhya
13	da	나 ㄴ 너 ㄴ	나 ㄴ 너 ㄴ	拏	娘母 麻2韻 *ɲya
14	dha	다 ㄷ 더 ㄷ	따 ㅌ 껌 ㅌ	茶	澄母 麻2韻 *dɕa
15	na	낭 ㄴ 녕 ㄴ	낭 ㄴ 녕 ㄴ	囊	泥母 唐1韻 *nan

143)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의 안심사본에는 실담장이 없고 1658년 신흥사본에만 실려 있다. 그러나 진언 본문을 보면 신흥사본과 안심사본이 서로 같은 판본으로 인쇄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最古의 실담장을 흔히 1569년의 안심사본이라 하고 있어 본고 역시 이를 따르겠다.

144) 본고의 제2장에서는 진언집 실담 범자의 고찰을 보존 상태가 양호한 망월사본(1800)을 참고로 하였는데 실담장은 망월사본(1800)이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고 있어서 실담장 체계는 만연사본(1777)이 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망월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의 실담장은 거의 일치하지만 일부 차이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마다의 한글 표기에서 만연사본(1777)은 ‘아, ㄹ, 어, ㄹ’ 등 ‘ㅇ’ 초성을 사용하고 있지만 망월사본(1800)은 ‘하, ㅎ, 허, ㅎ’ 등으로 ‘ㅎ’ 초성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망월사본(1800)의 실제 한글 진언 표기는 실담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망월사본(1800)의 진언 본문 실제 한글 표기에서는 ‘ㄱ, ㄷ, ㅂ, ㅈ, ㅊ’ 등의 각자병서가 없다. 그리고 반치음의 ‘△’는 모두 ‘ㅇ’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순경음 ‘ㅂ’도 대부분 ‘ㅂ’로 나타난다. 즉 망월사본(1800)의 실담장은 범자의 한글 표기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독송의 편의를 위한 수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45) 실담장에는 한자의 平, 上, 去, 入 및 淸, 濁의 제시가 있고 한글에 방점도 표기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루지 않고 향후 연구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6	ta	다 ㄸ 더 드	다 ㄸ 더 드	多	端母 歌1韻 *ta
17	tha	타 ㅌ 터 트	타 ㅌ 터 트	佗	透母 歌1韻 *tha
18	da	나 ㄴ 너 느	나 ㄴ 너 느	那	泥母 歌1韻 *na
19	dha	다 ㄸ 더 드	따 ㅌ 떠 트	駄	定母 歌1韻 *da
20	na	낭 ㄴᆞᆫ 녕 능	낭 ㄴᆞᆫ 녕 능	娜	泥母 歌1韻 *na
21	pa	바 ㅍ 버 브	바 ㅍ 버 브	波	幫母 戈1韻 *pa
22	pha	파 ㅍ 퍼 프	파 ㅍ 퍼 프	頗	滂母 戈1韻 *pha
23	ba	마 ㅁ 머 므	마 ㅁ 머 므	摩	明母 戈1韻 *ma
24	bha	바 ㅍ 버 브	빠 ㅍ 빼 브	婆	并母 戈1韻 *ba
25	ma	망 ㅁᆞᆫ 멍 뭉	망 ㅁᆞᆫ 멍 뭉	莽	明母 唐1韻 *maŋ
26	ya	야 이 여 의	야 이 요 유	野	以母 麻3韻 *jia
27	ra	라 ㄹ 러 르	라 ㄹ 러 르	囉	*?
28	la	라 ㄹ 러 르	라 ㄹ 러 르	囉	來母 模1韻 *lo
29	va	바 ㅍ 버 브	바 ㅍ 버 브	囉	*?
30	śa	샤 시 서 신	샤 시 서 신	舍	書母 麻3韻 *cia
31	ṣa	사 스 서 스	사 스 서 스	沙	生母 麻2韻 *fɣa
32	sa	사 스 서 스	사 스 서 스	薩	心母 曷1韻 *sat
33	ha	하 ㅎ 허 호	하 ㅎ 허 호	賀	匣母 歌1韻 *fia
34	kṣa	가사 ㄱ사 거서 그서	가사 ㄱ사 거서 그서	乞灑 _{二合}	溪母 *kh 生母 佳2韻 *fɣɛ

먼저 안심사본(1569)을 중심으로 실담장 한글 표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이해한 다음 다음 만연사본(1777)과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실담장 체문에 제시된 범자는 모두 ‘a’ 모음의 음절문자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되는 한글 모음은 모두 ‘아, 으, 어, 으’ 등의 4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범자 ‘a’ 모음 대응의 한글의 첫 번째 모음은 모두 ‘아’이지만 26번의 ‘ya’와 30번의 ‘śa’는 상향이중모음의 ‘야’로 되어 있다. 이는 본고에서 고찰한 자료와 일치한다. 다만 실담장에서는 4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어 안심사본(1569)을 중심으로 보면 ‘ya’는 ‘야(이+아), 이(이+으), 여(이+어), 의(이+으)’, ‘śa’는 ‘샤(시+아), 시(시+으), 서(시+어), 신(시+으)’으로 되어 있다. 즉 범자자음 ‘y’을 ‘이’, ‘ś’을 ‘시’로 보고 이에 규칙적으로 ‘아, 으, 어, 으’를 적용시킨 것이다.

셋째, 범자의 무성무기음의 ‘ka, ca, ta, ta, pa’와 유성유기음의 ‘gha, jha, dha, dha, bha’은 한글에서 모두 평음의 ‘가, 자, 다(권설음), 다, 바’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유성음 범자 ‘ga, ja, ḍa, da, ba’은 비음의 ‘아, ᄃ¹⁴⁶’, 나

(권설음), 나, 마'로 되어 있다.

넷째, 범자 체문 즉 'ña, ña, ña, na, ma' 등의 한글 표기에는 '앙, 상, 낭, 망' 등 모두 '-ㅇ' 종성자음이 있다. 이에 대응되는 한자는 '仰, 攘, 囊, 娜, 莽'으로 비록 '-ㄴ' 운미의 한자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娜' 글자도 있다. 종성자음의 반영은 아마 유성음 범자의 한글 비음 글자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보겠다.

첫째, 유성유기음의 범자 'gha, jha, dha, dha, bha'에 있어서 만연사본(1777)에서는 각자병서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까, 짜, 따(권설음), 따, 빠'로 되어 있다. 후음의 'ha'도 '햐'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안심사본(1569)은 무성무기음과 같이 '가, 자, 다(권설음), 다, 바, 하'로 되어 있다.

둘째, 안심사본(1569)에서는 범자 'ga' 대응 한글 자음이 'ㅇ'이지만 만연사본(1777)에서는 꼭지 달린 'ㅇ' 표기로 되어 있다. 유성음 범자의 비음 한글의 표기 체계에 따르면 꼭지가 달린 'ㅇ'가 정확하다.

셋째, 만연사본(1777)에서는 'ya'의 표기가 '야, 여, 요, 유'로 되어 있고, 'sa'는 '샤, 식, 서, 식'으로 되어 있다. 안심사본(1569)과 비교하면 'ya'에서 '이→요, 인→유'으로 바뀌었고, 'sa'에서는 '시→식, 신→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만연사본(1777)의 편찬 시기인 18세기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음절구조의 한글을 비슷한 음가의 혹은 진언 표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기로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교체는 오히려 실담장 한글 표기의 체계적인 특성을 약하게 만든다. 특히 원순모음의 교체는 체계적으로 극히 불규칙적인 모습이다.

다음은 이어서 실담장의 범자 마다에 대한 한글 표기에 대해 보겠다.

[표2] 실담장 마다의 한글 표기의 판본 비교

146) 실담장의 체계로 보아서 치음 계열의 비음으로 봐야 할 것이지만 당시 한국어의 받침에 비음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번호	범자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한자	중고음
1	a	아 ㄹ 어 으	아 ㄹ 어 으	阿	影母 歌1韻 *ʔa
3	i	애 이 ₁ 예 이	애 이 ₁ 예 이	伊	影母 脂A韻 *ʔi
7	e	애 이 ₁ 예 이	애 에 ₁ 예 이	曳	以母 祭3韻 *jiei
8	ai	애 이 ₁ 에 의	애 이 ₁ 에 ₁ 의	愛	影母 哈1韻 *ʔəi
5	u	와 오 위 우	와 오 위 우	烏	影母 模1韻 *ʔo
9	o	와 오 위 우	와 오 위 우	汙	影母 模1韻 *ʔo
10	au	와 오 위 우	와 오 위 우	𪛗	*ʔ
11	am	암 음 엄 음	암 음 엄 음	暗	影母 覃1韻 *ʔəm
12	aḥ	악 옥 억 옥	악 옥 억 옥	惡	影母 鐸1韻 *ʔak
13	r	래 리 ₁ 레 리	래 리 ₁ 레 리	里	來母 之3韻 *li
15	l	래 리 ₁ 레 리	래 리 ₁ 레 리	梨	來母 脂A韻 *li

먼저 안심사본(1569)의 한글 표기부터 보겠다.

첫째, 범자 ‘a’는 대응 한글 모음이 ‘아, ㄹ, 어, 으’의 4개의 한글 모음과 대응된다. 이는 앞서 체문에서 고찰한 4개 모음의 대응과 일치한다.

둘째, 전설모음에서 범자 ‘i’와 ‘e’의 한글 표기가 같으며 모두 ‘애, 이₁¹⁴⁷⁾ 예, 이’이다. 이들은 범자 ‘a’ 모음 한글 표기 ‘아, ㄹ, 어, 으’에 각각 상향과 하향의 활음 ‘이’를 추가한 것으로 즉 ‘애’는 ‘이+아+이’, ‘이₁’는 ‘이+ㄹ+이’, ‘예’는 ‘이+어+이’, ‘이’는 ‘이+이+이’로 결합된 것이다.

셋째, 범자 ‘ai’는 하향의 활음 ‘이’ 하나만 추가한 것으로 ‘애, 이₁, 에, 의’인데 구체적으로 ‘애’는 ‘아+이’, ‘이₁’는 ‘ㄹ+이’, ‘에’는 ‘어+이’, ‘의’는 ‘으+이’로 결합한 것이다.

넷째, 원순모음의 ‘u, o, au’ 모두 ‘와, 오, 위, 으’로 되어 있다. 이 또한 범자 ‘a’와 원순모음의 결합으로 ‘와’는 ‘오+아’, ‘위’는 ‘우+어’이고 ‘오’와 ‘우’는 각각 ‘ㄹ’과 ‘으’ 짝을 이루는 원순모음인 것이다.

다섯째, 범자 ‘am’과 ‘aḥ’는 ‘a’ 모음의 ‘아, ㄹ, 어, 으’에 각각 ‘-ㅁ’ 종성 자음과 ‘-ㄱ’ 종성자음을 더한 것이다.

여섯째, 범자 ‘r, l’는 각각 ‘r+i’으로 ‘ㄹ’ 초성에 범자 ‘i’의 한글 표기가 결합한 것으로 ‘래, 리₁¹⁴⁸⁾, 레, 리’이다. 구체적으로 ‘래’는 ‘ㄹ+애’의 결합,

147) 실제 이미지에서 글자가 좀 흐려져 있어 ‘예’와 비슷하기도 하다. 이토지유키(2007)에서는 비록 이미지 사진에서 ‘ʌjj’처럼 보이지만 마땅히 ‘jʌj’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필자 역시 모음의 전환 규칙에 따라 ‘이 | ’일 것으로 추정한다.

148) 이 역시 실제 이미지에서 혹 ‘레’, ‘래’으로 보이는 등 일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이₁’와 같이 모음 전환의 규칙에 따라 ‘리₁’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리’는 ‘ㄹ+이’의 결합, ‘레’는 ‘ㄹ+에’의 결합, ‘리’는 ‘ㄹ+이’의 결합이다.¹⁴⁹⁾

이와 같이 한글 모음의 표기는 범자 ‘a’ 모음을 중심으로 매우 규칙적으로 전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의 차이에 대해 볼 것이다.

첫째, 안심사본(1569)의 ‘i’, ‘e’의 ‘이’ 표기가 만연사본(1777)에서는 ‘i’ 모음에서 ‘이→익’으로, ‘e’ 모음에서는 ‘이→에’로 변한다. 이에 따라 ‘r, l’에서도 각각 ‘리→릭’으로 변경되었다. 이 또한 18세기에 익숙하지 않는 음절구조를 갖고 있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절구조의 글자로 변경한 것이다.

둘째, 안심사본(1569)의 범자 ‘ai’ 모음에서 ‘에’가 만연사본(1777)에서 ‘에→예’로 변경된다. 이는 범자 ‘i, e’의 ‘예’와 같은 계열러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변경은 실담장 범자의 전환 규칙에는 어긋난다.

비록 안심사본(1569)의 판본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글 표기의 전환 규칙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만연사본(1777)은 ‘시→식’, ‘이→익’과 같이 18세기 당시 이해하기 어려운 음절구조의 글자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글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요’, ‘에→예’와 같이 과도교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실담장의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점. 즉 한글 표기의 체계성은 안심사본(1569)이 만연사본(1777)에 비하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안심사본(1569)과 만연사본(1777)의 제일 현저한 차이점은 안심사본(1569)에는 각자병서 표기가 없지만 만연사본(1777)에서는 각자병서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가 고찰한 오대진언(1569)에는 각자병서 표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ㄱ, 𑖇’가 나타나지만 예외로 각각 1회 나타날 뿐 체계적인 각자병서의 표기는 아니다.

단순히 각자병서 표기만 보아도 오대진언(1485)의 한글 진언 표기는 만연사본(1777) 실담장의 번역체계와 완전 다름을 알 수 있다. 오대진언(1485)의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에 있어서 실담장 표기는 안심사본

149) 이토 지유키(2007)는 한글에서 ‘j’가 사용되는 것은 ‘ra, la’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실제 범어의 실제 발음에서 ‘r’의 음가가 ‘ri’와 유사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1569)의 체계를 택할 것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한글 표기를 아래와 같이 자음의 대응과 모음의 대응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의 고찰에서 ‘ɿ’가 출현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시켰으며 ‘ɾ’은 비록 범자 마다이지만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리’와의 대응으로 처리하였다.

[표3] 안심사본(1569) 체문의 대응

【아음】			【설음】			【권설음】		
1	k	ㄱ/見母 *k	6	t	ㄷ/端母 *t	11	t̚	ㄷ/知母 *t̚
2	kh	ㅋ/溪母 *kh	7	th	ㅌ/透母 *th	12	t̚h	ㅌ/徹母 *t̚h
3	g	ㅇ/疑母 *ŋ	8	d	ㄴ/泥母 *n	13	d̚	ㄴ/娘母 *n̚
4	gh	ㆁ/群母 *g	9	dh	ㄷ/定母 *d	14	d̚h	ㄷ/澄母 *d̚
5	ñ	ㅇ/疑母 *ŋ	10	n	ㄴ/泥母 *n	15	ɳ	ㄴ/泥母 *n

【순음】			【치음】			【후음 및 기타】		
16	p	ㅍ/幫母 *p	22	c	ㅈ/精母 *ts	30	h	ㅎ/匣母 *ɦ
17	ph	ㅍ/滂母 *ph	23	cha	ㅊ/初母 *tʃh	31	y	이/以母 *j
18	b	ㅂ/明母 *m	24	j	ㄷ/日母 *n̚	32	r	ㄷ/囉母 *ʔ
19	bh	ㅂ/并母 *b	25	jh	ㅈ/禪母 *dʒ	33	l	ㄷ/來母 *l
20	m	ㅂ/明母 *m	26	ñ	ㄷ/日母 *n̚	34	ɾ	리/來母 *l
21	v	ㅍ/噴母 *ʔ	27	ś	시/書母 *ɕ			
			28	ʃ	ㅅ/生母 *ʃ			
			29	s	ㅅ/心母 *s			

[표4] 안심사본(1569) 마다의 대응

1	a	아, ㅏ, 어, 으/歌1韻 *a
2	i	애, 이, 예, 이/脂A韻 *i
3	e	애, 이, 예, 이/祭3韻 *iei
4	ai	애, 이, 예, 의/哈1韻 *əi
5	u	와, 오, 위, 우/模1韻 *o
6	o	와, 오, 위, 우/模1韻 *o
7	au	와, 오, 위, 우/ㄱ *ʔ
8	am	암, 음, 엄, 음/覃1韻 *əm
9	aɰ	악, 옥, 억, 옥/鐸1韻 *ak

5.1.2 자음의 대응 비교

5.1.2.1 초성 자음의 대응

본 절에서는 실험장과 진언 표기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비교하여 볼 것인데 먼저 실험장과 기본 개음절의 대응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5] 실험장과 기본 개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실험장	【C+a】	【C+i】	【C+e, C+ai】	【C+u, C+o, C+au】
k	ㄱ/見*k	ㄱ/見*k/118	ㄱ/見*k/43	ㄱ/見*k/12	ㄱ/見*k/27
kh	ㅋ/溪*kh	ㅋ/溪*kh/6		ㅋ/溪*kh/2	
g	ㅇ/疑*ŋ	ㅇ/疑*ŋ/138	ㅇ/疑*ŋ/10	ㅇ/疑*ŋ/4	ㅇ/疑*ŋ/7
gh	ㄱ/群*g	ㄱ/群*g/1			ㄱ/群*g/2
t	ㄷ/端*t	ㄷ/端*t/151	ㄷ/端*t/48	ㄷ/端*t/78	ㄷ/端*t/24
th	ㅌ/透*th	ㅌ/透*th/35			
d	ㄴ/泥*n	ㄴ/泥*n/42	ㄴ/泥*n/1	ㄴ/泥*n/24	ㄴ/泥*n/18
dh	ㄷ/定*d	ㄷ/定*d/56	ㄷ/定*d/33	ㄷ/定*d/1	ㄷ/定*d/5
n	ㄴ/泥*n	ㄴ/泥*n/135	ㄴ/泥*n/46	ㄴ/泥*n/7	ㄴ/泥*n/2
t̚	ㄷ/知*t	ㅌ/知*t/13	ㅌ/知*t/9		
d̚	ㄴ/娘*ŋ	ㄴ/娘*ŋ/5			
dh̚	ㄷ/澄*d	ㄷ/澄*d/2			
ŋ	ㄴ/泥*n	ㄴ/娘*ŋ/21	ㄴ/娘*ŋ/52		
p	ㅍ/幫*p	ㅍ/幫*p/97	ㅍ/幫*p/6	ㅍ/幫*p/2	ㅍ/幫*p/29
ph	ㅍ/滂*ph	ㅍ/滂*ph/11			
b	ㅍ/明*m				ㅍ/明*m/9
bh	ㅍ/并*b	ㅍ/并*b/85	ㅍ/并*b/12	ㅍ/并*b/9	ㅍ/并*b/19
m	ㅍ/明*m	ㅍ/明*m/168	ㅍ/明*m/60	ㅍ/明*m/4	ㅍ/明*m/72
v	ㅍ/嚙*?	ㅍ/嚙*?/172	ㅍ/明*m/144	ㅍ/并*b/16	
c	ㄷ/精*ts	ㄷ/精*ts/54	ㄷ/精*ts/1	ㄷ/精*ts/6	ㄷ/精*ts/8
ch	ㄷ/初*tsh	ㄷ/清*tsh/4		ㄷ/清*tsh/1	
j	ㄷ/日*n _e	ㄷ/日*n _e /47	ㄷ/日*n _e /12	ㄷ/從*dz/1	ㄷ/精*ts/2 ㄷ/日*n _e /1
ś	ㅍ/書*ɕ	ㅍ/書*ɕ/40	ㅍ/書*ɕ/9	ㅍ/書*ɕ/2	ㅍ/書*ɕ/1 ㅍ/船*z/2
ʃ	ㅍ/生*f	ㅍ/生*f/19	ㅍ/生*f/3	ㅍ/生*f/7	ㅍ/生*f/1
s	ㅍ/心*s	ㅍ/心*s/92	ㅍ/心*s/20	ㅍ/心*s/2	ㅍ/心*s/28
h	ㅎ/匣*f	ㅎ/匣*f/344 ㅎ/曉*h/1	ㅎ/曉*h/2	ㅎ/匣*f/6 ㅎ/曉*h/10	ㅎ/匣*f/4 ㅎ/曉*h/11
y	ㅇ/以*j	ㅇ/以*j/267	ㅇ/以*j/1	ㅇ/以*j/34	ㅇ/以*j/6
r	ㄹ/囉*?	ㄹ/囉*?/228	ㄹ/哩*?/108	ㄹ/囉*?/20	ㄹ/魯*?/70
l	ㄹ/來*l	ㄹ/來*l/101	ㄹ/來*l/10	ㄹ/來*l/5	ㄹ/來*l/23

위의 [표5]를 보면 안심사본(1569) 실담장 자음의 대응 원칙과 오대진언(1485)의 일반 대응이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일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첫째, 권설음 ‘t’의 한글 표기는 실담장에서 ‘ㄷ’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 ‘ㅌ’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는 모두 知母 *t로 차이가 없다.

둘째, 순음의 ‘ph’의 한글 표기가 실담장에서 ‘ㄲ’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는 ‘ㅂ’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는 모두 滂母 *ph로 차이가 없다.

셋째, 한글 표기에서 같은 범자 대응에 ‘ㅂ’와 ‘ㅍ’가 혼용된다. 순음의 ‘v’의 한글 표기가 실담장에서 ‘ㅂ’이지만 모음 ‘i’에서 ‘ㅍ’이고 기타 모음에서는 ‘ㅂ’이다. 모음 ‘i’일 때 한자는 明母 *m이고 기타 모음에서는 ‘ㄹ’*¹⁵⁰⁾ 혹은 并母 *b이다. 즉 한자가 明母일 때 한글 초성은 ‘ㅍ’이고 ‘ㄹ’*¹⁵⁰⁾ 혹은 并母 *b일 때 한글 초성은 ‘ㅂ’이다.

넷째, 한글 표기에서 같은 범자에 대하여 ‘ㄷ’와 ‘ㅌ’의 차이가 있다. 치음 ‘j’ 대응에서 실담장 한글 표기는 ‘ㄷ’이지만 원순 모음에서는 ‘ㅌ’으로 나타난다. 기타 모음에서는 ‘ㄷ’이다. 한자는 대부분 日母 *n₂이지만 일부 자모의 출현 제약에 의하여 從母 *dz 혹은 精母 *ts로 대체된다.

다섯째, 범자 ‘s’ 자음에 한글 표기 ‘시’가 대응된다. 하지만 한자 자모에 있어서 실담장은 書母 *ɕ이고 실제 진언표기에서도 대부분 書母이지만 일부 船母 *z 글자도 있다.

여섯째, 범자 ‘h’ 대응의 한글 표기는 모두 ‘ㅎ’로 되어있다. 하지만 대응 한자를 보면 실담장에서는 匣母 *ɦ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는 匣母 이외에 曉母 *h도 일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한자 자모가 여러 개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어 번역 당시 범자 자음 대응 한자 자모가 1:多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시 일부 여러 자모가 하나의 범자와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본 폐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실제 진언 표기의 기본 개음절의 통계의 합과 비교하여 보겠다.

[표6]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150) 기본음절에서 일반 대응으로 판단되는 예가 없으므로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하였다.

	기본 개음절	CVm[m]	CVm[n]	CVm[ŋ]	CVm(기타)	CVh	자음음절
k	ㄱ/見*k/200	ㄱ/見*k/10					
g	ㅇ/疑*ŋ/149	ㅇ/疑*ŋ/3				ㅇ/疑*ŋ/1	
t	ㄷ/端*t/301	ㄷ/端*t/26					
d	ㄴ/泥*n/85			ㄴ/泥*n/2		ㄴ/泥*n/3	
n	ㄴ/泥*n/190	ㄴ/泥*n/18	ㄴ/泥*n/3		ㄴ/泥*n/2	ㄴ/泥*n/2	
tʰ	ㅌ/知*tʰ/22	ㅌ/知*tʰ/2					ㅌ/知*tʰ/20 ㄷ/知*tʰ/48
th	ㅌ/徹*tʰ ¹⁵⁰⁾						*ㅌ/知*tʰ/2 *ㄷ/知*tʰ/3
ŋ	ㄴ/娘*n/73		ㄴ/娘*n/1		ㄴ/娘*n/5		
p	ㅍ/幫*p/134			ㅍ/幫*p/2			
b	ㅍ/明*m/9		ㅍ/明*m/1				
bh	ㅍ/并*b/125		ㅍ/并*b/1			ㅍ/并*b/1	
m	ㅍ/明*m/304		ㅍ/明*m/3	ㅍ/明*m/10		ㅍ/明*m/20	
v	ㅍ/噴*?/172 ㅍ/明*m/144		ㅍ/明*m/2		ㅍ/明*m/2	ㅍ/噴*?/2	
j	ㄷ/日*n/1			ㄷ/日*n/1			
ś	시/書*ś/52	시/書*ś/2		시/書*ś/5			
ʃ	ㅅ/生*ʃ/30	ㅅ/生*ʃ/11	ㅅ/生*ʃ/1				
s	ㅅ/心*s/142	ㅅ/心*s/35	ㅅ/心*s/1	ㅅ/心*s/5	ㅅ/心*s/1		
h	ㅎ/匣*h/354	ㅎ/匣*h/1					
y	이/以*y/308	이/以*y/5	이/以*y/1			이/以*y/1	
r	ㄹ/哩*?/108	ㄹ/哩*?/8			ㄹ/哩*?/4		
l	ㄹ/來*l/139	ㄹ/來*l/5		ㄹ/來*l/3			

위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 진언 표기의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의 자음의 대응은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음 음절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 개음절의 ‘ㄷ’는 한글 ‘ㅌ’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음 음절의 ‘ㄷ’는 ‘ㅌ’가 20회, ‘ㄷ’가 48회이다. 기본 개음과 자음 음절의 한자 모두 知*로 일치한다. 다음 자음 음절 ‘th’에서 한글 ‘ㅌ’가 2회, ‘ㄷ’가 3회이다. 즉 자음 음절에서 ‘ㄷ’와 ‘ㅌ’가 혼용되어 있다.

자음 음절의 현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의 자음의 대응은 거의 일치한다. 이들을 통합하여 기본 음절의 자음의 대응으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된 기본 음절의 자음 대응을 복자음 음절에서 분리되어 나온 單子音의 개음절과 폐음절과 대응하여 볼 것이다.

[표7]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기본 음절	복자음 개음절	복자음 폐음절	복자음 자음음절	
				초성자음	‘ㅇ’ 음절
k	ㄱ/見*k/210	ㄱ/見*k/7	ㄱ/見*k/17	ㄱ/見*k/4	ㄱ/見*k/32
kh	ㅋ/溪*kh/8	ㅋ/溪*k/2	ㅋ/溪*kh/4		
g	ㅇ/疑*ŋ/153	ㅇ/疑*ŋ/11	ㅇ/疑*ŋ/29	ㅇ/疑*ŋ/61	
gh	ㄱ/群*g/3				ㄱ/群*g/3
ŋ	ㅇ/疑*ŋ ¹⁵¹⁾	ㅇ/疑*ŋ/1			
t	ㄷ/端*t/327	ㄷ/端*t/77	ㄷ/端*t/13	ㄷ/端*t/19	ㄷ/端*t/81
th	ㅌ/透*th/35	ㅌ/透*th/10	ㅌ/透*th/2		
d	ㄴ/泥*n/90	ㄴ/泥*n/32	ㄴ/泥*n/9	ㄴ/娘*n/18	ㄴ/泥*n/39
dh	ㄷ/定*d/95	ㄷ/定*d/79	ㄷ/定*d/12	ㄷ/定*d/16	ㄷ/定*d/5
n	ㄴ/泥*n/215	ㄴ/泥*n/29	ㄴ/泥*n/12		ㄴ/泥*n/8
t̚	ㅌ/知*t/44 ㄷ/知*t/48	ㅌ/知*t/3			ㄷ/知*t/1
th̚	ㅌ/徹*th ¹⁵²⁾	ㅌ/徹*th/3			
ŋ	ㄴ/娘*n/79	ㄴ/娘*n/13		ㄴ/娘*n/19	
p	ㅍ/幫*p/136	ㅍ/幫*p/10	ㅍ/幫*p/8	ㅍ/幫*p/1	ㅍ/幫*p/51
ph	ㅍ/滂*ph/11	ㅍ/滂*ph/5			
b	ㅍ/明*m/10	ㅍ/明*m/4	ㅍ/明*m/36		ㅍ/明*m/18
bh	ㅍ/并*b/127	ㅍ/并*b/25	ㅍ/并*b/9	ㅍ/并*b/58	ㅍ/并*b/3
m	ㅍ/明*m/337	ㅍ/明*m/42	ㅍ/明*m/59	ㅍ/明*m/6	
v	ㅍ/明*m/148 ㅍ/曉*?/174 ㅍ/并*b/16	ㅍ/明*m/1 ㅍ/曉*?/126 ㄴ/曉*?/203 ㅍ/并*b/7	ㅍ/明*m/14 ㅍ/曉*?/4 ㅍ/并*b/1	ㅍ/明*m/2	
c	ㅈ/精*ts/69	ㅈ/精*ts/12 ㅈ/章*tc/2	ㅈ/精*ts/10 ㅈ/章*tc/2	ㅈ/精*ts/1	
ch	ㅈ/淸*tsʰ/5		ㅈ/昌*tcʰ/2 ㅈ/淸*tsʰ/15 ㅈ/初*tsʰ/2		
j	ㄷ/日*n _r /59	ㄷ/日*n _r /7			ㄷ/日*n _r /34
ś	ㅈ/書*ɕ/59 ㅈ/船*z/2	ㅈ/書*ɕ/2	ㅈ/書*ɕ/3 ㅈ/船*z/22		ㅈ/書*ɕ/81
ʃ	ㅈ/生*f/42	ㅈ/生*f/40	ㅈ/生*f/5	ㅈ/生*f/54	ㅈ/生*f/2
s	ㅈ/心*s/184	ㅈ/心*s/63	ㅈ/心*s/138	ㅈ/心*s/41	ㅈ/心*s/189
h	ㅎ/匣*ɦ/355 ㅎ/曉*h/24	ㅎ/匣*ɦ/10	ㅎ/曉*h/2	ㅎ/曉*h/2	ㅎ/匣*ɦ/20
y	이/以*j/315	이/以*i/89	y/이/以*j/93		
r	ㄹ/囉*?/228 ㄹ/哩*?/112 ㄹ/嚕*?/70	ㄹ/囉*?/228 ㄹ/哩*?/18	r/ㄹ/囉*?/1 r/ㄹ/嚕*?/2 r/ㄹ/嚕*?/5	ㄹ/哩*?/6	ㄹ/嚕*?/13
ɾ	리/哩*?	리/哩*?/10	ɾ/리/嚕*?/2 ɾ/리/嚕*?/1		리/哩*?/50
l	ㄹ/來*l/147	ㄹ/來*l/1	ㄹ/來*l/2	ㄹ/來*l/1	

151)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위의 대응을 비교하여 보면 기본 음절의 자음 대응은 복자음 單子音 개 음절과 폐음절 및 자음 음절 등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일부 기본 음절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복자음 음절의 고찰에서 반영된 자음의 대응은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즉 범자 ‘n’의 대응을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는데 ‘n/ㅇ/疑*ŋ’으로 일치한다.

이외 범자 ‘c’ 자음 대응에서 복자음 음절에서는 精母 이외에 章母도 보이고, 범자 ‘ch’에서는 淸母 이외에 昌母, 初母도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당시의 범어와 중국어 치음의 1:多 대응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자 ‘v’의 대응이다. 기본 음절에서 ‘v/ㅁ/明*m, v/ㅅ/淸*ʃ, v/ㅂ/并*b’의 대응이 보이는데 복자음 음절에서 이 세 종류가 모두 있으며, 또한 순경음 비읍 ‘v/ㅅ/淸*ʃ’의 대응이 203회 더 있다.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한글 자음의 대응의 차이는 주로 순경음 비읍의 출현에 있다.

전반적으로 오대진언(1485)의 실제 진언에서의 음소 대응은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대진언(1485)의 실제 진언 표기는 대체적으로 안심사본(1569)의 실담장의 표기의 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표기에서 순경음 비읍의 차이가 반영되거나 자음 음절에서 ‘ㄷ’와 ‘ㅌ’가 혼용되는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 한글 표기의 원칙에서도 일부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실담장 ‘교’ 표기에 실제 표기는 ‘ㄴ’로 반영하는 현상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5.2절의 한국어 음운 특징의 논의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다음의 [표8]은 오대진언(1485)에서 고찰한 실제 진언 표기에서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자음의 대응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8] 오대진언(1485) 한글 진언 표기의 초성 자음의 대응

152)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아음】			【설음】			【권설음】		
1	k	ㄱ/見*k/270	6	t	ㄷ/端*t/517	11	t̚	ㄷ/知*t/49, ㅌ/知*t/47
2	kh	ㅋ/溪*kh/14	7	th	ㅌ/透*th/47	12	th	ㅌ/徹*th/3
3	g	ㅇ/疑*ŋ/254	8	d	ㄴ/泥*n/188	13	d̚	ㄴ/娘*n/5
4	gh	ㄱ/群*g/6	9	dh	ㄷ/定*d/207	14	d̚h	ㄷ/澄*d/2
5	ŋ	ㅇ/疑*ŋ/1	10	n	ㄴ/泥*n/264	15	ŋ	ㄴ/娘*n/111

【순음】			【치음】			【후음 및 기타】		
16	p	ㅍ/幫*p/206	22	c	ㅈ/精*ts/92	30	h	ㅎ/匣*ɦ/385, ㅎ/曉*h/28
17	ph	ㅍ/滂*ph/16			ㅈ/章*tc/4	31	y	이/以*j/497
18	b	ㅍ/明*m/68	23	ch	ㅈ/淸*tsh/20	32	r	ㄹ/囉*ʔ/457, ㄹ/哩*ʔ/136
19	bh	ㅍ/并*b/222			ㅈ/昌*tc̥h/2			ㄹ/魯*ʔ/83, ㄹ/嚙*ʔ/20
20	m	ㅍ/明*m/444			ㅈ/初*tʃh/2	33	l	ㄹ/來*l/151
21	v	ㅍ/噤*ʔ/304	24	j	ㄷ/日*ɲ/100	34	ø	ㅇ/影*ʔ/12
		ㅍ/噤*ʔ/203	25	jh	×	35	ɾ	리/哩*ʔ/60
		ㅍ/明*m/165	27	ś	ㅅ/書*ɕ/145			
		ㅍ/并*b/24			ㅅ/船*z/24			
					ㅅ/生*f/143			
			28	ʃ	ㅅ/生*f/143			
			29	s	ㅅ/心*s/615			

5.1.2.2 종성 자음의 대응

다음은 종성 자음의 대응에 대해 보겠다. 실담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종성 자음에 대한 표기 원칙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 고찰 진언 표기를 유형별로 서로 비교하여 볼 것이다.

우선 범자 ‘-m’류, ‘-h’류 폐음절을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로 각각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9]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의 종성 자음 대응의 비교

	기본 폐음절	복자음 폐음절
-m[m]	-ㅍ/覃1*-m/26, -ㅍ/談1*-m/65 -ㅍ/凡3*-m/1, -ㅍ/嚴3*-m/7 -ㅍ/鹽3*-m/13, -ㅍ/侵3*-m/1 -ㅍ/咸2*-m/1, -ㅍ/銜2*-m/11	-ㅍ/談1*-m/25, -ㅍ/鹽3*-m/17 -ㅍ/侵3*-m/1, -ㅍ/銜2*-m/2
-m[ŋ]	-ㅇ/唐1*-ŋ/1, -ㅇ/東1*-ŋ/1 -ㅇ/登1*-ŋ/8, -ㅇ/陽3*-ŋ/6 -ㅇ/蒸3*-ŋ/4, -ㅇ/靑4*-ŋ/8	-ㅇ/登1*-ŋ/8, -ㅇ/陽3*-ŋ/5 -ㅇ/蒸3*-ŋ/7, -ㅇ/靑4*-ŋ/4
-m[n]	-ㄴ/文3*-n/2, -ㄴ/刪2*-n/1	-ㄴ/刪2*-n/1, -ㄴ/仙3*-n/2

	-ㄴ/仙3*-n/1, -ㄴ/臻3*-n/3 -ㄴ/寒1*-n/4, -ㄴ/桓1*-n/6	
-h	-ㄱ/鐸1*-k/20, -ㄱ/沃1*-k/2 -ㄱ/燭3*-k/1, -ㄱ/藥3*-k/1	-ㄱ/藥3*-k/58, -ㄱ/燭3*-k/1 -ㄱ/鐸1*-k/2
-ø	-ㄱ/ø/71	

위의 도표를 보면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폐음절의 한글 표기 모두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m’류 음절은 각각 [m], [n], [ŋ]를 가지고 있는데 범자에서는 음가가 반영되지 않고 한자에서만 각각 *-m, *-n, *-ŋ 자음운미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한글 표기는 한자의 자음운미에 따라 각각 ‘-ㅁ, -ㄴ, -ㅇ’의 종성자음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h’는 한자에서 *-k 자음운미로 나타나고 대응 한글 역시 ‘-ㄱ’ 종성자음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본 폐음절에서 ‘-ø’는 자음음절 ‘t, th’를 말하는데 한자는 모두 ‘吒’ 즉 麻2韻의 음성운 글자인데 한글은 이와 상관없이 ‘-ㄱ’ 종성자음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자음 음절에는 위의 ‘-m’류, ‘-h’류 폐음절 이외 기타 單子音의 폐음절 표기의 예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두 종류가 있어 각각 (1)과 (2)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10]의 예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제1자음이 선행음절 한글 표기의 종성자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표10] 기타 복자음 폐음절의 한글 표기 (1)

범자	복자음 폐음절 표기
-n	-ㄴ/刪2*-n/2, -ㄴ/仙3*-n/11, -ㄴ/眞3*-n/21, -ㄴ/先4*-n/2, -ㄴ/仙B*-n/2, -ㄴ/元3*-n/5, -ㄴ/寒1*-n/9, -ㄴ/桓1*-n/33
-ŋ	-ㄴ/仙3*-n/3, -ㄴ/元3*-n/7, -ㄴ/寒1*-n/6, -ㄴ/魂1*-n/2, -ㄴ/桓1*-n/13
-ñ	-ㄴ/仙B*-n/1, -ㄴ/寒1*-n/6, -ㄴ/桓1*-n/7
-m	-ㅁ/談1*-m/4, -ㅁ/嚢*?/3, -ㅁ/覃1*-m/1
-ñ	-ㅇ/蒸3*-ŋ/1
-k	-ㄱ/覺2*-k/12, -ㄱ/屋3*-k/1, -ㄱ/職3*-k/3, -ㄱ/燭3*-k/1
-t	-ㄷ/質3*-t/26
-d	-ㄷ/沒1*-t/23, -ㄷ/術3*-t/27, -ㄷ/質3*-t/1
-r	-ㄹ/曷1*-t/61, -ㄹ/末1*-t/4, -ㄹ/沒1*-t/5, -ㄹ/屑4*-t/1, -ㄹ/薛B*-t/15, -ㄹ/月3*-t/5

위의 도표에서 먼저 비음성 자음을 보면 제1자음 ‘-n, -ŋ, -ñ’과 대응되는 한자는 모두 *-n 자음운미를 가지는 글자이며 이에 대응되는 한글의 종성자음 또한 모두 ‘-ㄴ’으로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외 ‘-m’와 ‘-n’의 대응 한자는 각각 자음운미 *-m과 *-ŋ 글자이고 이에 대응되는 한글의 종성 자음은 ‘-ㅁ, -ㅇ’이다. 그리고 범자 -k에 대응되는 한자는 *-k 자음운미 글자이고 한글은 ‘-ㄱ’ 종성자음의 글자이다.

그리고 제1자음 ‘-t, -d, -r’을 보면 이에 대응되는 한자 모두가 *-t 자음운미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t, -d’ 대응에서 종성자음이 ‘-ㄷ’이고, ‘-r’ 대응에서 종성자음이 ‘-ㄹ’로 되어 있다.

다음의 [표11]은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위의 [표10]과 일치하지만 한자의 대응에서 자음운미가 아닌 한자의 聲母로 대체하여 나타나고 있는 예들이다.

[표11] 기타 복자음 폐음절의 한글 표기 (2)

범자	복자음 자음음절의 종성 표기
-k	-ㄱ/見母 *k/7, -ㄱ/溪母 *kh/8
-p	-ㅍ/幫母 *p/3
-ʃ	-ㅅ/生母 *f/3
-s	-ㅅ/心母 *s/1
-r	-ㄹ/囉(聲母)*?/84, -ㄹ/ㄹ(聲母)*?/17, -ㄹ/哩(聲母)*?/16

위의 도표를 보면 범자 -k, -p의 자음 대응에서 앞서 [표10]의 예와 같이 *-k, *-p 자음운미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은 각각 見母 *k, 幫母 *p 등 성모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아마 범자의 음절초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절말 자음까지 고려하여 완전 일치하는 한자를 찾기 어려워 부득이 음절말 자음 대응에 두 번째 음절의 한자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표의문자인 한자가 받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글 표기의 규칙에 따라 그대로 종성자음 ‘-ㄱ, -ㅍ’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범자 자음 ‘-ʃ -s’을 보면 중고한어의 운미 체계에서 대응하는 자음운미가 없으므로 각각 한자의 성모를 이용하여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 한국어 역시 중국어와 같이 대응이 가능한 종성자음이 없다

면 한자와 같이 제2의 음절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직접 ‘-ㅅ’ 중성자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자 ‘-r’을 보면 앞서 ‘-r’의 표기에 한자가 *-t 자음운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성모 표기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아마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범어의 ‘-r’을 표기에 음성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음운미 표기 혹은 성모 표기로 혼용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한자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규칙적으로 ‘-ㄹ’ 중성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5.1.3. 모음의 대응 비교

다음은 모음의 대응을 보겠다. 먼저 기본 음절에서의 개음절과 복자음 음절에서 단자음 분리 후의 개음절 그리고 실담장의 표기 원치과 비교하여 보겠다.

[표12] 기본 개음절과 복자음 개음절 모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기본 개음절	복자음 개음절
a	아, ㄹ, 어, 으/歌1*a	아 歌1*a/940, 戈1*a/336, 戈3*ia/127, 唐1*aj/122, 曷1*at/43, 末1*at/18, 桓1*an/11, 寒1*an/4, 鐸1*ak/1	아 歌1*a/147, 戈1*a/50, 曷1*at/72, 末1*at/9, 鐸1*ak/4, 寒1*an/2, 唐1*aj/16, ㄹ 曷1*at/1
i	애, ㄹ, 예, 이/脂A*i	이 支A*iē/108, 支3*iē/62 脂A*i/21, 脂3*i/41 之3*i/74, 微3*ii/144 質3*it/12	이 支3*iē/15, 支A*iē/2, 脂3*i/6, 之3*i/15, 微3*ii/1, 昔3*iek/1,
e	애, ㄹ, 예, 이/祭3*iēi	예 齊4*ei/149, 青4*eq/7 祭A*iēi/36, 祭3*iēi/4 廢3*iai/10, 脂B*ui/8	예 齊4*ei/57, 祭A*iēi/7, 支B*uiēi/1, 廢3*iai/7
ai	애, ㄹ, 예, 의/哈1*ai	애 佳2*ȳe/7, 灰1*oi/1	애 泰1*ai/1, 嘸*?/5
		ㄹ 泰1*ai/1, 哈1*ai/4, 灰1*oi/4	ㄹ 齏*?/1
		예 祭B*uiēi/1	
u	와, 오, 위, 우/模1*o	오 模1*o/161, 沒1*ot/13 屋3*iuk/2, 虞3*io/4 燭3*io̯k/1, 侯1*ou/34	오 模1*o/17, 沒1*ot/2, 屋3*iuk/2, 豪1*au/1, 侯1*ou/1, 嚕*?/5,

			嚕*?/67		
		우	模1*o/4, 術3*uit/24 虞3*iu/10, 叟*?/1	우	虞3*iu/6
o	와,오,워,우/模1*o	오	模1*o/39, 沒1*ot/6 豪1*au/10, 侯1*əu/3 嚕*?/2	오	模1*o/5, 豪1*au/2, 嚕*?/2
		우	模1*o/27, 宵B*uiəu/1 術3*uit/6, 虞3*iu/29	우	虞3*iu/6, 叟*?/1
au	와,오,워,우/啊*?	오	模1*o/6, 嚕*?/1	오	嚕*?/2
		우	模1*o/2, 宵B*uiəu/1 虞3*iu/1		

실담장에서 하나의 범자 모음에 4개의 한글 모음이 대응되고 있다. 실제 진언 표기를 보면 비록 실담장과 같이 규칙적으로 4개의 모음 대응은 아니지만 여러 모음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자 ‘a’ 모음의 대응에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거의 대부분 ‘아’가 대응되지만 복자음 음절에서 ‘으’의 대응 예가 더 있다. 그리고 범자 ‘ai’ 모음의 대응에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한글 모음에서 ‘애, 이, 에’ 등이 대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원순모음 ‘u, o, au’에서 각각 ‘오, 우’가 대응한다.

다음의 [표13]은 기본 음절의 폐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單子音 분리 후의 폐음절의 모음의 대응을 실담장의 모음의 대응과 비교한 것이다.

[표13]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 모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기본 폐음절		복자음 폐음절	
a	아,으,어,으/歌1*a	아	談1*am/65, 覃1*əm/26, 鐸1*ak/20, 桓1*an/6, 寒1*an/4, 唐1*aŋ/1	아	曷1*at/61, 桓1*an/53, 寒1*an/25, 談1*am/17, 末1*at/4, 覃1*əm/1, 鐸1*ak/2
		어	鹽3*iem/7, 仙3*ien/1, 鹽B*uiem/6, 嚴3*iam/1	어	仙3*ien/12, 仙A*ien/1, 仙B*uien/4, 靑4*eq/1 鹽3*iem/17, 元3*ien/5, 先4*jen/1
		으	東1*uj/1, 登1*əŋ/2	×	×
		으	文3*iun/2	으	登1*əŋ/8, 蒸3*iq/1
i	애,이,예,이/脂A*i	이	侵3*im/6, 眞A*in/6 蒸3*iq/6, 登1*əŋ/6	이	眞3*in/18, 眞A*in/9, 質3*it/27, 侵3*im/1
u	와,오,워,우/模1*o	오	沃1*ok/2, 燭3*ioŋ/1	오	沒1*ot/30, 沃1*ok/2,

					魂1*on/1, 術3*uit/1, 屋3*iuk/4, 燭3*io̯k/1,
		우	咍*?/40	우	魂1*on/1
o	와,오,워,우/模1*o	오	庵*?/63	×	×
		×	×	우	術3*uit/24, 燭3*io̯k/1

위의 폐음절의 대응에서 1개의 범자 모음과 여러 개의 한글 모음이 대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기본 폐음절에서는 실담장의 ‘아, 어, 으, 으’ 4개의 모음이 모두 반영되고, 복자음의 폐음절에서도 그 중의 3개인 ‘아, 어, 으’가 반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제 진언 표기는 비록 실담장에서 제시된 한글의 4모음 체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범주 내에서 일치하게 대응되고 있다. 실담장에서 한글 표기의 4모음 대응은 아마 당시 실제 진언 표기를 근거로 더욱 체계화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5.2. 한글 음소 표기의 특징

본 절은 앞서 내용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의 음소 대응을 통하여 당시 한글 표기의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5.2.1. 초성 표기

5.2.1.1. ‘ㄱ, ㄷ, ㅂ’

앞서 [표8]에서는 오대진언(1485)의 모든 음절의 자음의 대응을 통합하여 보았다. 그 중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초성 ‘ㄱ, ㄷ, ㅂ’을 보면 범자 자음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이 동시에 대응되고 있었다. 즉 아래와 같다.

[표14] ‘ㄱ, ㄷ, ㅂ’ 진언 표기의 대응 체계

무성음 범자	유성유기음 범자
① ㄱ/k/見*k/270	② ㄱ/gh/群*g/6
① ㄷ/t/端*t/517	② ㄷ/dh/定*d/207
① ㅂ/p/幫*p/206	② ㅂ/bh/并*b/222

위의 [표14]에서의 진언 표기의 대응은 실담장의 표기와도 일치한다. 기타 대응이 모두 높은 출현 횟수를 보이는 반면 ‘ㄱ/gh/群*g/6’의 대응 횟수는 6회만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진언 텍스트에서 범자 ‘gh’ 자음의 음절 출현 횟수가 낮기 때문인 것이다.

한글 초성에서 평음 ‘ㄱ, ㄷ, ㅂ’가 무성음의 범자 ‘k, t, p’와 유성유기음의 ‘gh, dh, bh’가 체계적으로 대응되고 있다는 것은 한글의 초성이 범자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이 범자가 아닌 한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한글이 단순히 한자를 따랐다면 ‘ㄱ, ㄷ, ㅂ’는 한자의 무성음 계열 ‘見*k, 端*t, 幫*p’와 유성음 계열의 ‘群*g, 定*d, 并*b’와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글이 범자를 따르든, 한자를 따르든 변별적 자질의 차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글이 무성음과 유성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유성유기음 범자의 유기성의 인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의 예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은 유기음 범자의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15] 무성유기음 범자의 진언 표기

진언 표기	실담장
① ㄱ/kh/溪*kh/8	① ㄱ/kh/溪*kh
① ㅌ/th/透*th/35	① ㅌ/th/透*th
① ㅍ/ph/滂*ph/11	① ㅍ/ph/滂*ph

위의 도표를 보면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표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실담장에서 범자가 ‘kh, th’ 대응의 한자 자모가 ‘溪母 *kh, 透母 *th’이고 한글 초성이 ‘ㄱ, ㅌ’인데 실제 진언 표기에서도 실담장과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실담장에서 범자 ‘ph’ 대응에 한자 자모가 ‘滂母 *ph’이고 한글은 ‘ㅍ’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 한글은 ‘ㅍ’로 되어 있다. 오대 진언(1485)에서 예외의 현상까지 포함하여 한글 초성에 ‘ㅍ’의 예가 단 한 예도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중세한국어의 초성체계에서 ‘ㅍ’는 아마 ‘ㄱ, ㄷ’와 비하여 어떤 음성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중국어의 한자 ‘發’이 중고한어에서 비록 성모체계에서 幫母 *p에 속하지만 3등운 글자로 음성적으로 [pf]의 마찰성이 있어 범자 ph와 대응되는 현상과 흡사할 것이다. 즉 당시 중세한국어의 ‘ㅍ’는 ‘ㄱ, ㄷ’에 비하여 음성적으로 유기성의 특징이 강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외 ‘ㅌ’ 역시 ‘ㅌ’와 혼용되는 유기성의 특징이 반영되는 현상도 보인다.

[표16] ‘ㄷ, ㅌ’의 진언 표기

분류	진언 표기	실담장
설음	① ㄷ/t/端*t/517	① ㄷ/t/端*t
	① ㅌ/th/透*th/47	① ㅌ/th/透*th
	① ㄷ/dh/定*d/207	① ㄷ/dh/定*d
권설음	② ㄷ/t/知*t/49, ㅌ/t/知*t/47	② ㄷ/t/知*t
	② ㅌ/th/徹*th/3	② ㅌ/th/徹*th
	② ㄷ/dh/澄*d/2	② ㄷ/dh/澄*d

물론 이는 단순히 진언의 한글 표기의 양상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로 더욱 상세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진행할 것이다.

5.2.1.2. ‘ㅇ, ㄴ, ㅁ’

다음 [표8]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비음이 범자 유성음 계열과 비음 계열이 동시에 대응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 또한 실담장의 표기 규칙과 일치한다. 관련 진언 표기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17] ‘ㅇ(ㅇ), ㄴ, ㅁ’의 진언 표기

유성음 범자	비음 범자
① ㅇ(ㅇ)/g/疑*ŋ/254	② ㅇ(ㅇ)/ŋ/疑*ŋ/1
① ㄴ/d/泥*n/188	② ㄴ/n/泥*n/264
① ㄴ/d/娘*n/5	② ㄴ/ŋ/娘*n/111
① ㅁ/b/明*m/68	② ㅁ/m/明*m/444

위의 [표17]에서 한글의 비음 ‘ㅇ, ㄴ, ㅁ’는 범자 자음에서 유성음의 ‘g, d, d, b’와 비음의 ‘ŋ, n, ŋ, m’와 모두 대응되고 있다. 한자 표기 역시 한글과 같이 모두 비음의 ‘疑母 *ŋ, 泥母 *n, 娘母 *ŋ, 明母 *m’을 사용하고 있다. 한글의 비음 표기는 한자의 비음 표기를 따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자는 또 무엇 때문에 이들을 비음으로 표기하였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오대진언(1485)의 다라니의 중국어 번역은 대부분 不空의 번역이었으며,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역시 不空의 번역 체계와 일치한다. 不空의 번역은 玄奘¹⁵⁴⁾의 번역과 다르다. 중고한어 시기의 불경 번역은 8세기의 不空의 번역과, 7세기의 현장의 번역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혀 다른 번역 체계를 갖고 있는데 특히 유성음 범자의 번역에서 나타난다. 不空은 비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 玄奘은 같은 유성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범자의 유성유기음의 번역도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번역 체계

154) 玄奘(602년-664년)은 중국 허난성(河南省) 옌스(偃師) 지역 출신이며 627년 8월 장안에서 출발하여 천축 행을 떠났고 645년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장(玄奘), 실크로드 사전, 창비]

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18] 7세기 현장의 번역

중고한어		범어
全濁 (유성음)	群母 *g	g, gh
	定母 *d	d, dh
	并母 *b	b, bh
次鐸 (비음)	疑母 *ŋ	ŋ
	泥母 *n	n
	明母 *m	m

[표19] 8세기 불공의 번역

중고한어		범어
全濁 (유성음)	群母 *g	gh
	定母 *d	dh
	并母 *b	bh
次濁 (비음)	疑母 *ŋ	g, ŋ
	泥母 *n	d, n
	明母 *m	b, m

위의 [표18]과 [표19]를 비교하여 보면 현장의 번역은 우선 중국어의 全濁音 성모의 글자가 범어의 유성음과 유성유기음의 두 계열과 대응되고 있지만, 불공의 번역은 전탁음 자모의 글자가 범어의 유성유기음 한 계열과만 대응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번역은 次濁의 비음 자모의 글자가 범자의 비음 계열과만 대응되지만 불공의 번역은 비음 글자가 범자의 유성음과 비음 두 계열에 대응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찍이 프랑스의 Henri Masper(1920)는 현장 번역은 7세기의 표준음을 대표하고 불공 번역은 8세기 長安 方言의 음운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보았으며 8세기 장안 방언의 중국어 비음은 순수한 비음이 아니라 폐쇄음 성격이 함께 동반한 음일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明母 글자는 순수 비음의 *m이 아닌 폐쇄성격을 동반한 *mb이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중국의 학자 施向東(1983), 劉廣和(1984)에서도 그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오대진언(1485)와 <진언집> 실담장의 중국어 번역은 불공의 번역의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 한국어의 비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여러 외국어 표기에서 한국어의 비음과 외국어의 유성음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허인영(2014:65-66)에 의하면 18세기 초 일본사람이 당시 한국어를 전사한 자료인 『全一道人』에는 한국어의 비음 ‘ㄴ’, ‘ㄹ’을 각각 일본어 유성음의 ‘ㄷ(do)’, ‘ㄸ(bi)’으로 전사한 예들이 있다. 그리고 각주 96에 의하면 반대로 현대 일본어 유성음의 ‘ㄷ(do)’가 한국어에서 ‘ㄴ’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어 비음의 비음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한국어 비음의 특성상 외국어 유성음 발음과 혼용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답장에서도 중국어 한자의 영향이 아니라 범자의 유성음을 비음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토 지유키(2007:6)에서도 河野六郎(1968)의 견해와 같이 하여 한국어 비음을 유성음의 성격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단순한 외국어의 청각적인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면 진언 표기에서 마땅히 유성음과 비음 표기가 혼용되어 나타나야 한다. 허인영(2014)에서 고찰한 『全一道人』의 예는 유성음과 비음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진언 표기에서는 극히 일부 혼용의 예만 있을 뿐¹⁵⁵⁾, 거의 대부분 정연하게 비음과 유성음이 대응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한자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한자의 영향에 이끌려 인위적인 수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연사본(1777)의 범례 제7조항에는 ‘漢書에서 字와 音이 다르지만, 梵文에서 音과 字가 모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佛, 沒, 菩, 冒’ 4자는 梵文에서 모두 ‘mo’의 ‘모’를 따르며 唇音으로 통용한다고 하였다.¹⁵⁶⁾’고 되어 있다. 즉 한자 ‘佛, 沒, 菩, 冒’는 진언에서는 ‘mo’ 대응의 ‘모’로 표기할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불경 번역에서 진언은 주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엄격한 체계적인 번역이 필요하므로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오대진언(1485)에서의 범어 유성음의 한글 비음 표기는 불공의 번역 체계를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의 유성음 특성이란 음운적 특징에 의하여 현장의 번역보다 불공의 번역 체계가 더 잘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경의 진언 번역의 특성상 체계성을 고려하여 인위적인 수용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155) 기본 개음절에서 ‘da/다/多/1 [Q;1] [多:▶端母 歌1韻 *ta]’ 혹은 복자음 음절에서 ‘d/ㄷ/底(字母)/1 [底(字母):▶端母 *t]’과 같이 간혹 1회의 유성음 대 유성음의 예외적인 번역이 나타나곤 한다.

156) 漢書中有字與音俱別, 而梵文中音與字皆同者. 如佛, 沒, 菩, 冒四字通作梵‘mo’‘모’字, 皆從唇音通用故也.

5.2.1.4. ‘뵙’

앞서 자음의 대응에서 순경음 비읍 ‘뵙’이 범자 ‘v’와 대응함을 보았다. 그리고 순경음 비읍은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남을 보았다. 범자 ‘v’를 중심으로 한글 표기의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예1

- 1) 미/vi/尾(明*m), 미/vi/味(明*m), 미/vi/微(明*m), 밍/vim/尾孕_[二合], vya/ㅁ/尾野_[二合]
- 2) 베/ve/吠(并*b)/10, 베(배)/vai/吠(并*b)
- 3) 바/va/𪛗(*?), ㄸ바/tvā/怛𪛗, ㄴ바/nva/娜𪛗
- 4) ㅁ/varṁ/𪛗(明*m)
- 5) ㄸ바/tvā/怛𪛗, 스바/svā/娑𪛗(薩𪛗), 스바/jva/入𪛗, 시바/śvā/濕𪛗, 호바/hva/賀𪛗
- 6) 스와/svā/娑𪛗/1

위의 예에서 1)번 예를 보면 범자 ‘v’에 대응되는 한글 초성은 ‘ㄹ’이다. 이들의 특징은 범자 모음이 ‘i’인 기본 음절이거나 제2자음이 ‘y’인 복자음 음절이다.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한자는 모두 明母 *m로 되어 있다. 다음의 2)번을 보면 한글 초성이 ‘ㅂ’로 되어 있는데 범자 모음이 ‘e’ 혹은 ‘ai’이고 한자 자모는 并母 *b들이다. 그리고 3)번을 보면 한글 초성이 ‘ㄸ’이고 범자 모음은 ‘a’이며 한자는 모두 ‘𪛗’이다. ‘𪛗’는 부수 ‘ㄹ’을 더하여 만든 造字이다. 부수를 제거한 한자 ‘縛’는 并母 *b로 2)번 한자의 예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4)번의 예를 보면 범자가 ‘varṁ’인데 모음이 ‘a’이다. 만약 앞서 범자 모음의 대응 고찰에 따르면 범자가 ‘a’ 모음일 때는 3)번의 예와 같이 한글 초성은 ‘ㄸ’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ㄹ’로 되어 있다. 이는 한자 자모가 明母 *m인 것으로 보아 범자를 따르지 않고 한자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위의 예들에서 한글 ‘ㄸ’ 표기는 한자의 并母 *b를 따르고, 한글 ‘ㄹ’ 표기는 한자의 明母 *m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예를 보면 한자가 3)번과 같이 ‘𪛗’이므로 3)번 예를 따르게 된다면 한글 표기의 초성이 ‘ㄸ’로 되어야 하는데 ‘뵙’로 나타나고 있다. 심

지어 같은 범자와 한자 표기에서도 대응되는 한글이 다르다. 예를 들어 ‘ㄷ바/tvā/怛嘯’와 ‘ㄷ바/tvā/怛嘯’에서 범자와 한자는 일치하지만 한글에서는 초성에서 ‘ㄷ’와 ‘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ㄴ’은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고의 제2장 2.2.1의 한국어 표기의 절 경계에서 진언 독송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일부 범어의 형태단위가 고유어의 형태단위로 인식하여 한국어의 음운변화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았다. 즉 한글의 2음절 진언 표기가 오랜 시간 독송되어 음에 따라 한국어의 고유의 어휘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ㄷ바, 스바, 시바, 스바, 흐바’가 고유어 어휘의 비어두의 제2음절 위치라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성규(1996:12)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 ‘ㄴ’이 모음 사이, ‘ㅣ’로 끝나는 이중모음과 모음사이, ‘ㄱ’과 모음 사이, ‘ㅇ’과 모음 사이 등의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진언 표기에서 출현하는 환경은 첫 번째 모음 사이의 경우는 ‘사비(蝦), 서불(京), 이불-(枯)’ 등이 있다고 하였다. 진언 표기에서의 ‘ㄴ’은 중세한국어에서의 ‘ㄴ’이 출현하는 환경과 비슷하게 되면서 한국어의 음운현상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같은 음운환경에서 모두 ‘ㄴ’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ㄷ바, 스바’와 같이 ‘ㄷ’도 있는데 이는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6)번의 예는 마땅히 ‘스바/svā/娑嘯’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스와/svā/娑嘯’로 나타난 것이다. ‘스바’의 대응 예의 출현 횟수가 132회이고, ‘스와’의 출현 횟수가 1회이므로 ‘스와’가 예외현상이다. 이러한 예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ㄴ’ 표기가 한국어 음운의 반영이며, 이 또한 ‘스바>스와’ 한국어의 순경음 비읍의 원순모음화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또한 순경음 비읍의 원순모음화는 15세기에 이미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실제 국어사 자료에서도 동시기에 순경음 비읍의 음운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김성규(1996:13)에서는 《용비어천가》의 ‘이본 남기(용비어천가 84)’처럼 ‘ㄴ’을 유지하던 어휘인 ‘이불-(枯)’ 등이 《월인석보》에서는 ‘이울며(월인석보 1:48)’처럼 ‘ㄴ’이 사라지는 예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월인석보에서 ‘ㄴ’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고 혼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

이고 있어,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 ‘β>w’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 ‘이불-’과 ‘이울-’이 공존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중세한국어시기의 순경음 ‘ங’의 음가에 대해서 우민섭(1997)에서는 ‘ங’가 범어의 ‘v’와 대응되는데 범어에서 [v]가 반모음으로 분류되고 [w]에 가까운 음가를 갖기에 ‘ங’이 [v]의 음가를 가졌을 것이라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용). 하지만 앞서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범자 ‘v’ 대응의 한글 초성은 ‘ㅂ, ㅅ, ㅍ’ 세 종류가 있으며 그 중 ‘ㅂ’과 ‘ㅅ’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ㅍ’는 ‘ㅂ’가 중세한국어의 유성성 음운환경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음운의 영향을 받은 이표기인 것이다. 즉 ‘ங’은 범자 ‘v’와 직접적인 음가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ங’을 마찰음이 아닌 파열음 즉 유성파열음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종희(1982)에서는 무성음의 /p/와 /b/가 대립을 이루다가 /p/의 변이음 [b]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되어 ‘ங’으로 표기되고 [b]가 [w]으로 변해가는 중간 과도음으로 ‘ங’이 [b~w]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라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용). 그러나 본고의 고찰에서 ‘ㄱ, ㄴ, ㄷ’ 표기는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p/과 /b/의 대립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박종희(1982)의 견해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외 김무림(1999)에서는 ‘ங’이 전청음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시 장애음에서 유·무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φ/의 환경적 변이음으로 /β/가 가능하기에 ‘ங’의 음가는 무성마찰음일 것이라고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용).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본고의 진언 표기 고찰과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전청음이 무성음이라는 것은 중국어의 음가이고, 한국어에서 유·무성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국어음에 맞추어 반드시 무성음을 대표 변이음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기문(1961:103), 김완진(1967:129)에서는 유성음 환경을 근거로 중세한국어 ‘ங’의 음가를 유성마찰음의 /β/로 재구성하였다. 본고의 고찰 결과 역시 ‘ங’의 유성음 환경에 충실히 하여 /β/의 음가설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

5.2.2. 중성 표기의 특징

5.2.2.1. ‘으’와 ‘으’

진언 표기에서 ‘으’ 모음이 출현하는 환경은 보통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경우가 복자음 음절에서 두 자음의 연쇄 사이에 ‘으’ 모음이 첨가된 것이다.

예2

ㄱ라/kra/羯囉, ㄴ바/nva/娜嘯, ㄷ마/tma/怛麼, ㄹ나/gna/疙囊, ㄹ리/kr/訖哩

예2의 경우 한글 ‘으’ 모음에 대응되는 범자 모음은 없다. 범어에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는 경우 이를 한국어음으로 표현할 때의 모음은 반드시 제일 무표적인 모음이어야 한다. 중세한국어 시기 ‘으’ 모음의 음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매우 많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이진호(2013)을 참고할 수 있다.

이진호(2013)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후설모음으로 보는 견해와 중설모음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후설모음으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河野六郎(1968), 허웅(1958), 이기문(1961), 강신항(1972), 권인한(1995) 등이 있고 중설로 보는 견해로는 최현배(1941, 1959), 김방한(1964), 강신항(1995), 이준환(2011) 등이 있다. 그리고 이외에 권재선(1992), 김주원(1992), 오정란(2000) 등 후설에 가까운 중설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으’를 원순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평순모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이진호(2013)에서는 ‘으’의 음가를 [ɿ], [ə]로 재구성하였는데 후설, 평순 및 중모음 혹은 중저모음으로 보았다.¹⁵⁷⁾

또 다른 ‘으’의 출현 환경은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나타난다.

157) 필자는 음성학적으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면서 생성되는 모음의 구간에 있어서 [ɯ], [ʏ]의 음가가 더욱 무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후설고모음 혹은 후설중고모음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예3

dām/ᄃ/能(登1*əŋ), mam/ᄃ/櫓(東1*uŋ), haḥ/ᄃ/口郝(*?), da-r/ᄃ/捺(曷1*at)

범자 모음이 ‘a’이므로 한글 표기 ‘아’ 모음이 예상되지만 ‘으’ 모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바 중세한국어 ‘으’ 음가에 후설성이 있는데, ‘ᄃ, ᄃ’으로 나타나는 것은 ‘-o’ 종성자음의 영향을 받아 모음이 후설되어 ‘으’ 모음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ᄃ’의 예에서도 ‘-ŋ’ 종성자음의 영향일 것이다. 물론 범어의 ‘a’ 모음의 음가 영향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종성자음의 영향의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ᄃ’에서 ‘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해석이 어려운데 한자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捺’의 중세한국한자음은 ‘날’이지만 진언 표기의 ‘ᄃ’의 경우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 고대형의 한국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으’ 대응의 한자가 대개 登1韻 *əŋ, 東1韻 *uŋ, 曷1韻 *at 등의 1등운 글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범자 ‘a’ 모음 대응에 ‘으’와 음양대립을 갖는 ‘으’ 모음도 사용된다. 즉 아래와 같다.

예4

ka-k[ŋ]/ᄃ/兢(蒸3*iŋ), dham/ᄃ/鄧(登1*əŋ), varn/ᄃ/文(文3*iun)

위의 예4에서 ‘ᄃ, ᄃ’의 표기 역시 ‘-o’의 후설성 종성자음의 영향에 의하여 ‘으’ 모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으’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으’를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예4의 ‘으’ 표기 예에서의 한자에 3등운 글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鄧’은 1등운 글자이다.

대체적으로 ‘으’는 1등운 한자와 대응되고, ‘으’는 3등운 글자와 대응되지만 1등운 글자와 혼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2.2.2. ‘아’와 ‘어’

다음은 ‘아’와 ‘어’에 대해 볼 것인데 먼저 ‘어’를 중심으로 보겠다. ‘어’ 모음의 진언 표기 예를 보면 아래와 같이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예5

- 1) śaŋ/섬/苦(鹽3*ieŋ), śa-n/선/扇(仙3*ieŋ)
- 2) yaŋ/염/琰(鹽3*ieŋ), yaŋ/염/燄(鹽3 *ieŋ), yaŋ/연/演(仙3*ieŋ)
- 3) ca-ŋ/전/戰(仙3*ieŋ), maŋ/명/茗/靑4(*eŋ)
- 4) kaŋ/검/劔(劔)¹⁵⁸(嚴3*iam), kaŋ/검/檢(鹽B*ɥieŋ), kã-n/건/建(元3*ivŋ)
kã-ñ(n)/건/謦(仙B*ɥieŋ), ga-n/언/彦(仙B*ɥieŋ)

위의 예에서 1)번부터 3)번은 모음이 ‘어’이지만 상향이중모음의 ‘여’에서 온 것이다. 1)번과 2)번은 범자 자음 ‘ś’와 ‘y’을 나타내기 위해 활음이 추가된 것이다. 3)번에서는 범자만 보아서는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날 환경이 아닌데, 대응되는 한자 ‘戰, 茗’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4)번은 단모음의 ‘검, 건, 언’ 등의 예이다. 여기서도 범자에서 상향이중모음이 나타날 환경이 아니다. 하지만 한자가 세음성 개음을 갖는 3등운 글자이므로 3)번과 같이 상향이중모음의 ‘여’가 예상되겠지만 실제로 ‘어’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4)번의 3등운 한자는 중류 B류 글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뉴운의 嚴3韻과 元3韻도 3등운 개음의 분류에서 A류 보다 B류와 가깝다. 즉 이들은 모두 중고한어에서 이완적인, 中舌적인 등의 특징을 갖는 개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1)번부터 3)번의 한자를 보면 모두 A류 혹은 A류와 가까운 3등운 글자들이 많다.¹⁵⁹⁾ ‘여’는 보다 전설적인 A류 개음과 대응되고 ‘어’는 보다 비전설적인 B류 개음과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도 細音性 개음을 갖는 3등 글자와 대응되므로 그의 ‘비전설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어’의 비전설성은 중설모음 혹은 후설모음을 뜻하지 않는다. 아래의 범자 ‘a’ 모음에서 한글 ‘아’와 ‘어’ 표기의 혼용 예를 보겠다.

예6

- 1) A kaŋ/감/劔(嚴3*iam) B kaŋ/검/劔(劔)(嚴3*iam)
- 2) A ka-ŋ/간/建(元3*ivŋ) B ka-ŋ/건/建(元3*ivŋ)

158) ‘劔’과 ‘劔’은 이체자이다.

159) 중고한어 개음의 분류 및 음가에 대하여는 민지원(2009)를 참고할 수 있다.

3) A ka-n/간/謫(仙B*ɥien), B ka-n/건/謫(仙B*ɥien)

위의 예6에서 1)번부터 3)번 모두 A와 B의 두 예가 범자 ‘a’ 모음에 A는 한글 ‘아’ 모음에 대응되고 B는 한글 ‘어’ 모음이 대응한다. 한글 모음 ‘어’가 ‘아’와 혼용이 가능한 것은 ‘어’의 비전설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아’가 일반 대응인 반면 ‘어’는 일부 소수의 대응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는 ‘어’가 ‘아’만큼 중설 혹은 후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는 비전설성을 띠고는 있지만 전설모음과 상대적인 것이며 중성 혹은 후설모음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전설적일 것이다.

다음은 일부 ‘여’의 진언 표기의 특징에 대해 보겠다.

예7

1) A maŋ/명/茗(青4*ej) B meŋ/명/茗(青4*ej)

2) A meŋ/명/銘(青4*ej) B myeŋ/명/銘(青4*e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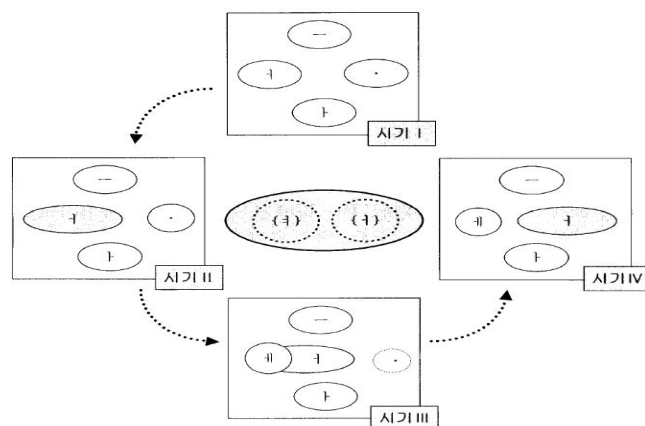
3) A se/세/勢(祭3*iei) B se/셔/勢(祭3*iei)

위의 예7에서 1)번의 A와 B를 보면 한글 ‘명’과 한자 ‘茗’이 같지만 범자에서 하나는 ‘maŋ’, 다른 하나는 ‘meŋ’으로 서로 다르다. 특히 B에서 범자 모음이 ‘e’이고 한글 모음 ‘여’가 대응한다. 2)번에서도 A와 B의 두 예를 보면 범자 ‘e’와 ‘ye’ 대응에 한글 모음 ‘여’가 대응한다. 다음 3)번을 보면 범자 ‘e’ 모음의 A에서는 ‘예’로 나타나고 B에서는 ‘여’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 개음절인 범자 모음 ‘e’ 대응에 있어서 한글 모음 ‘예’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B의 ‘여’는 예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가 비록 ‘예’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설모음의 대응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또한 ‘여’가 비록 ‘예’만큼 전설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전설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의 전설모음의 대응 표기 현상은 기타 외국어 표기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허인영(2016:28)에서는 한국에서의 일본어 표기 자료에서 오대진언(1485)과 제일 가까운 시기의 伊路波(1492)의 표기의 경우 일본어의 ‘e’ 모음에 한글 ‘예, 계, 데, 네, 빼, 메, 레’ 등의 대응이 일반적이지만 ‘셔, 떠’의 표기도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전설모음 ‘e’가 없었을 것이며 외국어의 ‘e’ 모음 표기에는 ‘예’를 일반적인 표기로 사용하고 이외 일부 ‘여’의 표기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요모음은 ‘어’가 되는데 이는 ‘어’가 모음 ‘아’에 비하여 전설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에 상향과 하향의 활음 ‘j’을 동시에 추가하여 ‘예’의 삼중모음으로 전설모음을 표현하고, 상향의 활음 ‘j’ 하나만 더하면 ‘여’의 이중모음으로는 여전히 전설모음에 가깝지만 삼중모음에 비하여서는 전설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요모음 ‘어’는 모음 ‘아’에 비하여 상대적인 전설성을 띠었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도 ‘어’의 전설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승재(1980:11-12)에서 구례지역어의 ‘어’는 중부지방의 ‘어’보다 앞쪽에서 발음된다고 하였다. 김현(2009)에서는 실제로 남부지방의 구례지역과 중부지방의 양주시역의 ‘어’에 대한 음성학적인 고찰 결과 구례의 ‘어’가 양주의 ‘어’에 비하여 보다 위쪽·앞쪽에서 발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는 ‘거, 너, 버’에 비하여 앞쪽에서 발음되지만 ‘j’가 후행할 때 가장 앞쪽에서 실현되며, ‘어→(으)→여→예’의 순서로 전설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는 예나 지금이나 꽤나 넓은 조음영역에서 발음되던 모음이었으며, 음운사적으로 ‘어’의 조음위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4개의 발전 단계가 설정된다고 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시기 I]은 ‘어’가 어느 정도 전설에 가까운 상태의 비전설 평순모음의 조음영역을 나타낸다. 당시의 ‘어’는 j에 후행하든 그렇지 않

든 前舌的인 모음이었기에 ‘어’나 ‘여’에 차이가 없든지, 있어도 미세한 정도였을 것이다. [시기Ⅱ]는 ‘으’가 소실되는 첫 번째 단계로 ‘으’가 점차 위축되면서 어두와 비어두의 ‘어’의 조음영역은 조금씩 후설 쪽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상태이다. [시기Ⅲ]은 단모음 ‘에’가 나타나는 시기이고 [시기Ⅳ]는 오늘의 현재의 상태이다.

위의 분석에서 [시기Ⅰ]에 ‘어’가 어느 정도 전설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비전설 평순모음이라는데 있어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가 보여주는 현상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김현(2009)에서는 [시기Ⅰ]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그리고 ‘어’의 후설성의 변화에 대한 요인을 ‘으’의 소실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는 중세한국어 이전시기부터 독송되어오던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배경을 고려하여 [시기Ⅰ]이 중세한국어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의 후설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단순히 ‘으’ 모음의 소실 때문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으’ 모음의 소실 원인이 무엇인지, 이른 시기의 ‘어’는 왜 전설적이지만 전설모음은 아닌지, 그리고 ‘어’의 전설성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가 주목한 것은 ‘어’가 음성모음이고 ‘아’가 양성모음이라는 데 있다. 김완진(1978)에서는 훈민정음의 ‘舌縮’을 사선적조화로 보고 3단계로 나누어 제일 높고 전설적인 단계로 ‘舌不縮’의 A단계로 중성모음 ‘이’가 있고, B단계는 ‘舌小縮’으로 음성모음 ‘어, 으’가 있으며 C단계는 ‘舌縮’의 양성모음 ‘아, 으’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주원(1993)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양성모음은 [+RTR]의 자질을 가졌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어’가 비록 전설모음은 아니지만 ‘아’보다 상대적인 전설성을 띠고 있는 것은 [-RTR]이기 때문이라 본다.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아’ 모음과 ‘어’ 모음이 혼용되는 현상은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아’와 ‘어’의 [±RTR] 자질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하나의 모음이 었다가 점차 분화되었을 것인데, 중세한국어 시기로 가면서 이러한 분화가 점차 강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현(2009)에 따라 ‘어’의 조음영역이 점점 넓어 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으’와 대응하는 음성모음 ‘으’의 영역도 넓

어지면서 ‘으’가 ‘어’와 ‘으’ 모두에게 밀리어 점차 소실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5.2.2.3. ‘오’와 ‘우’

앞서 진언의 음소 표기 고찰에서 한글의 ‘오’와 ‘우’는 범자 모음 ‘u’에서도 혼용되고, ‘o’에서도 혼용됨을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관찰을 위하여 ‘오’와 ‘우’의 범자 모음과의 대응을 통계하여 보았다.

[표20] 한글 ‘오’, ‘우’와 범자 ‘u’, ‘o’ 모음과의 대응

한글	범자	총 횟수	비율
‘오’	u	363	72.6%
	o	137	27.4%
‘우’	u	79	45.4%
	o	95	54.9%

위의 [표20] 통계를 보면 한글 ‘오’ 모음이 범자 ‘u’ 모음과의 대응이 72.6%이고 ‘o’ 모음과 27.4%으로, ‘오’가 ‘u’ 모음과의 대응되는 비율이 더 높다. ‘우’ 모음이 범자 ‘u’ 모음과 대응되는 비율은 45.4%이고, ‘o’ 모음과 대응되는 비율은 54.9%이므로 거의 비슷하다. 만약 ‘오’가 ‘u’에 가깝다면 ‘우’가 ‘o’에 가까워야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다음은 한글 ‘오’, ‘우’와 한자의 등운과 통계를 내어 비교하여 보았다.

[표21] 한글 ‘오’, ‘우’와 한자 운모와의 비교¹⁶⁰⁾

한글	한자	총 횟수	비율
‘오’	1등	434	96.4%
	3등	16	3.6%
‘우’	1등	34	23.4%
	3등	111	76.5%

위의 [표21]에서는 ‘오’는 1등운 글자와는 96.4%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

160) 한자의 중고음을 찾을 수 없는 造字의 예 즉 ‘嚕(*?), 嘮(*?), 叻(*?)’ 등은 부수 ‘口’를 제외한 ‘魯, 勞, 女’으로 통계를 내었다. 즉 ‘魯, 勞’는 1등운 ‘女’는 3등운이 된다.

면 3등운과는 3.6%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오’와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 ‘u’와의 대응이 72.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 1등운 한자의 96.2%의 대응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한자와의 대응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를 보면 1등운과의 대응이 23.4%이고 3등운과의 대응이 76.5%으로 3등운과의 대응이 우세이다. ‘우’가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보인다. 즉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을 선호하고 있다.

위의 고찰을 통하여 ‘오’와 ‘우’는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는 이들 차이의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한자의 등운과의 대응에서는 ‘오’는 1등운을 선호하고, ‘우’는 3등운을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글의 ‘오’와 ‘우’는 범자 모음의 ‘u’와 ‘o’의 차이보다 한자의 1등운과 3등운의 차이에 따른 분류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앞서 ‘으’와 ‘으’, ‘아’와 ‘어’의 고찰에서 음성모음의 ‘으’와 ‘어’가 3등운 글자와의 대응 경향을 보여주는 것과 상통한다. 즉 진언 표기로부터 중세한국어의 양성모음이 1등운 한자와, 음성모음은 3등운 한자와의 대응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 완전히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외들도 있는데 원순모음의 예외 현상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예8

- 1) A 우/gu/虞(虞3 *iʊ)/1 B 오/gu/虞(虞3*iʊ)/4
- 2) A 모/mo/謨(模1*o)/12 B 무/mo/謨(模1*o)/25
- 3) A 로/lo/路(模1*o)/21 B 루/lo/路(模1*o)/2
- 4) A 보/bhu/部(模1*o)/11 B 부/bhu/部(模1*o)/3

위의 예8에서 1)번부터 4)번까지 A 예들은 ‘우’와 3등운 대응, ‘오’와 1등운 대응의 규칙 대응에 부합하는 예들이고, B 예들은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이다. A와 B의 예들은 한자가 같다.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은 대부분 규칙에 부합되는 예들과 표기에 있어 혼용되는 예들인 것이다. 같은 범자나 같은 한자에 대해서 한글에서만 ‘오’와 ‘우’의 혼용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한국어 진언 독송의 더 이른 시기에는 ‘오’와 1등운, ‘우’와 3등운 대응의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대응은 후기로 가면서 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앞서 ‘어’ 표기의 분석에서 중세한국어 모음체계에서 [±RTR] 자질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원순모음의 현상은 [±RTR]의 자질이 ‘오’와 ‘우’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원순모음에서도 중세한국어 시기 이전에는 ‘오’와 ‘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하나의 음소였다가 점차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 또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이 [±RTR] 자질의 적용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5.2.3. 종성 및 ‘ㄴ’계 합용병서

5.2.3.1. ‘-ㄷ’와 ‘-ㄷ’

앞서 5.1절의 종성 자음의 대응 고찰에서 한글의 ‘-ㄷ’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t, -d’과 대응하고, ‘-ㄷ’ 종성자음은 범자 ‘-r’ 자음과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중세한국어 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한국어의 종성 자음 ‘-ㄷ’과 ‘-ㄷ’는 음소적인 대립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한국어가 이전부터 ‘-ㄷ’와 ‘-ㄷ’의 대립이 있었다면 중국어 *-t 자음운미의 한국한자음 즉 현실한자음에서 무엇 때문에 모두 ‘-ㄷ’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또한 그동안 한국한자음의 연구 분야 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난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정리는 주재진(2006)을 참고할 수 있다. 주재진(2006)에 의하면 기존 연구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중국음 수용의 결과로 보는 것인데 주요 연구로 有坂秀世(1936), 칼크렌(1954), 이기문(1972), 송기중(1995), 주성일(2000) 등이 있다. 주로 중국어에서 입성운미의 소실 과정에서 약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중국어 운미의 약화음이 한국 한자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한국 내부의 음운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주요 연구는 河野六郎(1968), 李炳銑

(1985), 김형주(1989), 이장희(2005) 등이 있다. 여기서는 중국어에서 받아들일 때는 -t이었지만 한국어 내부의 음운변화 -t>-r의 약화 현상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있다. 세 번째의 견해는 중국어의 -t를 한국어에서 -l로 대체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주요 연구로는 박병채(1971[1973]), 강신항(1997[2003]), 엄익상(2001) 그리고 중국의 楊耐思(1997) 등이 있다.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중국어 입성운미의 약화 현상은 중국어 음운사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아무리 일러도 후기 중고한어 이전 시기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입성운미의 약화는 북방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남방음에서는 입성운미가 잘 보존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전기 중고한어 시기부터 이미 활발하였으며 중국어와의 접촉은 북방음은 물론 남방음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중국어 입성운미 약화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견해에 따라 한국어 내부의 음운변화라고 본다 하여도 음운변화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과도기의 혼용 현상이 보여야 하지만 한국한자음에서 ‘-ㄷ’ 설내입성운미의 반영은 너무나도 정연하다. 따라서 한국어 내부 음운변화의 가설도 설득력이 약하다.

본고는 진언 표기의 고찰을 통하여 세 번째의 견해, 즉 중국어의 -t를 한국어의 -l로 수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우선 진언 표기에서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범어의 ‘-t, -d, -r’와 모두 대응하지만 한글은 ‘-ㄷ’가 ‘-t, -d’와 대응하고, ‘-ㄷ’는 ‘-r’와 대응하는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사실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한국어의 ‘-ㄷ’와도 대응 가능하고 ‘-ㄷ’와도 대응 가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고대 한국어 시기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중국어의 한자를 차자표기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차자표기의 재구 방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고대 한국어의 음운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장희(2005)에서는 고구려의 한자음은 한어의 [-t̚]를 ①∅, ②[-di], ③[-ri], ④[-r]의 네 가지로 수용되었을 것이라 하였으며 대표적인 예로 아래와 같

이 하였다.

예9

- 1) 述川郡(一云省知買)<삼사, 권37> : 沂(一作沂)川郡, 本高句麗 述川郡<삼사, 권35>
- 2) 屑夫妻城, 本肖利巴利忽<삼사, 권37 당군전황표>
- 3) 悉直郡(一云史直)<삼사, 권37>

위의 예9에 대하여 이장희(2005)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1)번 예에 대해서는 ‘川’과 ‘買’가 대응하고 ‘述’과 ‘省知’가 대응한다. ‘省’는 음차 표기에서 ‘蘇, 所’ 등으로 읽힐 수 있어 중세한국어에서 ‘소’로 읽혔을 것이다. ‘知’의 전승 한자음은 ‘디’이며 중고음이 [tje]이므로 ‘省知’는 [sUdi]로 재구될 수 있다.

2)번의 예에서는 ‘屑’이 ‘肖利’와 대응하고 ‘夫妻’가 ‘巴利’와 대응하는데 ‘肖利’의 ‘利’가 ‘屑’의 [-t̚]가 유음으로 변화된 이후의 반영이다. 한어 입성 운미의 [-t̚]가 [-r], [-ri]로 반영된 것이다.

3)번 예에서는 ‘悉直’과 ‘史直’이 고구려에서 함께 쓰였음을 의미하는데 ‘悉’과 ‘史’는 음차자로 호용되며 ‘悉’은 한어에서 [-t̚] 운미를 가졌는데 운미가 무시된 채 ‘史’와 호용된 것이어서 고구려 한자음이 한어의 [-t̚]를 ∅로 수용한 예라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장희(2005)에서는 결론적으로 [-t̚]>[-r]를 세 단계로 보았는데 1단계는 한어의 [-t̚]를 [-di]으로 수용(고구려어의 개음절 구조 제약), 2단계는 d→r/V_i(고구려어 내의 음운변화), 3단계는 i→∅/V_으로 고구려 폐음절화이다.

본고의 진언 표기 방법의 고찰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은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함을 보았다.

예10

- k/-ㄱ/見*k, -k/-ㄱ/溪*kh, -p/-ㅍ/幫*p, -s/-ㅅ/生*ʃ, -s/-ㅅ/心*s,
-r/-ㄹ/囉(聲母)*?, -r/-ㄹ/唎(聲母)*?, -r/-ㄹ/哩(聲母)

위의 예10을 보면 만약 고대 한국어 시기의 차자표기에서도 진언 표기

와 같은 표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즉 한국어의 종성 자음이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하다면 예9에서의 1)번을 다르게 재구할 수 있다. ‘省知’에서 ‘知’는 음절말 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sUd]으로 재구된다.

그리고 2)번 예에서 ‘屑’과 ‘肖利’가 비록 하나는 1음절의 한자 표기이고 다른 하나는 2음절의 한자 표기로 서로 다르지만 이 두 표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어는 같은 1음절일 수 있다.

본고 제3장과 제4장의 고찰을 보면 진언 표기에서 중국어 자음운미는 개음절 범자와의 대응 표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복자음 음절에서 단순한 자음의 표기에서 한자의 성모만 적용되어 자음운미의 유무와 상관없게 된다. 즉 진언의 한자 표기에서 음성운의 ‘史’와 입성운의 ‘悉’은 모두 같은 범자 ‘si’ 혹은 ‘s’를 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9의 3)번 예에서 ‘悉直’과 ‘史直’은 한자의 운미와 상관없이 이들은 동일한 한국어 음절의 표기일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이 진언 표기의 방법을 적용하여 예9의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를 재해석한다면 1)번에서 ‘述’는 ‘省知’와 대응되고, 2)번에서 ‘屑’는 ‘肖利’와 대응되게 된다. 차자표기에서도 중국어 *-t 자음운미의 한자는 당시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 ‘知[-d]’와도 대응이 가능하고, ‘利[-r]’와도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차자표기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의 문자를 차용하면서 동일한 한국어의 음절에 다양한 표기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차자표기의 방법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일부 음운변화 설정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장희(2005)에서의 ‘-di’와 ‘-ri’를 각각 ‘-d’와 ‘-r’으로 본다면 2단계의 음운변화인 ‘d→r/V_i’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고대 한국어에는 음절말 자음이 ‘知[-d]’와 ‘利[-r]’가 있는데 중국어에는 *-t 운미 하나만 있어서¹⁶¹⁾, 한국어 ‘-d’의 차자표기에도 *-t 자음운미의 한자 ‘述’를 사용하였고, 한국어 ‘-r’의 차자표기에서도 *-t 자음운미의 한자 ‘屑’를 사용한 것이 된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어가 중국어음을 받아들여서 한국한자음으로 나타내려면 한국어의 ‘-d’와 ‘-r’ 두 가지 음에

161) 상고한어에는 *-l 자음운미가 재구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전설모음에 제한되어 있고 중고한어에 이르러 대부분 *-i로 변화한다. 위의 차자표기 예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어 *-t 음가의 자음운미 글자들은 한국어에서 ‘-r’보다 ‘-d’가 음성적으로 더욱 가까웠을 것이다.

문제는 고대 한국어 시기의 ‘-d’가 과연 중세한국어의 ‘-ㄷ’ 종성자음과 직접적인 기원이 되는가이다. 고대한국어 시기의 주요 연구 자료는 차자표기이다. 진언 표기도 외국어 표기이고, 차자표기도 최초에는 외국어인 중국어의 음가를 갖고 문자로 표기한 것이다. 외국어 표기와의 대응에서 ‘-d’와 ‘-r’의 대립이 보이는 것은 당시 한국어에 이러한 음소 대립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음가도 일치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언어접촉의 시각에서 유사한 음가의 대응도 가능하다. ‘-d’는 유음의 폐쇄음화로 쉽게 설명이 가능한 자음이므로 외국어 표기에서 ‘-d’와 ‘-r’의 대립이지만 한국어 내부의 실제 음소 대립은 아마 두 가지의 유음일 수도 있다.

차자표기 연구에 따르면 고대한국어 시기에는 두 가지 유음의 음소 대립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尸’와 ‘乙’의 대립이다. 이들의 음가는 모두 유음과 관련되며, 문법형태소로 나타날 때의 문법적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고대 한국어시기의 음소 대립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고대 한국어의 재구음을 대개 ‘尸’은 ‘ㄹᄇ’, ‘乙’은 ‘ㄹ’로 보고 있다.¹⁶²⁾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유음 중 외국어 표기에서 음성적으로 ‘-d’와 유사하였을 것은 ‘ㄹᄇ’일 것이다.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음 운서 『동국정운』은 현실 한자음의 ‘-ㄹ’를 모두 ‘-ㄹᄇ’으로 교정하였다. 동국정운은 당시 한자음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국어의 음운체계에 가깝게 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국어 *-t의 음가와 현실 한자음의 ‘-ㄹ’ 음가의 차이가 크므로 보다 가까운 음가의 ‘-ㄹᄇ’으로 교정하였을 것이다. 한국어 화자의 입장에서 만약 ‘ㄹ’과 ‘ㄹᄇ’의 두 가지 유음이 있다면 중국어 *-t와 음성적으로 가까운 유음은 그 중 ‘ㄹᄇ’이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고대한국어 시기에 중국어의 *-t 자음운미는 한국한자음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유음 ‘ㄹᄇ’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고대한국어로부터 중세한국어 시기로 내려 가면서 ‘ㄹᄇ’와 ‘ㄹ’ 이 두 가지 유음의 음소대립이 점차 사라지면서, 특히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하나

162) 황선엽(2000), 한경호(2006) 참조.

의 半舌音 문자 ‘ㄹ’를 만들면서 현실 한자음에서 모두 하나의 설내입성운미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물론 본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와 증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더욱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진언의 한글 표기 방법을 통하여 고대 한국어의 차자표기의 표기 특징을 분석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¹⁶³⁾

5.2.3.2. ‘ㅅ’계 합용병서와 ‘-ㅅ’ 종성자음

진언의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다. 진언 표기에 사용되는 합용병서의 종류는 ‘ㅅ’계 합용병서뿐이다. 먼저 합용병서의 종류별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겠다. 합용병서 표기와 혼용되는 기타 표기도 함께 제시할 것인데 ‘ㅅ’ 종성자음의 표기 예는 ★으로 표시하였고, ‘으’ 모음을 추가한 2음절 표기의 예를 사용하는 경우는 ●으로 표시하였다.

아래는 ‘ㅅㄷ, ㅅㅌ’의 합용병서 표기이다.

예11

- 1) ㅅㄷ/st-: ㅅ타/sta/娑多, ㅅ티/sti/娑底, ㅅ타/stya/娑底也, ㅅ라/stra/薩怛囉
- 2) ㅅㅌ/ʃt-: ㅅ타/ʃta/瑟吒, ㅅ타/ʃtai/瑟𪎸, ㅅ라/ʃtra/瑟吒囉, ㅅㅌ/ʃtam/史擔
- 3) ㅅㅌ/ʃth-: ㅅ타/ʃtha/瑟吒, ㅅ티/ʃthi/瑟底
- 4) ㅅㅌ/ʃt-: ㅅ티/ʃti/瑟恥(耻) ★붓티/pu-ʃti/補瑟置

위의 예11에서 1)번부터 3)번까지 ‘ㅅㄷ’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응하는 범자 자음은 각각 ‘st-, ʃt-, ʃth-’로 다르다. 4)번의 예에서 합용병서 ‘ㅅㅌ’가 보인다. 이에 대응되는 범자 자음은 ‘ʃt-’이다. 앞서 2)번에서 범자 자음 ‘ʃt-’는 ‘ㅅㄷ’와 대응되므로, ‘ㅅㄷ’와 ‘ㅅㅌ’의 표기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ʃt-’에서 ‘ʃ’를 제외한 단순한 ‘t’ 자음의 한글 표기에서도 ‘ㄷ’와 ‘ㅌ’가 혼용된다.

163) ‘gra/알/藥囉[二合]/1’, ‘mra/말/沫/1’의 예외도 있는데 ‘-ㄹ’ 종성자음과 관련하여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4)번의 예에서 ★의 표기가 있는데 이 예에서는 ‘ㅅ’계 합용병서가 예상되지만 ‘-ㅅ’ 종성자음의 표기에 사용되고 있다. 즉 ‘pu-ʃti’의 두 번째 범자 음절 ‘ʃti’는 앞서 예의 표기 ‘ㅃ’과 같이 합용병서로 표기되어도 되지만 ‘-ㅅ’ 종성자음의 표기 ‘pu-ʃ’는 ‘ㅃ’으로, ‘ti’은 ‘티’로 표기되었다.

진언 표기에서 비록 ‘ㅅ’과 ‘ㅃ’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당시 중세한국어의 합용병서 표기에서 ‘ㅅ’이 더욱 일반적인 표기인데 비하여 ‘ㅃ’은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생소한 표기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제4장의 복자음 음절의 표기 방법에서 합용병서 표기는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 제1자음이 S계인 복자음 음절에 사용된다는 규칙성을 볼 수 있었다. 즉 진언 표기의 범자 음절 대응 규칙에 의하면 ‘ㅃ’ 표기가 마땅하지만 당시 중세한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기이므로 이보다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ㅅ’ 종성자음의 표기와 혼용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ㅃ’의 합용병서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12

- 1) ㅃ/ʃp-: ㅃ/ʃpā/澀跛, ㅃ레/ʃpre/澀必噓
- 2) ㅃ/sph-: ㅃ/spha/瑟破, ㅃ/spho/瑟普, ㅃ/spho/薩普, ㅃ/spho/娑普
- 3) ㅃ/sv-: ㅃ/sva/沙嘩/4, ㅃ/svah/娑嘩/3 ●스바/svā/娑嘩/132, 스바/svā/薩嘩/22

위의 예12를 보면 ‘ㅃ’ 합용병서 표기에 대응되는 범자음절은 ‘ʃp-, sph-, sv-’ 등이 있다. 1)번과 2)번의 범자 자음 ‘ʃp-, sph-’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 유형에 속하므로 합용병서 표기의 규칙성과 일치한다.

하지만 3)번의 범자 자음 ‘sv-’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으로 복자음 음절의 일반 대응의 표기 규칙에 의하면 마땅히 ‘ㅇ’ 모음을 첨가한 2음절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3)번에서 ●의 기타 표기 예가 있는데 ‘스바’로 나타나며 출현 횟수가 각각 132회, 22회이다. 즉 3)번의 합용병서 ‘ㅃ’이 4회, ‘ㅃ’이 3회 나타나는 것은 예외 표기인 것이다. 이러한 예외 표기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진언 표기의 규칙에 따르면 ‘ㅇ’ 표기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어의 표기에 ‘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2음절 표기보다 1음절 표기가 더 경제적이므로 이러한 예외 표기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ㅅ, 시, ㅃ’ 등의 합용병서 표기를 보겠다.

예13

- 1) ㄱ/sk-: ㄱ리/skr/塞訖哩/8¹⁶⁴) ●스간(건)나/ska-nda/塞謬娜/2
 2) ㄴ/ṣṇ-: 씨/ṣṇi/瑟拏/9 ★밋노/vi-ṣṇo/尾瑟努/1, ㄱ릿나/kr-ṣṇa/訖哩瑟拏/1
 ●스니/ṣṇi/瑟拏/1, 스나/ṣda/瑟拏/1
 3) ㅁ/sm-: ㅁ/sma/娑麼/2 ★밋마/pa-sma/跋娑麼/1 ●스마/sma/娑麼/4

위의 예13은 앞서 다른 합용병서에 비하여 중세한국어에서 출현율이 높지 않은 예들이다. 1)번의 ‘ㄱ’은 중세한국어에서 그나마 자주 등장하는 합용병서 표기이다. 이에 진언 표기에서도 ‘ㄱ리’ 표기 예가 나타난다. 하지만 ●의 ‘스간’ 혹은 ‘스건’의 2음절 표기도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도 ‘ㅁ’ 혹은 ‘ㅁ’ 즉 종성자음 ‘-ㄴ’과 결합하는 음절의 출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음절 구조의 표기가 부자연스럽기에 2음절 표기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2)번 예의 ‘ㄴ’과 같이 진언 표기에서의 ‘씨’가 보인다. 중세한국어의 한글 표기에서 ‘ㄴ’의 합용병서 표기 예로는 지금까지 ‘싸히(男)’ 하나의 예만 발견된다. ‘ㄴ’의 표기가 일반적인 표기가 아니었으므로 ★의 ‘밋노, ㄱ릿나’와 같이 ‘ㅁ’ 종성자음의 표기와 ●의 ‘스니, 스나’의 2음절 표기법이 혼용되었을 것이다. 실제 중세한국어에서도 ‘ㅁ’ 종성자음과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석보상절』 19에서 ‘갓나히’의 예가 2회 나온다(김성규 1996:18-19 참고).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3)번의 ‘ㅁ’과 같이 특이한 합용병서 표기가 보인다. 실제 중세한국어의 표기에서는 이러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또한 자주 사용하는 표기가 아니므로 ★에서 ‘밋마’의 ‘ㅁ’ 종성자음 표기와 ●의 ‘스마’의 2음절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위의 진언 표기에서 ‘ㅁ’계 합용병서 표기는 ‘ㅁ’ 종성자음의 분리 표기

164) 범자 ‘skr’는 사실 ‘-s#kr’의 경계가 있다. 즉 ‘s’는 앞의 형태단위 마지막 자음이고 ‘kr’는 후행하는 어휘의 첫 음절이다. 이를 표기하기 위한 한자 표기에서 ‘塞訖哩’로 묶어서 그리고 ‘三歟’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국어의 번역에서 음이 들리는 데로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 표기 역시 한자를 따라서 이를 하나의 복자음 음절로 인지하고 있다.

와 혼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한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뽕, 슌’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 ‘바썰, 수씨’로 표기되기도 하고, 이외 기타 ‘城 밧긔 (龍 69), 안팏긔 (釋 19, 23)’, 혹은 ‘숫글 (楞 7.16), 숫근(楞 8.97)’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이익섭 1992:157).

그럼 이러한 표기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음가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세한국어시기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하여 기존 연구는 주로 자음군으로 발음하였다는 견해와 된소리 즉 경음으로 발음하였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는 최현배(1942), 허웅(1965) 등이 대표적이고 된소리로 보는 견해는 이기문(1955, 1972)가 대표적이다(박창원 1996:176-177 참고).

앞서 진언 표기의 예에서 합용병서 ‘ㅅᄃᆞ’, ‘ㅅᄃ’, ‘ㅅᄃᆞ’의 특이한 표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특히 ‘ㅅᄃᆞ, ㅅᄃ’ 표기는 중세한국어 고유어의 표기에서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ㅅᄃ’ 또한 ‘ㅅᄃᄃᆞ’ 하나만 나타나고 있다. ‘ㅅᄃᆞ, ㅅᄃ’를 단순히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이러한 표기의 음가가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중세한국어로 가면서 점차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설상 단순한 외국어표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기는 특히 유기음의 ‘ㅌ’와 결합하는 ‘ㅅᄃᆞ’, 비음의 ‘ㄴ, ㄹ’와 결합하는 ‘ㅅᄃᆞ, ㅅᄃᆞ’의 존재는 된소리를 표현하였다 보기보다 자음군으로 발음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창원(1996:177)에서는 합용병서를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외국어와의 전사 비교 역시 전사 자료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범자의 복자음 음절에서 자음의 연쇄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으’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스바, 스간, 스니, 스마’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합용병서의 ‘ㅅᄃᆞ, ㅅᄃᆞ, ㅅᄃᆞ’와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당시 합용병서의 음가가 된소리 즉 경음이었다면 이러한 혼용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중세한국어의 ‘-ㅅ’ 종성자음의 음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아래와 같다. 허웅(1953, 1958), 이기문(1959) 등의 초창기 연구에서는 ‘ㅅ’와 ‘ㄷ’는 순전히 표기법의 문제일 뿐 음절말에서의 음성실현형은 내파음 [t̚]이라 보았다가 이후 이기문(1961, 1963, 1972), 허웅(1965, 1975) 등에서는 점차 견해를 바꾸어 [t̚]까지는 中和가 미치지 못한 ‘내파적인 [s]’ 또는 ‘매우 간극이 좁으면서도 그 마찰은 매우 약한 [s]음’일 것으로 보았다. 이 중적 음가의 표기 견해도 있는데 박창원(1991)에서는 음절말에서 [s]와 [ʔ]가 모두 종성표기 ‘ㅅ’로 나타난다고 보았다(이상의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김경아 1992:114-115 참고). 이에 김경아(1992)에서는 15세기는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에서 ‘ㅅ’과 ‘ㄷ’의 대립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이며 ‘ㅅ’이 내파화의 과정에 있을 것이라 보았고 중간 단계로 ‘ㅎ’와 等價일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진언 표기 고찰에 의하면 ‘-ㄷ’ 종성자음은 범자 ‘-t, -d’와 대응되고 동시에 한자는 *-t 자음운미와 대응되고 있으며 ‘-ㅅ’ 종성자음의 혼용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ㅅ’ 종성표기는 오히려 ‘ㅅ’계 합용병서와 나타난다. 앞서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는 ‘으’ 모음의 2음절 표기 ‘스바, 스나, 스마’와 혼용되면서 자음군의 음가를 가졌을 것이라 추정 한바, 이러한 자음군 표기와 ‘ㅅ’ 종성자음의 혼용은 만약 내파음으로 발음 되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파적인 [s] 혹은 내파화 과정의 음가로 본다면 진언 표기가 나타나는 현상은 외국어의 표기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본고는 오대진언(1485)의 한글의 진언 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진언 범자를 이해하고 진언 텍스트의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범자의 음절 분석과 음절 유형도 분류하였다. 그리고 범자와 한글, 한자를 음절단위의 대응 예로 분리시켰다. 제3장에서는 기본 음절 범자에 대한 한글 표기 예들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복자음 음절 범자에 대한 한글 표기를 분석하였다. 주로 한글의 표기방법과 梵-韓-中 음소대응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한자의 음가는 전기 중고한어의 채구 음가를 적용하였다.

먼저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대개 아래와 같다.

기본 범자 음절에서 ①범자 자음 ‘ś’와 ‘y’ 대응에 한글 ‘시’와 ‘이’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śa, ya’ 대응의 한글 표기에서 상향이중모음의 ‘샤, 야’로 되어 있다. ②범자 ‘e’ 모음 대응에 한글 ‘예’ 표기가 일반적이다. 일부 범자 ‘ai’ 모음 대응에도 ‘예’ 표기가 반영되는데 이는 동일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범자 ‘ai’ 대응의 한글 모음 표기는 ‘애, 익, 예’가 일반적이다. ③범자 ‘u’와 ‘o’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으며 같은 범자 모음에 한글 표기가 혼용한다.

복자음 범자 음절에서 한글은 비교적 다양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에서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으’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kra’의 한글 표기는 ‘크라’이다. 이런 표기방법은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제일 일반적인 표기법이다. 하지만 제2자음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음절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kya’는 한글 ‘가’로 표기한다. 한자 표기에서는 표기법의 차이가 없이 모두 ‘二슴’으로 표기한다. 즉 상향이중모음의 한글 표기는 한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②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과 대응하여 폐음절로 나타나는 표기법이 제일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범자 ‘ma-rga’의 한글 표기는 ‘말아’이다. 한글의 종성자음 ‘-ㄹ’은 범자 자음 ‘-r’과 대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계인 경우는 ‘스’계 합용병서의 표

기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 대응의 한글 표기가 ‘ㅉ’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음소대응의 규칙성을 보면 본고에서 고찰한 오대진언(1485)에서 실제 진언 표기의 梵-韓-中 음소 대응은 상당히 규칙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梵-韓-中 음소 대응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대진언(1485)의 표기 규칙과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표기 원칙과 거의 일치함을 보았다. 이로부터 진언의 한글과 한자 표기는 상당히 엄격한 규칙대응에 의하여 작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나타나는 일부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초성 자음의 대응에서 우선 한글 자음 ‘ㄱ, ㄷ, ㅂ’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음의 ‘ㅇ, ㄴ, ㅁ’은 비록 중국어 번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범어의 유성음과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에 유성성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성의 대응에서는 우선 실담장에서 범자 모음과 한글 모음은 1:多로 대응하는 현상 즉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표기의 모음은 ‘아, 으, 어, 으’가 대응하는 현상은 실제 진언 표기를 근거로 체계화하여 반영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글 모음은 한자 운모의 등운과 관련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음성모음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하는 경향이 보인다.

중성자음의 대응에서 주목한 것은 한글의 중성 자음이 한자의 성모와 대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글 중성 자음의 ‘-ㄱ’은 한자 자모 來母 및 유사한 음가의 한자 성모와 대응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을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의 독법 연구에 적용하여 새롭게 해석하여 보았다. 예를 들어 한자 ‘知’의 聲母는 한국어 [-d]와 대응할 수 있고, ‘利’의 聲母는 [-r]와 대응한다. 그리고 ‘ㄴ’계 합용병서 표기가 ‘-ㄴ’의 중성자음과의 혼용되어 표기한다. 이는 당시 적어도 진언 표기에서 ‘ㄴ’계 합용병서는 경음화되지 않았을 것이며 ‘ㄴ’ 중성자음은 완전히 내파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원전류>

『五大眞言』(1485), 원간본, 국가기록유산 보물 793-5 [영인].

『眞言集』(1569), 安心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眞言集』(1777), 萬淵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眞言集』(1800), 望月寺本, 디지털한글박물관 [영인].

<논저류>

강대현(2014), 『安然의 悉曇藏에 나타난 東아시아 佛敎家の 悉曇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강신항(1987), 한국한자음내 설음계자음의 변화에 대하여, 『동방학지』.

강신항(2004), <오대진언> 안의 한자에 대한 한글 주음 고찰, 『한국어연구』 2, 한국어연구회.

권인한(1998),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학총서 29, 서울 태학사.

권인한(2009), 『중세 한국한자음의 분석적 연구』(자료편), 제이앤씨.

권혁준(2000), 古今韻會舉要에 반영된 重紐 현상 및 그 상관 문제, 『中國語文論叢』 第19輯, 155-190.

김경아(1992), 중세국어 중성표기 ‘ㅅ’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7, 113-139.

김성규(2009),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김완진(1975), 訓民正音 子音字와 加劃의 原理, 『어문연구』 통권 제7호, 제8호 합집, 1975.5, 186-194.

김완진(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127-139

김주원(1992),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학』 22, 33-56

김주원(1993), 『모음조화의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17.

김태경(2007), 월인석보 진언표기를 통한 중국어음 연구, 『중국어문학논

집』 제43호.

김현(2009), ‘ㄸ>ㄷ’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 『開新語文研究』 第29輯.

김현덕(2016), 실담문자 음사 연구, -진언집 소재 진언 하자 및 한글음사 비교·분석-, 『불교학연구』 제46호.

남권희(2005), 韓國 記錄文化에 나타난 眞言의 流通, 『密教學報』 7집, 51-122.

남희숙(2000), 조선시대 다라니경·진언집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의 분석을 중심으로, 『회당학보』 5, 회당학회.

도수희(1971), 각자병서 연구, 『한글50주년기념논총』, pp69-104.

미즈노 순페이(2011), 梵字의 한글 음사(音寫)에 대한 고찰, -五大眞言의 “神妙章句大陀羅尼”와 “佛頂尊勝陀羅尼”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131-166.

민지원(2009), 中古漢語 3·4等韻의 介音 研究,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병채(1979), 진언집 실담장고, 『국어문학』 20, 국어문학회.

박창원(1996), 『중세국어 자음연구』, 한국문화사.

변순미(2003), 楞嚴心呪 悉曇梵字 한글표기에 관하여, 『불교학연구』 7.

안주호(2002),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

안주호(2003), 상원사본 <오대진언>의 표기법 연구, 『언어학』, 69-87.

안주호(2006), 불교 문헌에 나타난 진언표기 방식 연구, 『회당학보』 제11집

이동석(2013), ‘ㄴ’의 음가론, 『국어사연구』 17.

이승재(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 45.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장희(2005), 한자음 설내 입성 운미의 유음화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32.

이진호(2013), ‘ㄹ’ 음가론, 『국어사연구』 17.

이진호(2014), 『국어음운론 강의』 (개정판), 삼경문화사.

이태승, 최성규(2008), 『실담범자입문』, 정우서적.

- 이태승·안주호(2003), 망월사본 <眞言集凡例>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제19집, 207-227.
- 전순환(2005),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신묘장구대다라니 편』, 서울문화사.
- 전순환(2012),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반야바라밀다심경 편』, 지식과 교양.
- 정승석(2003), 범어의 자모 사용 빈도와 음성학적 특성, 『印度哲學』 제13집 1호, 39-64.
- 주재진(2006), 한자음 -1 운미 연구의 성과와 과제, 『中國學論叢』 제21輯.
- 최영애(1999), 韓國漢字音에 나타난 重紐현상과 해석, 『중국어언어연구』 8권, 1-63.
- 최영애(2000), 『중국어음운학』, 통나무.
- 한경호(2006), 고대 한국어 借字 표기 ‘尸’ 음가의 고찰, 『成均語文研究』 제40집.
- 허웅(1953), 竝書의 音價에 對한 反省, 『국어국문학』 7호.
- 허인영(2016), 전사 자료를 통해 본 /ㄴ/계 중모음의 변화, 2016년 겨울 국어사학회 발표문.
- 황국정(2000), 음절말 ‘ㅅ’의 음가에 대한 역사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 황선엽(2000), 석독구결 ‘尸’의 해독에 대하여, 『한국문학논총』 제26집.
- 馬淵和夫(2006), 『悉曇章の研究』, 勉誠出版.
- 伊藤智ゆき(2007), 朝鮮語眞言·陀羅尼轉寫音の音韻論的研究, 『朝鮮學報』 203, 31-67.
-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 (『한국 한자음 연구』, 이진호 역, 2011, 역락)
- 田久保周譽(1944[1978]), 『批判悉曇學』, 第一篇, 第二篇, 平文社.
- 河野六郎(1968[1979]), 『朝鮮漢字音の研究』, 河野六郎著作集, 平凡社. (『한국 한자음의 연구』, 이진호 역, 2010, 역락)

- 唐作藩(2002),『音韻學教程』(第三版), 北京大學出版社. [1986년 初版, 1991년 再版] (『중국어음운학』, 심소희 역, 교육과학사, 2000)
- 劉廣和(1984), 唐代八世紀長安音聲紐,『語文研究』, 總第12期.
- 陸志韋(1939),『古音說略』, 學生書局.
- 麥耘(2009),『音韻學概論』, 江蘇教育出版社. [古文獻學基礎知識叢書, 主編 裘錫圭 楊忠]
- 潘悟雲(2000),『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社. (『중국어역사음운학』, 권혁준 역, 2014, 學古房)
- 聶鴻音(1992), 番漢對音簡論,『固原師專學報』, 1992年2期, 70-75.
- 施向東(1983), 玄奘譯著中的梵漢對音和唐初中原方音,『語言研究』1983年第1期(總 第4期).
- 李榮(1973),『切韻音系』, 鼎文書局(臺灣).
- 鄭張尚芳(1987), 上古韻母系統和四等・介音・聲調的發源問題,『溫州師範學院學報』第4期, 67-90 [『鄭張尚芳語言學論文集』, 上冊, 中華書局, 2012 재수록]
- 鄭張尚芳(2003),『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社.
- 黃笑山(1996), 切韻三等韻的分類問題,『鄭州大學學報』4期, 79-88.
- Henri Masper(1920), Le dialecte de Tchang-ngan sous les Tang, BEFEO., XX, 2. (『唐代長安方言考』, 馬伯樂 著, 聶鴻音 譯, 2005, 中華書局)

부록1: 오대진언(1485)의 진언 텍스트

1) 신묘장구다라니

觀世音菩薩如意珠手眞言

진언	om vajra vatara humphaṭ
한자	唵 _ㄱ 囉日囉 _[二合] 囉哆囉吽發吒
오대	2옴○2바2스1라○2바다1라○2흠바1탁 _[3a]

觀世音菩薩羅索手眞言

진언	om kirilara modra humphaṭ
한자	唵 _ㄱ 枳哩攞囉謨捺囉 _[二合] 吽泮吒
오대	2옴이기1리라1라○ ₁ 모2느1라○2흠바1탁 _[3b]

觀世音菩薩寶鉢手眞言

진언	om kirikiri vajra humphaṭ
한자	唵 _ㄱ 枳哩枳哩囉日囉 _[二合] 吽發吒
오대	2옴이기1리1기1리○2바2스1라○2흠바1탁 _[4a]

觀世音菩薩寶劍手眞言

진언	om teṣeteja tuvini tuḍhe saddhaya humphaṭ
한자	唵 _ㄱ 帝勢帝惹覩尾憍提娑駄野泮吒
오대	2옴○2테1세2테2샤○2도2미1니○2도1테○1산1다2야○2흠바1탁 _[4b]

觀世音菩薩跋折羅手眞言

진언	om dibhe dibhe dipya mahāśrīye svāhā
한자	唵 _ㄱ 你陸你陸你跋野 _[二合] 摩訶室哩 _[二合] 曳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이니1베○1니1베○1니2바○2마1하1시1리2예○스1바1하 _[5a]

觀世音菩薩金剛杵手眞言

진언	om vajra gni pra diptaya svāhā
한자	唵 _ㄱ 囉日囉 _[二合] 祇憐 _[二合] 鉢囉 _[二合] 你鉢多 _[二合] 野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2바2스1라○2ㄱ1니○ ₁ 브1라○1넵다2야○스1바1하 _[5b]

觀世音菩薩施無畏手眞言

진언	om jranaya humpāṭ
한자	唵 _ㄱ 日囉 _[二合] 曩野泮吒
오대	2옴○2스1라1나2야○2흠바1탁 _[6a]

觀世音菩薩日精摩尼手眞言

진언	om tupikaya tupipra varidi svāhā
한자	唵 _ㄱ 度比迦野度比鉢囉 _[二合] 囉哩憐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이도1비가2야○1도1비 브1라○2바2리1니○스1바1하 _[6b]

觀世音菩薩月精摩尼手眞言

진언	om susidhi gr svāhā
한자	唵 _ㄱ 蘇悉地揭哩 _[二合] 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이소1시1디○2ㄱ2리○스1바1하 _[7a]

觀世音菩薩寶弓手眞言

진언	om acavire svāhā
한자	唵 _ㄱ 阿左尾嚩薩囉 _[二合] 賀
오대	2옴○2아자2미1레○스1바1하 _[7b]

觀世音菩薩寶箭手眞言

진언	om kamala svāhā
한자	唵迦摩羅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가1마라。스1빠1하 _[8a]
觀世音菩薩楊柳枝手眞言	
진언	om susiddhi karivarita nānta muktaye vajra vajra bandha hanahana humphaṭ
한자	唵蘇悉地迦哩嚩哩哆喃哆目哆曳嚩日囉 _[二合] 嚩日囉 _[二合] 畔駄賀曩賀曩畔泮吒
오대	2옴이소1신1디。가2리2바2리1다。1남1다。1목다1예。2바2스1라。2바2스1라。1반1다。1하1나1하1나。2흠바1탁 _[8b]
觀世音菩薩白拂手眞言	
진언	om padmi nibhagavate mohāyajagamohāni svāhā
한자	唵鉢娜弭 _[二合] 憍婆誡嚩帝謨賀野惹誡謨賀憍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바2느2미。1니1바2아2바2데。1모1하2야2사2아1모1하1니。스1빠1하 _[9a]
觀世音菩薩寶瓶手眞言	
진언	om gri sarṁmarṇyaṁ svāhā
한자	唵揭嚩 _[二合] 穆滿欲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2으1레。1삼2만1염。스1빠1하 _[9b]
觀世音菩薩傍牌手眞言	
진언	om yakṣaṁ nadayaśanra dhaduparyapaśa paśa svāhā
한자	唵藥葛釤 _[二合] 曩那野戰捺囉 _[二合] 達耨播哩野 _[二合] 跋舍跋舍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이약1삼。1나2나2야。2전2느1라。1다1노1발2야바1샤。바1샤。스1빠1하 _[10a]
觀世音菩薩鉞斧手眞言	
진언	om viraya viraya svāhā
한자	唵 _[引] 味囉野味囉野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이미1라2야。1미1라2야。스1빠1하 _[10b]
觀世音菩薩玉環手眞言	
진언	om padmaṁ viraya svāhā
한자	唵 _[引] 鉢娜捨 _[二合] 味囉野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바2느1맘。1미1라2야。스1빠1하 _[11a]
觀世音菩薩白蓮華手眞言	
진언	om vajra viraya svāhā
한자	唵 _[引] 嚩日囉 _[二合] 味囉野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ㅇ바2스1라。1미1라2야。스1빠1하 _[11b]
觀世音菩薩靑蓮華手眞言	
진언	om kirikiri vajra bhurvandha humphaṭ
한자	唵 _[引] 枳哩枳哩嚩日囉 _[二合] 部囉畔 _[二合] 駄泮吒
오대	2옴이기1리1기1리。2바2스1라。1불1반1다。2흠바1탁 _[12a]
觀世音菩薩寶鏡手眞言	
진언	om visphorada rakṣa vajra maṇḍhala humphaṭ
한자	唵 _[引] 尾薩普 _[二合] 囉那囉葛叉 _[二合] 嚩日囉 _[二合] 曼荼羅泮泮吒
오대	2옴이미1쁘1라2나。1락사。2바2스1라。1만1다라。2흠바1탁 _[12b]
觀世音菩薩紫蓮華手眞言	
진언	om sarasara vajra kara humphaṭa
한자	唵 _[引] 薩囉薩囉嚩日囉 _[二合] 迦囉泮泮吒
오대	2옴ㅇ사1라2사1라。2바2스1라。가1라。2흠바타 _[13a]
觀世音菩薩寶篋手眞言	
진언	om vajra paśakari gana mānrahum

한자	唵 _[ㄹ] 嚩日囉 _[二合] 播設迦哩揭曩唎囉吽
오대	2옴○2바1스1라.바1샤가1리.2아1나.1맘1라2흠 _[13b]
觀世音菩薩五色雲手眞言	
진언	om vajra kari raṭa māmṭa
한자	唵 _[ㄹ] 嚩日囉 _[二合] 迦哩囉吒唎吒
오대	2옴○2바1스1라.가1리.1라타.1맘타 _[14a]
觀世音菩薩君遲手眞言	
진언	om vajra śekha rūṭa māmṭa
한자	唵 _[ㄹ] 嚩日囉 _[二合] 勢佉嚕吒唎吒
오대	2옴○2바1스1라.1셔카.2로타.1맘타 _[14b]
觀世音菩薩紅蓮華手眞言	
진언	om śaṃgri svāhā
한자	唵 _[ㄹ] 商揭嚩 _[二合] 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이 상2으1레.스1빠1하 _[15a]
觀世音菩薩寶戟手眞言	
진언	om saṃmaiya kini hari huṃphaṭ
한자	唵 _[ㄹ] 糝昧野祇儻賀哩吽泮吒
오대	2옴이 삼2디2야.2기1니.1하2리.2흠바1탁 _[15b]
觀世音菩薩寶螺手眞言	
진언	om śaṃgre maha saṃmaṃyaṃ svāhā
한자	唵 _[ㄹ] 商揭嚩 _[二合] 摩賀糝滿皤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이 상2으1레.2마1하.1삼1만1염.스1빠1하 _[16a]
觀世音菩薩髻杖手眞言	
진언	om dhunavajra haḥ
한자	唵 _[ㄹ] 度曩嚩日囉 _[二合] 口郝
오대	2옴이 도1나2바2스1라.1혹 _[16b]
觀世音菩薩數珠手眞言	
진언	namora tna tra yāya om anabhate vijaye sidhi siddhārthe svāhā
한자	曩謨囉怛曩 _[二合] 怛囉 _[二合] 夜野唵 _[ㄹ] 阿那婆帝尾惹曳悉地悉駄唎替 _[二合] 薩嚩 _[二合] 賀
오대	1나1모1라.ㄸ1나.ㄸ1라.1야2야.2옴○2아1나1바2데.1미2사2예.1시1디.1진1달2데.스1빠1하 _[16b-17a]
觀世音菩薩寶鐸手眞言	
진언	namo padmaṃ paṇaye om amṛ tāṃgaṃbhe śrīye śrī ṭaṃrini svāhā
한자	曩謨鉢娜𑖦 _[二合] 播拏曳唵阿蜜唎 _[二合] 擔儼陞室哩 _[二合] 曳室哩 _[二合] 𑖦哩儻薩嚩 _[二合] 賀
오대	1나1모.바1느1맘.바1나1예.2옴○2아1ㅁ1리.1담1얌1베.1시1리1예.1시1리.1담2리1니.스1빠1하 _[17b]
觀世音菩薩寶印手眞言	
진언	om vajra detaṃ jaye svāhā
한자	唵 _[ㄹ] 嚩日囉儻擔惹曳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2바1스1라.1네1담.2사1예.스1빠1하 _[18a]
觀世音菩薩俱尸鐵鉤手眞言	
진언	om akro tara kara viṣaye namo svāhā
한자	唵 _[ㄹ] 阿喏嚕 _[二合] 哆囉迦囉尾沙曳曩謨薩嚩 _[二合] 賀
오대	2옴○2아ㄸ1로.다1라.가1라.1미사1예.1나1모.스1빠1하 _[18b]
觀世音菩薩錫杖手眞言	
진언	om nartinarti nartapati narte dayapani huṃphaṭ

한자	唵 _[ㄹ] 那 _[ㄴ] 嚩 _[ㄴ] 智 _[ㄴ] 那 _[ㄴ] 嚩 _[ㄴ] 智 _[ㄴ] 那 _[ㄴ] 嚩 _[ㄴ] 吒 _[ㄴ] 鉢 _[ㄴ] 底 _[ㄴ] 那 _[ㄴ] 嚩 _[ㄴ] 帝 _[ㄴ] 那 _[ㄴ] 夜 _[ㄴ] 鉢 _[ㄴ] 儻 _[ㄴ] 呬 _[ㄴ] 泮 _[ㄴ] 吒 _[ㄴ]
오대	2옴이 _[ㄴ] 날 _[ㄴ] 1디 _[ㄴ] 1날 _[ㄴ] 1디 _[ㄴ] 1날 _[ㄴ] 타 _[ㄴ] 바 _[ㄴ] 1디 _[ㄴ] 1날 _[ㄴ] 2데 _[ㄴ] 2나 _[ㄴ] 2야 _[ㄴ] 바 _[ㄴ] 1니 _[ㄴ] 2흠 _[ㄴ] 바 _[ㄴ] 1탁 _[19a]
觀世音菩薩合掌手眞言	
진언	om padmāñjalīm hr̥
한자	唵 _[ㄹ] 鉢 _[ㄴ] 訥 _[ㄴ] 曼 _[ㄴ] 惹 _[ㄴ] 陵 _[ㄴ] 紇 _[ㄴ] 哩 _[ㄴ]
오대	2옴 _[ㄴ] 바 _[ㄴ] 2느 _[ㄴ] 1만 _[ㄴ] 2사 _[ㄴ] 링 _[ㄴ] 1ㅎ _[ㄴ] 2리 _[19b]
觀世音菩薩化佛手眞言	
진언	om caṇḍara bhamāṃṭari kari dakiri dakiriṇi huṃphaṭ
한자	唵 _[ㄹ] 戰 _[ㄴ] 娜 _[ㄴ] 囉 _[ㄴ] 婆 _[ㄴ] 舍 _[ㄴ] 吒 _[ㄴ] 哩 _[ㄴ] 迦 _[ㄴ] 哩 _[ㄴ] 娜 _[ㄴ] 祇 _[ㄴ] 哩 _[ㄴ] 娜 _[ㄴ] 祇 _[ㄴ] 哩 _[ㄴ] 拏 _[ㄴ] 泮 _[ㄴ] 吒 _[ㄴ]
오대	2옴 _[ㄴ] 2전 _[ㄴ] 2나 _[ㄴ] 1라 _[ㄴ] 1바 _[ㄴ] 1맘 _[ㄴ] 타 _[ㄴ] 2리 _[ㄴ] 가 _[ㄴ] 2리 _[ㄴ] 2나 _[ㄴ] 2기 _[ㄴ] 2리 _[ㄴ] 2나 _[ㄴ] 2기 _[ㄴ] 2리 _[ㄴ] 1니 _[ㄴ] 2흠 _[ㄴ] 바 _[ㄴ] 1탁 _[20a]
觀世音菩薩化宮殿手眞言	
진언	om visara visara huṃphaṭ
한자	唵 _[ㄹ] 微 _[ㄴ] 薩 _[ㄴ] 囉 _[ㄴ] 微 _[ㄴ] 薩 _[ㄴ] 囉 _[ㄴ] 呬 _[ㄴ] 泮 _[ㄴ] 吒 _[ㄴ]
오대	2옴 _[ㄴ] 이 _[ㄴ] 미 _[ㄴ] 2사 _[ㄴ] 1라 _[ㄴ] 1미 _[ㄴ] 2사 _[ㄴ] 1라 _[ㄴ] 2흠 _[ㄴ] 바 _[ㄴ] 1탁 _[20b]
觀世音菩薩寶經手眞言	
진언	om ahara sarvāvidya dhara pudite svāhā
한자	唵 _[ㄹ] 阿 _[ㄴ] 賀 _[ㄴ] 囉 _[ㄴ] 薩 _[ㄴ] 囉 _[ㄴ] 嚩 _[ㄴ] 尾 _[ㄴ] 你 _[ㄴ] 野 _[ㄴ] 馱 _[ㄴ] 囉 _[ㄴ] 布 _[ㄴ] 你 _[ㄴ] 帝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2아 _[ㄴ] 1하 _[ㄴ] 1라 _[ㄴ] 1살 _[ㄴ] 1바 _[ㄴ] 1미 _[ㄴ] 2냐 _[ㄴ] 1다 _[ㄴ] 1라 _[ㄴ] 1보 _[ㄴ] 1니 _[ㄴ] 2데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1a]
觀世音菩薩不退金輪手眞言	
진언	om śanamica svāhā
한자	唵 _[ㄹ] 設 _[ㄴ] 那 _[ㄴ] 彌 _[ㄴ] 左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이 _[ㄴ] 셔 _[ㄴ] 1나 _[ㄴ] 1미 _[ㄴ] 자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1b]
觀世音菩薩頂上化佛手眞言	
진언	om vajrṇi vajraṃge svāhā
한자	唵 _[ㄹ] 嚩 _[ㄴ] 日 _[ㄴ] 哩 _[ㄴ] 尼 _[ㄴ] 嚩 _[ㄴ] 日 _[ㄴ] 嚩 _[ㄴ] 藝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2바 _[ㄴ] 2스 _[ㄴ] 2리 _[ㄴ] 1니 _[ㄴ] 2바 _[ㄴ] 2스 _[ㄴ] 1람 _[ㄴ] 1예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2a]
觀世音菩薩蒲萄杵手眞言	
진언	om amala kaṃtedini svāhā
한자	唵 _[ㄹ] 阿 _[ㄴ] 摩 _[ㄴ] 囉 _[ㄴ] 釳 _[ㄴ] 帝 _[ㄴ] 你 _[ㄴ] 儻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2아 _[ㄴ] 1마 _[ㄴ] 라 _[ㄴ] 2검 _[ㄴ] 2데 _[ㄴ] 2니 _[ㄴ] 1니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2b]
觀世音菩薩甘露手眞言	
진언	om surūsurū prasurū prasurū surū surūya svāhā
한자	唵 _[ㄹ] 素 _[ㄴ] 嚩 _[ㄴ] 素 _[ㄴ] 嚩 _[ㄴ] 鉢 _[ㄴ] 囉 _[ㄴ] 素 _[ㄴ] 嚩 _[ㄴ] 鉢 _[ㄴ] 囉 _[ㄴ] 素 _[ㄴ] 嚩 _[ㄴ] 素 _[ㄴ] 嚩 _[ㄴ] 素 _[ㄴ] 嚩 _[ㄴ] 野 _[ㄴ] 薩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2옴 _[ㄴ] 이 _[ㄴ] 소 _[ㄴ] 1로 _[ㄴ] 1소 _[ㄴ] 1로 _[ㄴ] 뵈 _[ㄴ] 1라 _[ㄴ] 1소 _[ㄴ] 1로 _[ㄴ] 뵈 _[ㄴ] 1라 _[ㄴ] 1소 _[ㄴ] 1로 _[ㄴ] 1소 _[ㄴ] 1로 _[ㄴ] 1소 _[ㄴ] 1로 _[ㄴ] 2야 _[ㄴ] 스 _[ㄴ] 1바 _[ㄴ] 하 _[23a]
觀世音菩薩摠攝千臂手眞言	
진언	tadyatha varūkite śvārāya sabhātuṣṭha uhaviya svāhā
한자	怛 _[ㄴ] 你 _[ㄴ] 也 _[ㄴ] 他 _[ㄴ] 嚩 _[ㄴ] 路 _[ㄴ] 枳 _[ㄴ] 諦 _[ㄴ] 濕 _[ㄴ] 嚩 _[ㄴ] 囉 _[ㄴ] 野 _[ㄴ] 薩 _[ㄴ] 婆 _[ㄴ] 咄 _[ㄴ] 瑟 _[ㄴ] 吒 _[ㄴ] 鳴 _[ㄴ] 賀 _[ㄴ] 彌 _[ㄴ] 野 _[ㄴ] 娑 _[ㄴ] 嚩 _[ㄴ] 賀 _[ㄴ]
오대	다 _[ㄴ] 2나 _[ㄴ] 타 _[ㄴ] 2바 _[ㄴ] 1로 _[ㄴ] 2기 _[ㄴ] 2데 _[ㄴ] 1시 _[ㄴ] 1바 _[ㄴ] 1라 _[ㄴ] 2야 _[ㄴ] 1살 _[ㄴ] 1바 _[ㄴ] 1도 _[ㄴ] 싸 _[ㄴ] 1오 _[ㄴ] 1하 _[ㄴ] 1미 _[ㄴ] 2야 _[ㄴ] 스 _[ㄴ] 1바 _[ㄴ] 1하 _[23b]
神妙章句大陀羅尼	
진언	namo ratna trayāya(1) namaḥ aryaḥ valokite śvārāya(2) bodhi atvāya mahā satvāya(3) mahā kārūṇikaya(4) om(5) sarvā bhayesau(6) trā
한자	曩 _[ㄴ] 謨 _[ㄴ] 囉 _[ㄴ] 怛 _[ㄴ] 曩 _[ㄴ] 怛 _[ㄴ] 囉 _[ㄴ] 夜 _[ㄴ] 野 _[ㄴ] 莫 _[ㄴ] 啊 _[ㄴ] 哩 _[ㄴ] 也 _[ㄴ] 嚩 _[ㄴ] 路 _[ㄴ] 枳 _[ㄴ] 諦 _[ㄴ] 濕 _[ㄴ] 嚩 _[ㄴ] 囉 _[ㄴ] 野 _[ㄴ] 二 冒 _[ㄴ] 地 _[ㄴ] 薩 _[ㄴ] 怛 _[ㄴ] 嚩 _[ㄴ] 野 _[ㄴ] 摩 _[ㄴ] 賀 _[ㄴ] 薩 _[ㄴ] 怛 _[ㄴ] 嚩 _[ㄴ] 野 _[ㄴ] 三 摩 _[ㄴ] 賀 _[ㄴ] 迦 _[ㄴ] 嚩 _[ㄴ] 泥 _[ㄴ] 迦 _[ㄴ] 野 _[ㄴ] 四 唵 _[ㄴ] 五 薩 _[ㄴ] 嚩 _[ㄴ] 婆 _[ㄴ] 曳 _[ㄴ] 數 _[ㄴ] 六 怛 _[ㄴ] 囉 _[ㄴ] 七
오대	1나 _[ㄴ] 1모 _[ㄴ] 1라 _[ㄴ] ㄷ _[ㄴ] 1나 _[ㄴ] ㄷ _[ㄴ] 1라 _[ㄴ] 1야 _[ㄴ] 2야 _[ㄴ] 나 _[ㄴ] 1막 _[ㄴ] 1알 _[ㄴ] 1약 _[ㄴ] 2바 _[ㄴ] 1로 _[ㄴ] 2기 _[ㄴ] 2데 _[ㄴ] 1시 _[ㄴ] 2바 _[ㄴ] 1라 _[ㄴ] 2야 _[ㄴ] 1모 _[ㄴ] 1디 _[ㄴ] 1사 _[ㄴ] ㄷ _[ㄴ] 2바 _[ㄴ] 2야 _[ㄴ] 2마 _[ㄴ] 1하 _[ㄴ] 1사 _[ㄴ] ㄷ _[ㄴ] 2바 _[ㄴ] 2야 _[ㄴ] 2마 _[ㄴ] 1하 _[ㄴ] 1가 _[ㄴ] 1로 _[ㄴ] 2니 _[ㄴ] 가 _[ㄴ] 2야 _[ㄴ] 2옴 _[ㄴ]

	1살1바.1바2예2수. ㄷ1라 ^[24b]
진언	na karaya tasyamyem(7) namaḥ skṛtvā(8) imām(9) aryā valokite śvāra tava(10) nilakanṭha namaḥ hr̥daya(11) mavarta yiśyāmi(12) sarvārthā sa
한자	拏 ^引 迦囉野怛寫銘 ^七 曩莫塞訖哩 ^[三合] 怛嚩 ^[二合] 引八 伊捨 ^{引九} 啊 ^引 哩也 ^[二合] 嚩路 ^引 枳諦濕嚩 ^[二合] 引囉怛嚩 ^十 顛攞建姪曩麼訖哩 ^[二合] 娜野 ^一 麼嚩唎路 ^[二合] 以瑟也 ^[二合] 引强 ^二 薩唎嚩 ^[二合] 囉他 ^[二合] 娑
오대	1나.가1라2야.다1샤2명. 1나1막.1썉2리ㄷ1바. 2이1맘. 1알1야.2바1로2기2데.1시1ㅁ1라.다2바. 1니라2간타.1나1막.1ㅎ2리2나2야. 2마1발다.2이1샤2미. 1살1발1타.1사 ^[25a]
진언	dhanām(13) śubham ajeyam(14) sarvā bhūtānām(15) bhavamarga miśūdhakam(16) tadyathā(17) om(18) aloke aloka(19) matilokā tīkrānte(20) hehe hale(21) ma
한자	駄喃 ^{引三} 輸伴阿薺琰 ^四 薩唎嚩 ^[二合] 步 ^引 路 ^引 喃 ^五 婆嚩沫唎識 ^[二合] 尾戌駄劔 ^六 怛你也 ^[二合] 他 ^{引七} 唵 ^八 阿路計阿路迦 ^九 麼底路迦 ^引 底羯囉 ^[二合] 諦 ^{二十} 醯醯賀唎 ^一 摩
오대	1다1남. 1슈1반.2예2세2염. 1살1바.2보1다1남. 1바2바1말2야.1미1슈1다2감. 다1냐1타. 2옴. 2아1로2계.2아1로가. 2마1디1로1가.1디 ㄱ1란2데. 2혜2혜.1하2례. 2마 ^[25b]
진언	hābodhi satvā(22) smara smara hr̥daya(23) korū korū karma(24) sādahaya sādahaya(25) dhuru dhurū miyānte(26) mahā viyānte(27) dharadhara dhālī
한자	賀冒地薩怛嚩 ^[二合] 引二 娑麼 ^[二合] 囉娑麼 ^[二合] 囉訖哩 ^[二合] 娜野 ^三 矩嚩矩嚩羯囉麼 ^[二合] 四 娑 ^引 達野娑駄野 ^五 度嚩度嚩尾演 ^引 諦 ^六 摩賀尾演諦 ^七 駄囉駄囉達嚩
오대	1하1모1디.1사ㄷ1바. 1스2마1라.1스2마1라.1ㅎ2리2나2야. 2구1로.2구1로.갈2마. 1사1다2야.1사1다2야. 2도1로.2도1로.2미1연2데. 2마1하.2미1연2데. 1다1라1다1라.1다1린 ^[26a]
진언	nre(28) śvāra calacala(29) mala vimala(30) amala murte(31) ehyehe(32) loke śvārā rāga(33) viṣavi nāśaya(34) dveṣavi ṣavi nāśaya(35) mohā
한자	捺嚩 ^[二合] 引八 濕嚩 ^[二合] 囉左攞左攞 ^九 摩攞尾摩攞 ^{三十} 阿摩攞母唎諦 ^一 暲醯曳 ^[二合] 四 ^二 路計濕嚩 ^[二合] 引囉囉 ^引 識 ^三 尾灑尾曩 ^引 捨野 ^四 彌吠 ^[二合] 灑尾灑尾曩捨野 ^五 謨 ^引 賀
오대	2느2례. 1시1ㅁ1라.자라자라. 2마라.1미2마라. 2아2마라.1몰2데. 1예2혜2혜. 1로2계.1시1ㅁ1라.1라2야. 1미사1미.1나1샤2야. 2느2베사1미.사1미.1나1샤2야. 1모1하 ^[26b]
진언	cala viṣavi nāśaya(36) horū horū(37) mala hurū hale(38) panma nābhā(39) sara sara(40) siri siri(41) surū surū(42) budhya budhya(43) bodhaya bo
한자	左羅尾灑尾曩捨野 ^六 虎嚩虎嚩 ^七 麼攞虎嚩賀黎 ^八 鉢娜麼 ^[二合] 曩婆 ^{引九} 娑囉娑囉 ^{四十} 悉哩悉哩 ^一 素 ^上 嚩素嚩 ^二 沒地野 ^[二合] 沒地野 ^[二合] 三 冒駄野 ^[二合] 冒
오대	자라.1미사1미.1나1샤2야. 1호1로.1호1로. 2마라.1호1로.1하2례. 바2느2마.1나1바. 1사1라.1사1라. 1시2리.1시2리. 2소1로2소1로. 1몰2다1몰2다. 1모1다2야.1모 ^[27a]
진언	dhaya(44) maitriya(45) nilakanṭha(46) kamasya darśanām(47) pra hlā daya mānaḥ(48) svāhā(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siddhaya(52) svāhā(53) siddhāyoge śvārāya(54) svāhā(55)
한자	駄野 ^[二合] 四 昧怛哩 ^[二合] 野 ^五 顛攞建姪 ^六 迦麼寫捺哩捨 ^[二合] 喃 ^七 鉢囉 ^[二合] 賀囉 ^[二合] 娜野摩 ^引 諾 ^{八入} 娑嚩 ^[二合] 引賀 ^{引九} 悉駄野 ^{五十} 娑嚩 ^[二合] 賀 ^一 摩賀悉駄野 ^二 娑嚩 ^[二合] 賀 ^三 悉駄喻藝 濕嚩 ^[二合] 囉野 ^四 娑嚩 ^[二合] 賀 ^五
오대	1다2야. 2믹ㄷ1리2야. 1니라2간타. 가2마2샤.1닐1샤1남. ㅁ1라.1ㅎ라.2나1야.1마1낙. 스1ㅁ1하. 1실1다2야. 스1ㅁ1하.

	2마1하1실1다2야ㅇ 스1바1하ㅇ 1실1다2유2예.1시1바1라2야ㅇ 스1바1하ㅇ ^[27b]
진언	nila kaṇṭhaya(56) svāhā(57) varaha mukha(58) śiṃha mukhaya(59) svāhā(60) padmā hastaya(61) svāhā(62) cakra yukdhaya(63) svāhā(64) śaṅkha śabṇane(65) bodhanaya(66) svāhā(67)
한자	顚攞建姪野 ^六 娑嚩 ^{[二合]賀^七} 嚩囉賀目佉 ^八 僧賀目佉野 ^九 娑嚩賀 ^{六十} 鉢娜麼 ^{[二合]引} 賀娑路野 ^一 娑嚩 ^{[二合]賀^二} 作羯囉 ^[二合] 欲馱野 ^三 娑嚩 ^{[二合]賀^四} 商佉攝娜窣 ^五 冒達曩野 ^六 娑嚩 ^{[二合]賀^七}
오대	1나라.2간타2야ㅇ 스1바1하ㅇ 2바1라1하.1목카ㅇ 1싱1하.1목카2야ㅇ 스1바1하ㅇ 마2느2마.1하짜2야ㅇ 스1바1하ㅇ 자ㄴ1라.1욕1다2야ㅇ 스1바1하ㅇ 1상카.1섭1나2네ㅇ 1모1다1나2야ㅇ 스1바1하ㅇ ^[28a]
진언	mahāla koṭa(68) ¹⁶⁵⁾ dharaya(69) svāhā(70) vama skāṇṭha niśa sthita(71) kṛṣṇa jinaya(72) svāhā(73) vyaghra carma(74) niva sanaya(75) svāhā(76) namora tnatra yā
한자	摩賀攞矩吒 ^{[八]166)} 馱囉野 ^[九] 娑嚩 ^{[二合]賀^[七十]} 嚩麼娑建 ^[二合] 姪你捨悉體 ^{[二合]路^[一]} 訖哩 ^[二合] 瑟拏 ^[二合] 喏曩野 ^[二] 娑嚩 ^{[二合]賀^[三]} 尾野 ^[二合] 伽囉 ^[二合] 搯囉麼 ^{[二合]四} 你嚩娑曩野 ^[五] 娑嚩 ^{[二合]賀^[六]} 曩謨囉怛曩 ^[二合] 怛囉 ^[二合] 夜
오대	2마1하라.2구타ㅇ 1다2라2야ㅇ 스1바1하ㅇ 2바2마.스2간타.2니1샤.1시2테다ㅇ ㄴ2릿1나.2시1나2야ㅇ 스1바1하ㅇ 2마1ㄴ1라.잘2마ㅇ 2니2바.1사1니2야ㅇ 스1바1하ㅇ 1나1모1라.ㄷ1나ㄷ1라.야 ^[28b]
진언	ya(77) namaḥ ārya valokite śvārāya(78) svāhā
한자	野 ^[七] 曩莫啊 ^引 哩也 ^[二合] 嚩路枳諦濕嚩 ^[二合] 囉野 ^[八] 娑嚩 ^{[二合]賀}
오대	2야ㅇ 1나1막.1알2야.2바1로2기2데.1시1바1라2야ㅇ 스1바1하 ^[29a]

2) 근본다라니

千手千眼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진언	namoratnatrayāya(1) namaḥārya valoki
한자	曩謨囉怛曩 ^[二合] 怛囉 ^[二合] 夜野 ^一 娜莫啊 ^引 哩野 ^[二合] 嚩路枳
오대	나무라드나드라야야ㅇ 나막알야.바로기 ^[29a]
진언	te śvārāya(2) bodhisatvāya(3) mahāsatvāya(4) mahākārūṇikaya(5) mahāvīrāya(6) sahāsrakṣaya(7) sahāśraśrīṣaya(8) sahāśra pana
한자	帝濕嚩 ^[二合] 囉野 ^二 冒地薩怛嚩 ^[二合] 野 ^三 摩賀薩怛嚩 ^[二合] 野 ^四 摩賀迦 ^引 嚩拏迦野 ^五 摩賀尾囉野 ^六 娑賀娑囉 ^[二合] 乞灑 ^[二合] 野 ^七 娑賀娑囉 ^[二合] 室哩 ^[二合] 灑野 ^八 娑賀娑囉 ^[二合] 播那
오대	데.시바라야ㅇ 모디사드바야ㅇ 마하사드바야ㅇ 마하가로니가야ㅇ 마하미라야ㅇ 사하.스락사야ㅇ 사하스라.시리사야ㅇ 사하스라.바나 ^[29b]
진언	ya(9) sahasra jihvaya(10) sahāsrabhūjāya(11) ehebhagavaṃ(12) ārya valokite śvāra(13) ograatyogra(14) mahāogra(15) mahānada(16) kiriki
한자	野 ^九 娑賀娑囉 ^[二合] 佉賀嚩 ^[二合] 野 ^十 娑賀娑囉 ^[二合] 步惹野 ^一 嚩呬婆識 ^二

165) 신묘 한자 총 79句. 오대진언 67句가 두 개 반복. 그 뒤로 모두 하나씩 밀려서 78구로 오류가 발생. 망월사본에서 정정.

166) 오대진언(1485)에서 제67구에 ‘七’이 있으므로 제68구로 마땅히 ‘八’이 되어야 하는데 원본에서 ‘七’로 되어 있어 오류가 생겼다. 뒤의 구도 모두 숫자 하나씩 차이가 있어 마치 78句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땅히 총 79句가 되어야 한다. 이의 오류를 바로 잡아 표기할 것이며 새로 수정한 부분을 괄호로 표기하여 ‘[八], [九]..’등으로 하였다.

	啊哩野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囉 _三 塢疋囉 _[二合] 阿底庾 _[二合] 疋囉 _[二合] 四 摩賀塢疋囉 _[二合] 五 摩賀曩那 _六 枳哩枳
오대	야○ 사하스라.△히배야○ 사하스라.보사야○ 예혜.바아문○ 알야.바로기데.시바라○ 오으라.아듀으라○ 마하오으라○ 마하나나○ 기리기 _[30a]
진언	ri kirikiri(17) mirimiri mirimiri(18) ciriciri ciriciri(19) natyonatyō natyonatyō(20) krasakrasa krasakrasa[21] korukoro ko
한자	哩哩哩 _七 哩哩哩 _八 哩哩哩 _九 嚩哩嚩哩嚩哩嚩哩 _九 曩跢曩跢曩跢曩跢 _{二十} 訖囉 _[二合] 娑訖囉 _[二合] 娑訖囉 _[二合] 娑訖囉 _[二合] 娑 _[一] ¹⁶⁷⁾ 矩嚩矩嚩矩
오대	리.기리기리○ 미리미리.미리미리○ 지리지리.지리지리○ 나듀나듀.나듀나듀○ ㄹ라사ㄹ라사.ㄹ라사ㄹ라사○ 구로구로.구 _[30b]
진언	rukuru(22) ehyehe(23) mahāvira(24) malaṇḍana(25) viryeṇḍana(26) sarvākamāmmerṇ prayecha(27) śighraṇ vahamerṇ(28) raṣṭaraṣṭaṇ sarajakakkuro(29) sa
한자	嚩矩嚩 _二 嚩醯 _三 摩賀尾囉 _四 摩嚩娜那 _五 尾哩演 _[二合] 娜那 _六 薩嚩迦捨銘鉢囉 _[二合] 曳蹉 _七 試伽嚩 _[二合] 嚩陁銘 _八 囉瑟吒 _[二合] 囉瑟百鳥 _[二合] 娑囉惹兢矩嚩 _九 娑
오대	로구로○ 예혜혜○ 마하미라○ 마란나나○ 미련나나○ 살바가맘명.브라예차○ 시ꄹ람.바헝명○ 라짜라쌈.사라사궁구로○ 사 _[31a]
진언	ha srabhūja(30) saha sravira(31) lokaiśvara sadhaya(32) sana siddhiṇmembhava(33) varaṇobhava(34) aguru bhavami(35) om namostute bhagavaṇ(36)
한자	賀娑囉 _[二合] 步惹 _{三十} 娑賀娑囉 _[二合] 尾囉 _一 路髻濕嚩 _[二合] 囉娑駄野 _二 娑娜悉朕銘娑囉 _三 嚩囉努娑囉 _四 阿虞嚩娑囉 _五 唵曩謨宰堵 _[二合] 帝婆識刎 _六
오대	하.스라보사○ 사하.스라미라○ 로게시바라.사다야○ 사나.싯딤명바바○ 바라노바바○ 아우로.바바미○ 움.나무또데.바아문○ _[31b]
진언	arya valokite svāra(37) prabuddhya praṣṇamām(38) varadumama(39) bhavahe svāhā(40)
한자	啊哩野 _[二合] 嚩路枳帝濕嚩 _[二合] 囉 _七 鉢囉 _[二合] 沒地野 _[二合] 鉢囉 _[二合] 奈娜捨 _八 嚩囉努摩 _九 娑囉嚩娑囉 _[二合] 賀 _{四十句}
오대	알야.바로기데.시바라○ 브라마다.브라시나맘○ 바라노마마○ 바바혜.스와하 _[32a]

3) 대수구다라니

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진언	buddhābhaṣṭaṇ sarvāṭethāgatā saṃmantaṇ jvalavala viśoddhe sphoridā cintamaṇi mudra hṛdaya apara jitaṇ dharāṇi mahāpratisara mahāvidya rāja mahādharāṇi
한자	沒駄婆史擔 _[二合] 薩嚩 _引 怛他藥哆 _引 三滿跢 _引 入嚩 _[二合] 囉 _[一] 磨邏尾秣第娑普 _[二合] 哩哆震哆摩拏母捺囉 _[二合] 紇哩 _[二合] 娜野阿跛囉喏哆 _引 _[二] 陀囉尼摩賀鉢囉 _[二合] _[三] 底娑囉摩賀尾你也 _[二合] 囉惹 _引 _[四] 摩賀駄囉尼
오대	몰다바쌈.살바다타아다.삼만다.스바라○ 마라.미술데.쁘리다.진다마니.모느라.히리나야.아바라.△다○ 다라니. 마하브라○ 디사라.마하미나.라샤○ 마하.다라니 _[33b-34a]

167) 20구와 22구 사이의 21구일 것인데 오류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오류의 예들은 [] 괄호로 보충하여 표기하였다.

진언	namaḥsarvā tathāgatanam(1) namonamaḥ(2) sarvā
한자	曩莫薩嚩 _引 怛他 _去 識跡 _引 喃 _引 一 曩謨曩莫 _{二入} 薩嚩
오대	나막살바.다타아다남 _○ 나모나막 _○ 살바 _[34a]
진언	buddha(3) bodhi satvā(4) buddhādharmā sirmkhebhyaḥ(5) om(6) vipula garbhe(7) vipula vimale(8) jayagarbe(9) vajra jvala garbhe(10) gatigahani(11) gagana viśu
한자	沒駄 _{引三} 冒 _引 地薩怛嚩 _{[二合]引四} 沒駄 _引 達磨 _引 僧契毗藥 _{[二合]五} 唵 _六 尾補攞葉 _七 尾補攞尾麼嚩 _八 惹野藥 _九 嚩日囉 _{[二合]入} 嚩 _[二合] 攞葉 _十 識底識賀 _一 識 _二 曩尾 _三 戌 _引
오대	몬다 _○ 모디.사드바 _○ 몬다달마.싱케박 _○ 움 _○ 미라.알베 _○ 미보라.미마레 _○ 샤야알베 _○ 바스라.스바라.알베 _○ 아디아하니 _○ 아아나.미슈 _[34b]
진언	dhani(12) sarvāpāpa viśodhani(13) om guṇavati(14) gagarīṇi(15) girigiri(16) gamari gamari(17) gaḥhagaḥha(18) gargāri gargāri(19) gagari gagari(20)
한자	駄顚 _二 薩嚩播 _引 跛尾秣 _引 駄顚 _三 唵 _引 虞拏嚩底 _四 識 _二 識哩 _五 儼哩儼哩 _六 識麼哩 _七 識麼哩 _七 識賀 _八 藥 _九 哩藥 _九 哩藥 _九 識 _二 識哩 _{二十}
오대	다니 _○ 살바바바.미슈다니 _○ 움.오나바디 _○ 아아리니 _○ 이리이리 _○ 아마리.아마리 _○ 아하악하 _○ 알아리.알아리 _○ 아아리.아아리 _[35a]
진언	gambhāri gambhāri(21) gatigati(22) gamani gale(23) gurūgurū(24) gurūṇi cale(25) gacale mucale(26) jayevi jaye(27) sarvābhaya vigate(28) garbha saṃ
한자	儼婆哩儼婆 _去 哩 _一 識底識底 _二 識麼顚 _三 嚩嚩 _三 虞嚩虞嚩 _四 虞嚩拏 _五 左 _六 阿左 _六 嚩母左 _六 惹曳尾惹曳 _七 薩嚩 _引 婆野尾 _八 帝 _八 藥 _三 婆 _去
오대	암바리.암바리 _○ 아디아디 _○ 아마니.아레 _○ 오로오로 _○ 오로니.자레 _○ 아자레 _○ 모자레 _○ 샤예미.샤예 _○ 살바바야.미아데 _○ 알바.삼 _[35b]
진언	bharaṇi(29) sirisiri(30) mirimiri(31) kīrikīri(32) sāmmanā karṣaṇi(33) sarvā śatrū pra varthāni(34) rakṣarakṣa mama(35) sarvā satvā nāṃca(36) viriviri
한자	婆 _上 囉拏 _九 悉哩悉哩 _{三十} 弭哩弭哩 _一 岐 _去 哩岐哩 _二 三滿跢 _去 羯囉灑 _[二合] 拏 _三 薩嚩設咄嚕 _[二合] 鉢囉 _[二合] 沫他 _{上引} 顚 _四 囉乞灑 _[二合] 囉乞灑 _[二合] 麼麼 _五 薩嚩 _引 薩怛嚩 _{[二合]引} 難 _去 左 _六 尾哩尾哩
오대	바라니 _○ 시리시리 _○ 미리미리 _○ 기리기리 _○ 삼만다.갈사니 _○ 살바.샤드 _로 .브라.말타니 _○ 락사락사.마마 _○ 살바.사드바.난자 _○ 미리미리 _[36a]
진언	vigatā varaṇa(37) bhāya nāśani(38) surisuri(39) ciriciri karṇmalevimale(40) jaye jayavahe(41) jayavati(42) bhāgavati(43) ratna makuṭa(44) mā
한자	尾識跡 _{去引} 嚩囉拏 _七 婆 _去 野曩 _引 捨顚 _八 素哩素哩 _九 唧哩唧哩 _一 劍麼嚩尾麼嚩 _{四十} 惹曳惹野 _引 嚩系 _一 惹野嚩底 _二 婆 _引 識嚩底 _三 囉怛曩 _[二合] 麼矩吒 _四 麼
오대	미아다.바라나 _○ 바야.나사니 _○ 소리소리 _○ 지리지리.감마레미마레 _○ 샤예.샤야바 _해 샤야바디 _○ 바야바디 _○ 라드나.마구타 _○ 마 _[36b]
진언	lādhari(45) mahu vividha(46) vicitra vaiṣarū padhāriṇi(47) bhāgavati(48) mahā vidyadevi(49) rakṣarakṣa mama(50) sarvā satvānāṃca(51) sāmmanā sarvā
한자	邏 _引 駄哩 _五 麼護尾尾駄 _六 尾唧怛囉 _[二合] 吠灑嚕 _引 跛駄哩拏 _七 婆 _去 識嚩底 _八 麼賀尾你也 _{[二合]引} 彌 _引 尾 _九 囉乞灑 _[二合] 囉乞灑 _[二合] 麼麼 _{某甲五十} 薩嚩 _引 薩怛嚩 _{[二合]引} 難 _去 左 _一 三 _去 滿跢薩嚩
오대	라다리 _○ 마호.미미다 _○ 미지드라.배사로.바다리니 _○ 바야바디 _○ 마하.미나네미 _○ 락사락사.마마 _○ 살바.사드바.난자 _○ 삼만다.살바 _[37a]

진언	tra(52) sarvāpāpa viśudhani(53) hurūhurū naḥkṣatra(54) malā dhāriṇi(55) rakṣarakṣa mām̐mama(56) anāthāśya(57) trāṇa parāya ṇasya(58) pari maucaṇyāmyeṇ(59)
한자	怛囉 _{[二合]二} 薩囉播跋尾戌 _引 馱囉 _三 虎嚕虎嚕諾 _入 乞察 _[二合] 怛囉 _{[二合]四} 麼邏 _引 馱 _引 哩拏 _五 囉乞灑 _[二合] 囉乞灑 _[二合] 捨 _引 麼麼 _六 阿曩他 _引 寫 _七 怛囉 _[二合] 拏跋囉野拏寫 _八 跋哩謨 _去 左 _引 野銘 _{去九}
오대	드라○ 살바바바.미슈다니○ 호로호로.낙사드라○ 마라.다리니○ 락사락사.맘마마○ 아나타샤○ 드라나.바라야.나샤○ 바리.모자야명○ _[37b]
진언	sarvā dukebhyah(60) caṇḍicaṇḍi caṇḍini(61) vegavati(62) sarvāduṣṭa(63) nivāraṇi(64) śatrū paḥkṣa(65) pra barthāni(66) vijaya vāhaini(67) hurūhurū(68) murūmu
한자	薩囉耨契 _引 毗藥 _{[二合]六十} 讚拏讚拏讚拏囉 _一 吠譏囉底 _二 薩囉訥瑟吒 _{[二合]三} 囉囉囉拏 _四 設咄嚕 _[二合] 博乞灑 _{[二合]五} 鉢囉 _[二合] 末他 _去 囉 _六 尾惹野囉咽囉 _七 虎嚕虎嚕 _八 母嚕母
오대	살바.녹케야○ 잔니 잔니.잔니니○ 베아바디○ 살바노짜○ 니바라니○ 샤드로.박사○ 브라.말타니○ 미샤야.바혜니○ 호로호로○ 모로모 _[38a]
진언	rū(69) curūcurū(70) ayuḥ pālani(71) suravara varthāni(72) sarvā devatā pujite(73) dhiridhiri(74) saṁmantā valokite(75) prabhe prabhe(76) suprabhā viśo
한자	嚕 _九 祖嚕祖嚕 _{七十} 阿 _去 欲播囉囉 _一 素囉囉囉末他 _引 囉 _二 薩囉 _引 囉 _去 囉 _引 布 _引 些帝 _三 地理地哩 _四 三滿哆囉路 _引 枳帝 _五 鉢囉 _[二合] 陛鉢囉 _[二合] 陛 _六 素鉢囉 _[二合] 婆 _引 尾秣
오대	로○ 조로조로○ 아욕.바라니○ 소라바라.말타니○ 살바.네바다.보시 데○ 디리디리○ 삼만다.바르기 데○ 브라베.브라베○ 소브라바.미숀 _[38b]
진언	ddhe(77) sarvāpāpa viśudhani(78) dharadhara dharāṇi(79) dharadhale(80) sumusumu(81) rūrūcale(82) cālaya duṣṭāṁ(83) puraya memāśāṁ(84) śrīvapu(85) dhanañja
한자	第七 薩囉 _引 播跋尾戌 _引 馱囉 _八 馱囉馱囉馱囉拏 _九 馱囉馱囉 _{八十} 素母素母 _一 嚕嚕左 _二 佐囉野努瑟旨鳥 _{[二合]三} 布囉野茗 _引 阿 _去 室哩 _[二合] 囉補 _五 馱難 _上 惹
오대	데○ 살바바바.미슈다니○ 다라다라.다라니○ 다라다레○ 소모소모○ 로로자레○ 자라야.노쌌. 보라야.명아섬○ 시리비보○ 다난샤 _[39a]
진언	ya karṇmale(86) kṣiṇi kṣiṇi(87) vara devara dāṁkuśe(88) om̐(89) padma viśoddhe śodhaya śodhayaśoddhe(90) bharabhara(91) bhiribhiri(92) bhurūbhurū(93) māṅgāla
한자	野劔麼 _六 乞史 _[二合] 拏乞史 _[二合] 拏 _七 囉囉囉囉囉囉能矩勢 _八 唵 _九 鉢娜麼 _[二合] 尾秣 _四 馱野戌馱野秣 _去 第九十 婆囉婆囉 _一 鼻哩鼻哩 _二 部嚕部嚕 _三 憎 _去 譏 _去 囉
오대	야.감마레○ ㄴ시니.ㄴ시니○ 바라.네바라.농구셰○ 음○ 바느마.미숀데.슈다야.슈다야숀데○ 바라바라○ 비리비리○ 보로보로○ 몽아라 _[39b]
진언	viśoddhe(94) pavī tramuke(95) khargiṇi khargiṇi(96) khārahāra(97) jvalita śīle(98) sām̐mantā pra saritā(99) vabhā sitaśoddhe(100) jvāla jvala(101) sarvā devaga
한자	尾秣 _四 跋尾怛囉 _[二合] 穆企 _五 羯擬拏羯擬拏 _六 佉囉佉囉 _七 入囉 _[二合] 里多始 _八 三滿多 _引 鉢囉 _[二合] 娑 _上 哩哆 _{引九} 囉婆 _六 悉多 _上 秣 _{一百} 入囉 _[二合] 囉入囉 _[二合] 囉 _一 薩囉 _引 囉囉囉
오대	미숀데○ 바미.드라목케○ 칼이니.칼이니○ 카라카라○ 슝바리다.시례○

	삼만다。브라。사리다。바바。시다술데。스바라。스바라。살바。네바아 _[40a]
진언	ṇa(102) sām̐māta karṣaṇi(103) satyavate(104) taratara tārayamāṇ(105) nāga vilokite(106) lahulahu(107) huduhudu(108) kṣiṇikṣiṇi(109) sarvā grahā bhākṣaṇi(110) pīm̐
한자	拏 _{上二} 三 _去 麼多 _月 羯囉灑 _[二合] 拈 _三 薩底也 _[二合] 嚩帝 _四 多 _上 囉多囉跢囉野 _{捨五} 曩 _引 識尾路 _引 枳帝 _六 囉虎囉虎 _七 虎努 _鼻 虎努 _八 乞史 _[二合] 拈乞史 _[二合] 拈 _九 薩嚩呬囉 _[二合] 賀薄乞灑 _[二合] 拈 _{百一十} 冰
오대	나。삼만다。갈사니。사다바데。다라다라。다라야맘。나아。미로기데。라호라호。 호호호노。ㄹ시니。ㄹ시니。살바。ㄹ라하。박사니。빙 _[40b]
진언	gari pīm̐gari(111) cumucumu(112) sumusumu(113) cuvicala(114) taratara(115) nāga vilokiṇi(116) tāraya tumāṇ(117) bhāgavati(118) aṣṭamahm̐ bhayebhyaḥ(119) sām̐mu
한자	藥哩冰藥哩 _一 祖母祖母 _二 素母素母 _三 祖尾左 _{嚩四} 多囉多囉 _五 曩識尾路枳 _{顚六} 跢囉野 _{覩捨引七} 婆 _去 識嚩底 _八 阿瑟吒 _[二合] 麼賀 _引 婆 _上 曳毗藥 _[二合] 九 三母
오대	아리。빙아리。조모조모。소모소모。조미자레。다라다라。나아。미로기니。 다라야。도맘。바아바디。아짜마하。바예박 삼모 _[41a]
진언	dra sāgara(120) pāryāntāṇ(121) pātāla gagana taram̐(122) sarvātra sām̐mantena(123) diśamandhena(124) vajra prakara(125) vajra paśa mandhanena(126) vajra jvala vi
한자	捺囉 _[二合] 娑 _去 識囉 _{二十} 播哩演 _[二合] 擔 _一 播跢囉識曩怛覽 _二 薩嚩怛囉 _[二合] 三 _去 滿帝曩 _三 你舍滿弟曩 _四 嚩日囉 _[二合] 鉢囉 _[二合] 迦囉 _五 嚩日囉 _[二合] 播 _引 捨滿馱甯曩 _六 嚩日囉 _[二合] 入囉 _[二合] 囉尾
오대	느라。사아라。바련담。바다라。아아나。다람。살바드라。삼만데나。니샤。만데나。 바스라。브라가라。바스라。바샤。만다네나。바스라。스바라。미 _[41b]
진언	śoddhe(127) bhuribhuri(128) garbhāvatī(129) garbhā viśodhani(130) koḥkṣi sāṃpuraṇi(131) jvala jvala(132) calacala(133) jvalini(134) pra barṣatu deva(135) sām̐mantena(136) dimyu
한자	秫 _七 部哩部哩 _八 藥婆 _去 嚩底 _九 藥婆 _去 尾戌馱顚 _{三十} 鋤乞史 _[二合] 三布囉拈 _一 入嚩 _[二合] 囉入嚩 _[二合] 囉 _二 左囉左囉 _三 入嚩 _[二合] 里顚 _四 鉢囉 _[二合] 鞞灑覩 _{囉五} 三 _去 滿帝曩 _六 你弭庾 _[二合]
오대	술데。보리보리。알바바디。알바。미슈다니。국시。삼보라니。스바라。스바라。 자라자라。스바리니。브라。말사도。네바。삼만데나。니뮤 _[42a]
진언	da kena(137) amṛta varṣaṇi(138) devatā vatāraṇi(139) abhi ṣimcatumer̐(140) sugata vara vacana(141) amṛta vara vapuṣai(142) rakṣarakṣa mama(143) sarvāsa
한자	娜計 _引 曩 _七 阿 _上 密哩 _[二合] 多 _上 鞞灑拈 _八 爾嚩跢囉跢 _引 囉拈 _九 阿鼻洗 _去 左覩若 _{四十} 蘇識多嚩囉嚩左曩 _一 阿密哩 _[二合] 多嚩囉嚩補囉 _二 囉乞灑 _[二合] 囉乞灑 _[二合] 麼麼 _{三ム甲} 薩嚩 _引 薩
오대	나。게나。아므리다。말사니。네바다。바다라니。아비。션자도명。 소아다。바라。바자나。아므리다。바라。바보세。락사락사。마마。살바사 _[42b]
진언	tvānāṇca(144) sarvātra sarvāda(145) sarvā bhāyebhyaḥ(146) sarbo padra vebhyaḥ(147) sarbopasargebhyaḥ(148) sarvā duṣṭabhāya bhitasya(149) sarvā kālīka lāha(150) vīgraha
한자	怛嚩 _[二合] 難 _去 左 _四 薩嚩怛囉 _[二合] 薩嚩娜 _{去五} 薩嚩 _引 婆 _去 曳毗藥 _[二合] 六 薩冒 _引 跋捺囉 _[二合] 吠毗藥 _[二合] 七 薩冒 _引 跋薩藝毗藥 _[二合] 八 薩嚩 _[二合] 訥瑟吒 _[二合] 婆 _去 野鼻怛寫 _九 薩嚩 _引 迦 _引 里迦邏 _引 賀 _{五十} 尾呬囉 _[二合] 賀

오대	득바.난자ㅇ 살바드라.살바나ㅇ 살바.바예박ㅇ 살모.바느라.베박ㅇ 살모바살예박ㅇ 살바.노짜바야.비다샤ㅇ 살바.가리가.라하ㅇ 미ㅇ라하 _[43a]
진언	vivāda(151) duḥsvapna durdi(152) mitā māṅgalya pāpa vinaśani(153) sarvā yakṣa rākṣasa(154) nāgani vāraṇi(155) saraṇi sare(156) malamala malavati(157)
한자	尾嚩娜 _一 耨娑嚩 _[二合] 跋曩 _[二合] 訥賴 _二 彌路 _引 憐識里也 _[二合] 播跋尾曩捨賴 _三 薩嚩藥乞灑 _[二合] 囉 _引 乞灑 _[二合] 娑 _四 曩 _引 識賴嚩囉拏 _五 娑 _上 囉拏娑 _上 嚩 _六 麼攞麼攞麼攞嚩底 _七
오대	미바나ㅇ 녹쌌나.놀니ㅇ 미다.몽아라.바바.미나샤니ㅇ 살바.약사.락사사ㅇ 나아니.바라니ㅇ 사라니.사레ㅇ 마라마라.마라바디 _[43b]
진언	jayajaya jayatumaṁ(158) sarvātra sarvākālaṁ(159) siddhyantumem(160) imarimahā vidyāṁ(161) sādahaya sādahaya(162) sarvā maṇḍala sādhani(163) khādaya sarvā vi
한자	惹野惹野惹野觀 _{引八} 薩嚩怛囉 _[二合] 薩嚩迦 _去 覽 _九 悉鈿觀 _{六十} 嚩 _引 麼賀 _引 尾你琰 _{引一} 娑 _去 馱野 _去 馱野 _二 薩嚩 _引 滿拏 _上 攞娑馱賴 _三 伽 _去 多 _上 野薩嚩尾
오대	샤야샤야.샤야도맘ㅇ 살바드라.살바가람ㅇ 싯던도명ㅇ 예맘마하.미넘ㅇ 사다야.사다야ㅇ 살바.만나라.사다니ㅇ 카다야.살바.미 _[44a]
진언	ghnā(164) jayajaya(165) siddhesiddhe susiddhe(166) siddhyasidhya(167) budhyabudhya(168) purayapuraya(169) pulaṇi pulaṇi(170) puraya memasām(171) sarvāvidyā dhigata
한자	覲曩 _{引四} 惹野惹野 _五 悉弟悉弟蘇悉弟 _六 悉地野 _[二合] 悉地野 _[二合七] 沒地野 _[二合] 沒地野 _八 布 _引 囉野布囉野 _九 布囉拏布囉拏 _{七十} 布囉野若阿 _去 苦 _{去一} 薩嚩 _引 尾你也 _[二合] 地識多 _上
오대	깁나ㅇ 샤야샤야ㅇ 싯데싯데.소싯데.싯다싯다ㅇ 몬다몬다ㅇ 보라야.보라야ㅇ 보라니ㅇ 보라니.보라야.명아섬ㅇ 살바미니.디아다 _[44b]
진언	burte(172) jayotari(173) jayāvati(174) tiṣṭatiṣṭa(175) sāmmeṃya manu pālaya(176) tathāga tāhṛdaya śaddhe(177) myavalo kayatumaṁ(178) aṣṭabhi mahādā ru
한자	慕啼 _[二合] 惹 _二 惹喻多哩 _三 惹野嚩底 _四 底瑟吒 _[二合] 底瑟吒 _[二合五] 三 _去 麼野麼努播 _引 攞野 _六 怛他 _去 曩多 _引 紇哩 _[二合] 乃野 _引 秣弟 _七 彌也 _[二合] 嚩路 _引 迦 _上 野觀 _{引八} 阿瑟吒 _[二合] 鼻麼賀娜嚩
오대	몰데ㅇ 샤유다리ㅇ 샤야바디ㅇ 디짜디짜ㅇ 삼마야.마노.바라야ㅇ 다타야.다흐리나야.술데ㅇ 마바로.가야도맘ㅇ 아짜비.마하나.로 _[45a]
진언	ṇa bhaye(179) sarasara(180) prasara prasara(181) savā varaṇa viśodhani(182) sāmmanā kāra maṇḍala viśoddhe(183) vigate vigate(184) vigata mala vi
한자	拏婆 _上 曳 _九 娑囉娑囉 _{八十} 鉢囉 _[二合] 娑囉鉢囉 _[二合] 娑囉 _一 薩嚩嚩囉拏 _上 尾戌馱賴 _二 三 _去 滿路 _引 迦 _去 囉滿拏攞尾秣弟 _三 尾識帝尾識帝 _四 尾識多 _上 麼攞尾
오대	나.바예ㅇ 사라사라ㅇ ㄸ라사라.ㄸ라사라ㅇ 살바.바라나.미슈다니ㅇ 삼만다.가라.만나라.미술데ㅇ 미아데.미아데ㅇ 미아다.마라.미 _[45b]
진언	śodhani(185) kṣiṇi kṣiṇi(186) sarvāpāpa viśoddhe(187) mala vigate(188) tejavati(189) vajra vati(190) trailokya dhiṣṭite svāhā(191) sarvā tathāgata mudhāna bhi
한자	戌 _引 馱賴 _五 乞史 _[二合] 拏乞史 _[二合] 拏 _六 薩嚩 _引 播跋尾秣弟 _七 麼攞尾識帝 _八 帝惹嚩底 _九 嚩日囉 _[二合] 嚩底 _{十八} 怛賴 _[二合] 路枳也 _[二合] 地瑟吒 _[二合] 帝 _引 娑嚩 _[二合] 賀 _{引一} 薩嚩 _引 怛他 _去 識多 _上 馱 _引 曩鼻

오대	슈다니오 ㄴ시니.ㄴ시니오 살바바바.미술데오 마라.미아데오 데사바디오 바스라.바디오 드래로가.디씨데.스바하오 살바.다타아다.모다나.비 ^[46a]
진언	ṣikte svāhā(192) sarvābodhi satvā bhiṣikte svāhā(193) sarvā devatā bhiṣikte svāhā(194) sarvā tathāgata hṛdaya dhiṣṭita hṛdaye svāhā(195) sarvā tathāga
한자	色訖帝 ^[二合] 娑嚩 ^[二合] 賀 ^{引二} 薩嚩冒地薩怛嚩 ^[二合] 鼻色訖帝 ^[二合] 娑嚩 ^[二合] 賀 ^{引三} 薩嚩禰嚩哆鼻色訖帝 ^[二合] 娑嚩 ^[二合] 賀 ^{引四} 薩嚩怛他藥多 ^上 紇哩 ^[二合] 娜夜地瑟恥 ^[二合] 多紇哩 ^[二合] 乃曳娑嚩 ^[二合] 賀 ^{引五} 薩嚩 ^引 怛
오대	식 데.스바하오 살바모디.사드바.비식 데.스바하오 살바.네바다.비식 데.스바하오 살바.다타아다.호리나야.디씨다.호리나예.스바하오 살바.다 ^[46b]
진언	tā sarṁmaya siddhe svāhā(196) ĩnre ĩnra vati ĩnra myavalo kite svāhā(197) brahmerṁ brahma dyukṣite svāhā(198) viṣṇonamaḥ skṛte svāhā(199) mahe śvā
한자	他去藥跢三麼野悉弟娑嚩 ^[二合] 賀 ^{引六} 印捺嚩 ^[二合] 印捺囉 ^[二合] 嚩底印捺囉 ^[二合] 彌也 ^[二合] 嚩路枳帝娑嚩 ^[二合] 賀 ^{引七} 沒囉 ^[二合] 賀 ^引 銘 ^[二合] 沒囉 ^[二合] 賀 ^引 麼 ^[二合] 你庚 ^[二合] 乞史 ^[二合] 帝娑嚩 ^[二合] 賀 ^{引八} 尾瑟努 ^[二合] 曩莫塞訖哩 ^[三合] 帝 ^引 娑嚩 ^[二合] 賀 ^{引九} 麼系濕嚩 ^[二合]
오대	타아다.삼마야.신 데.스바하오 인느레.인느라.바디.인느라.마바로.기 데.스바하오 므라호명.므라호마.늑시 데.스바하오 밋노나막.쑤리 데.스바하오 마혜.시 ^하 ^[47a]
진언	ra mannita pūjitāye svāhā(200) vajra dhara vajra pāṇi malavīrya dhiṣṭite svāhā(201) dhṛtara ṣṭraya svāhā(202) virū ḍhakaya svāhā(203) virū paḥkṣa
한자	囉滿你多布爾跢 ^引 曳娑嚩 ^[二合] 賀 ^{引二百} 嚩日囉 ^[二合] 馱囉嚩日囉 ^[二合] 播拏麼囉尾哩也 ^[二合] 地瑟恥 ^[二合] 帝娑嚩 ^[二合] 賀 ^{引一} 地 ^하 ^[二合] 多 ^上 囉瑟吒囉 ^[三合] 野娑嚩 ^[二合] 賀 ^{引二} 尾嚕茶迦野娑嚩 ^[二合] 賀 ^{引三} 尾嚕播 ^引 乞灑 ^[二合]
오대	라.만니다.보시다예.스바하오 바스라.다라.바스라.바니.마라미라.디씨 데.스바하오 드리다라.쑤라야.스바하오 미로.다가야.스바하오 미로.박사 ^[47b]
진언	ya svāhā(204) veśra maṇāya svāhā(205) caturmahā rāanamaḥ skṛtāya svāhā(206) yaṁmāya svāhā(207) yaṁmā pūjita namaḥ skṛtāya svāhā(208) varuṇaya svā
한자	野娑嚩 ^[二合] 賀 ^{引四} 吠室囉 ^[二合] 麼拏野娑嚩 ^[二合] 賀 ^{引五} 拶咄麼賀囉惹曩莫塞訖哩 ^[三合] 跢 ^引 野娑嚩 ^[二合] 賀 ^{引六} 琰麼野娑嚩 ^[二合] 賀 ^{引七} 琰麼布諾哆曩莫塞訖哩 ^[三合] 跢野娑嚩 ^[二合] 賀 ^{引八} 嚩嚕拏 ^上 野娑嚩 ^[二合]
오대	야.스바하오 베시라.마나야.스바하오 자돌마하.라사나막.쑤리다야.스바하오 염마야.스바하오 염마.보시다.나막.쑤리다야.스바하오 바로나야.스바 ^[48a]
진언	hā(209) marūtāya svāhā(210) mahā marūtāya svāhā (211) agṇaye svāhā(212) nagavilo kitāya svāhā(213) devaga ṇebhyaḥ svāhā(214) nāgaga debhyaḥ svāhā(215) yaḥkṣa
한자	賀 ^{引九} 麼嚕跢野娑嚩 ^[二合] 賀 ^{引十} 麼賀麼嚕跢野娑嚩 ^[二合] 賀 ^{引一} 阿疋曩 ^[二合] 曳娑嚩 ^[二合] 賀 ^{引二} 曩誡尾路枳跢 ^引 野娑嚩 ^[二合] 賀 ^{引三} 禰嚩誡妳毗藥 ^[二合] 娑嚩 ^[二合] 賀 ^{引四} 曩誡誡妳毗藥 ^[二合] 娑嚩 ^[二合] 賀 ^{引五} 藥乞灑 ^[二合]
오대	하오 마로다야.스바하오 마하.마로다야.스바하오 아으나예.스바하오 나아미로.기다야.스바하오 네바아.네박.스바하오 나아아.네박.스바하오 약사 ^[48b]
진언	ga debhyaḥ svāhā(216) rakṣasaga debhyaḥ svāhā(217) gandharvāga debhyaḥ svāhā(218) asulaga ṇebhyaḥ svāhā(219) garuṇaga ṇebhyaḥ svāhā(220) kinnaraga debhyaḥ svāhā(221)

한자	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六 囉乞灑 _[二合] 娑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七 火獻 達嚩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八 阿蘇羅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九 誡嚕拏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二十} 緊曩囉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一
오대	아.네박.스바하 _ㅇ 락사사아.네박.스바하 _ㅇ 안달바아.네박.스바하 _ㅇ 아소라아.네박.스바하 _ㅇ 아로나아.네박.스바하 _ㅇ 긴나라아.네박.스바하 _ㅇ [49a]
진언	mahura gaga debhyaḥ svāhā(222) maṇuṣaibhyaḥ svāhā(223) amaṇu ṣaibhyaḥ svāhā(224) sarvāgra hebhyaḥ svāhā(225) sarvā bhutebhyaḥ svāhā(226) pṛtebhyaḥ svāhā(227) piśācebhyaḥ
한자	麼護囉誡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二 麼努囉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三 阿麼努囉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四 薩嚩屹囉 _[二合] 系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五 薩嚩 _[二合] 部帝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六 必哩 _[二合] 帝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七 比舍祭毗藥 _[二合]
오대	마호라.아아.네박.스바하 _ㅇ 마노새박.스바하 _ㅇ 아마노.새박.스바하 _ㅇ 살바으라.혜박.스바하 _ㅇ 살바.보데박.스바하 _ㅇ 브리데박.스바하 _ㅇ 비샤제박 _ㅇ [49b]
진언	svāhā(228) apasma rebhyaḥ svāhā(229) kumbhāṇdebhyaḥ svāhā(230) om dhurūdhurū svāhā(231) om turūturū svāhā(232) om murūmurū svāhā(233) hanahana sarvā śatrūnām
한자	娑嚩 _[二合] 賀 _八 阿 _[上] 跛娑麼 _[二合] 嚩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九 矩昧妳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 _{三十} 唵 _[二合] 度嚕度嚕娑嚩 _[二合] 賀 _一 唵 _[二合] 靺嚕靺嚕娑嚩 _[二合] 賀 _二 唵 _[二合] 母嚕母嚕娑嚩 _[二合] 賀 _三 賀曩賀曩薩嚩設咄嚕 _[二合] 喃
오대	스바하 _ㅇ 아밧마.레박.스바하 _ㅇ 구반네박.스바하 _ㅇ 움.도로도로.스바하 _ㅇ 움.도로도로.스바하 _ㅇ 움.모로모로.스바하 _ㅇ 하나하나.살바.샤드로남 _ㅇ [50a]
진언	svāhā(224) dahhadaḥha sarvaduṣṭa pra duṣṭānām svāhā(225) pacapaca sarvāpra tyarthika(226) pratyami trānām yemama svāhā(227) ahe teṣṇa(228) teṣām sarve
한자	娑嚩 _[二合] 賀 _四 娜賀娜賀薩嚩訥瑟吒 _[二合] 鉢囉 _[二合] 訥瑟吒 _[二合] 喃娑嚩 _[二合] 賀 _五 跛左跛左薩嚩鉢囉 _[二合] 室別迦 _[二合] 鉢囉 _[二合] 底也弭 _[二合] 怛囉 _[二合] 喃 _[二合] 曳麼麼娑嚩 _[二合] 賀 _七 阿 _[上] 呬 _[二合] 帝 _[二合] 史拏 _[二合] 帝 _[二合] 鈇 _[二合] 薩吠
오대	스바하 _ㅇ 낙하낙하.살바노짜.브라.노짜남.스바하 _ㅇ 바자바자.살바브라.딜턱가.브라다미.드라남.예마마.스바하 _ㅇ 아혜.테시나 _ㅇ 데삼.살베 _[50b]
진언	śām śariram(229) jvalaya duṣṭa cittānām svāhā(240) jvali tāya svāhā(241) pra jvali tāya svāhā(242) diptā jvalaya svāhā(243) sāmmanantā jvalāya svāhā(244) māṇi bha
한자	鈇 _[二合] 設哩嚩 _[二合] 入嚩 _[二合] 囉野訥瑟吒 _[二合] 唧踰喃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四十} 入嚩 _[二合] 里踰野娑嚩 _[二合] 賀 _一 鉢囉 _[二合] 入嚩 _[二合] 里踰野娑嚩 _[二合] 賀 _二 捻跛踰 _[二合] 入嚩 _[二合] 囉野娑嚩 _[二合] 賀 _三 三滿哆 _[二合] 入嚩 _[二合] 囉野娑嚩 _[二合] 賀 _四 麼拏跋
오대	삼.샤리람 _ㅇ 스바라야.노짜.길다남.스바하 _ㅇ 스바리.다야.스바하 _ㅇ 브라.스바리.다야.스바하 _ㅇ 님다.스바라야.스바하 _ㅇ 삼만다.스바라야.스바하 _ㅇ 마니.바 _[51a]
진언	draya svāhā(245) purṇa bhadraya svāhā(246) mahā kālaya svāhā(247) māṭṛ gaṇāya svāhā(248) yaḥkṣiṇām svāhā(249) rākṣasiṇām svāhā(250) ākāśa māstrinām svāhā(251)
한자	捺囉 _[二合] 野娑嚩 _[二合] 賀 _五 布囉拏 _[二合] 跛捺囉 _[二合] 野娑嚩 _[二合] 賀 _六 麼賀迦囉野娑嚩 _[二合] 賀 _七 麼 _[二合] 底哩 _[二合] 誡拏野娑嚩 _[二合] 賀 _八 藥乞史 _[二合] 拏喃娑嚩 _[二合] 賀 _九 囉乞灑 _[二合] 泉喃娑嚩 _[二合] 賀 _{五十} 阿迦 _[二合] 捨麼 _[二合] 底哩 _[二合] 喃娑嚩 _[二合] 賀 _一

오대	느라야.스바하ㅇ 불나.바느라야.스바하ㅇ 마하.가라야.스바하ㅇ 마드리.아나야.스바하ㅇ 약시니남.스바하ㅇ 락사시남.스바하ㅇ 아가샤.마드리남.스바하ㅇ _[51b]
진언	sāṁmudra vāsininām svāhā(252) rātri cārānām svāhā(253) divasa carānām svāhā(254) trisāntya carānām svāhā(255) velā carānām svāhā(256) avela carānām
한자	三去母捺囉 _[二合] 囉泉顫喃娑囉 _[二合] 賀二 囉 _[二合] 底哩 _[二合] 左囉喃娑囉 _[二合] 賀三 你囉娑 _[二合] 左囉喃娑囉 _[二合] 賀四 底哩 _[二合] 散地野 _[二合] 左囉 _[二合] 喃娑囉 _[二合] 賀五 吠邏左囉 _[二合] 喃娑囉 _[二合] 賀六 阿 _[二合] 吠邏左囉 _[二合] 喃
오대	삼모느라.바시니남.스바하ㅇ 라드리.자라남.스바하ㅇ 니바사.자라남.스바하ㅇ 드리산다.자라남.스바하ㅇ 베라.자라남.스바하ㅇ 아베라.자라남 _[52a]
진언	svāhā(257) garbhāha rebhyaḥ svāhā(258) garbhā santāraṇi svāhā(259) hurūhurū svāhā(260) om svāhā(261) svaḥ svāhā(262) bhuḥ svāhā(263) bhuvāḥ svāhā(264) om bhurbhuvāḥ svaḥ svāhā(265) ciṭi
한자	娑囉 _[二合] 賀七 藥婆賀囉毗藥 _[二合] 娑囉 _[二合] 賀八 藥婆散踰囉拏娑囉 _[二合] 賀九 護嚕護嚕娑囉 _[二合] 賀六十 唵娑囉 _[二合] 賀一 娑囉 _[二合] 娑囉 _[二合] 賀二 僕娑囉 _[二合] 賀三 部囉 _[二合] 娑囉 _[二合] 賀四 唵部囉部 _[二合] 囉 _[二合] 娑囉 _[二合] 賀五 唧置
오대	스바하ㅇ 알바하.레박.스바하ㅇ 알바.산다라니.스바하ㅇ 호로호로.스바하ㅇ 움.스바하ㅇ 싹.스바하ㅇ 복.스바하ㅇ 보박.스바하ㅇ 움.불보박.싹.스바하ㅇ 지티 _[52b]
진언	ciṭi svāhā(266) viṭiviṭi svāhā(267) dharāṇi dharāṇi svāhā(268) agniye svāhā(269) tejovapu svāhā(270) ciriciri svāhā(271) sirisiri svāhā(272) buddhyabuddhya
한자	唧置娑囉 _[二合] 賀六 尾置尾置娑囉 _[二合] 賀七 駄囉拏駄囉拏娑囉 _[二合] 賀八 阿疋顫 _[二合] 曳娑囉 _[二合] 賀九 帝孺囉補娑囉 _[二合] 賀七十 唧哩唧哩娑囉 _[二合] 賀一 悉哩悉哩娑囉 _[二合] 賀二 沒地野 _[二合] 沒地野 _[二合]
오대	지티.스바하ㅇ 미티미티.스바하ㅇ 다라니.다라니.스바하ㅇ 아으니예.스바하ㅇ 데슈바보.스바하ㅇ 지리지리.스바하ㅇ 시리시리.스바하ㅇ 몬다몬다 _[53a]
진언	svāhā(273) siddhyasiddhya svāhā(274) maṇḍala siddhe svāhā(275) maṇḍala mandhe svāhā(276) sīmā mandhani svāhā(277) sarvā śatrūnām svāhā(278) jambhajambha svāhā(279) stambhaya
한자	娑囉 _[二合] 賀三 悉地野 _[二合] 悉地野 _[二合] 娑囉 _[二合] 賀四 滿拏囉悉弟娑囉 _[二合] 賀五 滿拏 _[二合] 囉滿弟娑囉 _[二合] 賀六 泉麼去滿駄顫娑囉 _[二合] 賀七 薩囉 _[二合] 設咄嚕 _[二合] 喃娑囉 _[二合] 賀八 咎婆咎婆娑囉 _[二合] 賀九 娑膽 _[二合] 婆 _[二合] 上野
오대	스바하ㅇ 신다신다.스바하ㅇ 만나라.신데.스바하ㅇ 만나라.만데.스바하ㅇ 시마.만다니.스바하ㅇ 살바.샤드로남.스바하ㅇ 삼바삼바.스바하ㅇ 째마야 _[53b]
진언	stamdhaya svāhā(280) chindachinda svāhā(281) bhindabhinda svāhā(282) bhañja bhañja svāhā(283) mandhamandha svāhā(284) mauhāya mauhaya svāhā(285) maṇi viśoddhe svāhā(286) su
한자	娑膽 _[二合] 娑野娑囉 _[二合] 賀八十 嚩去娜嚩娜娑囉 _[二合] 賀一 枇娜枇娜娑囉 _[二合] 賀二 畔惹畔惹娑囉 _[二合] 賀三 滿駄滿駄娑囉 _[二合] 賀四 謨賀野謨賀野娑囉 _[二合] 賀五 麼拏尾秣弟娑囉 _[二合] 賀六 素
오대	쌌마야.스바하ㅇ 친나친나.스바하ㅇ 빈나빈나.스바하ㅇ 반사반사.스바하ㅇ 만다만다.스바하ㅇ 모하야.모하야.스바하ㅇ 마니.미술데.스바하ㅇ 술 _[54a]
진언	ryesurye surya viśoddhe viśudhaṇi svāhā(287) cadre sucadre purna cadre svāhā(288) grahebhyaḥ svāhā(289) naḥkṣa trebhyaḥ svāhā(290) śive

	svāhā[291] śanti svāhā(292) svaḥ
한자	哩曳 _[二合] 素哩曳 _[二合] 素哩曳 _[二合] 尾梳弟尾戌馱顛娑嚩 _[二合] 賀七 讚捺嚩 _[二合] 素讚捺嚩 _[二合] 布羅娜 _[二合] 讚捺嚩 _[二合] 娑嚩 _[二合] 賀八 疙囉 _[二合] 係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九 諾乞灑 _[二合] 怛嚩 _[二合] 毗藥 _[二合] 娑嚩 _[二合] 賀九十 始吠娑嚩 _[二合] 賀一 扇底娑嚩 _[二合] 賀二 娑嚩 _[二合]
오대	예술예.술야.미술데.미슈다니.스바하ㅇ 잔느레.소잔느레.불나.잔느레.스바하ㅇ 으라혜박.스바하ㅇ 낙사.드레박.스바하ㅇ 시베.스바하ㅇ 선디.스바하ㅇ 썩 _[54b]
진언	styayani svāhā(293) śivamkari(294) śintikari(295) puṣṭikari(296) mala mardhani svāhā(297) srikari svāhā(298) śrīya mardhani svāhā(299) śrīya jvalani svāhā(300) namau
한자	娑底也 _[三合] 野顛娑嚩 _[二合] 賀三 始鍔迦哩 _四 扇底迦哩 _五 補瑟置 _[二合] 迦哩 _六 麼囉沫馱顛娑嚩 _[二合] 賀七 室哩 _[二合] 迦哩娑嚩 _[二合] 賀八 室哩 _[二合] 野沫馱顛娑嚩 _[二合] 賀九 室哩 _[二合] 野入嚩 _[二合] 囉顛娑嚩 _[二合] 賀三百 曩謨
오대	짜야니.스바하ㅇ 시맘가리ㅇ 선디가리ㅇ 못티가리ㅇ 마라.말디니.스바하ㅇ 시리가리.스바하ㅇ 시리야.말다니.스바하ㅇ 시리야.스바라니.스바하ㅇ 나모 _[55a]
진언	ci svāhā(301) marūci svāhā(302) vegavati svāhā
한자	些娑嚩 _[二合] 賀一 麼嚩些娑嚩 _[二合] 賀二 吠誡嚩底娑嚩 _[二合] 賀
오대	지.스바하ㅇ 마로지.스바하ㅇ 베아바디.스바하 _[55b]

4) 대불정다라니

一切如來心眞言

진언	om(1) sarvā tathāgatānām murti(2) pravara vigata bhaya(3) śamaya svameri(4) bhāgavati(5) sarvā pāpe
한자	唵 _一 薩嚩怛他藥多喃沒唎底 _[二合] 鉢囉 _[二合] 嚩囉尾誡多婆野 _三 捨麼野娑嚩 _[二合] 銘 _四 婆誡嚩底 _五 薩嚩播閉毗
오대	옴ㅇ 살바.다타아다남.몰디ㅇ 브라바라.미아다.바야ㅇ 샤마야.스바명ㅇ 바아바디ㅇ 살바.바베 _[55b]
진언	bhyaḥ(6) svasti(7) rbhavatu(8) munimuni vimuni vimuni(9) care calani(10) bhāya vigate(11) bhāya hāraṇi(12) bodhibodhi(13) bodhaya bodhaya(14) buddhiri buddhiri(15) sarvā tathāgatā(16) hṛdaya juṣṭai svāhā
한자	藥 _[二合] 六沙嚩 _[二合] 娑底 _[二合] 七 囉婆 _[二合] 嚩觀 _八 母你母你尾母你尾母你 _九 左嚩左囉顛 _十 婆 _去 野尾誡帝 _一 婆 _去 野賀囉拏 _二 冒地冒地 _三 冒馱野冒馱野 _四 沒地里沒地哩 _五 薩嚩怛他藥多 _{引六} 紇哩 _[二合] 乃野足瑟猋 _[二合] 娑嚩 _[二合] 賀
오대	박ㅇ 싸썰ㅇ 바바도ㅇ 모니모니.미모니.미모니ㅇ 자레.자라니ㅇ 바야.미아테ㅇ 바야.하라니ㅇ 모디모디ㅇ 모다야.모다야ㅇ 몰디리.몰디리ㅇ 살바.다타아다ㅇ 히리나야.쇼썩.스바하 _[56a-56b]

一切如來心印眞言

진언	om(1) vajra vati(2) vajra pra tiṣṭita śuddhe(3) sarvā tathāgata mudra dhiṣṭana dhiṣṭite(4) mahā mudre svāhā
한자	唵 _一 嚩日囉 _[二合] 嚩底 _二 嚩日囉 _[二合] 鉢囉 _[二合] 底瑟耻 _[二合] 多梳 _三 薩嚩怛他誡多母捺囉 _[二合] 地瑟妬 _[二合] 曩地瑟耻 _[二合] 帝 _四 麼賀母坦嚩 _[二合] 娑嚩 _[二合] 賀
오대	옴ㅇ 바스라.바디ㅇ 바스라.브라.디썩다.술데ㅇ 살바.다타아다.모느라.디짜나.디썩데ㅇ 마하.모느레.스바하 _[56b-57a]

168) 이 ‘六’는 있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류인 듯하다.

一切如來灌頂眞言

진언	om(1) munimuni(2) munivare(3) abhi śimcatumārṇ(4) sarvā tathāgata(5) sarvāvidya bhiṣaikai(6) mahā
한자	唵 _一 母顚母顚 _二 母顚嚩嚩 _三 阿鼻誑左觀鈴 _{引四} 薩嚩 _引 怛他葉多 _五 薩嚩 _引 尾你也 _{二合} 鼻嚩闍 _六 麼賀
오대	옴 모니모니 모니바례 오 아비.선자도맘 살바.다타아다 살바미냐.비새 게 오 마하 _{오[57a]}
진언	vājraka vaca(7) budra mudritai(8) sarvā tathāgatā hṛdaya(9) dhiṣṭita vajre(10) svāhā(11)
한자	嚩日囉 _{二合} 迦嚩左 _七 母捺囉 _{二合} 母捺哩 _{二合} 帶 _八 薩嚩 _引 怛他誡多 _引 紇哩 _{二合} 乃野 _九 地瑟耻 _{二合} 多嚩日囉 _{二合} 娑嚩 _{二合} 賀 _{十一}
오대	바스라가.바자 오 모느라.모느리디 오 살바.다타아다.호리나야 디제다.바스례 오 스바하 _[57b]

一切如來灌頂印眞言

진언	om(1) amṛta vare(2) varavara(3) pravara viśoddhe(4) humhum(5) phatṭphaṭ(6) svāhā
한자	唵 _一 阿蜜哩 _{二合} 多嚩嚩 _二 嚩囉嚩囉 _三 鉢囉 _{二合} 嚩囉尾秣弟 _四 咩咩 _五 發吒發吒 _六 娑嚩 _{二合} 賀
오대	옴 아므리다.바례 오 바라바라 오 브라바라.미순데 오 훌훌 오 바탁바탁 오 스바하 _[57b-58a]

一切如來結界眞言

진언	om(1) amṛta vilokini(2) garbhā simraḥkṣaṇi(3) akarsaṇi(4) humhum(5) phatṭphaṭ(6) svāhā(7)
한자	唵 _一 阿蜜哩 _{二合} 多尾路枳顚 _二 葉婆僧囉乞灑 _{二合} 拈 _三 阿羯灑拈 _四 咩咩 _五 發吒發吒 _六 娑嚩 _{二合} 賀 _七
오대	옴 아므리다.미로기니 오 알바.싱락사니 오 아갈사니 오 훌훌 오 바탁바탁 오 스바하 _[58a-58b]

一切如來中心眞言

진언	om(1) vimale(2) jayavare(3) amṛte(4) humhumhumhum(5) phatṭphaṭphaṭphaṭ(6) svāhā
한자	唵 _一 尾麼黎 _二 惹野嚩嚩 _三 阿蜜哩 _{二合} 帝 _四 咩咩咩咩 _五 發吒發吒發吒發吒 _六 娑嚩 _{二合} 賀
오대	옴 미마례 오 사야바례 오 아므리데 오 훌훌훌훌 오 바탁바탁.바탁바탁 스바하 _[58b]

一切如來隨心眞言

진언	om(1) bhārabhara(2) sambhara sambhara(3) idriya viśudhani(4) humhum(5) rūṛūcale(6) svāhā(7)
한자	唵 _一 跋囉跋囉 _二 三婆囉三婆囉 _三 印捺哩 _{二合} 野尾戌馱顚 _四 咩咩 _五 嚕嚕左黎 _六 娑嚩 _{二合} 賀 _七
오대	옴 바라바라 오 삼바라.삼바라 오 인느리야.미슈다니 오 훌훌 로로자례 오 스바하 _[59a]

大佛頂陀羅尼

진언	namosarvā tathāgatā(1) suhatāya ārhate(2) sammyakṣāmbuddhāya(3) namaḥ sarvā tathāgatā(4) ku
한자	曩謨 _引 薩囉嚩 _{二合} 怛他 _{去引} 葉跢 _{引一} 素誡跢野阿囉曷 _{二合} 帝 _二 三 _去 藐三沒馱野 _三 曩莫 _入 薩囉嚩 _{二合} 怛他 _{去引} 誡跢 _{引四} 矩

오대	나무살바.다타아다 ^ㅇ 송아다야.알하데 ^ㅇ 삼막삼몬다야 ^ㅇ 나막살바.다타아다 ^ㅇ 구 ^[61a]
진언	ti uṣṇīṣārṇ(5) namaḥsarvābuddhā(6) bodhisatvedhyaḥ(7) namaḥsaptānārṇ(8) sārṇmyakṣārṇbuddhā koṭinārṇ(9) saśravaka siṁghanārṇ(10) namolokear hatārṇ(11) namaḥsrau
한자	致塢瑟拏 ^{[二合] 鈿^{引五} 曩莫薩囉嚩^{[二合] 沒馱^{引六} 冒地薩怛呬^{[二合] 毗藥^{[二合] 七}} 曩莫入 颯鉢路^{[二合] 引南^{引八} 三藐三沒馱^{引九} 句致南^{引九} 薩室囉^{[二合] 引嚩迦僧伽南^{引十}} 曩謨路^{引計} 阿^上 囉曷^{[二合] 擔^{引一} 曩莫素嚕^[二合]}}}}
오대	티.오씨삼 ^ㅇ 나막살바몬다 ^ㅇ 모디사드베막 ^ㅇ 나막삼다남 ^ㅇ 삼막삼몬다.구티남 ^ㅇ 사시라바가.싱가남 ^ㅇ 나무루게알.하담 ^ㅇ 나막스로 ^[61b]
진언	tā pannānārṇ(12) namaḥskṛ dāgaminārṇ(13) namoanāgāminārṇ(14) namoloke sārṇmyakgatānārṇ(15) namosārṇmyak pratipannānārṇ(16) namodevarṣinārṇ(17) namaḥsi
한자	多 ^引 半曩南 ^{引二} 曩莫塞訖哩 ^{[三合] 娜^引 誡弭南^{引三} 曩謨阿^上 曩誡^引 弭南^{引四}} 曩謨路 ^{引計} 三藐藥多 ^{引南^{引五}} 曩謨三藐鉢囉 ^{[二合] 底半曩南^{引六}} 曩謨祢囉哩史 ^{[二合] 喃^{引七} 曩莫悉}
오대	다.반나남 ^ㅇ 나막쑈리.나아미남 ^ㅇ 나무아나아미남 ^ㅇ 나무로게.삼막아다남 ^ㅇ 나무삼막.브라디반나남 ^ㅇ 나무네발시남 ^ㅇ 나막싯 ^[62a]
진언	ddhāvidyā dhararṣinārṇ(18) śāpānu graha(19) samarthānārṇ(20) namobra hmaṇi(21) namoīnraya(22) namobhāgavate(23) rūdrāya(24) omāpati sahaiyāya(25) namo
한자	馱 ^引 尾你也 ^{[二合] 馱囉哩史^{[二合] 喃^{引八} 舍^引 播弩^鼻 薩囉^{[二合] 賀^九 娑^上 沫囉他^{[二合] 南^{引二十}} 曩謨沒囉^{[二合] 憾麼^{[二合] 祢^鼻 曩謨印捺囉^{[二合] 引野^二 曩謨婆誡囉帝^{引三}} 嚕捺囉^{[二合] 引野^四 塢^上 麼^引 鉢底娑^上 呬^引 夜^{引五} 野^五 曩謨}}}}}}
오대	다미나.다랄시남 ^ㅇ 사바노.알하 ^ㅇ 사말타남 ^ㅇ 나무므라.흐마네 ^ㅇ 나무인느라야 ^ㅇ 나무바아바데 ^ㅇ 로느라야 ^ㅇ 오마바디.사혜야야 ^ㅇ 나무 ^[62b]
진언	bhāgavate(26) nārāyaṇḍāya(27) pañcamaha mudrā(28) namaḥskṛtāya(29) namobhāgavate(30) mahākālāya(31) tṛpuranagara(32) vidrā pāṇakārāya(33) a
한자	婆去 誡囉帝 ^六 曩囉 ^引 演 ^上 拏野 ^七 半左摩賀 ^引 母捺囉 ^{[二合] 引八} 曩莫入 塞訖哩 ^{[三合] 引野^九 曩謨婆去 誡囉帝^{三十} 摩賀迦^引 囉野^一 底哩^{[二合] 補囉曩誡囉^二 尾捺囉^{[二合] 引跛^引 弩^鼻 迦^引 囉野^三 阿}}}
오대	바아바데 ^ㅇ 나라연나야 ^ㅇ 반자마하.모느라 ^ㅇ 나막쑈리다야 ^ㅇ 나무바아바데 ^ㅇ 마하가라야 ^ㅇ 드리보라.나아라 ^ㅇ 미느라.바나가라야 ^ㅇ 아 ^[63a]
진언	dhi muktāka(34) śmāśana(35) vāsineya(36) mātṛgaṇa(37) namaḥ skṛtāya(38) namobhagavate(39) tathāgata kolāya(40) namobhāgavate(41) padma kolāya(42) na
한자	地穆訖 ^{[二合] 得多^{[二合] 引迦^四 濕麼^{[二合] 引舍曩^五 嚩^引 泉寧野^六 麼^引 底哩^{[二合] 誡弩^七} 曩麼塞訖哩^{[三合] 引野^八 曩謨婆去 誡囉帝^{引九} 怛他去^引 藥多矩囉^{引野^{四十}} 曩謨婆去 誡囉帝^{引一} 鉢娜麼^{[三合] 矩囉^{引野^二} 曩}}}}}
오대	디.목다가 ^ㅇ 스마샤나 ^ㅇ 바시네야 ^ㅇ 마드리야나 ^ㅇ 나막쑈리다야 ^ㅇ 나무바아바데 ^ㅇ 다타아다.구라야 ^ㅇ 나무바아바데 ^ㅇ 바느마.구라야 ^ㅇ 나 ^[63b]
진언	mobhāgavate(43) vajrakolāya(44) namobhāgavate(45) manikolāya(46) namobhāgavate(47) garjakolāya(48) namobhāgavate(49) dṛḍhā śurasena(50) pra
한자	謨婆去 誡囉帝 ^{引三} 囉日囉 ^{[二合] 矩囉^{引野^四} 曩謨婆去 誡囉帝^{引五} 麼拏矩囉^{引野^六}}

	曩謨婆 誡嚩帝 ^{引七} 藥惹矩攞 ^{引八} 曩謨婆 誡嚩帝 ^{引九} 你哩 ^{二合} 茶 ^去 戊 ^引 囉細曩 ^{五十} 鉢囉 ^{二合}
오대	무바아바데 [○] 바스라구라야 [○] 나무바아바데 [○] 마니구라야 [○] 나무바아바데 [○] 알사구라야 [○] 나무바아바데 [○] 느리다.슈라세나 [○] ㅼ라 ^[64a]
진언	hara nārājāya(51) tathāgatāya arhate(52) sāmmyakṣāmbuddhāya(53) namobhāgavate(54) amitābhāya(55) tathāgatāya arhate(56) sāmmyakṣāmbuddhāya(57)
한자	賀囉弩囉 ^{引上} 惹 ^{引野} 怛他 ^去 藥哆野 ^上 囉曷 ^{二合} 帝 ^{引二} 三藐三沒駄 ^{引野三} 曩謨婆 誡嚩帝 ^{引四} 阿彌跢 ^引 婆 ^{去野五} 怛他藥哆 ^{引野上} 囉曷 ^{帝引六} 三去 藐三沒駄 ^{引野七}
오대	하라.나라사야 [○] 다타아다야.알하데 [○] 삼막삼몬다야 [○] 나무바아바데 [○] 아미다바야 [○] 다타아다야.알하데 [○] 삼막삼몬다야 [○] ㅼ라 ^[64b]
진언	namobhāgavate(58) akṣobhyāya(59) tathāgatāya āhate(60) sāmmyakṣāmbuddhāya(61) namobhāgavate(62) bhaisajyāgurū(63) vedurya prabhārājāya(64) tathā
한자	曩謨婆 誡嚩帝 ^{引八} 阿 ^上 屈葛 ^{二合} 毗夜 ^{二合} 野 ^九 怛他 ^去 誡哆 ^{引野上} 囉曷 ^{二合} 帝 ^{引六十} 三藐三沒駄 ^{引野一} 曩謨婆 誡嚩帝 ^{引二} 佩殺紫野 ^{二合} 嚩 ^上 嚩 ^三 吠叟哩也 ^{二合} 鉢囉 ^{二合} 婆 ^去 囉 ^{引上} 惹 ^{引野四} 怛他 ^去
오대	나무바아바데 [○] 악수바야 [○] 다타아다야.알하데 [○] 삼막삼몬다야 [○] 나무바아바데 [○] 배사자우로 [○] 베누랴.ㅼ라바라사야 [○] 다타 ^[65a]
진언	gatāya arhate(65) sāmmyakṣāmbuddhāya(66) namobhāgavate(67) sāṃpūspaitā(68) sāredrarājāya(69) tathāgatāya arhate(70) sāmmyakṣāmbuddhāya(71) namaubha
한자	藥哆 ^{引野上} 囉曷 ^{二合} 帝 ^{引五} 三藐三沒駄 ^{引野六} 曩謨婆 誡嚩帝 ^{引七} 三去 補澀閉 ^{二合} 多 ^{引八} 娑 ^去 嚩 ^引 捺囉 ^{二合} 囉 ^上 惹 ^{引野九} 怛他藥哆 ^{引野上} 囉曷 ^{二合} 帝 ^{引七十} 三藐三沒駄 ^{引野一} 曩謨 ^{引婆去}
오대	아다야.알하데 [○] 삼막삼몬다야 [○] 나무바아바데 [○] 삼보스베다 [○] 사례느라라사야 [○] 다타아다야.알하데 [○] 삼막삼몬다야 [○] 나무바 ^[65b]
진언	gavate(72) śakyamunāye(73) tathāgatāya arhate(74) sāmmyakṣāmbuddhāya(75) namaubhāgavate(76) ratna kosuma(77) keturājāya(78) tathāgatāya arha
한자	誡嚩帝 ^{引二} 舍枳野 ^{二合} 母曩 ^引 曳 ^{引三} 怛他 ^去 藥哆 ^{引野上} 囉曷 ^{二合} 帝 ^{引四} 三藐三沒駄 ^{引野五} 曩謨婆 誡嚩帝 ^{引六} 囉 ^{二合} 怛曩 ^{二合} 矩素麼 ^七 計覩囉 ^{引上} 惹 ^{引野八} 怛他 ^去 藥哆 ^{引野上} 囉曷 ^{二合}
오대	아바데 [○] 샤가모나예 [○] 다타아다야.알하데 [○] 삼막삼몬다야 [○] 나무바아바데 [○] 라드나.구소마 [○] 계도라사야 [○] 다타아다야.알하 ^[66a]
진언	te(79) sāmmyakṣāmbuddhāya(80) tesāṃnamah skṛtvā(81) imāmbhāgavate(82) stathāga tuṣṇisām(83) mahāśītata patraṃ(84) namāaparājitaṃ(85) pratyamgirāṃ(86) sarvā
한자	帝 ^{引九} 三藐三沒駄 ^{引野八十} 帝 ^引 鉢 ^引 曩莫塞訖哩 ^{三合} 怛囉 ^{二合} 伊 ^上 舍 ^引 婆 ^去 誡嚩帝 ^{引二} 娑怛 ^{二合} 他 ^去 藥覩瑟拏 ^{二合} 鉢 ^{引三} 摩賀 ^引 悉跢多 ^上 鉢怛嚩 ^{二合} 曩麼阿跛囉爾擔 ^{引五} 鉢囉 ^{二合} 底孕 ^{二合} 擬嚩 ^{引六} 薩囉囉 ^{二合}
오대	데 [○] 삼막삼몬다야 [○] 데삼나막.ㅼ리드바 [○] 이맘바아바데 [○] 짜타아.도스니삼 [○] 마하시다다.바드람 [○] 나마아바라시담 [○] ㅼ라덩이람 [○] 살바 ^[66b]
진언	bhūta graha(87) nigrāha karaṇīm(88) paravidyā chedanīm(89) akāla(90) mṛtyo(91) paritrā ṇakarīm(92) sarvāmandha(93) namokṣaṇīm(94)

	sarvāduṣṭa dusvaḥpna(95) niva
한자	部多藥囉 ^{[二合]賀七} 顫藥囉 ^[二合] 賀迦囉泥淫 ^{[二合]引八} 跛囉尾你也 ^{[二合]砌引} 娜顫寅 ^{[二合]引九} 阿迦囉 ^{九十} 沒哩 ^{[二合]底庾^{[二合]一}} 跛哩怛囉 ^{[二合]拏鼻} 迦哩寅 ^{[二合]二} 薩囉嚩 ^[二合] 滿駄 ^三 曩謨乞灑 ^[二合] 泥淫 ^{[二合]引四} 薩囉嚩 ^{[二合]引} 訥瑟吒 ^[二合] 耨娑嚩 ^{[二合]入} 鉢難 ^{[二合]五} 顫嚩
오대	보다.으라하.니으라하.가라님.바라미냐.체나닌.아가라.므리듀. 바리드라.나가린.살바만다.나무꺾사님.살바노짜.늑쌈나.니바 ^[67a]
진언	raṇīm(96) catura śitinām(97) grahasahasrānām(98) vidhvaṃsa nakarīm(99) aṣṭaviṃ śitinām(100) nakṣatrānām(101) prasa danakarīm(102) aṣṭānām mahā grahānām(103) vi
한자	囉泥淫 ^{[二合]六} 拶覩囉施 ^引 底南 ^{引七} 乞囉 ^[二合] 賀娑 ^上 賀娑囉 ^{[二合]引} 喃 ^{引八} 尾駄網 ^上 娑 ^上 曩迦哩寅 ^{引九} 阿瑟吒 ^[二合] 尾孕 ^[二合] 試底南 ^{引一百} 諾乞察 ^[二合] 怛囉 ^{[二合]引} 喃 ^{引一} 鉢囉 ^[二合] 娑 ^引 娜曩迦哩寅 ^{[二合]引二} 阿 ^上 瑟吒 ^[二合] 喃摩賀藥囉 ^{[二合]賀引} 喃 ^{引三} 尾
오대	라님.자도라.시디남.으라하사하스라님.미드망사.나가린.아싸핑.시디남. 낙사드라님.브라사.나나가린.아싸남.마하으라하남.미 ^[67b]
진언	dhvaṃsa nakarīm(104) sarvāśatrū(105) nivārāṇīm(106) ghorām(107) dusva pananāṅca(108) nāśaṇīm(109) viśaśa strāagno otāraṇīm(110) aparājitām(111) mahāghorām(112) mahā
한자	駄網 ^[二合] 娑 ^上 曩迦哩寅 ^{[二合]引四} 薩囉嚩 ^[二合] 設咄嚩 ^{[二合]五} 顫嚩囉 ^引 泥淫 ^{[二合]六} 具嚩 ^{引七} 耨娑嚩 ^[二合] 跛曩難者 ^{上八} 曩設顫寅 ^{[二合]引九} 尾灑設薩怛囉 ^[三合] 阿 ^上 儼収鄒跢 ^引 囉泥淫 ^{[二合]引十} 阿 ^上 跛囉 ^引 爾擔 ^{引一} 摩賀 ^引 具嚩 ^二 摩賀
오대	드망사.나가린.살바샤드로.니바라님.구람.노췌.바나난자.나샤닌. 미샤샤.쯔라야으뉴.오다라님.아바라시담.마하구람.마하 ^[68a]
진언	marām(113) mahācaṇḍam(114) mahādiptām(115) mahātejaṃ(116) mahāśvetām(117) mahājvārām(118) mahāmālā(119) paṇḍaravā sini(120) āryatārām(121) bhrmkotīm(122) caiva vijaya(123) va
한자	摩囉 ^三 摩賀 ^引 贊喃 ^{引四} 摩賀 ^引 捻鉢擔 ^{[二合]五} 摩賀 ^引 帝咎 ^{引六} 摩賀 ^引 濕吠 ^{[二合]擔七} 摩賀 ^引 入嚩 ^[二合] 覽 ^{引八} 摩賀 ^引 摩囉 ^{引九} 半拏囉嚩 ^引 泉顫 ^{引二十} 啊 ^引 哩野 ^{[二合]引} 跢 ^引 嚩 ^{引一} 敦 ^[二合] 矩砧 ^{引二} 載嚩尾惹野 ^{引三} 嚩
오대	마람.마하잔담.마하닙담.마하데삼.마하스베담.마하스바람.마하마라. 만나라바.시니.아라다람.브링구팀.진바.미샤야.바 ^[68b]
진언	jra maleti viśrotām(124) padmakām(125) vajra cihmāṅca(126) mālācaiva(127) aparājitām(128) vajra naṇimca(129) viśālāca(130) śāntavaide vapujitām(131) comyarūpām(132)
한자	日囉 ^[二合] 麼嚩底尾戌嚩 ^{[二合]擔引四} 鉢娜麼 ^[二合] 撿 ^{引五} 嚩日囉 ^[二合] 紫賀滿 ^{[二合]左六} 麼邏 ^引 載嚩 ^七 阿跛囉 ^引 爾擔 ^八 嚩日囉 ^[二合] 難 ^上 旒演 ^{[二合]左九} 尾舍 ^引 囉 ^{引左三十} 扇 ^引 跢 ^引 吠祢嚩布爾擔 ^{引一} 燥去弭也嚩 ^{引二}
오대	스라.마레디.미시로담.바느마검.바스라.지ㅎ만자.마라지바.아바라.시담. 바스라.난닌자.미샤라자.선다베네.바보시담.조마로반 ^[69a]
진언	mahāśvetām(133) āryatārām(134) mahāmalaṃ(135) aparā(136) vajra śaṃkalāmcaiva(137) vajra koṃārī(138) kolandhari(139) vajraha stāca(140) mahāvidyākāṅca namālī
한자	摩賀 ^引 濕吠 ^{[二合]擔引三} 阿 ^引 哩也 ^[二合] 哆嚩 ^{引四} 摩賀 ^引 摩覽 ^五 阿跛囉 ^{引六} 嚩入日囉 ^[二合] 餉迦 ^上 覽 ^引 載 ^引 嚩 ^七 嚩日囉 ^[二合] 矯麼哩 ^{引八} 矩嚩 ^上 駄哩 ^九

	嚩日囉 _[二合] 賀娑跢 _[二合] 左 _{上四十} 摩賀 _引 尾你也 _[二合] 嚩 _{上引} 左 _上 曩麼 _{引里}
오대	마하시 배답○ 아라다람○ 마하마람○ 아바라○ 박스라.샹가람지바○ 바스라.구마리○ 구란다리○ 바스라하.짜자○ 마하미나건자.나마리 _[69b]
진언	kārṇ(141) kosumbhā ratnacaiva(142) verūcana(143) kolarthānām(144) oṣṇiṣa(145) vijrṇ bhāmāṇāṃca(146) sarvāsuvajra kanaka(147) prabhalocanā(148) vajrā tuṇḍim(149) caśvetā
한자	撿 _{引一} 矩素唵 _[二合] 婆囉 _上 怛曩 _[二合] 載囉 _二 吠嚩 _左 曩 _上 三 矩嚩 _上 囉他 _[二合] 難 _{引四} 塢瑟拏 _[二合] 灑 _五 尾入嚩 _[二合] 婆去麼 _{上引} 左 _六 薩囉 _素 嚩日囉 _[二合] 迦曩迦 _七 鉢囉 _[二合] 婆去 _引 路 _引 左 _上 曩 _{引八} 嚩日囉 _[二合] 頗施寅 _[二合] 左 _{引九} 濕吠 _[二合] 跢
오대	검○ 구솜바.라드나지바○ 베로자나○ 구랄타난○ 오씨사○ 미스림.바마난자○ 살바소바스라.가나가○ 브라바로자나○ 바스라.돈닌자○ 시베다 _[70a]
진언	ca(150) kamalā kṣām(151) śaśi prabhā(152) ityetyām(153) mudrā gaṇa(154) sarverakṣām(155) kurmantu(156) mamasarvā satvānaṃca(157) omgrīṣi gaṇa(158) praśastaya(159) stathāgatuo
한자	左 _{上五十} 迦麼囉乞釤 _[二合] 引一 設始鉢囉 _[二合] 婆 _{引二} 伊 _上 底曳 _[二合] 底孕 _[二合] 引三 母捺囉 _[二合] 諶拏 _{鼻四} 薩囉吠 _[二合] 略乞鉢 _[二合] 引五 菴口律挽 _[二合] 覩 _六 麼麼薩囉囉 _[二合] 薩怛囉 _[二合] 難 _{左七} 唵乞哩 _[二合] 史諶拏 _{鼻八} 鉢囉 _[二合] 設娑跢 _[二合] 野 _九 娑跢 _[二合] 他 _{去引} 藥覩塢
오대	자○ 가마라.ㄹ삼○ 샤시.브라바○ 이데딩○ 모느라.아나○ 살베락산○ 굴만도○ 마마살바.사드바난자○ 음으리시.아나○ 브라샤짜야○ 짜타아도.오 _[70b]
진언	ṣṇiṣa(160) huṃtrum(161) paravidra vakara huṃtrum jāṃmbhānakara(162) huṃtrum(163) stambhānakara(164) huṃtrum(165) mauhana kara huṃtrum marthānakara huṃtrum paravidyā
한자	瑟拏 _[二合] 灑 _{六十} 𑖦𑖯𑖱𑖳𑖴 _[三合] 一 跛囉尾捺囉 _[二合] 嚩迦囉𑖦𑖯𑖱𑖳𑖴 _[三合] 吳 ₁₆₉ 咎婆曩迦囉 _二 𑖦𑖯𑖱𑖳𑖴 _[三合] 三 娑擔 _[二合] 婆曩迦囉 _四 𑖦𑖯𑖱𑖳𑖴 _[三合] 五 謨曩曩迦囉𑖦𑖯𑖱𑖳𑖴 _[三合] 吳 沫他曩迦囉𑖦𑖯𑖱𑖳𑖴 _[三合] 吳 跛囉尾你也 _[二合]
오대	씨사○ 흠드롬○ 바라미느라.바가라.흠드롬.삼바나가라○ 흠드롬○ 째바나가라○ 흠드롬○ 모하나가라.흠드롬.말타나가라.흠드롬.바라미나 _[71a]
진언	sāṃpakṣā nakara(166) huṃtrum(167) sarvāduṣṭānām(168) stambhānakara(169) huṃtrum(170) sarvāyakṣa(171) rakṣasa grahānām(172) vidhvaṃsa nakara(173) huṃtrum(174) catura śitinām(175) gra
한자	三薄乞灑 _[二合] 曩迦囉 _六 𑖦𑖯𑖱𑖳𑖴 _[三合] 七 薩囉囉 _[二合] 訥瑟吒 _[二合] 南 _八 娑擔 _[二合] 婆曩迦囉 _九 𑖦𑖯𑖱𑖳𑖴 _[三合] 七十 薩囉囉 _[二合] 藥乞灑 _[二合] 一 囉乞灑 _[二合] 娑藥囉 _[二合] 賀 _引 喃 _{引二} 尾馱網 _[二合] 娑 _上 曩迦囉 _三 𑖦𑖯𑖱𑖳𑖴 _[三合] 四 穆覩囉 _{試引} 底南 _{引五} 藥囉 _[二合]
오대	삼박사.나가라○ 흠드롬○ 살바노짜남○ 째바나가라○ 흠드롬○ 살바약사○ 락사사.으라하남○ 미드망사.나가라○ 흠드롬○ 자도라.시디남○ 으라 _[71b]
진언	hā sahasrānām(176) vidhvaṃsa nakara(177) huṃtrum(178) aṣṭaviṃ śitinām(179) nakṣatrānām(180) prasādā nakara(181) huṃtrum(182) aṣṭānām(183) mahāgrahānām(184) ochādā nakara(185)
한자	賀娑賀娑囉 _[二合] 引南 _{引六} 尾馱網 _[二合] 娑曩迦囉 _七 𑖦𑖯𑖱𑖳𑖴 _[三合] 八 阿瑟吒 _[二合] 尾孕 _[二合] 試底南 _{引九} 諾入乞察 _[二合] 怛囉 _[二合] 喃 _{引八十} 鉢囉 _[二合] 娑 _引 那 _引 曩迦囉 _一 𑖦𑖯𑖱𑖳𑖴 _[三合] 二 阿 _上 瑟吒 _[二合] 引南 _{引三} 摩賀 _引 藥囉 _[二合] 賀南 _四 嚩入蹉娜 _引 曩迦囉 _五
오대	하.사하스라남○ 미드망사.나가라○ 흠드롬○ 아짜밍.시디남○ 낙사드라남○ 브라사나.나가라○ 흠드롬○ 아짜남○ 마하으라하남○ 오차나.나가라○ _[72a]

진언	hurñtrum(186) rakṣarakṣamāñ(187) mamasarvā satvānañca(188) bhāgavañ(189) stathāgatu oṣṇiṣa(190) ṣitāta patrañ mahāvajro ṣṇiṣa mahāpra tyañgire(191) mahāsa
한자	咩納嚕唵 ^{[三合]六} 囉入乞灑 ^[二合] 囉入乞灑 ^[二合] 唵 ^{引七} 麼麼薩囉嚩 ^{[二合]引} 薩怛嚩 ^[二合] 難左 ^八 婆去諷錢 ^九 娑怛 ^[二合] 他 ^引 藥覩塢瑟拏 ^[二合] 灑 ^{九十} 悉路 ^引 多鉢怛嚩 ^[二合] 摩賀嚩日嚩 ^[二合] 瑟拏 ^[二合] 灑摩賀 ^吳 鉢囉 ^[二合] 底孕 ^[二合] 擬嚩 ^一 摩賀娑
오대	흠드롬ㅇ 락사락사맘ㅇ 마마살바.사드ㅅㅅㅅㅅㅅㅇ 바아밤ㅇ 짜타아도.오씨사ㅇ 시다다.바드담.마하바스로.씨사.마하브라.딩이레ㅇ 마하사 ^[72b]
진언	hā srābhuje(192) sahāsrāśīrṣi(193) yekoṭiśastasahāsrānetrai(194) abhedyajvalitatatṭhaka(195) mahā vajronāra(196) ṭṛbhuvā nāmaṇḍala(197) omsvastirbhā
한자	賀 ^引 娑囉 ^[二合] 部齊 ^{引二} 娑 ^上 賀娑囉 ^[二合] 試哩囉 ^{[二合]三} 曳句致捨娑多 ^[二合] 娑賀娑囉 ^[二合] 甯怛嚩 ^{[二合]四} 阿 ^上 陞你也 ^[二合] 入嚩 ^[二合] 里多怛吒迦 ^五 摩賀嚩日嚩 ^{[二合]引} 娜囉 ^六 底哩 ^[二合] 部嚩曩曼拏囉 ^七 唵娑囉 ^[二合] 悉底 ^[二合] 囉婆 ^[二合]
오대	하.스라부세ㅇ 사하스라.실새ㅇ 예구티샤자.사하스라.네드래ㅇ 아베나.스바리다.다타가ㅇ 마하바스로.나라ㅇ 드리부바.나만나라ㅇ 음스ㅅㅅㅅㅅㅅ ^[73a]
진언	vatu mama(198) rājābhāyā(199) corabhāyā(200) agnibhāyā(201) odakabhāyā(202) viṣabhāyā(203) śastrabhāyā(204) paraca krabhāyā(205) durbhi kṣabhāyā(206) aśanibhāyā(207)
한자	嚩覩麼麼 ^八 囉惹婆 ^{去引野引九} 祖囉婆 ^{去野引二百} 阿儼顚 ^[二合] 婆野 ^{引一} 塢娜迦婆野 ^{引二} 尾灑婆野 ^{引三} 設薩怛囉 ^[三合] 婆野 ^{引四} 跛囉訖訖囉 ^[二合] 婆野 ^{引五} 訥躡乞灑 ^[二合] 婆野 ^{引六} 阿 ^上 捨顚婆野 ^{引七}
오대	바도.마마ㅇ 라사바야ㅇ 조라바야ㅇ 아으니바야ㅇ 오나가바야ㅇ 미사바야ㅇ 샤썩라바야ㅇ 바라자.ㄹ라바야ㅇ 놀비.ㄹ사바야ㅇ 아샤니바야ㅇ ^[73b]
진언	akāla mṛdyubhāyā(208) dhāraṇibhumi karmātābhāyā(209) dulkā pātābhāyā(210) rājā naṇḍabhāyā(211) supra riṇibhāyā(212) nagabhāyā(213) vidyubhāyā(214) deva
한자	阿迦 ^引 攞蜜唎 ^[二合] 底庾 ^[二合] 婆野 ^{引八} 馱 ^引 囉拏部弭檢跛多 ^{引婆野引九} 訥勒迦 ^[二合] 跛 ^引 多婆野 ^{引十} 囉惹 ^引 難拏婆野 ^{引一} 素鉢囉 ^[二合] 哩拏婆野 ^{引二} 曩諷婆野 ^{引三} 尾你庾 ^[二合] 婆野 ^{引四} 祢嚩
오대	아가라.ㄹ리듀바야ㅇ 다라니보미.검바다바야ㅇ 놀가.바다바야ㅇ 라사.난나바야ㅇ 소브라.리니바야ㅇ 나아바야ㅇ 미뉴바야ㅇ 네바 ^[74a]
진언	grahā(215) nāgragrahā(216) yakṣagrahā(217) rakṣasagrahā(218) pretagrahā(219) piśācagrahā(220) bhutagrahā(221) kumbhāṇḍagrahā(222) putanagrahā(223) kaṭa putanagrahā(224)
한자	佉囉 ^[二合] 賀 ^{引五} 曩諷佉囉 ^[二合] 賀 ^{引六} 藥乞灑 ^[二合] 佉囉 ^[二合] 賀 ^{引七} 囉乞察 ^[二合] 娑佉囉 ^[二合] 賀 ^八 必嚩 ^[二合] 多佉囉 ^[二合] 賀 ^{引九} 秣舍左佉囉 ^[二合] 賀 ^{引二十} 部多佉囉 ^[二合] 賀 ^{引一} 嚩畔拏佉囉 ^[二合] 賀 ^{引二} 布單曩佉囉 ^[二合] 賀 ^{引三} 揭吒布單曩佉囉 ^[二合] 賀 ^{引四}
오대	ㅇ라하ㅇ 나아ㅇ라하ㅇ 약사ㅇ라하ㅇ 락사사ㅇ라하ㅇ 브레다ㅇ라하ㅇ 비샤자ㅇ라하ㅇ 보다ㅇ라하ㅇ 굴반나ㅇ라하ㅇ 보단나ㅇ라하ㅇ 가타.보단나ㅇ라하ㅇ ^[74b]
진언	skandagrahā(225) apa smāragrahā(226) otmanāgrahā(227) chayāgrahā(228) revatigrāhā(229) jamikagrahā(230) kaṇṭakaminigrāhā(231)

	ojahāriṇyā(232) garbhahāriṇ
한자	塞嚩 ^[二合] 娜 ^引 僂 ^[二合] 賀 ^引 五 阿跛娑麼 ^[二合] 囉 ^引 僂 ^[二合] 賀 ^引 六 嚩怛麼 ^[二合] 囊 ^引 僂 ^[二合] 賀 ^引 七 蹉夜 ^引 僂 ^[二合] 賀 ^引 八 嚩嚩底 ^引 僂 ^[二合] 賀 ^引 九 惹 ^引 彌 ^[二合] 僂 ^[二合] 賀 ^引 三十 建 ^引 姪 ^[二合] 彌 ^[二合] 賴 ^[二合] 僂 ^[二合] 賀 ^引 一 嚩惹 ^引 賀 ^引 哩 ^引 二 藥 ^引 囉 ^[二合] 婆 ^[二合] 賀 ^引 哩
오대	스 간나으라하오 아바.빠라으라하오 오드마나으라하오 차야으라하오 례바디으라하오 사미가으라하오 건타가미니으라하오 오사하리나오 알바하리 ^[75a]
진언	ya(233) jātāhāriṇyā(234) rūdhirāhāriṇyā(235) māmsāhāriṇyā(236) medāhāriṇyā(237) majāhāriṇyā(238) vasāhāriṇyā(239) jīvitahāriṇyā(240) bantāhāriṇyā(241) aśu
한자	嬢 ^引 三 惹 ^引 踰 ^引 賀 ^引 哩 ^引 四 嚩地囉 ^引 賀 ^引 哩 ^引 五 莽 ^引 娑 ^引 賀 ^引 哩 ^引 六 謎 ^引 娜 ^引 賀 ^引 哩 ^引 七 沫 ^引 惹 ^引 賀 ^引 哩 ^引 八 嚩娑 ^引 賀 ^引 哩 ^引 九 爾尾 ^引 多 ^引 賀 ^引 哩 ^引 四十 挽 ^引 踰 ^引 賀 ^引 哩 ^引 一 阿 ^上 秣
오대	나오 사다하리나오 로디라하리나오 망사하리나오 메나하리나오 말사하리나오 바사하리나오 시미다하리나오 만다하리나오 아슈 ^[75b]
진언	cyāhāriṇyā(242) cicāhāriṇyā(243) śadanekahāriṇyā khetāhāriṇyā putrahāriṇyā puyahāri ṇyā śrīsmahāriṇyā śaṁghāḍakahāriṇyā taisām
한자	紫 ^引 野 ^[二合] 賀 ^[二合] 哩 ^[二合] 嬢 ^引 二 唧 ^引 佐 ^引 賀 ^引 哩 ^引 三 寫 ^引 娜 ^引 甯 ^引 賀 ^引 哩 ^引 野 ^[二合] 吳 契 ^引 吒 ^引 賀 ^引 哩 ^引 野 ^[二合] 吳 補 ^引 怛 ^引 囉 ^[二合] 賀 ^引 哩 ^引 野 ^[二合] 吳 布 ^引 野 ^引 賀 ^引 哩 ^引 野 ^[二合] 吳 室 ^引 哩 ^[二合] 蔬 ^[二合] 麼 ^[二合] 賀 ^引 哩 ^引 野 ^吳 餉 ^引 伽 ^引 拏 ^引 賀 ^引 哩 ^引 野 ^吳 帝 ^引 鈇
오대	자하리나오지자하리나오샤나네가.하리나.케타하리나.보드라하리나.보야하리나. 시리스마하리나.상카나가.하리나.테삼 ^[76a]
진언	sarveśām(244) sarvā grahānām(245) kṛtām(246) vidyām(247) chindayāni(248) kilayāmi(249) paribrājaka kṛtām(250) vidyām(251) chindayāmi(252) kilayāmi(253) ḍakaḍakini(254) kṛtāmvi
한자	薩 ^引 囉 ^[二合] 呬 ^[二合] 鈇 ^引 四 薩 ^引 囉 ^[二合] 嚩 ^[二合] 僂 ^[二合] 賀 ^引 南 ^引 五 訖 ^引 哩 ^[二合] 擔 ^引 六 尾 ^引 你 ^引 琰 ^[二合] 七 窺 ^引 娜 ^引 野 ^引 八 枳 ^引 攞 ^引 野 ^引 九 跛 ^引 哩 ^引 沒 ^[二合] 囉 ^[二合] 惹 ^引 迦 ^引 訖 ^[二合] 哩 ^[二合] 擔 ^引 五十 尾 ^引 你 ^引 琰 ^[二合] 一 窺 ^引 娜 ^引 野 ^引 二 枳 ^引 攞 ^引 野 ^引 三 拏 ^引 去 ^引 迦 ^引 拏 ^引 去 ^引 枳 ^引 賴 ^引 四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오대	살베삼으 살바.으라하남으 ㄹ리담으 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바리ㄹ라사가.ㄹ리담으 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나가나기니으 ㄹ리담미 ^[76b]
진언	dyām(255) chindayāmi(256) kilayāmi(257) brahmane kṛtāmvidyām chindayāmi kilayāmi mahāpaśupatirūdra(258) kṛtāmvidyām(259) chindayāmi(260) kilayāmi(261) nā
한자	你 ^引 琰 ^[二合] 引五 窺 ^引 娜 ^引 夜 ^引 六 枳 ^引 攞 ^引 夜 ^引 七 ^{○170} 沒 ^[二合] 囉 ^[二合] 憾 ^[二合] 麼 ^[二合] 甯 ^[二合] .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引 你 ^引 琰 ^[二合] ○ 窺 ^引 娜 ^引 野 ^引 枳 ^引 攞 ^引 野 ^引 吳 摩 ^引 賀 ^引 鉢 ^引 戌 ^引 鉢 ^引 底 ^引 嚩 ^引 捺 ^引 囉 ^[二合] 八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引 你 ^引 琰 ^[二合] 引九 窺 ^引 娜 ^引 野 ^引 六十 枳 ^引 攞 ^引 野 ^引 引一 曩
오대	념으친나야미으기라야미으ㄹ라하마네.ㄹ리담미념.친나야미.기라야미.마하바슈바 디.로느라으 ㄹ리담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나 ^[77a]
진언	rāyāṇḍa(262) pañcamahā mudrā(263) kṛtāmvidyām(264) chindayāmi(265) kilayāmi(266) tatva garūḍa saheyāya(267) kṛtāmvidyām(268) chindayāmi(269) kilayāmi(270) mahākā
한자	囉 ^引 演 ^引 拏 ^引 二 半 ^上 左 ^上 摩 ^引 賀 ^引 母 ^引 捺 ^[二合] 囉 ^[二合] 引三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引 你 ^引 琰 ^[二合] 引四 窺 ^引 娜 ^引 野 ^引 五 枳 ^引 攞 ^引 夜 ^引 六 怛 ^引 怛 ^引 嚩 ^[二合] 識 ^引 嚩 ^引 拏 ^引 娑 ^上 咽 ^引 夜 ^引 野 ^引 七 訖 ^引 哩 ^[二合] 擔 ^引 尾 ^引 你 ^引 琰 ^[二合] 八 窺 ^引 娜 ^引 夜 ^引 九 枳 ^引 攞 ^引 夜 ^引 引七十 摩 ^引 賀 ^引 迦 ^引
오대	라연나으 반자마하.모느라으 ㄹ리담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다드박.아로나.사혜야야으 ㄹ리담미념으 친나야미으 기라야미으 마하가 ^[77b]
진언	la(271) mātṛgaṇa saheyāya(272) kṛtāmvidyām(273) chindayāmi(274)

	미나라.미나라○ 친나친나○ 빈나빈나○ 만다만다 ^[80b]
진언	humhūm(327) phaṭphaṭ(328) svāhā(329) hehephaṭhuhuphaṭh(330) amukhāphaṭ(331) aprati hatayaphaṭ(332) vara pradayaphaṭh(333) asura vidrā paṇakara
한자	吽吽 ^七 發吒 ^{半音} 發吒 ^八 娑嚩 ^[二合] 賀 ^{引九} 系系發吒 ^{上半音} 護護發吒 ^{三十} 阿耨伽 ^{去引} 發吒 ^一 阿鉢囉 ^[二合] 底賀多野發吒 ^二 嚩囉鉢囉 ^[二合] 娜野發吒 ^三 阿 ^上 素囉尾捺囉 ^[二合] 跋拏迦囉
오대	흠흠○ 바닥 ¹⁷²⁾ 바닥○ 스바하○ 헤헤바닥호호바닥○ 아모카바닥○ 아브라디.하다야바닥○ 바라.브라나야바닥○ 아소라.미느라.바나가라 ^[81a]
진언	yaphaṭ(334) sarvā devaibhyaḥphaṭ(335) sarvā nāgebhyaḥphaṭ(336) sarvāyakṣabhyaḥphaṭ(337) sarvāra kṣasebhyaḥphaṭ(338) sarvāgarū debhyaḥphaṭ(339) sarvāgandha rve
한자	野發吒 ^四 薩囉嚩 ^[二合] 祇吠毗藥 ^[二合] 發吒 ^五 薩囉嚩 ^[二合] 曩 ^引 覓毗藥 ^[二合] 發吒 ^六 薩囉嚩 ^[二合] 藥乞囉 ^[二合] 毗藥 ^[二合] 發吒 ^七 薩囉嚩 ^[二合] 囉乞察 ^[二合] 細毗藥 ^[二合] 發吒 ^八 薩囉嚩 ^[二合] 誑嚩祇毗藥 ^[二合] 發吒 ^九 薩囉嚩 ^[二合] 獻達 ^{轉舌} 囉吠 ^[二合]
오대	야바닥○ 살바.네베박바닥.살바.나예박바닥○ 살바약사박바닥○ 살바락.사세박바닥○ 살바아로.네박바닥○ 살바안달.베 ^[81b]
진언	bhyaḥphaṭ(340) sarvāasu rebhyaḥphaṭ(341) sarvākinnarebhyaḥphaṭ(342) sarvāmahura gebhyaḥphaṭ sarvāmaṇu ṣaibhyaḥphaṭ sarvāmaṇu ṣaibhyaḥphaṭ
한자	毗藥 ^[二合] 發吒 ^{四十} 薩囉嚩 ^[二合] 阿 ^上 素嚩毗藥 ^[二合] 發吒 ^一 薩囉嚩 ^[二合] 緊娜嚩 ^引 毗藥 ^[二合] 發吒 ^二 薩囉嚩 ^[二合] 麼護囉覓毗藥 ^[二合] 發吒 ^吳 薩囉嚩 ^[二合] 麼努囉毗藥 ^[二合] 發吒 ^吳 薩囉嚩 ^[二合] 阿麼努囉毗藥 ^[二合] 發吒 ^{吳¹⁷³⁾}
오대	박바닥○ 살바아소.레박바닥○ 살바긴나레박바닥○ 살바마호라.예박바닥.살바마노.새박바닥.살바아마노.새박바닥 ¹⁷⁴⁾ ^[82a]
진언	sarvābhutaibhyaḥphaṭ(343) sarvāpiśa cebhyaḥphaṭ(344) sarvākumbhaṇdebhyaḥpāt(345) sarvāputanebhyaḥphaṭ(346) sarvākāṭa putanebhyaḥphaṭ(347) sarvādulim
한자	薩囉嚩 ^[二合] 部帝毗藥 ^[二合] 發吒 ^三 薩囉嚩 ^[二合] 毗舍 ^引 際毗藥 ^[二合] 發吒 ^四 薩囉嚩 ^[二合] 嚩句字 ^{合口} 毗藥 ^[二合] 發吒 ^五 薩囉嚩 ^[二合] 布單寧 ^{音娑引} 毗藥 ^[二合] 發吒 ^六 薩囉嚩 ^[二合] 羯吒布單寧 ^引 毗藥 ^[二合] 發吒 ^七 薩囉嚩 ^[二合] 訥楞
오대	살바부데박바닥○ 살바미샤.제박바닥○ 살바굼반네박바닥○ 살바보다네박바닥○ 살바가탁.보다네박바닥○ 살바노령 [○] ^[82b]
진언	gitebhyaḥphaṭ(348) sarvāduṣpre kṣitebhyaḥphaṭ(349) sarvājvarebhyaḥphaṭ(350) sarvāapasmare bhyaḥphaṭh(351) sarvāśrama debhyaḥphaṭ(352) sarvātirdhi kebhyaḥpha
한자	擬帝毗藥 ^[二合] 發吒 ^八 薩囉嚩 ^[二合] 弩澀必嚩 ^[三合] 乞史 ^[二合] 帝毗藥 ^[二合] 發吒 ^九 薩囉嚩 ^[二合] 入嚩 ^[二合] 嚩毗藥 ^[二合] 發吒 ^{五十} 薩囉嚩 ^[二合] 阿跋娑麼 ^[二合] 嚩毗藥 ^[二合] 發吒 ^一 薩囉嚩 ^[二合] 室囉 ^[二合] 麼 ^鼻 妳毗藥 ^[二合] 發吒 ^二 薩囉嚩 ^[二合] 底嚩體 ^[二合] 計毗藥 ^[二合] 發
오대	이데박바닥○ 살바노쎄레.ㄹ시데박바닥○ 살바스바레박바닥○ 살바아바스마.레박바타○ 살바시라마.네박바닥○ 살바딜테.게박바 ^[83a]
진언	ṭh(353) sarvāotmā debhyaḥphaṭ(354) sarvāvidyā cāryebhyaḥphaṭ(355) jayakara mradhukara(356) sarvārthā sādhaḥkebhyāḥphaṭ(357) sarvāvidyā cāryebhyaḥphaṭ(358) cā
한자	吒 ^三 薩囉嚩 ^[二合] 唄怛麼 ^[二合] 妳毗藥 ^[二合] 發吒 ^四 薩囉嚩 ^[二合] 尾你也 ^[二合] 左 ^引 哩曳 ^[二合] 毗藥 ^[二合] 發吒 ^五 惹野迦囉沫度迦囉 ^六

	薩囉嚩 _[二合] 囉他 _[二合] 娑駄計毗藥 _[二合] 發吒 _七 薩囉嚩 _[二合] 尾你也 _[二合] 左 _[二合] 哩曳 _[二合] 毗藥 _[二合] 發吒 _八 拶 _[二合]
오대	타오 살바오 드마.네 박바닥오 살바미나.잘예 박바닥오 사야가라.말도가라오 살발타.사다게 박바닥오 살바미나.잘예 박바닥오 자 _[83b]
진언	tura bhagribhyaḥphaṭ(359) vajrakaumāre(360) mahāvidyā rājebhyaḥphaṭ(361) mahāpra tyamgirebhyaḥphaṭ(362) vajra śamkalayaphaṭ(363) mahāpra tyamgira(364) rā
한자	咄囉溥擬你 _[二合] 毗藥 _[二合] 發吒 _九 嚩日囉 _[二合] 矯麼 _[二合] 嚩 _{六十} 摩賀尾你也 _[二合] 囉 _[二合] 齊毗藥 _[二合] 發吒 _一 摩賀鉢囉 _[二合] 底孕 _[二合] 擬嚩毗藥 _[二合] 發吒 _二 嚩日囉 _[二合] 餉迦囉野發吒 _三 摩賀鉢囉 _[二合] 底孕 _[二合] 擬囉 _四 囉
오대	도라.바오 니 박바닥오 바스라구마레오 마하미나.라세 박바닥오 마하브라.딩이레 박바닥오 바스라.상가라야바닥오 마하브라.딩이라오 라 _[84a]
진언	jāyaphaṭ(365) mahākālaya(366) mahāmātrgaṇa(367) namaḥskṛtāphaṭ(368) vaiṣṭa viyephaṭ(369) brahma ṇiyephaṭ(370) gniyephaṭ(371) mahākāliyephaṭ(372)
한자	惹 _[二合] 野發吒 _五 摩賀迦囉 _[二合] 野 _六 摩賀麼 _[二合] 底哩 _[二合] 譏拏 _七 曩莫塞訖哩 _[三合] 踰 _[二合] 發吒 _八 吠瑟拏 _[二合] 尾曳發吒 _九 沒囉 _[二合] 憾麼 _[二合] 拏 _[二合] 曳發吒 _{七十} 阿 _[二合] 乞顛 _[二合] 曳發吒 _一 摩賀迦 _[二合] 里裔 _[二合] 發吒 _二
오대	사야바닥오 마하가라야오 마하마드리아나오 나막신타리다바닥오 베스나.미예바닥오 므라호마.니예바닥오 아오 니예바닥오 마하가리예바닥오 _[84b]
진언	kālanandiyephaṭ(373) inriyephaṭ(374) rodriyephaṭ(375) cāmuṇḍiyephaṭ(376) kālarā ṭryephaṭ(377) kāpāliyephaṭ(378) adhimuktaka śmaśāna vā
한자	迦 _[二合] 囉難膩 _[二合] 裔 _[二合] 發吒 _三 印涅哩 _[二合] 裔 _[二合] 發吒 _四 嚩轉舌捺哩 _[二合] 裔發吒 _五 左 _[二合] 捫上膩裔 _[二合] 發吒 _六 迦囉囉 _[二合] 底哩 _[二合] 裔發吒 _七 迦 _[二合] 播里裔 _[二合] 發吒 _八 阿 _[二合] 上地穆訖 _[二合] 得多 _[二合] 迦濕麼 _[二合] 舍 _[二合] 曩嚩
오대	가라난니예바닥오 인느리에바닥오 로느리에바닥오 자문니예바닥오 가라라.드리예바닥오 가바리예바닥오 아디목다가.스마샤나.바 _[85a]
진언	sinīyephaṭ(379) yekecittā(380) sarvāsatvāmama(381) duṣṭadittā(382) pāpacittā(383) rūdracittā(384) amaitra cittā(385) otāpadāyanti kilayanti naḥparṇti
한자	奈顛 _[二合] 裔 _[二合] 發吒 _九 曳計唧踰 _[二合] 薩囉嚩 _[二合] 薩怛嚩 _[二合] 麼麼 _{鼻一} 訥瑟吒 _[二合] 唧踰 _[二合] 播 _[二合] 跛唧踰 _[二合] 嚩捺囉 _[二合] 唧踰 _[二合] 阿每怛囉 _[二合] 唧踰 _[二合] 塢 _[二合] 上踰 _[二合] 跛那 _[二合] 演底枳囉演底諾畔底
오대	시니예바닥오 예게진다오 살바사드바마마오 노짜진다오 바바진다오 로느라진다오 아미드라.진다오 오다바나연디.기라연디.낙반디 _[85b]
진언	cohanti ujahārā(386) garbhāhārā(387) rūdhirāhārā(388) bāmsahāra vasāhārā(389) majjahārā(390) jātahārā(391) jivitahārā(392) baryāhārā(393) gandhahārā(394)
한자	祖罕底 _[二合] 塢 _[二合] 上惹 _[二合] 賀 _[二合] 囉 _[二合] 藥囉婆 _[二合] 賀 _[二合] 囉 _[二合] 嚩地囉賀 _[二合] 囉 _[二合] 曼娑賀 _[二合] 囉 _[二合] 嚩娑賀 _[二合] 囉 _[二合] 沫惹 _[二合] 賀 _[二合] 囉 _[二合] 惹 _[二合] 踰賀 _[二合] 囉 _[二合] 爾尾踰賀 _[二合] 囉 _[二合] 沫里也 _[二合] 賀 _[二合] 囉 _[二合] 彥駄 _[二合] 賀 _[二合] 囉 _[二合]
오대	조한디.오사하라오 알바하라오 로디라하라오 만사하라.바사하라오 말사하라오 사다하라오 시미다하라오 말야하라오 언다하라오 _[86a]
진언	puṣpāhārā(395) phalahārā(396) sāsyāhārā(397) pāpacittā(398) duṣṭacittā(399) rodracittā(400) yaḥkṣagrahā(401) rākṣasagrahā(402) pretagrahā(403) piśacāgrahā(404) bhutagra

한자	補澀跛 ^{[二合]賀^引囉^{引五}} 頗攞賀 ^{囉^{引六}} 薩寫 ^{賀^{引七}} 播跛啣 ^{引八} 訥瑟吒 ^{[二合]啣^{引九}} 嚙捺囉 ^{[二合]啣^{引四}} 藥乞灑 ^{[二合]乞囉^{[二合]賀^{引一}} 囉^引 乞察^{[二合]娑乞囉^{[二合]賀^{引二}} 畢噉^{[二合]多乞囉^{[二合]賀^{引三}} 枇舍^引 左乞囉^{[二合]賀^{引四}} 部^引 多乞囉^[二合]}}}
오대	보빠하라 ^오 바라하라 ^오 사샤하라 ^오 바바진다 ^오 노짜진다 ^오 로느라진다 ^오 약사 ^오 라하 ^오 락사 사 ^오 라하 ^오 브레다 ^오 라하 ^오 비사자 ^오 라하 ^오 보다 ^오 라 ^[86b]
진언	hā(405) kumbhāṇḍagrahā(406) putanagrahā kaṭaputa nagrahā skandagrahā(407) otmadagrahā(408) chāyāgrahā(409) apasmaragrahā(410) ḍakaḍukinigrāhā(411) re
한자	賀 ^{引五} 矩畔 ^{拏乞囉^{[二合]賀^{引六}} 布^引單曩乞囉^{[二合]賀^{引吳}} 迦吒布單曩乞囉^{[二合]賀^{引吳}} 塞騫^{[二合]娜乞囉^{[二合]賀^{引七}} 嚙怛麼^{[二合]娜乞囉^{[二合]賀^{引八}} 蹉^引夜乞囉^{[二合]賀^{引九}} 阿^上跛娑麼^{[二合]囉^引 乞囉^{[二合]賀^{引十}} 拏迦拏^引 枳顚乞囉^{[二合]賀^{引一}} 噉 你吠^{[二合]底野迦^{引九}}}}}}
오대	하 ^오 굼반나 ^오 라하 ^오 보다나 ^오 라하 ^오 가타 ^오 보다나 ^오 라하 ^오 스건나 ^오 라하 ^오 오드마나 ^오 라하 ^오 차야 ^오 라하 ^오 아바싸라 ^오 라하 ^오 나가노 ^오 기니 ^오 라하 ^오 례 ^[87a]
진언	vatigrahā(412) jāmīkagrahā(413) śakonīgrahā(414) mātranandekagrahā(415) lāṇvikagrahā(416) hādukaṇṭapātāṇigrahā(417) jvarāḥkāhikā(418) nvetīyakā(419)
한자	嚙底乞囉 ^{[二合]賀^{引二}} 咎弭迦乞囉 ^{[二合]賀^{引三}} 爍 ^引 矩顚乞囉 ^{[二合]賀^{引四}} 麼怛囉 ^{[二合]難^上祢迦乞囉^{[二合]賀^{引五}} 覽^{引上}尾迦乞囉^{[二合]賀^{引六}} 賀^鼻弩^鼻建^上蛇播^引蹉^引拏乞囉^{[二合]賀^{引七}} 入嚙^{[二合]囉^引 噉迦^引 咽迦^{引八} 你吠^{[二合]底野迦^{引九}}}}
오대	바디 ^오 라하 ^오 삼미가 ^오 라하 ^오 샤구니 ^오 라하 ^오 마드라난네가 ^오 라하 ^오 람미가 ^오 라하 ^오 하노진타 ^오 바다니 ^오 라하 ^오 스바라 ^오 예가혜가 ^오 느베디아가 ^오 [87b]
진언	satraitīyakā(420) cāturthakā(421) nityajvarā(422) viṣamajvara(423) vātikāpaitikā(424) sreṣmika(425) sānnipātikā(426) sarvajvarā(427) sirūrṭi(428) arthāvabhedakā(429)
한자	娑怛嚙 ^{[二合]底^引野迦^{引二十}} 拶咄囉他 ^{[二合]迦^{引一}} 顚入底野 ^{[二合]入嚙^{[二合]囉^{引二}} 尾灑麼入嚙^{[二合]囉^{引三}} 嚙^引底迦^引背底迦^{引四} 始噉^{[二合]瑟弭^{[二合]迦^{引五}} 散^引顚跛底迦^{引六} 薩囉嚙^{[二合]入嚙^{[二合]囉^{引七}} 始嚙^{[二合]嚙^{引八}} 阿囉駄^{[二合]引} 嚙陞娜迦^{引九}}}}
오대	사드래디 ^오 야가 ^오 자돌타가 ^오 니다스바라 ^오 미사마스바라 ^오 바디가 ^오 빈디가 ^오 스레스미가 ^오 산니바디가 ^오 살바스바라 ^오 시룰디 ^오 알다바베나가 ^오 [88a]
진언	alaucakā(430) akṣiraukaṁ(431) mukharaukaṁ(432) hṛdraukaṁ(433) galagrahaṁ(434) karṇaśulāṁ(435) dantaśulāṁ(436) jihvaśu lāṁhṛdayaśrāṁ(437) marmaśulāṁ(438) paraśvaśulāṁ(439)
한자	阿嚙 ^引 左迦 ^{引三十} 阿乞史 ^{[二合]嚙^引 穆佉嚙^引 紇哩^{[二合]訥嚙^{[二合]撿^三} 譏攞藥囉^{[二合]憾^四} 羯囉拏^{[二合]戔^{引五}} 難^上多^上戔^{引六} 囉^引 賀^{[二合]戔^引 戔^引嚙^引哩^{[二合]娜野戔^引 沫囉麼^{[二合]戔^{引八}} 播囉濕嚙^{[二合]戔^{引九}}}}}}
오대	아로자가 ^오 악시로검 ^오 모카로검 ^오 흐리느로검 ^오 아라 ^오 라함 ^오 갈나슈람 ^오 난다슈람 ^오 시 ^오 하바슈람 ^오 흐리나야슈람 ^오 말마슈람 ^오 바라시 ^오 바슈람 ^오 [88b]
진언	prṣṭaśulāṁ(440) udaraśulāṁ(441) ghaṇṭiśulāṁ(442) vastiśulāṁ(443) orūśulāṁ(444) jaṁghāśulāṁ(445) hastaśulāṁ(446) pādaśulāṁ(447) sarvāṅgapratyaṅgaśulāṁ(448) bhutabhai
한자	跛哩 ^{[二合]瑟吒^{[二合]戔^{引四十}} 塢^上娜囉戔^引 建致戔^引 嚙娑底^{[二合]戔^{引三}} 塢嚙戔^{引四} 壤^引伽^引戔^{引五} 賀娑多^{[二合]戔^{引六}} 播^引娜戔^{引七} 薩囉嚙^{[二合]盎^引 譏鉢囉^{[二合]底孕^{[二合]譏戔^{引八}} 部多吠}}}

오대	브리싸슈람○ 오나라슈람○ 건티슈람○ 바씨슈람○ 오로슈람○ 양카슈람○ 하싸슈람○ 바나슈람○ 살바앙아브라딩아슈람○ 보다베 _[89a]
진언	taṇa(449) ḍūkāḍūkini(450) jvarādrakāṇḍakīti(451) bhālatapai(452) sarparūha(453) liṃga(454) śuśatra(455) sāgara(456) viṣa(457) yoga(458) agni(459) odaka(460) parabera(461) kān
한자	多拏 _{引九} 拏 _引 迦拏 _引 枳賴 _{五十} 入嚩 _{二合} 囉捺訥嚩 _{二合} 建拏 _鼻 枳致 _一 婆 _去 路 _引 多吠 _{引二} 薩囉跛 _{二合} 嚩賀 _三 陵 _上 誡 _四 戌灑怛囉 _{二合五} 娑誡囉 _六 尾灑 _七 喻誡 _八 阿 _上 儼賴 _{二合九} 唄娜迦 _{六十} 跛囉吠囉 _一 建
오대	다나○ 노가노기나○ 스바라.나느로건나.기티○ 바로다베○ 살바로하○ 링아○ 슈사드라○ 사아라○ 미사○ 유아○ 아으니○ 오나가○ 바라베라○ 건 _[89b]
진언	tāra(462) akālaṃ(463) br̥tyu(464) traimuka(465) trailātaka(466) br̥scika(467) sarppa(468) nakula(469) śimha(470) vyaghra(471) rikṣa(472) tarakṣo(473) bṛgasvapara(474) jivā(475) taiśāṃsarvesaṃ(476) mahā
한자	踰 _引 囉 _二 阿迦 _引 覽 _三 沒哩 _{二合} 底庾 _{二合四} 怛嚩 _{二合} 穆迦 _五 怛嚩 _{二合} 攞 _引 吒迦 _六 沒哩 _{二合} 室旨 _{二合} 迦 _七 薩囉跛 _{二合八} 曩矩攞 _九 僧賀 _{七十} 尾野 _{二合} 伽囉 _{二合一} 哩乞灑 _{二合二} 多囉乞葛 _{二合三} 沒哩 _{二合} 誡娑嚩 _{二合} 跛囉 _四 爾嚩 _{引五} 帝鈇 _引 薩囉吠 _{二合} 鈇 _六 摩賀 _引
오대	다라○ 아가람○ 므리듀○ 드래모가○ 드래라타가○ 므리시지가○ 살바○ 나구라○ 싱하○ 마᳚라○ 릅사○ 다락슈○ 므리.아싸바라○ ᄇ바○ 데삼살베삼○ 마하 _[90a]
진언	sitāta(477) patraṃ mahāva[478] jrooṣṇīsaṃmahāpratyaṃgirāṃ(479) yāvanvadaśa(480) yojanā(481) bhyantāreṇa(482) simabandhaṃkarūmi(483) niśa bandhaṃkarūmi(484) pa
한자	悉踰 _引 多 _七 鉢怛嚩 _{二合} 摩賀 _引 嚩 _{八¹⁷⁵} 日嚩 _{二合} 塢 _上 瑟拏 _{二合} 鈇 _引 入 _引 摩賀鉢囉 _{二合} 底孕 _{二合} 儼嚩 _{二合九} 夜 _引 嚩囉嚩 _{二合} 娜捨 _{八十} 喻惹曩 _{引一} 便踰 _引 嚩拏 _二 臬麼 _去 滿鄧迦嚩 _{引三} 顛捨滿鄧迦嚩 _{引四} 跛
오대	시다다○ 바드람.마하바○ 스로오시삼마하브라딩이람○ 야바느바나샤○ 유사나○ 변다레나○ 시마만둥가로미○ 니샤.만둥가로미○ 바 _[90b]
진언	ravidyā bandhaṃkarūmi(485) tejū bandhaṃkarūmi(486) siddha vandhaṃkarūmi paladā bandhaṃkarūmi(487) paravidyā bandhaṃkarūmi(488) sarmamaṅga pratyam
한자	囉尾你也 _{二合引} 滿鄧迦嚩 _{引五} 帝租滿鄧迦嚩 _{引六} 悉駄滿鄧迦嚩 _引 ○ 跛攞娜 _引 滿鄧迦嚩 _{引七} 跛囉尾你也 _{二合引} 滿鄧迦嚩 _{引八} 薩罔盎誡鉢囉 _{二合} 底孕 _{二合} 吠囉嚩日囉 _{二合} 駄嚩 _{引四} 滿駄顛滿駄顛 _五 嚩日囉 _{二合} 播 _引 拏發吒 _六 咩訥嚩 _{三合} 發吒 _七 娑嚩 _{二合}
오대	라미나.만둥가로미○ 데슈.만둥가로미○ 신다.만둥가로미.바라나.만둥가로미○ 바라마나.만둥가로미○ 살망앙아.브라딩 _[91a]
진언	gabandhaṃkarūmi(489) tadyāthā(490) om(491) anale anale(492) viśade viśade(493) vaira vajradhare(494) bandani bandhani(495) vajrapāṇi phaṭ(496) huṃtrūmphaṭ(497) svā
한자	誡滿鄧迦嚩 _{引九} 怛你也 _{二合} 他 _{引九十} 唵 _{引一} 阿曩黎阿 _上 曩黎 _{引二} 尾捨祢尾捨祢 _{引三} 吠囉嚩日囉 _{二合} 駄嚩 _{引四} 滿駄顛滿駄顛 _五 嚩日囉 _{二合} 播 _引 拏發吒 _六 咩訥嚩 _{三合} 發吒 _七 娑嚩 _{二合}
오대	아만둥가로미○ 다나타○ 옴○ 아나레.아나레○ 미샤네.미샤네○ 베라.바스라다레○ 만다니.만다니○ 바스라바니.바닥○ 흠득롬바닥○ 스바 _[91b]
진언	hā(498) om(499) virūde(500) svāhā(501) namosarvā tathāgata(502) suṅgatāya(503) arhate(504) sārṃmyaksaṃmuthāya(505) oṣṇīṣa(506) mahāsitāta patraṃ(507) mahāsidyantu(508) bantrapadaya(509) svāhā(510)
한자	賀 _{引八} 唵 _{引九} 尾嚩祢 _{引五百} 娑嚩 _{二合} 賀 _{引一} 曩謨薩囉嚩 _{二合} 怛他誡 _{引二} 素誡多野 _三

	阿 ^上 囉曷 ^{[二合]帝^{引四}三藐三沒駄^{引野五}塢瑟拏^{[二合]灑^六摩賀^{引悉路^引多鉢怛嚩^{[二合]七}} 摩賀^{引悉鉤觀^八滿怛囉^{[二合]跋那野^九娑嚩^{[二合]引賀^{引五百一十句}}}}}}
오대	하 ^오 음 ^오 미로네 ^오 스바하 ^오 나무살바.다타아다 ^오 송아다야 ^오 알하데 ^오 삼막삼몬다야 ^오 오씨사 ^오 마하시다다.바드람 ^오 마하시던도 ^오 만드라.바나야 ^오 스바하 ^{오[92a-92b]}

5) 불정존승다라니

佛頂尊勝陀羅尼

진언	namobhagavate(1) trailokya(2) prati(3) viśiṣṭaya(4) muddhaya(5) bhagavate(6) tadyathā(7) om(8) viśudhaya(9) viśodhaya(10) samāsama(11) samanta(12) vabhasa(13) spha
한자	曩謨婆識嚩帝 ^一 怛嚩 ^{[二合]路枳也^{[二合]二鉢囉^{[二合]底^三尾悉瑟吒^{[二合]野^四冒駄野^五}} 婆識嚩帝^六 怛你也^{[二合]他^七唵^八尾秣吒野^九尾秣吒野^十娑麼娑麼^一娑万哆^二 嚩婆娑^三瑟破^[二合]}}}
오대	나무바아바데 ^오 드래루가 ^오 브라디 ^오 미시짜야 ^오 모다야 ^오 바아바데 ^오 다나타 ^오 음 ^오 미슈타야 ^오 미슈타야 ^오 사마사마 ^오 사만다 ^오 바바사 ^오 싸 ^[93a]
진언	raṇa gategahana(14) svābhā vaviśote(15) abhiṣimca(16) tumāṃ(17) sugatavaravacana(18) amṛta(19) bhiṣaikai(20) ahara(21) ahara(22) ayusandharāṇi(23)
한자	囉拏誡帝誡賀曩 ^四 娑嚩 ^{[二合]婆^引嚩尾秣帝^五阿鼻誡左^六觀捨^七素誡多嚩囉嚩左曩^八 阿蜜哩^{[二合]多^九鼻灑闍^{二十}阿賀囉^一阿賀囉^二阿庾散駄囉拏^三}}
오대	라나.아데아하나 ^오 싸바.바미슈데 ^오 아비신자 ^오 도맘 ^오 소아다.바라바자나 ^오 아므리다 ^오 비새게 ^오 아하라 ^오 아하라 ^오 아우산다라니 ^{오[93b]}
진언	śudhaya(24) śudhaya(25) gagana viśoddhe(26) uṣṇiṣavi jayaviśuddhe(27) sahasra raśmaṃ saṃcodite(28) sarvātathāgatā valokaṇi(29) satpāramitā
한자	戌駄野 ^四 戌駄野 ^五 誡誡曩尾秣弟 ^六 鄔瑟拏 ^{[二合]沙尾惹野尾秣弟^七} 娑賀娑囉 ^{[二合]囉濕茗^{[二合]散祖泥帝^八薩唎嚩^{[二合]多他誡哆^引嚩路迦拏^九} 娑怛播^{[二合]囉弭哆^引}}}
오대	슈다야 ^오 슈다야 ^오 아아나.미술데 ^오 오새사미.샤야미술데 ^오 사하스라.라스명.산조니데 ^오 살바다타아다.바루가니 ^오 사드바라미다 ^[94a]
진언	paripurāṇi(30) sarvātathāgatāhṛdaya(31) dhiṣṭana(32) dhiṣṭhita(33) mahāmudra(34) vajrakaya(35) simhātana viśoddhe(36) sarvāvaranapaya durgati

- 169) ‘읏’자가 있는 것은 한글 텍스트에서 끊기가 반영되지만 한자 텍스트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오류라는 의미로 ‘誤’을 나타내는 글자로 판단된다. 이러한 표기는 중국어 번역 당시부터 사용되었던 것인지 한국에서 첨가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 170) 원본의 표기 그대로 반영하였다. 한자 텍스트에 간혹 권점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 중국어 번역의 원문에는 없었지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추가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 171) 한자에서 응당 六이 있어야 하는데 빠졌다. 한글은 한자 텍스트에 따라 ㅁ으로 표기하였다. 즉 한글 절 경계는 우선 한자의 句를 우선으로 한다.
- 172) 사십이수진언에서 ‘탁’, 여기서 탁
- 173) 원본에서 한자가 ‘六’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읏’의 오류일 것이다.
- 174) 원본에서 ‘ㅇ’으로 되어 있지만 마땅히 ‘ㅇ’이어야 한다.
- 175) 실제 원본에서 ‘入’으로 되어 있는데 ‘八’의 잘못된 되기로 판단된다.

한자	跋里布囉泥 ^{三十} 薩囉嚩 ^{二合} 怛他誡多 ^引 紇哩 ^{二合} 拏野 ^一 地瑟吒 ^{二合} 那 ^二 地瑟底 ^{二合} 多 ^三 摩賀母捺囉 ^{二合} 嚩日囉 ^{二合} 迦野 ^五 僧賀多那 ^引 尾戌弟 ^六 薩囉嚩 ^{二合} 嚩囉曩跋野訥誡底
오대	바리보라니○ 살바다타아다흐리나야○ 디짜나○ 디찌다○ 마하모느라○ 바스라가야○ 싱하다나미술데○ 살바바라나바야.놀아디 ^[94b]
진언	pariśuddhe(37) pratidi martaya ayuśuddhe(38) samaya dhiṣṭhite(39) mañimaṇi(40) mamaṇi(41) tathāḍa bhūtakodhi pariśuddhe(42) visphoṭa modhiśuddhe(43)
한자	跋哩戌弟 ^七 鉢囉 ^{二合} 底拈轆哆野阿庾秣弟 ^八 娑麼野地瑟底 ^{二合} 帝 ^九 麼拈麼拈 ^{四十} 麼麼泥 ^一 多歎哆步哆具地跋哩戌弟 ^二 尾瑟普 ^{二合} 姤母地秣弟 ^三
오대	바리술데○ 브라디니.말다야.아유술데○ 사마야.디찌데○ 마니마니○ 마마니○ 다탄다.보다구디.바리술데○ 미썸타.모디술데○ ^[95a]
진언	jāyajāya(44) vijayavijaya(45) smarasmara(46) sarvāmuddhā dhiṣṭhita śuddhe(47) vajre(48) vajra garbhe(49) vajraṃ(50) bhavatu mamasya(51) śariraṃ sarvāsatvānām
한자	惹野惹野 ^四 尾惹野尾惹野 ^五 娑麼 ^{二合} 囉娑麼 ^{二合} 囉 ^六 薩囉嚩 ^{二合} 母駄地瑟底 ^{二合} 多秣弟 ^七 嚩日嚩 ^{二合} 八 嚩日囉 ^{二合} 藥陸 ^九 嚩日覽 ^{二合} 五十 婆嚩靚麼麼寫 ^一 舍哩嚩薩囉嚩 ^{二合} 薩怛嚩 ^{二合} 難
오대	샤야샤야○ 미샤야미샤야○ 스마라스마라○ 살바몰다.디찌다.술데○ 바스레○ 바스라알베.바스람○ 바바도.마마샤○ 샤리람.살바사드바난 ^[95b]
진언	ca(52) kāya pariśuddhe(53) sarvāgati pariśuddhe(54) sarvātathāgatā scamem(55) samasvā sayamtu(56) sarvātathāgatā samasvāsa(57) dhiṣṭhite(58) muddhyamu
한자	左 ^二 迦 ^引 野跋哩秣弟 ^三 薩囉嚩 ^{二合} 誡底跋哩秣弟 ^四 薩囉嚩 ^{二合} 多他誡哆室者 ^{二合} 銘 ^五 娑麼濕囉 ^{二合} 娑演靚 ^六 薩囉嚩 ^{二合} 多他誡多娑麼濕囉 ^{二合} 娑 ^七 地瑟底 ^{二合} 帝 ^八 母地也 ^{二合} 母
오대	자○ 가야.바리술데○ 살바아디.바리술데○ 살바다타아다.스자명○ 사마스바.사연도○ 살바다타아다.사마빠사○ 디찌데○ 몰다몰 ^[96a]
진언	ddhya(59) vimudhaya(60) vimudhaya(61) sarimanta pariśuddhe(62) sarvātathāgatāhṛdaya(63) dhiṣṭhana(64) dhiṣṭhita(65) mahāmudre(66) svāhā
한자	地也 ^{二合} 九 尾母駄野 ^{六十} 尾母駄野 ^一 三万哆跋哩秣弟 ^二 薩囉嚩 ^{二合} 怛他誡哆紇哩 ^{二合} 拏野 ^三 地瑟吒 ^{二合} 那 ^四 地瑟底 ^{二合} 哆 ^五 摩賀母捺囉 ^{二合} 六 娑嚩 ^{二合} 賀
오대	다○ 미모다야○ 미모다야○ 삼만다.바리술데○ 살바다타아다.흐리나야○ 디짜나○ 디찌다○ 마하모느레○ 스바하 ^[96b]

尊勝大心呪

진언	omamṛda prabhe vipulagarbhe bodhisatme siddhisidhi mahāgarbhe dhuludhurusvāhā
한자	俺阿蜜哩 ^{二合} 多鉢囉 ^{二合} 陸尾布攞藥陸母地娑多迷 ^{二合} 悉地悉地麼賀藥陸度嚩度嚩娑嚩 ^{二合} 賀
오대	옴아므리다.브라베.미보라알베.모디사드메.시디시디.마하알베.도로도로스바하 ^[97a]

尊勝小心呪

진언	omamṛta javati svāhā
한자	俺阿蜜哩 ^{二合} 多惹嚩底娑嚩 ^{二合} 賀
오대	옴아므리다.샤바디스바하 ^[97b]

부록2: 산스크리트 원어와의 대비-신묘장구대다라니¹⁷⁶⁾

문장1

[원어] namo ratnatrayāya
[오대] namo ratnatrayāya
[만연] namo ratnatrayāya
[망월] namo ratnatrayāya
[번역] 三寶께 敬拜/歸依[합니다]

문장2

[원어] nama āryāvalokiteśvarāya bodhisttvāya mahāsattvāya mahākārunikāya
[오대] namaḥ aṛyaḥvalokiteśvārāya b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uṇikāya
[만연] namaḥ āryaḥvalokiteśvārāya m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aṇikāya
[망월] namaḥ aṛyaḥvalokiteśvārāya b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uṇikāya
[번역]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께, 깨달음의 존재자/菩薩께,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께, 위대한 수행자/大慈大悲의 존재자께 敬拜/歸依[합니다]

문장3

[원어] om sarvabhayeṣu trāṇakarāya tasmai namas
[오대] om sarvābhayesa trāṇakaraya tasyamyem namoḥ
[만연] om sarvābhayesa trāṇakaraya tasyamyem namoḥ
[망월] om sarvābhayesa trāṇakaraya tasyamyam namoḥ
[번역] 옴, 공포/두려움을 가진 피조물들에서(/에 대해/를) 보호를 수행하는 [존재자인] 그에 敬拜/歸依[합니다]

문장4

[원어] kṛtvā imāmāryāvalokiteśvarastavaṃ nilakaṇṭhanāma hṛdayaṃ
[오대] skṛtvā imāmā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만연] skṛtvā imāmā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망월] skṛtvā imāmā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원어] vartayiṣyāmi sarvārthasāadhanam śubham ajeyam sarvābhūtānam
[오대]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am śubham ajeyam sarvābhūtānam
[만연]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am śobham ajeyam sarvābhūtānam
[망월]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am śubham ajeyam sarvābhūtānam

[원어] bhavamārgaviśodhakam
[오대] bhavamargamiśūdhakam
[만연] bhavamargamiśodhakam
[망월] bhavamargamiśūdhakam

[번역]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에 대해 이와 같은/다음의 찬양을 하고난 후에(는) 오! 검푸른 목/青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자시여! 저는 (저의) 마음이 모든 목적을 조장하는 아름다움/빛으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모든 피조물의

176) 산스크리트 원어 텍스트의 복원과 한국어 번역은 전순환(2005)을 참고하였다.

생명의 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게 할 것입니다!

문장5

[원어] tadyathā

[오대] tadyathā

[만연] tadyathā

[망월] tadyathā

[번역] 이러(한 것으로)하여

문장6

[원어] om āloka e ālokamatilokātikrānta ehyehi

[오대] om aloke aloka¹matilokātikrānte hehe

[만연] om aloke aloka¹matilokātikrānte hehe

[망월] om aloke aloka¹matilokātikrānte hehe

[번역] 음, 오! 면밀한 注視를 하는 존재자시여, 면밀한 注視의 마음으로 세상을 초월한 존재자시여! 가소서, 가소서!

문장7

[원어] hare mahābodhisattva smarasmara hṛdayaṁ kurukuru

[오대]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만연]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망월]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원어] karma sādhasādhaya dhurudhurū

[오대] karma sādhasādhaya dhurudhurū

[만연] karma sādhasādhaya dhurūdhurū

[망월] karma sādhasādhaya dhurudhurū

[번역] 오! (황)금색의 옷을 걸친 존재자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이시여, (그) 마음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 일/業을 수행하소서, 수행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지탱하소서, 지탱하소서!

문장8

[원어] vijayanta e mahāvijayanta e dharadhara dharāṇi

[오대]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rāṇi

[만연]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rāṇi

[망월]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rāṇi

[번역] 오! 승리의 존재자시여, 위대한 승리의 존재자시여, 大地를 지탱하소서, 지탱하소서!

문장9

[원어] dhareśvara calacala

[오대] dhareśvāra calacala

[만연] dhareśvāra calacala

[망월] dhareśvāla calacala

[번역] 오, 지탱의 지배자시여, 起動하소서, 起動하소서!

문장10

[원어] malla vimalāmalamūrtte ehyehi
 [오대] mala vimalaamalamurte ehyehe
 [만연] mala mimalaamalamurte ehyehe
 [망월] mala vimalaamalamurte ehyehe
 [번역] 오! 존재자시여, 흠이 없고 얼룩이지지 않은 體現이시여, 가소서, 가소서!

문장11

[원어] lokaśvara rāgaviṣaṁ vināśaya dveṣaviṣaṁ vināśaya
 [오대] lokaśvārā rāgaviṣa vināśaya dveṣaviṣa vināśaya
 [만연] lokaśvārā rāgaṁṣa mīnāśaya dveṣaṁṣa mīnāśaya
 [망월] lokaśvārā rāgaviṣa vināśaya dveṣaviṣa vināśaya
 [번역]

[원어] mohajālaviṣaṁ vināśaya huluhulu
 [오대] mohājalaviṣa vināśaya holuholu
 [만연] mohājalamiṣa mīnāśaya holuholu
 [망월] mohājalaviṣa vināśaya holoholo

[번역] 오! 세상의 지배자시여,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독을 몰아내게 하소서, 증오의 독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물과 같이 퍼져있는 혼란/꼬임의 독을 몰아내게 하소서!

문장12

[원어] malla hulu
 [오대] mala hulu
 [만연] mala hulu
 [망월] mala hōlu
 [번역] 오! 존재자시여, 가져오소서!

문장13

[원어] hare padmanābha sarasara sirisiri surusuru budhyabudhya
 [오대]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만연]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망월]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원어] bodhayabodhaya
 [오대] modhayamodhaya
 [만연] modhayamodhaya
 [망월] modhayamodhaya

[번역] 오! (황)금색의 옷을 걸친 존재자시여, 연꽃의 중심(점)이시여, 서둘러 가소서, 서둘러 가소서, 서둘러 가소서, 깨어나지소서, 깨어나지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문장14

[원어] maitriya nilakaṇṭha kāmasya darśanena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오대] maitriya ni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m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만연] maitriya ni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m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망월] maitriya ni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m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번역] 오! 검푸른 목/靑頸을 갖는 동맹의 존재사시여, 희망의 視覺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기뻐하게 하소서! 사바하

문장15

[원어] siddhāya svāhā
 [오대] sidhāya svāhā
 [만연] sidhāya svāhā
 [망월] sidhāya svāhā
 [번역] 수행한/완전한 존재자에게 (敬拜/歸依) (합니다). 사바하

문장16

[원어] mahāsiddhāya svāhā
 [오대] mahāsidhāya svāhā
 [만연] mahāsidhāya svāhā
 [망월] mahāsidhāya svāhā
 [번역] 위대한 성취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17

[원어] siddhayogeśvarāya svāhā
 [오대] sidhāyogeśvaraya svāhā
 [만연] sidhāyogeśvaraya svāhā
 [망월] sidhāyogeśvaraya svāhā
 [번역] 완전한 지배자에게 (敬拜/歸依) (합니다). 사바하

문장18

[원어] nilakaṇṭhāya svāhā
 [오대] nilakaṇṭhaya svāhā
 [만연] nilakaṇṭhaya svāhā
 [망월] nilakaṇṭhaya svāhā
 [번역] 검푸른 목/靑頸을 갖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19

[원어] varāhamukhasirīhamukhāya svāhā
 [오대] varahamukhasirīhamukhaya svāhā
 [만연] varahamukhasirīhamukhaya svāhā
 [망월] varahamukhasirīhamukhaya svāhā
 [번역] 멧돼지의 얼굴과 사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 (합니다). 사바하

문장20

[원어] padmahastāya svāhā
 [오대] padmāhastaya svāhā
 [만연] padmāhastaya svāhā
 [망월] padmāhastaya svāhā
 [번역] 연꽃을 손에 쥐고/들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1

[원어] cakrāyudhāya svāhā

[오대] cakrāyudhaya svāhā
 [만연] cakrāyudhaya svāhā
 [망월] cakrāyudhaya svāhā
 [번역] 원반으로 싸우는 전사/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2

[원어] śaṅkhaśabdanibodhanāya svāhā
 [오대] śaṅkhaśabṇanebodhanaya svāhā
 [만연] śaṅkhaśabṇanebodhanaya svāhā
 [망월] śaṅkhaśabṇanebodhanaya svāhā
 [번역] 소라(껍질)의 소리를 알아채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3

[원어] mahālakṣadharāya svāhā
 [오대] mahālakṣadharaya svāhā
 [만연] mahālakṣadharaya svāhā
 [망월] mahālakṣadharaya svāhā
 [번역]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4

[원어] vāmaskandhadeśasthitakṛṣṇajīnāya svāhā
 [오대] vāmaskāndhaniśasthitakṛṣṇajīnaya svāhā
 [만연] vāmaskāndhaniśasthitakṛṣṇajīnaya svāhā
 [망월] vāmaskāndhaniśasthitakṛṣṇajīnaya svāhā
 [번역] 왼쪽 어깨의 위치에 (선/서있는) 검은 영양 가죽을 걸치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5

[원어] vyāghracarmanivasanāya svāhā
 [오대] vyāghracarmanivasanaya svāhā
 [만연] vyāghracarmanivasanaya svāhā
 [망월] vyāghracarmanivasanaya svāhā
 [번역] 호랑이의 가죽을 걸치고 있는 존재자에게 (敬拜/歸依)(합니다). 사바하

문장26

[원어] namo ratnatrayāya
 [오대] namo ratnatrayāya
 [만연] namo ratnatrayāya
 [망월] namo ratnatrayāya
 [번역] 문장1과 동일함.

문장27

[원어]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 svāhā
 [오대] namaḥ aṛyaḥvalokiteśvārāya svāhā
 [만연] namaḥ āryaḥvalokiteśvārāya svāhā
 [망월] namaḥ aṛyaḥvalokiteśvārāya svāhā
 [번역] 문장2와 동일함.

부록3: 한글 텍스트 형태 경계 단위의 비교

ㄱ)	namo ratnatrayāya(1) nama āryāvalokiteśvarāya(2)
ㄴ)	nam-as ratna=traya-aya(1) nam-as ārya=avalokita=iśvara-aya(2)
ㄷ)	<u>namo ratna</u> trayāya(1) nama āryā valokite śvarāya(2)
韓)	나모(라)드나드라야야 나막알약바로기데시바라야
漢)	曩謨囉怛曩 _[二合] 怛囉 _[二合] 夜 _引 野 _一 莫啊哩也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囉野 _二
ㄱ)	bodhisttvāya mahāsattvāya(3) mahākārunikāya(4)
ㄴ)	bodhi=sattva-aya mahā=sattva-aya(3) mahā=kārunika-aya(4)
ㄷ)	bodhi sttvāya mahā sattvāya(3) mahā kārunikāya(4)
韓)	보디사드바야마하사드바야 마하가로니가야
漢)	冒地薩怛嚩 _[二合] 野摩賀 _引 薩怛嚩 _[二合] 野 _三 摩賀迦 _引 嚩拏迦野 _四
ㄱ)	om(5) sarvabhayeṣu(6) trāṇakarāya tasmai(7)
ㄴ)	om(5) sarva=bhay-a~eṣu(6) trā-ṇa=kar-a-aya tasm-ai(7)
ㄷ)	om(5) sarva bhayeṣu(6) trāṇa karāya tasmai(7)
韓)	옴 살바바예수 드라나가라야다샤명
漢)	唵 _五 薩唎嚩 _[二合] 婆曳數 _六 怛囉 _[二合] 拏 _引 迦囉野怛寫銘 _七
ㄱ)	namas(8) kṛtvā imam(9)>āryāvalokiteśvarastavaṃ(10)
ㄴ)	nam-aḥ(8) kṛ-tu-ā im-am(9) āri~ya=ava-lok-a~ita=iś-vara=stav-a-m(10)
ㄷ)	namas(8) kṛtvā imam(9) āryā valokite śvara stavaṃ(10)
韓)	나막 쓰리드바이맘 알야바로기데식바라다바
漢)	曩莫塞訖哩 _[三合] 怛嚩 _[二合] 引 _八 伊舍 _引 九 啊哩也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引 _{囉怛嚩} _十
ㄱ)	nilakanṭhanāma hṛdayaṃ(11) vartayiṣyāmi(12)
ㄴ)	nila=kanṭha=nāma hṛd-aya-m(11) vart-aya~iṣyā-mi(12)
ㄷ)	<u>nila kanṭha</u> nāma hṛdayaṃ(11) varta yiṣyāmi(12)
韓)	니라간타나막호리나야 마발다이샤미
漢)	顛囉建陀曩麼訖哩 _[二合] 娜野 _一 麼嚩唎 _[二合] 以瑟也 _[二合] 引 _弭 _二
ㄱ)	sarvārthasādhanaṃ(13) śubham ajeyaṃ(14)
ㄴ)	sarva=ar-tha=sādh-ana-m(13) śubh-am a-je-ya-m(14)
ㄷ)	sarvārtha sādhanaṃ(13) śubham ajeyaṃ(14)
韓)	살발타사다남 슈반에세염
漢)	薩唎嚩 _[二合] 囉他 _[二合] 娑駄喃 _引 三 輸伴阿薺琰 _四
ㄱ)	sarvabhūtānām(15) bhavamārgaviśodhakam(16)
ㄴ)	sarva-bhū-ta-anām(15) bhav-a=mārg-a=vi-śodh-aka-m(16)
ㄷ)	sarva bhūtānām(15) <u>bhava mārga</u> viśodhakam(16)
韓)	살바보다남 바바말야미슈다감
漢)	薩唎嚩 _[二合] 步 _引 路 _引 喃 _五 婆嚩沫唎 _[二合] 尾戍駄劔 _六
ㄱ)	tadyathā(17) om(18) āloka e āloka(19)

ㄴ)	tad=ya-thā(17) om̃(18) ā-lok-a e ā-lok-a(19)
ㄷ)	<u>tad yathā</u> (17) om̃(18) āloka e āloka(19)
韓)	다나타ㅇ 움ㅇ 아로계ㅇ아로가ㅇ
漢)	怛你也 _{[二合]他_{引七} 唵_八 阿路計阿路迦_{引九}}
ㄱ)	>matilokātikrānta e(20) hyehi hare(21) mahābodhisattva(22)
ㄴ)	ma-ti=lok-a=ati-krān-ta(20) e-hi#e-hi hare(21) mahā=bodh-i=s-at-tva(22)
ㄷ)	<u>mati lokā tigrānta</u> e(20) hyehi hare(21) <u>mahā bodhi</u> sattva(22)
韓)	마디로가ㅇ디ㄴ란데ㅇ 헤헤ㅇ하례ㅇ 마하모디ㅇ사ㄷ마ㅇ
漢)	麼底路迦底羯囉 _{[二合]諦_{二十} 醯醯賀嚧_一 摩賀冒地薩怛嚩_{[二合]引二}}
ㄱ)	smarasmara hrdayam̃(23) kurukuru karma(24) sādahaya(25)
ㄴ)	smar-a#smar-a hrd-aya-r̃m̃(23) kur-u#kur-u kar-ma(24) sād-h-aya(25)
ㄷ)	smara smara hrdayam̃(23) kuru kuru karma(24) sādahaya(25)
韓)	스마라ㅇ스마라ㅇㅎ리나야ㅇ 구로ㅇ구로ㅇ갈마ㅇ 사다야ㅇ
漢)	娑麼 _{[二合] 囉娑麼_{[二合] 囉紇哩_{[二合] 娜野_三 矩嚕矩嚕羯囉麼_{[二合]四 娑_引達野娑駄野_五}}}}
ㄱ)	>sādahaya dhurudhuru vijayanta e(26) mahāvijayanta e(27)
ㄴ)	sād-h-aya dhur-u#dhur-u vi-jay-ant-a e(26) mahā=vi-jay-ant-a e(27)
ㄷ)	sādahaya dhuru dhuru vi(ja)yanta e(26) mahā vijayanta e(27)
韓)	사다야ㅇ도로ㅇ도로ㅇ미연데ㅇ 마하ㅇ미연데ㅇ
漢)	度嚕度嚕尾演 _引 諦 _六 摩賀尾演諦 _七
ㄱ)	dharadhara dharani(28) dhareśvara calacala(29)
ㄴ)	dhar-a#dhar-a dhar-aṇi-m dhar-a=i(28) ś-vara cal-a#cal-a(29)
ㄷ)	dhara dhara dharanidhare(28) śvara calacala(29)
韓)	다라다라ㅇ다린느례ㅇ 시바라ㅇ자라자라ㅇ
漢)	駄囉駄囉達隣捺嚧 _{[二合]引八 濕嚩_{[二合] 囉左囉左囉_九}}
ㄱ)	malla vimalā(30)>malamūrtte(31) ehyehi(32)
ㄴ)	mal-la vi-mala-a(30) mala=mūr-tte(31) e-hi#e-hi(32)
ㄷ)	malla vimalā(30) mala mūrtte(31) ehyehi(32)
韓)	마라ㅇ미마라ㅇ 아마라ㅇ몰데ㅇ 예헤헤ㅇ
漢)	摩囉尾摩囉 _{三十} 阿摩囉母嚧 _一 暲醯曳 _{[二合]四二}
ㄱ)	lokeśvara rāga(33)>viṣaṁ vināśaya(34) dveṣaviṣaṁ vināśaya(35)
ㄴ)	lok-a=iś-vara rāg-a(33) viṣa-r̃m̃ vi-nāś-aya(34) dveṣ-a=viṣa-r̃m̃ vi-nāś-aya(35)
ㄷ)	loke śvara rāga(33) viṣaṁ vināśaya(34) <u>dveṣa viṣaṁ</u> vināśaya(35)
韓)	로계ㅇ시바라ㅇ라야ㅇ 미사미ㅇ나샤야ㅇ 느베사미ㅇ사미ㅇ나샤야ㅇ
漢)	路計濕嚩 _{[二合]引 囉囉_引 誡_三 尾灑尾曩_引捨野_四 爾吠_{[二合] 灑尾灑尾曩捨野_五}}
ㄱ)	mohajālavīṣaṁ vināśaya(36) huluhulu(37) malla hulu hare(38)
ㄴ)	moh-a=jāla=viṣa-r̃m̃ vi-nāś-aya(36) hul-u#hul-u(37) mal-la hul-u hare(38)
ㄷ)	moha jāla viṣaṁ vināśaya(36) hulu hulu(37) malla hulu hare(38)
韓)	모하ㅇ자라ㅇ미사미ㅇ나샤야ㅇ 호로ㅇ호로ㅇ 마라ㅇ호로ㅇ하례ㅇ

漢)	謨 _引 賀左羅尾灑尾曩捨野 _六 虎嚕虎嚕 _七 麼羅虎嚕賀黎 _八
ㄱ)	padmanābha(39) sarasara(40) sirisiri(41) surusuru(42)
ㄴ)	padma=nābha(39) sar-a#sar-a(40) siri siri(41) sur-u#sur-u(42)
ㄷ)	padma nābha(39) sara sara(40) siri siri(41) <u>suru suru</u> (42)
韓)	바느마.나바 _○ 사라.사라 _○ 시리.시리 _○ <u>소로소로</u> _○
漢)	鉢娜麼 _[二合] 曩婆 _{引九} 娑囉娑囉 _{四十} 悉哩悉哩 _一 素 _上 嚕素嚕 _二
ㄱ)	budhyabudhya(43) bodhayabodhaya(44) maitriya(45)
ㄴ)	budh-ya#budh-ya(43) bodh-aya#bodh-aya(44) mai-tra~iya(45)
ㄷ)	budhya budhya(43) bodhaya bodhaya(44) maitriya(45)
韓)	몬다몬다 _○ 모다야.모다야 _○ 띠드리아 _○
漢)	沒地野 _[二合] 沒地野 _{[二合]三} 冒駄野 _[二合] 冒駄野 _{[二合]四} 昧怛哩 _[二合] 野 _五
ㄱ)	nilakanṭha(46) kāmasya darśanena(47) prahlādaya manah(48)
ㄴ)	nila=kanṭha(46) kā-ma-sya darś-ana~ena(47) pra-hlād-aya man-aḥ(48)
ㄷ)	nila kanṭha(46) kāmasya darśanena(47) pra hlā daya manah(48)
韓)	나라간타 _○ 가마샤.닐샤남 _○ 브라.홀라.나야.마낙 _○
漢)	顛羅建陀 _六 迦麼寫捺哩捨 _{[二合]喃七} 鉢囉 _[二合] 賀囉 _[二合] 娜野摩 _{引諾八入}
ㄱ)	svāha(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siddhāya(52)
ㄴ)	svāhā(49) sidha-aya(50) svāhā(51) mahā=siddha-aya(52)
ㄷ)	svāha(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 siddhāya(52)
韓)	스바하 _○ 신다야 _○ 스바하 _○ 마하.신다야 _○
漢)	娑嚩 _{[二合]引賀引九} 悉駄野 _{五十} 娑嚩 _{[二合]賀一} 摩賀悉駄野 _二
ㄱ)	svāha(53) siddhayogeśvarāya(54)
ㄴ)	svāhā(53) siddha=yog-a=iś-vara-aya(54)
ㄷ)	svāhā(53) <u>siddha yoge</u> śvarāya(54)
韓)	스바하 _○ 신다유예.시바라야 _○
漢)	娑嚩 _{[二合]賀三} 悉駄喻藝 濕嚩 _{[二合]囉野四}
ㄱ)	svāha(55) nilakanṭhāya(56) svāhā(57) varāhamukha(58)
ㄴ)	svāhā(55) nila=kanṭha-aya(56) svāhā(57) varāha=mukha(58)
ㄷ)	svāhā(55) nila kanṭhāya(56) svāhā(57) varāha mukha(58)
韓)	스바하 _○ 나라.간타야 _○ 스바하 _○ 바라하.목카 _○
漢)	娑嚩 _{[二合]賀五} 顛羅建陀野 _六 娑嚩 _{[二合]賀七} 嚩囉賀目佉 _八
ㄱ)	>simhamukhāya(59) svāhā(60) padmahastāya(61)
ㄴ)	simha=mukha-aya(59) svāhā(60) padma=hasta-aya(61)
ㄷ)	simha mukhāya(59) svāhā(60) padma hastāya(61)
韓)	싱하.목카야 _○ 스바하 _○ 바느마.하짜야 _○
漢)	僧賀目佉野 _九 娑嚩賀 _{六十} 鉢娜麼 _{[二合]引賀} 賀娑跢野 _一
ㄱ)	svāhā(62) cakrāyudhāya(63) svāhā(64) śaṅkhaśabdani(65)
ㄴ)	svāhā(62) ca-kr-ā=yudh-a-aya(63) svāhā(64) śaṅkha=śab-da=ni(65)

ㄷ)	svāhā(62) cakrā yudhāya(63) svāhā(64) śaṅkha śabdani(65)
韓)	스바하ㅇ 자ㄴ라.욕다야ㅇ 스바하ㅇ 상카.섭나네ㅇ
漢)	娑嚩 _[二合] 賀 _二 作羯囉 _[二合] 欲馱野 _三 娑嚩 _[二合] 賀 _四 商佉攝娜寧 _五
ㄱ)	>bodhanāya(66) svāhā(67) mahālakūṭa(68)>dharāya(69)
ㄴ)	bodh-ana-aya(66) svāhā(67) mahā=lakūṭa(68) dhar-a-aya(69)
ㄷ)	bodhanāya(66) svāhā(67) mahā lakūṭa(68) dharāya(69)
韓)	모다나야ㅇ 스바하ㅇ 마하(라).구타ㅇ 다라야ㅇ
漢)	冒達曩野 _六 娑嚩 _[二合] 賀 _七 摩賀囉矩吒 _[八] 馱囉野 _[九]
ㄱ)	svāhā(70) vāmaskandhadeśasthita(71)>kṛṣṇajināya(72)
ㄴ)	svāhā(70) vā-ma=skandha=deś-a=sthi-ta(71) kṛṣṇa=ajina-aya(72)
ㄷ)	svāhā(70) vāma skandha deśa sthita(71) kṛṣṇa jināya(72)
韓)	스바하ㅇ 바마.스 간타.니샤.시테다ㅇ ㄴ릿나.ㄷ나야ㅇ
漢)	娑嚩 _[二合] 賀 _[七十] 嚩麼娑建姤你捨悉體 _[二合] 踰 _[一] 訖哩 _[二合] 瑟拏諾曩野 _[二]
ㄱ)	svāhā(73) vyāghracarma(74)>nivasanāya(75) svāhā(76)
ㄴ)	svāhā(73) vi-ā-ghra=carma(74) ni-vas-ana-aya(75) svāhā(76)
ㄷ)	svāhā(73) vyāghra carma(74) niva sanāya(75) svāhā(76)
韓)	스바하ㅇ ㅁㄴ라.잘마ㅇ 니바.사니야ㅇ 스바하ㅇ
漢)	娑嚩 _[二合] 賀 _[三] 尾野 _[二合] 伽囉 _[二合] 撝唎麼 _[二合] [四] 你嚩娑曩野 _[五] 娑嚩 _[二合] 賀 _[六]
ㄱ)	namo ratnatrayāya(77)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78)
ㄴ)	nam-o ratna=tray-a-aya(77) nam-aḥ āri~ya=ava-lok-a-ita=iś-vara-aya(78)
ㄷ)	namo ratna trayāya(77) namaḥ āryā valokite śvarāya(78)
韓)	나모(라).드나드라.야야ㅇ 나막.알야.바로기테.시바라야ㅇ
漢)	曩謨囉怛曩 _[二合] 怛囉 _[二合] 夜野 _[七] 曩莫啊 _[八] 哩也 _[二合] 嚩路枳諦濕嚩 _[二合] 囉野 _[八]
ㄱ)	svāhā(79)
ㄴ)	svāhā(79)
ㄷ)	svāhā(79)
韓)	스바하
漢)	娑嚩 _[二合] 賀

설명:

- 1) ‘>’ 기호는 원문의 단어뭉치가 끊어지지 않는 부분에 한자의 구가 끊어지는 부분이다.
- 2) 한글의 끊기와 불일치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부록4: 제 학자들의 『切韻』 재구음 비교표

<聲母類>¹⁷⁷⁾

	갈그렌	李方桂	陸志韋	董同龢	李榮	王力	邵榮芬	蒲立本	周法高	鄭張尚芳
幫	p	p	p	p	p	p	p	p	p	p
滂	p'	ph	p'	p'	p'	p'	p'	ph	p'	ph
並	b'	b	b	b'	b	b'	b	b	b	b
明	m	m	m	m	m	m	m	m	m	m
端	t	t	t	t	t	t	t	t	t	t
透	t'	th	t'	t'	t'	t'	t'	th	t'	t'
定	d'	d	d	d'	d	d'	d	d	d	d
泥	n	n	n	n	n	n	n	n	n	n
娘	ń	ŋ					n̥	ŋ	ŋ	n̥
知	t̪	t̪	t̪	t̪	t̪	t̪	t̪	t̪	t̪	t̪
徹	t̪'	t̪h	t̪'	t̪'	t̪'	t̪'	t̪'	t̪h	t̪'	t̪h
澄	d̪'	d̪	d̪	d̪'	d̪	d̪'	d̪	d̪	d̪	d̪
精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清	ts'	tsh	ts'	ts'	ts'	ts'	ts'	tsh	ts'	tsh
從	dz'	dz	dz	dz'	dz	dz'	dz	dz	dz	dz
心	s	s	s	s	s	s	s	s	s	s
邪	z	z	z	z	z	z	z	z	z	z
莊	tʃ	tʃ	tʃ	tʃ	tʃ	tʃ	tʃ	tʃ	tʃ	tʃ
章	tʃ	tʃ	tʃ	tʃ	tʃ	tʃ	tʃ	c	tʃ	tʃ
初	tʃ'	tʃh	tʃ'	tʃ'	tʃ'	tʃ'	tʃ'	tʃh	tʃ'	tʃh
昌	tʃ'	tʃh	tʃ'	tʃ'	tʃ'	tʃ'	tʃ'	ch	tʃ'	tʃh
崇	dʒ'	dʒ	dʒ'	dʒ	dʒ	dʒ'	dʒ	dʒ	dʒ	dʒ
船	dʒ'	dʒ	z	dʒ'	dʒ	dʒ'	z	(ʒ)	ʒ	z
山	ʃ	ʃ	ʃ	ʃ	ʃ	ʃ	ʃ	ʃ	ʃ	ʃ
書	ʃ	ʃ	ʃ	ʃ	ʃ	ʃ	ʃ	ʃ	ʃ	ʃ
侯	ʒ	ʒ	dz	(ʒ)	z	z	ʒ	(ʒ)	dʒ	dʒ
禪	ʒ	ʒ		ʒ	ʒ		dz	dʒ		
見	k	k	k	k	k	k	k	k	k	k
溪	k'	kh	k'	k'	k'	k'	k'	kh	k'	kh
群	g'	g	g	g'	g	g'	g	g	g	g
疑	ŋ	ŋ	ŋ	ŋ	ŋ	ŋ	ŋ	ŋ	ŋ	ŋ
影	·	·	∅	?	?	∅	?	?	?	?
曉	x	x	x	x	x	x	x	h	x	h
匣	ɣ	ɣ	ɣ	ɣ	ɣ	ɣ	ɣ	ɦ	ɣ	ɦ
云	j	j						j	j	
以	∅	ji	j	∅	∅	j	∅	j	∅	j
來	l	l	l	l	l	l	l	l	l	l
日	ńz	ńz	n̥z	n̥	ń	ɾ	nz	ń	ń	n̥z

177) 권혁준 역 (2014:99-100)

<韻母>178)

韻攝	等	韻目	갈그렌	董同龢	李榮	王力	邵榮芬	陸志韋	蒲立本	周法高	鄭張尚芳
果	1等	歌	â	a	â	a	a	ɒ	a	a	a
	3等	戈	ja	ja	ia	ia	ia	ɪa	ja	ia	ia
假	2等	麻	a	a	a	a	a	a	a	a	ɣa
	3等	麻	ja	ia	ia	ia	ia	ia	ja	ia	ia
遇	1等	模	uo	uo	o	u	uo	wo	ou	uo	uo
	3等	虞	ju	juo	io	iu	io	ɪwo	jou	iuo	io
		魚	jwo	jo	ia	io	io	io	jio	io	ia
蟹	1等	泰	ai	ai	ai	ai	ai	ai	ai	ai	ai
		哈	qi	ai	ei	vi	vi	vi	ei	ei	ai
		灰	uqi	uai	uei	uvi	uvi	wɛi	uei	uei	uai
	2等	佳	ai	æi	ä	ai	æi	æi	æ	æi	ɣe
		皆	ai	ei	äi	ei	ei	ei	aai	ei	ɣei
		夬	ai(?)	ai	ai	æi	ai	ai(ɛi)	ai	ai	ɣai
	3等	祭A	jai	jæi	iai	iei	jæi	iei	jei	iai	iei
		祭B	jai	jæi	iai	iei	iai	iei	jei	iai	ɣiei
		廢	joi	jæi	iei	iei	iei	iei	jai	iai	iei
	4等	齊	iei	iei	ei	iei	ei	ei	ei	iei	iei
止	3等	支A	(j)ie	je	ie	ie	je	iei	je	ii	ie
		支B	(j)ie	jě	ie	ie	ie	iei	je	ie	ɣie
		脂A	(j)i	jei	i	i	ji	iei(>i)	ji	ii	ir
		脂B	(j)i	jěi	i	i	ii	iei(>i)	ji	iei	ɣir
		之	(j)i	(j)i	iə	ie	ie	ɪ(ə)i(>i)	jə	i	i
		微	(j)ei	jəi	iəi	iei	iəi	iei	jəi	iəi	ii
效	1等	豪	au	au	au	au	au	ɒu	au	au	au
	2等	肴	au	au	au	au	au	ɛu	au	au	ɣau
	3等	宵A	jau	jæu	iaü	ieü	jæu	ieü	jeu	iaü	ieü
		宵B	jau	jæu	iaü	ieü	iaü	ieü	jeu	iaü	ɣieü
	4等	蕭	ieu	ieu	eu	ieu	eu	eu	eu	ieu	eu
流	1等	侯	əu	u	u	əu	əu	əu	u	əu	əu
	3等	幽	jəu	jəu	ieü	iəu	ieü	ieü	A:jiu B:(jiu)	A:iu B:ieu	iu
		尤	jəu	ju	iu	ieü	iəu	ieü	ju	iəu	iu
咸	1等	談	am	am	am	am	am	am	am	am	am
		覃	qm	am	em	ɒm	ɒm	ɒm	əm	əm	am
	2等	銜	am	am	am	am	am	am	am	am	ɣam
		咸	am	em	em	em	em	em	aəm	əm	ɣem
	3等	鹽A	jäm	jäm	iam	iem	jäm	iem	jem	iam	iem
		鹽B	jäm	jäm	iam	iem	iam	iem	jem	iam	ɣiem
	3等	嚴	jɒm	jem	iem	iem	iem	iem	jam	iam	iem
		凡	jwɒm	juem	iuem	iwem	iem				
	4等	添	iem	iem	em	iem	em	em	em	iem	em

深	3등	侵A	jəm	jem	iəm	ǽm	jem	iēm	jim	im	ium
		侵B	jəm	jēm	iəm	ǽm	iem	iem	jim	iem	ɣim
山	1등	寒	ân	an	ân	an	an	ɒn(an)	an	an	an
	2등	刪	an	an	an	an	en	en	an	an	ɣan
		山	ǎn	æn	ǎn	æn	æn	an	aən	æn	ɣen
	3등	仙A	ǰän	jæn	iän	ǽn	jæn	ien	jen	iæn	ien
		仙B	ǰän	jǽn	iän	ǽn	iæn	ien	jæn	ian	ɣien
	3등	元	jɒn	jen	ien	ǽn	ien	ien	jan	ian	ien
臻	1등	痕	ən	ən	ən	ən	ən	ən	ən	ən	ən
		魂	uən	uən	uən	uən	uon	wən	uən	uən	uən
	2등	臻	jɛu	(j)en	iën	ǽn	ien	iën	in	en	in
	3등	眞A	jěn	jen	iën	ǽn	jen	iën	jim	im	im
		眞B	jěn	jěn	iën	ǽn	ien	iën	jim	ien	ɣim
	3등	殷	jən	jən	iən	ǽn	ien	ien	jən	ien	in
宕	1등	唐	âng	aŋ	âŋ	aŋ	aŋ	ɒŋ	aŋ	aŋ	aŋ
	3등	陽	jâng	jaŋ	iaŋ	ǽŋ	iaŋ	iaŋ	jaŋ	iaŋ	ieŋ
梗	2등	庚	ɒŋ	eŋ	eŋ	eŋ	aŋ	aŋ	aŋ	aŋ	ɣæŋ
		耕	eng	æŋ	ǣŋ	æŋ	eŋ	eŋ	aəŋ	æŋ	ɣeŋ
	3등	庚	jɒŋ	jɛŋ	ieŋ	ǽŋ	iaŋ	iæŋ	jaŋ	iaŋ	ɣiæŋ
		清	jǣŋ	jɛŋ	iǣŋ	ǽŋ	iæŋ	ieŋ	(jɛŋ) jɛŋ	iæŋ	ieŋ
曾	1등	青	ieng	ieŋ	eŋ	ieŋ	eŋ	eŋ	eŋ	ieŋ	eŋ
	3등	登	əŋ	əŋ	əŋ	əŋ	əŋ	əŋ	əŋ	əŋ	əŋ
通	1등	蒸A	jəŋ	jəŋ	iəŋ	ǽŋ	ieŋ	iěŋ	jəŋ	iuŋ ieŋ	inŋ
		蒸B	jəŋ	jəŋ	iəŋ	ǽŋ	ieŋ	iěŋ	jəŋ	ieŋ	inŋ
	3등	東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冬	uŋ	uŋ	uŋ	uŋ	uŋ	wŋ	uŋ	uŋ	uŋ
江	2등	東	jung	juŋ	iuŋ	ǽŋ	iuŋ	iuŋ	jung	iuŋ	iuŋ
		鍾	jwong	juŋ	ioŋ	ǽŋ	ioŋ	ioŋ	jwong	ioŋ	ioŋ